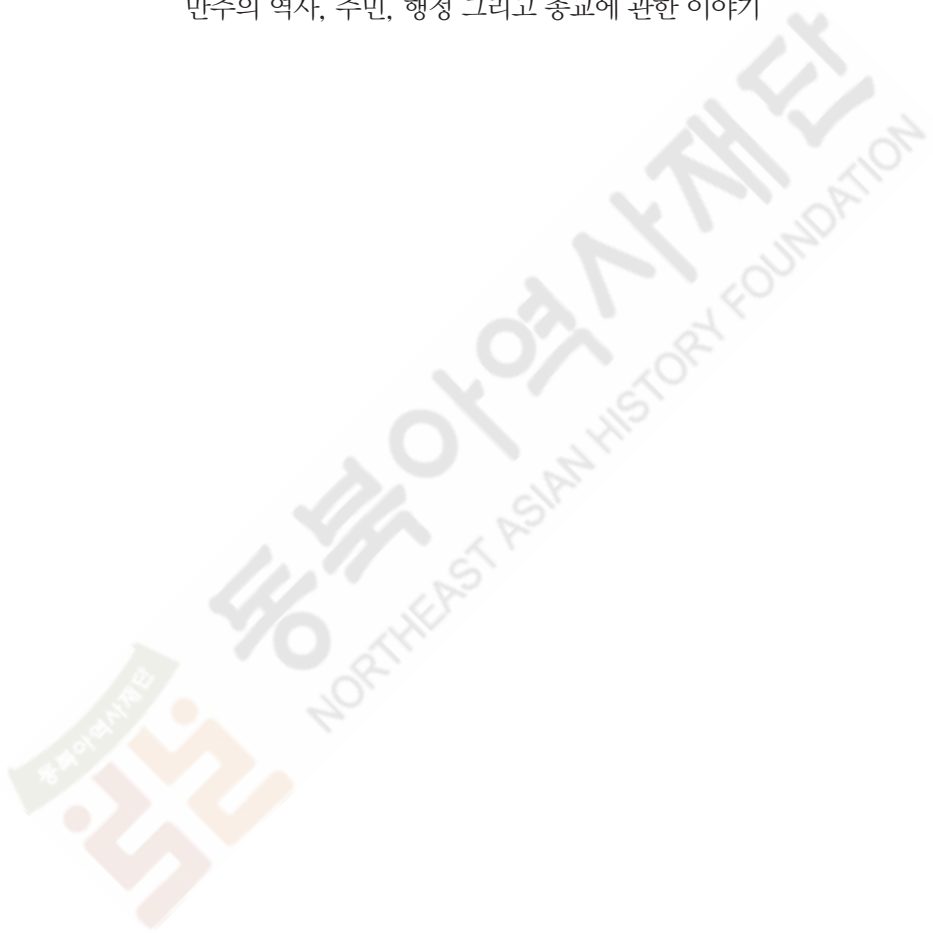


백두산 등정기  
만주의 역사, 주민, 행정 그리고 종교에 관한 이야기





THE LONG WHITE MOUNTAIN OR A JOURNEY IN MANCHURIA : WITH SOME ACCOUNT  
OF THE HISTORY, PEOPLE, ADMINISTRATION AND RELIGION OF THAT COUNTRY

H. E. M. James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백두산 등정기

만주의 역사, 주민, 행정 그리고  
종교에 관한 이야기

헨리 에번 머치슨 제임스 지음 | 조준배 옮김



작년에 다녀온 만주 여행에 대해 새로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단지 여행 중 겪었던 다양한 사건들이나 지리적 발견들이 소중했던 때문만은 아니다. 하지만 만주는 여러 측면에서 특별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약 300년 전 창바이산맥의 외곽에 위치한 한 계곡에서 타타르족의 조그마한 추장이 탄생했다. 그는 중국에 도전했고, 그 자손들은 결연한 투쟁 끝에 마침내 중국 왕조를 정복하여 현 왕조를 권좌 위에 올려놓았다. 1858년과 1860년, 러시아는 아무르(Amur) 강과 연해주 또는 프리모르스크(Primorsk) 지역 일부를 할양받으면서 모스크바 공국과 중국 수도 사이에 위치한 현재의 만주지역만을 남겨 놓았다. 과거에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대격돌의 현장이었으며 앞으로는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이게 될 만주는 역사가나 현재의 정치가 모두에게 관심의 대

상이다. 또한 소수의 만주족들이 급속하게 패권을 장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수백만에 달하는 피정복민들에게 노골적인 굴욕을 안겨주고, 나아가 그에 못지않은 속도로 제도와 언어 그리고 심지어 민족적 실체까지 피정복민에게 동화되는 과정은 아시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중의 하나였다.

경제학자와 행정가에게도 만주지방은 매우 흥미로운 곳이다. 즉 비적들의 끊임없는 약탈행위와 부패한 관리들로 인한 고통, 그리고 상업과 부의 축적에 방해가 되는 많은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비옥한 토지, 금, 철, 석탄, 목재와 같은 천연자원들과 기타 산물들이 풍부하여 이를 탐내는 엄청난 수에 달하는 식민 이주자들이 존재했다. 이들로 인해 만주지역은 발전이 두드러졌던 곳이다. 민족지연구자들에게도 만주는 경계선 내에 러시아인, 중국인, 몽골인, 만주인, 퉁구스인, 조선인 등 다양한 민족을 포함하고 있어 매력적이다. 그리고 군사 고문관에게는 한 손에 최신식 과학 무기를 들고 있으면서 다른 손에는 타타르식 활과 화살 그리고 징갈(Gingall)과 같은 낡고 오래된 무기를 놓으려 하지 않는 군관들의 기이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비교종교학 연구자와 독실한 기독교 신자는 만주의 기성종교가 다양한 기원을 지니는 미신의 복합체라는 점과 기독교의 양 극단종파에 속하는 두 선교단체가 이상숭배를 예수에 대한 지식으로 바꾸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주의 지리는 유럽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왕립 지리학회가 얼마 전 발간한 지도에는 상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전해지던 1만~1만 2천 피트 높이의 설봉들이 삽입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백두산 등정기를 포함한 우리의 여행담을 곁들여 만주의 지리적 개요, 역사, 주민, 행정, 종교들을 하나로 엮어보는

것이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백두산은 지난 3천 년간 많은 신화들을 낳았다. 그 가운데 만년설을 이고 있는 봉우리들의 탄생 이야기가 가장 압권이었다. 아무튼 필자의 책은 향후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연구에 임하게 될 미래의 연구자들에게 출발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동양의 역사 기록들은 늘 그렇듯이 성공한 통치자들의 전쟁과 업적들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필자의 역사적 개요 또한 필연적으로 초기 만주족의 공적들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필자는 초기의 만주족이 공물을 탐하는 마하라타족(Maharattas)처럼 단순한 약탈자에서, 스킨디아(Scindiah)나 홀카르(Holkar)보다도 훨씬 위대한 행정가이자 통치자로 바뀐 원인들을 규명하고자 노력했다. 현 왕조의 역사를 재위 중인 광서제까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영국을 상대로 한 전쟁과 그 원인들에 대한 서술 부분이 원래의 의도보다 길어졌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영국과의 전쟁에 너무 많은 오해가 있어 사실에 관해 다시 진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만주 왕조를 멸망에서 구한 고든(Gordon) 제독의 작전에 관한 이야기를 되풀이 하는 것도 독자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리고 아베 라리외(Abbé Larrieu)가 최근 오랜 벗인 만리장성에 대해 제기한 의문들이 근거 없다는 사실도 역사와 목판화를 통해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바다로부터 내륙으로 뻗어있는 300마일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말이다. 적어도 300마일의 거리를 고려해 볼 때 만리장성은 견고한 요새였고, 이는 장성이 건설된 목적을 말해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또한 그럴 것이다.

필자는 인도의 관점에서 만주의 행정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주제와 종교적 믿음에 관한 장은 염려스럽게도 일반 독자들에게는

그리 흥미롭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아편에 관한 필자의 견해도 감히 말한다면 이 주제에 정말 익숙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별 인기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순전히 우리의 여행이나 모험에 관심이 있어 책을 집어든 사람이라면 첫 여섯 개의 장들을 생략하라고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이 충고를 특히 모든 중국학 전문 연구자들에게 하고 싶다.

중국의 한 지방에 관한 개요를 대중에게 알기 쉽게 제시할 때에는 중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과 중국 문학 연구자에게 친숙한 것들을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일 어느 중국학자가 진지한 마음으로 이 책을 읽으려 한다면 책이 지닌 실수들을 살짝 눈감아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비록 정확성을 기하려 온갖 노력을 기울이긴 했지만, 중국에 관한 영국계 인도인의 서술이란 것이 뜻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영국과 중국 간의 무역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아마도 제5장의 통계에 들어있는 식량들을 발견하고 생각에 잠길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식량들은 만주와의 무역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주기 때문이다.

필자는 목텐에 있는 존 로스(John Ross) 목사의 큰 은혜에 감사드린다. 그의 역사 저술들은 필자와 같은 작가에게는 지식의 보고이다. 다른 주제들과 관련해서도 로스 씨의 귀중한 초고에 수록된 주(註)들과 대부분의 삽화들을 참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 중국어와 만주어의 비교를 담고 있는 논문인 「중국 보고(寶庫)」와 「중국 평론」, 「중국 이야기」, 「중국과 일본에 관한 주안점과 의문점」, 메도우즈(Meadows)·애드킨스(Adkins)·가드너(Gardner) 씨들이 작성한 탁월한 영사 보고서들과 『전도 연대기(Annales de la Propagation de la Foi)』 등은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코르디에(Cordier) 씨의 『중국서지

(Bibliotheca Sinica)와 데미트리우스 불저(Demetrius Boulger) 씨의 『중국사』 또한 극히 유익했다. 예수회의 서술들 특히 팔라폭스 우 멘도사(Palafox y Mendoza) 주교와 마티니(Martini) 신부의 저술들은 만주인의 중국 정복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매킨타이어(I. MacIntyre) 목사의 귀중한 논문도 본문에 참조되었다. 그러나 호워드(Howorth) 씨의 『몽골사』는 위대한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색인 부족으로 연구자들에게 그 가치가 반감되었다.

상하이의 윌리엄슨(Wilkinson) 목사가 지은 『북중국으로의 여행(Journeys in North China)』이란 저술에는 만주의 다른 지역에 대한 탐험기가 담겨 있다. 그리고 왕립 지리학회의 1872년 의사록에 포함되어 있는 학회 회원 델마 모건(E. Delmar Morgan) 씨의 논문은 중국으로 파견된 러시아 선교단 단장이자 선교원장인 팔라디우스(Palladius)가 1870년에 베이징을 출발하여 선양과 지린성을 거쳐 아무르 강변의 블라고베셴스크(Blagoveshchensk)에 도착한 여행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두 저작 모두 매우 쓸모 있고 훌륭한 지도들을 싣고 있다. 필자는 또한 플레밍(Fleming) 씨에게 그의 저작 『중국령 타타르 지역 마상 탐험기(A Ride on Horseback through Chinese Tartary)』에 실려 있는 두 개의 삽화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준 데 감사드리며, 마찬가지로 『아무르 강변의 러시아인들(The Russians on the Amoor)』의 저자인 라벤스틴(E. G. Ravenstein) 씨에게도 『전도 연대기』에 나오는 두 통의 편지를 번역해 준 데 감사를 표하고 싶다.

필자는 베이징 주재 영국 공사관 소속 중국 담당관인 힐리어(W. C. Hillier) 씨에게도 친절하게 중국 인명들의 철자를 바로잡아준 점과 그 밖의 도움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철자는 정말 어려웠다. 그러나 인도

어의 경험을 통해 필자는 적절한 과학적 체계를 따를 필요성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 그리하여 중국어를 모르는 독자를 위해 처음부터 필자는 토마스 웨이드(Thomas Wade) 경의 체계를 따르려 노력했다. 이 체계에는 일반 독자들의 눈을 불편하게 할 많은 판별기호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필자는 단어를 처음 소개할 때만 이 기호



그림 1 「백두산 등정기」 원서 표지

들을 사용하도록 주의를 기울였고, 반복될 경우와 특히 강희제나 건륭제같이 잘 알려진 단어일 경우에는 생략할 것이다. 다음절 명칭들을 번자(翻字)하는 과정에서는 구성음절들이 하이픈에 의해 분리되거나 또는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 원칙이 일관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학자들에게는 그러한 이름이 별 문제가 아닐 것이며 일반 독자들에게도 간략한 명칭이 산만한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표지 오른쪽의 문자들은 만주어이며 왼쪽은 중국어이다. 이들은 백두산, 충화 강, 만주의 수도인 묵텐 또는 선양, 만주 중부와 북부 지방인 지린 성과 헤이룽장 성을 의미한다.

왕립 지리학회에 의뢰된 실은 지도는 학회가 소장하고 있는 최신 러시아 지도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들, 특히 조선 국경과 몽골 변경에 위치한 새로운 정착구역 내 장소들은 중국 지도에서 필자가 발견한 것이다. 따라서 정확성은 많이 떨어진다. 아쉬운 점은 영허즈밴드(Younghusband) 씨의 관측들이 지도를 최종 수정하는 데 때 맞춰 완료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영허즈밴드 씨는 지칠 줄 모르는 인

내력과 남다른 결연함으로 세찬 바람이 불고 기운이 영하로 떨어지는 밤에도 별이 일정한 위도로 떠오를 때까지 야외에 서있었다. 또한 그는 컴퍼스를 이용하여 지나쳐가는 언덕과 강의 위치를 관측해주었다. 그러나 그는 모험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중국 서부와 투르키스탄까지 가 버리는 바람에 산정(算定)을 미뤄야 했다. 그러나 독자들이 ‘백두산’의 정상을 원서 표지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펜 덕분이다.

1887년 크리스마스에  
제임스(H. E. M. J.)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장백산<sup>1</sup>에 기를 쫓고 두만강에 말을 잇겨  
서근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사나히냐  
어떠타 인각화상(麟閣畫像)<sup>2</sup>을 두고 묻저 하리오

- 김종서

조선시대 세종 때의 무신이었던 김종서는 함경도 일대에서 여진족을 격파하고 육진을 개척한 뒤, 백두산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조선

1 백두산.

2 기린각(麒麟閣), 중국 전한(前漢)의 건물 이름. 선제(宣帝) 때의 공신 11명의 화상을 걸었다.

의 국경을 확립했다. 그러나 조선 초기 북방정책의 핵심인물이었던 그는 당시의 국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구려 시대부터 한민족의 영토였던 만주지역을 회복할 것을 주장했다. 장백산(백두산)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 사이의 국경이 아닌 새로운 정복의 출발지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이 시는 새로운 왕조의 기틀이 잡혀가던 시기에 당대 최고의 무장이 정치적 반대파로 인해 이루지 못했던 고토회복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김종서가 사망하고 약 450년 후 만주는 전혀 새로운 손님을 맞게 되었다. 19세기 중반, 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둘러싼 제국주의 유럽 열강들의 각축이 숨 가쁘게 펼쳐지면서 중국에 대한 서양인들의 호기심이 증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쟁이나 외교적 수단을 통한 국가 간의 접촉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식의 습득을 위해 직접 탐험대를 조직하고 원정을 기획했다. 19세기 후반 서양에서 붓물처럼 출간된 중국관련 도서들은 이러한 열기를 반영한 현상이었으며 중국의 일부인 만주에 관한 문헌들도 그런 흐름을 타고 하나둘씩 선보이게 되었다.

『백두산 등정기』는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세계에 대해 서양인들이 기울였던 탐구 노력의 일환인 동시에 만주지역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안내서이다. 인도 봄베이 총독부 소속 관리였던 에번 제임스(Evan James)가 영국 국왕의 근위 용기병 연대 소령인 영허즈밴드(F. E. Younghusband)와 중국 주재 영국 영사관의 젊은 관리였던 풀포드(H. Fulford)와 함께 만주지역을 여행하며 백두산에 올랐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저술은, 이전까지 단편적으로만 알려져 왔던 만주지역을 처음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유럽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즉 당시까지 서구에는 미지의 땅이었던 만주의 지리, 역사, 문화적 측면에 대한

상세한 서술과, 아울러 저자가 직접 둘러보고 얻게 된 이 지역에 대한 경험적인 인상과 평가를 서양인의 시각에서 담담하게 펼쳐놓고 있는 것이다.

500여 쪽에 달하는 책의 두께와는 달리 저자 제임스에 대해서는 관리로서의 경력을 제외하고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의 본명은 헨리 에번 머치슨 제임스(Henry Evan Murchison James)로, 1846년에 태어나 1923년에 사망했다. 스무 살이 채 안 된 나이인 1865년부터 1900년까지 그는 인도 행정부의 관리로 일했고 이 기간 중에 휴가를 얻어 만주를 다녀와 책을 펴냈다. 특히 1891년부터 1900년까지는 인도의 신드(Sind) 지역에서 관리 선발 업무를 담당했으며<sup>3</sup> 1893년 10월 15일에는 카라치(Karachi)에서 다야람 제드말 신드 대학(Dayaram Jethmal Sind College)을 개교했다.<sup>4</sup> 신드지역 내에 위치한 타르 앤 파커(Thar and Parker) 구역의 제임스바드(Jamesbad) 시는 그의 이름을 딴 곳이다.

19세기 말의 만주지역은 비록 일반 유럽인에게는 아직 낯선 땅이었으나, 저자인 제임스의 설명에 따르면 여러 측면에서 큰 관심을 끌만한 곳이었다. 무엇보다도 만주는 과거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조선 등 인접국가들 간의 군사적 충돌이 빚어졌던 지정학적 요충지였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 17세기에 최종적으로 대륙의 패권을 장악한 이 지역의 토착민인 만주족이 급속하게 중국인에게

<sup>3</sup> Rulers.

<sup>4</sup> J. W. Smyth(1919), *Gazetteer of the Province of Sind* B Vol. 1, Karachi District, Government Central Press, Bombay. Reprinted by Pakistan Herald Publications Ltd, Karachi, p. 41.

동화되었던 기이한 변모과정을 보여준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만주지역에는 다양한 종류의 지하자원들이 엄청난 규모로 매장되어 있었으며 식민 이주자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대의 경제학자와 행정가들에게 주목의 대상이기도 했다. 민족지연구자에게는 조선인, 중국인, 만주인 등이 포함된 인구구성이 흥미로웠을 것이며, 서양의 군사 고문관에게는 중국의 전통식 무기와 유럽의 현대식 무기를 병용하는 중국 군인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을 것이다. 비교 종교학자나 기독교도에게는 중국의 전통신앙, 불교, 이슬람교와 새로이 전래된 기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 문화가 민족구성의 다양함만큼이나 이채로웠을 것이다.

다채로운 매력을 뿜어내는 만주지역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저자인 제임스는 2년간의 장기휴가를 얻은 뒤 동료들을 규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만주여행에 나선다. 1886년 3월 19일 인도의 캘커타에서 출발한 그는 홍콩에 닿은 후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지나 5월 29일 남만주의 수도인 선양에서 만주로 가는 대장정에 오른다. 그리하여 대청제국의 시조인 누르하치의 무덤을 방문하고 압록강을 건너 창바이산맥을 따라 훈춘에 들른 뒤, 만주 중부지역의 수도인 지린을 거쳐 북부지역의 수도인 치치하얼에 다다른다. 이곳에서 몽골을 지나 북만주의 군사도시인 산싱과 ning안을 돌아보고, 훈춘에서는 두만강 계곡을 구경한 뒤, 인근 러시아 도시인 노보키예프스크(Novo-kievsk: 크라스키노)를 방문하여 러시아식 만찬을 즐긴다. 그런 다음 만주의 주요 강들 가운데 하나인 후르가 강의 수원지를 살펴보고 바자쯔에 들려 중국식 저녁식사를 맛본 뒤, 이듬해인 1887년 1월 9일 제임스는 뤼순 항을 떠나 마침내 상하이로 돌아오게 된다. 약 8개월에

걸친 만주 대장정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책의 후반부(7장부터 15장)는 제임스가 만주에서 거쳐 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일정들을 순서대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읽기에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곳곳에서 중국의 자연에 대해 박물학적인 관심을 드러낸다. 창바이산맥을 따라 훈춘으로 가는 길가에 피어난 수많은 종류의 꽃들과 새들, 나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제임스의 관찰과 기록의 대상이다. 때로 저자는 단순한 구경꾼의 수준을 넘어 학명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며 종류마다 지니는 특징들을 설명하는 전문가적 역량을 발휘하기도 한다. 또한 자연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저자는 중국인의 삶, 즉 의상과 가옥 및 풍속 등 토착민들이 지니고 있는 풍물들과 내면의 정신세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심미안도 갖고 있다. 중국식 또는 러시아식 식사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미식가적 풍모까지 엿보인다. 일반적인 관리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전문가적 안목과 식견을 보여주고 있는 저자로 인해 독자들은 만주를 실제 여행하고 있는 듯한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이 지역에 대한 풍부한 지식도 함께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저자의 탁월함은 만주지역을 정치적·경제적·지리적·문화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에서도 두드러진다. 제임스는 『백두산 등정기』의 전반부(1장에서 6장)에서 만주지역의 지리, 역사, 주민, 행정, 종교 등을 예리한 필치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지리 부문의 경우 만주의 위치, 면적, 기후, 토산품, 곡물, 화폐, 도시 등 정말 다양한 측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서술하고 있으며, 역사 부문에서도 만주의 기원, 원주민, 국가 수립과정, 다민족 정책, 러시아와의 충돌 과정 등을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다. 특히 역사부문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두 개의 장을 할애하여 소수의 만주족이 거대한 중국 본토를 장악하게 되는 과정과 혼란기에 접어든 청나라가 영국에 의해 더욱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국의 흥기와 쇠퇴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주민을 다루는 장에서는 만주족이 향유하는 의식주 생활들이 소개되며, 관혼상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청나라 군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팔기군에 대한 분석도 만주족 청년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저자는 군사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의 편제와 조직상의 장단점들을 향후 전망과 더불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행정 부문에서는 사법체제와 관료제 및 세금을 다룰 뿐 아니라 아편무역과 같은 민감한 부분도 취급하며 자신의 견해를 거침없이 피력한다. 외국인으로서의 쉽지 않았을 종교문제를 다루는 장에서도 제임스는 특유의 관찰력을 발휘하여 불교와 무당 및 풍수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풍수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한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저자는 전통적 풍속의 한 단면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며 기독교 선교 사업이 극복해야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신문명의 충돌이 물질세계의 역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하다.

후반부의 여행기와 전반부의 개괄적 서술이라는 이 책의 세심한 구성은 무엇보다도 저자가 전문가와 일반 독자 모두에게 만주에 대한 만족할만한 설명을 제공하겠다는 의욕의 발로로 보인다. 실제로 제임스는 이 책을 서술하기 전 혹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미 만주지역과 관련하여 다수의 문헌들을 참조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책을 구상할 때 다양한 각도의 기획과 관점이 동원되었음을 털어놓고 있다. 저자

는 ‘인도의 관점에서 만주의 행정을 살펴보았고’ ‘종교적 믿음에 관한 장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그리 흥미롭지 않을 수’ 있으며, 중국학 연구자들에게는 ‘첫 여섯 개의 장을 생략하라고 추천하고 싶고’ ‘중국의 한 지방에 관한 개요를 대중에게 알기 쉽게 제시할 때에는 중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과 중국 문학 연구자에게 친숙한 것들을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sup>5</sup> 독자를 염두에 둔 글쓰기가 돋보이는 저자의 이러한 노력은 이전 문헌들의 수준을 뛰어 넘는 상세함과 정확함으로 표현되었고, 여기에 저자 자신의 날카로운 평가가 곁들여지면서 자칫 단순한 여행기에 그칠 뻔했던 책을 일급의 안내서로 만들어 놓았다.

저자의 예리함과 치밀함은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한 만주의 조선인에 관한 서술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물론 조선인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임스는 저서 곳곳에서 그들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않는다. 책 전반부의 만주지역 주민을 다루고 있는 장에서 저자는 조선에서 온 이주민들을 소개하며 이들이 입고 있는 의상과 한글의 특색에 관해 기술한다. 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시조인 누르하치 무덤을 지나 마오얼 산에 오르는 도정에서는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 경작자들에 대한 단상을 적고 있으며, 만주 중앙부의 수도 지린성과 관련한 대목에서는 조선의 특산품인 인삼과 그 유통경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인다. 만주의 동쪽 끝에 있는 러시아 항구인 노보키예프스크를 서술하는 장에서도 저자는 중국도 아닌 러시아라는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조선인의 고된 생활상을 보여준다. 그들은 농

---

5 저자 서문 참조.

민으로 그리 잘 살고 있지는 못했지만 ‘유순하고 근면하며 행실이 좋아’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았다고 한다.<sup>6</sup> 감사하게도 우리는 제임스의 설명을 통해 비록 단편적이지만 19세기 말 만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식민지 인도를 경영하는 대영제국의 관리답게 19세기 말의 만주 여행을 토대로 중국의 미래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즉 궁극적으로 그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중국이라는 아시아의 대국이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향후 유럽의 열강들을 제치고 과연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제임스의 결론은 단호하다. 한마디로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인구구성이 상호간의 이해와 소통을 가로막으면서 단결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인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유교적 사고방식과 습관들은 유럽이 이룩해놓은 투명한 행정과 엄정한 규율, 그리고 자기 규제라는 근대적 사고방식과 조직체계를 받아들이는 데 오랫동안 장애로 작용하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저자는 더 나아가 이러한 수용이 중국인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하리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그렇다면 유럽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세계를 압도하리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제국주의가 정점에 달했던 19세기 말의 영국 관리가 본문 곳곳에서 내비치는 전형적인 유럽중심주의적 편견은 때로는 비유럽권에 살고 있는 독자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제3장에서 저자는 아편전쟁에서 중국을 옹호하는 영국인 저스틴 매카시(Justin McCarthy)를 비판하며

---

6 제13장 참조.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나아가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 이야말로 ‘인류의 문명화와 복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던 전쟁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이었다고 강변한다. 제5장에서는 저자가 오히려 마약 복용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며 영국의 강요가 아닌 중국인 스스로가 원해서 시작되고 확산된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한다. 더 나아가 제임스는 아편무역은 중국인이나 양심적인 영국인이 비난하듯이 그렇게 부도덕한 상거래가 아니며 인체에 미치는 해악이라는 측면에서도 담배나 술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편익적 태도와 서구 중심주의적 편견은 종교를 다루는 제6장에도 이어져 중국이 갖고 있는 미신적 신앙에 대한 기독교의 우월감을 강하게 표출하는 한편, 다신교라는 환경 속에서도 역경을 딛고 꾸준히 자리를 잡아가는 기독교의 선교 과정을 생생하고도 긍정적인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결국 제임스는 중국이 지닌 향후 잠재력을 경계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 뒤처진, 따라서 앞으로 근대를 더 경험해야 할 비문명국이라고 낙인찍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유럽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서 이 책의 가치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각보다 더 평가되어야 할 부분은 책을 일관되게 꿰뚫고 있는 저자의 접근방법이다. 즉 제임스는 『백두산 등정기』에서 낯선 이국 지역에 대해 시종일관 상세하고도 치밀한 지리적·역사적·문화적 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제임스의 책이 발간되기 이전에도 『사이언스(Science)』라는 당시 영국의 대표적 과학 잡지에 초고가 세 차례나 소개된 경우에서 두드러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책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한 자세하고도 체계적인 지식들이 보다 효율적인 식민지 경영을 위한 지

역연구의 토대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책 속에서 간헐적으로 소개되는 조선인에 대한 이야기가 곧 조선에 대한 영국인들의 제국주의적 접근의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며, 이는 달리 보면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되는 비운을 겪는 서글픈 단초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실제로 1885년 3월 1일부터 1887년 2월 5일까지 2년간 영국에 의해 불법점거 당했던 거문도 사건 시기에 제임스는 만주를 여행하면서 중국인과 러시아인 및 조선인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있었다.

끝으로 이 책의 번역을 제안해 준 동북아역사재단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번역을 기다려주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여러 관계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19세기 말의 영어와 프랑스어,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어려운 학술용어들로 인해 쉽지 않은 번역이었는데, 고비마다 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주신 학생들과 선후배 동료들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그러나 번역에 실수나 오류가 있다면 이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역자의 부족한 실력과 얇은 지식 때문이다. 독자들의 질정(叱正)을 바라며, 역량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은 다음 기회에 바로 잡으려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발간이 한국의 근대사를 공부하는 연구자와 19세기 말의 아시아에 대한 서구의 시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조준배

- 이 책은 1888년에 런던에서 발간된 헨리 에번 머치슨 제임스의 저서 『백두산 등정기: 만주의 역사, 주민, 행정 그리고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H. E. M. James, The Long White Mountain or A Journey in Manchuria with Some Account of The History, People, Administration and Religion of That Country, London, 1888).
- 외래어 표기는 국립국어원이 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지만, 일부 원어발음과 차이가 많은 곳은 그대로 두었다.
- 중국 인지명 표기는 지명의 경우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하고, 인명의 경우 한글 발음으로 표기했다. 그 밖에 만주, 신장, 티베트 등의 인지명은 현지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19세기 말에 사용되던 지명이 바뀐 경우는 현재 지명으로 옮겼다.
- 원저에서 장백산을 가리키는 ‘The Long White Mountain’ 이란 표현은 독자를 고려하여 백두산으로 옮겼고 ‘The Yalu’와 ‘The Tumen’이란 지명도 각각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장백산맥’은 중국식 발음을 존중하여 ‘창바이산맥’으로 옮겼다.

- 원저에서 한국을 의미하는 ‘코리아(Corea)’란 표현은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여 각각 ‘고려’ 또는 ‘조선’으로 옮겼다.
  - 거리를 나타내는 중국식 도량형 ‘리’와 화씨로 표기되는 온도는 각각 마일과 섭씨로 환산하여 괄호 안에 병기했다.
- 



## 차례

- 저자 서문 · 4
- 역자 해제 · 11
- 일러두기 · 21

### 제1장 서론 · 31

여행 계획 - 잉커우 또는 뉴장에 닿다 - 만주 위치 - 만주의 경계들 - 만주의 세 지방 - 만주의 넓이 - 중국인에 의한 식민화 - 고지대 만주 - 산맥 - 강 - 관세 부과 관문들 - 같은 장소 다른 이름 - 예수회에 의한 조사 - 도시 이야기 - 도시 장벽 - 군사 요새 - 도시 계획 - 건축 - 관청 - 사원 - 탑 - 패루(牌樓)들 - 전당포 - 표지판 - 도로 - 비옥한 토지 - 작물 - 인도와 중국 소작인 대조 - 기장 종류 - 대기장의 용도 - 소기장 - 양질의 사료 - 금기장 - 기타 작물 - 두부 - 두유 - 채소 - 과일 - 목재 - 인삼 - 녹용 - 광물 - 가죽 - 제품 - 기후 - 운송의 어려움 - 전보 - 화폐 - 현금 - 부담스러운 통화 - 지방 지폐 - 은제 신발 - 환전인 - 조폐국 - 여권

### 제2장 역사 · 50

만주 원주민 - 타타르 명칭에 관한 논의 - 단어 '만주'의 기원 - 왕조 명칭 - 현재 만주인이라 불리는 부족들 - 만주인들의 외모 - 만주에 거주했던 야만족들 - 라오둥을 지배한 고대 왕조들 - 북방 왕조들 - 발해 - 만주의 황금기 - 계단족 - 누전족 - 명나라 사람들 - 명 왕조의 쇠퇴 - 최초의 만주인 누르하치 - 리 포고룬의 전설과 아이신지오로의 탄생 - 오도리에 관한 논의 - 니간 - 누르하치가 니간을 살해하다 - 누르하치가 라오청을 건설하다 - 싱기를 건설하다 - 누르하치의 행정 - 명 왕조에 도전하다 - 중국인을 패배시키다 - 목텐과 라오양을 취하다 - 중국인의 저항 - 모문룡 -

원숭환 - 싱청에서의 격퇴 - 홍타이지가 만리장성을 지나다 - 순치제 - 이자성 - 명 황제 자살하다 - 오삼계와 도얼군 왕자의 서한들 - 이자성 패배하다 - 만주 왕조 수립되다 - 명나라 왕자들 - 길어지는 전쟁 - 만주 성공의 원인들 - 중국의 비참한 상황 - 만주군 - 화해 조치들 - 대중개혁 - 인도정복 비교 - 오삼계와 도얼군의 종말

### 제3장 역사(후속편) · 87

순치제 - 네덜란드 대사관 - 고두(叩頭) - 인적 희생 - 강희제 - 옹정제 - 건륭제 - 그의 잔인함 - 구르카족(Ghurkas)을 물리치다 - 매카트니(Macartney) 백작을 영접하다 - 명나라 가정제 - 앰허스트(Amherst) 경의 대사관 - 후기 황제들의 연약함 - 도광제 - 제1차 대영 전쟁 - 원인들 - 중국인들의 분노 - 아편 무역에 대한 중국인들의 지지 - 관리 임(林)의 억압적 조치들 - 전쟁의 작전들 - 조약 - 머콜리(Macaulay)의 연설 - 글래드스톤(Gladstone) 씨의 연설 - 함풍제 - 태평천국의 난 - 폭도들의 성공 - 워드(Ward)의 상승군 - 고든(Gordon) 장군 - 제2차 대영전쟁 - 엽명침 - 중국으로 파견된 엘긴(Elgin) 경 - 중국 호부(戶部) - 여름 궁전 파괴되다 - 엘긴 조약 - 동치중흥 - 쿠데타 - 공친왕 - 황후들 - 원난성 반란 - 광서제 - 섭정 황후 - 순친왕 - 이홍장 - 준가르 분지와 카슈가르(Kashgar) 재정복 - 이닝 문제 - 프랑스인들과의 언쟁 - 엔타이조약 - 영·중 간 최근 조약들 - 중국의 현 정책 - 누르하치의 잘못된 만주정책 - 비적들 - 강도단 - 도박 단속 - 중국인의 타락 - 만주의 개선 - 포야르코프(Poyarkoff)의 아무르 강 탐험 - 러시아 선박에 대한 아무르 강 항해 금지 - 러시아인들의 원정 - 무라비요프(Muraviyov) - 이그나티예프(Ignatieff) - 러시아 합병 - 만주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희망들

### 제4장 사람들 · 128

만주족 인구 - 소수의 만주족 - 만주족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곳 - 만주족이 드문 이유 - 중국의 영향 - 선생 두 명이 초빙되다 - 만주 종교 - 샤며

니즘 - 의상 개혁 - 여성의 발 - 품석 - 혼례 - 노예제 - 만주족 특권 - 만주 청년 운동 - 기인의 조직과 배치 - 육설 - 유럽식 군사훈련 - 녹영군 - 무기 - 보수주의 - 군의 부패와 낭비 - 중국어 - 만주어 - 중국 의상 - 여성복 - 홀 - 귀마개 - 모자 - 신발 - 주거지 - 여관 - 구들 - 창호지 - 음식 - 가구 - 관 - 공동묘지 - 상류계층의 예절바름 - 성가신 호기심 - 짜증나는 버릇 - 중국인 이슬람교도와 모스크 사원 - 조선의 이주자들 - 조선 의상 - 조선인의 이주 독려 - 한글

### 제5장 행정 · 165

총독 - 장군 - 총독 업무 - 부처들 - 고등법원 - 평토펬에서 만주어를 대체하는 중국어 체계 - 관리 등급 - 지방 관원들 - 지방 관원의 의무 - 법원 - 검찰 - 지린과 헤이룽장 체제 - 만주군 장교의 비효율성 - 촌장들 - 자치체 - 범죄 - 죄인 다루기 - 처벌의 잔인성과 불확실성 - 고문 - 민간 경찰과 군사 경찰 - 청원 - 강탈 - 관리들의 낮은 급료 - 토지세 - 인두세 - 소금 독점 - 판매세 - 관세 - 주세 - 가족 공물 - 해운 세관 - 1866년과 1885년 수입 비교 - 아편 무역 - 아편의 도덕적 측면들 - 아편의 대량 재배 - 아편 금지령 - 아편세 - 만주행 영국 상품 수입 확대 여지 - 미국 기술 - 변신 교역 - 행정 개혁

### 제6장 종교 · 191

킹즐리의 『어린이를 위한 그리스 신화(The Heroes)』 발췌 - 만주 주민에게 적용 가능한 - 세 개의 종교 의식 - 불교 - 유교 - 도교 - 불교 사원의 소장품들 - 조상 숭배 - 버려진 사원들 - 지역신과 수호신 - 길가의 사원들 - 시골 사람들의 기도 사례 - 동물 숭배와 동물의 특징들 - 무당 - 영매 - 질병 숭배 - 다른 숭배 대상들 - 풍수 - 농촌의 미신들 - 기독교 믿음의 진보 - 로마 가톨릭 선교사들 - 베롤르(Verrolles) - 비노(Venault) - 드 라 브뤼니에르(De la Brunière) - 보이어(Boyer) - 선교사들의 운명 - 뒤바이(Dubail) - 로마 가톨릭 교회들 - 이미지 부재 - 관원들에 대한 사

제들의 태도 - 고아들 - 훈련 - 개종 통계 - 영국 장로교 선교단 - 아일랜드 장로교 선교단 -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단 - 의료 선교단 - 의료 통계 - 아편 흡입자를 위한 보호소 - 귀중한 작업 - 만남의 집 - 선교 업무의 어려움 - 성공 - 장군이 선교사들에 관해 언급하다

### 제7장 잉커우에서 묵텐과 마오얼 산까지 · 227

잉커우 도착 - 뉴왕 - 랴오허 외국인 정착지 - 대담한 도둑들 - 풀포드(Fulford) 합류 - 만주의 수레들 - '래틀러(Rattler)' - 하인들 - 짐 - 돈 - 할인율 - 행로 계획 - 묵텐에 닿다 - 중국 여관들 - 아편 흡입 - 여관 숙박료 - 곤충들 - 묵텐 - 누르하치 무덤 - 태종 무덤 - 중국 은행 거래 - 노새 대여 - 묵텐에서 출발하다 - 훈 계곡 - 윈링 - 싱깅 - 정착자들 - 풍경 - 신민 부(府) - 통화 현(縣) - 중국 말거래 - 훈장[渾江] 홍수 - 석 달간의 장마 - 목재 띄우기 - 노변 여관 - 재신(財神) 초상화 - 식물채집 - 꿩 사냥 - 풀포드에게 닥친 사건 - 원시적 탄갱과 철공소 - 마오얼 산 - 수비대 - 조선인 경작자들 - 개종자들 - 작은 벌레들과 등에 - 중국식 집 - 신는 노새 체제 - 미친 노새 - 여행 체제

### 제8장 창바이산맥 · 258

압록강 계곡 위로의 전진은 불가능하다 - 훈춘으로 가는 포장도로 - 사금 채취자들 - 탕허 건너기 - 숲속에서 캠핑하기 - 호랑이 뒷 - 도로 장애물 - 어려운 상황 - 조합 본부 도착 - 출입 거부 - 작은 곤충들 - 동업조합 설명 - 입법 - 모여드는 아편 - 노백산 - 산골짜기 계곡의 급류 건너기 - 만주 어부 - 풀포드가 꿈을 만나다 - 흑초피 철 준비 - 검은 담비 뒷 - 사슴 뒷 - 버섯 - 송화 강 발원지 - 백산 등반 - 풍경 - 꽃들 - 호수 - 에르다오장 강 - 이웃 - 훈춘으로 가는 또 다른 길 - 백산에 관한 뒤 알드(Du Halde)의 설명 - 예수회 방문 - 오문 - 팔라디우스(Palladius) 설명 - 건륭제의 소유물 - 페르 아모(Père Amyot)의 소유물 - 식물학적 결과 - 새들 - 나비들

## 제9장 탕허커우에서 지린까지 · 282

뱀 이야기 - 야생인삼과 재배인삼 - 유용한 나무들 - 쑹화 강 하류의 또 한 번의 홍수 - 중국 사공의 탐욕 - 멋진 왜가리 집단 서식지 - 길의 어려움들 - 에르다오장 강 - 사금채취 - 대로상의 살인 - 시골 연극들 - 지린 - 불편한 숙소 - 채소와 과일 - 페르 베르비스트(Père Verbiest)의 설명 - 지린의 상황 - 화재방지 그림 - 오물투성이 장터 - 전보국 - 보급품 조달을 위해 해안으로 파견된 장산 - 병기고 - 기계와 무기 - 화약 공장 - 신병 선발 - 송 씨와의 저녁 식사 - 젊고 총명한 신호원 - 마을 판관 - 가짜 소개 편지 - 룡탄 산[龍潭山] 소재 사원 - 지린의 이슬람교도 가족들 - 고립된 종교 공동체 흡수

## 제10장 지린에서 치치하얼까지 · 300

친절한 은행원 - 금 주괴 - 수레를 빌리다 - 성과급대 일당 - 노새의 고집 - 나쁜 출발 - 자전의 목재 - 우루카이 - 불사조를 위한 사원 - 시라히 - 울타리를 지나는 통로 - 쑹화 강의 옛 하천바닥 - 처형되는 비적들 - 베두나 도착 - 주수의 발병 - 아픈 처방들 - 베두나의 사원과 프레스코화들 - 모기 - 만주 두루미 - 쑹화 강 건너는 어려움 - 섬 - 수시 잉커우 - 영허즈밴드 씨에게 일어난 사고 - 영양 - 날쥐 - 능에 - 몽골 궁전 - 치치하얼로 가는 길 - 불교 묘지 - 우유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 - 나이피 또는 크림치즈 - 라마 교 - 인구과잉 억제 - 급사 - 러시아 경찰 일화 - 그리스 정교 수도원장 팔라디우스 - 고대 요새들 - 치치하얼 첫 구경 - 패루 - 방치된 관들 - 콘크리트 평지붕 - 박공지붕 - 은행원의 응접실 - 못마땅한 여관 - 죄수들 - 불편한 관습 - 군대 훈련 - 장례식 - 계획 변경 - 치치하얼 북쪽 지방

## 제11장 치치하얼에서 산싱까지 · 319

스텝지역 - 향쑹속(屬) 식물 - 소다와 다른 소금들 - 원시적 소다 추출 방법 - 여우들 - 슬픈 이야기 - 몽골 오두막집 - 몽골 아이들 - 샤오자텐 -

후란 - 수레바퀴 제조 - 원숭이 고기 - 끔찍한 학살 - 베이린쯔 - 야생거위 사냥 - 노상강도들 - 기독교 공동체 - 사제실 - 아편 흡입의 희생자 - 깊은 우물들 - 비적 방어 요새 - 흥미로운 무기 - 수확 - 바옌수수 - 라귀(Raguit) 선교사 - 카드(Card) 선교사 - 가내 제조 와인 - 샤오시허 - 리파드(Riffard) 선교사 - 비적 경험 - 우리 호송대 - 강탈 - 중국인에 대한 유럽인의 의견 - 바옌수수 근처에서의 운동 - 고대 접시 - 낮은 기온 - 지혜로운 이주민들 - 안개 속의 새들 - 우리 주인과 비적들 - 산싱 도착

### 제12장 산싱에서 Ningan과 훈춘까지 · 338

산싱의 상황 - 인구 - 요새와 막사들 - 정부의 금 캐기 - 장터 연극 - 산싱 생산 - 철갑상어 - 길의 어려움 - 수레 사고 - 후르가 강 상류 풍경 - 다마하 연어 - 흥미로운 낚시 방식 - 예허에서의 숙영 - Ningan - '글래드스톤 씨' - Ningan 연극 - 훈춘으로 출발 - 추운 날씨 - 식용 소나무 - 라오승링 - 멧닭 - 두만 계곡 - 미장 - 중장(申將) 이(李)

### 제13장 노보키예프스크 · 355

훈춘의 요새들 - 수비대 무기들 - 거대한 깃발들 - 러시아 국경 - 코사크(Cossack) 전초기지 - 소콜로프스키 대령(Colonel Sokolowski) - 코사크군역과 급료 - 러시아와 중국 국경 위원회 - 러시아인들과 비적들 - 러시아인, 영국인 그리고 동양인 - 노보키예프스크 - 포시에트 항구(Possiet Harbour) - 식민자 - 조선인 - 그리스 교회 - 교황 - 메투엔(Methuen) 씨 - 러시아식 정찬 - 러시아 민심 교란자들

### 제14장 훈춘에서 바자쯔까지 · 365

오모소로 가는 지름길 - 부도통(副都統)의 방문 - 그의 의상 - 일찍 일어나기 - 영국 장화와 중국 장화 - 추운 여행 - 더 많은 막사들 - 운송의 어려움들 - 하라바링 통행로 - 후르가 강의 발원지 - 등오강쯔 - 아우둔 - 장

짜이링 통행로 - 산적들 - 라바라쯔 고개 - 하이징링 - 라오예링 - 지린  
 에 닿다 - 둥징청 - 돌 평원 - 비적과 함께한 장산의 모험 - 성 씨의 두 번  
 째 방문 - 또 다른 중국 저녁식사 - 치통 치료 - 두 번째 라오예링 - 더 많  
 은 산적들 - 패루 수집 - 번잡한 도로교통 - 관청쓰 - 라오예 사원 - 절 -  
 회교사원의 비문 - 장로교 예배당 - 로마 가톨릭 거류지 - 바자쯔의 성직  
 자들 - 미사

### 제15장 바자쯔에서 뤼순 향까지 · 386

여관 화재 - 마네타이먼 문 - 차가운 안개 - 가이유안 탐 - 다리 - 임시관  
 - 흥미로운 미신들 - 테링 - 랴오둥 홍수 - 선교관에서의 중국인 예배 -  
 페르 콘로(Père Conraux)와 군인들 간의 싸움 - 텐진 학살 - 장로교 거주  
 지 - 의료 선교단 병원 - 몽골의 우상사원 - 물건 사기 - 진미들 - 긴 손  
 톱 - 사링대학 - 탕강쯔 온천 - 하이청 - 중국의 성탄절 - 잔치가 파하다  
 - 소금 제조 - 풍수 결과 - 사키우 - 암자 - 비단 방적 - 해적 침입 - 장  
 작림 - 굴 - 옛 요새들 - 호랑이산 - 뤼순 향 - 해군 및 군사 시설들 - 중  
 국의 대외정책 - 상하이로의 귀환 - 결론

### 부록 · 413

주해 A. 인도, 중국, 네팔

주해 B. 아편

주해 C. 관료 부패 관련 제국 칙령(1885년 8월 5일자 『베이징 공보』 발췌)

주해 D. 브뤼니에르 씨와 비노 씨의 여행

주해 E. 타이핑커우 시각장애인의 개종에 관한 제임스 웹스터 목사의 이야기

주해 F. 백두산 : 1677년 중국 관원의 백두산 방문기

주해 G. 여행 일정

저자와 역자 소개 · 487

찾아보기 · 488



# 제1장

## 서론

1885년 겨울, 필자는 2년 기한의 휴가를 얻게 되어 일부를 중국에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아주 운 좋게도 곧 왕의 근위 용기병 연대 소령인 영허즈밴드(Younghusband)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만주 여행을 위한 우리의 계획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만주는 사실 역사적 호기심으로 가득한 지방이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이에 중국 친구들은 남부나 서부지방보다 북부지방의 기후가 더 온화하고 사람들을 대하기가 훨씬 편하다고 주장하여 우리의 선택은 더욱 굳어졌다. 그리고 산맥들이 온통 호랑이와 사슴 등 몸집이 큰 사냥감으로 가득하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또한 러시아와 조선 국경에 접해있는 상황으로 인해 만주는 언젠가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지역이 될 것이었다.

우리는 1886년 3월 19일에 켈커타를 출발하여 폐낭과 싱가포르를 거쳐 홍콩에 닿았다. 그리고 여행자들의 통상적 여정인 만리장성과 명

왕조의 무덤들을 구경하고 광저우와 상하이, 베이징을 지났다. 여기에서는 별다른 구경을 하거나 특별한 일이 없었기에 독자들에게 달리 드릴 이야기가 없다. 하지만 번잡한 거리와 아름다운 상점, 절과 탑들 그리고 수많은 나룻배가 보이는 광저우 시는 폼페이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관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베이징은 가장 더럽고 불쾌한 도시다. 5월 초까지 우리는 증기선을 타고 텐진에서 만주의 가장 큰 항구인(일반적으로 뉴장이라고 잘못 불리는) 잉커우까지 이동한 뒤 5월 19일에 내륙으로 출발했다.

만주는 중국제국의 북동쪽 구석에 위치하며 북쪽과 동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조선에 둘러싸여 있다. 지명은 타타르의 한 부족인 만주족 거주 지방을 의미한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 더 언급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이름은 지금까지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프랑스 지리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국인에게는 생소한 낱말이다. 통상적인 중국 지명은 동산성 또는 ‘세 개의 동부 성들’이다. 현재 만주는 대략 북위 52도와 40도 사이, 동경 122도와 131도 사이에 놓여있는 지역을 말한다. 만주의 경계는 북쪽으로 아무르 강, 동쪽으로 우수리 강, 송화 강, 싱카이 호, 연해주의 러시아령 일부, 남쪽으로 조선, 황해, 랴오둥만, 서쪽으로는 몽골과 맞닿아 있다. 너비는 보하이 만의 뤼순 항에서 아무르 강변의 알바진(Albazin)에 이르기까지 최장 약 900마일에 달하며, 폭은 후란에서 싱카이 호까지 일직선으로 약 600마일에 이른다. 위치는 만리장성 북쪽으로, 중국 본토의 일부가 아니다. 다만 서남단에 걸쳐있긴 하다. 이곳은 고대 지리학자들이 타타르 지방이라 부르던 곳에 속한다.

만주는 세 개의 성으로 나뉜다. 첫 번째 성은 남쪽의 평톈, 곧 ‘하늘

이 접지한 곳(현 왕조의 발상지로 예비되었기 때문)'이며 약 5만 평방마일의 면적으로, 120만에서 130만에 이르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흔히 랴오허의 동쪽지역이라는 의미로 랴오둥이라 불리며, 종종 지도상으로는 수도를 가리키는 만주어인 묵텐의 번역어로 선양이라고도 불린다. 두 번째 성인 지린은 중부에 위치하며 약 9만 평방마일의 면적으로, 600~800만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세 번째 성인 헤이룽장은 북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군사적 이유로 병합된 몽골 일부를 포함하여 14만 평방마일에 달하는 면적과 200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수치들은 뉴장 주재 영국 영사관 전직 영사인 테일러 메도우즈(T. Taylor Meadows) 씨의 신중한 추정치와 필자의 개인적 관찰에 근거한 것으로, 총 28만 평방마일의 면적과 2,000만에서 2,300만의 인구를 보여주며,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만주의 면적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보다 크다.

만주의 세 성들은 인도에서는 자치 지역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행정법이 중국과 동일하긴 하지만 군사행정기구가 존재하고 그 책임자들이 모두 만주족이며, 중앙과 북부에서 군관들이 군무와 일반 행정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베이징과 비교적 가까운 남단의 핑톈은, 수세기 동안 중국에 복속되어 중국 본토와 외관상으로는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나머지 두 성들은 명목상으로 종종 중국의 종주권에 복속되긴 했으나 만주족이 중국 제국을 차지하는 1644년까지 베이징의 통치를 직접 받지 않았다.

만주지역의 인구 또한 유목 사냥꾼들로 구성되어 밀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두 성들은 타타르 병사들의 양성소나 중국 죄수들의 이송지로 이용되었다. 중국인에 의한 식민화가 이 지역에서 허용된 것은

1820년 이후였다. 그러나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인명과 재산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이주가 부진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수백만의 정주자들이 생겨났으며, 토지개간사업이 마니토바(Manitoba)에서처럼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북쪽의 두 성은 비적들과 악한들로 가득한 여전히 매우 후진적인 지역이었다. 평토펀에는 거의 모든 토지가 경작되고 있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광활한 면적의 미경작지들이 남아있었다.

만주는 본질적으로 고지대 지방으로 산과 강 및 늪으로 이루어진 땅이다. 남쪽과 동쪽의 거의 전 지역이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지리학자들은 주봉의 명칭을 따라 이 산들을 창바이산맥이라고 명명했다. 그 의미는 ‘길고 하얀 산맥’이란 뜻이다.<sup>1</sup> 또 다른 명칭은 ‘산아린’으로, 해당 만주어인 골딩산아린의 일부이다. 봉우리들과 산길들은 라오예링 또는 만주족이 선호하는 ‘군신(軍神)’을 의미하는 ‘라예’ 등과 같은 별도의 명칭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주민들은 각각의 구체적인 이름을 알지 못한다. 산맥은 뚜렷한 체계 없이 여러 갈래로 뻗어 있으며 강들 사이의 분수령은 한쪽은 남북으로, 다른 쪽은 동서로 흐른다. 산맥은 높이 3천 피트에서 8천 피트에 이르는 화산지대의 일부이며 남쪽으로는 조선까지, 서쪽으로는 연해주 오희츠크 해까지 뻗어있다. 평원은 평토펀 서쪽 라오허 강변 양쪽의 비옥한 삼각주와 지린 북서쪽의 베두나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넌 강이 광활한 초원지역에 물을 댈다. 송화 강 북쪽의 산들은 다른 체계의 일부로 화산들이며, 대(大) 싱안령의 외곽 돌

<sup>1</sup> 영어 단어 ‘long’과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장’이란 단어는 시간과 거리에 모두 쓰인다. 따라서 일부 행정당국들은 ‘항백(恒白)산맥’이라 부른다.

출부들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강들은 압록강, 두만강, 송화 강, 넌 강, 무단 강이다. 첫 세 강은 창바이산맥 깊은 골짜기 안쪽에서 발원하는데 그 거리는 멀지 않다. 압록강은 서쪽 황해로, 두만강은 동해로 흘러 들며 만주와 조선의 경계를 이룬다. 이들보다 훨씬 더 큰 송화 강은 아무르 강의 비중 있는 지류중 하나이다. 약간 남서쪽으로 350마일 정도를 흐른 후 동쪽으로 방향을 급격히 바꿔 500마일을 더 달린 다음 다시 하바로프카(Khabarofka) 위쪽 150마일에 위치한 아무르 강으로 흘러든다. 넌 강은 아무르 강에서 멀지 않은 치치하얼 북서쪽의 싱안령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베두나 인근의 송화 강과 만난다. 무단 강은 Ningan 남서쪽 약 120마일 지점에서 발원하여 북동쪽으로, 그리고 다시 정북향으로 흐르다가 아무르 강과의 교차점 200마일 위쪽에 있는 산성의 송화 강과 만난다. 작지만 중요한 다음의 세 지류들도 만주의 강들에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는 라오허로, 주변에 잉커우 항이 위치해 있다. 서쪽 끝 몽골에서 발원하여 창바이산맥 서쪽 저지대를 적신다. 둘째는 아무르 강으로, 만주어로는 사할린·중국어로는 헤이룽장 또는 흑룡 강으로 불리는 이 강은 만주와 시베리아의 경계를 이룬다. 셋째는 우수리 강으로 반쯤은 러시아식 표현이다. 이 강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원하여 하바로프카 인근의 아무르 강으로 흘러든다.

지도상에는 두 개의 장성들이 표시되어 있다. 하나는 만리장성에서 시작되어 유시청쯔와 관청쯔를 거쳐 파타하먼에 이르며, 다른 하나는 조선 국경의 평양성에서 시작하여 카이위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앞서의 장성과 만난다. 이 장성들은 현재 로마제국의 하드리아누스 장성에 비해 유적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장성들은 앤드류 성인의 십자가

와 닳은 여러 줄의 나무 방책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보병과 특히 기병이 통과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400년 전, 라오둥에서 몽골족을 몰아내면서 만주족과 타타르족 비적들까지 함께 격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 왕조에 의해 고안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두 번째 목적으로 강희제가 사슴목장을 위해 세운 갈대올타리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나무로 된 관문들은 여전히 관세장벽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관문을 통과하는 모든 왕래자들은 레킨[禮金]이라는 관세를 내야 한다. 가깝게 보이는 흙 둔덕이나 열 지어 서있는 나무들은 과거 장벽이 서있던 자리를 보여준다.

그 자체로 만주의 주요 도시이기도 한 평토펬의 수도는 선양으로, 지도상에는 만주어로 번영의 중심지를 의미하는 묵텐 또는 싱깅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매력적인 지역의 거의 모든 장소와 강들은 서로 전혀 다른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 하나는 만주어로 된 공식 이름으로, 대부분의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중국어로, 현재 중국인과 만주인들 사이에서 거의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 만주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에보라쿰(Eboracum)<sup>2</sup>이나 비잔티움을 묻는 것처럼 묵텐과 지린에 대해 질문하고는 허탕을 칠지도 모른다. 1709년과 1710년에 강희제의 명령으로 지금까지 유일하게 실시된, 그러나 소요된 시간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조사가 세 명의 예수회 신부들에 의해 실행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만주지역에서 압도적이었던 만주족의 영향력과 인구로 인해 만주어 지명들이 지도에 기입되었고, 지금까지 공식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sup>2</sup> 요크의 옛 지명.

묵덴은 만주지역의 총독이기도 한 평톈 부윤(府尹)의 본부다. 묵덴은 평톈이 줄잡아 30개를 보유하고 있는 성채 도시들 중 가장 멋진 곳으로, 양쪽으로 1~2마일 길이의 평행사변형으로 설계된 정말로 장대한 요새들로 둘러싸여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장벽들은 사각형의 돌이나 벽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닥은 두껍고 묵직한 돌을 사용한다. 위로 올라올수록 점차 작아져 꼭대기에는 활 쏘는 구멍이 나있는 흉벽을 이루고 있다. 바깥에서 보면 두터운 버팀벽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 단조로운 석조물이란 인상을 피해 간다. 양쪽 구석에는 측면보루가 서 있으며 중앙에는 요새화된 관문이 우뚝 솟아있고, 그 위로 몇 층 더 그림같이 높고 아름다운 정자 또는 망루가 있다. 예전에는 관문들이 지금의 베이징처럼 해가 지면 매일 밤 닫혔지만, 점차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장벽 자체가 수리를 포기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벽들에는 인도 도시의 장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델리의 장벽들조차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만드는 당당한 견고함이 있다. 만주지방에서는 한 촌락이나 상업 중심지가 일정 규모로 발전하거나 번창할 때마다 가장 먼저 장벽을 건설한다. 따라서 만주의 중앙과 북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건축물들이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현재는 재정이나 공익정신이 부족하여 단지 진흙 울타리에 불과한 상태다. 만주 중앙부의 수도인 지린은 부분적으로만 석벽에 둘러싸여 있어 클레팜 빌라의 벽과 같은 초라한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진흙 성분이라 무너져 내려 산책을 나갈 때마다 뛰어넘곤 했었다. 그러나 이렇게 초라한 흙 둔덕과 도랑들도 지난 두 해 동안 비적들로 구성된 정규군들의 공격에서 도시를 지켜내는 데는 충분했다. 헤이룽장과 만주 북부지역의 수도는 닌 강변의 치치하얼이다. 치치하얼도 진흙 장벽으

로 둘러싸여 있다.

다음의 명칭들은 북쪽 국경에 있는 군사 요충지들이다. 후란·아이훈, 동쪽으로는 산싱·닝안·훈춘, 남쪽으로는 평황청·진저우딩·뤄순·잉커우·진저우푸·산하이관 등이고 주요 항구는 잉커우이다. 내륙의 핵심 상업도시는 관청쯔다.

만주지방의 도시들은 미국처럼 언제나 일정한 계획에 따라 설계된다. 주 거리는 정남과 정북으로 나있으며 보조거리는 주로와 직각으로 교차하고, 중요도에 따라 규모가 다른 일련의 뒷길들이 주거리 및 보조거리와 평행을 이룬다. 그러나 새로 방문한 사람들은 종종 변화가에 머물고 싶은 나머지 분명 작고 실속 있는 거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마일 길이의 도로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십자로의 기초도 갖추지 못한 신형 거주지를 찾는다. 집들은 모두 단층이며, 더 나은 등급은 진흙 벽돌로 건축된다. 바닥과 벽들은 동일 소재로 만들어진 두꺼운 널빤지와 타일들로 둘러 섬세하고 공들인 무늬들을 새겨 넣을 수 있게 했다. 이 타일들은 내구성이 뛰어나며 노출로 인해 손상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건물들은 흔한 직사각형 패턴을 따라 디자인된다. 높이 솟은 지붕에 약간의 장식을 달고 지붕 끝 용마루가 끝에서부터 점점 가늘어져 마치 곤돌라의 이물처럼 상승곡선을 이룬다. 전반적인 윤곽과 독특한 지붕의 주요 모티프는 무명텐트인데 기원을 제외하고는 달리 유사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관청과 사원들은 모두 똑같은 디자인으로 건립되며, 더 웅장한 건축물에는 베란다가 있어 그 기둥들과 삼각소간에 조각이 새겨져 있거나 호화로운 채색이 되어 있다. 종종 화려하게 채색된 처마가 달려있는 멋진 별관은 중국 건축가들이 항상 특별한 관심을 쏟는 부분으로 주요인사의 집 안뜰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건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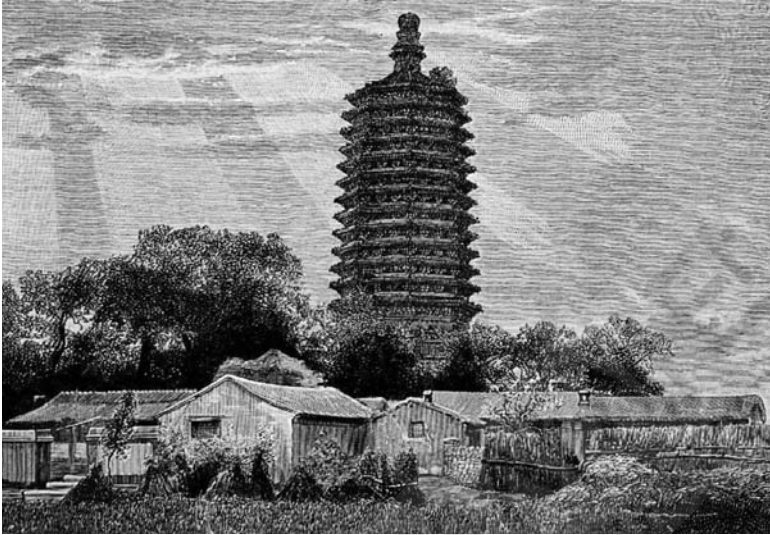


그림 1 탑

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림같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건물들은 잡초형 접시에서 볼 수 있는, 막대기 하나에 12개의 우산이 달려 있는 것 같은 진기한 지붕들이 각 층마다 돌출해 있는 가파른 구식 탑이다. 탑들은 대개 7층 내지 9층 높이로 언제나 홀수 층이고, 종종 높이가 150피트에 달한다. 원래의 목적은 부처의 유품들 또는 불경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짐작되지만, 이들 중 많은 수는 애모의 정을 표현하거나 위인을 기리는 기념비로 건립되었다. 때론 저층에서도 불상이 발견되기도 하나 탑의 주된 매력은 하늘로부터 복을 받기를 기원하는 데 있는 것 같다. 만주에서는 이 같은 탑이 핑토펬에만 존재한다. 사원들은 때로 작고 아름다운 종루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조각이 깊이 새겨진 동일한 디자인의 지붕들을 이고 있으며 나무와 돌로 된 ‘패루’라 불리는 삼중의 기념문은 때로 매우 웅장하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건물들끼리 조화를 이루게 하는 법을 잘 알고 있어 어떤 거리의 경우, 멋들어진 표지판과 광고판들이 즐비하여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든다. 가장 멋진 것은 만주에서 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전당포의 광고판이다. 광고판은 두 개의 묵직한 화강암 벽돌 사이의 지반에 고정된 우뚝 솟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쪽 부분에는 화려하게 채색되고 도금된 용머리 조각상이 돌출되어 있다. 오벨리스크들은 클레오파트라 의 바늘보다 더 가늘며,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며 멋진 중국 상형문자들이 새겨져있다. 뿐만 아니라 탑을 모방한 조각이 새겨진 높은 가로등대와 주목을 끌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온갖 모양과 색깔의 반짝이는 표지판들이 매달려 있는 베니스 풍의 높은 기둥도 달려 있다. 이들은 모두 보도 가장자리에 고정되어 있어 거리를 내려다보게 되면 마치 기둥, 깃발, 표지판들로 한데 어우러져 밝게 빛나는 경관을 이루고 있는 듯하다. 어떤 도시들은 하수관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거리에 침목을 깔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로 포장 시도나 위생관념은 없다. 변화가에서는 바퀴자국의 깊이가 몇 피트나 되고, 우기에는 도로가 악취를 풍기는 검은 진창이 되는 바람에 마차들이 몇 시간씩 진흙탕에 빠져 전복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더러운 습관들과 거리 곳곳의 구석진 곳에 쌓아둔 시장 및 가정집 쓰레기들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중국의 다른 곳에서는 비료로 쓰일 가정집 오물들이 거리로 마구 흘러나오면서 도시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더러운 돼지우리로 변하고 만다.

토지는 전반적으로 검은 양토(壤土)이기 때문에 극히 비옥하다. 주요 작물은 기장, 밀, 옥수수, 대마, 보리, 양귀비, 인디고, 담배, 쌀, 콩이다. 봄 수확이 끝난 땅에서 순무와 야채들이 재배되나 경작기가 짧

아 두 가지 작물을 함께 키우기는 어렵다. 그러나 새로이 개간된 지역에서조차 조심스러운 중국인의 경작방식은 인도 농민들의 느슨하고 마구잡이식 모습과 크게 대비된다. 인도 농민들은 더 열악한 기후와 싸우고 있다. 그러나 새벽 2시에 일어나 해 질 녘까지 쉬지 않고 일한 뒤 다음날 일찍 일어나기 위해 곧장 잠자리에 드는 중국인들보다 둔감하며, 체계적이지 못하다. 결과는 놀랍다. 종자들을 넓게 흩뿌리는 대신 일정 간격으로 두렁에 조심스럽게 심고 꾸준히 잡초를 제거한 뒤 물을 줌으로써 곡물 끝머리가 우수식물처럼 자란다. 기장에는 세 종류가 있으며 각각 나름대로의 변종들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종류는 수수로 인도의 흰 기장과 같고 사람들의 주식 곡물 중 하나이며, 줄기가 소의 사료가 되기에 매우 소중하다. 만주에서 곡물은 주로 노새와 다른 동물들을 먹이거나 술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반면, 줄기는 연료(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유일한 연료가 된다) 혹은 지붕을 이는 데 활용하거나 다리 위의 길에 깔아 놓는다. 바깥 껍질은 벗겨서 돛자리를 만든다. 두 번째는 작은 기장으로 키가 약 3피트 정도 되며 끝이 늘어지는 점을 제외하면 옥수수나 인도의 수수와 유사하다. 이것은 주식 곡물이다. 외피를 벗긴 뒤 바로 삶으면 훌륭한 죽 대용식이 된다. 짙은 특히 달콤한데 영국의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빵갈처럼 커다란 틀로 작동하는 날카로운 칼로 썰어 젖은 수수와 섞으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료가 된다. 남자 또는 짐승에게 가장 이상적인 것 중의 하나인 작은 기장이 인도까지 건너가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세 번째는 황금기장으로, 끝머리가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 보기에 아름다우며 작은 기장과 동일한 용도로 쓰인다.

밀과 보리는 만주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귀리는 드문드문 자랄

뿐이다. 옥수수는 매우 흔하며 파랗게 말린 상태에서 먹는다. 대마초는 엄청난 규모로 재배된다. 양귀비 또한 도처에서 발견되며 인도보다 한 층 더 우수하다. 담배도 왕성하게 재배되고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기에 아주 좋다. 또한 물속이 아닌 마른 땅에서 자라는 마른 곡물 쌀이 있는데 비가 부족한 인도 지역에서는 매우 귀중할 듯싶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완두콩과 일반 콩이다. 만주지방의 주요 산물인 이 콩들은 중국 요리에 쓰이는 기름을 추출하는 데 쓰이며 나머지는 큰 떡으로 압축되어 소를 위한 사료나 사탕수수 재배용 비료로 수출된다. 일반 콩은 갈아서 펄프로 만든 뒤 물과 섞으면 두부라고 불리는, 젤리 같은 하얀 물질로 바뀐다. 겉보기에 매우 좋고, 불쾌한 느낌의 씹는 맛을 지녔음에도 중국인은 이를 만주지방의 진미 중 하나로 여긴다. 엄청난 양의 콩기름과 두부가 매년 다른 중국지방으로 수출된다.

호박이나 멜론, 오이, 양배추, 상추, 순무 같은 경엽(莖葉) 또는 반경엽(半莖葉) 야채들은 대량으로 자란다. 감자는 늘 보던 것만큼 훌륭하다. 과일들은 자두를 제외하고는 별로다. 복숭아 종류가 몇 가지 있고 야생 개암과 일반 개암은 산속에서 풍성하게 자란다. 산사나무의 과실들은 야생과일의 경작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만주에서는 산사나무 열매들이 커다란 구스베리 크기로 자라 최상급의 타르트와 잼을 만드는 데 쓰인다.

다량의 야잠사가 작은 먼화와 마찬가지로 랴오둥에서 생산된다. 산에는 목재와 광물과 모피가 매우 풍부하다. 창바이산맥의 남쪽 비탈에는 주로 침엽수들로 이루어진 장대한 나무들이 많은데, 이 나무들을 압록강의 어귀로 띄워 중국 전역으로 보낸다. 깊은 계곡에는 중국 의약청에서 최고의 약으로 여기는 유명한 인삼이 자란다. 야생뿌리는 평균 1

은스당 10~12파운드에 팔린다. 그리고 큰 뿌리들은 커다란 다이아몬드처럼 환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배된 인삼일 경우 가격은 파운드당 4~5실링에 불과하다. 또 다른 주요 수출 품목은 녹각으로, 역시 의약품으로 취급된다. 새로 자란 1피트 길이의 벨벳과 피투성이의 녹각 한 짝은 50~60파운드를 받을 수 있다. 완전히 자란 녹각의 가격은 7실링 6페니에 불과하다.

광물과 관련해서는 한 장소를 기점으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금, 은, 석탄, 철이 모두 발견될 정도로 만주의 금과 석탄에 대한 전망은 아주 좋다. 반면 중국 관리들은 '발견되지 않은 금은 더 잘 보관되어 있다'라는 원칙에 따라 금 채굴의 전면 중단을 공포하고 있다.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광부는 강도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뤄질 수도 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광부와 강도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동일인이다. 허 가장 없이 석탄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진다. 이론적으로 대지의 내부를 파헤치는 행위는 신성모독이며 사람들은 은을 채굴한 죄로 인해 명 왕조가 몰락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베이징 근처에 커다란 탄광을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랴오둥과 지린에는 허 가장을 지닌 대규모의 광산들이 있다. 채금도 만주에서는 지역 관리가 묵인하거나, 알지 못하는 야생지역에서 들뜨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산성에 도착하기 전 어느 광부는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얼마 후 러시아인들이 아무르 강을 건너와 알바진 근처의 약사(Yaksa)에 위치한 금광지대에서 중국인들과 말다툼을 벌이자 중국 관리들은 강제로 작업장을 폐쇄한 뒤 본보기로 자국민들을 토막 내어 사체들을 내걸기도 했다. 또한 만주에는 석탄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는 1급의 이탄(泥炭)이 묻혀있다.

창바이산맥과 싱안산맥도 흑초피(黑貂皮)를 풍부하게 제공해준다. 만주의 호피는 비단결 같은 긴 털을 지녀 인도 호피보다 훨씬 멋지다. 다람쥐, 여우, 살쾡이 외에 다른 모피들도 풍부하다. 강은 질이 낮긴 하지만 진주들과 철갑상어, 연어, 송어 등 다양한 물고기들을 제공한다.

만주의 제조업자들은 그다지 선진적이지는 않다. 사실 야만상태에서 막 벗어나고 있는 지방에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반적인 의류인 면직 옷들이 중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방직은 별로 없으나 대신 염색업체는 많다. 최고급 가구, 박스, 관 등이 우아하게 채색된 후 라커칠을 더해 마치 조각 나무 세공을 한 것처럼 제작된다. 수레와 수레바퀴를 제조하는 목수들은 최고 수준이다. 가죽을 무두질하여 준비하는 것은 달인의 경지에 도달했으며 신발가죽도 좋다. 대리석으로 된 조그만 조각물도 있다.

날씨는 여름인데도 온화하다. 우리가 느꼈던 최고 온도는 7월 30일의 화씨 87도(섭씨 약 30도)였다. 우기는 5월에 시작되어 8월 말까지 거의 쉴 새 없이 계속된다. 반면 겨울은 엄혹하다. 북부의 기온은 화씨로 영하 40도(섭씨 영하 45도)까지 내려가며 심지어 해변에서도 화씨 영하 10도(섭씨 약 영하 23도)를 기록한다. 그러나 북풍이 불지 않는 한 정말로 건조하고 기운을 북돋우는 추위이며 편잡 지방의 짜증나는 오싹함보다는 견딜만하다. 그러나 북풍이 불어오면 적게 말할수록 좋다.

독자들은 지방을 비교해 볼 때 이제 만주가 부유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주지방은 발전을 가로막기보다 오히려 독려하는 꽤 솔직하고 지혜로운 행정부와 무한한 부를 갖고 있긴 하나, 안타깝게도 농업 또는 상업적 번영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들을 일부 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도로가 부족하다. 물론 수비대가 주둔해 있

는 도시들 사이의 연락을 위해 황제로를 비롯한 도시들을 연결하는 길들이 분명 존재하나, 올해 대부분의 시기 동안 이 길들은 마차가 지나갈 수 없는 늪일 뿐이었다. 딱딱한 서리가 늪과 개울에 달라붙는 겨울철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요 통신 축선 상에 위치한 최악의 습지와 개울들은 지역 동업조합의 열성어린 노력으로 극복되었으며 북부와 동부에서도 군사적 이유로 인해 군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긴 했다. 그러나 아직 어려움들이 꽤 많고 거리도 매우 멀어 교역은 전적으로 중단된다. 예를 들어 랴오 분지에 홍수가 나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쑹화 강 중류지대와 북부 현에서는 돈을 주고 곡물을 수입하지 않는다. 이유는 거의 안 팔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콩을 다시 기름으로, 곡물은 증류주로 바꿔 남쪽으로 보내게 된다. 랴오동조차도 곡물의 3분의 1은 위스키로 바뀐다고 산정한다. 겨울에는 만주지방에 우편이 없다. 황제의 전령들은 정부의 급송 공문서만을 전달할 뿐이고, 상인들이 몇몇 주요 지역들에 급사를 통한 통신체계를 설립해 놓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전혀 편리하지 않다. 우리는 바옌수수라는 2만 5천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에 머물고 있을 때 불과 150마일 떨어져 있는 지린에 한 통의 편지도 보내지 못해 특별 급사를 고용해야 했다. 전보체계가 빠르게 건설되고 있긴 했지만 군사적 목적이었으며 전보국이 너무 멀어 대중이 사용하기에는 힘들었다. 600마일 떨어져 있는 잉커우와 훈춘 사이에 전보국은 불과 세 개에 불과했다.

또한 은화가 유통되지 않아 모든 화폐거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하다. 약 스물다섯 개에서 서른 개 정도가 1폐니아 맞먹는 동전이 정부가 발행한 유일한 주화이다. 주화 가운데에 구멍이 나있고 그 구멍을 통해 몇 개씩 엮을 수 있어 동전을 보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구잡이로 썬 몇 줄을 조사해보면 중국인들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옛날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된다. 한 신사가 필자 앞에서 하인에게 주화 한 움큼을 가져오라 명한 일이 있었다. 우리는 그 주화들을 살펴보다가 11세기와 12세기 송 왕조의 주화 세 개와 250년 전 현 왕조의 성립을 도왔던 오삼계가 발행한 주화 한 개를 발견했다. 영국하인에게 환전을 지시했을 때 그 하인이 아주 당연한 듯이 윌리엄 정복자(William the Conqueror)가 새겨진 1펜스 동전들과 몽크(Monk) 장군이 새겨진 동전들을 가져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불행하게도 정부는 손해를 보면서 동전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발행비용보다 더 적은 액수를 받고 있음을 뜻한다. 당연하게도 정부는 최대한 적게 주화를 발행하고 있으며 주화를 녹여 구리그릇을 만들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이징 공보(Peking Gazette)』는 이런 방식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종종 경종을 울리기도 하고 실제로 잡히면 처형된다. 조선에서도 중국의 주화를 녹이는 일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더 가볍고 가치가 저하된 동화를 발행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중국인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일어나곤 했다. 영국과의 전쟁 중에 도광제는 무게가 절반밖에 안 되는 주화를 발행했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두 배의 무게를 지닌 주화와 등가로 아직도 유통 중이다. 결과적으로 다루기 힘들고 쓸모없으며 불편하기만 한 주화는 일반 소매거래에는 부족하나 정부의 주문이 주화로 지불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은행가들도 주화 몰수나 몇 달 동안 칼 형틀을 목에 쓰고 있어야 하는 형벌 때문에 다른 도시나 지방들에 주화의 신규공급을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 불량 또는 위조 동전들을 돈줄에 섞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 경우 손해는 최종 소유자의 몫이 되나 사람들은 그런 돈을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 그러나 원래의 주화가 좋으면 절반의 무게를 잃더라도 여전히 법적 화폐인 것이다.

통화는 어음의 보조를 받는데 어음은 일정 지위를 지닌 상인이라면 거의 모두가 발행할 수 있으며 부유한 여관 주인도 가능하다. 상인조합은 종종 지역어음의 발행을 규제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아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상인들이 자기책임 하에 어음을 발행한다. 이 어음들은 부분적으로만 현금으로 태환가능하며, 발행 장소에서 몇 마일을 벗어나면 가치가 없다. 위조가 쉬워 만성화 되었고 묵덴과 이웃 지역들에는 위조어음이 넘쳐난다. 크기와 외관에서도 이 어음들은 영국과 상당히 비슷하며 장식테두리가 달려 있고 복사방지를 위해 매우 공들여 제작된다. 발행소의 이름과 변경 불가능한 날짜 부분이(정확한 달과 날을 기입하기 위한 빈 공간과 함께) 큰 글자로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수결로 최종 확인을 받는 대신, 중국의 공식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라 공들여 새긴 도장을 붉은 잉크로 찍는다.

가치의 척도를 표시하는 냥(tiao)은 동일한 지방임에도 소지역마다 다르다. 즉 100개씩 세분된 1천 개의 동전이 달린 한 줄을 가리키며 석 냥, 즉 3천 개의 동화가 통상은 한 냥에 해당한다. 당연하게도 잉커우에서의 한 냥은 동전 160개에 불과하고 8~10냥이 은 한 냥이다. 지린에서는 한 냥이 동전 500개이며 명목상으로는 석 냥이 은 한 냥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모든 수치들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은 한 냥 자체는 '한 냥'이거나 중국식으로 은 1온스이고 예전에는 6실링 6펜스의 가치를 지녔으나 은의 가치가 평가 절하된 현재는 4실링 10펜스에 불과하다. 도매거래들은 이 주화로 손익을 맞춘다. 은을 외국인들이 신발이라

부르는 주형에 넣어 뾰족모자 형태로 만들면 대략 은 53냥의 무게가 나간다. 상하이의 은 한 냥은 만주의 은 한 냥보다 약 5% 가벼우며 황립 세관부서에서 사용되는 세관용 은 한 냥은 또 다르다. 동전과 어음, 동전과 은 사이의 환율은 날마다 다르나 매 거래마다 환전인이 영·중 속어로 ‘쥐어짜기’라고 부르는 커미션을 거둔다. 경상비 지출을 위해 여행자들은 ‘마제는(馬蹄銀)’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는 0.25~2온스 가량의 은 조각들로 대장장이가 분절하는 주괴지금(鑄塊地金 : ingot)을 뜻한다. 은 조각들은 환전 시에 무게를 달고 순도를 검사받지만 환전인마다 저울이 제각각이다. 끝으로 대규모 송금이 늘 그렇듯이 은으로 이루어질 경우 비적 두목에게 상당액의 돈을 상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명 빼앗기게 된다. 그러나 중국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끈질긴 인내심 덕분에 거래는 활발하다.

중국을 떠난 이래로 필자는 정부 혹은 오히려 광둥 성의 총독이 은 조폐소를 열려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정부가 불순물을 섞지 않겠다고 보장하고 검사를 핑계로 사람들이 은을 털어내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면 은화가 발행될 경우 엄청나게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계획이 성공할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지금 광둥 성에서는 환전인들이 자신의 손을 거쳐 가는 모든 달러주화들에 기표하거나 깎아 내어 유통에 부적합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1858년 6월 26일자 텐진 조약 제9조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자국의 영사가 발행하고 지역 당국이 교차 서명한 여권으로 중국 내륙을 여행할 수 있다. 영사는 여행자의 이름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 석판 양식을 보관하기 때문에 우리 일행은 잉커우에 도착하자마자 필요한 서류를 얻어야 했고 때마침 관무관의 배서를 받게 되어 별다른 수고나 지체가

생기지 않았다. 우리는 멈춰 설 때마다 최고 행정관이나 군사령관에게서 여권을 요구 받았으나 매번 지체 없이 돌려받았고, 여행 내내 관원들로부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반면 우리는 영사 알렌 씨가 친절하게도 묵덴 총독에게 의뢰하여 한두 지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호송대를 피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여행이 끝난 뒤, 산속에서 겪은 실수투성이의 방황들이 베이징에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관들은 영사들에게 정상적인 여행지에서 이탈한 외국인들은 중국의 지방 관원들에게 안전을 기대해선 안 된다는 점을 고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만주에 있는 한 우리는 마음대로 오갈 수 있었다.



## 제2장

# 역사

만주의 원주민은 정확하게는 타타르족의 한 부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적어도 과거 수세기 동안은 그렇게 불리어 왔으며 다른 민족처럼 관례적으로 그런 명칭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타타르라는 이름의 정당한 소유자들이 원래 누구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칭기즈 칸이 아시아를 정복하던 시기에 몽골의 한 부족에게 수여하거나 채택한 명칭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타타르라는 명칭이 기독교 세계에 처음 알려진 것은 몽골족이 1241년 4월 9일, 발스타트(Whalstadt)<sup>1</sup>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동유럽에 공포를 확산시키던 때였

<sup>1</sup> 발스타트(본 뜻은 '시체들의 도시')는 라이히니츠(Leignitz) 인근의 프리시아령 실레시아의 한 마을로서 실레시아 공작 헨리 2세가 1241년 4월 9일, 몽골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칭기즈 칸의 손자인 바투(Batu)에게 패배한 뒤 목숨을 잃은 곳이다. 1813년 8월 26일, 육군 원수 블뤼허(Blücher)는 같은 장소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고 전승기념으로 발스타트 공이라는 칭호를 얻

다. 당시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몽골족을 타타루스(Tartarus) 군단과 관련지으면서 ‘r’ 글자가 첫음절에 삽입되었다. 그 후 정복자들은 곧 민족성과 언어를 모두 잊고 피정복민에 동화되긴 했지만, 이 용어는 몽골 왕국들이 세워진 카잔, 아스트라한, 크림리아 반도의 한국(汗國)에 적용되었다.<sup>2</sup> 이 용어가 지칭하는 세 번째 지역은 투르키스탄이다. 어느 중국 사가에 따르면 844년 계탄(Ketan) 왕조가 황하를 넘어 피신해온 일단의 타타르인을 내쫓았던 일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오늘날까지 페르시아인은 투르크인을 타타르인이라 부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타타리(Tartary)라는 용어는 유럽인들에 의해 만주, 몽골, 투르키스탄과 여기저기 널리 흩어져 있는 아시아의 일부 지역들을 막연하게 가리키는 낱말이 되었고 거주자들은 타타르인이라 불리게 되었다.<sup>3</sup>

었다. 몽골족은 러시아, 알라키아, 헝가리, 폴란드 등 사실상 동유럽 전역을 침범했다. 이들은 패배를 몰랐으나 바투의 삼촌인 오고타이 칸이 죽자 약탈한 물자들과 함께 자진해서 퇴각했고 마침내 제국은 러시아와 중서부 아시아 지역의 여러 한국(汗國)들과 중국제국으로 분열됐다.

<sup>2</sup> 여기에서 ‘러시아를 벗어나면 타타르가 나올 것이다’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sup>3</sup> 1461년에 간행된 중국의 지리서에 따르면 몽골족과 타타울(Tha-tha-eul)족은 송 왕조와 진 왕조(약 11세기) 시대에 강국으로 성장한 네 개의 유목 민족 중 둘이다. 다른 중국인들은 이들을 초기의 모호(Moho)족과 동일시하는데 대부분의 권위자들에 따르면 모호족은 만주에 거주했다고 한다. 페르시아인인 아불 가지(Abul Ghazi)는 타타르족이 치치하얼의 북서쪽 구석에 있는 부이르누르(Buirnur) 호수에 살고 있었다고 서술한다. 1604년에도 유엔(Yuen)족 또는 몽골족의 후예인 타타(Tha-ta)족이 고비(Gobi) 사막이나 사모(Shamo) 사막에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주장을 제시하는 클라프로트(klaproth)에 따르면 몽골족 스스로는 그런 이름을 거부하는데 이유는 명칭이 ‘유혹하다’라는 뜻의 타타마이(Tatamai)라는 단어를 연상시켜 자신들이 강도라는 이미지를 남기 때문이다.

만주의 타타르인은 중국인, 몽골인, 통구스인(Tungusians),<sup>4</sup> 일본인, 북방의 조선인, 티베트인, 샴인, 미얀마인, 남방의 유사 인종 등과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타타르인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서쪽 끝과 북서쪽에 살고 있는 순수 몽골인과 아무르 강 양안 지역에 모여 사는 일단의 야만족인 북방의 통구스인, 중부와 남부에 살며 필자가 가장 잘 아는 만주인 등이다. 그러나 타타르인은 예나 지금이나 조선인이나 심지어 몽골인처럼 잘 정의된 별개의 민족이 아니었다. 타타르인은 오히려 몽골인과 통구스인의 핏줄을 반씩 타고난 소규모 유목 씨족집단의 후예였고, 조선과 아무르 강 사이의 산맥 속에 살면서 여러 대에 걸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다. 17세기에는 위대한 업적들로 유럽인들의 관심을 끌면서 누전족(Nu-chens)이라 불리기도 했다. 왜 타타르인이 누전족이라는 명칭을 만주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클라프로트(Klaproth)의 주장에 따르면 그 단어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방’이라는 의미를 지닌 중국어 표현이라는 것이다.

4 통구스인은 아무르 강 지역에 거주하는 야만적인 투라니아(Turania) 부족들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라벤스틴 씨는 동부 몽골족을 의미하는 중국어인 던쿠(Dunkhu) 또는 통후(Tunghu)라는 표현에서 기원을 찾는다. 그가 덧붙이는 스트랄렌베르그(Strahlenberg)의 주장에 따르면 예니세이(Yenisei) 강변의 가난한 부족인 아리니아족(Arinians)이 통구스족을 세 부족으로 구성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통게체(Tonge-kze)라 불렀다고 한다. 불리체프(Bulichev : 동시베리아 여행기 제1권)에 따르면 이 부족은 순록 통구스인(Reindeer Tungusians)과 해변의 통구스족 어부들 그리고 소를 기르고 땅을 경작하는 몽골 북동 지역의 타고우리족(Tagouris)을 가리킨다고 한다. 클라프로트는 통구스어로 ‘사람들’을 의미하는 돈케(Donke)라는 표현에서 기원을 찾는다. 일부 사람들이 타타르의 어원으로 간주하는 타뜨라는 단어는 중국인이 통구스인, 몽골인, 경멸하는 만주인 등에게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초기 만주인은 스스로 만주라는 명칭이 자신들의 왕조가 시작된 곳의 이름이거나 혹은 왕조의 신화적인 창건자를 가리킨다고 말했다. 로스(Ross) 씨의 설명이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데, 만주라는 단어는 중국의 지배왕조를 일컫는 깨끗하다는 의미의 ‘청(淸)’이란 중국 단어와 동일하며 이 왕조의 창건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씨족에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한 지역의 주민들이 추장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나눠져 있으면 종종 강한 성정을 지닌 한 인물이 언젠가 나타나 다른 나머지 집단을 점령하고 이들 지역에 자신의 종족 명칭이나 왕조의 명칭을 부여한다. 바로 이 일이 만주족에게 일어났다.

오늘날의 영국인이라는 단어가 게일어와 아일랜드어를 사용하는 켈트족을 포함하듯이 만주족이라는 용어 또한 누전족의 후예들인 만주 본토인 외에도 헤이룽장 북쪽에 살며 사냥으로 연명하는 솔론 만주족, 남단에 살며 몽골인과 유사한 시보 만주족, 송화 강 하안에 살며 언어 비늘 옷에서 유래한 ‘비늘’ 타타르 인이라는 뜻의 위피타쯔족, 우수리 강 어귀에 살며 앞머리를 깎지 않아 ‘장발의 타타르인’이라 불리는 장마오쯔족 등을 가리킨다. 위피타쯔족과 장마오쯔족은 순수한 퉁구스인이다. 이들 모두가 만주족인 것이다. 외모에서도 이들은 중국인을 많이 닮았다. 예리한 관찰력과 노련함을 지녔던 고(故) 메도우즈(T. T. Meadows) 씨는 생전에 언어, 예절, 의상 등 후천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적 특징만을 살펴본다면 만주족, 몽골인, 북부 중국인 사이에 이목구비, 신장, 안색 등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메도우즈 씨가 자신의 식별력을 신뢰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정규군으로 갓 선발된 수천 명의 만주족 청년들이 줄지어 지나가는 것을 우연히 지켜보게 되었는데,



그림 1 솔론족 청년

이들은 주위의 중국 구경꾼들과 쉽게 구별되었다. 대다수는 키가 작고 잘생겼으며 이탈리아인이나 시크교도처럼 갈색 피부에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고 검붉은 안색을 띠고 있었다. 담갈색의 큰 눈은 별로 쳐져 있지 않아 제대로 옷을 입을 경우 코사크인으로 무사통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밝고 지적인 표정은 구르카족(Ghurkhas)을 연상시킨다. 메도우즈 씨는 라오둥의 만주인과 가장 친한듯한데 이들은 수세기 동안 중국인과 교류하며 그들의 예절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동양인은 명칭과 인종이 다름을 보여주는 품행과 걸음걸이에 약간의 차이라도 보일 경우 이를 발견하는 데 아주 재빠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캘커타의 한 벙갈인 변호사는 뭐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유럽인 동료들과 같은 직업적 분위기를 갖고 있고, 중국의 병기창 공병들은 영국의 직공처럼 걸으면서 귀가하기 때문에 거리에서 즉각 알아볼 수 있

다. 그러나 만주에서는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차이가 커진다. 물론 그 차이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기후가 혹독하고 생계수단이 부족한 북단의 토착 부족이나 씨족들은 여전히 야만족으로, 외부의 침입자들을 자신들의 요새로 끌어들여 살해하는 것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남부는 문명화되면서 중국에 동화되었다.

중국이 현재 만주 왕조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왕조가 권좌를 차지하게 된 배경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만주족의 흥기와 발전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먼저 만주족이 벌인 전쟁들과 중국 정복에 관해 서술한 다음 특히 영국인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과 영국과의 분쟁을 유발한 거래들을 서술하려 한다. 현재 그 거래들은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다. 초기의 역사는 묵텐의 존 로스 목사와 디메트리우스 볼저(Demetrius Boulger) 씨에 의해 탐구되었다.<sup>5</sup> 그러나 이 두 권위자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각자가 도움을 받았던 중국 자문인들의 부정확성과 편견 또는 아첨으로 인해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중국의 초대 만주족 황제와 동시대인이었던 몇몇 예수회 사가들의 설명 또한 말할 나위 없다. 필자의 설명 또한 다른 역사가들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원컨대 현재의 만주와 만주 주민의 상황을 깨닫고, 중국의 이 구석진 곳이 유서 깊고 광대한 제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나름대로 정확하고 유용했다는 평가를 받기 바란다.

기원전 10~12세기에 만주 전역에는 토지를 경작하는 대신 생고기를 먹는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여름에는 산기슭에 살았

<sup>5</sup> J. Ross(1880), *The Manchus*, Paisley : J. R. Parlane.

고 겨울에는 땅 밑에 구덩이를 팠다. 그들은 앞뒤로 누더기만을 걸쳤으며 돼지기름을 피부에 발라 겨울의 추위를 이겨냈다. 야만족은 씨족으로 나뉘었다. 북쪽과 동쪽에 있는 씨족들은 늘 독립적이었으나 평텐 또는 라오둥은 그 위치와 비옥함 때문에 당시 토착 주민들과 조선인·중국인 사이에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의 롬바르디(Lombardy)나 벨기에라 부를 수 있는 이곳은 과거에도 세 민족 사이에 잦은 전쟁무대였다.

초기 정복자들은 별로 흥미롭지 않아 간략하게 언급하려 한다. 라오둥 남쪽에 조선이라 불리는 왕국이 최초로 수립되었다. 중국의 전설에 따르면 첫 왕은 기자(箕子)로, 기원전 1122년 주나라의 창건자이자 형인 무왕에 의해 임명되었다. 조선은 중국 왕조인 한나라에 의해 기원전 2세기에 정복되었다. 한나라의 힘이 기울자 라오둥은 제후국이 되었다가 후에 북위라 불리는 왕조에 의해 합병되었다. 위나라는 3세기에 진나라<sup>6</sup>에 의해 추방되었다. 반면 고구려라 불리는 조선의 왕조가 한반도의 북방에서 득세한 뒤 라오둥을 침략하여 정복했다. 7세기에는 또 다른 강력한 중국 왕조인 당이 들어서서 고구려를 격파한 뒤 라오둥을 다시 중국에 병합했다. 그러는 동안 만주족의 창시자들인(시순과 수젠이라 전해지는) 북방의 부족들은 점차 문명화되어 복수의 국가를 조직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부여와 읍루, 다음에는 우치, 마지막으로 모고가 수립되었다. 모고는 다시 북쪽의 말갈 또는 흑수말갈 그리고 남쪽의 말갈로 양분되었다. 남쪽의 말갈은 발해라 불리는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여 8세기 초, 중국 황제에게 인정을 받았다. 발해의 영토

6 이 왕조와, 한(漢)나라 이전에 번영하여 마지막 황제가 중국의 만리장성을 건설했던 진(秦)나라는 별개다.

는 북부와 동부 만주에서 랴오둥 지역까지 이르렀다. 이때가 만주의 황금기였다고 전해진다. 북쪽의 아무르 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골짜기에 사람들이 살았고 모든 평원이 경작되었다. 문화와 교육이 꽃을 피웠다.

10세기에 강력한 계탄족이 등장하여 발해를 내몰았다. 이들은 원래 시라무렌 강의 양안이나 송화 강의 북쪽 지류중 하나인 후란 강 근처에서 발흥했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일찍이 7세기부터 중국을 노략질하기 시작했으며 베이징에 거점을 마련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이들은 당나라를 계승한 송나라를 내쫓고 스스로를 철을 뜻하는 요나라라 칭했다. 전설에 따르면 계탄족에게는 야만과 문명이 기이하게 공존하고 있었다고 한다. 인간의 피를 즐겨 마셨고 남편은 아내의 등에 상처를 내 그 피를 마시기도 했다. 로스 씨는 이 모습이 남성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한 한 방식이라 말한다. 그러나 계탄족은 손님을 반겼고 센 술을 좋아했다. 이들은 예술가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들어왔을 때 수천 권의 문헌들<sup>7</sup>을 갖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랴오둥을 점령한 뒤 랴오 강 명칭을 따라 국호를 지었고, 고려도 굴복시켰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고려가 칭기즈 칸 시대 이전까지 랴오둥의 대부분을 점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질문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는 없다.

송화 강과 후르가 강 사이에 살고 있는 누전족은 요나라를 무너뜨린 후 베이징에 '황금왕조'라는 뜻을 지닌 금나라를 세웠다. 이로서 만주는 중국 북부에 두 번째 왕조를 세웠다. 그러나 13세기에 금나라는 몽

<sup>7</sup> 발해 왕조나 요 왕조에 관한 문헌들이 저술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로스 씨는 이 점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 만일 역사 편찬이 만주에 존재한 적이 있다면 16세기 말 이전에 사라졌음에 틀림없다.

골의 압도적 힘에 밀려 멸망했고 칭기즈 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은 중국의 나머지 지역들을 합쳐 원나라를 창건했다. 몽골족이 실제 만주를 통치했는지는 의심스럽다. 십중팔구 다수의 거주민들은 과거 계탄족이나 금나라 시대처럼 중국의 부유한 도시들과 비옥한 평야를 약탈하기 위해 몽골족을 따랐을 것이다. 반면 만주의 농경지는 관목 숲으로 전락했고, 남은 몇 안 되는 주민들은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14세기에는 탈옥한 한 승려가 비적으로 변모하여 몽골족을 상대로 반란을 성공시켰고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토종 중국인 황제가 권좌에 올라 중국 전역을 통치했다. 새로운 왕조는 명나라라 불렸다. 명나라는 300년간 이어지면서 라오동을 보전하고 조선을 복명시켰으나 북만주나 몽골의 야생부족들을 정복하지는 못했다. 도리어 명나라가 멸망했다. 아시아에서는 다윗이나 바벨과 같은 사람들이 왕위에 오를 수 있으며 난세가 낳은 위인들은 왕조를 유지하는 데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도 한다. 초기의 몇몇 왕들은 강인한 의지와 날카로운 명민함을 갖춘 인물들일 것이다. 그러나 냉혹한 운명이 다가오게 마련이다. 어느 날 제왕의 홀(忽)은 무신경하고 사치스러운 손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종말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것이 명나라의 운명이었다.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 정부는 완전히 타락해 버렸고 행정력은 황궁의 환관과 기생층 같은 인물들에 의해 마비되었으며 백성들은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다. 그리하여 작지만 용감한 만주족에게 또 다른 왕조를 중국에 창건할 기회가 찾아왔다. 30년 전에는 명나라처럼 거의 망했으나 이제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이전의 어떤 왕조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만주족은 이전의 왕조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서양문명의 경험이란 소중한 자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경

힘은 만주족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1559년, 명나라 세종 때 묵덴에서 동쪽으로 90마일 그리고 랴오둥의 국경에서 60마일 떨어진 호두아라라는 외딴 계곡에서 누르하치는 이름을 가진 누전족이 태어났다. 만리장성에서 시작하여 묵덴 동쪽으로 30마일 지점까지 이르는 랴오둥 지역은 당시 황제에게 속하는 곳이었다. 이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았고 고도로 문명화 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 본토를 구성하는 다른 17개의 지방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제국의 한 부분이었다. 한편 랴오둥 지역 바깥은 안과는 매우 달랐다. 수많은 소규모 종족들이 산과 골짜기에 살면서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고, 너무 야만적인 나머지 중국인은 이들과 아무런 교류도 하지 않으려 했다. 100평방마일 규모의 산악지역에 서로 다른 11개의 종족이 있었다. 누르하치는 6개의 촌락을 소유한 소족장의 손자로, 촌락들은 훗날 최초로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 만주라 불렸다. 세월이 흘러 위대한 후손들이 등장하자 누르하치를 위해 전설적인 가계도가 필요하게 되었다.<sup>8</sup> 그러나 가난하고 미천한 왕들은 늘 훌륭한

---

<sup>8</sup> 중국 연대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백두산의 경석 봉우리들 바로 동쪽에 부구리라는 높은 산이 있고 그 밑에 부르후리라는 작은 연못이 있다. 어느 날 처녀 리 포고룬이 이 연못에서 목욕을 한 뒤 까치가 옷자락에 놓고 간 과일 하나를 발견하여 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용모를 지닌 아이를 낳게 되었다. 포고룬은 아이를 ‘혼란스러운 민족들에 질서를 회복시키고자 하늘이 접지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아이의 성을 아이신지오로로, 이름을 부구리웅순이라 불렀다. 포고룬은 사라졌고 아이는 작은 배에 올라 강을 타고 떠내려갔다. 아이가 성이 서로 다른 세 민족이 전쟁을 벌이던 곳 근처에 내려 버드나무 가지를 꺾고 있을 때 전사 중 한 명이 물을 뜨러 왔다가 그를 보게 되었다. 이상하게 생긴 아이의 모습에 놀란 전사는 급히 되돌아가 동족에게 특이한 외모의 아이에 대해 알렸다. 흥미를 느낀 사람들은 강둑으로 찾아와

아이의 성과 이름을 물었고 그는 대답했다. “나는 선녀 포고룬의 아들이며 하늘로부터 너희들에게 질서를 회복해 주라는 명을 받았다.” 그 후 사람들은 아이를 즉시 왕으로 모셨고 백두산 동쪽에 위치한 오모히 사막의 오도리라는 도시에서 통치했다.’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안게라, 상해라, 포고룬 등 세 명의 선녀가 있었다. 두 선녀는 하늘로 돌아간 반면 포고룬은 지상에 남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아기를 낳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웠다. 아이가 다 자라자 포고룬은 아이에게 고기를 낚으러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말했다. 마침내 어부가 찾아와 아이를 양자로 삼자 포고룬은 승천했다. 이 설명을 제시한 페르 아묘(Pére Amyot)는 16개의 팔이 달린 여신과 포고룬이 동일인물이라 주장한다. 페르 아묘는 그 여신을 푸사 또는 중국의 퀴벨레(Cybele)라 불렀는데 현재는 천계의 부처 후보자인 보살로 묘사되고 있다. 아이신지오로는 하늘이 내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막내아들인 판자만이 까치의 도움을 얻어 탈출했다. 까치는 판자가 달아날 때 그의 머리 위에 내려앉아 추격자들이 판자를 나무 그루터기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까치는 오늘날까지 만주족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새이다. 판자는 오도리에서 백두산을 가로질러 호두아라로 도주한 뒤 그곳에서 누르하치가 탄생하기 약 200년 전부터 미래의 중국 왕조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누르하치는 어릴 적부터 크게 될 싹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그는 13개월의 아이에 불과했을 때에 이미 용의 얼굴과 불사조의 눈을 가졌으며, 가슴이 매우 넓고 귀가 컸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가장 큰 종소리와 같았다고 한다.

오도리가 실제 존재했는지 아니면 신화적 존재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한 질문은 아직 명쾌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 로스 씨는 오도리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랴오둥에 관한 중국사서들은 그곳을 싱강에서 1,500리 혹은 500마일 떨어진 곳으로 잡는다. 예수회는 자신들이 만든 1709년 지도에서 오도리를 싱강 북동쪽 약 200마일, Ning'an 남동쪽 100마일 지점에 위치시켰다. 뒤 알드(Du Halde)는 페르 레지(Pére Regis)를 인용한다. ‘오도리 호둔은 강 한가운데 솟아있는 독길 같은 좁은 지조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상 매우 강력한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궁정의 유적들과 커다란 돌계단이 발견되는데 Ning'an을 포함하여 다른 어느 곳에서도 비슷한 궁궐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페르 레지는 그곳을 방문했다고 말하지 않으며 그 장소에 대해 아무런 관찰도 하지 않았다. 정말 존재한다면 아마도 예수회가 후르가 강이 아닌 두만강 분지에 잘못 위치시킨 아우둔일 것이다. 오도리라는 명칭은 만주어이나 현재는 주민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필자는 훈춘에서 지린으로 홀로 여행하면서 아우둔 인

가문의 후예로 인정받고 싶은 헛된 꿈을 꾸게 마련이었고 특히 동양에서는 더욱 그랬다.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조차 영웅적인 가계도에 만족하지 못해 주피터 아몬(Jupiter Ammon)의 아들이라 자처했고 천한 가문 출신인 인도의 왕들도 마찬가지로 예절을 따지는 브라만 계층에게 찬양을 받고 싶어 했다. 이제 전설을 뒤로 하고 역사로 발길을 돌려 보자.

누르하치가 24살이었을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누르하치의 사촌과 결혼한 추장이 니간이라는 동족에게 포위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도우러 갔다. 중국인 행군감독에게 도움을 요청한 니간은 간계로 마을을 함락시켰고, 누르하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살해되었다. 누르하치는 반역자에 대한 복수를 맹세하고 중국인에게 니간의 항복을 요구하는 동시에 아버지의 장례식을 기리기 위해 20만 명의 중국인을 제물로 삼으리라 다짐했다. 중국인은 누르하치에게 친족의 시신을 내어주고 30필의 말을 주며 달래는 한편 니간을 전 지역의 군주로 선포했다. 그러자 누르하치는 130명에 불과한 작은 군대로 니간이 은신처로 삼고 있는 부족들을 공격했다. 3년 뒤, 누르하치의 세력이 커지자 중국인들은 배신자를 넘겨주었고 누르하치는 그를 처형했다. 또한 중국인들은 누르하치와 교역하는 데 동의해 시장을 열었고 야생동물의 가죽과 중국 상품이 거래되었다.

1587년 누르하치는 자신의 영지 위에 ‘구시가지’라 불리기도 하는 라오청이라는 작은 수도를 건설했다. 성벽 기반을 따라 세워져 지금은

---

근을 지났으나 방문할 기회는 없었다. 박식한 페르 아묘(왕조에 관한 사서의 내용에 대해 창건자가 오도리에서 처음 즉위하여 자신의 왕국을 만주라 불렀다고 논평하면서)에 따르면 오도리는 만주인들이 성벽을 쌓았던 작은 부락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오도리는 아마도 누르하치의 첫 수도인 라오청일 것이다.

경작지를 둘러싸고 있는 2피트 높이의 흙 제방은 이 역사적 장소를 상징한다. 16년 뒤, 누르하치는 세력이 커지자 북쪽으로 2~3마일 정도 떨어진 언덕 위에 더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고 ‘번영하는 수도’라는 의미로 싱징(盛京)이란 명칭을 붙였다. 니간을 죽인 뒤 누르하치는 주변 계곡들의 부족장들을 굴복시키기 시작하여 마침내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고 만주라 칭했다. 그 후로는 내치에 힘썼다. 누르하치의 법들은 신속하고 빠르게 적용되고 대부분 엄수되었으며 어떠한 약탈자도 감히 그의 땅을 침범하지 못했다. 누르하치의 지혜와 공정함이 널리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그의 법을 따르게 되었고 마침내 왕으로까지 인정하게 되었다. 누르하치는 몽골족의 문자를 바탕으로 만주문자를 처음 만들기도 했다. 누전족과 몽골족의 연합공격도 누르하치의 힘을 약화시키지는 못했다. 점차 그는 압록강으로 동진했고 북쪽으로는 창바이산맥을 넘어 후아비허와 송화 강 상류의 다른 지류들까지 진출했다. 정복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13년 만인 1613년에 이르자 누전족의 국가들 가운데 가이유안이라는 중국 요새에 인접한 예허족만이 남게 되었다.

후르가 강과 수이펀 강 및 아무르 강 원정이 마지막으로 이어져 1625년까지는 북쪽으로 아무르 강, 동쪽으로 동해를 경계로 하는 전 지역이 병합되었다. 그러나 이전부터 이미 누르하치는 중국이 부패하고 활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알고 명 왕조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예허족을 정복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던 누르하치는 국경지대의 중국 장수들이 그의 계획을 방해하고 저지하자 분노하여 예허족과 지지 세력을 한꺼번에 공격하려는 대담한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617년, 누르하치는 정식으로 중국에 전쟁을 선포하고 황제에게 일곱 가지의 불만사항을 담은 친서를 보

냈다. 마라타 수장 시바지(Sivaji)의 항복 요구가 인도의 아우랑제브(Aurangzebe) 황제에게 가소롭게 보인 것만큼이나 중국 황제의 눈에는 우습게 보이는 문서였다. 1618년, 누르하치는 랴오둥의 가장 가까운 국경도시인 푸순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 뒤 자신의 성급함을 후회하는 듯 누르하치는 황제에게 존경이 가득한 서한을 보내 아버지를 죽인 중국 관리들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을 뿐, 만일 황제가 알현의 기회를 허락하고 자신에게 정의를 베푼다면 무기를 내려놓고 도시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당시 중국 황제는 신종(神宗)이었고 그의 궁정에는 유명한 예수회 신부인 리치(Ricci)가 머무르고 있었다. 아비씨니아(Abyssinia)의 씨오도어(Theodore) 왕에게 답장하는 것을 잊어 영국이 전쟁으로 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존 러셀(John Russel) 것처럼, 신종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며 누르하치에 답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다음 해에 10~20만 명의 중국군대가 누르하치를 쳐부수기 위해 파견되었다. 랴오둥의 태수 양호는 파견군을 각각 5만 명씩 네 부대로 나누고 방향을 달리하여 싱깅으로 진격시켰다. 누르하치가 보유하고 있던 병사들은 총 6만 명에 불과했으나 그는 비범한 지휘력을 보여주었다. 시바지가 공격에 앞서 아프줄 칸(Afzul Khan)의 군대로 하여금 숲이 우거진 페르탑가르(Pertab-garh)의 골짜기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도록 내버려둔 것처럼 누르하치도 두송 장군의 지휘를 받고 있는 중국군 제1부대가 언덕 앞 40마일 지점에 전진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렸다. 두송은 사르후라는 낮은 길에 도착하자 참호를 파고 부대 일부를 남겨둔 뒤 나머지는 자신을 따르도록 했다. 누르하치는 관목 숲에 숨어 두송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참호를 야습하여 타격을 가했다. 그 뒤 선두를 추격하여 완전히 패주시키고 두송

장군을 죽였다. 이어 누르하치는 북쪽에서 전진해오고 있던 제2부대를 맞으러 갔다. 마림 장군은 견고한 위치에 포진하여 삼중해자로 요새화한 뒤 측면을 엄호하기 위해 인근 언덕 위에 각각 만 명의 병사를 배치했다. 후에 누르하치의 후계자가 될 넷째 아들이 이 외곽부대 중 하나를 맹렬히 공격했고 그 사이에 아버지는 주력군을 상대하기 위해 전진했다. 중국군은 적을 맞으러 출진했고 한동안 적과 아군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 만일 제2엄호부대가 그때 전진했다면 만주족의 운명은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환관 출신인 지휘관이 공격 한 번 못해보고 도주하고 사르후 패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군은 결국 사기가 저하되어 완전히 패주했다. 마림 장군 자신은 소수의 측근들과 함께 랴오동의 최북방 요새도시인 가이유안으로 탈출했다. 중국군 제3부대와 제4부대는 남쪽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이들은 수세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누르하치는 병사들을 무장시킨 뒤 패배한 중국군의 깃발을 흔들게 하여 중국군 진영으로 잠입했고 속임수가 발각되기 전에 세 번째 적을 패주시키고 유정 장군을 죽였다. 유정이 이끄는 기병의 주력부대는 조선 왕이 종주국을 돕기 위해 파견한 16만에 달하는 군대와 함께 예비부대였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진지에서 공격을 받았다. 조선군 지휘관이 적에게 투항했고 중국군대는 흩어졌다. 중국군 제4부대는 이미 후퇴하여 누르하치의 승리가 확정되었다. 만주족 군이 주로 활과 화살로 무장한 반면 중국군은 포, 징갈총, 화승총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패배로 막대한 양의 중국군 무기들이 다른 전쟁물자와 더불어 만주족 군대로 넘어갔다. 한 달 동안 휴식을 취한 뒤 누르하치는 가이유안이라는 견고한 도시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 잔여부대를 향해 전진하여 완전히 패주시켰다. 이어 인근에 있던 예허족을 공격하여 마

침내 병합에 성공했다. 누르하치는 부족장의 목을 매달고 도시에서 발견되는 모든 중국 병사들을 참수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누전족 또는 만주족의 국가통일을 이룩했다.

1620년 명나라의 신종이 60년의 긴 통치 끝에 사망했다. 그는 유약한 군주였으나 사려깊게도 죽기 전에 유능한 정필 장군에게 랴오둥의 질서를 회복하고 공격적인 만주족을 처벌할 것을 명했다. 정필이 국경 방어에 성공하면서 랴오둥은 2년 간 안정을 되찾았고 만주족의 약탈은 사라졌다. 적의 배후에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조선에 많은 뇌물을 제공했고 필요시 즉각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함대가 텐진에 준비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신종의 손자이자 새 황제인 광종은 불행히도 황궁의 기생충들에 귀를 기울여 정필이 소환되었다. 그리고 소중한 지원군이 될 수 있었던 마카오 출신의 잘 훈련된 포병부대가 약식 재판 후에 경멸과 시기로 인해 해산되었다. 그러자 누르하치는 지금이 공격을 재개할 시점이라 판단했다. 그는 이미 사령부를 국경지대 부근인 지에관과 사르후로 연이어 이동시켜 놓았고 두 곳 다 대승을 거두게 될 전장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1621년, 누르하치는 다시 국경을 넘어 당시 선양이라 불리던 묵덴을 공격했다. 도시는 요새화되어 수성태세가 빈틈없었으나 어리석게도 지휘관이 적의 유인책에 속아 출격했고 간계로 인해 퇴로를 차단당했다. 병사들은 몰살되었고 도시는 지휘관을 잃고 바로 투항했다.

누르하치는 즉각 랴오둥의 수도인 랴오양으로 진군해 갔다. 랴오양은 천 년 전 한나라가 조선인에게서 이곳을 빼앗을 때 유명한 포위작전을 펼친 곳이었다. 이곳은 여전히 크고 중요한 곳이다. 정필의 후계자인 원영태는 랴오양을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으나 누르하치는 진군

을 저지하려는 군대를 물리치고 그 앞에 진을 친 뒤 해자를 가로지르는 돌과 흙으로 된 마른 길을 만들어 성벽을 기어올랐다. 도시가 장악되자 원영태를 비롯한 많은 장수들이 자살했고 주도(州都)는 침입자의 손에 떨어졌다. 누르하치는 호의적 태도를 보이는 모든 주민들에게 앞머리를 밀고 만주식 변발을 하도록 명했다. 이는 항복한 중국인들이 누르하치의 병사들에게 적으로 오인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고 또한 그들이 다시 중국군 진영으로 넘어갈 것을 대비해 표식을 해두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 같은 예방책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중국인과 만주족이 서로를 인정하는 강력한 가족적 유대를 지녔다는 증거가 된다. 푸순과 랴오허 사이에 놓인 모든 지역은 주도와 함께 합병되었고 누르하치는 주도를 신속하게 자신의 중심도시로 전환시켰다.

중국인은 잃어버린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정필 장군이 다시 지휘를 맡았지만 동료 장군이 충고를 거부하고 군대를 마음대로 소부대로 나누었다. 베이징의 음모가들이 꾸민 장애물들도 정필의 지휘를 방해했다. 결국 정필은 누르하치를 내몰 수 없었다. 누르하치는 계속 진격하여 랴오허를 건너 만리장성 턱밑까지 강 서쪽의 전 지역을 유린했다. 정필과 동료들은 소환되어 처형되었다. 그러나 만리장성에서 약 7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요충지인 싱청은 원숭환이라는 용감한 장수가 방어를 맡고 있었다. 이곳은 만리장성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최고의 전략 요충지인 산하이관의 제1방어선이었다. 싱청은 사실 만리장성을 지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행로 가운데 하나이며 그 꼭대기를 따라 산맥들을 통과하여 만리장성이 건설되어 있다. 또한 내부에 베이징이 자리 잡고 있는 지리주와 만주의 경계이기도 하다. 누르하치는 싱청을 함락시키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랴오허 뒤로 다시 후



그림 2 만리장성

퇴할 수밖에 없었고 죽기 전 5년 동안 결코 산하이관 너머로 진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자신을 세차게 압박하던 원승환 장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배후에서의 침입을 막기 위해 아무르 강변과 동해 접경지역의 모든 소부족들을 감축하기로 한 누르하치의 아주 명민한 결정도 한 원인이 되었다. 마지막 이유는 모문룡이라는 대장군이 측면에 양동작전을 위한 견제군을 창설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7년 간 조선의 국경뿐만 아니라 랴오티산(해군지도에는 관둥이라 불리며 문자 그대로 '장성의 동쪽' 혹은 '섭정의 칼'이란 뜻이다) 반도에서 명나라를 위해 싸웠다. 한번은 모문룡이 전쟁터를 적의 지역으로 옮겨 싱깅 근처에 있는 누르하치의 가산을 약탈하기도 했다.

이제 누르하치의 생애가 끝나가고 있었다. 1625년, 그는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근거지를 선양으로 옮겨 '번창하는 수도'라는 뜻의 목

덴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1626년 누르하치는 재출전하여 심청을 맹공격했으나 중국인들이 해변에 좌초한 네덜란드 범선에서 얻은 포들을 성벽 위에 설치하는 바람에 큰 손실을 입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패배의 굴욕감에 누르하치는 징호라는 온천지에 칩거했다. 이곳에서 그는 병을 얻어 자신의 왕조 11년, 68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이 시기는 1626년으로 중국과의 전쟁이 선포되기 1~2년 전이었다. 일 년 뒤 명의 황제도 사망했다.

중국의 황제들은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 명나라는 동생인 승정제가 즉위했는데 유약한 인물이자 왕조의 마지막 황제였다. 반면 누르하치의 왕위는 넷째 아들인 홍타이지가 이어받았는데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었다. 넷째 왕자는 사르후 전투와 랴오양 점령과 같은 명나라를 상대로 한 초기의 모든 전투에서 말을 타고 중국군에 돌진하여 그들을 양처럼 흠뜨리는 남다른 용맹함을 보였다. 왕위를 물려받은 이듬해, 그는 뇌물을 써서 충직한 모문룡의 모반을 꾀했으나 실패하자 공격을 감행했다. 모문룡의 군대는 연합군으로서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군과 분쟁을 일으켜 약탈을 자행했고 조선군이 홍타이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좋은 기회가 생겼다. 어떤 설명에 따르면 홍타이지는 기회를 이용하는 데 실패했고 자신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조선군에게 돌리면서 이들을 공격하고 조선을 유린했다. 모문룡은 즉각 반격했고 피로 물든 전면전이 이어졌으나 어느 쪽도 결정적인 승리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이 모문룡의 중국군이 만주족 군대에 가할 수 있는 마지막 타격이었다. 그 해에 모문룡은 그를 시기하는 원숭환에게 독살되었다.

이 사건 이후 일종의 게릴라전 상태가 5년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홍

타이지는 반도를 최종 정복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모문룡의 부장들인 공유덕, 경중명, 이구성 세 명은 홍타이지에게 귀순하여 삼공이란 칭호를 받으며 중국 정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홍타이지는 다시 싱청을 공격했으나 실패했고 싱청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한 만리장성의 중국 남부지역은 난공불락으로 보였다. 홍타이지는 싱청을 우회하기로 결심하고 몽골의 고르짚 부족과 동맹을 맺은 뒤 1629년, 그들의 영토를 지나 베이징 북쪽의 만리장성을 통과하여 방어가 견고한 수도를 직접 포위했다. 포위공격을 전해들은 원숭환은 수도를 구하기 위해 강행군을 거듭했고 적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그러나 원숭환은 주둔지역을 벗어나 반역을 꾀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일설에는 황제가 직접 사형시켰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원숭환이 불충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파다했었고 아마도 이 때문에 그가 모문룡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도는 듯하다. 원숭환의 후임은 그다지 유능하지 못한 장군이었다. 그러나 홍타이지는 베이징이 너무 큰 도시라 함락시키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만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홍타이지는 성공을 거듭하면서 중국으로 가는 항구적인 길을 확보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동맹부족인 고르짚족의 도움을 받아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당시 고르짚족은 자하르 몽골족의 추장인 린단과 맞서고 있었다. 린단은 명나라 황제로부터 만주족을 공격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오랜 숙적인 고르짚족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기고 있었다. 홍타이지는 다른 한편으로 통혼과 거액의 지원금으로 고르짚족과의 동맹을 현명하게 일구어 왔고 따라서 만리장성을 통과하는 몽골길을 항상 이용할 수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베이징을 처음 포위한 시점부터 14년간 만주족은 중국의 북부주들을 지

속적으로 침략하여 약탈과 방화, 살인 등을 자행했다고 한다. 중국의 방어는 성공적이었고 만주족은 싱청과 인근 도시들을 점령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만리장성 남쪽에 영속적인 근거지를 확보하려 했던 시도가 좌절되었다. 랴오허에서 싱청까지 그리고 산시, 지리, 산둥 전역에서 재산과 생명의 손실이 엄청났다. 명나라 황제는 화친하려 했으나 중국인 특유의 오만함과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욕심 때문에 협상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마침내 1643년 약탈로 얼룩진 원정을 마치고 산둥에서 돌아온 홍타이지<sup>9</sup>가 사망했다. 그는 유능한 아버지를 둔 뛰어난

9 당대의 사가 마르티니(Martini) 신부가 1636년, 홍타이지가 죽고 그의 아들이자 당시 통치 군주였던 순치제의 아버지인 승덕이 왕위를 이어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사실은 중국사를 확인하는 작업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생생히 보여주는 것이다. 1725년에 발간된 뒤 알드의 저술도 동일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양자 모두 승덕이 중국식 교육을 받았고 중국인에게 인기가 매우 높았으며 베이징 점령 직전에 죽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아드리엔 그레슬론(Adrien Greslon, 1671)도 마지막 서술부분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페르 조셉 도를레앙(Père Joseph d'Orléans, 1688)은 홍타이지와 승덕이 서로 다른 인물이라고 이야기한다. 드 마이약(De Maillac, 1708년 중국 조사 책임자이자 불제 씨가 따르는 유고작의 저자)과 별명인 보제 드 브뤼넬(Vojeu de Brunem, 1754)으로 서술이 마이약과 일치하는 페르 조베르(Père Joveur)는 1635년경에 홍타이지가 치세 명칭을 천총에서 승덕으로 변경했으나 베이징을 점령하기 8년 전에 사망했고 그의 사후에는 왕자들로 구성된 회의가 만주의 국사를 담당했다고 정확하게 진술한다. 그러나 사실은 홍타이지, 천총, 승덕 모두 같은 사람이었다. 즉 그의 만주식 이름은 개인 이름으로 중국인이 모를 수 있으며, 심지어 로스 씨조차 언급하지 않는다. 홍타이지는 누르하치를 계승한 직후 천총의 칭호를 채택했고 왕조를 칭이라 칭한 1636년에는 스스로 황제라 선포하고 다시 승덕으로 바꾸었다. 사후에는 태종 문이란 왕조 시호가 부여되어 현재도 사용 중이다. 중국에서 치세의 칭호를 바꾸는 일은 대사건을 기념하거나 복을 기원하기 위해 한 때 유행했었다. 한나라의 어느 황제는 55년간 11개의 다른 치세 명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황제는 적어도 세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으

아들이었다. 초기 만주족은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군대에서는 어떠한 정실주의도 용납되지 않았다. 홍타이지는 용핑에서 중국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대를 물리는 실책을 범한 그의 장형 아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추방시킨 뒤 삭탈관직 했다. 당시 홍타이지의 동생은 베이징을 공격하고 있었다. 패배한 적들에 대한 만주족의 정책은 정확히 로마인이 따랐던 ‘패배한 자들을 감싸 안고 오만한 자들을 무너뜨려라’라는 원칙과 일치했다. 패배한 중국 장수들은 만주 변발과 참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변발을 수용하여 만주족에 합류한 사람들은 신뢰의 표시로 관대한 대우를 받았다. 만리장성의 남쪽 도시인 용핑이 함락되어 일부 탈영한 장수들이 홍타이지를 찾아왔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대신들을 친절하게 다루길 잊어버린 너희 명나라 황제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내 모든 대신들은 나와 나란히 앉아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발언하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 두 차례의 중국인 학살이 일어났을 때에도 중국인의 신뢰를 회복할 목적으로 가옥과 토지 그리고 여인과 노예들이 투항자들에게 분배되었다. 그 결과 만주족 군대 내의 중국인 수가 만주족 수를 초과하게 되었다.

홍타이지의 뒤를 이은 사람은 당시 다섯 살에 불과한 소년이자 아홉째<sup>10</sup> 아들이었던 순치였고 현 중국 왕조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다. 아

며 첫 번째는 자신의 개인 이름, 두 번째는 왕위를 계승하거나 치세가 지속되는 동안 갖게 되는 한두 개의 칭호, 세 번째는 자신의 계승자들이 수여하여 이후에 세간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만주족 황제의 치세 칭호 가운데 많은 것들이 매우 부정절하다. 누르하치는 ‘신의 은총으로’라는 의미로 천명이라 자신을 칭했고 순치는 ‘복종과 좋은 정부’를 의미하며 강희는 ‘안정과 통합’을 의미한다. 가정이라는 칭호는 ‘기쁨과 축복’이란 뜻으로 아이러니컬하다는 느낌을 준다.

마왕 또는 부왕으로 더 잘 알려진 그의 삼촌 도얼군이 만주족의 섭정이 되었다. 도얼군은 중국의 무정부상태가 극에 달해 마침내 명나라가 몰락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또 한 차례의 원정을 준비했다. 명나라 황제는 환관들 중 가장 유해한 자인 위충현을 처형함으로써 좋은 출발을 보였으나 곧 개혁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깨달았다. 15년 넘게 중국 남부와 중부지방에서는 두 명의 우두머리가 이끄는 해적들이 세력을 키우며 약탈을 자행하고 있었다. 이들 중 한 명은 중국 농부의 아들이자 어린 시절부터 비적이었던 이자성으로, 회교도인 다른 두목을 굴복시켰다. 이자성은 대부분의 중국지방에서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고, 대규모의 약탈과 살해에도 불구하고 황제라 칭하는 자신에게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세를 감해주어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 모았다. 마침내 이자성은 일단의 지지자들과 함께 도성으로 진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졌고 1644년 4월, 수도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불운하게도 장수들에 의해 버림받은 명나라 황제는 딸의 목을 베고 난 뒤, 몽골족이 침입했을 때 진나라 마지막 황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무에 목을 댔다. 사망 직전 황제는 제국 각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네 명의 장수들을 높은 품계를 부여하며 임명했고 그들 중 한 명이 오삼계로 당시 만주 국경지대를 방어하고 있었다. 오삼계는 베이징을 구하기 위해 회군했으나 헛걸음을 하게 되었고 주인의 운명을 듣고 난 뒤 다음과 같은 편지를 도얼군에게 보냈다.

삼계는 비록 모기처럼 약하나 산하이관을 장악하고 있다. 신은 극동에

10 한 예수회 사가는 그를 둘째 아들이라 하고 다른 이는 조카라고도 한다.

서 제국을 지키는 보루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수도를 방어하려 했다. 신은 도적들이 황궁에 침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신들이 반역자가 되어 성문을 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선제를 기리는 사당이 불타 없어져 아홉의 선황제들이 현재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하늘은 분노하며 백성들은 사나워졌고 민심은 의지할 곳이 없어 불안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용기와 덕 있는 자들이 있기에 백성들은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희망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살아 남아있다. 주지사들 가운데에는 금문과 한오같은 사람들이 있으며, 어떤 이는 확실히 구원자처럼 보인다. 삼계는 황제에게서 넘치는 충애를 입었다. 신의 머리는 주인의 죽음을 복수하는 데 골몰해 있지만 신의 수단은 협소하며 병사들의 수는 적다. 따라서 신은 피눈물을 머금고 귀공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며 귀공의 최정예군을 파견해 달라는 탄원, 즉 돌아가신 황제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충직한 신하의 직언이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귀공은 귀공의 병사들뿐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진군할 것이다. 우리는 연합하여 도성에 도달한 후 황궁에서 도적들을 끌어내어 절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만일 북방의 왕인 귀공이 우리나라를 돕는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돈과 물자만을 제공하겠는가? 기꺼이 우리의 앞이마 가죽을 베어 당신의 발 아래 던질 것이다. 우리는 결단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 기쁜 편지를 받자마자 섭정은 즉각 군대에 전진명령을 내리고 다음과 같은 답장을 띄웠다.

명나라와 잘 지내려는 것이 애초의 짐의 의도였고 따라서 짐의 선의를 전하려는 사자들이 베이징의 황궁으로 계속 파견되었다. 경의 궁정이

짐이 지금 받은 경의 서한처럼 우호적이었다면 우리 병사들이 결코 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상황이 악화된 지금도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제국의 안정을 회복시키고 백성들에게 번영을 약속하며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도적들이 도성을 장악하여 황제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짐의 머리에는 한 오라기의 머리털도 남아있지 않으며 손가락에는 한 점의 손톱도 없다. 지금 짐이 이끄는 병사들은 도적들을 절멸시키고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하기로 결심했다. 짐은 경에게서 이러한 서한을 받게 되어 크게 기쁘고 그 대답으로 지금 병사들을 이끌고 진군하고 있는 중이다. 경은 가장 충직하고 끈은 대신으로 칭송받고 있으며, 만일 경이 주군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한다면 결단코 도적들과 한 하늘을 이고 살아서는 안 된다. 비록 경이 예전에는 짐의 적이었으나 과거의 일로 의심을 품을 이유는 없다. 옛날 규용은 환과 싸우면서 그의 현대에 화살을 겨누었으나 환은 왕국을 이룩한 뒤 규용을 등용하여 아버지로 대했다. 만일 경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합류한다면 고향에서 진교범왕으로 봉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경은 주군과 경의 복수를 하게 될 것이며 엄청난 부와 명예로 보상받게 될 것이다.

만주족 군대와 중국군이 연합했다. 오삼계와 병사들은 섭정의 설득으로 변발을 하여 적군과 혼동되지 않도록 했다. 이자성은 오삼계의 아버지를 인질로 삼아 아들이 계속 반항할 경우 처형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는 중국인이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효성을 자극하려는 것이었다. 브루투스처럼 오삼계는 조국을 우선시했고 돌아가라 애원하는 아버지를 만난 직후(어떤 이에 따르면 견뎌내라고 그를 격려했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희생을 각오하고 병사들에게 전진을 명했다. 이자성은 노인을 처형하

고 만리장성을 지나는 연합군의 행로를 막아섰다. 그러나 그는 완패했고 섭정은 오삼계를 동반하여 베이징에 입성했다. 오삼계는 이제 만주족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선물을 가득 들고 섭정을 찾아가 그동안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 뒤 예를 갖추어 중국인은 섭정과 그의 군대를 붙잡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섭정은 전혀 폐가 아니며 만주족이 즉각 돌아간다면 중국의 안정에 지나친 무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더욱 공손하게 답했다. 그리고 만일 돌아간다면 이자성이 분명히 다시 나타날 것이고, 일단 떠나면 되돌아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섭정은 오히려 오삼계가 베이징에서 약탈한 물품들을 가지고 달아난 도적들을 추적하러 가고 그동안 자신이 도성에 머물면서 북부 주들의 평화를 일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삼계에게 가져온 선물들을 모두 받을 것을 청했다. 오삼계는 묵묵히 따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고 아마도 재론하지 않은 듯하다. 그동안 타타르의 증원부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기 마련이듯이 까칠한 피부를 가진 북쪽과 서쪽의 타타르족, 몽골족, 칼묵족들이 베이징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마르티니에 따르면 폴란드와 볼가 강변의 주민들까지도 중국 제국의 붕괴에 관한 소식을 듣고 약탈을 위해 모여들었다 한다. 섭정은 즉각 목덴의 만주 도성을 옮기기로 결정하고 조카인 소년 황제를 초청하는 사자를 보낸 뒤 두 개의 칙령을 발표했다. 하나는 새로운 왕조에 항복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명나라 치하에서 누렸던 동일한 지위와 권력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명나라 유신들이 이미 인정한 명나라 마지막 황제의 친족은 부인한다는 것이었다. 섭정은 바로 중국 북부를 평정하기 위해 네 부대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누어 파견했다. 그리고

36명에 달하는 가족들을 이자성에게 잃은 오삼계를 대장군에 임명하여 도적들을 물리치고 안정을 도모하는 훌륭한 지혜를 발휘했다(중국인들은 자신들도 현 왕조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자성을 배신자로 저주한다). 베이징에서 약탈한 물품을 가지고 도주했던 이자성은 추격을 받으면서 18개월간의 힘든 전투 끝에 지지자들을 모두 잃고 자살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대명’왕조가 ‘대청’왕조로 교체되었다. 1644년 말 누르하치의 손자가 마침내 황제로 즉위한 것이다.

중국 정복이 끝나기까지의 여러 과정들을 상세히 서술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다. 비록 도성의 함락이 만주족에게 큰 이점을 안겨주었지만 여전히 그것은 제국정복의 시작일 따름이었다. 북부에 위치한 산시, 허난, 산둥 성들이 3개월 내에 점령되었으나 곧 항쟁이 시작됐다. 명 왕조의 추종자들은 남부의 주도인 난징에서 복 왕을 환호하며 만력제의 손자로 선포했다. 만일 복 왕 혹은 어느 황족이라도 지도자의 자질을 갖고 있었다면 타타르족의 침입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을 것이며, 타타르족이 베이징에 자리 잡고 토착왕조가 남부로 밀려나는 분열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복 왕은 죽은 황제의 유능한 신하였던 사가법의 보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종하고 보잘 것 없는 인물이었다. 군대는 그를 위해 싸우려하지 않았고 복 왕은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물에 빠져 죽거나 베이징에서 교살 당함으로써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 가장 뛰어났던 당 왕과 계 왕을 비롯하여 다른 왕자들은 여러 주에서 명 왕조의 후예라 선포되었고 격렬한 전투가 일어났다. 그러나 명나라 왕자들은 합의를 보지 못했고 오랜 싸움 끝에 만주족은 왕자들 모두를 죽이거나 추방했다.

처음 병합된 주들에서는 심각한 반란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산시

성 태수인 강채가 이끈 반란은 어느 만주왕자의 추종자가 보여준 잔혹성 때문에 거의 성공할 뻔 했다. 또 다른 민중봉기는 산시 성에서 일어났다. 장시 성을 지휘하는 중국 장군도 새로운 체제에 반기를 들었다. 한 세기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던 서쪽의 이슬람교도들도 전쟁에 돌입했다. 서 왕이라 자칭하는, 역사상 전례 없는 대학살을 저지른 남서부 지방의 무법자도 처리해야 했다. 그는 후궁을 포함하여 수천 명에 달하는 병사들의 부인과 딸들을 진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냉혈함을 보였고 쓰촨 성 전역의 인구를 정말로 절멸시키려 했다. 중국은 끔찍하고 오랜 무정부상태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1651년, 마르티니가 중국을 떠났을 때—즉 베이징 점령 몇 년 뒤에—18개의 성 가운데 아직 12개 성만이 만주족에게 정복되었고, 명 왕조의 마지막 후예이자 중국 남서부 지방에 왕국을 세운 계 왕도 7년이나 더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애국적인 중국인들의 영웅적 투쟁이 곳곳에서 빛을 발했던 만주족의 정복과 포위, 전투, 원정, 대학살 과정에 대해서는 줄여서 설명할 시간도 없지만, 수백에 불과한 작은 야만부족이 자신을 싫어하는 인구 3억이 넘는 민족을 정복했던 주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한 언급이 필요할 것 같다. 불저 씨는 그것을 역사의 수수께끼 중 하나라고 부르지만 필자에게는 쉽게 설명이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거의 모든 것이 침략자에게 유리했던 일련의 환경들 때문이었다.

우선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토지 경작자와 소상인들이며 이들의 유일한 욕심은 말할 것도 없이 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농사를 지으며 물건을 거래하는 것이다. 이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강력한 통치자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만주 침입 한 세대 전까지 그러한 보

호가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나라 관리들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던 곳의 행정은 타락했고 억압적이었다. 반란이 성공한 곳에서는 백성들의 운명이 약탈자와 도적들에 의해 좌우되었고 이들은 세를 불리기 위해 주민들에게 반란군에 합류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택하라고 강요했다. 중국에서의 반란이란 단순히 부족장들끼리 가신과 종자들을 데리고 싸우는 동안 일반 사람들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며 폭군이나 또는 소수의 억압계층을 전복시키기 위한 피억압자들의 전면적인 봉기도 아니다. 반란은 훈족이나 몽골족이 보여준 참화에 가까운 진군과 유사하다. 외국인과 동포에게 똑같이 잔인하고 무자비한 중국인들은 특정지역에 진주하게 되면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무자비하게 약탈과 살인을 자행한다. 에텐동산이었던 곳이 중국군이 지나가면 황무지가 된다. 언제나 소심하고 평화적인 다수의 주민들은 합류를 원치 않으나 어쩔 도리가 없다. 집은 약탈되고 불타며 산이나 숲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비적의 우두머리를 따라야 한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들이 파괴되고 주민들이 동족에게 대거 살해된 이야기를 읽게 되면 넋더리가 난다. 포위된 도시민과 성민은 계속해서 동족상잔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중국 서부에서는 곤궁함이 만연해 있어 비참한 기근이 우발적 사고에 불과할 정도였다. 가장 비옥한 지역에서도 10에이커 당 1에이커는 경작이 포기된 상태였다. 그러한 시대에는 내치를 회복할 힘을 지닌 통치자라면 누구라도 주민 대다수의 환영을 받을 수 있었다.

사기가 충천하고 경무장에 규율이 잘 잡힌 군대를 가진 만주족은 그러한 힘을 보유하고 있었다. 실제로 병사들의 4분의 1만이 만주족이었고 몽골족은 4분의 1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변절한 중국인이었다. 중국인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만주족처럼 충

성과 복종을 다했고 반시간의 고지로도 언제나 출동이 가능하도록 훈련이 아주 잘되어 있었다. 말을 타고 있는 나팔수는 진군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고 부대장들과 지휘 장수들은 나팔소리가 들려오는 곳과 호출로 어느 부대가 진군할 예정인지를 알아차렸고, 각 연대들은 선두의 기병이 들고 있는 깃발을 따라 움직일 것이며 총사령관과 그의 나팔수를 제외하고는 어느 병사도 전 부대의 진군 이유와 목적 및 방향을 알지 못했다. 마르티니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은 중국인들을 크게 당황시켰는데 군대가 어느 쪽 방향으로 전진하리라 짐작할 때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기병대가 앞장섰고 보병대가 따랐으며 아주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어 연대들 사이의 모든 구분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물자를 운송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도 매우 간단하게 해결됐다. 운송해야 할 짐이 없었고 병참부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군관들과 병사들은 전진하면서 식량을 징발했고 음식을 얻을 수 있는 데 만족했기 때문에 획득한 고기가 날 것이거나 요리된 것이거나 말고기거나 낙타고기거나 전혀 패념치 않았다. 그들은 맨땅에서 자거나 말 양탄자를 바닥에 깔고 잤으며, 천막을 가지고 있을 경우 행군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용했다. 만주족은 매우 강건하고 야외를 좋아하여 불가피하게 가옥에서 숙박해야 할 경우 벽을 허물고 지붕만을 남겨둔 채 잠을 잤다. 실내에 있지 않으려는 장치였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사냥을 나갔다. 만주족은 중국을 침입하기 전까지 거의 화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소수의 중국인이나 유럽인을 포병으로 고용했었다. 최초의 만주포는 163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발사되었고, 무기는 주로 장궁, 무거운 단도, 창 등이었다. 만주족은 고향의 구릉지대가 말타기 연습에 부적합했지만 몽골족으로부터 배워 훌륭한 기수가 되었다. 이들

은 싸움에서 고삐를 놓은 채 군마를 발뒤꿈치로 모는 훈련을 받아 양손으로 자유롭게 활을 쏠 수 있었다. 만주족의 전투 원칙은 적을 급습하여 단번에 모든 것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도시를 공격할 때에는 참호와 포 대신 목재와 못으로 대충 만든 무수한 사다리를 말꼬리에 묶어 사용했다. 기수가 말에 박차를 가해 성채 밑까지 맹렬하게 달리는 동안 나머지 병사들은 뒤따르면서 함성을 질러 수비대를 공포에 질리게 했다. 많은 수의 병사들이 전사하지만 생존자들은 곧 성을 점령했다. 성벽 위의 적들이 화기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포위군은 도보로 전진하며 선두는 서로 연결된 커다란 판자를 머리에 이고 정면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막았다. 바로 뒤에는 사다리를 가진 부대가 따랐으며 최후의 시도로 결사대가 조직됐다. 만주족은 네 방향에서 공격을 했고 적의 최초사격을 받은 뒤 화승총이 재장전되기 전까지의 틈을 이용하여 사다리를 걸치고 성벽을 기어올랐다. 도시가 끝까지 맹렬하게 저항할 경우에는 수비대와 주민들을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베어버렸다.<sup>11</sup> 그러나 포위군에게 큰 손실을 끼치지 않고 일찍 항복할 경우, 변발을 하고 합류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선택이 주어졌다. 항복하여 전향한 자들은 관대한 처분을 받았고 지휘관에게는 지휘권이 부여된 반면 저항자에게는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격하면서도 온정적인 정책이 시행되면서 정복 지역에서 반란이 재발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일단 적이 제거되면 그 성은 곧 안정을 회복했고 도로와 큰 길들도 여행객들이 마음대로 오갈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해졌다.

11 위대한 도시 광저우는 장기간의 영웅적 방어로 이름을 떨쳤고, 그 결과 열흘 동안 학살과 약탈을 당해야 했다.

정복이 계속되면서 야전군이 베이징으로 부단히 소환되었고 새로 편성된 부대가 대체병력으로 파견되었다. 모두 약탈과 공을 세우는 데 정신이 없었다. 이로 인해 수비대는 한시도 경계태세를 늦출 수 없었고, 중국인들은 부대가 끊임없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효율적이고 용맹스런 군대가 가장 큰 성공요인이었지만 중국 관리들에 대한 만주족의 정책도 매우 지혜롭고 선견지명이 있었다. 만주족은 문맹이었지만 중국 관리들의 도움 없이는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세력이라 할 수 있는 중국 관리들의 환심을 사는 것은 분명 현명한 정책이었다. 그리하여 모든 고위직을 만주족으로 채우는 대신 예전처럼 중국인들을 임명했다. 대도시마다 만주 수비대를 두고 각 성의 우두머리는 만주족 장군으로 임명했으나 민사를 담당하는 관관과 태수는 중국인이었고 무관들과 동등한 권한을 가졌다. 만약 소요가 발생할 경우 민간 관료와 군부가 공조해야 했다. 지위와 급료가 보장되자 중국 관리들은 곧 새로운 주군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변발과 만주식 관복을 받아들였다(명 왕조 시대에 중국인들은 소매가 거의 땅에 끌릴 정도로 넓은 옷을 입었으나 만주족은 좁은 소매로 바꾸었다). 만주족과 중국인의 성향은 거의 유사해 이들은 처음부터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수 있었다. 만주족은 중국의 관료조직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문학적 능숙함을 매우 중시했다. 그리하여 일찍이 1636년 홍타이지는 만주, 몽골, 중국의 고전에 관한 시험을 도입했고 그 해 16명이 석사학위와 맞먹는 등급을 부여받았다. 만주족에게 1599년 이전까지 글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대단한 일이었다.

무너진 왕조의 지지자들을 달래기 위해 고안된 또 다른 신중한 조치는 만주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중국의 희생자들이 계속 조상들 묘에 함께 안장되도록 허락해준 것이었다.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선조에게 제사를 드리던 사원을 파괴했던 이자성의 행위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다.

만주족은 중국의 관료제도에 쉽게 적응하고 중국 관리들을 유임시키긴 했으나 나름대로의 법을 갖고 있었다. 유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법들을 싫어했으나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필자의 인용처는 200년이 넘는 이야기들이고 새로운 정부의 좋은 점들은 그리 오래 유지되지 않았던 듯하다). 만주족은 소송당사자들이 신속하고 불편부당한 재판을 받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1620년, 누르하치는 억울한 사람들의 탄원을 풀어주기 위해 이들이 요구사항을 왕궁 문 밖에 있는 두 개의 나무에 걸어 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칙령을 선포했다. 중국을 정복한 후에는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뇌물을 받는 관원은 지위를 막론하고 사형시켰다.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은 없었으며 어느 유명 사가는 신속한 재판이 '다소 야만적이고 그다지 정치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속임수와 사기로 대의를 흐려 재판을 지연시키고 법원의 모든 격식들과 절차들을 거치면서 결국 미결로 만드는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고 더욱이 만주족에게는 길어지는 재판이 오히려 야만스러워 보였다'고 표현했다. 만주족 고위관리들은 말을 타고 거리를 지나며 즉석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었고 따라서 거만한 중국 관리들은 체면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만주족은 하루 종일 사방으로 문을 열어놓고 앉아 어느 때건 알현을 허락했고 오만한 중국인들과는 달리 알현자들이 땅에 엎드리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가오지 않도록 했다. 이제 만주족은 일반인

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중국 관리들에게도 이전 왕조에 제공했던 무익한 간언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새로운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과거 면제되었던 세금이 부과되었다. 그리고 중국 관리들이 장중한 행렬을 갖추 거리를 다니는 것을 금지했다. 만주족은 중국 관리들이 가마에 앉아 이동하는 것을 조롱하고 비하했다.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관리들은 섭정과 황제의 숙부들 및 모든 만주족 태수들이 5~6명의 수행원만을 대동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타고 다니는 모습에 가마의 사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만주족은 탁월한 방식으로 군대를 다루었다. 병사의 지위를 높이고 승리한 지휘관에게 영예를 수여했으며 황제 스스로도 직접 큰 상을 내렸다. 만주족 출신 병사의 모든 후손들은 국가 연금수령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황제는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충성스런 별동대를 보유한 셈이었다.

사람들은 만주족의 통치가 안전보장을 의미하고, 변발 문제만 아니라면 자신들의 예절과 관습을 간섭받을 일이 없으며 사실상 여전히 동족에게 지배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새로운 체제에 만족하게 되었다. 만주족은 아무런 독자적인 종교도 갖고 있지 않았고 사제나 사원, 중국인의 제사 등에 간섭하지 않았다. 물론 중국 전역에 신병훈련소를 설립하여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활쏘기 성적으로 상벌제를 시행하면서 약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만주족은 구빈 조치로 그러한 갈등을 보상했다. 만주족은 명나라 황제의 사망 이후 3년간의 혼란기동안 백성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면제해주었다. 이는 넉넉지 못한 호주머리를 배려한 조치였고 서민들을 감동시켰다. 새로운 통치자들도 존경스러울 정도로 멋진 남성들이었다. 그들은 당시

중국에는 만연했지만 만주족은 몰랐던 악덕들과 전쟁을 벌였다. 만주족은 열등한 지위를 가졌던 여자들에게도 존중과 배려를 잊지 않았고 전쟁에 참가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환관들의 지위도 격하되었다. 환관들의 음모가 명나라의 몰락에 큰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때는 제도가 폐지될 뻔 했었다. 왜냐하면 환관들의 유일한 용도는 후궁을 지키는 것이었고, 당시 만주족 여인은 중국 여인과는 달리 집에만 머물지 않고 도시와 농촌을 자유로이 다니면서 활과 화살로 무장하고 말을 탔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서기도 해 환관이 불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만주족이 중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중국인들이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은 왕조를 대신하여 강력하고 안정적인 왕조를 기꺼이 받아들여려 했던 의지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만주족의 무용과 피정복 민족에 대한, 특히 관료층과 식자층에 대한 지혜롭고 관대한 정책 등도 중국인들이 주군의 교체를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일부 사람들은 만주족의 중국 정복과 영국인의 인도 정복을 비교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적으로 조건이 다르다. 전자의 경우, 한 야만족이 절반쯤 야만스런 민족을 굴복시킨 뒤 정복한 민족의 모든 법과 관습을 채택하면서 모든 어리석은 행위들과 악습들에 젖어들어 종언을 고했다. 후자의 경우, 서양 문명이 동양 문명과 접촉한 것이었고 동양 문명을 서양 문명이 지닌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지각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만주족처럼 토착 관리들과 함께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정책은 대다수 백성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많지 않았을 것이고 영국인도 자신들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를 유약한 토착관

리들에 넘기는 데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이 매우 유능한 행정가인 반면 인도 토착민은 전혀 다른 재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수세대가 흘러 원주민적 관념과 관습들을 버리고 유럽적 사고로 훈련된 토착민들이 성장하고 있기에 모든 사람들은 충심으로 그들이 책임 있는 고위직에 기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수년간은 유능한 인재들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고 자리도 더 적어질 것이다. 총명한 인도 토착민이 연설하는 것을 들어본 사람들은 그토록 유능한 사람이 왜 고위직을 차지하지 못하는지 의문스러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 인도인이 빈약한 교육을 받았고, 인도 정부의 정책기조를 잘 모르며, 영국적 사고방식과 갈등을 일으키는 관습을 갖고 있고 공직생활 경험이 짧을 뿐만 아니라 장점이 공식연설과 잔재주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망각한 것이다. 수백만 인도서민들의 민의를 훼손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들의 지지자가 되는 편이 나은 것이다. 동시에 토착민 관리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유능한 관리들의 발탁을 위해 인도 정부에 꾸준히 압력을 가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현재 미소르(Mysore) 지방에서는 영국식으로 훈련받은 토착민들이 효율적인 행정을 적절하게 펼치고 있다. 미소르는 병합을 끝까지 거부했던 정치인들의 지혜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만주인들의 역사 이야기에서 한참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오삼계의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그는 새로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력적으로 일했고 명 왕조의 후예들을 미얀마까지 추격했다. 미얀마에서 돌아온 직후에는 세성을 다스리는 왕의 작위를 받아 전권을 휘둘렀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노년에는 권력에 취해 반란을 일으켰고 아들과 손자들은

사형을 언도 받았으나 그동안의 공을 감안하여 황제가 보낸 흰 끈으로 목을 매도록 했다. 가장 어린 열 살짜리 소년부터 먼저 죽었다. 오삼계는 죽었으나 여전히 패배한 것은 아니었다. 추종자들은 흩어졌고, 오삼계는 만주족을 황제로 즉위시킨 지 35년 만에 황제의 명에 의해 살해되었고 역적들에 대한 경고로 뼈들이 잘려 제국 전역에 뿌려졌다. 위대한 섭정인 도얼근조차도 사후의 격하를 비껴가지 못했고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한 특징을 보여준다. 그는 황제인 조카가 열두 살이었을 때 죽었고 얼마 안가 왕위 찬탈을 꾀했다는 터무니없는 혐의로 조상의 묘를 모신 사원에서 추방되었다. 헌신적인 노력으로 얻은 모든 영예들이 박탈되었고 부관참시까지 당했다. 관에서 사체를 꺼내 토막을 내는 부관참시는 중국에선 가장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었다. 그러나 조카의 배은망덕이 그리 잔혹한 것만은 아니었다. 즉 1636년(왕조가 '청'이라 불리기 시작한 해), 황제는 누르하치에게 위대한 조상이라는 의미를 지닌 태조 고제라는 그의 명성에 어울리는 사후 칭호를 수여했고, 베이징으로 입성한 지 4년 후인 1648년에는 태조에게 옥황상제와 동급의 영예를 수여하며 제사를 크게 지냈다. 황제는 태조의 4대 직계 조상까지 황제의 칭호를 수여하고 시성했다. 왕조의 창건자들과 조상들이 그렇게 추존되었던 것이다.

## 제3장

# 역사(후속편)

홍타이지의 아들인 순치제는 17년간을 통치한 뒤 1661년 23세의 이른 나이에 사망했다. 그는 약 10년 전 섭정이 사망하던 때부터 정사를 직접 돌보기 시작했고, 어리기는 했으나 당대 사람들은 황제가 보여준 개인적인 친절함과 공무에서의 신중함 및 관대함을 칭송했다.<sup>1</sup> 현행 중국 형법은 순치제가 왕위에 오른 세 살 때 공포된 것이나 실제로는 삼

<sup>1</sup> 베이징에 도착하여 대신들을 상대로 행했던 매우 훌륭한 연설이 드 마이악에 의해 구전되나 투키디데스(Thucydides)가 기록한 것만큼 진본은 아니다. 페르 도를레앙은 더 그럴듯한 일화를 이야기한다. 순치제는 궁궐 주변에 있는 아담 샤알(Adam Schaal) 신부를 즐겨 방문했다. 당시에는 황제가 일단 앉았던 좌석은 황색 비단으로 덮여 황제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앉지 못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순치제는 거리낌없이 아무데나 앉았고 마침내 집주인은 “폐하, 그렇게 여기저기 앉으시면 곧 제가 앉을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간언할 수밖에 없었다. 황제는 말했다. “오, 그럼 당신도 아무데나 앉으시오. 짐과 그대 사이에 격식을 차릴 일이 뭐가 있겠소.”

촌인 섭정의 업적으로 개혁가적인 정신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궁정이야기가 1656년 7월부터 석 달 동안 베이징에 머물렀던 한 네덜란드 대사관 직원의 보고서에 전해진다.<sup>2</sup> 당시 베이징에는 네덜란드 외에도 인도의 무굴제국, 사타타드(Satatad)라는 서부 타타르족,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등이 파견한 대사들이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황제 앞에서 세 번씩 무릎을 꿇고 매번 머리를 땅에 세 번씩 총 아홉 번 짚는 삼궤구고(三跪九叩) 의식을 거행했다.<sup>3</sup> 그러나 대사들은 멀리서 황제를 바라볼 수 있었을 뿐 엄청난 공물을 바치고도 고작 8년에 한 번씩 중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100명의 수행원 가운데 20명만이 궁정을 찾아 예를 표할 수 있다는 서한 한 통을 받았다. 거의 같은 시간에 도착한 러시아 대사는 삼궤구고 의식을 거부했다.

순치제의 사망은 총애했던 후궁의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순치제는 후궁의 무덤에 30명의 남녀 시종들을 순장하려 했다. 그러나 일설에 의하면 황제는 그들이 자원하기를 바랐지만 중국인 시종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순장은 초기 만주인들에게 익숙한 것이었고 순치제가 순장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다. 드 마이락(De Maillac)에 따르면 만주인들은 왕의 장례식에 노예, 여자, 말, 무기

<sup>2</sup> 피터 드 고이어(Peter de Goyer)와 제이콥 드 케이저(Keyzer) 각하께서 전하신 중국의 대 타타르 칸 황제에게 파견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대사관 이야기. 대사 부속 집사였던 존 니호프(John Nieuhoff) 씨 작성. 아일랜드 왕국 국왕의 연회 주관자이자 기사인 존 오길비(John Ogilvy) 번역.

<sup>3</sup> 외국인들은 늘 이것을 고두라 말했지만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다. 중국에는 8단계의 인사예절이 있으며 고두는 그 가운데 다섯 번째로 무릎을 한 번 구부린 다음 한 번 머리를 땅에 짚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상기한 예법은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로 최고 존재인 황제만이 이를 받을 자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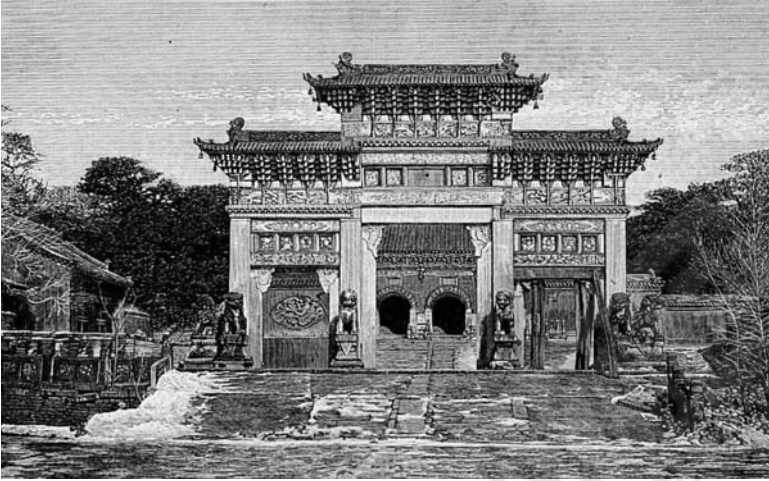


그림 1 묵민 소재 청 태종 묘 북릉의 패루

등을 함께 묻는다고 한다. 페르 도르레앙(Père d'Orléans)은 순치제가 사망하자 어머니인 황태후가 자신이 좋아하는 젊은 타타르족 대신에게 순치제를 따라 죽을 것을 명했다고 주장한다. 중국인들도 한때 순장을 실행했었다. 15세기에 명나라 영종은 자신이 사망할 경우 어느 후궁도 순장하지 않는다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50년 전에 제시된 헝(Huc)의 설명에 따르면 몽골에서는 추장이 죽으면 어린 노예들이 망자가 필요로 할 금과 은 및 다른 물품들과 함께 대규모로 순장되었다고 한다.

순치제의 뒤를 이은 강희제는 강희대제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순치제의 셋째 아들이자 황제가 불과 15살이었을 때 태어났다고 한다. 순치제 이후 일곱 대를 내려오는 동안 왕위계승은 한 번도 단절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졌고 현 황제인 광서제는 사촌이 이어받은 첫 사례이다. 강희제는 61년간 통치했다. 그는 예수회의 후원자로서 예수회의 도움을 받아 제국을 측량했고 천체를 관측했으며 대포를 주조하는

등의 일을 벌였다. 순치제의 첫 과제는 오삼계의 난과, 오삼계처럼 남쪽 지방에서 세력을 떨치던 상과 공왕자의 아들 및 손자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으로 7년이나 걸렸다. 모든 면에서 그는 매우 총명한 군주였고, 관대하면서도 강한 의지와 일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국가 재정을 절감하고 진심으로 백성을 위했다. 순치제는 제국의 영토를 서쪽으로는 호칸드까지, 남서쪽으로는 티베트 경계선까지 확장했고 아무르 강을 가로지르는 광야지역에 정착해있던 일단의 러시아인들도 몰아냈다.

강희제의 후계자는 넷째 아들인 옹정제로 13년간 통치했다. 옹정제는 강희제에 의해 왕위계승권을 박탈당했던 형들을 복권시킴으로써 형제순위가 낮아져 열넷째 아들이라고도 전해진다. 옹정제의 치세에는 가뭄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는 소심했고 강희제가 꾸준히 보호했던 예수회를 통해 기독교가 확산되자 경악했다. 그리하여 옹정제는 예수회의 전도를 금했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황족 일부는 지금은 프리모르스크(Primorsk)의 일부가 된 만주 동쪽 푸르단에 유배되어 사망했다.

옹정제의 맏아들인 건륭제는 강희제와 거의 비슷하게 60년을 통치했다. 황제는 1793년에 최초의 주중 영국대사인 매카트니(Macartney) 경을 접견했다. 다른 서구 강국들도 이 즈음에 대사를 파견했으나 자궁심 강한 중국인들은 이들이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러 온 제후국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건륭제는 강희제처럼 총명했고, 광대한 제국의 정무를 직접 처리했다. 그는 서쪽 변방과 이리, 카스 등지의 부족들을 제압했으나, 타이완과 구이저우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는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미얀마에서는 대패했다. 1785년에는 또 한 차례의 가뭄이 발생했고 재해의 원인이 황제의 부덕함 때문으로 여겨지자 건륭제

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한동안 기독교도들을 처형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중국의 많은 지역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황하의 범람을 조절하고 조사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황제는 예술과 문학의 따뜻한 후원자였다. 그러나 황제는 만주족의 잔인함을 지녔고, 1757년에 프랑스 공정의 모든 이들이 다미앵(Damiens)의 처형을 지켜보았던 것처럼 산시 성에서 봉기한 이슬람교의 수장들을 눈앞에서 고문하고 죽였다. 동시에 그는 반란을 일으킨 모든 종족들을 섬멸할 것을 명했다. 황제는 라마 불교를 무척 좋아했다. 그는 라싸의 달라이 라마 다음으로 권한과 신성함을 지닌 테수 라마를 베이징으로 초빙하고 먼 간쑤 성의 시닝까지 나가 그를 영접했다. 라마가 다음 해인 1780년 베이징에서 천연두로 사망하자 건륭제는 그를 기리기 위해 대리석으로 티베트의 초르텐 무덤을 닮은 아름다운 기념비를 베이징에 세우고 사체를 황금관에 넣어 라싸에 있는 달라이 라마에게 보냈다. 네팔 왕국을 유린하기도 했던 전사 집단인 구르카족은 1791년, 티베트를 침공하여 테수 라마의 수도인 테수룸보를 점령하고 약탈했다. 건륭제는 분노했고 옛 친구를 돕고자 즉각 중국 군대를 보내 구르카족을 패퇴시켰다. 중국군 사령관 손과는 4만 명의 군대와 함께 구르카족을 쫓아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수도인 카트만두를 위협했다. 구르카족은 경악했으나 중국군 사령관 자신은 회군하고 싶어 했다. 싸움은 구르카족의 마하라자가 테수룸보에서 약탈한 물건들을 돌려주고, 중국의 봉신이 되며 5년마다 사절을 보낸다는 데 동의하면서 종료되었다.<sup>4</sup> 건륭제는 후대 황제들보다는 허황된 자긍심에 덜 집착했다고 전해진다. 진정 그는 조상들이 지녔던 화려함

4 주해 A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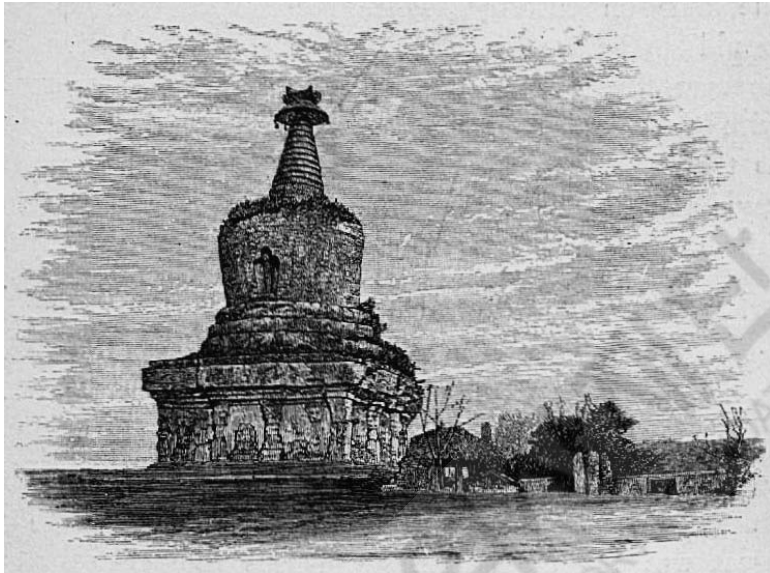


그림 2 목민 외곽 소재 라마교 기념탑

과 외양에 대한 경멸을 이어갔던 마지막 황제였다. 매카트니 경이 도착했을 때, 엮드려 머리를 땅에 조아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타고 온 마차의 깃발들에 쓰여있던 '영국에서 공물을 가져온 대사'라는 문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매카트니 경은 만일 자신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중국 대신이 조지 3세의 영정 앞에서 똑같이 무릎을 꿇는다면 자신도 기꺼이 그러겠노라고 말했다. 합의를 보지 못한 매카트니 경은 영국 왕 앞에서처럼 황제의 친전에 들어올 때 무릎을 굽히는 선에서 동의했다. 중국대신들은 맹렬히 반대했으나 건륭제는 지각 있게 이 정도의 예의에 만족했고, 매카트니 경에게 충심어린 환대를 베풀었다. 그러나 대사관은 설립되지 못했고 이는 부분적으로 전쟁에서 영국이 네팔 편을 들었다고 생각한 손과 때문이었다.

1795년 건륭제는 아들이자 훗날 왕조의 첫 폭군이 될 가경제에게 제위를 물려 주었다. 그는 게을렀고 방탕했다. 가경제는 페르 아묘를 중국에서 추방했고 남부에서는 취약한 행정으로 인해 해적이 들끓어 교역이 거의 중단될 지경이었다. 민심 또한 크게 이반하여 황제에 대한 암살이 수차례나 시도되었고 이는 청나라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심지어는 암살자들이 황궁의 심장부에 침입하기도 했고, 둘째 아들인 면녕 왕자의 기개가 없었더라면 황제는 살해당했을 것이었다. 그리하여 가경제는 연례행사인 궁궐 밖 사냥을 포기했다. 한편 앰허스트 경의 통솔 하에 또 다른 영국 사절이 베이징에 파견되었을 때, 황제는 고두를 고집했다. 이를 공사가 거절하자 모욕을 느낀 그는 섭정에게 영국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 또 다른 사절을 보내려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서신을 보냈다. 가경제가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왕조의 쇠락이 시작되었다. 현 황제는 강희제 및 건륭제와 정말 비교된다. 그들은 사냥과 여행을 즐겼고 나라와 백성을 돌보며 통치했다. 그러나 현 황제는 황궁에 처박혀 활쏘기와 승마 이외에는 아무런 수련도 하지 않으며, 야외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아 아마도 늙어서는 황궁의 정원에서 사냥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황제가 사원을 방문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황제를 쳐다볼 수 없고 백성들도 모두 실내에 머문다. 초기 만주인은 환관들을 싫어했다. 그러나 오늘날 베이징은 환관으로 가득하며 순치제 시대처럼 환관들이 해임되기는커녕, 1887년 현 황제의 친아버지이자 병부상서조차도 그를 감독할 환관이 배석한 상태에서 집무해야 했다. 만주인은 더 이상 가마에 앉아 여행하는 중국인을 비웃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만주족 장군들도 가마를 타고 싸우러 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속한 재판에 대한 애정, 타락에 대한 증오, 여성들에게 허용했던 자유는 이제 오

랜 과거의 일이 되었다. 쇠락은 가경제와 더불어 시작되었는데 허례허식을 좋아하는 황제의 성정이 만주족의 원시적 소박함을 타락시키고 파괴했던 것이다.

먼닝 왕자는 도광제로, 1821년부터 1850년까지 통치했다. 의지력이 매우 강했고 아버지가 저지른 많은 잔인한 행위들을 개선하고자 했다. 송이라는 정직한 신하를 유배지에서 불러들이고 부당하게 구금된 죄수들을 방면했으며, 사악한 인물들을 황궁에서 제거했다. 그러나 황제는 매우 게을렀고 정부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중국 밖에서 그는 영국과 전쟁을 일으킨 첫 황제로 유명했다. 인기 많은 근대사가인 저스틴 매카시(Justin McCarthy) 씨는 영국을 모욕한 중국보다 영국의 전쟁책임을 더 비난했고 그릇된 애국심을 가진 일부 대중들은 이에 장단을 맞췄다. 멜버른(Melbourne) 자작, 존 러셀 경, 팔머스톤(Palmerston) 자작, 웰링턴(Wellington) 대공, 머콜리(Macaulay) 경과 같은 정치가들이 전쟁을 승인하고 책임졌다는 사실과 의회와 국가가 그들을 지지했다는 사실로 충분한 답이 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잊혀지게 마련이고 근거 없는 이야기라도 여러 번 들으면 믿게 되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을 재언할 필요가 있다.

존 러셀 경의 말에 따르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대영제국의 대리인과 국민이 받은 모욕과 상해를 되갚고 영국 상인들이 폭력적 위협 속에서 겪었던 손실을 보상받으며, 중국과 교역하는 사람들과 재산이 더 이상 모욕을 당하거나 손실을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역을 하기 위함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전쟁을 아편전쟁이라 부르고 전쟁의 주범으로 아편 무역에 관련된 중국인들의 고압적 절차들을 지목하지만, 아편이 중국에 수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쟁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수년

간에 걸친 중국과의 교역에서 아편뿐 아니라 차나 비단 같은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유용한 항목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인은 영국 상인들과 외국인 전체를 박대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국 정부는 중국 황제와 외교적 관계를 맺어 양측의 불만을 논의하고 문명화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두 차례나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중국총론(Middle Kingdom)』의 박식한 저자이자 아편무역의 열렬한 반대자인 윌리엄스(Williams) 박사는 두 번째 시도가 실패한 이유는 황제와 중국 관리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무지와 오만, 고립과 거짓이 모두 합쳐져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월등한 힘에 의해 전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네이피어(Napier) 경에 행한 중국 관리들의 예우가 영국의 관리들과 국민에 대한 중국인의 행동방식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예일 것이다. 1834년, 동인도 회사의 특허장이 만료되면서 네이피어 경은 영국 왕에 의해 광저우 지역 교역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중국은 그의 영접을 거부했다. 중국은 동인도 회사의 독점권 폐지를 승인하지 않은 척하며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내왔다.

야만인<sup>5</sup> 네이피어 경은 마카오에서 명을 기다리지 않고 광저우에 왔다. 게다가 그는 세관 책임자의 허락도 없이 서둘러 광저우에 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그를 영접하기로 되어 있는 세관원들과 부속 인사

<sup>5</sup> 이 단어는 중국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공격적인 표현으로 1860년 조약의 특별 조항으로 향후 모든 중국 공식 선언서에서 금지되었다. 불과 한두 해 전까지도 만주 주재 영사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를 여전히 담고 있는 중국의 문건에 주의를 주어야 했고 당국은 철회하고 사과했다.

들이 처형을 요구하는 통지와 함께 파견되었다. 그러나 야만인이 중국을 처음 방문하는 자이고 천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영과 법을 모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엄격히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야만인이 개인적인 서한을 보낸다 해도 나 총독은 수령하거나 읽지도 않을 것이다. 동인도 회사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소재지가 곧 외국상인들을 위한 임시 장소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재외상관에서만 먹고, 자고, 사고, 파는 것이 허용된다. 바깥 출입을 하거나 돌아다니는 것은 불가하다.

네이피어 경은 영접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전부터 수년 간 중국인들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나 대부분 무죄였다. 1816년 알세스테(H. M. S. Alceste)는 앰허스트 경의 승선을 위해 광저우로 가던 중 총격을 받았으나 영국 함장이 재빨리 효과적으로 보복했다. 1821년, 한 미국인 선원은 실수로 보트에서 떨어진 한 중국 여인의 죽음을 사주한 죄로 고발되었다. 선원을 보호해야 할 영사와 관계자들은 사고로 중국과의 교역이 중단될까 염려해 포기했고 그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미국 대표들은 중국 당국에 다음과 같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영국에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나 아마도 매카시 씨는 필요할 경우, 이를 납득할 것이었다. '우리는 귀국의 바다에 들어와 있는 한 귀국의 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들이 매우 불공정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맞서지 않을 것이다.' 같은 해에 영국의 프리깃 함 토파즈(Topaze) 호에 소속된 비무장 군인들을 중국인들이 야만적인 방식으로 하선시켰고 해안에서 급수하는 도중 창으로 찔려 심각한 부상을 입혔으며, 부상병 중 둘은 사망했다. 그러나 아무런 시정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영국 정부에 대해 모르는 척 오만한 태도를 견지했으며 광저우의 관리

들조차 외국무역에 종사하는 중국 상인들을 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국 상인들이나 교역 책임자들과 직접 소통하려 하지 않았다. 행정관청이나 사법부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했다. 교역은 광저우 항구에만 국한되었다. 상인들은 혼잡한 강변에 일렬로 늘어선 집들에만 거주할 수 있었다. 상인들은 건강에 필요한 운동이 금지되었고 광저우 시내 내륙으로 들어올 수 없었으며, 필요한 하인들을 고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아내와 가족들도 광저우에 올 수 없었고 배로 며칠을 가야하는 마카오에 거주해야 했다. 1835년 3월 8일자 황제 칙령의 발췌문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서술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재외상관에 거주하는 야만인들은 오직 한 달에 세 번, 즉 8일, 18일, 28일에 외출할 수 있다. 한 번에 열 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저녁 다섯 시까지 재외상관으로 복귀해야 한다. 술을 마시거나 숙박을 목적으로 외부에 머무를 수 없다. 법을 위반하는 외국 상인과 통역자는 모두 처벌될 것이다.

야만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외상관의 상인을 통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위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원들의 행태가 극악하여 여러 번 모든 관계가 중단되었고 오직 중국 쪽의 요청에 의해서만 비로소 재개되었다. 요컨대 수년 동안 감독자와 상인들의 관계가 참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던 것이다.

영국이 중국법을 무시하고 계속했던 아편무역이 없었더라면 상황이 그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광저우의 중국인들이 아편에서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차

와 무역을 포함한 외국과의 모든 접촉들이 실제보다 더 빨리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편 교역이 한때 명목상으로 불법이었고 아편전쟁 직전야 비로소 황제가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반세기 동안 법은 사문서나 다름없었다. 베이징의 황제에서 광저우의 승선담당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리들이 아편을 통해 얻는 이익에 빠져들었다. ‘호포’라 불리는 세관장은 일반적으로 황족에게 주어지는 직위로, 대개 충애하는 후궁의 혈육이 임명되며 파견지인 광저우에서 아편재배로 부를 축적했다. 중국 상인들이 관청의 강제 징수로 인해 교역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자 세관장은 네 척의 대형 선박을 만들어 아편을 직접 실어 날랐다. 탁월한 선교사인 메드허스트(W. H. Medhurst) 목사는 입항하는 배에 관원들이 정기적으로 승선하여 배 한 척당 엄청난 돈을 요구했다고 전한다. 또 다른 성직자인 구츨라프(Gutzlaff) 박사에게 따르면 밀수업자들이 세관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밀수감시선들이 수입금지 품목들을 오히려 밀반입했다고 한다. 그는 ‘불법적인 독약들을 실은 정부 선박들이 매일 지나간다’고 쓰고 있다. 그 외에도 당시 윈난 성과 다른 지방에서는 바로 판매가능한 상당량의 아편이 재배되어, 지방 책임자들이 외국인의 공급이 중단되어도 주민들의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할 정도였다. 따라서 아편 수입은 영국에 대해 중국이 가졌던 불만사항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839년이 정점이었다. 황제는 중국에 불리한 무역 수지에 놀라기 시작했고 아편을 수입하기 위해 인도에 대량의 은을 지불한 탓으로 돌렸다. 도광제는 분명 아편 흡입을 싫어했다. 아편 흡입은 금세기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희제와 건륭제의 오랜 안정기를 거치면서 중국이 번영을 거듭하고 부와 인구가 증가

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sup>6</sup> 영국인이 아편을 중국에 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점에 관해 최고의 권위자인 토마스 웨이드(Thomas Wade) 경에 따르면 영국으로부터의 아편 수입은 전 인구의 1%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아편전쟁 이후 7년간은 양귀비가 18개 성 가운데 10개 성에서 재배되고 있었고, 간쑤 성의 경우 수입 아편과 경쟁을 할 정도였다. 아편 무역을 밀수 무역이라 부르는 것도 용어를 혼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1839년 황제는 교역의 실태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이 유출되고 있는 데 놀라 즉각 교역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임칙서라는 특임관에게 내려 그를 광저우에 파견했다.

임칙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외국인과의 모든 교역이 중단된다는 칙령들이 거리에 나붙었고, 임칙서는 도착하자마자 즉시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고 단호하게 황제의 명령을 집행했다. 그는 우선 자신의 허가 없이 영국 상인이 광저우를 떠나는 것을 금했으며 가장 큰 상인인 덴트(Dent) 씨의 개인 재산을 가로채려 애썼다. 영국 책임자는 200명의 영국인들과 함께 7주 이상 가택에 연금되었고 무장한 병사들이 집 앞을 밤낮으로 오가면서 식량과 물을 빼앗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했다. 임칙서는 한 죄인을 아편 흡입이라는 죄목으로 영국인들의 거주지 외곽에서 공개처형하는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중국은 영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자 관세를 지불한 차와 커피를 신고 있는 스나이프(Snipe)라는 배를 파괴했다. 결국 임칙서는 교역 담당관인 엘리

<sup>6</sup> 인도의 증류주 소비가 증가한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다. 비록 실수가 있긴 했으나 정부나 정부 관리들이 이를 조장했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밀수를 억제하면서 증류주 소비를 최소화하라는 것이 당시 실제 명령이었다.

엇(Elliott) 함장에게 상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아편을 넘길 것을 요청했고, 함장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아편은 2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가치를 지녔으나 임칙서는 모두 없애버렸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영국 군인들에 대한 물자공급이 거부되고 외국인과 배에 대한 불법행위가 만성화되었으며 심지어는 임칙서가 영국 여왕에게 모욕적인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다음은 그 일부이다.

모든 민족을 복종시킨 황궁의 강력한 수단은 진정 신성하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경외심을 품게 만든다. 사전에 경고했다고 말하진 않겠다. 귀국의 왕은 이 문서를 수령한 뒤 답신으로 모든 항구에서 귀국이 아편 무역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들을 통지해주기 바란다. 결코 거짓된 위장으로 회피하거나 지체하지 말라. 진정으로 이에 관해 숙고하고 준수하기 바란다.

24척의 정크선이 두 척의 영국 프리깃 함을 위협했다. 비록 중국 제독은 격퇴당했으나 황제는 오히려 승리를 치하했다. 광저우의 관리들에게 외국인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할 것을 명했고 아편을 거래하는 영국 상인들은 처형될 것이라고 선포되었다.

결국 영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홍콩이 바로 점령되어 합병되었고 광저우 강변의 요새들이 함락되고 파괴되었다. 황제는 야만인의 지도자들을 생포하여 베이징으로 보내라는 단호한 명령을 내렸고, 휴구(Hugh Gough) 경은 광저우를 장악했고 45척의 정크선이 파괴되었다. 샤먼, 전하이, 닝보가 차례로 점령되었다. 전쟁이 양쯔 강 상류로

확대되면서 오쑹, 상하이, 전장이 함락되었다.<sup>7</sup> 난징이 영국군에 포위되어 함락 직전에 이르자 마침내 황제는 항복하고 평화를 청원했다. 그는 훼손된 영국 재산을 상환하고 다섯 군데의 항구를 개방하여 공정하고 정기적인 세금에 기초한 교역을 실시해야 했으며, 홍콩을 할양했다. 윌리엄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짧게 언급한다. ‘전쟁이 중국의 부당한 억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 같았다.<sup>8</sup> 전쟁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은 정부와 중국인들의 속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명백해 보였고, 결과 또한 그러한 기대가 근거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는 않지만 황제나 중국 관리들이 세련되거나 혹은 적어도 합리적인 태도로 처신했더라면, 그래서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왕을 포함한 대표자들과 품위 있는 외교관계를 맺었더라면 아편을 둘러싼 중국의 불만사항들이 재고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결코 영국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

7 전장의 만주족 수비대는 아내와 아이들을 죽인 뒤 자살하기로 결의했으나 많은 이들이 현장에서 발견되어 구조되었다.

8 전시기간 중 외국인에게 가해진 학대의 사례로 세 명의 난파선 선원들을 언급할 수 있다. 1840년, 카이트(Kite) 선에서 구조된 노블(Noble)이란 이름의 숙녀와 선원들이 아생 동물처럼 작은 우리에 감금되어 아주 잔인한 대우를 받던 중 일부가 사망했다. 마드라스(Madras) 군의 선장 안스트루더(Anstruther)는 닝보에서 사로잡혀 똑같은 야만적 행위들을 겪었다. 1841년 9월과 1842년 3월에는 네르부다(Nerbudda) 선과 앤(Ann) 선이 각각 타이완 해역에서 행방 불명되었다. 100명이 넘는 불쌍한 인도인 비전투 종군자들은 배의 장교들에 의해 버려져 11개월 동안 투옥되었다가 황제의 명령으로 나신으로 처형된 뒤 다룬가라는 한 만주 관리의 허위 보고에 따라 인도되었다. 앤 선의 승객 57명 가운데 대부분은 인도 원주민이었고 열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처형되었으며 상인인 걸리(Gully) 씨도 그 중 하나였다.

1839년 직전까지 황제는 밀수품의 허용과 선제적 금지 및 자의적인 몰수 조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다. 황제는 외국인과의 소통을 거부하면서 광저우의 중국관원들에게만 의존했고, 중국 관리의 허락으로 수입된 아편은 밀수품으로 간주될 수 없었다. 분명 영국은 미래를 위해 황제의 입법권을 인정할 수도 있었지만, 황제는 관례적으로 인정되던 범위 이외에는 양보하지 않았다. 머콜리(Macaulay)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국 정부는 진통을 억제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강력한 효능을 지닌 약을 무절제한 사람들이 과도하게 복용한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가 국내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지 의문스럽다. 영국 정부는 무역이라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은의 유출을 금지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가 현명한 정책인지 의심스럽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기구라도 사람들이 즐기는 사치품들을 강제로 유통 금지 시키거나 교역과정에서 불가피한 은의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영국의 역사는 가르쳐왔고 다른 모든 나라들의 경우도 동일하며 현재 영국의 상황은 더욱 그러하다. 대영제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해군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연안경비대를 가지고도 이를 수 없던 일이 중국 관리들의 모자라는 노력으로 달성될 리는 만무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여러 의견들과는 별도로 중국 정부에게만 결정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공공의식과 국제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아편을 폐기하고 은을 지키며 자국의 금지법을 집행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만일 자국 내에 반입되는 모든 밀수품들을 압수하고 사전에 공정한 뒤 아편을 빼앗았더라면 우리는 불평할 권리가 없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공정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아편을 금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조치들로 우리의 무고한 동포들을 구금하고 왕의 대리인 앞에서 통치자를 모욕했을 때, 우리 정부는 지금이 개입해야 할 적절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중국 황제의 세관장은 재산몰수로 시작하여 무고한 피를 요구했다. 이제 중국 내 영국인들은 고국과는 멀리 떨어져 타지에서 보호를 기댈 수 없을 정도로 위협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국가는 자국민들이 털끝하나라도 무고하게 다치는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 가장 정의로운 싸움이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공포해야 한다고 느꼈다.

이 연설의 출처인 원래의 논쟁은 정부가 광저우 교역 책임자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못함으로써 전쟁을 초래했다는 제임스 그래함(James Graham) 경의 주장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토리당 의원 글래드스톤(Gladston) 씨도 동참했는데 후에 더 정열적이기는 했으나 초임 의원시절에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대의명분을 위해 그토록 거친 언사를 사용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글래드스톤 씨는 다음과 같은 혐의를 인정했다. 즉 아편무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감독관으로부터 세 시간 안에 마카오를 떠나라는 통지를 받은 영국인 부녀자와 아이들에게 물을 빼앗으려는 의도로 중국인들이 해안선에 있는 우물들에 독을 풀었다는 것이었다. 팔머스톤 경은 토론에서 맹렬히 그를 반박하면서 글래드스톤 씨가 의도적으로 끝까지 남아 괴물 같은 원칙들을 기립으로 옹호했다고 비꼬았다.

도광제는 만주에 있는 조상들의 고향을 방문한 마지막<sup>9</sup> 황제였다. 그는 1850년에 사망했고 19세의 청년에 불과한 아들 함풍제가 제위를

이어받았다. 도광제는 유약하고 잔인했던 통치자로 그의 치세에 청나라는 명 왕조의 운명을 밟아갔다.

1850년 태평<sup>10</sup>천국의 난이 시작되었다. 태평천국의 난은 만주이야기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으나 왕조가 이 사건으로 몰락 일보 직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고 또 고든 제독의 이름이 살아있는 한 영국인들은 이 이야기를 흥미로워할 것이다. 중국인이 아닌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 놀라운 반란에 일정 정도 기여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지도자는 홍수전이란 남자로, 광저우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소농의 아들이었다. 24살의 나이에 실신하여 혼수상태에서 귀인을 만나 세상의 모든 타락상을 알게 되고 악령들을 극복할 길을 받았다(그는 그렇게 믿었다). 또한 홍수전은 갈등을 겪고 있는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발견했다. 1843년, 그는 성경의 68개 장으로 구성된 기독교 팸플릿을 읽게 되었고 자신에게 비전을 제시할 사람들은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와 성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최고 통치자로 불려야 한다고 믿었다. 1846년 그는 로버츠(Roberts)라는 선교사와 2개월간 함께 공부한 뒤, 그를 떠나 친척과 친구들을 개종시키기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중국 정부는 새로운 종파의 신도들을 반역으로 간주하여 약식 처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아무런 경고도 없었다. 개종자들은

9 로스 씨가 필자에게 제시한 의견이다. 델마 모건(Delmar Morgan) 씨는 가정제가 마지막 황제였다고 말한다.

10 태평은 반란의 주모자가 지닌 칭호로 '대평화' 왕조를 뜻하며, '대명' 왕조를 모방하여 '대청' 왕조라 부른 만주족을 흉내낸 것이다.

점차 강해져 개종을 거부하는 이웃들을 공격할 정도가 되었다. 1851년 황제는 세 명의 만주족 관리를 파견하여 난을 진압하고자 했으나, 타락하고 비효율적이었던 군은 폭도들에게 쉽게 패배했다. 5개월간 룡안에 포위되어 있던 홍수전은 주위를 에워싼 군대의 초병선을 뚫고 중국 전역으로 승리의 행진을 시작했다. 황제와 맞선다는 대의를 강조하기 위해 홍수전은 200년 전의 만주족 황제처럼 추종자들에게 변발을 포기하고 앞이마에 머리를 기를 것을 명했으며 명나라 패망 이후 포기한 소매 폭이 넓은 의상을 도입했다. 중국인은 이러한 태평교도들을 ‘장발의 반란자들’이라 불렀다. 일부 반란군은 그 수가 3천 명에서 8만 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들은 난징(문자 상으로 남쪽의 수도라는 뜻으로 북쪽에 위치한 베이징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이다)으로 향했고, 1853년 3월 18일 성의 태수를 포함하여 수비군을 진압하고 함락시켰다. 이후 곧 또 다른 봉기군이 베이징을 향해 행진하여 황제의 모든 군대를 물리치고 4개월 만에 수도에서 80마일 떨어진 텐진에 도달했다. 중국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한 진군은 마치 성경의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떼 같았다. 태평교도들은 세상을 평정했으나 그것을 평화라 부르지는 않았다. 그들의 지도자는 이자성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었고, 중국 전역을 정복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과감하게 베이징으로 쳐들어가지 못했다. 1855년, 홍수전의 군대는 퇴각하기 시작했다. 1856년, 태평천국운동의 최초 동력이 소진되었음이 분명해졌다. 같은 해 10월, 핵심 참모인 용은 2만 명의 군대와 함께 참수되었다. 1857년, 태평교도의 세력은 난징과 안칭 및 그 사이의 강들로 축소되었고 난징은 철통같이 포위되어 다른 곳처럼 인육이 도살장에서 공개적으로 팔리기도 했다. 1860년, 그들은 다시 한 번 봉기하여 중국의 가장 부유한 장난 성과 저장 성을 아

올렸다. 중국군을 돕기 위해 워드(Ward)라는 미국인이 외국인들로 군대를 조직했는데 중국인들은 이를 ‘상승군(常勝軍)’이라 불렀다. 태평교도들은 끈질기게 저항하며 심지어는 닝보와 항저우와 같은 요충지를 장악했다. 1862년, 그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해병대와 해군이 보호하고 있고 워드 군의 지원을 받는 상하이도 공격했다. 그러나 점차 ‘상승군’이 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워드는 1862년 9월, 부상을 입어 사망했다. 버지바인(Burgevine)이란 동료가 뒤를 이었으나 무능하여 1863년 4월에, 지금은 사망한 고든 소장이 지휘를 맡았다. 그의 병사는 5천 명을 넘지 못했으나 거의 전원이 활강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포병의 지원을 약간 받고 있었다.<sup>11</sup> 고든 소장은 반란군이 거의 5만 평방 마일에 달하는 면적을 가진 선상지에 주둔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14개월 뒤, 그는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여 24번의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두 도시에서 항복을 받아냈으며 10개의 다른 도시들과 요새들을 함락시켰다. 11월 28일까지 태평교도의 마지막 대 보루이자 베니스처럼 강과 운하들의 보호를 받던 쑤저우가 항복했다. 중국 장군이자 현재 지리 총독으로 잘 알려진 이홍장이 바로 이 전투에서 고든이 살리려 했던 반란 지도자들을 처형했다. 결과를 놓고 흔히 이홍장을 비난하지만 그 나름으로는 이유가 있었고 행위 자체도 중국의 전시법 못지않게 불가피한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있었다. 고든 장군은 사임했으나 순전히 인간적인 이유로 다시 지휘를 맡아 이항에서 반란군에 맞섰다. 이항은 사람

---

<sup>11</sup> 2문의 8인치 유탄포와 4문의 32파운드 포, 3문의 24파운드 유탄포, 12문의 12파운드 유탄포, 10문의 미국식 12파운드 유탄포, 8문의 4.5인치 유탄포, 14문의 박격포, 6문의 로켓발사기 등이 있었다.

들이 죽은 시체를 먹고 살 정도로 극한 상황에 몰려있던 곳이었다. 여기서 고든 장군은 패배를 당했고 공격을 두려하다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전장에 복귀했다. 저장 성의 수도인 항저우는 1864년 3월에, 장저우는 5월 11일에 항복했고 난징만이 홀로 남았다. 이후 중국군이 단독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면서 ‘상승군’은 해산했다. 난징은 7월 19일에 함락되었고 반란은 곧 종료되었다. 태평천국의 난은 중국의 가장 비옥한 성들을 황폐화시켰고, 추정치에 따르면 총 2,5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주모자의 운명은 모호하나 난징 함락 직전에 음독 자살했다고 전해진다. 중국의 정원이라 불린 양쯔 강 상류의 비옥한 토지들은 태평교도들의 훼손으로 핑과 사슴의 사냥터로 변모했고 주민들은 떠나버렸다. 현재까지도 이 지역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대규모의 도자기 공장들도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예술의 최고급 비밀들이 장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닐까 걱정된다. 필자는 한 작은 사건을 계기로 반란을 실감하게 되었다. 상하이에 머무는 동안 필자는 어릴 적에 세계의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라고 배웠던 유명한 도자기 탑을 보기 위해 난징 방문을 제안했다. 그러나 30년 전 태평교도들이 탑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알고 필자는 크게 실망했다.

합풍제의 치세 중 일어난 또 다른 대사건은 프랑스 및 영국과의 제2차 전쟁이었다. 매카시 씨가 이 전쟁을 자주 비난하고 있어 사실들을 간략하게나마 재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면 영국 관리들과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려는 광저우 주재 감독관의 미온적 태도와, 영국인에 대한 광저우 시 출입 금지 등과 같은 모욕적인 조치들을 중국 정부가 취한 이후에 애로우(Arrow)라는 영국 국적의 삼범선(강에서 사용되는 쾌속선) 위에서 또 다른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 조

약과 민간 관례를 위반하는 국기 훼손 행위가 있었고, 선원들이 투옥되었다. 감독관은 사과를 거부하며 정당한 행위라 주장했다. 불저 씨와 같은 공정하고 편견 없는 역사가는 주저하지 않고 이를 ‘인간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며 과거 공정한 전쟁 행위 이면에 숨겨진 많은 불법행위들의 선구일 뿐만 아니라 영국인을 방해하고 모욕하려는 광저우 통치 당국의 결심을 보여주는 오랜 행위들 가운데 최후의 것’이라 규정했다. 현장에서는 영국의 대표를 제지하라는 아무런 전문이 없었고 영국 국기에 대한 모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영국 제독은 보복으로 정크선을 나포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제독은 광저우 강의 일부 항구들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감독관인 엽명침은 영리했으나 역심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10만 명을 태평천국의 난 공모죄로 처형했던 가장 잔인한 중국인이었다. 그는 외국인들을 참수하는 대신 보상하겠다고 답신을 보낸 뒤 일부 외국인들을 결국 살해했고 그들의 머리가 대가로 돌아왔다. 엽명침이 만족했다면 쉽게 양보했을 것이고 양국의 정부들도 반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고집스러웠다. 엘긴(Elgin) 백작이 문제를 종결짓기 위해 본국에서 대리전권대사로 파견되었다. 그가 도착하기도 전에 중국 함대는 마이클 세이무어(Michael Seymour) 제독에 의해 공격당해 파괴되었으나 군사작전은 세포이 반란의 발발로 지체되었다. 1858년 1월, 광저우가 함락되자 두 명의 영국 선원과 네 명의 프랑스 선원이 감옥에서 사망할 때까지 아주 잔인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가 확보되었다. 엽명침은 생포되어 캘커타로 송환된 뒤 그곳에서 죽었다. 엘긴 경은 베이징의 총리대신에게 서한을 보내 자신이 광저우를 이미 점령했으며 프랑스 감독관과 함께 상하이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감독관은 본국 정부로부터 프랑스 국민을

잔혹하게 살인한 데 대한 보상과 중국 정부와의 공개협상을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 상하이에 도착한 감독관들은 중국의 총리대신에게서 만남을 거부당하며 광저우로 돌아가 엽명침 대신 새로 임명된 감독관과 문제를 의논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엘긴 경은 더 이상 총리대신의 부하들과 일을 처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수도로 진격하기로 결정한 뒤 베이징을 향해 향했다. 바이허(베이징을 관통하는 강으로 향해 가능하며 우측 제방의 12마일 떨어진 곳에 베이징이 위치한다) 어귀의 다구 항구들을 무력으로 통과하자 황제가 항복했다. 1858년 6월, 조약이 체결되어 만주의 잉커우를 포함하는 5개의 항구들이 교역을 위해 추가로 개방되었고 영국 대표가 베이징에 상시로 주재하며 중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독립국의 주권을 대표하는 그에게 어떠한 모욕적인 예절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제1차 전쟁이 끝난 후 체결된 난징조약에는 아편에 관한 언급이 없으나 이후로 줄곧 당연하게 인정되고 있었다. 그래서 엘긴 경은 앞으로 가치의 8%에 해당하는 합당 30냥을 지불할 것에 동의했고 분쟁의 오랜 원인이 제거되었다.

조약은 베이징에서 비준될 예정이어서, 1859년 초대 공사로 임명된 브루스(F. Bruce) 경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출발했다. 그러나 다구에 도착하자 강은 봉쇄되었고 공사는 충격을 받았으며 길을 열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리하여 전쟁이나 다름없는 작전들이 재개되었다. 1860년 다구와 다구에서 멀지 않은 베이탕에 위치한 요새들이 함락되고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상륙했다. 그러자 황제가 지명한 감독관과 엘긴 경 사이에 회합이 마련되었다. 고(故) 해리 파크스(Harry Parkes) 경과 헨리 로치(Henry Loch) 경이 준비 작업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 먼저 파견되었으

나 배신으로 다른 영국 장교들 및 시크족 에스코트와 함께 투옥되었다. 그러자 영국 군대가 진격했고 중국 장군은 80문의 포를 잃고 패배했다. 그의 이름은 산코린신으로, 필자가 앞 장에서 초기 만주인들에 대한 호의를 베풀었다고 언급한 고르쥬 몽골족의 수장이었다. 황제는 만리장성을 넘어 증조할아버지가 매카트니 경을 영접했던 지방의 대저택인 충더로 도주했다. 포로를 송환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으나 대부분의 포로가 야만적 대우로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옐진 경은 함풍제가 선호하는 장소이나 불행하게도 우리 동포들이 황제의 명령에 의해 고문 받았던 원명원, 즉 여름 궁전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궁은 무너졌고 오늘날까지도 폐허로 남아있다.

중국인들은 여전히 옐진 경이 제시한 조건들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베이징의 성문들이 폭파되리라는 경고에 10분도 채 되지 않아 굴복했다. 수도의 북서쪽 문이 열렸고 공사들이 당당하게 입장했으며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은 전쟁에 대한 배상금과 살해된 영국인 및 시크족의 가족들에 대한 배상금 지불에 동의한 황제의 측근한 사과로 시작되었다. 영국은 배상금 지불이 끝날 때까지 산둥과 광저우의 북쪽 해안, 텐진 등을 점유할 것이었다. 제1차 조약의 조항들도 재입법화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영국과 중국과의 제2차 분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제2차 분쟁은 세계를 상대로 주군 노릇을 하려는 중국의 허세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렸고, 훗날 인류의 문명화와 복지에 직접 기여했던 전쟁들 가운데 탁월했던 전쟁으로 기억될 것이다.

함풍제는 영국 공사가 베이징에 세워진 다섯 달 뒤인 1861년 8월 22일에 사망했다. 그는 동치라는 다섯 살짜리 어린 아들을 남겨두었다. 함풍제의 유언장에는 조카인 재 왕이 이끄는 섭정위원회가 어린 황제

를 대신하여 통치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 왕은 영국군 장교와 병사들의 체포에 관여했고 다른 이들과 함께 반대파를 대표하고 있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죽은 황제의 동생이자 예전에 엘긴 경과 조약을 협상했었고 외국인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공친왕이 함풍제의 황후이자 후에 섭정으로 선포될 동태후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반대파의 지도급 인사 두 명과 재 왕의 측근들이 교묘하게 체포되었고 곧 처형되었다. 모반자 가운데 두 명은 자살이 허용되었으나 가장 위험한 인물인 숙순은 황제의 관을 인도하는 도중 순친왕에게 생포되어 공개 처형되었다. 남편을 잃은 동태 후는 미천한 아낙네에 불과했다가 비의 위치에까지 오른 동치제의 친 어머니 서태후와 권력을 공유했고, 공친왕이 핵심 자문관이 되었다. 공친왕의 공식 직위는 외무부 대신으로 외무부는 중국이 전쟁과 같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 필요성을 느껴 설립한 기관이었다.

당시 태평천국의 난과 대외전쟁으로 중국은 몰락직전의 상태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렉키(Lecky) 씨가 관측하듯이 ‘사람의 몸과 유사하게 사회체제 내에서도 극심한 병으로 인해 피로가 쌓이면 활기 넘쳤던 건강이 이상할 정도로 급격하게 퇴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자연이 통탄스러울 정도로 극단적 모습이 될 때, 인구가 갑자기 크게 감소할 때, 엄청난 규모의 재산들이 주인이 바뀔 때, 가장 활기찬 생물들 외에는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재난이 멈추고 곧이어 거대한 변영이 시작되리라 기대해 봄직하다.’ 그의 말대로 중국은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곧 놀라운 치유력을 보여주었다. 공친왕은 중국이 더 이상 고립정책을 추구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외국인들과의 공존이 불가피하다면 그들이 지닌 과학과 기술을 국가 이익을 위해 차용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리

고 국가의 최우선 목표는 대외 안보라는 생각으로 일부 군에게 서양의 훈련방식을 가르치고 외제 총, 포, 군함을 구입하기 시작했다(유감스러운 것은 사반세기 이후에도 중국인은 아직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 나라는 조용해졌고 비적은 진압되었으며, 황무지가 경작되고 무역도 제국 전역에서 되살아났다. 최남단 지방인 윈난 성에서는 1856년 태평천국의 난 때 함께 발생했던 이슬람교도들의 반란이 1873년에 사실상 진압되었다. 달리 말하자면 수십만 명의 폭도들이 학살되었다. 불저 씨에 따르면,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수괴 17명의 머리와 사람들의 귀가 가득 담긴 24개의 커다란 바구니가 윈난 부 부윤 앞으로 발송되었다.

동치제는 1875년 1월 12일, 18살의 어린 나이에 사망했다. 원인은 천연두였으나 이미 황후들과 공친왕에 의해 유폐된 곳에서 성마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독살의 혐의가 짙었고, 당시 섭정에 참여할 권리를 지녔던 동치제의 황후가 임신 중인 아이를 낳지 못한 채 사망하면서 그 같은 의심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이례적으로 매력적인 성정을 지녔으며 뜻하지 않은 사망으로 후대의 중국 시인들에게 두고두고 이야기 거리가 될 것이었다. 이제 누르하치의 사망 이후 최초로 부자 승계의 전통이 깨졌다. 죽은 황제의 사촌이자 도광제의 일곱째 아들로써 숙순을 체포했던 당사자인 순친왕의 이들이자 죽은 황제의 사촌인 1871년 8월 15일생의 광서제가 계승자로 선택되었다. 황궁의 동쪽에 살아 동태후라 불렸던 섭정황후 한 명이 1881년에 사망했다. 그녀의 사망 또한 충격을 주었는데 소문에 따르면 서태후가 장애인이었고 한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빛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이제 남은 황후인 서태후가 유일한 섭정이 되었다. 서태후의 나이는 55세로 대단한 의지



그림 3 광서제의 아버지 순친왕

와 역량을 지닌 황후였다. 최근 한 작가에<sup>12</sup> 따르면 서태후는 황궁예절이라는 굴레를 뛰어넘어 마음대로 정원에서 야외 조회를 열고 궁술과 복싱을 배울 수 있는 성정과 힘을 가진 인물이었다. 1884년 그녀는 공친왕을 업무태만으로 파직했다. 그러나 이는 구실에 불과했을 뿐 실제

<sup>12</sup> Balfour(1887), *Leaves from my Chinese Scrap-book*, Trubner and Co.,

파직의 이유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공친왕이 패배했기 때문이었다. 닷새 뒤 『베이징 공보』는 공친왕의 후계자를 발표했고 대자문화<sup>13</sup>가 앞으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순친왕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동태후의 자매와 결혼한 순친왕은 형보다 더 강력했다. 그는 또 해군성의 수반이었다. 1887년 봄, 북해함대와 항구들을 시찰하기 위해 뤼순 항을 방문했을 때 관리들은 순친왕이 매우 총명한 행정가임을 알아차렸다. 영향력에 있어서는 지리총독이자 추밀원 상임 구성원인 이홍장을 앞섰고 황족을 제외하고는 제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다. 그는 외교 군사개혁을 직접 관장하고 있었으나 외무부 소속은 아니었다.

황궁을 의미하는 자금성 내부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서태후가 통치까지는 아닐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권력을 휘두를 것 같다. 황제는 이제 충분히 성장하여 독자적으로 정사를 돌볼 수 있었으나 서태후가 은퇴할 때쯤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베이징 공보』는 정사에 대한 지도편달을 서태후에게 간청하는 청원서들과, 그리 원하지는 않으나 간청을 물리칠 수 없어 한동안은 젊은 황제를 보필하겠다는 섭정황후의 답신을 나란히 실었다. 현재까지 순친왕은 아들을 후견인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입장은 매우 미묘하다. 순친왕은 아들에게 황제의 예우를 드려야 했고 황제는 그를 아버지로써 예우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비공식적으로만 만날 수 있었다.

---

<sup>13</sup> 대자문화는 영국의 내각자문회의와 다소 비슷한 것으로 내각과 육부의 상서들로 구성된다.

순친왕은 광서제가 황제로 지명되었을 때 완전히 은퇴하려 했고 만일 지금 이들이 정권을 장악한다면 아버지는 분명 은퇴해야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아마도 순친왕<sup>14</sup>은 황후와 같은 처지이며 그런 날이 가능하면 오지 않는 것이 최상이라 생각하고 있다.

서태후가 만주어를 전혀 모르며 모든 공무를 그녀를 통해 중국어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은 청 왕조의 전통이 완전히 쇠락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동태후 또한 마찬가지로 만주어를 몰랐다.

광서제 치세의 주요 사건은 간쑤 성 서부와 준가르 분지, 이닝, 카슈가르 지역의 재정복이었다. 1862년 동치제의 계승 직후, 간쑤 성에 거주하는 이슬람 민족인 둥간족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명대 말과 강희제 및 건륭제 치세에도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다수의 중국인이 살해되었고 황군 수비대도 몰살됐다. 반란의 불길은 고비 사막을 넘어 하미와 바르쿨을 지나 이리를 거쳐 카슈가르까지 번져나갔다. 러시아인들은 국경 지역에서의 소요를 염려하여 1871년, 국경을 넘어 이닝을 점령했다. 1867년에는 야쿱 벅이라는 호칸드 출신의 외인부대 병사가 카슈가르를 12년간 지켜왔으며 주인을 자처했다. 그는 인도 정부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통치를 영속화시키는 데 잘못된 정보를 받은 것 같다. 중국인들이 영토를 회복하기까지는 몇 년간의 준비가 필요했다. 결국 1874년 간쑤 성 총독인 좌종당이 이동로의 오아시스들을 점령하기 위해 군을 파견하기 시작했고, 토지를 경작하여 옥

---

<sup>14</sup> 이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는 동안 순친왕 사망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으나 나중에 부인되었다.

수수를 재배하기 위해 식민자들을 보낸 후 2년 뒤에 직접 진군했다(이후 중국 군대가 전진하면서 경작하여 스스로 물자를 조달했다는 일화가 생겨났다). 1876년 동간족의 두 핵심 요새인 우루무치와 마나쓰가 함락되었고, 이듬해에는 카슈가르도 재점령되었다. 좌종명은 서양식 총과 포를 갖고 있어 유리했으나 마나쓰는 두 달을 버텼고 마침내 함락되었을 때 그는 주민들을 절멸시키기로 결심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하루만에 9만 명의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 식 전쟁이었다. 잔혹함은 나름대로 효과적일 때가 있어 피정복 지역을 정복하고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군대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서방국가들이 중국을 동맹국으로 삼으려한다면 유사한 사건들에 대비해야 한다.

이 사건들 이후 중국 정부는 이리에서 점령한 영토를 내어달라고 러시아에 요청했다. 러시아는 일단 반대했으나 중국은 집요했다. 한편 리바디아(Livadia)라는 곳에서 중국대사인 충하가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약을 체결하여 돌아오자마자 투옥되어 참수형에 처해졌다. 양국은 전쟁 일보 직전까지 이르렀으나 1880년, 고든 장군의 중재에 일부 힘입어 중국은 개입을 삼가고 1881년 페테르부르크 조약을 체결하여 얻었던 영토를 150만 파운드에 돌려받았다.

1~2년 뒤, 중국은 톤킹과 베트남으로 진출한 프랑스와 분쟁을 겪었다. 중국은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사실 그럴 의도는 없었다. 프랑스가 박닌을 점령하자 총리대신인 이홍장과 함장 푸르니에(Fournier) 사이에 임시 조약이 체결됐다. 프랑스 사령관은 계속해서 조약에 언급된 국경 기지들을 점령하려 했다. 중국은 랑손에서 프랑스의 진군을 저지하고 총격을 가했다. 프랑스는 보상을 요구했으나 실패

하자 푸저우를 공격했다. 프랑스는 입항권을 획득하자 항구에 있는 무기고와 배 일부를 파괴했다. 그리고 타이완의 위치한 진지들과 키룽을 점령했다. 1885년, 중국은 프랑스 사령관인 네그리에(Negrier)를 물리치고 랑손을 차지했다. 결국 대영제국세관의 총 책임자인 로버트 하트(Robert Hart) 경의 중재로 평화조약이 맺어졌다. 중국은 프랑스가 통킹을 보유하며 베트남을 보호령으로 만든다는 데 동의하고 배상금을 면제받았다.

광서제 치세에 영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주요 거래는 인도 정부가 미얀마에서 파견한 탐험대를 만나기 위해 윈난 성으로 파견된 마르가리(Margary)라는 영국군 장교가 살해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만족할 만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영국함대가 중국해에 증강되었다. 1876년 산둥 성의 온천장인 옌타이에서 공사와 이홍장 사이에 조약이 맺어졌다. 이 조약으로 중국은 마르가리 씨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합법적 여권을 지닌 외국여행객에게 지방 관리들이 안전을 보장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데 동의했다. 중국은 또한 영국 선교단의 라싸 지역 파견을 돕기로 약속했다. 영국은 1858년에 궤당 30냥씩 부과하기로 했던 아편 수입관세와, 지방에 따라 달리 부과하다가 최종적으로 궤당 80냥으로 고정된 내륙 관세를 통합할 것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첫 두 조건들은 즉시 실행되었으나 조약 전체는 188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비준되었다. 1886년에는 두 번째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1885년 영국이 미얀마 지역 북부를 점령하면서 발생한 영국과 중국 영토 사이의 경계 문제를 확정지었다. 이 조약은 한 가지 흥미로운 조항을 담고 있는데 1860년 이후 중국과 영국 사이의 외교 관계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중국은 미얀마 왕조인 아바(Ava)의 종주국임을 자처했고 중

국인과 황제의 그릇된 편견을 만족시키기 위해 종주권의 인정을 요구했다. 한편 영국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여 실리를 얻을 수 있는 한 형식에서는 양보할 용의가 있었다. 그리하여 영국은 점령지역에 대한 자국의 행정에 미얀마 당국이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0년마다 원주민 관리가 관할하는 토산물로 미얀마가 중국에 선물을 보내는 데 동의했다. 이 조항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지만 동양에서는 사소한 에티켓 조항들조차도 비정상적인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불가피했고, 공물이라는 표현이 조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즉 만일 선물을 보내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아닐 경우에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조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국의 위엄을 손상시킬 것이라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양보는 형식과 겉치레를 싫어하는 영국의 실용적 마인드를 보여주는 사례이자 중국이 문명국가로서 예의를 갖춰 어떤 요구를 할 경우, 별다른 중요성을 갖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독자적인 방식을 인정한다는 영국의 솔직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영국은 또한 옌타이 조약의 티베트 선교단 관련 조항을 공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음 해인 1887년, 영국은 해군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점령했으나 이제는 필요 없게된 동해상의 거문도를 중국 정부에 넘기는 것으로 선의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중국 정부의 현 정책은 외국과 평화를 유지하되 어느 누구와도 불명예스런 동맹을 맺지 않으며, 외국의 침입에 맞서 제국을 지킬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인다는 것이었다. 공사들은 이제 유럽의 궁정들로 파견되었고 총리대신인 이홍장의 지휘 하에 서구의 기계장치와 능숙한 훈련방식이 도입되어 육군과 해군의 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1877년, 대략 7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기근으로 인해

내정이 흔들리긴 했으나 점차 안정되면서 백성들의 행복과 부가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철도, 도로, 우체국, 문자, 사법 고문의 폐지, 대민행정의 개혁 등과 같은 다양하지만 꼭 필요한 평화로운 설비나 기관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늘어났다. 젊은 중국인들은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서구의 신문과 잡지들에 실린 기사들이나 군사 또는 해군 문제에 관한 새로운 저술들이 집권층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번역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2천 년간의 관습에서 벗어나려는 혁명이 시작되었고, 느끼기는 하나 우리는 그 확고함을 믿는다.

그러나 이제 만주 내륙에 관한 역사이야기로 돌아갈 차례이다. 누르하치와 아들들이 취한 승리들은 만주지역으로선 재난이었다. 수년 간의 전쟁으로 토지는 대참화를 겪었고 누르하치는 랴오동의 주민들을 아시리아나 바빌론의 유대인들처럼 잔혹하게 다루었다. 그는 중국 영토를 점령하자마자 역모를 막기 위해 사람들을 이주시켰다. 해안가의 거주자들은 내륙으로, 도시민들은 다른 곳으로 보냈다. 로스 씨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인 이방인이 되었고 융합은 쉽지 않았다. 강제 이주의 두려움은 전쟁의 공포나 다름없었고, 이주 후의 비참함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1682년, 강희제를 수행하여 만주를 돌아보았던 페르 베르비스트(Père Verbiest)는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남은 도시들의 경계 안에 최근 불과 몇 채의 가옥만이 건축되었다. 그것도 벽돌이 아닌 대부분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고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다. 전쟁 전 존재했던 마을과 도시들의 조그만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누르하치가 랴오동을 침공한지 거의 반세기가 지난 1709년, 예수회 조사관들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마을들은 기척이 드물고 사람이 적으며 흙으로 만든 반쯤 무너진 담을 제외하

고는 아무런 방어물도 없다. 다만 일부 마을은 이저우나 진저우처럼 교역에 매우 적합한 곳에 위치해 있다.’ 1820년까지 추진된 지린 성과 헤이룽장 성 출신 정착민 배제 정책으로 인해 랴오둥은 18세기와 19세기 전반동안 북부의 발전이 지체되었지만 서서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감옥에서 도망치거나 이송되어온 악한들이 북부에 상존하면서 범죄, 특히 비적들이 들끓었다. 함풍제 치세 말기, 정부가 태평천국의 난과 다른 반란 진압에 골몰하면서 만주의 상황도 매우 나빠졌다. 비적들이 늘어났고 정부에 대한 저항방식이 비무장에서 무장으로 바뀌었다. 영국 공사의 보고에 따르면 폭력과 불법이 가장 난무하는 곳이었다. 살인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어느 누구도 무장하지 않고서는 집을 나서지 못했다. 농업 노동자들도 화승총과 창을 등에 매고 일했다.<sup>15</sup> 비적들은 고위 관리나 심지어 주요 마을까지 점령하고 몸값을 요구했다. 일단의 무법자들은 1861년 5월 잉커우에 건설된 영국 조계지를 떠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유일한 저항사례로 들 수 있는 광저우 상인의 경우, 참살되어 그 살점들이 경고장마다 덧붙여졌다. 잉커우의 영국 공사는 지역의 치안을 확보해야 했다. 공격이 임박했다. 결국 군대가 베이징에서 도착했고 1867년, 주요 반란자들은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187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공사는 무정부상태가 종료되었다고 보고할 수 있었다. 조선과 랴오둥 사이에 놓인 중립지대로 과거 비적들의 근거지가 되었던 무인지역을 중국 정부가 회수하면서 질서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식민이 허용되면서 비적들을 숨겨주던 숲이 사라졌고 경작지로 바뀌었다. 그러나 공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만주에는 10~20명에서

15 이 광경은 응화 강 북쪽 후란 현에서 여전히 볼 수 있다.

80~100명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말 탄 비적 떼들이 횡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오늘날까지 존재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졌으며 중국 관리들은 천연두나 열병처럼 이들을 필요악으로 간주하고 있다. 어느 해에는 비적들이 청 왕조의 신성한 수도인 싱깅을 약탈하고 관원을 살해했다. 『베이징 공보』에는 비적 떼와의 접전을 다룬 기사들과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만주 관리들의 보고들이 가득 실렸다. 1884년, 평톰 총독은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1875년에 진행된 국경질서 수립, 비적 떼와 도박에 대한 전면적인 처벌, 모든 악명 높은 도박자 처형 등으로 최근 몇 년 간 상황이 호전되었고, 비적 떼의 수도 이제 규모가 줄었다. 전임 총독인 송기는 최근 몇 년 동안 200명의 강도들을 처형했고 성의 수도 인근에서는 수백 명의 도박꾼들을 처벌했다. 나는 전임 총독의 정책을 계승하여 대규모 도박 모임의 주선자와 무장한 비적 떼의 수괴를 약식 처형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괜찮았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다. 통행로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우리는 후란 근처에서 5인조 비적 떼를 만났고, 그들이 우리 주변을 맴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물품과 돈을 구하기 위해 잉커우로 보낸 하인들이 묵텐과 지린 사이의 국도에서 제지당하고 호위병이 살해당했다. 동료 선교사는 지린 외곽에서 우리가 도착하기 직전 순례단을 약탈했던 비적 떼를 만났으나 간신히 탈출했다. 우리가 만주를 떠날 때 마 씨 성을 가진 한 폭도가 10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군사도로 위에서 있었다. 그들은 군대에 의해 동굴까지 쫓겨 갔다. 유사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더 있다. 새로이 개척된 북부 식민 지역에서는 역병이 너무 심해 소규모의 비적 떼들이 노상에서의 강도

질을 넘어 촌락과 도시를 약탈하기까지 한다. 비적들은 인질의 몸값을 요구하며, 실패할 경우 가차 없이 살해하여 인질의 동료들에게 목을 잘라 보낸다. 관리들은 나름대로 분명 활동적이다. 우리가 머물고 있을 때 치치하얼의 수비군 전체가 비적들을 추적하러 나섰다. 별동대가 그들을 쫓았고, 수백의 머리들이 작년과 재작년 사이에 참수되었다. 우리는 처형받기 위해 이송중인 비적들을 두 번이나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인은 기질상 느려서 걸음이 빠른 비적들은 대개 정규군이 나타나기 전에 도주한다. 군대는 비적들이 병사들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는 중국 관리들이 타락하여 적과 내통하는 것이다. 토벌군 사령관이 비적 두목에게 묵텐에 있는 자신의 집을 은신처로 제공한 것이 불과 몇 년 전 일이었다, 최근에는 이 지역 책임자의 조카이자 북부의 한 대도시를 지휘하는 군관이 그곳을 무법자에게 팔았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회계와 상관없이 썸을 치렀는데 이유는 바로 마을의 주민들이 나타나 비적들을 채찍질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영국-인도계 치안 책임자가 있었더라면 비적들은 일 년 내에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비적들을 제외하면 이제 만주는 매우 평화로우며 식민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문명화되지 못한 정부와 벽지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만주는 오늘날 아시아의 어느 곳 못지않게 번영하고 있으며 유복하다.

본 장의 서술을 끝내기 전에 지역적으로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쳤던 만주 근대사의 한 사건에 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아무르 강 북쪽의 중국 영토 전역과 우수리 강과 동해 사이에 놓여있는 해안지대를 러시아가 합병한 사건에 관해 이

야기하려 한다. 지금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간략한 서술은 라벤스틴(E. G. Ravenstein) 씨의 탁월한 저서인 『아무르 강변의 러시아인들』<sup>16</sup>에 주로 근거하고 있다.

17세기 중반 무렵까지 아무르 강 지역은 러시아인에게는 완전히 건너지였다. 1636년, 포야르코프(Poyarkoff)라는 한 모험가가 야쿠츠크(Yakutsk)에서 강 입구까지의 여행에 성공하면서 강 아래쪽으로의 첫 원정이 이루어졌다. 다른 원정들이 뒤를 이었고 스페인인이 자메이카의 인도인에게 저질렀던 것과 유사한 야만적 행위들이 이 지역 원주민에게도 자행되었다. 1682년 말 곧 만주족이 베이징을 점령한 34년 뒤에 러시아인은 아무르 강 상류의 알바진과 강의 일부 지류들, 그리고 오희츠크 해에 이르는 몇몇 강들 근처에 정착했다. 그 땅에는 검은 담비 사냥과 낚시로 생활하는 야만족인 통구스인과 길랴크족을 포함하여 많은 종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 이 지역으로의 식민이나 교역을 금하는 중국 정부의 만주정책은 러시아의 진출에 도움이 되었다. 매년 중국 관리들은 바지선을 타고 강 아래로 내려가 원주민 부족들에게 현물로 공물을 거두었지만 그것이 후견인을 자처하는 중국 정부가 원주민에게 개입하는 정도였다. 범 아무르 강 지역은 명목상으로 헤이룽장성의 일부였다. 당시 강희제의 통치를 받고 있던 중국인들은 러시아의 침입에 분개했다. 그들은 알바진을 공략했고 1689년에 체결된 후 1728년에 다시 협정된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러시아인은 결국 점령한 모든 진지들을 비워야 했다. 지도는 합의된 국경선을 보여준다. 이후 중국은 이기적이며 러시아인의 아무르 강 항해를 막았고 1805년 강의 사용

<sup>16</sup> E. G. Ravenstein(1861), *The Russians on the Amur*, Trubner & Co.,

권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분쟁은 원래 포트르 대제가 황제였을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당시의 러시아와 중국의 힘은 200년 후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달랐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금세기 초, 많은 장교들이 캄차트카의 러시아 정착지들이 아무르 강을 통해 물자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하여 훗날 무라비요프 아무르스키(Muraviyov Amursky) 백작이자 동시베리아 총독이 될 무라비요프(Muraviyov) 장군이 1847년에 강을 탐험할 장교를 파견했다. 몇 번의 관측이 이루어진 뒤 1851년, 니콜라예프스크(Nikolaiefsk)와 마린스크(Mariinsk)가 러-미 무역 회사를 위한 항구로서 아무르 강 하류지역에 세워졌다. 1853년에는 알렉산드로프스크(Alexandrovsk)와 콘스탄티노프스크(Konstantinovsk)가 해안에 세워졌다. 이 정착지들은 모두 조약상 중국에 속하는 영토 안에 위치해 있었다. 1854년, 무라비요프 장군은 중국 지방 당국에 아무르 강 하류의 태평양 연안 정착지들에 대한 물자 공급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관리들은 허가할 수 없었다. 그러나 크림리아 전쟁으로 인해 해당 정착지들에 대한 다른 식량공급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되면서 '필요할 때는 법이 무시되는' 경우가 되었다. 그리하여 무라비요프 장군은 대규모 바지선 함대에 1천 명의 병사들과 대포들을 싣고 강 하류로 직접 내려갔다. 1855년에는 원정대가 세 차례나 추가로 파견되어 3천 명의 군인과 400명의 이주민, 군수품과 식량들이 집결했다. 마침내 무라비요프 장군은 대규모의 지원병과 지원금을 가지고 다시 강을 내려가 왼쪽 또는 북쪽 제방 전체를 따라 러시아 기지들을 건설했다. 중국 관리들은 현장에서 미약한 저항을 보였을 뿐 강을 오르내리는 증기선과 바지선의 수를 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중앙 정부 또한 태평천국의 난이 한창인 때여서 여

력이 없었다. 결국 러시아인은 지금까지 획득한 것을 합법화 해줄 것을 중국에 요구했고 무력한 중국은 1858년, 아이훈 조약에 동의하여 아무르 강 좌안 전체가 러시아에 할양되었다. 새로운 영토를 식민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사실 러시아는 법적인 할양이 이루어지기도 이전에 이미 1857년 10월 31일자 칙령으로 이 지역을 연해주로 전환시켜 놓고 있었다. 연해주는 니콜라예프스크가 제1주도가 되면서 호호츠크 해의 동부 연안과 캄차트카까지 포함했다. 1860년에 중국은 몰락 직전이었다. 태평천국 교도들은 제국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고 영국과 프랑스는 베이징 앞까지 다가왔다. 중국 주재 러시아 대표인 이그나티예프 장군은 지금이 더 많은 영토를 요구할 수 있는 호기라 판단했고 황제를 속여 만주의 동쪽 연안 전부, 즉 남쪽으로 조선의 국경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추가로 할양하도록 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가 건설된 곳이 바로 이 긴 지대의 남쪽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겨울이 되면 수개월간 얼어붙어 신문들은 일 년 내내 얼지 않는 만과 지류들이 많은 조선의 영토 일부를 점령하라고 끊임없이 부추겼다.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이 만나는 곳의 하바로프카는 이제 연해주의 사령부가 되었으며, 블라고베센스크(Blagoveshchensk)는 아무르 강 주의 사령부가 되었다. 양자 모두 이르쿠츠크(Irkutsk)에 사령부를 둔 동시베리아 총독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중국이 방어에 손쓸 여력이 없는 틈을 타 이 지역을 획득한 러시아의 행위가 어떠한건 중국은 자신에게 감사해야 한다. 중국의 어리석은 휘방으로 인해 아무르 강과 같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형 항로가 영원히 상업에 이용되지 않고 닫혀있어야 했으며 방대한 지역이 식민되지 않고 방치되었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만일 중국 정부가

아무르 지역에 근대적인 행정을 시도했다면 우리는 중국 정부를 편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수십만 평방마일의 땅을 그저 사막으로 두고 동아시아에서 러시아 문명의 발전을 가로막는 비정상적인 정책을 추구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합병 이후 점진적으로 차관을 도입하여 번영된 농촌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지역의 상업을 일으키려 애썼다. 중국은 명목상의 주인이므로 할양으로 잃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연해주 합병 이후 수년간 러시아가 계속 진출하여 적어도 헤이룽장 성과 지린 성을 합병할 것이라 여겨졌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양국이 1880년에 이닝 문제를 둘러싸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변경도시인 닝안과 산싱을 점령하라는 명령이 러시아 장군에게 하달되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 후 중국은 꾸준히 자국의 군대를 외제 무기로 무장시키고 외국식 훈련을 교육하여, 국경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소문에 따르면 만주로 진격할 국가는 러시아가 아니라, 영토수복을 꾀하는 중국일 것이었다. 중국은 범 아무르 강 지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누르하치가 중국 본토의 원정을 시작하기 전 점령했던 최초의 영토 가운데 하나인 동해연안지역을 회복하려 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성급하게 고비용의 전쟁으로 국력의 약화를 자초하기 보다는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국을 강화하려 할 정도로 충분히 지각 있고 강력한 국가였다. 따라서 필자의 인상으로는 현 상태가 향후 오랫동안 유지될 듯하다.

1879년, 러시아령 만주를 여행했던 랜스델(Lansdell, D. D.) 목사의 추정에 따르면 자유로운 이주민까지 포함할 경우 수치가 백배 이상 증가하겠지만 연해주 지역에 정착한 중국인 및 유사민족들의 수는 3천에서 7천 명 사이라 한다. 연해주 지역의 할양 이후 중국 정부는 아내를

동반한 주민들의 이주를 금지시켰다. 따라서 부자는 귀향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남아 만주의 비적 떼와 무법자들에 합류했다. 연해주에 거주하는 중국인에 대한 비호감은 중국 정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듯하다. 중국계 정착민을 싫어하는 사람은 오히려 러시아인이다. 러시아는 이 지역의 중국인들이 매우 다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러시아는 일찍이 1887년 6월 초에 독일계 정착민을 겨냥하여 외국인들이 발트 해에서 흑해에 이르는 서부 국경지역에서 토지를 획득하거나 경작하는 것을 금하는 법령을 통과시켰고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유사한 칙령을 동시베리아 총독 명의로 제정하여 러시아 영토로 들어오는 중국인 이주자들과 피난민들이 중국과 조선 사이의 국경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금지했다. 금지령은 조선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조선인은 유순하기 때문에 지금껏 러시아 지방정부의 환영을 받아왔다. 조선인 정착지는 러시아인들이 북쪽으로 송화 강 어귀 반대편에 있는 아무르 강 양안에 세워놓았던 것이라 한다. 근면한 정착자들을 양쪽 국경에서 배제하는 정책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나 러시아인은 자신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 제4장

# 사람들

제2장에서 필자는 중국을 정복한 만주족이 몽골인과 통구스인 계통의 타타르족 가운데 한 소수부족이었다는 사실과 누르하치에 의해 소속 씨족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되었음을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누르하치의 후손들이 몽골인과 중국인의 도움을 받아, 명 황제의 자살로 비어있던 제위를 차지한 사실을 이야기한 바 있다. 이제는 현재 만주를 이어받아 살고 있는 200만 남짓의 사람들에 관한 풍습과 관습을 이야기할 차례이다.

200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을 만주족이라 간주할 경우, 모든 종족들이 포함된다고 과장하는 꼴이 된다. 뿐만 아니라 그 100만 명 가운데 만주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10% 이상이 될지도 의심스럽다. 서양의 고사를 인용하자면 ‘그리스는 정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복자를 포로로 만들었다.’ 만주족은 중국을 차지했으나 중국인은 만주족을 포로로 만들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만주족은 이제 소수이며 대부분 중

국인처럼 옷을 입고 말을 한다. 만주족은 만주족 부대가 주둔하는 요새 도시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으며, 경찰이나 사자(使者)로 고용된 만주 지방 주재관 인근에 거주하거나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서 낚시와 사냥을 하고 토지를 경작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하층 계급은 아직도 만주어를 쓰고 있으며 이들이 현재 고향에서 볼 수 있는, 과거 중국을 세 번씩이나 정복했던 위대한 타타르 씨족들의 후예이다.

만주족이 소수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게탄족과 친족 정복 이후 만주족 지도자를 따라 중국으로 이주하느라 북부 만주를 떠났던 것처럼, 중국을 점령했을 때에도 지역 주민의 반란을 제어하기 위한 군대를 갖추기 위해 만주지역을 비웠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만주는 중국에서 사용할 군대가 필요할 경우—예를 들어 태평천국의 난—병사를 제공하는 인력 보충지의 역할을 했다. 황제에게는 동향민만이 믿을 수 있는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만주에서 본토인들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이주민은 수십만 명씩 쏟아져 들어와 군대가 버리고 떠난 비옥한 촌락과 도시들을 차지했다. 중국인은 나름의 정제된 문화와 문헌들을 지니고 있었으며 압도적인 수와 영향력으로 야만적이고 문맹이었던 원주민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만주 구어는 골(Gaelic)어나 어스(Erse)어처럼 빠르며 문어는 현재 망각되어 얼마 전 두 명의 선생이 군인 자녀들에게 만주어를 가르치기 위해 베이징에서 지린으로 초빙되었다. 마치 카마던(Carmarthen)의 한 후원자가 런던에서 음유시인을 초빙했던 것처럼, 관청 서기로 만주어를 쓸 수 있는 만주인이 필요하다는 급한 이유에서였다. 공고가 만주에 나붙었을 것이며 먼 곳에서는 이에 관한 노래도 여전히 불려질 것이나 그 조차도 드문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금성에서는 만주어가 여전히 쓰

이고 있다. 마치 영어가 널리 쓰이게 된 이후에도 영국공정에서는 프랑스어가 유행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 곳에서조차 만주어는 낡은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태후 자신도 만주어를 모르기 때문이다.

랴오둥을 점령하기 전 만주족의 종교는 악마에 맞서 선한 정령을 춤이나 주문으로 불러내기도 했지만 원시적인 샤머니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고 경전도 없었다.<sup>1</sup> 몽골족과 접촉하면서 자신들이 샤머니즘이라 불렀던 라마 또는 티베트 불교를 배우게 되었고 통치왕조는 흥미롭게도 이를 샤머니즘이라 부르며 선호했다.<sup>2</sup> 그러나 이제 만주족은 중

---

1 이 단어는 샤먼, 즉 퉁구스족의 마술사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이 기묘한 의상들에 관한 서술은 드 라 브뤼니에르 선교사의 서한인 주해 D에 나타나 있다. 표트르 대제가 1692년에 베이징에 파견한 공사인 에바르트 이스브란테스 이데스(Evart Ysbrantes Ides)도 주술적인 악마의 춤에 대해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다.

2 이 경우 샤머니즘이란 용어는 불교 사제들의 정신적 상태를 뜻하는 평정과 무관심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 단어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아베 흑의 이야기에 따르면 만주족이 베이징으로 행진해 갈 때 순치제가 한 라마승에게 성공 여부를 문의했다. 라마승은 성공을 빌어주었고 황제는 만주족이 베이징 입성에 성공하게 되면 찾아오라 명했다. 라마승은 그렇게 했고 황제는 그에게 라마 세라이(Lamasera)를 건설할 수 있는 충분한 땅과 수천의 라마승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입을 주었다. 한편 1642년 라싸의 달라이 라마가 목텐에 사절단을 보내고 1652년에는 직접 베이징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순치제에 의해 '생불이자 불교 신앙의 최고 지도자'라는 지위를 부여받았다. 만주족은 그러나 중국에서 계속 머물게 되면서 유교에 익숙해졌고 강희제는 개인적으로 유교를 선호했다. 그러나 강희제와 후계자들은 대외적으로는 항상 라마교를 후원했다. 라마교는 몽골 추장들에 대해 끝없는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몽골과 화친하는 것이 황실의 정책이기 때문이었다. 티베트 라마승에 대한 강희제의 애착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국의 종교의식을 통째로 채택했고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이야기할 것이다. 중국인의 관습과 법 또한 수용했다. 만주족 여인은 보수적이고 발을 움아맨 적이 없어 매우 예쁘고 작은 발을 지니고 있었다. 화분 신발을 신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그 어떤 여인도 전족을 하고서는 황궁에 출입할 수는 없다. 베이징에 입성했을 때, 즉 정복민족이 피정복 백성의 선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에 만주족은 대담하게도 중국 제국 전역에 걸쳐 의복 개혁을 강력히 주장했다. 누르하치가 자신에게 가담했던 중국 병사에게 긴 상투를 자르고 이마를 면도한 후 뒷머리에 변발을 할 것을 강요한 이유에 관해서는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같은 이유로 모든 중국인이 선례를 따라야 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외투에 붙은 통 큰 소매를 줄여야 했다. 여성은 딸의 발을 고문하여 불구로 만드는 것을 멈춰야 했다. 전족은 중국의 남성들이 동의했던 성적 구분 방식일 수도 있으나 여성들이 거부했다. 따라서 황궁의 패션 조차도 여성에게 야만적인 습관을 바꾸라고 유도하지 않았다.<sup>3</sup> 또한 일부 남성은 머리카락을 잃느니 차라리 목숨을 버리는 쪽을 택하기도 했다. 만주족 관습에 따라 중국 관료들은 조모(朝帽)나 모자에 품석을 달아 그 색깔에 따라 관등을 구분했다. 홍타이지가 발명한 이 제도는 품

<sup>3</sup> 유행의 힘은 대단해서 종종 만주족 여성조차도 아이들의 발을 옥죄기 시작했다. 1838년과 1840년, 도광제는 이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고, 만주족 여성은 현재 신발 바닥의 거의 중앙에 매우 높은 굽이 달린 장화를 신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 신발은 조심조심 걸으며 기품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 기형적 발을 칭하는 ‘황금백합’을 실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찬양받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를 배우려 한다는 끔찍한 관습의 기원에 관한 몇몇 설명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그럴 듯한 설명은 고생하는 황후의 시종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석이 큰 대리석 크기로 관 정면에서 1인치 정도 위에 달려있으며, 도드라져 있다. 가장 높은 것은 홍보석이고 다음으로 산호와 남보석, 청금석, 수정, 거거(車磑), 소금(素金), 상금(常金), 상은(常銀) 등이다. 민간관료를 의미하는 품석이 최고로 간주되는데 그 까닭은 중국의 모든 관문에서 이들이 무관들보다 더 우대받기 때문이다.

중국인 남성 전부가 한꺼번에 모발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존경이 얼마나 과도하게 표현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우리 영국인도 인도의 관습에 그런 경의를 표했었고 일본인은 몇 년 전 아주 똑같은 일을 단행하여 정부에 고용된 모든 관원들이 유럽식 제복을 착용해야 했다. 금세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로소 과부의 수절이 금지되었다. 동양인들은 보수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빨리 불가항력적인 것에 순응한다는 사실과 새로운 변화가 초래한 불편함은 익숙해지면 잊혀 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손가락을 흔들면 나쁜 습관이 사라진다는 말이 최근에 생겨났지만 매우 널리 퍼졌다. 필자는 영국 통치의 근간을 궤양처럼 훼손시키는 지방 출판물들의 독소적인 글쓰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출판의 자유를 언급하는 은어들이 가정에서 사용되어 선동가들이 봉기를 일으킬 목적으로 활용할까봐 개입을 삼가거나 그냥 무시한다. 비록 토착사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계층은 시정조치를 환영할 지라도 말이다.

만주족 여성의 머리장식물과 의상 일부는 중국과는 조금 다르다. 그러나 이방인은 그 차이를 거의 눈치 채지 못할 것이다. 만주족은 중국인들처럼 신랑이나 신부 모두 약혼한다. 그들은 일찍 결혼하며 소수의 처녀만이 20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부양한다. 일처다부제는 없고 중혼은 있으며 첩을 두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다. 부인과 불가피하게 사별

한 경우나 중국인 관리를 제외하고는 선비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첫 번째 부인이 40세 이하이거나 아들을 두고 있을 경우 첩을 들이는 것은 불법이다. 부인을 여럿 두는 이유는 대개 아들을 낳으려는 욕심 때문이다. 현재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고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가졌다고 전해지는 위대한 공자마저도 이유 없이 부인을 내치는 중국인과 다를 바가 없다.

만주족은 중국인만큼이나 카드나 주사위놀이 등의 사행성 게임을 좋아하는 대단한 도박사들이다. 그러나 도박은 설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불법이라 사적으로 행해진다. 로스 씨는 필자에게 앉아서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카드놀이를 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중국인만큼이나 대단히 비도덕적이라 비난받지만, 생김새만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국내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제도 중 한 가지는 노예제이다. 기원은 전쟁에서 패배한 수천 명의 중국인을 노예로 삼았던 누르하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도주를 금하는 엄격한 법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강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법적 노예라 불리는 무수한 가족들은 실제로는 자유롭다. 시간이 흐르거나 또는 주인이 사망하면 이들이 노예란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주인에게서 받은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노예들은 적은 양의 곡물을 받고 주인의 농장을 경작하는 농장노동자에 불과하다. 배우와 애첩들이 대개 이 계층 출신이며 많은 이들은 군대에 끌려가거나 혹은 경찰 또는 군 전령으로 고용된다. 사실, 노예를 차별하는 거의 유일한 신분적 기준은 관직 입문이 그들에게는 열려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관리들은 종종 젊은 남자와 여자를 한 사람당 20~30파운드의 가격에 몸종으로 구매하지만 가내 노예는 수적으로 적다. 이들의 자

식들도 주인의 재산이 된다. 도주한 노예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주인이 보유노예의 생존을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고용 노동이 더 저렴하다고 판단될 경우, 오히려 노예가 사라져 기뻐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반인들은 가묘(家廟)를 돌보기 위해 노예를 구입하기도 하며 노예들은 인근에 먹고 살 수 있는 토지를 갖게 되기도 한다. 노예의 자식도 주인의 재산이긴 하나 주인은 노예의 가족을 따로 떼어 팔지는 않는다. 노예는 가족단위로 팔리며 노예소유자의 권리는 노예 노동에 관한 것이다. 때릴 수는 있으나 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유민을 노예로 파는 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중국 본토에서는 흔한 일일지라도 만주에서는 드물다.

만주족은 북방계 중국인과는 오랫동안 구별되어온 특권을 보유하고 있다. 14세부터 40세 사이의 활을 쏠 수 있는 모든 만주족은 한 달에 한 냥(5실링) 혹은 일부 지역에서는 두 냥(10실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액수 가운데 20%는 그를 돌보는 최종 수령자에게 돌아가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토지도 낮은 세율로 취득가능하며 먼 외곽지역일 경우 무상이다. 만주족은 중국인보다 재산세가 낮다. 특권을 누리고 더 나은 지위로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만주족은 인도의 정부 서기나 전령의 친척들처럼 만주 관청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개인적인 축재를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국인과의 차이가 매우 두드러진다. 만주족은 농업에는 다수 종사하지만 상업에 몰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만주족은 하위관원의 선발을 위한 과거를 면제받으나 관원의 10%<sup>4</sup>만이 이들 계층에서 충원된다. 로스 씨에

---

4 실제로 비율은 7%에 불과하다. 1% 남짓이 몽골족이며 중국인 기인은 2% 이하

따르면 만주족의 신분하락을 막아주는 유일한 요소는 중국의 정복자로서 자신들이 더 나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자존심이다. 동시에 만주족은 중국인만큼이나 우수한 관리와 외교관을 인구비율에 따라 양성해낸다. 만주족 청년은 전속력으로 말달리며 활쏘기, 검술, 중짐지기 등의 남성적인 훈련을 받는다. 활쏘기 훈련을 통과하면 아버지가 속했던 부대에 배속된다. 부대에 합류하여 직업군인이 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정규병의 월급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집에 머물며 경작을 하거나 무위도식하면서 일 년에 두 차례 소집훈련을 받는다.

만주족 군대의 조직 단위는 10명의 병사와 1명의 장교로 구성되며 화살을 의미하는 ‘니루’라고 불린다. 군대가 커지면서 니루를 구성하는 수도 증가하여 현재는 80~90명의 병사로 구성된다고 한다. 그 수는 한 때 300명에 달하기도 했으며 좌령(佐領)이라 불리는 대장이 있었다. 참령(參領)이라 불리는 대령은 5명의 좌령을 지휘하며 중장(中將)에 해당하는 도통(都統)은 부대장으로 5명의 참령을 지휘한다. 그리하여 한 부대의 정규 전력은 7,500명이다. 1613년까지 황, 청, 홍, 백 등 네 개의 기가 있었다. 마르티니에 따르면 기의 순위는 백, 홍, 청 또는 흑, 황이며 나중에 같은 색깔의 네 개의 기들이 가장자리가 넓어지고 다른 색깔을 지니면서 각각 첨가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sup>5</sup> 처음에는 여섯 개의 기들만 만주족으로 구성되었으나 중국과 몽골 연합군이 만주

이다.

<sup>5</sup> 기의 색깔들은 인종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기원은 언덕 기슭에서 사슴을 쫓을 때 우두머리가 물이꾼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누루하치가 전쟁에서 그 방식을 응용했다. 황기는 현재 황제를 나타내는 색깔이 되어 서열 1위이다.

정규군에 유입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중국인과 남방 몽골 기들도 생겨났다. 편제는 최종적으로 베이징 점령 1년 전해야 완료되었다. 중국 기는 만리장성 바깥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후손은 오늘날까지 만주족과 유사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들은 한군이라 불리며 중국인 별동대라는 의미로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명칭이 의미하듯이 몽골 깃발들은 전적으로 몽골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도 솔론군·시보군·북방종족들로 구성된 별동대가 존재한다.

정황, 양황, 정백<sup>6</sup>은 상삼기라 불리며 나머지 다섯 기는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세 민족 각각에 그와 같은 순위가 있다. 일부 기인은 내군과 외군으로 나뉜다. 내군은 근위병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갑옷과 병역을 담당하고 상삼기의 병사들은 황제의 가솔들을, 나머지는 기타 왕자들의 가택을 담당한다. 일부는 황제의 묘 또는 사냥터의 호위군으로, 만주족과 몽골 기에서만 차출된 선택된 소수는 좌령이 지휘하는 부대에서 각각 2~4명씩 차출되어 황제 근위대를 형성한다. 이들은 활·화살·칼로 무장한다. 근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차출된 집단은 선발대라 불리며 절반은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자금성에 이르는 관문들을 수호한다. 세 번째는 좌군과 우군으로 좌령이 지휘하는 각 부대에서 차출된 34명의 병사로 구성된다. 이들은 마상 및 이동시의 궁술과 사격술을 연마한다. 네 번째 부대는 경보병대로 칼과 철 도리끼로 공격과 방어를 한다. 경보병대는 육박전을 하고 붉은 인디언들처럼 고함을 지르며 공중제비돌기와 같은 재주로 적에게 공포를 안겨준다. 다섯 번째 부대는

---

<sup>6</sup> Mayer, *Chinese Government* 참조. 로스 씨에 따르면 정백기가 제일 우위라고 한다

공수들과 회승총병으로 구성된다. 또한 징갈총병들과 사슴뿔 울타리를 나르는 부대도 있다. ‘오르보’라 불리는 이 조야하고 운송이 어려운 목재 방책은 야간 숙영 시에 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정부 관청과 황궁묘지에도 이러한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다.

베이징 그 자체는 이러한 기인들로 가득 차 있다. 등록 장부는 비밀이며 적어도 9~10만이 수도에 주둔해있고 쌀 배급과는 별도로 현금으로 한 달에 10만 냥의 유지비용이 든다. 약 2만 명의 병사들이 중국의 주요 도시에 추가로 배치되어 있다. 광저우에서는 타타르 장군의 지휘를 받는 소규모 만주족 수비대가 주둔하면서 반란 발생 시 지역장악을 담당하고 있다. 광저우를 방문했을 때 필자는 활쏘기 연습을 하고 있는 수비대를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잔재일 뿐, 타타르 장군은 런던탑의 치안판사만큼이나 작은 실권을 갖고 있다.

필자가 제시한 수치에는 비상시 소집될 예비군들인 만주지방이나 몽골지역의 기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주지방에 있는 중국인 기인과 만주족 기인의 공식 수치는 평텐의 경우, 5만 6천, 지린은 6만, 헤이룽장은 6만 7천으로 총 18만 3천이다. 그러나 이들 통계는 신뢰하기 어렵다. 수치 가운데 소수의 비율만이 실제 고용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훈련을 위해서 간헐적으로 소집되는 민병대이다.

팔기군은 오늘날까지도 마치 요면 기병대가 잉글랜드의 군대와 구분되듯이 중국 정규군과는 별개의 부대다. 이들의 원래 무기는 칼·장창·활이다. 활은 만주족의 주무기이며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sup>7</sup> 많은

<sup>7</sup> 만주 활은 호머가 파리브토포프라 부르는 울리시즈의 활과 닮았다. 즉 시위를 놓았을 때 안쪽이 볼록해질 때까지 튀어 나온다. 이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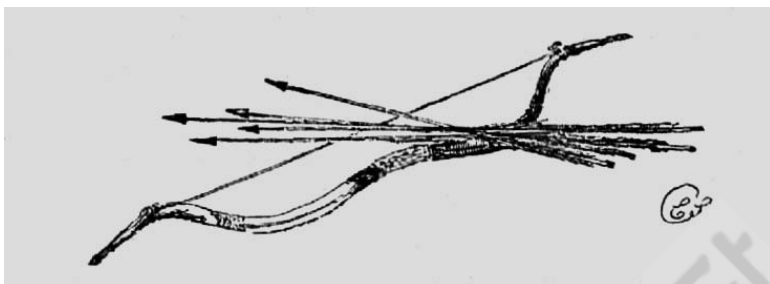


그림 1 만주족 활과 화살

수의 궁사들은 말을 타고 있으며, 가죽줄이 뒤에 달린 등근 타타르 모자를 쓰고 등에 활을 맨 상태로 양쪽에 화살 전통을 달고 돌진하는 대대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림 같다.

기인은 중국군의 꽃이라 간주되지만 정부의 시각으로는 몇 년 전까지 비효율적인 군대로 평가될 정도로 타락한 제도였다. 1883년 3월 30일, 『베이징 공보』는 중국 특유의 솔직한 방식으로 다음의 결점들을 폭로하는 어느 조직 개편 담당 장교의 보고서를 실었다. 첫째, 중국인은 병역 부정에 몰들어 현재 기인의 절반이 중국인이고 만주족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둘째, 병사들의 급료 중 상당액이 빼돌려졌다. 셋째, 일반병사대상 궁술시험과 하사관대상 독해 시험에 대리시험이 성행하고 있다. 넷째, 기인에게 지급된 곡물(만주지방 밖에서는 급료가 남부에서 베이징으로 보낸 공물쌀로 일부 지급된다. 이는 중국 전역에서 가장 널리

중명해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활은 백두산 숲에서 난 코르크로 중간을 감고 나무로 상감을 한 뿔로 만들어진다. 크기는 강력한 터키 활과 길고 다루기 어려운 일본 활의 중간 정도이다. 길이 3피트를 넘는 활들은 끝이 철로 되어 있으며 독수리의 날개에서 뽑은 깃털은 화살대 위로 10인치나 뻗어있다.

자행되는 공식 횡령이다)은 모래가 대거 섞여 있어 식량으로는 쓸 수 없을 정도이고 장교들과 곡창 서기들 그리고 부유한 상인들은 기인들과 결탁하여 그들에게 지급될 쌀들을 미리 판다. 이에 관해 황제 칙령은 부도통(副都統)에게 이러한 남용을 방지할 엄격한 개혁규정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문제는 그 수준에서 종결되었다.

뿌리 깊은 부패에도 불구하고 팔기군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외국 교관들은 수는 적지만 자신들의 손을 거쳐 훈련된 부대들에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10년 전의 메이어(Mayer) 씨 서술에 따르면 유럽식으로 훈련된 지상군을 의미하는 신기영(神機營)의 수가 1만 8천에서 2만을 헤아린다고 한다. 일부 관청들은 총원이 20만에 달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서양식 규율·정기 급료·지도력 등이 부재하기 때문에 서양식 훈련이 동양의 병사가 원하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훈련 그 자체는 의미가 있다. 군대의 효율화는 이홍장의 오랜 숙원이었다. 태평천국의 난이 진압된 직후, 그는 일단의 외국 군사고문관을 고용하여 유럽식 병기창을 상하이에 세웠다. 1864년, 그는 또 다른 병기창을 난징에 세웠고 1866년, 좌종당 장군은 푸저우에 세 번째 병기창을 건립했다. 군사 고문관은 대부분 독일인이었다. 황제는 이홍장에게 뤄순 항, 다구, 톈진에 주둔하고 있는 서양식 훈련을 받은 수비대에 대한 통합 지휘권을 부여했다. 1867년 평톈에서의 대대적인 비적 박멸은 그가 보낸 대대 때문이었다. 필자는 이 자리를 빌어 당국에 따라 추정치가 다르지만 녹영군(綠營軍)이라는 중국 정규군의 숫자가 50~100만에 이른다는 사실을 말하려 한다. 이 부대는 지방 총독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실질 전력과 문서상의 전력은 아마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병사들은 방위, 징세, 치안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중국인으로만 구성되는 녹영군은 대개 팔기군보다 더 타락하고 무력하다고 간주된다.

만주에 주둔한 군대들은 외국식 훈련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매우 강력하며 그 수는 약 6~8만으로 추정된다. 주력군은 목텐에 주둔하고 있으며 하급부대들은 국경의 여러 요충지에 배치되어 있다. 적어도 1만 5천의 병사들이 외국식 훈련을 받은 것 같다. 많은 병사들이 레밍톤식 연발 라이플로 무장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화승총과 다양한 연식의 엔필드총 및 경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다. 징갈총도 다수 있으며 대전장 나팔총은 나르는 데 두 명이 필요하다. 외제 포로 구성된 포대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야전 포병대는 현대전에서는 쓸모없는 소구경전장대로 구성되어 있다. 사열은 아름다운 장면이다. 라이플만큼이나 많은 수의 깃발들이 있으며 휘두르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정도로 커서 전시에는 전투병이 꽤나 힘들 것 같다. 중국 정부는 이제 장교들과 일반 병사들을 유럽식으로 훈련시키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몇 년 내로 태평천국의 난 진압에 참가했던 보수적인 늙은 장군들이 사라지고 군이 적절한 지휘와 훈련을 받게 된다면, 인도의 해군이나 중앙아시아의 러시아 군대처럼 효율적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현 제도의 가장 큰 취약점은 부대들이 휘순 향이나 천안문 행진에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주둔기지 밖으로 파견되면, 자신도 모르게 활과 화살을 사용하는 낡은 방식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이다. 물론 두 가지 방식으로 훈련을 받을 수도 있지만 『베이징 공보』가 창 훈련이 지나치게 훌륭하다는 내용이나 포병대가 전시태세를 갖추면서 매우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 혹은 민첩성이 떨어지는 도리깨 훈련을 제외하고는 부대의 모든 작전들이 최고의 찬사를 받을만하다는 등의 구태의연한 조사 보

고서들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한 중국군은 영구히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고(故) 길(Gill, R. E.) 대위가 언급하듯이 ‘신속한 행동, 동원준비 태세, 주위조건 활용 능력과 위기극복 능력, 신규작전 전개 능력 등이 병사를 양성하는 요소이나 현재 창의성이 결여된 중국인은 갖출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만주군은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885년 말, 푸저우의 타타르 장군 목두산은 국경지대 특별사령관에 임명되어 지금까지 지방의 지사들이 행사하던 최고지휘권을 넘겨받았다(신임 총사령관은 물론 지방의 관료 조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우리가 만주에 있을 때 그는 1만 5천 명의 팔기군 민병대를 선발하여 정규군으로 조련하는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병기창 또한 지린에 세워졌다.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정규 보병의 급료는 월 석 냥, 즉 15실링이다. 기병은 일곱 냥을 받지만 스스로 말을 제공하고 또 먹여 살려야 한다. 제복과 무기는 정부가 제공한다. 중국의 다른 기관처럼 군대의 최대 취약점 중 하나는 끊임없는 낭비와 부패이다. 우리가 동쪽국경으로 향할 때 함께 했던 호위 병사들은 연발 라이플총을 아무렇게나 쏘아대고 나서 연습용으로 1년에 600카트리지의 탄환을 지급받아 상관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격한 많은 훌륭한 무기들이 녹슬고 관리 부족으로 손상되었다. 『베이징 공보』는 종종 명부에 없는 병사들의 급료를 가로챈 지휘관의 이름을 게재하고 있다.<sup>8</sup> 따라서 여전히 더 많은 군제 개혁이 필요하다.

<sup>8</sup> 1886년 10월 7일자 『베이징 공보』에 전임 후난 성 총사령관이었던 포초의 죽음을 애도하는 황제의 칙령이 실렸다. 태평천국의 난 때 세운 무공이 최고의 칭송을 받았고 죽음에 대한 황제의 깊은 애도가 표현되었다. 법정 추정 상속인 부관이라는 사후 시호가 수여되었고 국장이 열릴 예정이며 궁정 사기들이 그

만주 주둔 부대의 급료는 총독이 지휘관을 통해 지급하며, 지휘관은 휘하에 경리관들을 두고 있다. 현재 지방의 세수로는 급료를 충당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베이징의 도움을 요청 중이다.

만주의 중국인은 선조들이 그랬듯이, 대부분 지리와 산둥이라는 두 북부 지방 출신이다. 그러나 만일 출신지역을 물어본다면 중국인이라 자처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군인과 구별되는 민간인을 의미하는 ‘명인’이라 부르거나 남부 사람을 의미하는 ‘만자’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쓸 것이다. 영국의 북부에서 남부놈(Southron)이란 표현이 경멸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인이 스코틀랜드에서 남부인을 자처하는 것처럼 중국 남부<sup>9</sup>의 하이난 또는 타이완에서는 야만적인 원주민들에게 사용하는 책망의 표현인 이 단어가 만주에서는 별다른 모욕의 의미 없이 쓰인다. 렌스텔 박사는 만주(Manzu)라는 단어가 ‘자유민’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팔라디우스(Palladius)의 주장에 따르면 이 표현은 쿠빌라이 칸의 통치시기에 비롯되었고, 칸은 중국병사들을 의미하는 대규모 만치움(Mantsziun)단을 고려국경으로 보내 일본의 침략을 방지하고자

---

의 공무 기록을 준비할 것이다. 기념 사원이 건립될 것이고 장남이 공의 지위를 이어받을 것이며 다른 두 아들과 손자는 애도 기간이 끝나는 대로 입궐하게 될 것이다. 슬프도다! 사자가 죽었으므로 자칼들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포초가 약 4만 5천 파운드에 달하는 19만 냥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죽은 영웅의 가족을 조사할 법률 집행인들이 내려왔다. 최근 설명에 따르면 장남은 투옥되었고 차남은 도주했으며 하인들은 돈이 숨겨진 곳을 밝히려는 고문을 받았으나 헛된 일이었다. 한때 부유하고 화려했던 가문에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몰수당해 텅 비어있는 집에 묻히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포초와 부인의 시체를 담은 두 개의 관뿐이었다.

- 9 마르티니는 만주인이 처음 중국 남부를 침공할 때 중국인을 이런 명칭으로 조롱했다고 언급한다.

했다. 칸은 일본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자 일본의 침략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어쨌든 만주에서는 중국인이 그 표현을 자신에게 사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만주족은 자신을 만주인이라 부르지 않고 기인이라 부르며 이는 만리장성 바깥의 중국인과 몽골인을 포함하기도 한다. 북방의 중국인들은 키가 작고 강인한 인종이며 외관상 네팔의 티베트계통의 힌두인인 네와르족(Newars)을 연상케 한다. 성격의 강인함에 있어서는 마라타 쿤비를 닮았다. 그들은 중국어를 쓰거나 중국인의 황실 방언을 사용한다.

길을 묻거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또는 중국 여관에서 머물 때나 필요한 물품을 얻고자 할 때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일반 여행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새로이 합류한 영국 영사관원들은 공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베이징에서 중국어 공부로 꼬박 2년을 보냈다. 중국을 방문해본 적이 없거나 중국에 대해 어렵풋이만 알고 있는 영국인들을 위해 중국어가 왜 그렇게 어려운 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대화상의 어려움은 발음에 있지 않으며 강음 때문은 더더욱 아니고 각 단어가 사용될 때의 억양에 있다. 자음들은 별 의미가 없으며 사람을 의미하는 쟈(jen)에서 j는 아마도 프랑스어 식으로 발음되며 ‘린’(rin)으로 발음된다. 기금을 뜻하는 치(chi)는 ‘키’(ki)라 발음되기도 하는데 누구도 신경 안 쓴다. 화자는 자신의 단어들을 대신처럼 분명하게 발음하거나 농부처럼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강세에 신경 쓰지 말고 올바른 억양으로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말에 안장을 놓다’를 의미하는 중국어는 페이(Pei) 마(Ma)이다. 그러나 만일 ‘페이 마’를 영국식으로 발음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페이 마’라고 ‘마’에 불만스러운 강

세를 두면서 마치 누군가가 지분을 목적으로 당신을 괴롭혀 왔던 것처럼, 그리고 당신은 어머니에게 지급하기를 주장한 것처럼 오만하게 말해야 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당신의 하인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중국 표준어에는 네 가지 성조가 있다. 광저우어 방언은 일곱 가지 성조가 있으며 다른 방언들에는 그 수가 두 배이다. 배우는 학생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모든 음절마다 목소리를 적절히 높이거나 낮추면서 단어와 문장들을 반복해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오만한 억양을 사용해야 할 때 즐거운 투로 말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전체 의미가 바뀌며 연습하지 않고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필자는 수리 중이라 들은 캉(k'ang), 즉 구들을 의미하는 화로의 안쪽을 들여다보길 원했던 적이 있다(독자들은 나중에 구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필자는 '보고 싶다'에 해당하는 두 단어를 아주 명료하게 발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록 필자가 억양을 알고 있고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필자는 '구들'이라는 단어를 중국인 지주가 알아들을 수 있게 발음할 수 없어 결국 통역으로 풀포드(Fulford)를 데려와야 했다.

중국어에는 자음과 모음 기호가 없다. 모든 개별 단어들은 하나에서 열셋에 달하는 획과 삐침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상형문자를 갖고 있다. 이 상형문자들은 나름대로 일정한 질서를 갖고 있다. 214개의 기본 기호들이 있으며 한 글자는 이들 중 하나가 이른바 '음성' 또는 3,867개에 달하는 '원시' 기호들과 결합하면서 형성된다. 그러나 합자를 파자함으로써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글자들을 상대로 조합의 의미와 구성 요소 사이의 어떤 연관을 추적하거나 상상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문자를 파자하여 돈주머니와 원숭이를 가리키는 상징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고 치자. 피상적인 관찰자는 아마도 그 단어가 방탕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짐작하거나 또는 애스퍼스(ass-purse)라고 들리는 발음 때문에 중상(slander)이란 단어와 연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의미는 ‘은하수’(Flowerly Constellation) 또는 ‘망망대해’(Ocean of Boundless Harmony)이다. 문어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의미를 추적하기 어려운 형태를 지닌 엄청난 수의 매우 복잡한 글자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손과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기억력이 요구된다. 차 상자를 보고 거기서 발견하게 될 무려 4천 자의 글자들 속에 있는 모든 획을 기억하려는 노동을 상상해보라.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일상적인 작업에 지나지 않는다. 1만 3천 개의 문자가 언어의 기본 구조를 이루며, 훌륭한 학자는 3~4만에 달하는 글자들을 숙지하고 있다. 중국 문자의 단점이 지닌 분명하고도 매우 심각한 취약점은 작문 시 외국어로 된 명칭이나 과학 또는 기술 용어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현이 불가피할 경우(만일 이름이 복수의 음절일 경우) 중국어는 단일 음절이기 때문에 모든 음절에 개개의 상형문자를 조음시킴으로써 가능해지는데 그 문자들은 문장을 이루고 있기는 하나 상호 연관된 의미는 없기에 우스꽝스러운 뜻이 된다. 더욱이 중국어에는 유럽 언어에 존재하는 발음의 많은 부분을 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들 없어서 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화화된다. 그리하여, 프랑스라는 단어는 파란쑤(Fa-lan ssu)로 읽히며 스코틀랜드는 쑤코텔란(Ssu-k'o-t'e-lan)이 된다. 필자의 이름인 제임스는 향기로운 식물과 보리와 생각하기를 의미하는 세 단어인 체마이쑤(Chieh-mai-ssu)로 변했다.

중국어에는 알파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형변화도 없고 성, 격변

화, 시제, 동사활용이 없다. 수와 시간에 따른 어형변화는 구에 의해 지정된다. 복수를 의미하려면 복수를 뜻하는 단어를 덧붙여야 한다. 그래서 단어가 명사 상당어구, 즉 명사나 형용사로 이해되는지 아니면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로 이해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문맥상으로 또는 단어 배열에서 추론하거나 짐작해야 하며, 이는 중국어의 구어와 문어가 모두 일상적으로 극도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어는 모호성을 수사와 취향이라는 전도된 규칙으로 보충한다. 작문과정에서 주장이나 의미에 따라 문단을 나누거나 접속사나 관사를 사용하고 심지어 마침표를 찍는 것은 나쁜 취향이다. 한 페이지는 각각 연설의 전부나 일부를 의미하는 단어들로 채워진다. 심표가 없고 단어들은 특별히 위엄을 갖는 것을 문단 맨 앞에 놓으며 그 밖의 목적에 따라 배열된다. 그리고 공을 들여 모호하게 만든 단어군의 의미는 명사변화, 접속사, 관사, 문단 등의 갖은 방법들을 동원해야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모호성 자체는 난해한 문장과 경구를 해명하는 일을 즐기는 중국학자에게는 기쁨이지만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일반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다. 문어와 구어는 영어와 아랍어 사이만큼이나 서로 관련 없는 별개의 언어이다. 문어의 의미나 소리 그 어느 것도 구성 요소를 분해하거나 바라보는 것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며, 설상가상으로 구어를 하게 되면 그것이 별개의 언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문어와는 달리 구어의 단어 수나 다양성은 상당히 빈약하다. 기껏해야 342개의 구어 단어가 있을 뿐이며 모두 단음절이고, 기음과 억양 및 강세의 도움을 받아야 1,331개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4만 개의 옛 상형 문자들을 귀에 들리게 해야 한다. 따라서

똑같은 구어 단어는 셀 수 없는 문어 단어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청자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단어들의 배열과 문맥으로 의미를 짐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옌’이라는 단어는 담배, 눈, 소금, 연기, 아편, 목, 이유, 방법, 여성의 웃음, 환관, 적시기, 지연시키기, 개울의 기슭, 절이기, 선량한, 색채, 단어, 낭떠러지, 외벽, 확대하기, 연회, 뜨거운, 우아한, 빵기, 지붕처마, 연습하기, 책 닫기, 상처, 야생 거위, 참새 등을 의미한다. 사실 의심할 때, ‘옌’이라 말하면 그것만큼 다양한 의미를 갖는 단어가 없는 것이다.

입으로만 전해지는 구어 발음 또한 지역마다 다르다. 그 결과 정말 많은 수의 방언들이 마치 포르투갈어 및 이탈리아어가 라틴어와 갖는 관계 못지않게 구어와 멀고 두 언어처럼 차이가 내부적으로 매우 크며, 종종 더 심하기도 하다. 베이징 토박이는 광저우 사람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편지는 쓸 수 있을지 모르나 만일 말을 건다면 중국식 영어<sup>10</sup>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통역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상하이에서조차도 필자가 쇼핑을 나갔을 때 대동한 베이징 부근 출신의 하인이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해 전혀 쓸모가 없었다.

교육받은 중국인도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는 지방에 있는 친구와 서신을 주고받을 수는 있으나 인근지역을 벗어나면 통상 정부 관리가 습득하는 베이징 중국어를 배우지 않는 한 대화를 나눌 수 없다. 유럽에서 한 사람을 교양인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노력으로는 중국에서는

<sup>10</sup> 이는 글자 그대로 옳다. 최근 한 배의 선장은 홍콩에서 몇몇 중국인 선원들을 배에 태웠는데 불과 200마일 떨어진 다음 항구인 산터우에서 이들이 원주민 행상 선원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들었다고 한다. ‘얼매?’, ‘반 달러’, ‘도적놈이네’. 수마트라에서는 고향이 다른 중국인들이 말레이시아어로 대화한다.

두껍고 모호하기만한 몇몇 중국 저작들에 나오는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익힐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저술들의 내용 또한 이해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 희곡이 지닌 오류투성이 문장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만큼이나 무가치한 것이다. 외국인이 언어습득 훈련 시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나 또는 습득한 뒤 서방의 명칭들을 표현하기 위해 단어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즉 통상적인 중국인들의 경험에서 벗어난 어떤 주제에 관해서 생각을 주고받는 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있다. 필자는 독자들이 『중국총보(Chinese Repository)』에서 일하는 한 작가가 쓴 다음과 같은 말에 동의하리라 장담한다. 즉 중국어가 생각을 교환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도구들 가운데 가장 불완전하고 조야하며 서툰 것이라는 점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 만주어는 중국어와 비교하여 부정할 수 없는 이점을 갖고 있다. 만주어 문자는 계보가 흥미롭다. 누르하치가 처음 정복을 시작했을 때 만주족은 문자가 없었고 문자화하기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몽골어로 번역해야 했다. 그래서 정복자는 독자적인 문자를 창건하기로 결심했고 학자들은 몽골어를 기반으로 몽골어 문자와 많이 닮은 문자를 만들었다. 그러나 몽골 문자 자체는 글쓰기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또 다른 정복자인 칭기즈 칸 하에서 또는 그의 명령으로 13세기 초부터 창건되어 발전해와 근대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의 문자는 다시 위구르족이라는 터키 고대 종족의 문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들은 오늘날 카슈가르와 벨그레이드(Belgrade) 사이에 살고 있는 터키인의 조상이다. 위구르족 또는 터키인은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아랍 문자를 채택했지만, 그 전에 14개, 그리고 후에 16개로 이루어지는 독자적인 문자를 갖고 있었다. 문헌학자들은 이 문자의 기원을 네스토리우스

교 시리아인이나 심지어는 고대 페르시아 말에서 찾는다. 만주어 문자는 따라서 나름대로 훌륭한 조상들을 가진 셈이다.

그러나 만주어는 기호들이 뜻이 아닌 음을 상징하는 표음문자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오류가 빚어진다. 자국의 표의문자에 익숙한 중국 문법학자들이 표음문자인 만주어를 익힌 뒤 음절표를 만들어 12개의 군으로 분류했다. 음 형성이 몽골어와 유사한 만주어 음절표는 별도의 다른 목적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증가되어 최종적으로는 그 수가 약 1천 3백 개에 달했다. 중국학자들은 음절 각각을 독립된 문자로 다루면서 복음절로 이루어진 단어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수정하고 암기했다. 그러나 개별 음절은 원래의 글자로 파자가 가능하며, 그 가운데 6개의 모음과 19개의 자음이 있다. 위구르족의 경우처럼 글쓰기는 왼쪽에서 시작되어 페이지 하단으로 내려가지만 페이지를 넘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음으로써 쉽게 읽고 쓸 수 있다. 만주어를 알게 된 초기의 여행객들은 만주어가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쉽다고 말했다. 글자를 만들기가 용이하며 쓰는 것도 빠르다. 마라티어로 문서를 작성할 때 서기가 종이 위에 선을 긋고 마치 하녀가 줄에 옷을 널듯이 그 위에 글자들의 남은 부분들을 얹어놓는 것처럼, 만주족 서기도 페이지 위에 선을 긋고 오른쪽 또는 왼쪽에 글자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점과 선을 추가하여 단어들을 완성한다. 진짜 붓은 대나무나 갈대로 만들어졌으나 요즘은 중국인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거위깃이나 화필로 된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만주어에는 언어의 정규 구성 요소들인 명사상당어구, 명사, 형용사, 대명사(주격, 소유격, 여격), 동사들과 수에 따른 네 가지 변형, 격변화, 관사, 부사, 전치사, 후치사(일반적으로 힌두어나 인도어처럼), 접속

사, 감탄사 등이 모두 있다. 그리고 영어처럼 형용사가 변화하지 않고 성조가 하나라는 사실은 큰 강점이다. 독일어를 약간이라도 배우려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에 따라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 동사 변화는 대부분 규칙적이다. 그 이유는 유럽의 대부분 언어보다 불규칙한 활용이 적기 때문이다. 조동사는 사용되나 영어나 프랑스어보다 수가 많지는 않다. 발음규칙 또한 적고 간단하며, 글자의 소리들은 후음이나 배우기 쉽다. 만주어 습득의 용이함은 여러 측면에서 중국어와 놀라울 정도로 비교된다. 만주 왕조의 황제들은 중요한 중국 서적 모두를 만주어로 번역하는 데 대대로 힘써왔으며 귀중한 사전들과 다른 기본 저술들도 만주어와 중국어로 편찬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어서 황궁이나 백성들 모두 현재 만주어를 잊고 성가시고 야만스런 중국어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그들이 변발 대신 자신들의 언어를 중국인에게 강요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주에 있는 중국인, 몽골인, 만주족은 한결같이 옷을 잘 입는다. 대부분은 인디고로 염색한 면직물, 통 큰 바지, 바지 위에 한 짝의 낚시장화 같은 반바지 등을 입고, 좁은 소매가 달린 긴 덧옷이나 외투를 걸친 뒤 코트 위에는 종종 앞치마처럼 늘어지는 큰 조끼를 덧입는다. 여성은 길고 혈령한 가운을 입으며 머리는 금세기 초의 영국 부인들처럼 물총새의 푸른 깃털로 장식된 빗과 은비녀로 구멍을 낸 근사한 테와 주름 장식들로 멋지게 장식한다. 이것이 중국 패션이다. 이전 시대의 만주 귀부인은 남편의 변발처럼 머리를 뒤로 늘어뜨린 채 옷을 입곤 했다.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에는 나이든 귀부인은 ‘루이’라는 옥장식이 달린 나무로 된 실제 홀을 들었고 예식의 손님을 맞을 때에 이를 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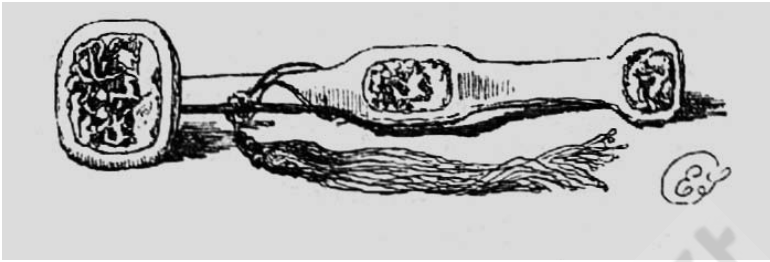


그림 2 훌(忽)

였다. ‘루이’는 단어를 구성하는 두 글자가 ‘소원성취’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정용으로 선호되는 선물이다. 따라서 마치 영국에서 편지에 물망초를 동봉하듯이 사람들은 가까운 친구에게 많이 증정한다(황제가 황태후에게 50년 즉위를 축하하며 현정했던 선물들 가운데 하나가 옥으로 만든 루이였다). 겨울이 다가오면 원면으로 속을 넣은 외투들이 두 겹 또는 그 이상이 되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두껍게 된다. 이유는 가옥의 건축이 부실하여 충분한 난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때 평균적인 중국인의 옷을 벗겨보면 분명 커다란 가죽코트와 어깨망토 안에서 약 열두 벌의 코트와 스무 벌의 조끼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성탄절같이 추울 때에는 심지어 가장 평범한 노동자들조차도 안에 털을 대고 여우가죽으로 만든 모자를 쓰면서 양가죽을 입을 수밖에 없다. 도시에서는 집집마다 사람들이 작고 간편한 귀마개를 하고 있다. 귀마개는 얼타오라 불리며, 가죽을 대고 바깥에는 비단으로 감싸 그 위에 꽃으로 된 작고 예쁜 문구나 문양을 새긴다. 중국인은 장갑을 끼지 않고 대신 토시처럼 그 안에 손가락을 숨길 수 있을 정도로 긴 소매옷을 입는다. 가운의 소매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옷깃들이 달려 있어 손끝이 안보일 정도이고 따라서 귀부인은 전족으로 걸을 때 중심을 잡게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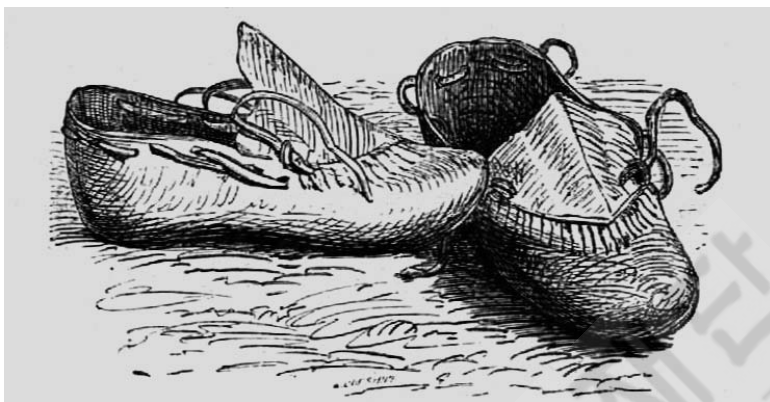


그림 3 만주족 신발

좁으므로 손이 없는 인형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고안품들을 갖고 있다. 남자들의 통상적인 머리장식은 검은색의 비단관이며 꼭대기에 단추가 붙어있다. 군인과 관원은 여름에 빨간 술이 달린 버섯모양의 짚모자<sup>11</sup>를 쓰는데 술이 꽤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분수처럼 모자 위로 흘러내린다. 겨울에는 둥근 타타르 모자로 바뀌 쓰는데 그 모양은 20년 전 영국에서 유행했던 ‘돼지파이’와 비슷하다. 부자가 신는 신발은 매우 부드럽고 편하며 위는 검은 벨벳이나 비단 재질이고 바닥은 두꺼운 펠트로 되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우라’라는 특별한 신발을 신는데 논과 진창에서 거친 일들을 하기 위함이다. 팔라폭스(Palafox) 추기경이 바닥 없는 조그만 반장화라고 부른 이 신발은 가죽 한 장으로 만들며 발 모양에 맞춰 제작되고 별도의 구두코가 붙는다. 버선과 신발 사이의 공간

<sup>11</sup> 티베넷(Thevenot)의 ‘항해모음[Collection of Voyages(1696), Paris]에는 벨갈의 영국인이 사용하는 정글모자와 매우 유사한 층진 버섯 모자를 쓴 관원의 그림이 있다.

은 백두산에서 자라는 부드러운 건초로 채워지는데 가루로 만들면 매우 안락한 안감이 된다. 우리는 노보키예프스크를 방문했을 때 비슷한 신발을 신고 있는 많은 코사크인을 보았다. 나물은 만주의 특산물 가운데 하나로 매우 소중하다. 다른 두 가지는 검은 담비와 금으로, 황제에게 진상되는 검은 담비는 요동이 심해서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날 때에는 항상 가둬놓아야 한다.

만주식 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지방의 특징과 거주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가옥이 규모와 재료를 달리하면서 천차만별을 이룬다는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다. 숲속에는 통나무 오두막집이 들어서고 황무지에는 벽들이 이토(泥土)로 제작되거나 햇볕에 말린 벽돌로 지어진다. 북부의 신규 정착민은 런던 외곽의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집처럼 원시적인 윗가리를 말려 오두막에 더덕더덕 칠한다. 장대로 골격을 만들고 버팀목 사이에 줄을 걸어 그 위에 잔디와 골풀로 만든 끈들을 엮는다. 그리고는 뭍은 진흙으로 이긴 뒤 딱딱하게 굳어지면 바람, 비, 추위 등을 막을 수 있을 때까지 두 번 세 번 바른다. 오래된 구역과 도시에서는 벽돌이나 석조를 재료로 사용한 꽤 그럴듯하고 잘 지은 집들을 볼 수 있다. 농가는 말뚝이나 벽으로 둘러싸인 울 내에 있으며 돼지우리, 외양간, 닭장 등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영국에서 보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외벽은 강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밤마다 굳게 잠겨있는 대문에는 보통 밝은 색깔로 된 두 장의 그림을 붙이는데 이는 사나운 전사를 상징하며 악령을 물리치려는 것이다.<sup>12</sup> 그러나 부유한

<sup>12</sup> 그림들은 당나라와 흉타이지 황제의 신하들이었던 진숙보와 호공덕을 그린 것이다. 어느 날 밤, 황제가 문에 돌을 던지는 귀신들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자

전주로부터 미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주지는 네 가지 측면에서 동일한 모습이다. 첫째, 모든 집들은 남향이다. 그 까닭은 남향이 행운이 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사나운 북풍을 등 뒤에 두는 부차적인 이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집들은 모두 단층이다. 셋째, 집 정면은 풀이 아닌 종이로 된 격자 모양의 움직이는 창틀로 되어 있다. 여름이 다가오면 종이들은 찢을 수 있어 집의 통풍이 가능해지고 겨울에는 종이가 매우 싸서 교체가 쉬울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방을 열리거나 싸늘하게 만드는 유리<sup>13</sup>보다 훨씬 따뜻하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많은 숨 막힐 듯한 오두막들이 그런 창에 적합할 듯하다. 넷째, 벽을 등지고 세워진 것으로 내부의 전 길이를 관통하며 방과 방 사이를 연결하는 구들이 있다. 대개는 양쪽에 하나씩 두 개의 구들이 있다. 구들은 높이 약 2.5피트, 폭 5피트의 일종의 승강장이며, 벽돌로 만들고 내부에는 연관이 있어 구들 전체를 네다섯 번 오갈 수 있다. 한쪽 끝에는 가족들의 식사를 요리하는 화덕이 있다. 마당 바깥쪽에는 10~12피트의 굴뚝이 있고 관을 통해 연기를 뿜어낸다. 따라서 부엌불의 모든 연기와 열들은 앞뒤로 구들을 통해 빠져나가며 스토브처럼 완벽하게 구들을 데우면서 최종적으로는 굴뚝을 통해 나온다. 구들의 꼭대기는 대나무 껍질이나 기장 외피로 만든 멍석으로 뒤덮여 있다. 구들의 편안함과 경제성은 놀랍다. 구들은 하루 종일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이다. 식

---

두 사람이 경계를 섰고 귀신들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다. 그리하여 황제는 이들의 초상화를 문에 그리도록 했고 후손들이 그 관례를 이어갔다.

<sup>13</sup> 유리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부유한 집은 중앙 창문이 종종 유리로 되어 있다.

사 때에는 식당으로 변모하여 가족들이 둘러앉을 수 있는 한 족장 높이의 조그만 상에 식사가 제공된다. 저녁에는 침구가 깔리면서 침실로 변하고 여자들을 위한 곳은 다른 쪽 끝에 분리되어 있다. 바깥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실내에서도 빙점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는 따뜻하고 그럴듯한 구들이 방을 덥히는 난로의 역할을 하면서 잠자기에 딱 좋은 침대가 된다. 더 나은 집들과 대형 여관에서는 각방이 독립적인 구들을 갖고 있으며 구들을 덥히는 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적은 연료가 든다. 소년이 작은 짚 다발에 불을 붙여 구들장 아래에 있는 구멍에 틀어넣으면—종종 너무 작은 다발이어서 완전히 연소하기 전까지는 방을 떠날 시간이 없다—정말 어떻게 그렇게 조그마한 불이 거대한 벽돌로 지은 건물을 덥힐 수 있는지 불가능해 보일 정도다. 그러나 한 시간 반이 지나면 온화한 열이 구들의 꼭대기 부분에 스며들게 되어 밤새 유쾌하고 따뜻해진다. 만일 잘 몰라서 더 많은 연료를 주문하여 구들에 넣는다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울 것이다. 여관에서는 저녁식사를 요리하기 위해 계속 불을 때거나 침대가 보일러에 너무 가깝게 있는 경우가 있어 너무 뜨거워진 구들의 열을 식히기 위해 마루나 상 위에서 자거나 아니면 다량의 건초를 침대 밑에 깔아야 했다.

가택의 안뜰이나 뜰 밖에는 꽃에 대한 중국인들의 사랑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종류는 적다. 접시꽃, 발삼, 푸른 참제비 고깔속, 장미 등이 선호 대상이다. 기후는 아주 강인한 식물을 제외하고는 어느 꽃에게나 적합하지 않다.

저녁식사의 경우, 만주 사람들은 비슷한 처지의 세계 어느 곳 사람보다 더 잘 먹는 편이다. 제공되는 음식은 매우 저렴하지만 모두가 타고난 요리사이며 재능을 십분 발휘한다. 보통 하루에 두 번 정식을 먹는 데 많

은 이들이 세 번 식사한다. 주식은 쌀이며 다른 게 있다면 작은 기장으로 다양한 조미료를 곁들여 끓여 먹는다. 한 동이의 곡물은 3인분의 죽이 된다. 식전 수프와 스투는 다양한 채소들로 만든다. 닭과 오리를 대량으로 소비하며 중요한 날에는 돼지(찌꺼기를 먹어치우기 때문에 기르기에 경제적인 동물이다)를 잡는다. 대형 여관에서는 영국의 평균적인 지방 여관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양질의 코스 요리를 8펜스에서 1실링 사이 가격으로 내놓는다. 그들은 쌀이나 기장에서 증류한 술을 매우 점잖게 마시며 때로는 위스키와 같은 강한 술도 마시나 맥주와 같은 약한 술이 일반적이다. 맛은 약한 스페인산 백포도주와 비슷하며 따뜻하게 해서 마신다. 만주 사람은 끓는 물도 좋아하는데, 새로 도착한 사람들에게 식수로 제공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씻지 않고 뜨거운 물에 적셨다가 짜낸 조그마한 수건으로 닦는 걸로 가끔 대신하기 때문이다.

집안이나 여관의 가구는 구들이 아주 많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빈약하다. 선반이 있고 간혹 화려하게 라커칠을 한 장롱이 옷장을 대신하고 있다. 구들을 위한 작은 탁자들에 대해서는 앞서 이미 이야기했다. 책상과 의자들도 있는데 의자는 딱딱한 목재 시트와 경직된 직각의 등받이가 붙어 있고 대개 아름다우나 불편하다. 상점들은 정구 계산대를 갖고 있다. 좋은 집의 벽에는 중국 고전이나 시구에서 뽑은 구절들이 걸려 있는데 우아한 필체나 고대 글자로 쓰여 있고 때론 먹과 붓의 자유로운 놀림이 엿보이는 솜씨 있는 소묘들이 곁들여져 있기도 하다. 어떤 집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 획정임무를 맡은 판무관과 유사한 직위를 가진 사람의 붓에서 나온 한(漢) 왕조의 유물들과 매우 훌륭한 도자기 상감들을 발견했다. 손님을 맞이하는 별실에는 한 쌍의 꽃병이 탁자 위에 놓여있다. 부유한 중국인은 예술에 정통한 대인이며 좋

은 도자기를 발견하면 유럽의 골동품 수집상처럼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 베이징 주재 영국 공사관의 한 관리가 필자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거래상이 중국인 수집가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 한 짝의 향아리들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몇 년 전 불과 15달러에 구입한 향아리 한 벌을 120달러에 되사라고 했다 한다. 여관의 벽들과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및 대들보에는 대개 거친 색깔의 벽지나 붉은 종이 위에 커다란 글자로 쓴 환영 표어가 장식되어 있다. 표어의 내용은 ‘슬픔을 멈추고 기뻐하라’ 또는 ‘좋은 여관은 지상의 천국이다’ 등이다. 그 외에도 ‘외투와 모자에 주의하시오’, ‘좋은 주인은 말을 먼저 먹인다’, ‘노새를 자신처럼 돌보라’ 등의 경구들도 있다. 어느 방의 끝에는 ‘정치에 관해 언급하지 말라’는 간결한 어구가 붙어 있기도 했다.

일부 만주족은 예전에 시체를 태우기도 했는데 이는 몽골족에서 배운 관습으로 아베 혁에 따르면 라다크나 티베트 사람도 비슷한 풍습을 갖고 있고, 연료가 있을 때 화장을 실행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생선 껍질과 같은 거친 피부를 지닌 타타르인처럼 대부분의 만주족은 언제나 관을 사용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계층이 중국인을 따라하고 있다. 중국인은 화장을 알고 있기는 했으나, 망자의 시체에 대해 깊은 존경을 갖고 있다.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굶어죽기를 바라는 컴버랜드(Cumberland)의 노파처럼 중국인은 좋은 곳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리고 환갑에 이른 아버지에게 아들이 좋은 관을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효심을 표한다. 여행 중에 한두 번 우리는 집 밖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노인의 관을 보았다. 관은 크고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폐되어 있었다. 따라서 불쾌감을 느끼지도 않았고 땅위에 놓아둘 수 있었으며 값비싼 지하무덤보다 이와 같은 방식이 중국인의

검약정신에 더 잘 어울린다. 외부 정착민도 언젠가 자신이 죽으면 가묘(家廟)에 묻히리라는 소망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주민의 절반이 이방인인 만주에서 공동묘지와 마을 외곽이 관들로 덮여 있다. 관은 언젠가 망자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믿음 때문에 그곳에 남겨졌고 점점 썩어 가고 있긴 하지만 생각만큼 혐오스럽지는 않다. 토박이들은 거북이의 등에 세운 비석과 깔끔하게 벽을 바른 가묘를 갖고 있고 입구에는 때로 근사한 패루(牌樓)가 있다(거북이는 용이 낳은 아홉 명의 자식 가운데 하나이며 힘의 상징으로 비석 아래 위치한다). 가묘는 세심하게 관리되며 항상 스코틀랜드산 전나무를 심어 장엄한 모습이다. 목텐에 위치한 현 왕조의 묘지는 망자에 대한 중국인의 존경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예이나 베이징 근처의 명나라 묘지와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명나라 묘지는 인도 무굴 황제의 묘지와 비교했을 때 값싸고 번지르르하며 덧없어 보였다. 만주에서는 나무가 저렴하여 좋은 관을 구입하는 데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 않고 모든 도시가 관과 관련하여 성업을 이루고 있는 중이다. 지린에서 강 부두 위로 4분의 1마일 동안은 관 더미 외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창춘과 다른 곳에도 거대한 관 집하장소가 있다. 겨울에는 관만 가득 실고 다른 지방으로 향하는 수레들을 한 번에 스무 개에서 서른 개까지 볼 수 있다. 어떤 관은 페인트와 라커로 매우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고가로 팔린다. 종종 남편의 묘에서 울고 있는 여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다. 어떤 계절에는 종잇조각에 주문을 쓴 뒤 묘 앞에 있는 향로에 태움으로써 망자에게 예를 드린다. 그리고 종종 악령들을 쫓아내기 위해 폭죽들을 터뜨리기도 한다.

일반적인 예와 관습에 대해서는 중국인이 예외적으로 열심이라고 앞서 이야기했으므로 따로 더 보탬 것이 없다. 중국인과 만주족 모두



그림 4 가묘(家廟) 입구

상류 계층은 인터뷰 당시는 매력적이고 공손했으나—사실 오히려 과했다—실제로는 무례했다. 사실 공손함은 피상적인 것이다. 만주의 전통 인사법인 절, 즉 고개를 숙이고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입까지 올리는 인사는 인도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두 주먹을 쥐고 가슴 앞으로 뻗은 다음 고개를 숙이는 중국식 인사법으로 대체되었다. 하층민으로는 무례한 시골뜨기들이 있으며, 도시와 커다란 촌락에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외국악마’라고 조롱하기를 즐기는 불량스러운 인간쓰레기들이 있다. 백인은 거의 어디서나 흥미를 끄는 진기한 존재로 심지어 교양 있는 사람들조차도 못살게 굴 정도다. 그리고 중국인은 자국에 대한 독특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 외국인의 감정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따라서 경찰을 동반하지 않으면 거리를 걸을 때마다 군중들이 따라 붙어 종종 무례한 언행을 보이기도 한다. 사실 안락한 여

행을 원한다면 마차나 말을 타지 않고서 거리를 도는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방인의 숙박 장소를 둘러싸고 손가락에 물을 적서 창호지에 구멍을 낸 뒤 거기에 눈을 대고 끈질기게 관찰한다. 중국인은 외국인에 관심이 많아 화장실에 있거나 식사를 할 경우가 생기면 예의를 차리지도 않은 채 머무는 방에 걸어 들어와 질문을 하기도 한다. 한번에 50명의 아르구스(100개의 눈을 가졌다는 전설상의 거인)들에 의해 관찰당하는 기분은 처음에는 흥미로우나, 나중에는 커다란 막대기나 끊는 차가 담긴 주전자를 휘두르게 된다. 그러나 곧 상황을 달관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몇 살인가’, ‘입고 있는 옷은 무엇으로 만들었나’, ‘갖고 있는 총은 얼마나 하나’ 등의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온순하고 때로는 기쁜 얼굴로 답하게 된다. 입고 있는 옷이 중국인의 더러운 손길들로 때가 타기도 하지만 웃음을 머금고 총과 연발권총 자세를 내보이며 마무리를 짓게 된다. 귀찮은 일들은 대도시에서 가장 심하다. 우리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농촌에서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드러내지 않았고 매우 예의바르고 정중했다. 산악지대에서는 사냥꾼들이 주로 따라다녔다. 사실 중국 북부는 중부나 남부보다 이방인들에게 훨씬 더 호의적이었다. 이는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조선이나 몽골과 같은 타민족 사람들을 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연적 기질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인 주민 대부분은 겁이 많고 비적들은 그들을 쉽게 다룬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하지만 결코 인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습관을 모든 중국인이 공통으로 갖고 있다. 정부 부서에 있는 대신부터 토굴 감옥에 갇힌 포로까지, 아무리 바쁘거나 곁에 누가 있더라도 중국인은 끊임없이 바닥에 침을 뱉는다. 낮은 계층의 언어는 조잡하나 런던 어시장만큼 나쁘지는 않다.

그들은 모두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아이들을 좋아한다. 상류계층은 부인과 자매를 여인용 방에 따로 둔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론의 밀(Mill)’을 외우는 교양 있는 벙골인 신사보다 나쁘지 않다.

만주지방의 대도시들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국 이슬람교도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다. 이들은 머리를 깎고 면도를 하며 변발을 하고 중국식 옷을 입기 때문에 거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그들의 사원도 중국식으로 건립되어 지붕의 사각이 개, 사슴, 전설상의 동물상들<sup>14</sup>로 장식된다. 이 양식은 황제의 건물과 사원에만 사용된다. 그리고 입구 안쪽에 용들이 떠받치고 있는 황제를 기리는 현판이 놓여있는데 독실한 신자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다. 벽은 종종 그림들로 장식되는데 이것도 엄격한 회교법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첨탑은 3층의 발코니와 지붕이 있고 등변을 이루는 우산 모양의 탑으로 되어 있다. 성지를 가리키는 벽감은 대개 복잡하고 뾰족한 문구들로 장식된다. 강단은 목재로 된 이동식 가구이며 종종 사원 입구나 기독교 교회의 본단 회중석에 해당하는 곳에 세워진다. 이슬람교도는 할례를 행하지만 대개 믿음의 역사와 교리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러나 그들은 사원을 방문할 때 신발 벗기를 고집하며 기도 중에는 아프간인처럼 주변에 터번을 두르고 뾰족한 모자를 쓴다. 어떤 면에서는 이슬람교도와 주변이 크게 대조를 이룬다. 집과 사원의 구내가 빈틈없이 깨끗하게 유지되어 오물들로 가득한 들판에 오아시스 같은 느낌을 준다. 그들이 운영하는 여관에 묵었던 윌리엄슨 씨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이방인에게 친절하고 우리를 한결같이 반겼다.

<sup>14</sup> 이들은 수두라 불리며 용이 낳은 아홉 명의 자손들 가운데 또 다른 일부이다.

만주의 남쪽 국경, 특히 압록강 계곡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조선인 정착민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조방농업을 하지만 주로 노동자이거나 소작인이다. 만주족과 중국인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조선인은 그렇지 않다. 조선인은 정치적 순교자처럼 부드럽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으며, 수염과 구레나룻이 있고 몽골이나 퉁구스족 이웃보다 훨씬 더 큰 황갈색이나 검은 색의 긴 머리털을 갖고 있다. 조선인은 언제나 더러운 하얀 색의 옷과 짧은 외투 및 일종의 모시로 만든 매우 험렁한 바지를 입는다. 그리고 커다란 그물에 말총을 매어 만든, 새장과 비슷한 정교하고 긴 갓을 머리에 쓴다. 우리가 본 갓들은 웨일즈 여자들이 쓰는 종종 주름이 뒤에 달린 것과 유사한 형태였다. 그러나 조선갓의 형태와 크기는 최근 그곳을 여행한 칼스(Carles) 씨에 따르면 영국 여성의 보닛 모자만큼이나 다양하다. 갓 안에는 상투를 튼 머리가 있는데 이는 고대 중국의 풍습을 모방한 것으로 만주족은 폐지한 것이다. 중국과 조선의 양쪽 법에 따르면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국민이 국경을 넘어 이주할 수 없다. 중국인에 대한 법은 엄격히 집행되며 벌은 사형이다. 그러나 중국의 정착민은 조선인 노동력이 저렴하고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노동자들도 자진해서 열심히 일한다. 따라서 그들은 압록강을 건너 황무지를 경작하라는 독려를 받는다. 중국 관원들은 조선인의 존재를 모르는 듯하다. 한때는 조선 정부가 사절단을 파견하여 자국민들에게 모두 가난에 찌들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엄명을 내리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인은 조선에서 배제되는 반면, 조선인은 중국인 정착민에 의해 독려를 받고 있는 셈이고 지방 관리들은 이를 알고도 모른 척 묵인해 준다.<sup>15</sup>

조선 여인들도 하얀 옷을 입는다. 긴 치마를 입으며 그 안에 꼭 끼는

속옷과 파자마를 입고 발에는 짚신을 신는다. 그들은 못생겼으며 가슴을 내놓고 돌아다녀 단정하지 못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낮은 신분에도 속해 세련되지 못했던 것 같다. 중국인은 과거 평토텐의 주인이자 쫓겨날 때까지 용감하게 싸웠던 조선인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본다. 조선인은 ‘일류 어부’라는 점에서 스코틀랜드인을 닮았다.

조선인도 문자를 갖고 있는데 400년 전에 발명된 것으로 만주 문자보다 두 배나 오래된 것이다. 이 점에서 조선인은 중국보다 앞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문자 창건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인도의 선교사들은 끊임없이 문자를 만들어야 했고 관리들도 같은 작업에 투입되었다. 예를 들어 신드(Sind) 지역을 점령했을 때, 우리는 외국어인 페르시아어로 작업이 진행되었음을 발견했다. 고(故) 바틀 프레레(Sir Bartle Frere) 경과 프레드릭 골드스미드(Frederick Goldsmid) 경은 페르시아어와 아라비아어를 바탕으로 신디 문자를 만들어냈다. 정부기관이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신디 지역의 교양 있는 원주민들이 쓰고 있다. 몇 년 뒤에는 윌리엄 메레웨더(William Merewether) 경이 바냐 신디(Banya-Sindhi)라 불리는 또 다른 문자를 만들어 신디 지역의 힌두 상인들이 사용하도록 했다. 과거 힌두 상인들은 마르와디(Marwadi)어를 모방해 썼는데 이 언어는 작문이 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 그리하여 캐드머스(Cadmus)<sup>16</sup>의 예술은 아직 완전히 절멸되지 않았고

<sup>15</sup> 훈춘 가까이에 사는 조선인 정착민은 종종 거주지역의 장군과 국경 너머 조선 관리 사이의 거래 대상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인에게는 현물세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경작이 계속 허용되었다. 『중국평론』 11, 262쪽.

중국인이 이를 발전시키리라 기대되고 있다. 조선의 문자는 표음문자이며 매우 단순하다. 다양한 위치에 놓여있는 길고 짧은 획은 모든 모음을 상징한다. 자음도 마찬가지로 단순하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는 중단해야 한다. 독자들 가운데 조선어에 대해 더 알기 원한다면 제13장에 있는 로스 씨가 저술한 ‘조선’<sup>17</sup>이라는 주제에 관한 흥미로운 보고서를 읽어보기 바란다. 필자는 더 이상 조선에 관한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sup>16</sup> 용을 퇴치하여 테베를 건설하고 알파벳을 그리스에 전한 페니키아의 왕자.

<sup>17</sup> John Ross(1891), *Corea*, Paisley : T. and R. Parlane.

## 제5장

# 행정

송실의 동생으로 러시아와 중국 간의 리바디아 조약을 잘못 성사시킨 죄를 지어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던 송후는 약 1874년, 묵텐의 장군으로 지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중국 본토에서 최고위 지방 문관 관직인 총독이란 명칭을 부여받게 될 최초의 사람이었다. 중국지방의 총책임자는 영국 식민지 총독처럼 관할 구역에서 총사령관을 겸하지만 비정규체제가 아닌 정규체제를 의미하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 공직자가 등용되었다. 변화는 송실의 추천에 따라 시작되었고 그는 평텐의 지방행정을 관장하는 책임자의 지위와 함께 부총독에 임명되었다. 이는 달루지에(Dalhousie) 공이 벵갈의 부지사직을 부여받은 것과 같은 경우였다. 장군이란 군사적 지위와 지린과 치치하얼의 민간행정 책임자 직위는 존속되었고 이 둘은 묵텐의 총독에 부속되었다. 세 명의 타타르 장군들은 변함없이 만주족이며 중국 전역에 적용되는 법에 따른다. 봉직 기간은 언제라도 종료될 수 있으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림 1 목텐 소재 총독 관저 앞뜰의 녹각담

3년 이상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목텐의 타타르 장군이 민간 총독이 되면서 수비대 사령관은 이전에는 지역의 책임자들과 함께 움직였으나 이제는 자신들의 군사적 의무에만 충실해야 했다. 총독의 급료는 1년에 1만 8천 냥, 즉 약 4천 파운드이며 부총독은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제국의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그들은 재가된 액수의 3분의 1만을 가져갈 수 있다. 서열이 2위인 부총독은 불과 2천 냥을 받게 될 것이다.

총독은 관아에 직접 나와 있지 않고 법률 사건들을 5급이나 6급의 만주족 관원들에게 맡겨 조사에 적절한 부서로 이관하도록 한다. 총독은 자신의 궁에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 그는 총독이 보게 되는 문서들을 수발하는 다양한 등급의 관리들을 하인처럼 부린다. 이 문서들은 만주족이나 중국인 관원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모든 종류의 법적 행정적 문제들이 담긴 소장과 반소장이다. 총독은 각 사건들을 궁 안의 관리나 궁 밖의 판관이

진행하는 재판에 배정한다. 베이징에는 6개의 부처가 있으며 묵텐에는 5개로 하나가 부족하다. 이 부처들은 중국 정복 이전인 1631년, 홍타이지에 의해 설립되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인도의 소규모 관구를 담당하는 지사들이나 위원회들과 많이 유사하다. 총독은 사건의 성격을 따져 이 부처들 중 하나에 조사업무를 맡긴다. 만주족이 사건을 직접 제기하는 부처 이외에도 중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판과 지방 관원들로부터의 청원을 조사하는 대법원이 있다. 이 법원은 총독이 이관한 사건만 심리한다. 총독은 담당 관리를 지명한다. 묵텐 총독의 권한은 두 가지 사실을 제외하고는 중국 본토의 다른 총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묵텐 총독은 비서들 대신에 부처들의 보좌를 받고 있고 왕조의 고향에서 만주족 예비군을 지휘하고 있다.

중국식 행정부가 이제 거의 평텐 지방의 만주식 행정부를 대체했다. 여전히 10명의 1급 사령관과 만주족에게 사법권을 행사하는 다섯 명의 2급 지휘관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군사 법원들은 더 이상 중국인에 대해서는 사법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중국인의 업무는 현(縣)에 이관된다. 14개의 현이 위계가 낮은 지역의 도시에 있으며 그 영역은 북쪽으로 지린의 위도를 넘어 몽골 국경상의 바자쯔에 달하고, 남쪽으로는 조선 국경에, 서쪽으로는 거의 만리장성까지 미친다. 주(州)를 담당하는 5명의 책임자와 판관이 있고 부(府)를 담당하는 세 명의 책임자와 네 명의 판관이 있다. 규모가 큰 도시에도 유급 판관이 있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급에서 치안, 사법, 행정권을 행사한다. 부를 담당하는 판관은 인도의 지방 행정관과 동급의 직위이며 주 책임자는 담당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 부행정관에 해당하고, 현(縣)의 책임자는 한 구의 하급단위 치안판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서는 최하급

의 행정단위와 법원이 있다. 그리고 위반 시의 벌이 약간 무겁긴 하지만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법이 하나 있다. 고소 사건은 먼저 현의 판관에 의해 처리되며, 만일 고소인이 그보다 고위관원을 찾아 간다면 그는 잘못을 저지른 죄로 50대에 달하는 대나무장을 맞는다. 동양인이 먼저 하급심에 호소하지 않고 사법부 수장에게로 직행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아는 인도 관리들은 거의 없다. 인도에서 있을 때 거칠고 읽기 어려운 지방어로 여왕에게 직접 쓴 일단의 청원서들을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인도 부서책임자들 앞으로 배달되는 수많은 탄원서들이 다음과 같이 배서되어 회신된다. ‘이것은 먼저 하급 담당 관리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중국인은 이러한 경향을 관청이 교정하며 이는 분명 관리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노동을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반면 만일 하급관리가 상급 관리에게 사건을 보내지 않고 직접 결정한다면 그는 강등된다.

현의 판관은 필자가 인도에서 하급 치안판사였을 때처럼 강도나 살인과 같은 중대한 사건들을 현장에서 직접 조사해야 한다. 필자의 생각에는 상급법원이 영악한 현지 경찰에 의해 교묘하게 왜곡된 증거를 받아서 판결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판관이 현장에 달려가 죄 없는 사람이 고소당하거나 실상이 왜곡되지 않도록 확인하려는 현장중심주의 작업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 현의 판관은 검시관이기도 하며 사체는 검시관이 볼 때까지 절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원래의 장소에 놓여 있어야 한다. 판관은 중요 사건들을 직속상관에 보고해야 하며 인도처럼 결정이 내려진 민사와 형사 사건들에 관한 월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판관은 주어진 기한 내에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야 한다. 만일 의무를 게을리하면 자신뿐 아니라 상관도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상관

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아무 것도 모를 수도 있으나 통상 판관을 잘 감독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만주에도 인도처럼 개인이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판관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 더욱이 각 관원은 주기적으로 교체되며 3년마다 한 번씩 매우 낮은 지위의 관료들까지도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요컨대 만일 중국에서 법에 따라서만 행동한다면 소송해야 할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입법과 준법 사이에 그리고 질서부여와 준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동양인들이 행정관으로서 크게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이 중요한 차이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흠 하나 없는 완벽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만 나중에 그러한 결정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알지도 신경 쓰지도 않는다.

만주지방의 관아는 인도의 관청과 매우 유사하며 높은 담장이나 사슴뿔로 만든 울타리로 둘러싸인 안뜰에 있다. 입구의 양옆에는 포졸과 하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숙소와 감옥이 있다. 주 건물에는 기록실과 경리실 및 공식 입회가 벌어지는 법정이 있다. 뒤쪽에는 서기들의 방과 판관의 관사 및 잡다한 사무실들이 있다. 판관은 뇌물을 강요하거나 끄드기는 데 능한 서기들과 아랫사람들에 둘러싸여 산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벵갈처럼 일부 서기들은 소송과 판관들의 결정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준비할 권한을 대리로 부여받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수준의 부패를 초래하는 끔찍한 제도이다. 더욱이 서기들의 급료 수준이 상당히 낮아 정부와 상관은 그들이 주민들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때 필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광저우에 있는 판관의 사무실을 방문했었다. 대인은 테이블 옆의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유일하게 방안에

서 앉아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옆과 뒤에는 아침에 능한 수행원들이 서있었고 그 가운데 한 명은 그가 담뱃대를 빨도록 건네주고 있었다. 판관 앞에는 재판 때 가끔 참조하는 몇 권의 법률 서적이 놓여 있었고, 외관상 훌륭한 상인들로 보이는 고소인과 증인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무릎을 꿇고 앉아 품위를 갖추면서도 매우 끈기 있게 자신들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었다. 판관은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좋아, 가능하면 도와주겠다. 그러나 어려운 사건이고 법이 있으며 내가 어쩔 수는 없다.” 판관 정면에는 자백을 거부하는 두 명의 불쌍한 죄인들이 서로 마주보며 묶여 있었다. 그들은 무릎이 바닥에 닿은 채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붙은 줄에 매달려 있었고 변발은 머리를 세울 수 있도록 기둥에 꿰뚫어 묶여 있었다. 눈은 반쯤 뜬 채로 입에서는 약간의 거품이 새어 나왔으며 신음소리와 거친 숨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었다.<sup>1</sup> 넓적다리와 엉덩이는 부풀어 올랐으며 살은 터졌다. 분명 심한 구타의 결과였다. 바깥의 유치장에는 발목을 이미 늘씬하게 두들겨 맞아 걸을 수 없는 또 다른 죄인이 앉아 있었다. 벽에는 육중한 대나무와 직경 약 2인치의 대나무 평판, 가벼운 대나무, 회초리, 철 사슬 등이 있고 그 위에 자백을 거부하는 다루기 힘든 죄인을 무릎 꿇린다. 법전에 명시된 중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문이 불법임에도 판관은 죄인들의 자백을 받기 위해 시행한다. 만일 죄인이 이례적으로 끔찍한 고문으로 사망할 경우, 황제는 판관을 강등시킬 수 있으나 그것은 대개 판관의 과욕으로 치부된다.

<sup>1</sup> 이것은 ‘앵무새의 미소핀 얼굴’이라 불리며 불법적이나 빈번하게 자행되는 많은 고문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촛불과 무거운 대나무를 제외한 합법적인 고문 도구들로는 복사뼈를 압박하는 도구, 손가락을 쥐는 다섯 개의 동근 막대기, 칼 또는 무거운 나무 칼, 쇠사슬, 수갑과 족쇄들이 있다.

한때 판관이 죄수의 손에 못을 박고 뜨거운 징을 사용하거나 물을 끓이거나 아킬레스건을 끊었다고 보도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총독은 적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자신도 악인을 증오하며 작은 엄혹함 정도는 그런 지방에서 괜찮다고 말한 뒤 판관에게 좋은 점수를 주었다. 황제도 타인에 대한 의심과 분노에 헐박받지 않는 판관을 찾기 어려우며 죄인들은 사악하고 파렴치할 뿐만 아니라 비열한 인간이므로 잔혹행위가 가해진 적이 없고 사건은 각하되리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에 한 판관이 무당인 죄수를 두려워하여 그의 탈출을 막기 위해 아킬레스건을 끊고 눈을 생석회로 태워버리자 현 황태후는 자격정지 처벌을 내리고 재판에 회부했다.

중국의 민법은 민사소송이 형사소송으로 다루지기 때문에 법전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한다. 그리하여 말을 얻고자하는 소송이 말이 도난당했다는 고발의 형태로 제기되고, 논의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곡물을 훼손했다는 식으로 소송이 벌어진다. 그리고 결정에 상관없이 패소한 소송인은 대개 태형에 처해진다. 만주에서는 매우 종종 양쪽 모두 태형을 받으며 심지어 뇌물까지 바쳐야 한다.

지린 성에서도 만주식 행정이 중국의 민간관리들로 대체되고 있다. 대도시의 많은 곳에서는 평텐처럼 판관과 지사들이 있고 심지어 통화 같이 멀리 떨어진 변경지역에도 정규 현의 판관이 있다. 그러나 훈춘, Ning'an, 산싱과 같은 국경지대에서는 군사령관이 여전히 최고위직이다.

헤이룽장 성에서는 만주족 장교들이 여전히 지배력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비효율과 부패에 대한 불평들이 높다. 사법업무는 법률 서기의 도움을 받는 여단장의 특별 임무이며 치치하얼의 행정책임자가 얼마 전 기념행사에서 정부에 일깨워준 것처럼 이 여단장은 문학적 또는 법

를 지식이 아닌 군사적 자질로 선발된다. 그리하여 업무는 비서에게 이  
관된다. 얼마 전 후란에 중국인 책임자가 임명되었고 만주족 장교들이  
여전히 세금을 징수하기는 하지만 두 명의 판관이 베이두안린쯔와 바  
엔수수에 부임했다. 비록 중국인 판관제도가 대부분 좋지 않지만 만주  
족 군사법정보다는 낫다.

위치상 당연히 지린이나 헤이룽장의 경계에 포함되는 몽골의 외곽  
구역에서 중국인은 몽골 족장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중국인 거주 도시  
들이 생겨날 때, 정부는 도시의 세금을 징수하는 판관을 임명하지만 농  
촌 지역에서는 몽골인이 여전히 우두머리이다. 그는 땅을 빌려주고 세  
를 받으며 만주인을 상대로 한 경우만 제외하고 사법과 행정을 관장한  
다. 창바이산맥 내부에는 베이두안린쯔와 아무르 강 사이의 계곡처럼  
법의 힘이 아직까지 전혀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지  
역에서 행정이 집행되는지 나중에 더 살펴볼 것이다.

모든 대규모 촌락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향야오라 불리는 촌장들  
이 있다. 그들은 촌민들이 선출하지만 촌락을 관장하는 현의 판관이 재  
가해야 집무를 시작할 수 있다. 촌락이 작은 경우, 촌장 선거 시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사한 촌락과 합친다. 포졸 또한 마찬가지로 선출한  
다. 이 양 관원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실제 업무에 대한 수당  
을 받는다. 수당은 피보호민의 토지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  
불되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시간과 비용을 보상하려는 의도이다.

촌장이 있는 곳은 어디나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일종의 자치체가 있  
으며 촌락 전체나 일부를 대표하여 소송할 때 자치체의 조언에 따라 행  
동하게 된다. 마을에 있는 자치체는 주요 상인들로 구성되며 자신들이  
소유한 상점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어 시내에 있는 다리를 보수하기

도 한다. 지방의 다리들은 해당 지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출연한 기부금에 의해 유지된다. 마을의 벽이나 관청건물이 황폐한 경우, 판관은 재건축 허락을 요청하게 된다. 베이징으로부터 재가를 얻게 되면 조합이나 자치체가 주민의 반발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이와 같은 기회는 관리들에게는 재정적으로 좋은 기회이며 향야오는 정부의 일을 감독하면서 정부의 토지가 불법적으로 점유되지 않도록 막고 범죄를 알리는 일을 담당한다. 그는 인도의 촌장이나 가장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비적 때를 제외하고는 만주지방에서 범죄는 그리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뢰한이 고발되어 체포되면 그가 겪는 곤경은 끔찍하다. 구타로 인한 고문이 일상적이며 입과 손바닥 또는 엉덩이에 가해지는 구타는 5대에서 200대까지 다양한데 판관이 피고의 진술과 실제 사실 사이의 차이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있다. 감옥에서의 대우도 놀랍다. 만일 죄인이 재산을 갖고 있다면 그는 빈털터리가 되거나 겨울에 동사할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묵덴의 의료 선교사는 그를 찾아왔던 두 명의 불쌍한 농부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한 명은 영하의 날씨에 불을 쬐지 못해 류머티즘과 동상으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있었다. 처벌 또한 어떤 경우에는 비인간적이다. 거세가 여전히 형벌 중 하나이다. 일반 범죄의 경우, 벌금이나 칼 또는 커다란 나무갈을 일정 기간 씌우는 유죄판결이나 구타가 형벌이며 반대는 별로 없다. 그러나 국사범은 사형을 언도받으며 때로는 그 집행방식이 잔혹하다. 작년에 비적들과의 난투에서 한 병사가 부상당하고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비적들이 탈출했다. 필자는 붙잡힌 비적의 운명을 서술하고 싶지 않다. 그의 발목은 부서졌고 다리는 무릎관절이 탈골될 때까지 바깥

쪽으로 벌려진 뒤 산채로 조각조각 잘렸다. 처벌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는 부모 중 한 명을 죽인 어느 불행한 광인이 겪은 것이다. 광기는 변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대 중국인의 도덕성은 고문기구가 사용되던 시절의 우리 조상들 못지않게 이러한 사법적 잔혹성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관습은 사람들을 무엇에든 무디게 만든다. 중국에 살고 있는 한 영국인은 필자가 위의 고문들에 관해 묘사하자 어깨를 움찔거리며 말했다. “좋아, 그것은 그 친구 자신의 잘못이지. 당신은 그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 감히 말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짐승들이었어.” 살을 저미는 형벌에 대해 필자의 친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으며 기껏해야 8~10번 정도 상처를 입혔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처벌의 잔혹함보다 더 나쁜 것은 불확실성으로, 판관의 결정에 직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소리 높여 칭찬하는 예외가 있다는 사실이 일반적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약 12년 전 그러한 예외가 묵덴의 총독이었다. 그의 핵심 부하관리들은 총독을 속이기로 작당했다. 그들 대부분은 사실 지방에서 창궐하던 강력하고 수많은 비적떼 두목들과 비밀리에 결탁해 있었고, 이 두목들이 추적당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들의 집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었다. 현재 묵덴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비록 현재 비적들의 체포를 위해 분리된 두 관청이 그들과 여전히 결탁해있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어떠한 관원들도 공공연하게 강도와 결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얼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헤이룽장 성에서 군 장교들의 비행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끔찍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포졸은 민간포졸과 군사포졸 두 종류이다. 민간포졸은 다시 세분된다.

일부는 고위 관리가 오기 전 거리를 청소하는 데 배정되고, 일부는 감옥을 지키며, 일부는 법정에서 고문을 담당하거나 대기하고, 나머지 일부는 법원이 수배를 내린 사람들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만일 피고가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면 군사포졸이 동원되며 만일 이들이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규군을 부른다. 모든 판관은 관아에 두 종류의 포졸을 두고 있다. 그들의 급료는 소액의 월급과 죄수들을 고문하여 갈취하는 돈이다.

모든 중요 사건들은 증인과 함께 지방의 수도로 이관된다. 그러나 매우 명백한 사건들일 경우, 판관이 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총독이 형을 언도하고 판관은 현장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다. 아주 시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추인이 필요한 경우, 어떠한 형도 집행될 수 없다. 모든 재판은 성 법정에서 재심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는 베이징에 있는 검열법원이나 황제에게까지도 상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절차가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사실 상고로 인해 판결의 집행이 유예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판관이 형이 집행되기 전 죄수로부터 형에 대한 수락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며, 거부할 경우 그 결과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죄수는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상고하는 사람들은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들의 친척이다. 때로는 고문조차도 죄의 자백을 이끌어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유죄판결이 증인들이 제시하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언에 근거한다는 조건으로 법에 따라 형을 언도한다.<sup>2</sup>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징세 형태로 자행되는 관리들의 갈취는 혼한

---

<sup>2</sup> 『베이징공보』, 1887년 9월 12일.

일이 아니다. 3%의 공식적인 세금 대신에 5%의 불법적인 추가 세금이 소와 말의 판매 시에만 부과된다. 구매자는 통상 실제 가격보다 낮춰 부름으로써 부가된 세금을 중화시키며 부족분은 부른 가격의 3%를 받는 경리에게 돌아가고 관원은 2%를 갖는다. 뇌물 또는 갈취는 또 다른 형태를 지닌다. 사람들이 관아와 떨어져 있는 한 실제로 뇌물과 갈취에는 사법권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지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갈취행위는 끝이 없다. 그리고 그럴 때조차도 다른 한 편이 계속 '선물'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면 결정은 유예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소유권을 둘러싼 주장들이 종종 해결하기 어려운 재산과 관련한 사건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런 경우는 재판의 지연과 비용을 고려하여 대법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갈취의 가장 나쁜 형태는 관아의 하층관원들이 부수입을 얻기 위해 고문을 자행하는 것이다.

사실 관원들과 포졸들은 급료가 매우 낮아, 콘월리스(Cornwallis) 경 치하의 인도관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회가 있을 때 한 몫을 잡으려 한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은 정의를 팔고 세금을 횡령하여 돈을 모은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한 변경지역의 판관은 소송이 제기되자 민사 또는 형사 여부에 상관없이 즉각 피고와 원고를 신속하게 감옥에 집어넣고 어느 쪽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법정에 뇌물을 주는지 경쟁을 벌이게 했다고 한다. 인도에서는 하급항토법원들이 종종 뇌물을 탐내어 양쪽에서 돈을 받기도 하지만 소송에 패한 쪽에 뇌물을 돌려줄 정도로 분별력과 양심이 있다. 만주지방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징세의 큰 원천은 토지이며 유일한 비과세 토지는 사원의 토지이다. 그러나 만주가구들은 중국인보다 낮은 세금을 내며 원격지의 주민은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는다. 중국인은 영국식으로 따지면 1에이커당 1실링을 낸다. 이것은 늘 동일하나 에이커는 동산의 명목상 단위이다. 상급 토지의 에이커는 측량에 따른 1에이커이며 중급 토지는 크기가 두 배이고 세금이 부과된 하급 토지의 1에이커는 크기로 보면 3에이커이다. 액수가 크지 않은 인지세를 지불하기만 하면 누구나 황무지를 원하는 만큼 확보할 수 있다. 쑹화 강 북쪽의 이주민은 영국식으로 1에이커당 반 크라운을 지불해야 한다. 그 뒤 5년 간 무상으로 땅을 얻게 되며 이후 에이커 당 5~6펜스를 지불한다. 연간 세금은 여덟 달에 한 번씩, 즉 추수 후에 납부해야 하지만 농부에게는 열 번째 달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연체금이 6년을 넘게 되면 토지는 국가로 귀속된다. 향야오는 어떠한 토지도 허가 없이 차지되지 않고 양도가 적절하게 등록되도록 감독한다. 종종 하급관원들이 관청에서 파견되어 경계를 조사하고 사기행위를 막는다. 이 제도는 봄베이 관구에서 유행했던 것과 닮았으나 세율은 꽤 낮다. 왜냐하면 봄베이에서는 과세율이 1에이커당 10펜스에서 4실링 6펜스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주에서는 농업 생산물의 가격이 매우 낮아 차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모든 토지는 임명된 관리들에 의해 측정되며 일단 경작되면 항상 경작을 근거로 세금이 부과된다. 토지소유권의 몰수는 소유주의 잘못이나 게으름으로 인해 3년간 경작을 하지 못할 경우에 법에 따라 집행되며 토지 소유권은 지방관관의 동의하에 경작 예정자가 갖게 된다. 법적 소유주는 경작되지 않은 땅에 대해 합법적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관관으로 하여금 경작중이라고 믿게 하여 몰수를 피할 수 있다. 이는 만주족이나 중국인에 의한 황무지의 대량 전유를 견제하려는 것이다. 사적 판매는 중국인에게는

절대적으로 자유롭다. 구매자는 판관에게 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판관은 판매결과를 등록하고 도장을 찍으며 직인이 없을 경우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고 부동산은 몰수된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려 하며,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한 성공적이다. 판매행위와 등록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이름과 명칭이 기입되며 행위는 더할 나위 없이 간단하다. 만주의 땅은 상속인이 한정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집터나 무덤용으로 팔려나간다. 일반적으로는 중국인에게 대여될 수 있고 또 실제 그러하며 중국인은 종종 가격의 3분의 1을 저당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을 얻게 된다. 지대를 내지 않는 토지는 때로 만주족 관리들에게 봉급의 일환으로 지급된다. 건물과 과수원 토지들은 새로이 설계된 도시에서는 세금을 내지만 구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다. 토지세는 현의 책임자에게 납부 가능하며 현의 판관은 토지세를 다시 총독 산하의 담당 관리에게 넘긴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작황이 나쁜 토지들은 청원에 의해 그 해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채무 불이행자들은 지역 수령이나 하급관원의 방문을 먼저 받게 되고 이후에도 세금을 유용할 경우 기소된다.

토지세 다음으로 중요한 세금은 인두세로, 로스 씨의 계산에 따르면 중국인에게는 약 7~8펜스이며 만주족에게는 그 액수의 절반 또는 3분의 1이다. 기본 세금은 등록된 가족 또는 가문당 한 냥이다. 만주처럼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등록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주민을 억압하지 않고서도 적정액수보다 훨씬 큰 금액의 인두세를 쉽게 거둘 수 있으며 차액은 판관에게 돌아간다. 필자는 법적 급여가 20파운드에 곡물 수당이 40~50파운드에 불과한 판관이 그런 방식으로 일 년에 6

천~8천 파운드를 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권력자들은 이러한 현을 선호하고 특별히 총애를 받는 판관들을 의도적으로 그 곳에 파견한다.

인도 정부처럼 황제는 중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만주의 소금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다. 정부는 특허장을 부여하고 엄격한 조사와 감독을 받는 제한된 수의 상인들을 통해 독점권을 행사한다. 상인들은 제조 특허장을 받으며 소금을 옮기기 전에 운반하고자 하는 분량, 경로, 행선지, 기타 사항들을 명시하는 허가장을 획득해야 한다. 상인들은 또한 이러한 특권들을 얻으려면 계약에 규정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규칙 위반이나 밀수는 아주 가혹하게 처벌된다. 지방정부는 황제가 정하는 분량만을 중앙 국고로 전달하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사용하기 위해 보전하기 때문에 관세 부담은 다양하다. 보통 1파운드당 4분의 1펜스이거나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 염전 소매가격은 소금의 질에 따라 파운드당 1.25파운드에서 0.5펜스를 받으며 내륙에서는 운반과 통관비용으로 인해 가격이 대폭 상승한다.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국내 관세가 파운드당 0.75펜스이다. 잉커우 부근에는 커다란 염전들이 있다.<sup>3</sup>

조차 항구에 부과되는 가장 무거운 세금은 주택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 판매에 대한 것으로 소유주가 만주족일 경우 3%를 납부한다. 만일 중국인이면 5%이다. 상품과 동물 판매에도 세금이 붙지만 빈번하게 회

<sup>3</sup> 중국 일부 지역에서 정부는 제한된 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14파운드를 넘지 않는 양의 소금을 소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며, 작업장에서 세금을 면제해준다. 극빈자들은 따라서 싼값에 소금을 얻을 수 있다. 만주에서도 이러한 일이 허용되는지는 모르겠다.

피된다. 그러나 징세업자들은 상인의 부기장을 조사하고 감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 곡물이나 다른 생산물을 부리는 모든 수레는 1~2실링을 내야 한다. 지방 정부를 위한 물품 입시세(入市稅)는 없으나 도시 관세청의 입구에 있는 하급관원들은 통관되는 수레에서 한 줌의 기장 줄기나 한 삽 분량의 석탄을 빼낼 권리를 관례적으로 부여받고 있다.

상품을 실은 수레나 동물들은 모두 세관을 통과할 때 관세를 내야 하고, 세관이 6개에 달할 때도 매번 지불해야 한다. 세관은 모든 지방의 변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교역을 크게 방해한다. 만주의 세관은 오래된 벼랑들을 따라 존재하거나 만리장성에 있다.

유럽에서는 알려진지 불과 700~800년에 불과한 증류기술이 중국에서는 공자시대 이래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증류주 제조소는 생산하는 주류의 도수에 상관없이 실제 사용되는 증류기당 300~500냥(75~125 파운드 사이)의 세금을 납부한다. 주류의 소매판매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 미래의 중국 재무대신은 좋은 세원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주류는 증류주 제조소를 떠날 때는 높은 도수를 지니고 있으나 여관과 그 밖의 곳에서 손님들에게 제공될 때에는 어느 정도 희석된다. 작고 노란색의 기장으로 양조되는 강한 맛의 맥주가 있는데 일반 위스키만큼이나 매우 비싸고 도수가 높다. 이 맥주의 가격은 영국식 파인트당 2~3펜스이다. 매우 취하며 상당 정도 퓨젤유가 혼합된다. 에딘버러의 한 화학자는 15온스의 술에서 반 온스의 퓨젤유를 추출해냈다. 만주지방의 술 소비량은 엄청나며 설날이나 축제 때 종종 취태를 볼 수 있다. 도시에서는 취한 사람들을 1년 내내 만날 수 있지만 아주 잦은 것은 아니다.

가죽과 생선이 특별 공물로 매년 황제에게 진상된다. 치치하얼에서는 감독자인 다성이 이끄는 유목 사냥꾼들의 정례 모임이 매년 개최되

며 총독은 이들에게 5,500개의 흑초피를 공물로 바칠 것을 명하고 후에 대가로 돈·옥수수·의류를 제공한다. 사슴도 황제에게 진상된다. 할당량은 평텐에서는 1,200마리, 다른 두 지방에서는 각각 절반이다. 그러나 진상되는 실제 수는 훨씬 적다. 『베이징 공보』에는 할당량을 채울 수 없었다는 지린 성 타타르족 장군의 변명이 실려 있다. 동물의 살 썩은 꼬리부분은 진미로 간주되어 베이징으로 보낸다고 한다. 일정량의 인삼도 진상된다. 숲속의 나무꾼들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목재가 시장에 입하되었을 때 구매자들은 3%를 지불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중국 황실 수입의 핵심재원은 해상 관세이며 외국인들에게 조차된 항구들에서는 로버트 하트(Robert Hart) 경의 지휘 하에 대부분 영국인으로 구성된 관세청의 통제를 받고 있다. 관세율은 원래 가격의 5%이나 반드시 지켜지진 않는다. 1886년, 잉커우의 수입은 30~35만 냥으로 영국 돈으로는 55,000~65,000파운드이다.

관세청 통계의 몇몇 항목들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66년, 아편을 제외한 잉커우의 수입품 가치는 21만 2천 파운드였고 수입된 아편 액수는 57만 2천 파운드였다. 1885년, 수치는 각각 99만 파운드와 2만 9천 6백 파운드였던 반면 인구는 20년 만에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는 대외무역이 네 배로 늘어났고 아편은 50만 파운드 이상 감소했음을 뜻한다. 달리 말하자면 아편 반대 연맹의 훌륭한 신사들이 인도인은 그 정도까지 수입을 잃은 셈이고 부당한 아편 전쟁을 치룬 가난하고 억압받는 중국인은 동일한 양을 재배했으며 이는 중국의 한 지역이 소비하고 수출하기에는 상당한 양이다. 그렇다면 과연 인도의 아편을 중국에 무력으로 강매하는 죄악에 관해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아편 반대 연맹은 위안을 삼을지도 모른다. 중국인은 인도의

아편 세수를 부러워하여 만일 자신들이 이윤의 최대 몫을 챙길 수 있다면 은의 유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1858년 이래로 중국인은 수입 아편에 약 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거의 1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액수로 그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것이다. 5~6년 전에 중국인은 인도 정부가 50년 내에 아편 세수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과거 한 곱당 30냥이었던 인도 아편에 대한 관세를 향후 110냥으로 인상하는 데 동의를 받기 위해 대영제국 정부를 끌어들였다. 80냥의 인상액은 중국 내 세관을 거쳐 중국의 변경 지역까지 나르는 데 드는 비용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정직하다 하더라도 세관으로 이익을 얻는 지방 관리들을 통제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아편의 포장에 부실하거나 다른 아편과 혼합되어 있다는 등의 구실로 반복해서 통관세를 부과하는 지방 관리들의 횡포도 막을 길이 없다. 따라서 새로운 관세는 이전의 부과액보다 거의 300%나 인상했음을 의미한다. 인도의 아편은 중국에서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관세 인상을 견딜 수 없다. 인도에서 조잡한 트리치노폴리(Trichinopoly) 여송연이 그럴싸한 수입 마닐라 담배를 대체했듯이 사람들은 집에서 재배한 아편을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더 지속성이 있고 과거보다 더 잘 조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인은 장갑함과 후장총을 구입하기 위한 돈을 원한다. 따라서 인도에서의 아편 수입은 급감할 것이다. 중국인은 아주 영악하여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한 번에 죽이지 않을 것이므로 과정은 점진적일 것이나 종말은 불가피하다. 인도 납세자들은 연간 600만 파운드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며 이 손해액은 증세로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침묵할 것이고, 경건한 영국 양조업자들은 대영제국이 인도를 희생시켜 올바르게 도덕적인 일을 해냈다

고 자축할 것이다.

도덕적 측면에서 아편에 관해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필자의 생각에는 아편은 인간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와인이나 신경을 달래주는 담배처럼 신이 주신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이다. 많은 경우 아편은 사람에게 좋으며, 아편을 즐겨 사용하는 인도의 일부 종족들보다 더 나은 인간성을 지닌 부류들을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중국에서는 지나친 복용으로 인한 아편의 희생자들을 두세 명 만났을 뿐이다. 그러나 일부 만화가들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중국인이 점차 그렇게 되고 있다고 믿게 만들 것이다. 만주에서는 아편이 사치품으로 널리 사용되며 만주인은 다른 어느 곳의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강인하다. 대전주나 대상인들의 거실에는 아편 흡입을 위한 파이프와 램프가 놓여 있으며, 이들은 식후에 한 모금을 빨고 아편이 갖는 해독에 대한 두려움이나 당황함 없이 마치 좋은 시가인 것처럼 친구에게 권한다. 사실 배부를 때 적절히 흡입하면 시가보다 나쁘지 않으며 중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지각 있는 외국인들은 이 점에 동의할 것이다. 물론 마약이 많은 해악을 초래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선 마약 흡입은 엄청난 시간 낭비를 초래한다(인도에서는 대개 액체 형태로 먹거나 마시기 때문에 지금의 반론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는 과도하게 흡입할 위험이 확실히 크다는 사실이다. 로스 씨는 적당량의 흡입 이후 심중팔구가 과용하게 될 가능성을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 생각에는 그것은 과장된 것 같다. 필자는 아편을 흡입하는 많은 노인들을 보았고 더 나쁘지 않았다. 물론 아편의 과용은(비록 도수 높은 술을 과음하여 부지깽이나 뜨거운 못이 박힌 장화로 아내를 죽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분명 고통스러운 것이고 사람을 타락시킨다. 마약에 대한 집착은 술에 대한 갈망을 넘어서는 것 같다. 아편

을 구입할 수 있는 부자의 경우에는 고생하는 것이 개인에 불과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아편에 빠져들면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집, 가정, 토지, 가축 심지어는 부인과 아이들을 판다. 겨울에는 아편 흡입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옷가지를 파느라 얼어 죽은 불쌍한 부랑자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아편의 또 다른 나쁜 점은 사람들이 구매할 여력이 없어 파이프의 아편재를 반복해서 흡입한다는 사실이다. 뉴잠의 관세 책임자인 에드가(Edgar) 씨는 1886년 항구에서의 인도 아편 가격이 50온스 당 15냥으로 가공 아편의 45온스에 해당하며, 이는 50온스 당 15.5냥으로 가공 아편의 30온스와 맞먹는 자연산 아편 가격보다 실제로 더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고한다. 에드가 씨에 따르면 자연산이 더 선호되는 이유는 만주에서는 아편재의 흡입이 선호되고 가내 생산 아편은 약 열 번 정도 반복해서 흡입 할 수 있는 반면 외국산은 불과 세 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연산 조제 아편은 따라서 종종 재 때문에 외국산과 섞인다. 이는 좋지 않은 습관이며, 많은 권위자들에 따르면 바로 중국에서 아편이 해악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이유이다. 아편 흡입은 분명 끊을 수 없는 중독이 있어 시작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만일 어린 소년이 아편을 시작한다면 그를 아는 누구라도 말릴 것이다. 우리가 부리는 한 소년이 수레꾼에게 마약을 배우려 할 때 필자도 제지했다. 그리고 묵덴의 원주민 장로교 공동체가 최근 교회공동체를 위한 법을 제정할 때 자진하여 아편 흡입자는 신도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편을 흡입하는 나이든 개종자들을 위해 예외를 만든 것은 선교사였다. 그러나 아편과 도박이 경마와 내기하고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편을 반대하는 선의의 외침은 필자에게는 위선적이고 대부분 헛소리로 들린다. 국내를 보라. 런던의 여섯 개 거리에는

만주의 모든 거리들보다 훨씬 더 흐릿한 눈을 가진 부석부석한 얼굴의 부랑자들이 있다. 그러나 누가 영국인이 음주로 파괴되고 있다고 말하겠는가. 필자는 중국 원주민이 마르와르(Marwar)의 타구르족(Thakurs)이나 인도의 지배계급인 라즈푸트(Rajputs)보다 더 마약으로 파괴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 필자는 중국인이 아바나 여성연을 피우는 영국인만큼 죄책감을 덜 느끼고 위협이 적으며 자신의 귀중하고 유쾌한 사치품을 즐길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믿는다. 아편을 절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그럴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소송하기에는 너무 늦다. 만주를 예로 들어보자. 만주는 역내 소비를 위해 아편을 제조할 뿐만 아니라 대거 수출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수출은 가볍고 빠른 수레에 실려 육로를 통해 운반되며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관문의 세관을 피해 중국 북부와 중부의 여러 항구들에 전달된다. 일부는 남부인을 속이기 위해 인도 아편처럼 포장되어 해상을 통해 광저우로 간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듯이 윈난, 쓰촨, 허난 성은 만주보다 더 대규모로 아편을 재배한다. 정부는 여전히 아편에 대해 효력 없는 칙령을 선포하고 있고 종종 칙령이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단속을 벌이기도 한다. 1875년에는 만주의 일부 관리들이 양귀비 작물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기도 했다. 2~3년 전에 황태후는 황궁에 아편 흡연실을 만든 환관을 처형했다. 1883년 1월 29일자 『베이징 공보』에 실린 정부 법령은 한림원, 감찰부, 감사원의 모든 고위관리들에게 아편을 흡입할 경우 우선은 자진해서 끊을 것이나 아편 흡입을 공공연히 찬성하거나 비밀리에 지속할 시에는 민간과 군부 그리고 만주족과 중국인을 가리지 않고 가혹하게 처벌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칙령이 필요하다는 상황은 고위층에

서 실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지를 보여줄 따름이다. 게다가 황제는 결코 그렇게 큰소리치지 않으며 중국인을 아이처럼 다룰 수도 없을뿐더러 수대에 걸쳐 익숙해져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즐기는 사치품을 박탈할 수도 없다. 똑같은 시도가 예전에도 있었다. 14세기에 명나라 황제는 흡연을 중형으로 취급했고 위대한 흥타이지도 17세기에 이를 엄격히 금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아이들이 담배를 핀다. 만일 모든 양귀비가 내일 파괴된다면 새로운 공급품이 해상 또는 육로로 밀수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일본인은 아편수입 저지에 성공하고 있다. 이유는 반도라는 지리상의 이점 때문이며 사람들이 아직 마약에 중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인이 그럴 것이라고 희망해본다. 그러나 일본인이 여기저기를 여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아편을 배워 다른 외국 물품들만큼이나 좋아하게 된다면 그들 정부는 아무리 아편을 제외하고 싶더라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인위적으로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현명하게 수입량을 조절하려 할 것이다. 중국과의 협상에서 대영제국정부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이미 많은 해를 끼친 박애주의자들은 인도의 재정에 궤멸적인 타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아편 소비가 감소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휴식을 취할 지도 모른다.<sup>4</sup>

아편과 관련된 모든 것은 여전히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만주의 관리들에게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가장 좋은 원천이 된다. 관리들은 아편에 어떤 세금이라도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으며 양귀비를 재배하는 농민에게나 도매거래상 또는 아편을 소매하는 상점주에게도 세금

<sup>4</sup> 주해 B, '아편' 참조.

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편에 대한 과세가 곳곳마다 다름을 발견했다. 관청즈에서는 판매세가 20%라 하고 이 시장에서는 수출용 아편의 상당량이 임자가 바뀌기 때문에 현재 권력자는 큰 돈을 벌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수치는 과장된 듯하다.

만주의 해외 무역에는 영국인에게는 불편하고 나아가 무역을 진흥시켜야 하는 영국 기업 입장에서도 실패라고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 인구의 대폭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10년 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1876년에는 97만 6천 파운드 남짓이었고 1886년에는 98만 9천 파운드였다) 영국 상품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1885년도 세관 수입상황을 보면 9천 개의 영국제 무명에 비해 10만 2천 개의 미제 무명이 수입되었고 2만 개의 영국제 시트에 비해 18만 7천 개의 미제 시트가 수입되었다. 1886년도 보고서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T자 의류'는 2만 8천 215개나 감소했다. 감소원인은 낮은 품질 때문이다. 과거 이 옷들은 부유층 사이에서 인기였고 개당 한 냥에 팔렸으나 가격이 6~7메이스(mace : 한 냥의 6분의 1 또는 7분의 1)로 폭락했고 염색을 한 후에야 옷에 안감을 댈 수 있다. 러스터(Lustres)와 오를레앙(Orléans)의 직물도 품질악화로 쇠퇴하고 있다. 터키산 붉은 양탄자는 약 14,402개로 대폭 감소했고 외관상 동등하나 품질 상 훨씬 더 내구성이 있는 미제 시트로 교체되고 있다. 다음의 품목들은 늘어났다. 영국제 무명은 12,055개, 미국제 무명은 72,285개, 미국제 시트는 27,480개 등이다. 지린 성의 현들과 아무르 강 유역에서 대규모로 소비되는 이 상품들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수입이 증가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상하이에 있는 맨체스터의 상인들과 대표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세관의 수치가 잘

못되었다고 필자에게 말한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엄청난 양의 무명이 실제로는 영국제이지만 중국인이 선호하는 포장 방식인 미국제 꾸러미처럼 밧줄로 등글게 묶인 작은 꾸러미에 싸여 도착하기 때문에 미제로 둔갑한다는 것이다. 1886년과 1887년, 미국은 국내 수요로 인해 중국에 수출할 면제품이 없었다고 정보원은 덧붙인다. 또한 무역 위원회의 수입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행 면제품 수출은 분명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만주와의 교역은 지금보다 더 확대될 여지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교역량은 인구와 함께 증가해야 한다. 만주의 전 인구는 여름에는 그냥 걸치고 겨울에는 솜을 넣는, 보통 인디고로 물들인 견고한 옥양목을 입는다. 저렴하고 대중적인 품목으로 만드는 것은 랭카셔의 힘이다.

현재 주요 수입 품목은 미제 무명(영국제 2만 1천 개 대비 17만 4천 개), 미제 시트(영국제 2만 4천 개 대비 21만 4천 개), 잿빛 셔츠감(7천 1백 개), T자 의류(6만 1천 개), 면 손수건(2만 7천 다스), 면사(1천 4백 톤, 필자가 알기로 대부분 봄베이산), 고철들(6천 7백 톤), 나사(17,933개), 염료(주로 독일산 아닐린), 성냥(외제) 등이다. 일본으로 가는 간헐적인 화물을 제외하고는 어떤 품목도 외국 상선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직접 수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간 8만 8천 톤에 달하는 외국 수입품을 운반하는 연안 증기선은 기름을 이미 짜낸 콩깍묵과 콩(10만 9천 톤)을 중국 남부의 사탕수수 재배에 필요한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 싣고 나간다.

중국 정크선에 의해 운반되는 교역도 광범위하다. 수입은 1만 3천 톤 정도로 추정되고 109만 파운드의 가치를 지닌다. 주요 품목은 94만 5천 파운드에 달하는 천연 옷감이고 수출은 11만 3천 톤이며 가치는 90만 냥 정도이다. 두 번째 주요 품목은 두유이며 65만 파운드의 가

치를 지낸다. 여기에 영국 무역의 돌파구가 있다. 맨체스터는 천연 옷감과 같은 양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영국 상점주들은 두유 일부를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그 일은 증기선이 담당하고 있지 않는데 이유는 증기선 선원들이 두유가 담겨있는 가볍고 약한 바구니들을 너무 거칠게 다루기 때문이다.

위의 수치는 잉커우만 해당되는 것이다. 소규모의 보조 항구들이 많이 있다. 하나는 보하이 만에 있고 11개는 광저우 반도의 연안에 위치하며 2개는 압록강 어귀에 있다. 창바이산맥에서 별목되어 강을 통해 중국 전역으로 대부분 수출되는 목재의 집결지인 마지막 두 항구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총독은 외국 수입 관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수입과 지출을 베이징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회계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수입 계정과 보고 계정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하급관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앞서 말한 것처럼 공식 급료는 정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지만 주민들에게 더 보조를 받는 셈이다. 모든 세금은 제국을 위한 것이나 일정 비율은 각 관청의 비용을 위해 보전된다.

필자는 부록으로 중국 전역의 모든 각급 관리들에 만연해 있는 부패에 관한 권력자의 의견을 담고 있는 1885년 8월 5일자 황제의 칙령을 덧붙인다.<sup>5</sup> 의문의 여지없이 관료층은 썩었고 국가의 재정은 결코 정비되지 않을 것이며, 개혁가가 나타나 모든 관리들에게 적절한 급료를 지급하는 조치를 취한 뒤 재정을 담당하는 호부를 지방의 지사들로부터 독립된 제국 세관부서처럼 개혁하기 전까지는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할

<sup>5</sup> 주해 C, 관료 부패 관련 제국 칙령 참조.

것이다. 그러나 동양의 국가들이 그렇듯이 만주인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문제를 제외하고는 별로 불평하지 않는다. 그들은 세금도 매우 가볍다. 뿐만 아니라 위생, 교육, 치안, 통계 관련 조사관의 거주장스런 개입 없이도 건물을 짓거나 작물을 심을 수 있고, 씨를 뿌리고 수확할 수 있다. 해야할 일은 고작 이웃과 말다툼을 피하고 법정에 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인도르(Indore) 주의 소작인이나 베타르(Betar)에 사는 힌두계 대지주(Zemindar)의 차지인보다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더 평화롭고 굴곡 없이 걱정하지 않으며 살 수 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 제6장

# 종교

필자는 최근 찰스 킹즐리(Charles Kingsley)가 쓴 『어린이를 위한 그리스 신화(The Heroes)』란 책을 읽었는데 아동용 도서이긴 하나 서문의 일부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킹즐리가 그리스인에 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중국인에게도 매우 잘 들어맞기 때문이다.

‘아이들아, 그리스인이 이교도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들을 돌보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성서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이르기를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창조물 위에 함께 하고 하나님은 모든 이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들의 일을 주관하신다고 한다. 바울 성인도 이 옛날 그리스인이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후에 말했다. 그리고 선한만큼이나 지혜로운 위대한 교부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도 신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내려 주었듯이 그리스인에게도 철학을 내려 주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리스인은 바울 성인이 말했듯이 신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잊었다.

그리하여 비록 신의 자손이긴 하지만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겼고 마침내 죄와 불명예에 빠졌다. 그리스인은 처음에는 다른 민족들처럼 유일신을 믿었다가 곧 다른 신들이나 땅위에 산다고 전해지는 천사와 성령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신과 인간의 아버지인 제우스와 그의 아내인 헤라, 태양신인 아폴로, 그리스인에게 지혜와 유용한 예술을 가르쳐준 아테네, 미의 여왕인 아프로디테와 바다의 지배자인 포세이돈, 사람들에게 대장간 일을 가르쳐준 불의 왕인 헤파이스토스 외에도 그리스인은 강의 신들과 동굴, 샘, 숲속 골짜기, 모든 아름다운 들판 등에 살고 있다고 상상되는 여자 님프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 정죄될 때까지 죄인을 괴롭힌다는 끔찍한 자매인 복수의 여신들에 경의를 표했다. 그리스인은 또한 이러한 신들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치스러운 일과 죄를 저지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철학자가 등장하여 신은 하나라고 말할 때 들으려 하지 않았고 우상과 사악한 우상 축제를 자신들이 파멸할 때까지 사랑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들도 아무런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고 여전히 십계명의 마지막 여섯 번째 조항을 믿었으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신은 사람을 가르치며 사랑하고 신 없이는 인간은 틀림없이 파멸하리라 믿었다(이것이 그들에게 용기를 준 것이었다). 그 점에서 그들은 옳았으며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옳았다. 왜냐하면 신 없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모든 지혜가 신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서술은 그리스 신화보다는 훨씬 덜 시적인 오늘날의 만주 주민 종교에 아주 잘 들어맞는다. 평범한 만주족이나 중국인에게 종교는 모순으로 가득 찬 것으로 물신숭배와 영혼숭배의 혼합물이며 미신이고 철학이다. 종교적 믿음에는 세 갈래가 있다. 첫째는 불교이다. 이

곳의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이나 열반의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며 뒤에서 보겠지만 몽골에서 유행하는 타락한 형태의 믿음도 아닌 단순한 우상숭배이다. 달리 말한다면 부처와 신화로 둘러싸인 성인 및 반신반인들에 대한 숭배이다. 둘째는 유교로 불가지론에 불과하며 인간의 유일한 의무가 인간에 있음을 강조하고 신에 대한 존경을 육체적 부모에 대한 맹목적이고 무지한 복종으로 대체한다. 셋째는 도교로 원래 일종의 형이상학적 의식으로 노자라는 한 철학자에 의해 수립되었다. 인간 본성의 영적 부분을 정화하고 도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은거와 명상을 명한다(도 자체는 열반만큼이나 정의하기 어려워 '대지에 침투하여 인간의 본성을 정제하고 그의 필연적인 죽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최고의 지성' 혹은 '미지의 것 뒤에 도달' 또는 '감지할 수 없는 이성' 등으로 다양하게 서술되어 왔다). 대략 기원전 600년 전 혹은 공자가 탄생하기 100년 전부터 시작된 도교는 곧 타락했고, 그 사제들은 현자 행세를 하며 영혼숭배를 도입하여 이제 그 용어는 정통 불교나 유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포함하고 있는 형국이다. 도교 신도와 불교 신도는 각자의 다양한 신들을 섬긴다. 어떤 중국인 신학자(아마 자신도 불교신자인)는 불교의 좋은 것은 모두 도교에서 따온 것이고 도교는 나쁜 것을 모두 불교에서 빌어 왔다고 말한다. 에드킨스(Edkins) 박사는 중국 불교에 대한 위대한 저서에서 불교 사원이나 도교 사원이나 사람들에게는 똑같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양쪽에 똑같은 마음으로 시주를 하며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든 기꺼이 믿는다. 그뿐만 아니라 각각의 가문, 종족, 신분, 직업, 가옥과 마을이 갖고 있는 수많은 특유의 수호신·지방신·조상들에 대한 숭배가 있다. 만주의 종교는 모든 의식들의 혼합이며 서로 섞여 있다.

중국인은 본성상 매우 물질주의적이지만 종교적 성향을 지닌 규모가 꽤 큰 소수집단이 있다. 로스 씨는 그 어느 집단도 실용적인 영국인들의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고대 그리스인처럼 중국인은 천자를 의미하는 옥황상제라는 명칭의 최고 존재에 대해 느슨한 개념을 갖고 있다. 이 위대한 신은 천국에 거하며 인간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인은 아주 곤궁해지면 신에게 호소한다. 중국인은 신이 전능하며 만물을 살피고 있지만 의식적으로 다른 속성을 신에게 돌리지 않으며 신에게 그런 의무가 없음도 잘 알고 있다. 중국인은 의무감이 들 때 유교에 의지하여 의무를 형제들에게만 국한시킨다. 순서상 옥황상제 다음에 오는 것이 황제다. 그는 하늘의 아들이며 하늘과 땅을 조율하고 양쪽에 순종한다. 유행병과 기근은 황제의 악정 때문이며 황제에 대해 하늘이 분노한 표시로, 그러한 재난은 사람들의 반란을(즉 이론적으로는) 정당화한다. 황제의 명판은 모든 사원 안에 있으며 그는 이미 존재하는 성인이나 신들에게 지위나 위엄을 추가로 부여할 뿐만 아니라 신이나 성인을 만들거나 해체할 수도 있다. 황제 뒤에는 작은 신들과 신격화된 영웅 집단이 있고 그들의 상 앞에서 숭배자들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재난을 피하려는 마음으로 절을 한다. 이 상들은 사원 안에 기묘하고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다. 불교 사원으로 들어가 보자. 성단소 중앙에는 티베트의 구제라트(Guzerat)나 라마세라이(Lamasera)에 있는 자이나교 사원처럼 장엄한 모습으로 부처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다. 부처 발밑에는 곧 도래할 부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배가 볼록 나오고 유쾌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양쪽에는 아홉 제자들(전통에 따르면 최초로 불교 지식을 중국에 가져온 사람들이) 열을 지어 서있고 부처의 후계자들이나 부처보다 그리 낮지 않은 등급을 지닌 세 명의 보

살들이 있다. 지금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인근 사당이나 벽감에는 성모와 거의 흡사하게 아기를 안고 있는 자비의 여신인 ‘천녀(天女)’상이 서있고 양쪽에는 크기가 작은 복제물들이 있다. 첫 번째는 팔에 두 명의 아기를 안고 있고, 두 번째는 한 명의 아기를, 세 번째는 엄지와 검지 사이로 눈을 내비치고 있고, 네 번째는 귀를, 다섯 번째는 위를 문지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식을 원하거나 안염과 위염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해당되는 상을 숭배할 수 있다[천녀는 아발로키테쉬바라(Avalokiteshvar)라는 유명한 보살의 체현이라고 한다]. 부처의 다른 쪽 통감은 관우의 상을 위한 것이며 긴 콧수염과 턱수염이 있는 험상궂은 얼굴을 가진 상으로, 만주에서 가장 선호되는 신 가운데 하나이자 왕조의 수호성인이다. 그는 역사상 실존 인물이며 유명한 장군이고 현재 황제의 칙령으로 시성되었다. 같은 사원의 다음 구획에 있는 문에는 편안하게 나란히 앉아있는 용왕<sup>1</sup>이 있는데 그는 비의 신이다. 부의 신인 재신(財神)은 시성된 성인으로 부자들과는 관계가 없으며 정의를 주장하다 잔인한 독재자에게 죽은 고결한 성직자이다. 그리고 지옥의 신인 염라대왕이 있다. 그 외에도 글, 농업, 불의 신들이 차례대로 정렬해 있고 일부는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이다. 이상하게도 왕조의 창건자는 대중적 신이 되지 못했다. 비록 후손들이 옥황상제에게 드리는 예를 그에게 바치고 있음에도, 그리고 창건자의 개인적인 무용담이 여전히 백두산 계곡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음에도 그의 신성은 여전히 일반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아마도 관원들과 모든 신실한 중국인이

1 에드킨스 박사에 따르면 관우와 용왕은 불의 신이자 사원의 수호신인 화광마와 함께 불교에 전래되었다.

황제의 조상들과 황제 자신의 평판을 숭배해야 하기 때문이며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일 것이다. 사원 안에 있는 인물들이 늘 숭배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사원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세워지기 때문이다.

중국인의 제사는 일련의 부복과 분향으로 이루어지며 향은 상 앞에 있는 향로에 직각으로 꽂고 완전히 태운다. 그는 사제에게 주문을 외우게 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이는 효험이 있다고 여겨진다. 테니스(Tennyson)의 시구를 모방한다면 제사지내는 사람은 질문을 받게 될 경우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사제조차도 제사 드리는 신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신 앞에 절을 하는 많은 사려 깊은 중국인은 로스 씨에 따르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다. 관리인 이들 중 일부는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Naaman)이 리몬(Rimmon) 신전에 가야하는 것처럼 공무의 일부로 절에 가며, 이는 종종 세례를 받거나 기독교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방해한다. 다른 사람들은 제사를 습관적으로 또는 그 안에 결국 무언가 진실된 것이 있지 않을까하는 끈질긴 두려움 때문에 계속 드린다. 이런 생각 많은 사람들은 도덕 철학의 주장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그들은 소수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종교적 행사를 피상적으로 치른다. 통상 사원은 기존 교회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부자나 부유한 상단에 의해 세워진다. 벽들은 아름다운 프레스코 벽화로 장식되며, 자비의 여신이 보여주는 기적이나 난파선에서 사람을 구하는 장면, 무고한 사람의 목을 칠 때에 집행자의 칼을 부러뜨리거나 혹은 불교의 지옥에서 일어나는 저주받은 자의 고문들이 묘사된다. 점토로 모형을 만들어 화사하게 옷을 입힌 뒤 멋지게 색을 칠한 엄청난 크기의 신들은



그림 1 목멱 도성 위 문창왕(文昌王) 사원

일단 안쪽에 자리를 잡으나 사원이 축성된 후에는 먼지를 쓰고 방치된다. 필자는 여러 번 드나들면서 사람들이 신상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교회가 기독교인에게 그렇듯이, 또는 빨간색으로 칠

한 돌과 힌두교도 사이의 관계처럼 사원은 중국인에게 성스러운 장소가 아니다. 중국인은 모자나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가 마음대로 이야기하며 가래를 뱉는다. 그들은 마치 여관방인 것처럼 성전에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잘 것이다. 성전이 작은 목재 현판을 단 왜소한 모습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허세에 찌든 화려한 건물이더라도 일단 건축이 완료되면 신에 대한 관심은 식고 제례는 끝난 것 같다.<sup>2</sup>

대도시를 제외하면 만주에는 사제가 거의 없으며 어느 곳에서도 수가 많지 않다. 어느 날 우리는 지린 근처의 조그만 사원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보러 갔다. 비록 꽤 작은 규모이기는 했으나 라다크(Ladakh)에서 본 불교 제례가 생각났다. 3~4명의 사제가 일렬로 서있었고, 검은 가운을 입은 선임이 지휘를 맡았다. 복사가 일정 간격으로 종을 울리는 동안 사제들은 기도를 읊었고 모두 종종 저두평신(低頭平身)하며 머리를 땅에 조아렸다. 사제들은 지저분했고 멍청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으며 짧게 깎은 둥근 머리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독신생활을 맹세했으나 실제로는 비도덕적 삶을 산다.

농촌지역과 원격지의 중국인이 미신을 많이 믿으며 지역의 악령과 신령을 깊이 숭배한다. 길가 구석에 서있는 많은 수의 조그만 사당들은

---

<sup>2</sup> 일부 사원들의 한 가지 독특한 점은 황제의 건물과 비슷하게 지붕에 황색 기와를 이는 것이 허용된 점과 모든 지붕 끝에 신비의 동물인 서우토우를 달고 있다는 사실이다. 벽은 궁궐 벽처럼 붉게 칠해져 있으며 이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 한 황후가 자신의 방들이 해충으로 들끓는 것을 보고 후추를 짠 붉은색 액으로 벽을 칠하면 벌레들이 사라지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방은 성공적이었고, 황족과 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녀가 얻게 된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녀는 즉각 앞으로 평민은 이와 같은 독특한 색깔을 사용할 수 없다는 칙령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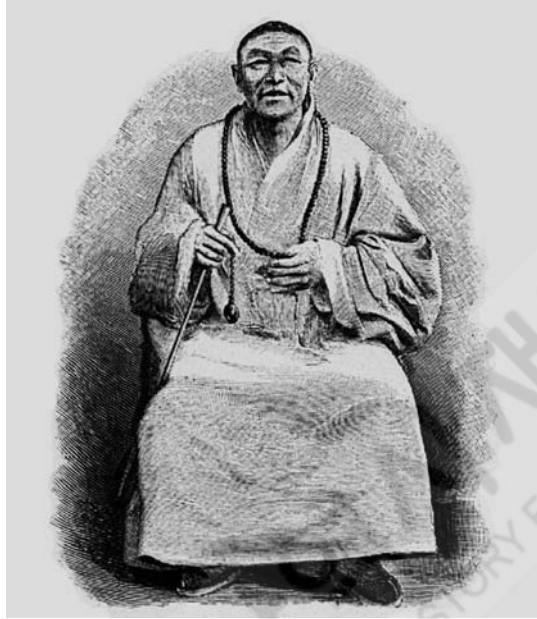


그림 2 승려

소재지의 혼(genii loci)에 헌정된 것으로 처음 보는 만주 여행자들은 정말 놀라게 된다(똑같은 것을 다른 지방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에 관해 앞으로도 많이 인용될 흥미로운 논문<sup>3</sup>을 쓴 잉커우의 존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목사는 사당들을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묘사한다. ‘사당들은 1~8 또는 10피트로 크기가 모두 같다. 사당은 과수원, 논, 마을 어귀, 농가나 촌락 바로 위 그늘진 사랑스러운 언덕, 높은 산길 위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들, 심지어는 황야와 먼 산꼭대기 등 연료를 실은 소형 범선과 가축 떼가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서

<sup>3</sup> John MacIntyre(1886), *Th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J. R. A. S.), China Branch, vol. 21, new series, no. 1 & 2, Shanghai.



그림 3 노변 사당

있다. 사당들은 모두 종류가 같다. 진흙이나 햇볕에 말린 벽돌을 사용하고 갈대 지붕을 이고 있으며 그 위에 진흙을 발랐다. 필자는 여우에게 바쳐진 어느 사당을 본 적이 있는데 박공지붕을 이고 그 위에 여우의 머리를 기가 막히게 잘 상징하는 장식용 기와를 얹고 있었다. 지방의 특산물인 석회암이나 화강암으로 된 몇몇 석판으로 우아하게 건축된 사당들도 볼 수 있다. 숲에 사당을 세울 경우, 오래된 나무줄기들을 쳐내야 하는데 정착민의 도구로 파내거나 불태운다. 때로는 아주 많은 수의 벽감들로 나뉜 훌륭한 목재 캐비닛을 볼 수 있으며 각각의 벽감들에는 이동문이 달려있다. 도자기를 굽는 지역에서는 분명 사당이 토기와 뒤집혀 있는 깨진 물그릇, 손 하나를 집어넣기에 알맞은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는 별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다수의 사당은 마음대로 고른 몇 개의 거친 돌을 합쳐 놓은 것으로 조야하게 급조한 참새 텃처

럼 천박하게 보이는 평평한 돌로 지붕을 대신하고 있다. 비용은 몇 파운드 정도에 불과하며 완성하는 데 요구되는 노동도 5분이 채 되지 않아 사실상 아무런 품도 들지 않는다. 따라서 각 농가는 몇 개의 사당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마을 어귀에서 사당을 통째로 볼 수도 있다. 필자는 5~6개의 사당들이 일렬로 서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며 큰 사당과 작은 사당은 구운 벽돌로, 나머지는 푸석푸석한 벽돌로 만들어져 있었다. 새로운 사당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을 보면 작은 사당들을 보수하는 것보다 다시 짓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한두 개의 사당은 폐허 상태일 수도 있지만 사당들 모두의 숭배대상이 같다. 대개 구운 벽돌로 지은 사당은 고급이고 돌과 목재가 풍부한 간도<sup>4</sup>의 사당은 가장 공인된 양식으로 건립되어 많은 수의 아담한 벽돌로 된 구조를 보여주며 정면에는 조그만 베네치아식 기둥들이 있다. 사당의 가구는 결코 다양하지 않다. 한자로 숭배 대상의 이름을 새긴 단순한 목재 현판이나 거칠게 칠한 그림과 몇몇 기괴한 토상들이 있고 정면에 있는 선반 위에는 지저분하고 깨진 향로가 있다. 사당으로 들어가는 둥근 문은 매우 작고 때로는 사람 손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작을 때도 있다.

‘언덕의 영혼’, ‘우다오’, ‘대지의 신’ 등으로 구성되는 세 ‘신위’는 시골 사당에서 가장 선호되는 숭배대상이다. ‘언덕의 영혼’은 어깨에 도끼를 둘러맨 검은 피부의 사나이로 곁에 호랑이나 곰을 두고 있다. 그는 숲속의 왕으로, 창바이산맥으로 가는 가장 험한 길 꼭대기에 사당이 있다. ‘언덕의 영혼’은 언덕에 숨겨진 다른 보물들과 금 및 인삼의 주인

4 중국과 조선 사이의 국경에 위치한 이 중립지대는 도적들의 소굴이 되어버리면서 최근 중국에 의해 합병되고 식민되었다(제3장 참조).

이며 이를 찾는 사람들을 야생 짐승으로부터 보호한다. 우다오(다섯 개의 길이라는 의미)는 악령을 쫓는 무당으로 경련이 일거나 간질이 생길 때 도움을 요청한다. 그의 상징은 칼이다. 대지의 신이 갖는 의무는 죽은 자와 함께 있는 것이며 모든 사망소식이 그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대지의 신은 사자신 헤르메스의 비바람처럼 갈고리를 갖고 다닌다. 그리고 농촌의 만신전에서 무작위로 뽑은 다섯, 일곱, 혹은 아홉 신위들의 조합이 있다. 싸움의 신인 관우는 인기가 많으며 칼을 갖고 있다. 재신은 현금 향아리나 은괴를 갖고 있다. 화왕은 빨갛고 무서운 얼굴을 가진 악마로 세 개의 커다란 눈을 갖고 있다. 우신은 소를 닮았고 마신은 말과 유사하다. 곡물밭아의 왕은 귀에 한 줌의 풍부한 기장을 갖고 있고 곤충의 왕은 병 모양의 조롱박을 지니고 있다. 의왕(의사로 시성된)은 병과 약상자를 갖고 있다. 용왕 또는 우왕은 흰 용의 수염을 하고 있다. 매킨타이어 씨에 따르면 ‘달리 표현하면 인간이 관심을 갖는 모든 부분에 수호신과 임하는 혼령이 있으며, 이들은 대개 인간의 모습을 한 것으로 묘사되고 각각은 적절한 상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간적인 외모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조상들을 모신 사원의 고대 의식에서는 아이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옷을 입고 조부에게 드리는 예를 받았다. 여기도 그렇다. 사람들은 제례의 옷을 거는 못이자 미이래에 불과하다. 그럼 그 뒤에는? 이 경우 예복은 자연이자 혼령이며 본질이다. 그래서 농부는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내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옵시고, 불과 물 및 자벌레의 역병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신체의 건강과 풍부한 물품과 곡물 및 번성하는 가축 떼를 주옵소서. 어떤 악귀도 제 길을 가로막게 하지 마옵시고 죽을 때에는 살아있을 때처럼 복 받게 하소서.” 그것이 길옆 현판들의 목소리이고 종교가 자연스럽게 땅으로 이어지는 곳

인 중국 전역에 퍼져있는 종교다. 삶의 복을 얻고 화를 피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 안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종교는 ‘처방’이고 딱 그만큼 가치가 있다. 말 많은 한 동료는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진심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에서 나(매킨타이어)에게 “당신의 교의를 이해 못하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며 “우리는 교의를 원하지 않는다. 대신 영국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 달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당신의 친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호신뿐만 아니라 동물숭배도 대중들의 선호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존재다. 동물숭배는 인간에게 있는 특정 동물의 고유한 속성을 숭배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고대 만주족이 가졌던 샤머니즘의 분명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된다. 숲속의 검은 담비 사냥꾼들은 사트푸라(Satpura) 언덕의 브힐(Bhil)처럼 호랑이를 열심히 숭배한다. 만일 브힐처럼 사슴과 같은 무해한 동물만을 사냥한다면 이는 고귀한 짐승들을 아끼는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다. 반면 옆 골짜기에서 호랑이 덩이를 놓는 사람은 자신의 신인 호랑이를 잡아 기쁜 마음으로 껍질을 벗긴다. 평야 지대에서는 여우와 담비가 가장 큰 숭배를 받는다. 여우를 상징하는 것은 여우의 눈을 지닌 백발의 노인이다. 그는 교활함의 정수이며 방심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아름다운 여자로 변신하길 좋아한다. 그는 당신에게 마법을 걸거나 치료할 수 있으며 어느 만주 사원보다 더 열렬한 숭배를 받는다. 매킨타이어 씨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라는 기독교 최고의 구절이 여우 사원의 문 위에 귀중한 금언으로 걸려있다는 기묘한 사실을 이야기한다. 여우굴 입구에 시주를 하면 여우는 당신에게 약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여우는 또한 친근한 귀신으로 인간적 또는 영적 능력으로 사람들을 보살필 것이다. 매킨타이어 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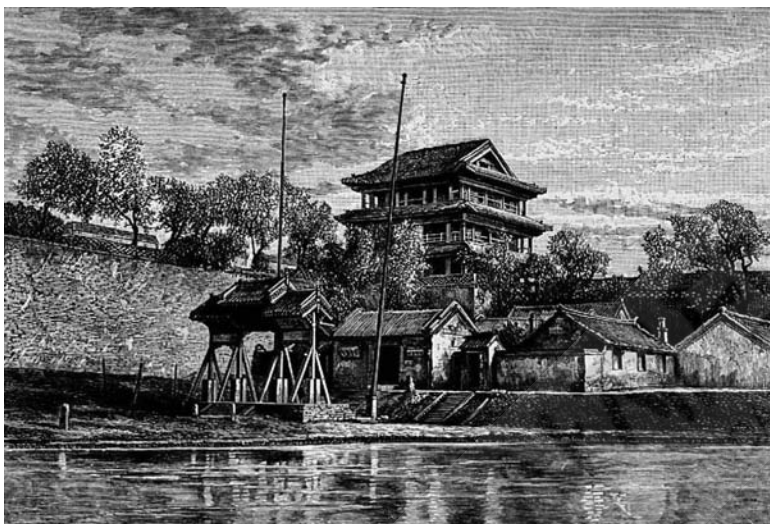


그림 4 목덴 소재 여우 사원

한 늙은 의약품 거래상의 부인이자 이름난 여우 무당이었던 사람에게 세례를 준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 설명이 흥미롭다.

그녀는 원난 성 출신으로 열 살 때부터 여우 가족 중 한 명에게서 신 내림을 받았다. 환영이 펼쳐졌을 때 무당은 앉아있거나 기대어 있었고 눈을 감은 채 실제 방문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대개 무당은 움직이지 않았으나 그녀는 원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었고 솔직한 대답을 확신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정확히 악마와 소크라테스와의 관계와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시급한 일이 있어 급한 심부름을 해야 할 때(전적으로 그녀가 담당하는 남편의 계산서들을 모을 때처럼) 그녀는 마치 길을 따라 도움을 받는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아무런 피로도 느끼지 않고 긴 여행의 끝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최

후의 위대한 현시는 그녀의 남편이 세례를 받기 전날에 일어났고 귀신은 질문을 받자, 교리가 진실하기 때문에 남편의 계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유롭게 답변을 했다. 그리고 남편은 그녀 없이는 불완전하므로 남편을 따르는 것이 의무이며, 남편에게 교리는 절반의 교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건데 그녀는 총명한 여자이고 가족을 보살피는 사람이며 산전수전을 다 겪어 강신술에 전혀 연관될 유형의 사람이 아니다. 결혼한 네 딸들도 모두 문맹이 아니며 미혼인 두 명의 딸들도 자비로 가르치고 있다. 올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녀는 좋은 사람이다. 그녀는 자신의 전 가족이 여전히 그녀를 따르리라 확신한다.

여우와 관련된 그러나 결코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담비다. 담비는 해로운 짐승이지만 치료에 커다란 효험을 보인다. 로마 가톨릭 선교사 한 사람이 필자에게 한때 담비의 도움으로 병자를 고치는 무당의 곳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암탉 한 마리가 병자의 머리에 묶여 있었고 마법사는 신들린 목소리로 끊임없이 담비가 오기를 청했다. 필자의 정보원은 피곤해서 가버렸으나 선교사가 매우 신뢰하던 중국인이 남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즉 잠시 후에 한 거대한 담비가 구들의 굴에서 나와 암탉과 함께 급히 도망쳤고 환자의 친척들은 만족스러워했다고 한다. 그러나 환자는 수종을 앓고 있었고 담비의 치료는 실패했다. 뱀 또한 크게 두려워하고 숭앙받는 존재이다. 산토끼나 주식으로 콩을 먹고 사는 쥐도 마치 인도의 메뚜기가 그 엄청난 때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방에서 숭배되는 것처럼 숭앙을 받는다.

동물 다음으로 시골 사람들은 질병을 숭배한다. 당연히 천연두는 인

도에서처럼 많은 신자들을 거느리고 있으나 이름이 널리 알려진 무서운 여신의 현시가 아닌 질병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인 신이다. 일그러진 표정을 짓고 있는 상은 유명한 ‘천식 폐하’이며 가까이에 ‘뼈와 살이 찢어지는 고통 씨’가 있다. 그리고 길옆 사당이나 대도시 사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아주 불쾌한 신이 하나 있는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 중국인의 재간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인간이 받게 되는 모든 질병 하나하나마다 별도의 신을 가진다는 것은 과하기 때문에 ‘신체의 모든 부분에서 불완전한 씨’라는 신이 고안되었다. 상(像)은 가장 흉악한 모습을 하고 있고 성난 눈에 언청이며 이곳저곳에 귀양과 병든 뼈를 갖고 있다. 해당 병을 주관하는 신에게서 치유를 받지 못한 환자는 환부를 내보인 다음 도금종이나 실크를 자른 뒤 치유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물러난다. 종종 처방으로 가득한 상자가 이 역겨운 표정의 신 앞에 놓이기도 한다. 향이 피워지면 사제는 사례를 챙긴 다음 한 쌍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가 표시된 처방을 꺼낸다. 환자는 그것을 가지고 약국으로 가서 조제를 받은 뒤 약을 삼킴으로써 호전된다.

마지막으로 자잘한 숭배물들이 있는데 이들은 분류가 쉽지 않고 별다른 이미지를 찾기도 어렵지만 타원형의 나무 현판에 이름을 새겨 경배를 드린다. 3대 종교의 창건자들인 노자, 공자, 부처(불신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노자와 공자의 역사적 실존 여부를 묻는 중국 연구자들이 생겨났다)와 지방의 마법사나 무당, 식민지 창시자, 계곡의 첫 정주자, 죽어서 이웃을 괴롭히리라 예상되는 악한, 보통의 영혼들, 천국과 대지, 사방의 바람, 나침반의 네 방위들, 천둥과 번개, 남녀 왕자 등 사실 인간이 자신들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꽤나 있다. 드물긴 하지만 때로 길옆 사당 앞에 놓인 봉헌물을 발견하게 되

는데 대개 쌀이나 설탕 등이다. 그러나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대개 꽤 위에 자신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줄 혼령의 이름을 적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행위를 통한 헌신으로 족하다. 공자가 신경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다. 그를 기리는 많은 훌륭한 사원들이 있으나 그 사원들은 결코 그와 주요 제자들에게 대한 꽤 이상의 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어느 대가는 “공자는 신의 현시가 아닌 인간의 완성으로 존경 받는다”고 말한다.

인격신과 영령이라 부를 수 있는 것 외에도 만주 주민은 풍수에 심취해 있다. 이는 중국 전역에 공통된 것으로 표현이 거칠고 부정확하지만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바람과 물’이며 영적 세계가 아닌 자연 세계에 속하면서 대지와 공중에 넘쳐나는 영향력이 존재함을 뜻한다. 번성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기운들을 조화시켜야 한다.

‘풍수’라는 기후와 환경 및 의학을 아우르는 영향력의 기본 원리는 명칭에서 보듯이 다음과 같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모든 온화한 기운들은 남쪽에서 오며 악하고 죽음의 특성을 가진 기운들은 모두 북쪽에서 온다. 이 기운들은 직선으로 흐르며 높은 건물이 세워질 경우 정북향에서 오는 흐름을 역류시켜 바로 그 너머에 있는 거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입힌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높은 교회탑과 전봇대 및 철도 신호기는 사망으로 선한 영들을 비껴가게 만들어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린다.<sup>5</sup> 이러한 편견은 중국이 많은 문명기구들을 도입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지만 결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황제의 의지는 법이자 의지이며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sup>5</sup> Williamson, *Journeys in North China*, i, 16.

그렇다. 예를 들어 황제가 철도건설을 결정하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풍수도 아니고 백성들의 혐오도 아니다. 하지만 모든 건물은 풍수에 따라 적절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며, 집의 풍수를 바꾸거나 가능한 한 유리하게 설계해야 하는 일이 하나의 직업이 된다(인도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경건한 힌두인이라면 방이 사각형이 아니거나 건축 비율이 적절치 않을 경우 집짓기를 거부할 것이다). 중국의 집 대문 앞에 발이 설치될 경우, 그 목적은 외부사람들의 시선을 막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악한 기운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좋은 풍수를 가진 주거지는 영국에서의 자갈 하층토와 남향만큼이나 인기가 높다. 모든 묘는 '풍수'에 따라 적절한 고려를 거친 뒤 세워진다. 필자가 전해들은 바로는 목덴의 누르하치 묘가 가장 완벽한 예로서 언덕 위에 세워져 바람을 누르고 아래에 물이 흐르는 강이 있으며 온화한 남향이다. 만일 망자의 영혼이 방해받지 않고 안락함을 누리려면 입구와 출구가 트여 있어야 한다. 앞뒤가 개방된 묘에는 조상의 혼령이 자유로이 후손들에게 내려올 수 있어 지속적으로 후손들을 보호하며 모든 영적세계의 복들을 내려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상서로운 묘지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다. 미카오의 총독인 아마랄 씨(Senor Amaral)는 길을 만들면서 묘 일부를 훼손하는 바람에 살해되었다. 그리고 반란이 일어났을 때 관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반란자들의 가묘를 더럽히고 파헤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철도를 놓기 위해 언덕을 깎아내고 묘지를 관통하는 철도건설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황제의 의지로 재난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어도 말이다. 풍수가 사람들의 생각에 실제 영향력을 미쳤던 사례가 있다. 어느 의료선교사는 불운한 한 청년이 과수원에서 최근 목을 매자

이 일이 이미 외국인들의 가옥들과 인접해 있어 상당히 악화된 그곳의 풍수를 더욱 망쳐놓는 것이라 생각하여 싼값에 병원 부지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고 필자에게 털어놓았다.

필자는 로스 씨를 통해 만주 농촌의 미신에 관한 몇 가지 사례들을 알게 되었는데 데칸(Deccan) 지역의 이야기와 많이 비슷하다. 목텐에서 동쪽으로 20마일 떨어진 야오자오 산에서 매년 시장이 열리는데 기원은 다음과 같다. 네 왕조를 거슬러 올라간 시대에 한 마부가 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가다가 수렁에 빠지자 갑자기 세 명의 여인들이 나타나 그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수레를 맡기면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마부는 동의했고 여인들이 수레에 오르자 노새는 즉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야오자오 산에 도착하자 여인들은 수레에서 내려 사라졌고 다음 날 언덕 꼭대기 근처에서 늦쇠로 된 세 개의 여자상이 발견되었다. 그들을 기리는 사원이 즉시 세워졌고 여신들은 이제 매년 네 번째 달의 18번째 날 다시 나타난다.

또 다른 믿음은 불운한 날에 죽은 사람으로 인해 가뭄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망자의 시체는 부패되지 않고 털이 기드온의 양털처럼 자라나와 인근의 모든 습기를 흡수한다. 해결책은 줄지어있는 언덕마다 초를 놓는 것이며 마침내 불운한 사람의 무덤 옆에 있는 언덕의 초가 빛을 발할 때 현장에도 빛이 보인다. 무덤을 발견하여 개봉한 후 시체에 아낌없이 경의를 표하자 구름이 비를 내리기 시작한다.

만주에서 시체들은 괴기한 여정을 걷는다고 한다. 사람이 불운한 날이나 지붕에 검은 고양이와 있는 날 또는 방에 검은 개가 있는 날에 죽을 경우, 시체를 내놓으면 다시 살아나 앞으로 내달려 사람을 따라잡아 쥐어짜 죽인 뒤 만족해서 돌아온다. 그러나 눈을 부릅뜬 채로 완벽하게

직진하기 때문에 쉽게 피할 수 있다. 나무통을 그 길에 놓으면 시체는 이것을 꺼안고 마찬가지로 만족하며 돌아온다.

이곳을 여행하는 기독교인은 유일신이자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만주에서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는 현재 두 선교집단이 존재하는데 선구자는 로마 가톨릭이다. 1620년에 사망한 명나라 황제 만력제 시대에 처음으로 가톨릭 사제가 만주에 왔다고 전해진다. 그가 베이징에서 온 유일한 방문자였다고 추정되나 300년 전, 이 지역에는 이미 개종자들이 있었고 신자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랴오양에는 아홉 대의 조상이 모두 기독교도였던 중년의 한 남자가 있다. 1838년까지 만주는 베이징의 주교 관구였으나 같은 해에 교황 그레고리 16세가 프랑스 이방인 선교 협회로 이관하여 만주를 별개의 관구로 만들었다. 쓰촨의 선교사이자 기독교 대학 수도원장인 베롤르(Verrolles) 감독이 콜롬보의 초대 주교이자 교황대리로 지명되었다. 중국을 가로지르는 여행에서 듣도 보도 못한 어려움을 겪은 끝에 1840년에 만주에 도착한 그는 약 3~4천 명의 기독교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을 발견했다. 기독교도들은 대부분 인근 지방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었다. 교회나 학교 또는 사제관은 없었고, 현장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줄 사람은 호 씨라 불린 중국인 사제였다. 주교는 바빴다. 임시거처를 마련하지도 못한 채 그는 거대한 주교 관구를 돌아다니며 최선을 다해 회중들의 영적인 요구사항들을 청취하고 해결했다. 1841년과 1842년, 비노(Venault)와 브뤼니에르(Brunière)라는 두 명의 아주 탁월한 선교사들이 파리에서 도착했다. 브뤼니에르는 뛰어난 능력과 수완을 갖춘 신사였다. 베롤르 감독이 선교비용을 모금하느라 유럽에 없을 때 그는 부주교로 임명되었다. 또한 브뤼니에르

는 부주교 자격으로 러시아인과 중국인에게는 미지의 땅이었던 아무르 강 하류로 잇을 수 없는 여행을 떠났다. 아무르 강 하류에서 그는 길라 크족들에게 살해당했다. 러시아인은 지금도 범죄현장을 ‘순교자의 섬’이라 부른다. 브뤼니에르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하자 동료인 비노 선교사는 그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고 결국 브뤼니에르의 운명을 둘러싼 수수께끼를 완전히 파헤치는 데 성공했다. 우수리 강에서 보낸 브뤼니에르 선교사의 마지막 서한과 4년 뒤 잃어버린 친구를 찾아 떠난 여행에 관한 비노 선교사의 설명은 『전도기』(Annales de la Propagation de la Foi)<sup>6</sup>에 기록되어 있다. 이 흥미로운 문서는 사제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기독교적 용기와 헌신에 관해 증언해주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후계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다. 비노 선교사는 태생이 귀족으로 1806년에 포이스티에(Poitiers) 주교 관구에서 태어났다. 청년 시절 그는 만민구제학파의 조신이었으나 예수를 위해 세상을 포기하고 사제로 서품을 받아 만주로 향했다. 22년 동안 그는 만주에서 쉼 없이 일했고 전 재산을 바쳐 교회와 고아원을 짓고 병자와 빈자를 달랬으며 가장 가난한 신도들과 함께하며 그들보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1884년 1월 12일, 만주에서 가장 진실되고 훌륭하며 존경받는 믿음의 사도로 생을 마감했다.

1854년, 선교 사업에 두 명의 다른 사제들이 동참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마이리나(Myrina)의 주교인 보이어(Boyer) 감독<sup>7</sup>이며 현재 관구의 보좌주교로 섬기고 있다. 보이어 감독이 임지로 가기 위해 다른

6 제20권(1848년). 이들에 대한 번역은 주해 D에서 볼 수 있다.

7 유감스럽게도 이 책을 집필하던 중 이 뛰어난 주교가 사망했다.

두 사제들과 함께 정크선을 타고 라오둥 만을 향해하던 중 해적들이 배에 올라탔다. 세 명의 성직자 가운데 비에(Biet) 선교사는 당시 갑판 위에 있었는데 바로 붙잡혀 배 밖으로 던져졌다. 보이어 감독과 또 다른 성직자인 타글리아부(Tagliabue : 현재 베이징의 교황대리이자 살아서 초기의 동료로 시성했다) 감독은 배 아래쪽에 있었다. 해적들은 배를 약탈하면서 그들을 붙잡아 돛대에 묶었다. 그 뒤로 네그레리에(Négrerie) 선교사와 베르노(Berneux) 선교사가 왔다. 전자는 사고로 죽었고 후자는 1856년에 조선 주교로 시성되었다. 베르노 선교사는 순교한 두 명의 고위 성직자인 주베르(Joubert) 감독과 파레올(Farréol) 감독의 후임이었다. 그리고 10여 년 뒤에 자신도 순교했다. 그들 다음으로 포르퀴에(Porquié), 메나르드(Ménard), 콜린(Colin), 말레(Malais), 시몬(Simon) 선교사 등이 줄을 이었고 모두 자신의 의무를 다하다 죽었다. 잉커우에 있는 우아한 교회와 고아원 및 다른 건물들은 주로 시몬의 노력 덕분이다. 1875년 이래로 다수의 보충인력이 도착했지만 선교 사업을 벌이던 도시의 오물로 인해 발생한 장티푸스로 상당수가 사망했다. 노인 키르헤(Neunkirche), 라망드(Lamandé), 드라르보르드(Delarborde), 르포르말(Leformal), 텔리코르트(Delecourt) 선교사들도 그렇게 희생되었으며 대부분 청년들이었다. 31년의 봉사경력을 지닌 선교사이자 몽골 내에 있는 대형 고아원의 존경받는 감독자인 메테이에(Métayer) 선교사는 31년의 봉사경력 끝에 작년에 같은 병으로 사망했다. 고아원의 수가 늘면서 이를 운영하기 위해 많은 자선회들(Sisters of Mercy)이 프랑스에서 건너왔으나 그들 중 대부분은 역시 풍토병으로 사망했다. 1875년 직후 도착한 첫 단체는 전체 10명 가운데 현재 불과 2명만이 생존해 있다. 그리고 나중에 도착한 두 번째 단체는 전체 9명 가운데 3명만이

살아 있다. 초대 주교이자 현재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선교 사업에 크게 기여한 베롤르(Verrolles) 감독은 1878년에 사망했다. 그는 관동곶에 있는 사커우에 유럽식 모델로 최초의 기독교 교회를 건립했다. 점차 간소한 교구관을 갖춘 비슷한 건물들이 여러 곳에 세워졌다. 즉 양관, 바자쯔, 뉴장, 사링, 산다이쯔, 잉커우, 왕하오쯔 등이었다.

브롤 감독의 뒤를 이어 만주의 초기 선교사들 중 하나이자 이벨리나(Evelina) 주교인 뒤바이(Dubail) 감독이 왔다. 그는 타고 온 배가 하이난 위도 상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거의 죽을 뻔 했다. 뒤바이 감독과 다섯 명의 선교사들을 포함한 총 20명의 선원들은 보트로 옮겨 타야 했고, 8일 동안 지독한 기아와 탈수를 겪고 익사의 위험 속에 떠났다 마카오 해안에 닿았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희생과 헌신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뒤바이 감독은 1879년 사커우에서 또 다른 용감한 조선인 주교이자 마지막 대 조선 박해 동안 이곳으로 피난했던 리델 감독(Ridel) 감독에 의해 시성되었다. 뒤바이 감독의 후원 하에 교회들이 묵텐의 매우 아름다운 곳인 쟈기아쯔에 세워졌고, 다른 교회가 현재 란헤이산에 건립 중이다. 건축가는 슈발리에(Chevalier) 선교사로 1857년부터 선교단의 사제로 재직하면서 작품들을 통해 상당수준의 취향과 감각 및 기교를 갖춘 건축 활동을 펼쳐왔다. 건물들은 평범하지만 디자인이 우아하고 매우 그럴듯하다. 건축재원은 대부분 선교기금(기독교는 중국의 다른 지역에 귀중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이고 대체로 매우 가난한 개종자들이 직접 노동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모교회이기도 한 사커우에 있는 한 교회는 어느 부유한 중국 가문이 거의 전액을 기부했다. 교회는 도저히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높은 탑 때문에 먼 거리에서도 두드러져 보인다. 교회의 탑은 풍수를 침해한다고 믿는 중국인

들의 감정을 건드린다. 따라서 교회의 높은 탑은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높은 탑들이 기독교가 버려야 할 오만한 모습을 띠고 있고 상당한 건축비용이 들기 때문에 더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필자는 먼 곳에서도 높이 솟은 기독교 십자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 말하고 싶고 분명 선교단은 기독교로 개종한 중국 민족이 언젠가는 이 뽕족탑들을 적대감이 아닌 존경을 가지고 바라보리라 고대하고 있다.

뒤바이 감독<sup>8</sup>은 불운하게도 현재 건강이 나빠 보좌인 보이어 감독이 교황대리인인 히나드(Hinard)의 도움을 받아 유능한 조달자인 에모네(Emonet)와 함께 일을 대행하고 있다. 이들 뿐만 아니라 만주에는 현재 24명의 가톨릭 선교사들이 있으며 그 외에 4명의 토착민 사제들과 약간의 자선회 사람들이 더 있다. 기독교인이라 자처하거나 고백하는 어느 누구도 이 선량한 선교사들이 보여주는 발전에 흥미를 안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가장 열렬한 비국교도조차도 비신자로 남기보다 가톨릭이 되는 편이 더 낫다고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톨릭은 신교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우선 기존의 신도들이 믿음을 더 돈독히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고아인 아이들을 대거 입양하거나 구매하여 양육했다. 이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유용할 직업교육을 시켰고 몇몇 뛰어난 아이들은 따로 선발하여 사제로 키울 목적으로 라틴어와 신학을 가르쳤다. 이상승배에 불만을 품고 있는 성인들이 종종 일부 가톨릭 신도에게 이끌려 가르침을 들으러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직접적인 전도는 어렵다. 교회의 예배는 개종자만을 위해 진행되기 때문에 비신자에게 설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반적

---

<sup>8</sup> 유감스럽게도 뒤바이 감독도 세상을 떠났다.

으로 평가해보면 약 40년이 지난 오늘날 가톨릭 기독교인의 수는 거의 1만 3천 명으로 늘었다. 고아원의 소년들과 소녀들의 수가 현재 300명의 아기들을 제외하고도 1천 2백 명에 달한다. 성인 개종자들은 매년 300~400명에 달하며 약 5천 명의 무신자 아기들이 죽음의 순간에 세례를 받는다. 고아원은 주로 수녀들이 운영하며 일부는 농장들이 딸려 있다. 아이들은 엄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원할 정도로 불그레하고 토실토실하게 생겼으며 명랑해 보이고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는다. 아주 이기적이며 잔인하고 방종에 기우는 사람들 속에서 신을 두려워하고 도덕적인 남녀공동체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교회가 보여주는 외관과 이미지 및 장식이 비신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져 로마 가톨릭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사실은 정확히 그 반대이다. 십자가의 길을 그린 일단의 거친 그림들과 교회의 수호성인상 혹은 제단 위의 조그만 성모상을 제외하고는 가톨릭 교회에는 침례교 예배당처럼 장식이 없다. 상들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물이며 어떠한 중국인도 상들로 인해 개종자가 되지 않는다. 개종이 만일 중국인에게 단순한 우상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예를 들어 천녀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은—사려 깊은 중국인은 개종하지 않을 것임을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개종 이전이 이후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톨릭이 중국인에게 주는 책들은 사실 개신교적이다. 상을 찬양하기는 커녕 오히려 열렬히 비난한다. 심지어 초기 로마 가톨릭 선교사들이 개종자들을 모으려는 욕심으로 일부 인정하기도 했던 조상숭배도 이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사제들은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처럼 냉담하고 불경한 회중들에게 말없이 예배를 드리기보다 모든 신도들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가하여 내내 무릎을 꿇고 중국어로 찬송을 부르고 답창을 한다. 아주 큰 행사에서만 모든 예배의식이 라틴어로 진행된다. 마치 영국 시골의 합창단이 여러 번 연습을 거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성가를 부르지만 거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말이다. 사제들의 생활모습도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 그들은 최대한의 내핍과 금욕생활을 하며 방은 좁고 구빈원의 현관홀만큼이나 인락함이 없으며, 음식 또한 간소하다. 사제들은 결코 휴가를 일 년 동안 고향의 벗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평생 망명자들인 것이다. 사제들은 진정 집·동포·자매·부모·소유지들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포기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약속, 즉 100배 이상 돌려받을 것이며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믿음에 의지하는 것이다.

중국인 관리를 대하는 가톨릭 선교사들의 태도는 개신교와는 다소 다르다. 강희제가 박식한 예수회 선교사들을 등용했을 때 그들은 관료의 지위와 특권을 즐겼고, 그때부터 사제들이 공직을 맡고 하인들이 종종 정부 관원의 제복을 입는 것이 흔한 관례가 되었다(필자는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다). 그들은 지방 관관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개종자들 가운데 한 명이 사건에 연루되면 부하들을 위해 법정에 부당하게 개입한다. 만주에서 그들은 세금의 일부가 개종자들이 양심상 반대하는 우상 숭배와 의식에 쓰인다는 이유로 신도들이 내는 지방세의 60%를 탕감 받는 데 성공했다. 가톨릭 선교사들은 일반인에게 충분히 인기가 있으며 관원들은 속으로는 싫어하지만 정치적 개입이란 비난을 염려하여 방치한다. 만일 베이징에 공식 사절을 두려는 교황의 계획이 실행되었더라면 사제에 대한 적대감은 상당부분 사라졌을 것이며 오히려 가톨릭을 광범위하게 선호했을 것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제

들은 중국인처럼 옷을 입고 변발을 한다. 이 풍습은 극단적인 기독교 신앙단체에 속한 선교사들인 중국 내륙 선교단원들이 흉내 냈었다. 이 단체는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 씨가 이끌고 있고 어떠한 교회에도 속하지 않은 헌신적인 복음주의적 자유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로마 가톨릭은 중국인 사이에서 천주교라는 당당한 이름을 갖고 있다. 개신교는 예수회라 불린다(두 교회들이 합쳐질 수만 있다면!). 개신교 선교단은 가톨릭보다 훨씬 더 젊다. 1861년 조약체결로 잉커우 항구가 개방된 직후 스코틀랜드 성서협회는 만주지역의 성서 보급을 위해 사람을 파견했다. 이후, 영국 장로교 목사단의 선교사인 번스(Burns) 목사가 와서 반 년 간 머물다 사망했다. 뒤이어 아일랜드 통합 장로회도 잉커우를 몇 년간 장악했었고 스코틀랜드 통합 장로교 선교단도 또한 자리를 잡았다. 이제 세 개의 아일랜드 장로교 선교단과 네 개의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단이 잉커우와 묵텐에서 일을 하고 있다. 최근 한 사람이 랴오허의 대홍수 희생자들에게 구호품을 운반하다 기근열병으로 희생되었다. 이제 막 문을 연 두 센터를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사방으로 움직이고 있다. 의료 선교단은 둘인데 하나는 묵텐에, 다른 하나는 랴오양에 자리를 잡을 예정이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선교단은 가장 사이가 좋으며 중국을 양분하고 있다. 그들은 북쪽으로 성도인 묵텐에서 가장 중요한 관청뜨까지 다양한 곳에 기도처를 열었다. 스코틀랜드 선교단은 1872년 말 잉커우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했고 이제 평텐 지방에서 700명이 넘는 세례인들을 보유하고 있다. 세례 수는 해마다 증가하며 거의 성인에게 한정되고 있다. 아일랜드 장로교 선교단을 포함하여 아마도 약 800명을 전후한 세례 개종자들이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신자임을 고백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기독교 교의에 관한 지

식을 확산시키고자 애쓰고 있으며 이제 지방의 모든 도시와 상업도시를 비롯해 많은 농촌 촌락들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선교 사업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결과는 등록된 신자들의 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로스 씨에 따르면 노골적인 적대감이 친절함은 아니나 무관심으로 바뀌었고 의심도 존경과 확신으로 변했다. 이 같은 풍토라면 현명하고 끈질기며 진정성 있는 선교 사업을 펼칠 경우, 앞으로 최대의 개종자들을 얻게 될 것이다.

1873년에는 청소년을 위한 학교가 잉커우에 설립되었다. 여학교는 몇 년 전 묵텐에서 개교했고 남학교는 최근 세워졌다. 지역에 흠어져 있는 신도들은 아이들을 위해 중앙에 기독교 학교를 갖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욕심을 아직은 만족시킬 수가 없다. 한편 많은 과학도서들이 묵텐 예배당과 연결된 서점에서 팔려나갔다.

의료 선교단은 특히 주목을 끈다. 선교단의 목적은 두 가지다. 병자를 치료하는 것과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다. 종교적 가르침을 위한 예배는 진료대기실에서 열리며 환자들 대부분이 참석하고 많은 부수의 성경책이 팔린다. 영적 관점에서 보면 외래 환자보다는 내원 환자들을 대하는 것이 더 만족스럽다. 1886년 동안 내원 환자 가운데 13명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에 귀의했고 크리스티(Christie) 박사는 아직도 병원을 떠나기 전에 독실한 신자가 되기로 약속한 사람들의 명단을 갖고 있다. 한 해에 1만 명을 상회하는 외래 환자들이 진료실을 방문했다. 100명이 넘는 입원환자를 받았고 다른 종류의 수술이 250건이나 집도되었으며 도시의 많은 환자들을 왕진 치료했다. 크리스티 박사는 조수들을 위한 실습강좌도 열고 있으며 도시의 훌륭한 청년들에게 화학 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병원은 인기가 매우 높다. 약은 모든 이들에게 무

료로 나누어 준다. 그러나 약은 충고처럼 무료로 줄 때에는 가격을 따지지 않으나, 금전적 여유가 있는 중국인 부자일 경우, 약값을 받는 게 좋다.

크리스티 박사는 아편중독을 치료하기 원하는 아편 흡입자들을 위해 수용소를 마련했다. 환자는 먼저 2명의 보증인을 내세우고 21일간의 감금생활을 받아들여겠다는 맹세를 한다. 그 이후 환자에게는 아무런 아편도 제공되지 않는다. 크리스티 박사의 경험으로는 점진적으로 치료하거나 몰핀 성분이 담긴 아편 방지 알약으로 흡입 습관을 끊으려는 시도는 잘못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에서 임상사례들을 통해 얻어낸 결론과 일치한다. 첫날에는 박탈감이 약간 느껴지나 두 번째 날부터 다섯 번째 날까지는 고통이 심해지고, 구토와 설사 및 다른 증상들이 동반된다. 여덟 번째 날에는 식욕이 돌아오고 환자는 마지막 날 풀려날 때까지 급속히 호전된다. 필자가 크리스티 박사를 만났을 때 그는 이미 150건을 치료했고 50%가 완치되었다고 평가했다. 박사의 중국 친구들은 비율을 무려 80%로 올려 잡았다.

분명 장로교 선교단에 의해 진행되는 선교 사업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그들이 전도한 개종자들은 정말 강건한 기독교인이며 굳은 확신을 갖고 예수를 믿으며 따르는 사람들이다. 100번 넘게 복음의 이야기들이 갖는 진실성에 관해 토론하고 12가지 관점에서 구원론을 철저히 논의한 이후에야 그들은 개종자가 될 것이다. 중국인 비신자들 사이에서도 사려 깊은 사람들은 분명 양심을 갖고 있으며 이는 죄를 용서받고 종교생활에 전념하는 사람들의 수에서 증명된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대가없는 용서와, 미래의 유혹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찾을 수 있게 될 때에,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얻게 되는 상당한 보상, 즉 크지도 않고 형태도 없으나 기쁨의 약속을 받게 될 때, 또는 신과 인간 사이의 인적 개입인 사제의 힘이 허구이며 중재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배울 때에 중국인은 쉽게 기독교를 이해하게 된다.

장로교는 교인 승인과정의 매우 엄격하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감성에 중국인은 감동할지도 모른다. 그는 죄를 회개하고 구세주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모든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친절하고 헌신적이지만 동시에 완고한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은 인간이 감정과 순수한 신념을 혼동하기 쉽다는 점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신규개종자는 상당기간 동안 엄격한 수습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로마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개종자의 신실함이 의심스럽거나 혹은 신학과 교리 지식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세례가 거부된다. 입교시에 높은 기준을 내세우는 것이 향후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개종자들의 수를 늘리거나 매년 커다란 작업성과를 내놓으려는 유혹을 거부하는 선교사들의 엄격한 사려분별은 만주 개신교 교회의 기반을 처음부터 탄탄하고 깊은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것으로 최고의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인도에서는 헌신적 행위에 종종 현실감각이 부족할 때가 있다. 많은 경우 교육받은 선교사들은 시간을 거의 전적으로 비신자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세속적 학습을 가르치는 데 사용한다. 청소년들은 기독교 신자가 되겠다고 공언하지 않으며 단순히 좋은 교육을 저렴하게 받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고 다만 기독교 서적들이 걸려있는 방에 앉아 한 시간 동안의 성경 강의를 매일 듣는 것으로 대신하려 한다. 이런 학교에서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형식적이다. 필자가 아는 경우를 언급하면 어린 시절 집에서 기독교 신학을 배운 비신자 힌두 소년이 고전 신화학은 배우다가 성적이 좋아 교리문답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백인 기독교 소년반의 성경 수업을 듣게 되었다. 분명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아낌없이 뿌리는 선하고 참된 씨들 가운데 한두 개에서 곡물이 싹트게 되기를 경건하게 희망한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실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사람은 무료로 얻게 되는 것에 가치를 두게 마련이다. 인도에서 필자는 낮은 신분을 지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선교사를 알게 되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거의 알지 못했고 따라서 신념에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기독교인이 되고자 했다. 또한 신분상의 지위가 너무 낮아 기독교의 고백이 그들에게는 인간적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개신교가 만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모든 개종자들은 동료들 전도하는 열렬한 선교사가 되고 있다. 로스 씨는 최근의 보고서에서 자신이 만주에 온 이후로 세례를 받은 600명의 기독교인 가운데 고작 12명만이 처음에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개종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 개종자들의 제자들이었다. 결국 이 영적인 종자가 12년 동안에 여섯 번째 혹은 일곱 번째 세대를 이어간 것이었다. 이 개종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지시는 받지만 선교사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선교사의 주된 역할은 중국인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흠어져 있는 신도들에게 직접 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얻은 경험으로는 교회의 성공 여부는 외국 선교사보다 원주민 교인에 달려 있다. 원주민 교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선교단은 성공하나 그렇지 못한 교단은 별다른 진전을 보

지 못한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중국의 기독교가 더 이상 외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때까지 모든 유능한 원주민 기독교인들을 가르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보고서에서 발췌한 다음의 글은 만주의 선교 사업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세례를 주기 전에 취해야 할 예방책들을 설명해준다. 로스 씨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고대 수도인 랴오양에는 많은 문의자들이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독실한 신도라고 하지만 올해 단 한 건의 세례도 없었다. 낙담한 설교자인 유수심은 악한 신도들의 모습에 슬퍼하며 모든 신도들이 자신들이 재직하고 있던 직위에서 해고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어울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한다. 그리고 신도들이 비밀리에 지금보다 더 강해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멋진 사업을 벌이고 있던 한 청년이 믿음으로 인해 따돌림 당한 뒤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교회가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아 일 년이 지난 뒤 그의 믿음은 식어 버렸고 안식일 모임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소중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확인차 그의 경우는 미뤄두었다. 그러나 웨스터 씨의 설교자이자 현재 그곳에 있는 나이든 교 씨는 자신이 한때 믿음을 통한 예수구원의 교리를 전했던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희망스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데 의기양양해 있다. 올리타이드수의 장(Jang of Wulitaidu) 씨가 이끄는 약 20~30명에 달하는 지식인들과 부유한 신자모임은 구성원 수가 100명으로 늘어날 경우 공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서약했다.

하나님이 축복해주신다면 3년 안에 가능하리라고 그는 믿는다.

제임스 웹스터(James Webster) 목사는 테링(묵텐의 북쪽 대도시로 그와 예전에 로스 씨가 폭도들에게 끌려갔었다)에서의 진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도시에서 처음 선교 사업을 펼칠 때 겪었던 외부로부터의 어려움들은 다행스럽게도 지나갔다. 매일 예배당에서 복음이 설교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안겨주었으며 많은 이들이 진지하게 묻게 되었고 14명은 세례를 통해 입교했다. 이들 가운데 최초의 개종자인 한 명은 동쪽 구릉지대에 위치한 신흥도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테링을 떠났다. 신흥도시에서 그는 민족적 보수주의의 족쇄에서 벗어나 사람들 앞에서 신앙고백을 했다. 또 다른 사람은 신자임을 공표함으로써 수많은 박해를 당해 가족과 사업을 묵텐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모두 이런저런 고생을 했지만 영혼을 구제받고 예수의 말씀이 널리 퍼져 나간다는 측면에서 좋은 일이다.

중국 도시에서의 가두 설교는 혼한 일이 아니다. 즉 적대적이거나 혹은 골치 아픈 군중들을 끌어 모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개신교는 목재로 지은 만남의 집을 주요 거리에 세우고 모든 이들에게 개방하여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건 비웃는 사람이건 모두 와서 들을 수 있게 한다. 만남의 집은 앉아서 공자의 교의를 해설하는, 광저우에서 볼 수 있는 서당과 똑같다. 어떠한 여행자도 들어와 자리를 잡고 조용히 들을 수 있으며 잠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빨기도 하고 피곤할 경우에는 나갈 수

도 있다. 만남의 집에서는 선교사나 교회의 원주민 장로 또는 지도적 위치의 신도들이 매일 몇 시간 동안 앉아 설교하고 모든 방문자들과 논쟁을 벌인다. 중국인은 이를 좋아하며 기독교 교의의 순수성과 합리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 필자는 만주에서 장로교단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 사업이 아주 지각 있고 확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곳을 본 적이 없다. 미래의 결과는 모르지만 후손들은 알게 될 것이다.

선교사들의 성공을 설명하기 위해 필자는 목텐 의료 선교단에게 눈병을 치료받은 한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었는지 웨스터 목사의 매우 흥미로운 설명을 빌려 이야기하려 한다.<sup>9</sup> 그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믿게 되었다. 그 뒤 집으로 돌아가 어두운 눈을 갖고 있긴 했지만 밝아진 영혼으로 소위 하늘에서 본 놀라운 광경들을 모든 이에게 알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증거를 믿었고 웨스터 씨는 그를 방문했을 때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앉아 그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기고자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때 9명의 지원자들이 세례를 받았다. 한 명은 촌락의 교장이어서 자신의 기관을 위협에 빠뜨렸다(필자는 그가 직업을 잃었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은 이웃에 있는 도교에 속한 한 종파의 지도적 신도였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복음이 아직도 힘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선교사들에 대해 한 마디만 더하면 많은 명사들, 특히 인도나 중국을 가 본 평신도들은 선교사들이 게으르고 조차 항구나 내륙의 대규모 주둔지 안에 위치한 쾌적한 집에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으며 몇 안 되는 개종자들은 대개 불한당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로렌

---

9 주해 E '타이핑커우 시각장애인의 개종' 참조

스 올리펀트(Laurence Oliphant) 씨는 이러한 견해를 ‘피카딜리’식으로 드러냈다. 필자는 이에 관해 한 마디 하고 싶다. 모든 꿀벌통에는 게으름뱅이가 있듯이 분명 가톨릭과 개신교 종단도 그렇다. 그러나 선한 의도를 가진 훌륭한 사람들도 열의와 게으름 사이를 오가면서 세상이 짧은 시간에 기독교화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낙담하여 보잘것 없는 원주민들을 돌보는 급료 적고 안이한 목자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이다. 해외로 향하는 20명의 영국인 가운데 19명은 각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나뭇의 절박한 일들이 있고 다른 선교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을 시간이 없으며 주변상황에 대해 정말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귀국하여 질문을 받을 때 무지가 드러날까 두려워 ‘선교사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친구들인 선교사들을 욕하고 혹은 허위로 칭찬하거나 매도한다.

필자 자신은 실상이 어떠한지 조사하려는 노력을 들이기에 앞서 인도에 오랜 세월동안 근무했고 그때 보게 된 발전에 놀랐었다. 만일 오히려 흑인들에게 설교하기보다 잔디 구장에서 백인들과 테니스를 즐기는 게으른 선교사를 우연히 보게 된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열심히 노력하는 집단 전체를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살고 있는 안락함에 관해서는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자들을 감화시키기 위해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영예가 돌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은 모든 이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의 집과 주위 환경, 간소하게 가구를 갖춘 작은 방들, 벽에 장식된 성스러운 그림들과 문구들, 정돈이 잘 된 정원, 소심한 원주민 여성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선교사 부인 등은 부자와 빈자를 막론하고 불결함과 쓰레기 속에서 살고 있는 비신자들을 인간화하

고 문명화하는 수단인 것이다. 단순히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보거나 애국적인 영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선교사들의 사례들과 기독교를 채택한 데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상승효과는 매우 소중한 것이다. 분명 선한 사람은 종종 사기를 당하며 위선자는 갖고 싶은 것을 위해 개종의 쇼를 벌인다. 그러나 이는 특히 인도와 같은 국가들, 곧 선교사가 원주민을 지원하는 데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위선자들이 카스트에 대해 탈퇴를 간청하여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곳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개종이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나 유혹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양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개종자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저지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도의 판관은 주위의 비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백 개의 비슷한 사례들 보다는 토착 기독교인의 비행 한 건에 더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적어도 내 경험으로는 그렇다.

## 제7장

# 잉커우에서 묵텐과 마오얼 산까지

서두에서 말했듯이 영허즈밴드와 필자는 1886년 5월 13일에 잉커우에 도착했다. 이곳은 영국 관리들과 상인들에게는 뉴장이라 알려져 있으며 랴오허 위로 30마일 떨어진 도시의 이름이다. 사실 뉴장은 한때 항구였으나 랴오허 어귀에 흙이 급속히 쌓이면서 항구 기능이 점차 강 아래로 옮겨갔다. 그럼에도 열린 경의 조약에 뉴장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듯이 영국 공사관이 주재하고 있는 이 도시는 외국인들에게는 늘 그런 명칭으로 불려왔다. 실제 이름은 잉커우이고 강 상류 쪽으로의 접근은 곳곳의 성채들이 경비를 맡고 있다. 주변 지방은 전적으로 근대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남쪽으로 흐르는 여러 강들은 엄청난 양의 충적토를 초래하며, 그 충적토는 먼저 소금 소택지로 바뀐 뒤 다시 비옥한 경작지로 변모한다. 80년 전에 잉커우 터는 바다였으나 현재는 4~5마일 넓이의 내륙이다. 그리고 매년 대규모 지역들이 개척된다. 압록강 어귀에서도 똑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거주지는 중국인 거주지역의 북쪽에 강 왼쪽 제방을 따라 건설되어 있으며 외관상으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한편 원주민 구역은 더럽다. 가장 우뚝 솟은 건물은 강둑 위의 세관이다. 약간 떨어진 곳에 영국 공사관이 있는데 넓게 벽을 두른 오타리 안 뒤쪽에 서있다. 그리고 두 영국 상인인 부쉬(Bush) 씨와 반디넬(Bandinell) 씨의 집과 의사와 선교사들의 거처, 유럽인들이 운영하는 상점 한 둘이 있다. 주변 지역은 평평하고 진창이며 단조롭다. 그러나 해가 지면 기묘한 돛을 달고 있는 정크선이 강에 가득히 들어오고 그 너머의 광활한 갈대밭은 일종의 플랑드르 지방을 연상하게 한다. 이방인들은 환대를 받게 되면서 이곳에 대해 언제나 유쾌한 기억만을 갖는다. 하지만 주변은 대담한 도둑들로 가득하며 이들은 외국인들의 주택이나 마구간을 침입하여 응접실 시계에서 조랑말까지 손댈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들고 나간다. 1~2년 전에는 세 명의 병사들이 외국인 거주지 인근의 중국인 집에 들어갔다가 붙잡혔다. 두 명은 안전하게 밖으로 나갔으나 나머지 한 사람이 구멍에 걸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잡혔다. 그의 동료들은 아마도 램프시니투스(Rhampsinitus)에 관해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나, 그가 생포될 경우 자신들의 이름을 자백할까 두려워 동지의 머리를 베어 버렸다. 불운하게도 그러한 예방책은 소용이 없었다. 집안에서 죄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단시간에 머리 셋 모두가 길가에 매달리게 되었다.

잉커우에서 영허즈밴드와 필자는 매우 운 좋게도 영사관의 청년 장교인 폴포드와 합류했다. 동행허가를 받은 그는 훌륭한 언어학자였고 중국인의 생활방식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었다. 우리는 6개의 작은 수레 행렬을 이끌고 출발했다. 독자들은



그림 1 소조(小組)가 끄는 긴 짐수레

‘작은’이란 단어에 주목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만주에서 사용되는 수레에는 긴 것과 작은 것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낮고 무거운 수송수단으로 보통 7마리의 노새나 조랑말이 끄는데 한 마리는 수레 채에, 두 마리는 앞말로, 세 마리는 나란히 끈다. 어려운 지방에서는 세 마리가 앞말이고 네 마리가 나란히 끌기도 한다. 본체는 축 위에 놓으며 바퀴와 함께 돌아간다. 지방의 모든 상품거래는 긴 수레에 의해 운반되며 겨울에는 그 중에서 10~12만 개의 수레가 잉커우로 오는데 각각 1톤 혹은 그 이상의 내륙 생산품을 운반하고 있다. 가벼운 농가 일을 위해서는 보다 작은 수레들이 필요하다. 우리의 수레는 가볍고 덮개가 있는 작은 것이어서 수레 채에 노새 한 마리를 매고 두 마리는 앞을 끌며 아편이나 귀중품 같은 가치를 가진 소형 품목들을 운반하거나 여행객을 실어 나르는 데 사용된다. 작은 수레는 두 커다란 기둥 사이 아래 3분

의 2 지점에 놓이게 되는 대형 사라토가(Saratoga) 트렁크에 비교된다. 이 기둥들이 정면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에서는 수레 패의 역할을 하며, 뒤쪽의 연장부분은 짐을 올려놓는 틀 역할을 한다. 사실 바퀴를 비롯한 수레의 전장은 가장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지며, 매우 강해서 산비탈을 구를 경우에도 다칠 염려가 별로 없었다. 작은 수레의 바퀴는 축을 중심으로 돌며 바퀴통의 바깥쪽과 안쪽 가장자리에 의해서만 죄어지고 5~6마일마다 마부는 내려서 기름을 친다. 굴대 자체는 바퀴를 넘어 약 9인치 길이이며 보아디체아 식으로 전차낫을 묶거나 혹은 너무 가까이 다가서는 도보 여행객들에게 조심하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나 언뜻 보아서는 쓸모없이 생긴 이 갈퀴는 바퀴가 진창에 빠졌을 때 줄을 때는 데 정말 요긴하며 요동시에 수레와 내용물들을 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수레에는 스프링이 없으며 내부에 의자도 없다. 원주민들은 바닥에 침구를 깔고 그 위에 웅크리지만 흔들릴 때는 정말 괴롭다. 그리하여 우리는 수레 채에 방석을 넣고 마부와 나란히 앉는다. 마부는 늘 왼편에 자리하고 오른편을 승객에게 내준다. 수레 채는 아주 안락한 자리가 되며 주행이 끝날 때 쉽게 뛰어 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중국인들은 바깥쪽 자리가 안쪽만큼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의 첫 번째 수행원은 래틀러(Rattler)라 불리는 폭스테리어 종의 개로 충실한 친구였다. 불행하게도 개는 두려움—여섯 마리의 커다란 타타르 개들과 싸우는 등 여러 번 죽을 뻔 했다—을 몰랐다. 개는 스포츠에 몰두했고 오리를 쏘아 잡으면 마치 여울이 아무리 거칠고 빠르게 흐르더라도 뛰어들 것처럼 너무도 기쁘게 물어왔다. 개는 훌륭한 코를 가졌고 우리가 꿩 사냥터로 들어가 늪을 물기 시작하면 개는 25

분 동안 산과 골짜기를 넘어 토끼처럼 앞뒤로 몸을 피하고 있는 꿩을 사냥할 것이다. 꿩 추적이 여러 번 실패한 것 같았으나 래틀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조그만 개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큰 관심사였다. 정말 그 개는 우리와 중국인 사이의 마음을 이어주는 끈이었고 중국인이 애 완견을 좋아하는 것처럼 래틀러는 우리 같은 외국 악마들이 적어도 인간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우리는 세 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갔다. 한 명은 영어를 하는 약 40세의 하인으로 이름은 장산이며 느리고 무거웠으나 센스 있고 유용했다. 또 한 사람은 50세로 주수라 불렸고 친절하게도 그의 주인이 새 사냥을 준비하는 우리들을 도우라고 보내주었다. 다음 사람은 요리사였다. 여행 중 우리는 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한 소년을 선발했다. 이들이 우리 스태프를 구성했다. 하인들도 수레에 올랐고 안과 밖에 짐을 실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경험에서 우리나라 조언을 듣지 않았고 따라서 너무 많은 총과 라이플, 쓸데없는 많은 양의 탄약을 가져왔다. 우리는 대형 사냥감을 잡길 원했고 사실 잡을 게 많기도 했지만 제시간에 돌아가려면 사냥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만주 숲속의 여름 덤불은 두꺼운 인도 테라이(Indian Terai) 만큼이나 뻑뻑해서 빠른 속도로 전진하기가 정말 어려웠다. 만일 군수물자를 덜 가져오고 통조림 식량을 더 가져왔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짐의 규모는 대체로 필요한 것만 꾸린 셈이었다. 가져온 조그만 카불(Cabul) 텐트는 구릉지대에서 숙영할 때 매우 유용했다. 유일한 사치품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양이 되었던 화이트헤드 수프와 말린 프랑스 채소였다. 그리고 약간의 칩가루, 우유, 아플 때를 대비한 리비히(Liebig) 추출물도 가져왔다. 우리

가 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 금주가들은 흥미를 느낄지도 모른다. 우리 중 한 사람은 금주가였다. 두 번째 사람은 술은 상관없으나 물을 마신다고 말했다. 세 번째 사람도 유행에 뒤쳐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약간의 브랜드와 위스키를 가져왔고 치료와 선물로 유용했다. 차는 비상용 물품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술을 약간 더 마시고 차를 약간 덜 마시는 것이 반드시 더 안 좋은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너무 많은 차는 사람을 짜증나게 만든다. 적어도 필자는 이를 증언할 수 있다. 우리는 25개의 말굽은을 가져왔고 평가 절하된 은 가격으로 환산하면 개당 12파운드를 약간 넘는 액수였다. 우리는 10개의 말굽은을 얻을 수 있는 묵텐의 어음을 갖고 있었고 일부는 은 부스러기와 소액 은행권들이었다. 여행과정에서 우리는 주괴를 파손된 말굽은으로 바꾸곤 했다. 우리는 이 조각들의 무게를 잴 수 있는 한 쌍의 작은 저울을 갖고 있었고 하인들은 은 조각들을 지폐와 현금으로 바꿔왔다. 원격지에서는 환전이 힘들었다. 상인들은 은의 순도가 나빠지거나 우리가 잰 무게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면서 환전을 완전히 거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마을이나 도시에서 몇 마일을 벗어나면 어떠한 지폐도 유통되지 않았다. 그러나 폴포드가 경리를 맡아 어려움 속에서도 재능과 인내를 발휘하며 잘 운영했다.

우리의 계획은 먼저 묵텐에 가는 것이었고,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 압록강 발원지까지 올라간 뒤 가능하다면 분수령을 건너 두만강 아래 훈춘까지 내려올 예정이었다. 여행 도중에는 일부 권위자들이 왕립지리학회 지도에 높이를 해발 10,000~12,000피트라고 표시한 눈 덮인 봉우리들을 몇 개 찾아볼 생각이었다. 우리가 아는 한 어떤 유

럽인도 이 지역을 방문해본 적이 없기에 18세기 초의 예수회 선교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희귀한 자연사 견본이나 흥미로운 지리학적 정보를 얻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훈춘에서 국경을 따라 Ning'an으로 가려했고 거기서부터 송화 강의 배들을 감시하는 요새인 산싱을 거쳐 북만주의 수도인 치치하얼로, 그리고 다시 아무르 강의 긴 제방 위에 있는 아이훈으로 향하여 블라고베센스크의 러시아 주둔지를 방문하고 중앙 만주의 수도인 지린을 통해 잉커우로 돌아오려 했다. 후에 독자들이 깨닫게 되듯이 우리는 창바이산맥의 중심으로 길을 잡았으나 그곳에서부터 훈춘으로 가는 도로가 강수량이 늘어나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지린으로 방향을 바꾸고 시간부족을 이유로 아이훈을 생략한 뒤 역순으로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계획한 여행을 계속했다.

우리는 5월 19일에 잉커우를 출발했다. 둘째 날, 약 5만 명의 주민들과 좋은 상점들이 늘어서있는 진짜 뉴장을 지났다. 다음 날에 랴오양에 닿았는데,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오래된 도시는 뉴장보다 두 배 더 크며 제2장에서 언급했던 모문룽 군대의 세 장군 중 한 사람인 공유덕을 기리기 위한 오래된 훌륭한 탑이 서있었다. 공유덕은 모문룽 장군이 죽은 뒤 만주족에 합류하여 중국 남부지방의 독재자로 신분이 상승하기도 했다. 평탄하고 그리 재밌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양귀비 재배를 보았던(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잦은 길 옆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양귀비를 심는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지방을 120마일 여행한 뒤 마침내 우리는 묵텐 혹은 선양에 닿았다. 이 길에서 우리는 만주 전역에 존재하는 중국 여관이란 것을 처음 경험했다. 중국의 가장 황량하고 비문명화된 지역에만 여관이 없을 뿐이다. 이런 면에서 중국인은 미국인과 비슷

하다. 왜냐하면 새로운 거주지를 만들 때마다 우선적으로 술집과 채소가게 및 의복가게라는 공동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여관을 세운다. 숙소가 고급스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행객들은 여전히 감사한 마음일 것이다. 여관 표지판은 항상 나무로 조각한 물고기로 높은 장대 끝에 걸려 있다. 물고기 입에는 다섯 개 또는 그 이상의 굴렁쇠가 달려있고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터키식 붉은색 또는 화려한 술로 장식되어 있다.

목텐의 큰 길 위에 있는 여관들은 대부분의 여관보다 등급이 높다. 일반 여관은 모든 손님들이 함께 먹고 자는 공동실 하나만 있다. 그러나 이곳의 여관들은 공동실 외에 작은 별실들을 갖고 있으며 약 10~12평방미터의 크기로 꽤 안락하다. 새로 온 사람에게는 공동실이 가장 흥미롭다. 여관들은 만주의 모든 건물처럼 단층이며 공동실이 내부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약 2.5피트 높이와 5피트 너비로 양쪽에 늘어선 벽돌단과 중간에 약 6피트 폭의 통로가 달린 길고 낮은 방을 상상해보라. 이 벽돌단 위에서 손님들은 침구를 펴고 저녁이 준비될 때까지 누워 있다. 식사가 준비되면 일어나 음식이 차려진 작은 상 앞에 터키 황제처럼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식사를 시작한다. 손님들은 모두 같은 계층 출신들이다. 즉 훌륭한 상인들, 하급관원들, 화물관리인들, 수레꾼들이다. 각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저녁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조용히 누워있거나 코담배처럼 생긴 담배를 작은 놋쇠 용기와 긴 검은 목재 대가 달린 파이프 혹은 새그린 가죽으로 장식된 간편한 놋쇠 수연통이 달린 파이프에 담아 핀다. 군인이나 부유한 상인 손님들은 종종 아편을 흡입한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즉 램프와 머리핀에 달린 불에 그을린 약간의 아편과 플루트 모양의 파이프에 관해서는 앞에서 종종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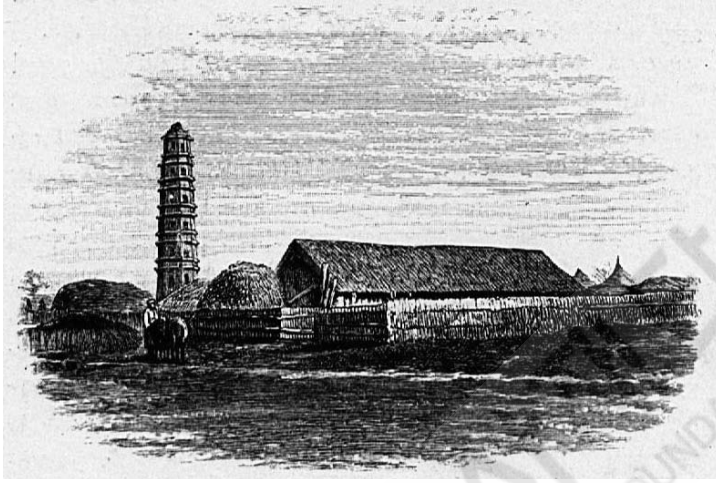


그림 2 목텐 남부 소재 탑

술했었다. 아편 흡입을 자주 보게 된 이후로 필자는 아편에 굴복하는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하기 때문이다. 거듭거듭 지켜보았으나 실제 피우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누워 아편을 그을린 뒤 약 15분 간 빙빙 돌리며 늘 한 모금을 다 빨지 않는다. 준비과정 자체를 크게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예전에 언급했듯이 중국에 있는 아홉 달 동안 보게 된 파이프를 물고 있는 수백 명의 중국인보다 더 나쁜 사람을 본 적은 거의 없다.

다시 여관 이야기로 돌아가자. 별실—최고급 여관에서는 하인에게 주는 소액의 팁을 포함하여 하룻밤에 약 6펜스에 불과하다—에 묵든 다른 방에 머물든 저녁식사와 잠자리 요금은 매우 싸다. 저녁식사 가격은 6펜스 또는 1실링이다. 우리는 보통 가져온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요금은 온수 사용이 포함된 것에 불과했다. 여관이 도처에 널려있다

는 점에서 인도인과 비교해 중국인의 우수성은 가장 두드러져 보인다. 인도에서는 카스트라는 신분제도로 인해 여관이 허용되지 않으며 정부나 자선가에 의해 건설되는 공공 휴게실은 가난한 이슬람교도나 최하층 힌두인만 사용한다. 중국 여관이 지닌 한 가지 좋은 점은 다음과 같다. 여행 내내 필자는 빈대 한 마리만 구경했다. 빈대는 흔하지만 키팅의 가루약 덕분에 별로 괴롭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작은 바퀴벌레가 수백만 마리나 돌아다녔다. 그러나 바퀴벌레는 해롭지 않았고 공격적이지도 않아 아침에 베개 밑에서 시계와 손수건을 찾으면서 한 움큼의 바퀴벌레를 꺼낼 때를 제외하고는 무시할만 했다.

목덴은 양쪽으로 약 1마일 길이의 멋진 성벽으로 둘러싸인 훌륭한 도시이다. 이 성벽들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중국인의 무례함을 겪어 보았다. 어느 날 저녁 성벽 근처를 걷다가 우리에게 욕과 야유를 해대는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아무런 해는 입지 않았다. 목덴 외곽은 성벽 너머로 1마일 남짓 뻗어 있고 진흙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도시 중심부에는 내성이 있고 내성의 방벽 안에 벽과 지붕들이 황제의 색깔인 노란색으로 칠해진 작은 궁이 있다. 그러나 입구는 이방인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다. 구릉지대의 사냥꾼들은 나중에 우리에게 누르하치의 장화와 보따리가(그는 위인이었지만 행상인으로 삶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 궁에 성스러운 유품으로 보존되어 있다고 말해 주었다.

목덴은 현재 지방의 수도에 불과하지만 25만 명을 상회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전히 과거의 영광들을 보여주는 유적들을 보유하고 있다. 베이징에 있는 가장 훌륭한 목적지 중 하나는 천단(天壇)으로 세 개의 원형 대리석 테라스 위에 높은 3중 지붕을 이고 있는 멋진 대리석 구조물이다. 그 곳에서 황제는 봄에 씨를 뿌릴 때 축복을 기원

하거나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하기 위해 옥황상제에게 직접 제물을 바친다. 황제만 이 의식에 참여하며 의식은 중국인 사이에서 가장 장엄한 종교적 기능을 갖고 있다. 누르하치의 아들인 홍타이지는 이를 흉내내어 묵텐에 소규모의 천단을 지은 뒤 자신을 황제라 칭하고 명나라에게 그들과 동등자로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신전은 도시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작은 경내로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중앙에 제단이 있고 둥근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제단에 서면 벽은 놀라운 메아리를 들려준다. 마찬가지로 이제 폐허가 되었지만 베이징에 있는 것을 모방하여 만든 정방형인 지단(地壇)이 있다.<sup>1</sup>

도시 동쪽으로 4~5마일 떨어진 언덕 위 어두침침한 소나무 숲 깊은 곳에 큰 무덤이 있는데 그 앞에는 장례실이 있고 정면에 대기실이 있으며 전체는 높은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것이 복릉(福陵)이라는 곳으로 태조 또는 위대한 조상인 왕조의 창건자 누르하치가 누워있는 곳이다. 사원과 벽은 노란 제국 기와로 덮여있다. 남문 또는 대문은 훌륭한 구조물이며 세 개의 문과 풍성하게 장식된 지붕이 있다. 양쪽의 벽에는 녹색 마울리카 도자기로 만든 얇은 부조가 있으며 거대한 황제의 용, 즉 다섯 개의 발톱이 달린 용을 상징한다. 이것은 필자가 중국에서 본 도자기 중 최상급이다. 문으로 올라가는 길은 거대한 조각석으로 만든 높이 솟은 두 패루<sup>2</sup> 사이를 지나게 되며 높은 기둥의 바닥은 개구리

<sup>1</sup> 건륭제에 따르면 홍타이지의 치세 5년(1631)에 이 천단과 지단을 세웠고 묵텐의 현 궁궐과 성벽들도 건립했다.

<sup>2</sup> 패루는 개선문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중앙 부분이 가장 높다. 사망한 병사들을 기리기 위해 중국인이 공들여 세운 기념물로 만주에서는 대개 벽들이나 나무로 만들며 화려하게 장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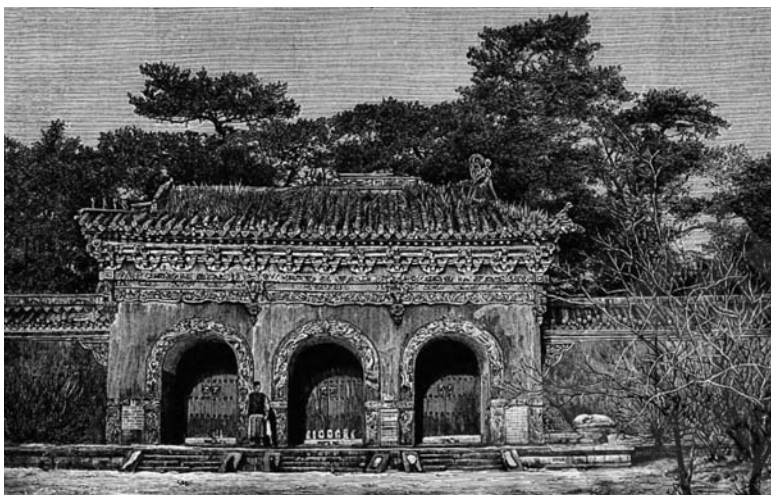


그림 3 만주왕조 창건자 누르하치 묘 북릉의 남문

의 형상으로 조각되었다. 그 너머에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각각은 꼭 대기에 사자를 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당당하게 누워있는 두 마리의 사자들이 성스러운 정문을 수호하고 있다. 각 문의 중앙 쪽으로 구리로 만든 커다랗고 기묘한 문고리가 달려있으며 이는 더램(Durham) 성당의 커다란 문고리와 크기와 특징이 같다. 이것은 황소의 머리를 상징하며 두껍게 도금되어 있다. 관목들이 공원 주변에 아무렇게나 자라고 있고 지붕과 길에는 이끼가 끼어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묘지는 잘 관리되고 있다. 당대의 위인들에게는 적절한 휴식처이자 동양의 왕조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왕조 중 하나의 주인임을 보여준다. 만주족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경내에 들어갈 수 없으며 중국인의 경우 사형으로 처벌된다.

묵텐의 북쪽에는 북부 묘지인 북릉(北陵)이 오래된 히말라야 삼목 숲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거기에는 누르하치의 아들인 흥타이지가 누

워있다. 묘지는 산사나무와 다른 달콤한 꽃들을 피우는 나무들로 이루어진 쾌적한 관목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곳에서 꿩들이 온화한 봄에 울고 있었다. 대문 밖 오르막 계단의 꼭대기에는 정말 웅장한 기념비인 멋진 대리석 패루가 서있었고 기념비에 이르는 길의 초입에는 거북이의 등 위에 두 개의 거대한 평석이 놓여 있어 여행객들에게 몇 가지 다른 언어로 ‘여기서부터는 모두 말에서 내려야합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도시 남쪽으로 1~2마일 정도 떨어진 훈 강의 다리 근처에서는 훙타이지와 그의 친구들인 몽골족과의 오랜 동맹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유적은 라다크에서 볼 수 있는 초르텐과 매우 비슷한 거대한 사리탑 모양의 기념비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남문에서 멀지 않은 오래된 관목숲 속에 있다.

건륭제는 묵덴을 칭송하는 시를 지었고 학식 있는 페르 아묘(Pére Amyot)에 의해 번역되어 볼테르의 관심을 끌었다. 볼테르는 중국에서 시를 짓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필수사항들을 황제에게 묻는 질문을 담은 서간체의 시를 작성했다.<sup>3</sup> 건륭제의 시는 64가지의 서로 다른 중국 필체로 인쇄되었다. 이 시에서 건륭제는 선조인 누르하치가 치세 10년<sup>4</sup>에 묵덴 터를 선택했고 ‘하늘의 섭리’라 칭했다고 말한다. “짐의 복을 방해할 모든 위험들과 이를 피할 가장 좋은 방법을 궁리해본 끝에 악의 기운이 누르하치를 괴롭힐 수 없는 곳을 찾아보도록 하자.”<sup>5</sup> 중앙으로

<sup>3</sup> Boulger, *History of China*, vol. 2, p. 540.

<sup>4</sup> 1625년.

<sup>5</sup> 다른 말로 하면 좋은 풍수(제6장)를 지닌 장소. 페르 아묘는 특정 장소의 기후 환경 의학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점성학적 계산법에 관해 흥미로운 설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기서 인용하기에는 너무 길다.

간다면 짐을 해하려는 그들을 막아낼 수 있으리라. 선양 지방이 짐을 부른다. 그곳에서 짐 누르하치는 최상의 길운을 발견하리라. 거기에 짐의 궁궐을 짓겠다. 계획이 결정되자 바로 실행에 옮겨 목텐이 건설되었고 서방의 모든 세력들에 맞서는 확실한 요새가 되었노라.” 이러한 시가 주는 암시가 애국적인 중국인의 마음을 상하게 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목텐에서 며칠간 유쾌한 날들을 보내면서 멋진 장로교 선교사들을 알게 되었다. 잉커우에서 가져온 어음 한 장을 120파운드에 바꾸면서 우리는 중국 은행거래에 대해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 비록 여관에 의존하긴 했으나 여관 주인은 돈이 자기 것이 아니라 당시 이곳에 근거지를 두고 먼 곳에서 옷을 팔던 손님 소유라고 말했다. 손님이 나타났는데도 주인은 어음을 바꾸는 데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다. 참는 것에 익숙해진 폴포드는 마침내 어음을 현금화하는 데 성공했고 또 다른 전주는 우리에게 치치하얼에서 통용되는 비슷한 액수의 어음을 주었다. 어떠한 어음도 지린이나 훈춘에서는 통용되지 않아 우리는 나머지 돈을 금으로 가져가야 했다.

중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는 주판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모습이 진기해 보인다. 전주의 점포나 대형 여관에서는 주판알을 튕기는 소리가 계속해서 때로는 음악리듬 같이 들린다. 주판 사용으로 인한 정확성은 대단하고 또 신속해서 홍콩과 상하이 은행 및 외국 상인의 사무실에 있는 서기들은 검산을 위해 습관적으로 중국인 아랫사람을 불러 주판을 놓도록 한다. 주판은 직사각형의 상자라 가로 세로 각각 약 12인치와 8인치이며, 가로로 두 개의 불균등한 부분으로 나뉘고 각각에는 철사들이 있어 그 위에 검은 나무알들이 수평으로 된 열에 달려있다. 위

쪽의 커다란 부분에 있는 알들은 정수 단위를 상징하며 영국 계산법처럼 십진법을 따르고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작은 부분은 다섯이나 열을 상징한다. 영국의 아동학교나 장난감가게에서 매우 비슷한 도구들을 발견할 수 있다. 러시아인도 주판을 사용하며 우리가 만난 러시아 장교는 주판이 없으면 덧셈을 하지 못했다. 주판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합계를 내는 과정에서 도중에 방해를 받거나 잊어버릴 경우 계산을 망치게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레를 짐 싣는 노새로 바꾸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이유는 미지의 산맥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하자 여관주인은 노새시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린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우리는 구매를 결심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당일 그 곳으로 갔을 때, 발견한 것은 높고 완전히 지쳐 쓸모없는 노새뿐이었다.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지방행정관인 다오다이를 방문했으나 대인은 일부러 집을 비웠고 나중에 문체는 공손하지만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한 전문을 보내왔다. 거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훈춘의 한 부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노새 마부인 친척을 둔 어느 하급 장교가 앞으로 나와 우리를 데려갈 사람들과 계약조건을 교섭했다. 요금은 비쌌고 노새들은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급 장교를 동반하고 출발했다. 우리는 20마리의 노새를 갖고 있었고 그 중 12마리에는 짐을 싣고 3마리는 직접 탔다. 조랑말은 구릉지대에서 소용이 없을 것 같아 3마리는 하인들에게, 2마리는 하사관과 노새몰이꾼에게 번갈아 배정했다. 노새몰이꾼은 3명이었으나 뒤늦게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따로 두 사람을 더 고용해야 했다.

목텐에서 출발할 때의 모습은 아름다웠고 기분도 상쾌했다. 그러나

불쌍한 노새들은 짐을 너무 많이 싣고 있어 매우 느리게 걸었다. 한 마리는 절룩거리다 죽었고 다른 한 마리는 피부가 벗겨져서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우리는 붉은 담요와 무거운 토착 등자를 얹은 전통적인 안장 위에 앉았다. 출발하기 전 노새를 오래 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예감했고 따라서 우리가 쓰던 안장들을 뒤에 남겨두고 왔다. 폴포드와 필자는 접근을 막는 듯한 분위기의 연발권총과 총을 각각 한 정씩 갖고 있었고 특히 필자는 등에 식물표본이 담긴 양철상자를 지고 있었다. 원정대의 과학 담당인 영허즈밴드는 진중근무 중인 인도군의 서발턴보다 더 많은 기구들을 짊어지고 있었다. 한쪽 어깨 위에는 망원경이 달려 있었고 다른 쪽 어깨 위에는 T형 아네로이드 기압계가, 목둘레에는 분광 나침반이 걸려 있었으며 허리에는 온도계가 있었다. 그리고 스케치 도구가 엉덩이에, 공책은 가슴주머니에서 불쑥 빠져나와 있었다. 순진한 원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에 정말 적절했다. 불운하게도 그날 모든 부대가 출동하여 동부도로에 줄지어 서서 대전사인 군사 감독관을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부대를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우리 행렬은 병사들과 군중들에게서 심한 비난을 들어야 했다. 그들은 종종 진흙이나 오물을 장난스럽게 던지며 우리를 엄청나게 조롱했고 필자는 정말 불쾌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무사히 빠져나왔고 다른 지방으로 향하면서 생기가 솟았다.

우리는 5월 29일 묵덴을 출발했다. 랴오허의 큰 지류인 훈 강의 계곡을 따라 길을 잡았다. 이 지방은 나무가 많았고 매우 아름다웠다. 둘째 날 우리는 예전 중국의 국경 도시이자 누르하치가 가장 먼저 공격을 시작했던 푸순 성을 지났다. 그 뒤, 구릉지대로 들어가 훈 강의 지류인 속수후 강을 따라 사르후를 지났다. 사르후는 만주족과 중국인 사이에

서 벌어졌던 대회전의 무대로 그에 관한 이야기가 건륭제 41년에 현장에 세운 멋진 대리석 석판 위에 만주어와 중국어로 새겨져 있다. 네 번째 날에는 무지 마을에 닿았다. 마을 너머에는 오래된 느릅나무길이 작은 오솔길 밑으로 나있었고 그곳의 광경은 훌륭했다. 언덕을 내려와 우리는 만주왕조가 발흥한 후투알라 계곡으로 들어갔다. 몇 마일 더 가서 우리는 폐허가 된 경내에 아홉 개의 별채로 이루어진 고궁을 지났고 윈링에 닿았다. 윈링 마을에는 병사들이 가득했고 아름답게 우거진 언덕을 지키고 있었다. 언덕 꼭대기에는 누르하치 조상들의 무덤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덕 기슭은 썩어가는 사슴뿔로 된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었고 약 12마일의 원을 이루고 있다. 3~4마일 너머에 있는 별도의 조그마한 언덕 위에는 ‘번영의 수도’인 싱강이 있다. 지금은 썩어가는 문과 성벽들이 있는 조그마한 마을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관청과 판관 사무실이 있다. 거기서 남쪽으로 2마일 떨어진 곳에 첫 번째 수도이자 필자가 생각하기에 원래의 오도리라 짐작되는 라오청의 유적이 있다. 이주민들은 현재 이곳과 인근 계곡에 대거 정착하는 중이고 숲의 나무들이 빠른 속도로 베어져 나가고 있다. 이웃의 풍경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나무와 꽃과 이끼 낀 비탈들—자연 예찬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이다. 채집을 시작한 첫날 필자는 계곡에서 다섯 가지 이상의 백합들을 발견했고 기슭 전체가 백합으로 덮여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경치를 보면서 몸을 구부려 한줌의 꽃을 따서 향기로운 냄새를 길게 들며 마신 뒤 꽃을 내던져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인근의 공작고사리도 예뻐다. 섬세한 잎들은 키 작은 킷처럼 가느다란 줄기 꼭대기에서 방사상으로 퍼져나간다. 좀 더 지나서 우리는 향기로운 노란색 하루살이 백화꽃송이들을 발견했다. 이 꽃의 아름다운 색깔에 관

해서는 예수회 신부들이 거의 200년 전에 높이 평가한 적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커다란 분홍색의 난초들과 아네모네 속의 초본들, 향기로운 수수꽃다리들, 제비꽃과 만수국처럼 생긴 꽃들을 발견했다. 아름다운 중국 오리들이 모든 연못과 개천에 살고 있었고 산꼭대기에서는 수평의 울음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원링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짐을 실은 노새들을 쉬게 하기 위해 노새 타는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노새와 조랑말 한 마리씩을 구매했다. 그리고 다시 나무로 뒤덮인 언덕들 사이로 나아갔고 방향을 꺾을 때마다 풍경이 점점 아름다워졌다. 싱깅에서 13마일 떨어진 곳에서 신민부를 지나게 되었는데 이곳은 장이 서는 도시로, 최근 12년 내에 세워져 현재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었다. 이전에는 이곳이 비적들의 소굴이었는데, 비적들을 소탕하는 데 투입되었던 우리 하급 장교는 200명이 어떻게 포위되어 바로 이 계곡에서 사살되었는지를 설명했다. 우리는 숙수후 강을 따라 구릉지대의 발원지까지 갔고 해발 약 2천 피트 높이의 분수령을 지나 목텐을 떠난 지 아흐레 되는 날에 목텐에서 약 160 또는 170마일 떨어진, 상주 관관의 소재지인 통화 현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이곳은 한두 개의 여관과 몇 개의 상점들이 있는 작은 곳에 불과했고 주민들 수도 2천 명 이상을 넘지 못했다. 높은 석벽이 마을 둘레에 건설되어 있었고 마을은 압록강의 커다란 지류인 훈 강 강변에 매혹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터는 좋지 않았다. 불과 1년 전에 강이 범람하여 성벽의 커다란 부분들을 쓸어내렸고 관청들을 진흙탕으로 만들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짐을 나를 수 있는 짐승들을 더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결국 세 마리의 조랑말과 한 마리의 노새를 샀지만 구매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다. 노새는 장님이었으며 버릇

이 나뻐다. 중요한 지점마다 낭떠러지의 끝에서 자주 짐을 내던져 어느 날 노새가 계속 가기를 거부하고 몇 시간 만에 죽자 우리 모두는 차라리 안도감을 느꼈다. 조랑말은 며칠 간은 괜찮았으나 하나둘씩 양 어깨 사이의 용기에 놀랄만한 종양들이 생겨 거의 쓸모가 없어졌다. 결국 중국 마상들이 우리를 속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짐을 줄이고 짐한 바리를 묵텐으로 돌려보냈다(그런데 짐은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다). 우리는 무거운 여러 개의 상자들을 고리버들 세공의 등광주리로 바꾸기도 하고 적당한 무게의 짐을 노새에게서 내려놓기도 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출발했다. 통화 현에는 비가 내리가 시작했고 3개월 동안 거의 그치지 않고 계속됐다. 우선 훈 강은 몇 시간 만에 10피트를 기록하며 범람했고 우리의 일정은 한 주 이상 지연되었다. 날씨가 꺾 때마다 우리는 밖에 나가 집오리나 야생오리를 잡았다. 어느 날은 익사한 불쌍한 중국인을 발견하기도 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붙잡아 매장하려 들지 않았다. 우리는 관관을 방문했는데 이 중국 관리는 머리에 투명한 크리스탈 품석을 달고 손가락에는 옥반지를 끼고 있었으며 옥으로 된 아름다운 목주를 몸에 걸고 있었다. 목주는 차오주라 불리는 것으로, 달라이라마가 금구슬로 만든 것을 순치제에게 선물로 가져온 이래로 관리들에게 널리 퍼졌다고 전해진다. 그는 말씨는 공손했지만 무례하게도 우리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다른 날, 우리는 금 캐는 것을 구경하러 갔는데 광부들의 말다툼 때문에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인근에 은광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멀리까지 갈 수 없었다. 훈 강을 타고 떠내려 오는 거대한 목재뗏목의 모습은 장관이었다. 통나무들은 벌목된 뒤, 가장 가까운 골짜기로 던져져 강이 범람할 때까지 방치된다. 그 뒤에는 주요 수로의 적절한 지점에 집결시켜 뗏목으로 엮은

다음 바다로 띄운다. 주요 목재 야적장은 압록강 어귀의 다동에 있으며 그곳에서는 여름에 4만 명 이상의 뗏목꾼들이 나무들을 모은다. 목재가 쌓여있는 곳의 면적은 무려 깊이가 반 마일에 넓이는 2.5마일이나 된다. 우리는 직경 4피트나 되는 몇몇 거목들이 베어져 길이 15피트의 똑같은 통나무로 잘려지는 것을 보았다. 거의 중국 전체가 현재 다동에서 나무를 얻는다.

훈 강이 물이 불어 나룻배를 띄울 수 있게 되자(왜냐하면 우리는 묵텐에서 다리들을 뒤에 남겨놓았었다) 우리는 큰 강을 두 번 건너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강을 건너 더 멋진 풍경들이 보이는 훈 강의 지류 위에 있는 힘로로 직행했다. 그러나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개천을 또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로주안커우라 불리는 계곡에 있는 누추한 노변 여관에서 나흘을 보내야 했다. 이 여관이 우리가 묵은 여러 곳의 숙박집 가운데 적절한 예를 보여주므로 서술해보고자 한다. 약 40피트 길이의 작은 초가집을 상상해보라. 지붕은 서까래에 얹혀 있고 창문은 틀만 남았으며 창호지는 사라지고 없었다. 가운데 문이 있고 늘 그렇듯이 구들이 벽을 따라 있으며 더러운 침구로 덮여 있었다. 그 위에는 들들 말린 오래되고 더러운 침구, 양가죽 외투, 솜 넣은 면 옷들, 모든 종류의 여행자 기구 등이 쌓여 있었고 노동자와 농부들이 쭈그리고 앉아 먹고 마시고 자고 있었다. 입구 양옆에는 큰 솥이 있어 그 안에서 엄청난 양의 돼지고기, 수프, 채소들이 여행자들을 위해 요리되고 있었다. 거기서 나오는 매운 냄새는 케케묵은 담배 연기들과 섞여 끊임없이 건물에 퍼지고 있었다. 70대의 할머니부터 10살짜리 소년 소녀까지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 한가운데에는 요리용으로 사용되는 벽돌로 된 직사각형의 덩어리인 원시적인 화덕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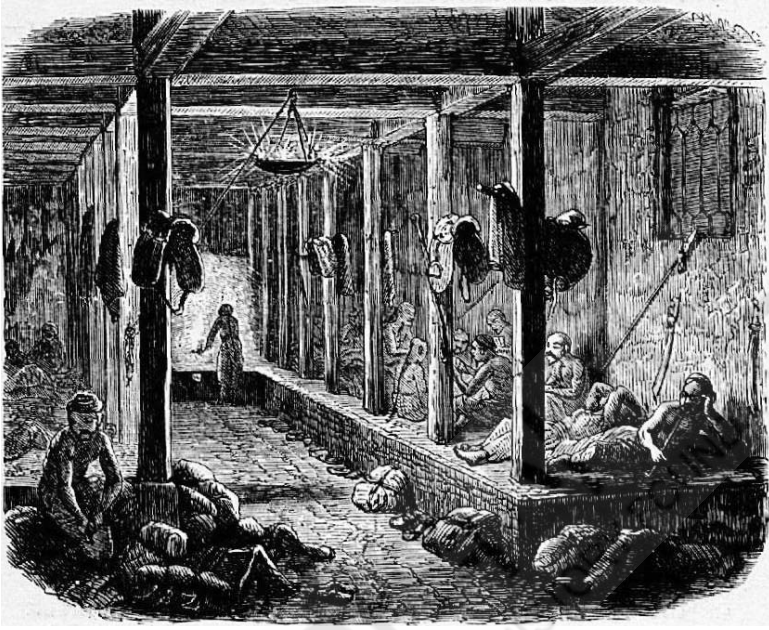


그림 4 여관 내부

높이는 약 3피트에 중앙은 움푹 꺼져 있으며 아치형의 덮개가 달려있고 그 안에는 요리용 냄비들을 데울 수 있도록 구멍들이 뚫려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두부를 갈기 위한 커다란 맷돌이 있었고 다른 구석에는 절인 배추와 무를 담아두는 거대한 토기 혹은 방수 목제 상자가 있었는데 끔찍한 냄새를 뿜어내고 있었다. 건물 끝에는 가로 세로 각각 약 18피트와 10피트 정도의 방을 만들고자 널을 둘러놓았는데 그 곳은 통상 집주인 가족들이 점유하나 이번에는 우리가 차지했다. 방 한쪽에는 구들이 있었고 우리는 중국인처럼 그곳에서 앉고 먹고 자며 생활했다(양복장이처럼 한 사람이 바지자락을 걷어 올리고 식사를 하는데, 곧 그런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다. 고대 로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눕는 것보다 훨씬 더 편

하다). 다양한 낡은 궤들, 토기들, 조잡한 상자들과 선반들이 가재도구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문 쪽으로 재신(財神)의 조야한 그림이 걸려있고 양쪽 구석에는 돈의 선용과 악용을 상징하는 검은 마귀와 흰 천사가 있었다.<sup>6</sup> 그림 옆에는 붉은색 종이 두 장이 달려 있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는 부자가 될 것이다’와 ‘아들과 손자들을 소중히 하는 자는 부자가 될 것이다’라는 전설을 담고 있었다. 독자들은 부자가 된다는 것이 전형적인 미국인의 주요 목표이고, 중국 여관도 모두 재신에 대한 패를 갖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중국인도 미국인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눈치 챌 것이다. 그림 아래에는 일종의 제단으로 사용되는 상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 조잡한 철제 향로와 백랍 꽃병 및 두 개의 백랍 촛대가 놓여있었다. 가장 멋진 사원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제사를 위한 제기들을 갖추지는 못한다.

우리 방을 살펴보면 두 개의 서투른 그림들이 다른 벽을 장식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의 상징인 현금을 숭배하는 두 명의 소년들을 보여주며, 다른 그림은 혼잡스러운 전투장면이다. 서까래와 기둥들은 먼지가 오랫동안 쌓여 검은색이고 각종 낡은 장비들과 양가죽, 바구니, 경작기구들이 달려있다. 흙으로 된 마루는 축축하고 구멍으로 가득 차 있다. 구석 끝에는 솥들이 있어 꼬질꼬질한 소년이 노새를 먹일 기장 줄기를 써는 데 쓰는 칼을 정기적으로 갈고 있다. 그 옆에는 분명 수개월 동안

<sup>6</sup> 중국에서 왼손은 명예의 소재지이다. 재신의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서양의 마호메트라 할 수 있는 검은 얼굴을 하고 있으며 그 어떤 것도 주어지기만 하면 마법을 통해 사람들이 주조하고 싶어 하는 귀중한 금속인 금이나 은으로 바꾸어 놓는 그릇을 손에 쥐고 있다. 왼편의 웃고 있는 인물은 필자가 아는 한 명예만을 관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닥을 청소하는 데 썼을 용구들을 두었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솔이 있었다. 주인의 가족이라고는 깊고 낮은 목소리를 지니고 침구를 정리하거나 작은 일을 돌보는 늙은 할머니뿐이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 가족용 침구를 날랐고 우리들은 침구를 상자 꼭대기에 안전하게 둘 수 있도록 도왔다. 밤에는 침구 때문에 다시 왔다. 부인은 여관의 요리사이다. 우리는 피곤에 지쳐 구들에 누워 독서<sup>7</sup>를 하거나 빗소리를 들으며 그치기를 바랐다. 종종 조그만 아이가 롤리팝 사탕을 얻고 싶어 엿보거나 몇몇 농부들이 낫선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부정한 모습으로 들어와 우리를 쳐다봤다. 왜냐하면 가장 천한 중국인에게는 ‘외국 악마’에 대한 소개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동안 우리를 흥미롭고 무던 표정으로 쳐다 보았다. 그리고는 한 명이 친구를 돌아보며 “저토록 이상하게 생긴 짐승들을 본 적이 있나?”라고 말하며 큰 웃음을 터뜨리고는 바닥에 침을 뱉고 다시 나갔다. 우리 중 한 명은 종종 진창을 뚫고 인근의 개천까지 나가 물이 줄어 들고 있는지 살피곤 했다. 비로 인해 여행을 중단하고 멈추기만 기다려야 했기에 며칠을 허비해야 했다. 조금 단조로운 생활이었다.

날이 개자 우리는 숲과 산속으로 즐겁게 걸어 들어갔다. 숲과 산들은 나무가 우거진 매혹적인 계곡들 위쪽과 풀 많은 비탈길을 가로질러 있었고 영국 공원처럼 드문드문 오크나무가 있었다. 필자는 신선한 양치류 여섯 가지를 얻었고 매일 새로운 꽃들과 마주쳤다. 백합들은 특히 절묘했다. 낭떠러지에는 분홍빛의 백합 변종들이 자라고 있었고 덩

7 다른 무엇보다도 폴포드는 오래된 ‘챔버스의 잡지(Chambers’s Journals)’ 몇 권을 가져왔는데 정말 소중한 물건이 되었다. 매 호가 그 자체로 도서관이었다.

불 속에는 컵 모양의 커다란 참나리가, 언덕 기슭에는 노란색의 하루살이 백합들과 주홍색의 또 다른 작은 백합들이 빛나고 있었다. 별 모양의 흰색 꽃들이 절묘한 향기를 풍기는 클레머티스도 있었다. 우리 중에서 위대한 사수였던 폴포드는 아름답고 진귀한 물총새 한 마리와 산메추라기 몇 마리를 잡았다. 수평이 우리가 있던 곳에서 약 600피트 정도 높은 언덕 기슭에서 울곤 했는데, 울음소리를 들으며 래틀러로 하여금 뒤를 쫓게 하고 우리는 길고 젖은 풀밭을 참을성 있게 통과했다.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을 알면 꿩은 번개처럼 언덕 꼭대기로 날아갈 것이었다. 뒤쪽에서 총포수가 혈떡이며 따라오는 동안 래틀러는 새가 험곡 아래로 떨어지는 때에 맞추어 빠르게 쫓아갈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제 시간에 꿩을 잡는다면 고기 저장소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기쁠 것이었다. 어느 날 폴포드는 위험한 사고를 당했다. 숲속 깊은 길을 헤치고 가다가 사슴을 잡기 위해 설치해 놓은 12피트 깊이의 함정에 걸려 빠져 버린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함정은 매우 협소해서 팔꿈치로 추락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크게 다칠 뻔 했다. 구덩이는 감탄스러울 정도로 나뭇잎과 가지들로 잘 숨겨져 있어 어느 누구도 찾아낼 수 없었다.

이 부근에는 매우 원시적인 탄광들이 몇 개 있었다. 입구는 매우 가파른 계단 쪽으로 열려 있었고 지붕은 씩어가는 말뚝과 관목으로 받쳐져 있었으며 모든 것이 매우 축축하고 더러워 우리는 탐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목덴 근처에서 탄광지대를 측량했던 광산 기사는 라오동 석탄이 최상급 카디프 석탄과 맞먹는다고 말한다. 수갱은 45도 각도와 약 500피트의 깊이로 파고, 짧은 운반대의 양 끝에 달린 두 개의 바구니에 담긴 채탄은 무게가 70~90파운드나 나간다. 체력이 강한

사람은 하루에 30번 왕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강도 옆에는 주철소가 있어 모래로 된 주형에서 간단한 주물들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용광로는 점토 껍질에 불과했으며 네 명의 사람들이 계속 발판을 밟는 한 쌍의 거대한 풀무에 의해 열풍로가 작동되고 있었다.

강물이 줄어들자 다시 출발했지만 시작부터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났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한쪽이 가파른 강변이었고 다른 쪽은 통행이 불가능한 습지 사이로 나 있었다. 이렇게 어려운 길이라 노새 한 마리가 강 쪽으로 굴렀고, 구르면서 일행 중 한 사람을 발로 차 개천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심하게 다쳤다. 짐은 무사했지만 폴포드의 담배 전부와 화약 일부가 상했으며 끊임없이 깊은 강물들을 건너야 해서 여행이 크게 지체되었다. 노새꾼들은 별거벗고 짐들을 한 번에 한두 개씩 가장 힘센 노새들에게 옮기면서 잘 헤쳐 나갔다. 강을 피하기 위해 라오예링 산맥을 올랐고 해발 2천 8백 피트에 달하는 숲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앞에만 길이 산 급류의 바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정말 가기 어려웠다. 노새는 자주 넘어졌고 한 마리는 두 번이나 우리의 포들을 물속에 빠뜨렸다. 그러나 거친 돌바닥과 힘센 강에 비하면 놀랄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새벽에 출발하여 정오에 노새들에게 꼴을 먹이고 식사를 위해 두 시간 남짓 쉬 다음 해 질 녘까지 계속 전진했다. 만일 우리가 숲을 빠져나와 어두워지기 전에 쉴 곳에 당도한다면 감사할 일이었다. 마침내 우리는 폭이 약 350야드에 달하는 장대한 압록강에 닿았다. 독을 따라 난 길은 곳곳이 매우 협소하여 바위를 부수고 길을 넓혀야 했다. 어느 심하게 더운 날에 길을 내고 있는 동안 호송대가 쉬고 있을 때, 은을 실은 노새 중 한 마리가 지치다 못해 압록강에 뛰어들어 강을 헤엄쳐 갔다. 다행스럽게도 노새는 독으로 다시 헤엄쳐 돌아왔지만 짐이 약 3피

트 깊이의 강물 속으로 빠져 버렸다. 다른 짐들은 별도로 하더라도 60 파운드 가량의 은이 사라져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었다. 다음 날에는 가파른 산기슭을 내려가다가 잘려나간 길을 발견했다. 남은 길은 폭이 한 족장에 불과했고 이조차도 거의 무너져가고 있었으며 아래로 수백 피트의 가파른 비탈이 있었다. 그러나 노새들은 안전하게 건넜고 눈이 먼 한 마리만 중간에 들떠 날뛰면서 자살하려 했다. 한때 우리는 조선 비적들이 압록강을 넘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경고를 듣기도 했으나 허위임이 밝혀졌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는 두 마리의 뱀, 특히 한 마리의 길이는 5피트나 되었는데 구들 굴뚝에서 허물을 벗고 있어서 정말 불쾌한 이웃을 곁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마침내 우리는 마오얼 산(글자 그대로 모자산이란 의미로 인근 산의 원뿔형 꼭대기에서 유래하며 만주에 있는 산 이름으로는 흔한 것이다)에 도착했다. 마오얼 산은 압록강의 마지막 중국 전초기지로 묵텐에서 약 280마일 떨어져 있다. 성벽으로 잘 둘러싸인 구내에 200명의 병사들로 구성된 소규모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관청과 몇몇 농장들이 있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보급품을 얻게 되길 기대했으나 조달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 중국 돼지고기와 소금에 절인 달걀에 만족해야 했다.

마오얼 산 주변의 풍경은 장관이다. 숲이 우거진 봉우리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나란히 이어져 있고 한쪽으로는 수평선이 어두운 산맥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산맥은 매우 길고 평평하여 4두마차가 한 주 동안 나무꼭대기를 따라 뛰어다니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였다. 멋진 하천인 압록강은 장엄한 만곡에 있는 절벽을 돌아 나오며 반대편에는 조선의 평원들과 산들이 있다. 한 봉우리의 꼭대기에는 마흐라타의 가르(Mahratta garh)를 닮은 요새가 있다. 많은 수의 조선인들이 금지된

경계를 넘어 중국관원들의 묵인 하에 계곡지대를 경작한다. 조선인들은 유명한 어부들이다.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며 한 사람은 선교사에게 받은 책 한 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1882년, 로스 씨가 번역한 복음서 일부가 조선인의 수중에 들어왔고 이들은 세례를 받고 복음을 이웃의 정착민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돌아갔다. 세례자가 가져온 소식들은 집에서 집으로 계곡에서 계곡으로 불길처럼 확산되었다. 로스 씨와 웹스터 씨는 방문을 통해 80명에게 세례를 주고 싶어 했다. 이 운동의 특징이 보여주는 희망적 전망은 운동이 자조라는 기반 위에 서있다는 것이다. 조선인은 스스로 교회를 짓고 성착식(聖着式)을 거행한다. 조선의 가옥들은 구들이 없거나 혹은 바닥 전체가 땅에서 1피트 정도 높이의 지하 연도로 테워지는 넓은 구들인 점을 제외하고는, 중국식 가옥을 모방한 것이다. 아니 중국식 가옥보다 진전된 것이다.

이 지역에서 우리는 처음 조선의 소와 말을 알게 되었다. 소는 거대한 동물이다. 스페인의 황소는 거대하고 버펄로나 인도 들소도 크지만 무게와 힘 및 육중함을 고려해 볼 때 조선의 짐승들은 우월하다. 한때 포를 끄는 것으로 이름을 날렸던 종인 미소르(Mysore)의 유명한 암룻 메할(Amrut Mehal)이란 소조차도 조선의 소들과 맞서지 못한다. 말들은 소형 동물로 큰 개보다 더 크지 않다. 말은 힘과 유용성 때문에 매우 귀중한 대우를 받으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말은 아이를 태우는, 인도나 잉글랜드에서 낳은 약한 소형 조랑말과는 전혀 달랐지만 강인하고 균형 잡힌 몸을 가진 기운찬 작은 짐승들이다. 말의 가장 나쁜 점은 대개 버릇이 안 좋다는 것이다.

이즈음에 우리는 이전의 작가들이 언급한 적이 있었던 만주의 가장 큰 전염병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곧 작은 곤충들과 등에이다. 해충으로

인한 고통은 너무나 흔해서 여행자에게는 진부한 주제로 심지어 동정심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인생에서 삶이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필자는 만주 숲속의 여름을 꼽고 싶다. 작은 벌레들은 한낮에도 많지만 밤과 이른 아침에는 정말 최악이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벌레들이 쏟아져 나오며 악마처럼 물어댄다. 노새와 소는 밤에 불쪽을 향해 두어 연기가 벌레들을 내쫓을 수 있도록 한다. 일몰 때에는 연기와 여름 열들에 숨이 막힐 정도이지만 가옥의 모든 문과 창문들이 굳게 닫힌다. 집을 연기로 채우기 위해 종종 바닥에 불을 지피야 하고 가득 차면 다음날 아침 공기가 어떠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농부들은 머리에 상투를 틀어 타고 있는 부싯깃 일부를 그 위에 붙여 놓고 일부는 손에 갖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는 녹색 거즈 베일을 갖고 있어 잠자리에 들 때나 이른 아침에 걸을 때 매우 편했고 식사할 때에는 연기를 막아 주었다. 등에는 우리보다 짐승들이 더 성가셔했는데 아프거나 피곤한 짐승들을 줄곧 괴롭혔기 때문이었다. 등에는 아침 7시나 8시가 될 때까지도 사라지지 않았고 해가 질 때에야 비로소 물러갔다. 그래서 동이 뜨기 전에 걷기 시작하면 등에의 공격을 약간이나마 피할 수 있었다. 등에는 커다랗고 불룩하게 생긴 곤충으로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필자에게는 사슴벌레만큼이나 컸던 것 같다.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하나는 커다란 장수말벌처럼 줄무늬가 있는 노란색과 검은색—등에는 노새의 거친 가죽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민첩함을 보인다. 필자는 등에를 발견한 뒤 불과 몇 초 만에 피를 흘리는 불쌍한 동물을 보았다. 다행히도 등에가 매우 멍청하고 느려 쉽게 죽일 수 있었다. 일단 노새가 몇 번 언덕 아래로 굴러 크게 지치면 폴포드와 필자는 밤이 될 때까지 그 위에 서서 등에를 잡

이야 했다. 몇 백 마리의 등을 죽였는지 모르나 우리는 노새의 생명을 구했다. 등에는 사람은 자주 물지 않으나 가끔 한 마리가 ‘외국 악마’의 피를 맛보려했고, 그러면 ‘외국 악마’는 뛰어 올라 주의를 주었다.

노새에 실은 짐이 떨어졌다고 한두 번 언급한 적이 있다. 짐이 짐승에 묶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정말로 크게 유리한 점이다. 사실 필자는 중국의 짐 실는 노새 체제가 세계 최고라 믿는다. 기본 틀은 한 쌍의 부메랑처럼 생긴 두 개의 딱딱한 나무로 만들며, 초록색일 때 구부러 모양을 만들고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십자로 묶는다. 겉으로 보면 기본 틀은 A자와 비슷하며 위쪽이 둥글고 가로대가 제거되어 있으며 꼭대기의 곡선 부분은 안장과 양쪽에 달려있는 다리들에 적합하다. 그러나 같은 재질인 나무로 된 안장과는 별개이며 가장자리를 따라 들보들이 앞뒤로 달려있다. 짐은 처음에는 똑같은 무게로 아주 정확하게 양분하며 기본 틀의 양쪽에 느슨하게 만든 꾸러미가 동물에 딱 들러붙도록 매우 단단하게 묶는다. 두 사람이 발로 기본 틀을 붙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려 안장 위에 놓으면 균형이 완벽하게 맞기 때문에 자체적인 무게로 제자리를 잡게 된다. 그런 뒤 호위대가 중간 여관에 도착하면 짐승들을 먹이고 기본 틀의 모든 부분들과 짐들이 1분도 채 되지 않아 아무 것도 풀지 않은 채로 내려지며 행군이 시작될 때 재빨리 교체할 수 있다. 수렁에 빠진 노새를 상상해보자. 노새의 짐은 떨어지거나 순식간에 내려지고, 일어서자마자 다시 올려진다. 짐 꾸러미가 갖는 한 가지 불리한 점은 매일 밤 침구와 요리 그릇 등과 같은 물건들을 담은 짐의 끈을 풀어야 하며 다음날 아침 다시 묶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낭비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조그만 짐들에 쓰는 개방형 짐바구니를 이용하여 우리는 한 번에 세 개 내지 네 개의 꾸러미들을 풀어야 하는 일을 줄

일 수 있었다.

노새들은 출발할 때 상태가 안 좋아 보였지만 점점 나아졌다. 영허즈밴드의 수의기술은 노새들의 물집을 곧 진정시켰고 수술로 커다란 종기를 치료했다. 짐을 무겁게 신지 않았을 때에는 짐승들은 일을 꽤 잘했다. 선두 노새는 멋진 친구로 아주 크고 강했으며 고양이처럼 걸음에 능했다. 목 주위에 종을 달고 있어 멈출 때면 뒤에 있던 우리는 앞에서 무엇인가—나쁜 종류의 수령, 가파른 바위산, 건널 수 없는 강 등—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훌륭한 노새 중의 한 마리에게 우리는 괴짜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빠르게 회전하며 뒤편의 동료들을 넓게 바라보아 전 행렬을 멈출 수 있게 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지 명령으로 기다림에 지칠 경우 다른 노새들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신고 있는 군수품 상자들을 다른 노새들의 측면에 다시 올리게 하고 한두 마리를 발로 차서 언덕 아래로 가게 하여 마무리를 한다. 괴짜 노새는 특히 다른 노새들이 눈을 붙이고 조용히 쉬기만을 원하는 비좁은 장소에서 이런 일을 벌이기 좋아했다. 세 개의 다리로 출발했던 짐승은 최종적으로는 가장 좋은 노새 중 하나가 된 반면 잿빛의 훌륭한 노새는 완전히 탈진하여 짐을 내리고 누군가 끌어줘야 했다. 우리가 구릉지대에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150파운드로 짐을 줄여야 했지만 꽤 좋은 길을 따라 갈 경우, 한 마리의 노새가 매일 12시간 동안 참을성 있게 350파운드를 운반할 수 있었다. 노새의 주인들은 키 작은 기장 짚을 잘게 썰어 수수(큰 기장 종자)와 섞어 넉넉히 먹였고 노새들은 잘 자랐다. 소택지와 황무지에서의 힘든 하루 일과가 끝나면 노새들은 까불며 뛰어다니곤 했다.

마부의 지도를 받는 동안 우리의 생활방식은 규칙적이고 단순했다.

새벽에 일어나서 차를 한잔 마시고는 시간을 들여 침구 정리를 한 뒤, 7시까지 밖으로 나가 11시나 12시까지 전진했다. 점심을 먹고 해 질 녘까지 계속 나아갔다. 폴포드는 사지가 길고 걸음이 빨라 대개 행렬을 앞서 가곤 했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발견하면 전시위원회를 소집했다. 한 소년은 나이든 앞말을 인도했고 그 곁으로 도끼를 든 사람이 나무들과 관목 숲을 헤치며 걸었다. 필자는 행렬 아래 중간쯤 따라갔고 총을 가졌지만 대개 폴포드가 사격을 했기 때문에 식물을 채집하는 데 흥미를 가졌다. 영허즈밴드는 행렬의 끝에 붙어 나침반으로 방향을 측정하거나 아네로이드 기압계로 고도를 재면서 뒤쳐지는 사람이 없는 지를 살폈다. 정말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도 우리는 모두 분발하여 길을 보수하거나 열었고, 짐을 싣거나 내리면서 노새들을 까다로운 곳 위로 인도했으며 길을 잘못 들었을 때에도 쫓아가서 붙잡았다. 저녁에는 요리사가 허락하면 반드시 정찬을 했다. 식사는 검소했다. 한 접시의 통조림 수프, 약간의 구운 사냥감과 감자들, 팬케이크나 평범한 쌀 푸딩 등을 먹었고 우유와 계란은 귀해서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략했다. 식사가 끝나면 우리 중 한 명이 기도를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 제8장

# 창바이산맥

강의 흐름이 남쪽으로 바뀌는 지점 위쪽에 있는 압록강 상류의 지류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과 같은 숫자로 알려져 있다. 마오얼산은 1번과 2번 사이에 위치하며 주 계곡 위로의 진입이 이 지점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강은 가파른 언덕 밑을 흐르며 위쪽 계곡들과의 연락은 보행자들을 제외하고는 강이 얼어 길이 생기는 겨울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우리는 라오링을 지나 훈춘으로 가는 포장된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쑹화 강의 상류와 압록강을 나누며 어귀<sup>1</sup>에

1 미래의 여행자들을 위해 그리 정확하지는 않지만 노인이 우리에게 해준 세세한 이야기들을 여기에 적는다. 라오링을 지나 탕 강을 건너 탕허커우로 내려가서 쑹화 강을 지난 뒤, 쑹화 강의 지류인 승장으로 내려가면 다사허가 나온다. 이틀이 걸리는 여행으로 여행안내원이 필요하다. 다사허부터는 길이 좋아진다. 곧 구송허에 닿은 뒤, 한 고개를 넘으면 시난사이고 마차가 시작되는 홍시허가 나온다. 이어 에르다오허, 양시 강, 마다 강, 산샤허, 미샹, 마지막으로 훈춘이다. 거리는 약 천 리로 333마일이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 성샹까지 갔

서 두만강과 만나는 산등성으로 인해 그 길을 통해 훈춘에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따라서 우리는 건넌다가 다시 건너오기를 지칠 때까지 반복하면서 에르다오허 또는 제2강을 타고 올라 이틀이 채 안 되었을 때 산맥의 꼭대기에 닿았다. 길의 높이는 3천 피트나 되었다. 도중에 우리는 금을 씻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아니,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았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메추라기를 겨냥해 쏜 우리의 총소리를 듣고 자신들을 잡으려온 군인들로 오해하여 도주했기 때문이었다. 라오링의 정상에는 조그마한 절이 있었고 기념비에 산길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곧 두터운 숲을 내려와 송화 강의 퇴적지이자 탕허 강둑의 한 개간지에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 농가에 다다랐다. 다음 날 우리는 물이 너무 깊어 언덕을 다시 올라가야할 때까지 이 얇은 강을 몇 번이고 건넜다. 우리는 이곳에서 중국 숲속에서 경험하는 첫 야외캠핑을 즐겼다. 비록 뇌우로 인해 습기가 차고 불쾌했으나 침낭과 지면 사이에 놓인 방수천 덕분에 습기를 피할 수 있었다. 우리는 새로 자란 녹각을 찾는 사냥꾼 무리를 만나게 되었다. 이 녹각은 앞서 말한 대로 중국인 사이에서는 의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물건이었다. 녹각은 봄철의 몇 주 동안만 얻을 수 있어 꽤 큰 규모의 사냥단이 꾸려졌다. 한편 우리는 암호랑이의 새로운 발자국들을 보았고 멀지 않은 곳에 돼지를 미끼로 나무로 만든 커다란 우리 형태의 호랑이 덫을 발견했다. 그러나 호랑이 사냥을 꿈꾸기에 정글은

---

으나 그 너머 강은 우기에는 건너기 어렵다하여 대신 지린으로 향했다. 그해 말 필자는 훈춘에서 오모소로 가는 길에 미상과 양시 강을 건넜다. 또한 신민부와 통화 현에서 탕허커우까지 직접 닿는 길들도 있다.

너무나 두렵고 광활했으며 정주자들은 지나치게 넓게 흩어져 개별적으로 살고 있었다. 이곳에서 한 달을 보내도 아마 한 마리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이틀이 더 지난 후 길은 배 안에 있을 때 건넌던 탕허로 다시 내려가고 있었다. 개천은 더 커지고 얕아져 우리는 한 번 더 건너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지점에서 물이 끔찍하게 빠르고 깊어 사고가 불가피해 보였지만 안전하게 도강을 마쳤다. 우리는 송화 강과 만나는 지점까지 계속 전진했고 비가 심하게 내리기 시작했다. 물이 넘쳐 잠길까 두려워 통레를 깨고 땅거미가 진 뒤에도 계속 나아가 어두워졌을 때 마지막 도하를 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때 우리는 목적지에서 1마일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찾아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길은 강가의 안쪽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한쪽 아래에는 강이, 그리고 다른 쪽에는 가파른 언덕이 있었고 질게 그늘진 나무들이 머리 위에 드리운 상태에서 좁은 나무 협곡 쪽으로 나 있었다. 하늘은 질게 구름이 끼어 1야드도 내다볼 수 없었다. 우리는 노새들을 앞세워 길을 더듬으며 전진하다가 도중에서 갑자기 3피트에 달하는 바위를 만났다. 어둠 속에서서는 바위가 두 배나 높아 보였다. 길은 노새가 돌기에 너무 좁아 전진이나 후퇴가 모두 불가능해 보였고, 벌레들이 물어뜯는 와중에 천둥이 치며 비가 쏟아져 지친 노새들이 자신들과 짐들을 모두 강 아래로 떨어뜨릴 것 같은 상황이었다. 내일 아침까지도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았다. 우리는 안내원이 길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도 들었다. 하지만 우리 일행 중 한 명이 길이 강을 따라 계속 나 있다고 앞장섰고 노새들도 함께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채찍질해(필자는 정말 이들이 어떻게 어둠속에서 이 일을 해냈는지 모르겠다) 마침내 짐 한 짝만을 잃은 채 목적

지인 우뚝 솟은 말뚝으로 둘러싸인 들판의 커다란 집에 도착했다. 때는 거의 자정이 다되었고 대문은 닫혀 있었다. 시끄럽게 문을 두드렸으나 실망스럽게도 열어주지 않았다. 예의를 갖추어 말을 건네 보고 여권도 보여주었지만 모두 허사였다. ‘규칙은 규칙’이라 그들은 해가 진 뒤에는 황제라도 문을 열지 않을 것이었다. 힘으로 밀고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텐트를 폈고 하인들은 그동안 높은 묘지대문 아래 거처를 마련했다. 묘지대문이란 표현은 농장과 여관의 입구 위에 건립되는 오두막에 필자가 자의적으로 붙인 것이다. 근처에 빨감용 나무로 이루어진 유명한 산이 있어서 우리는 큰 모닥불을 피울 수 있었고, 죽이기에는 너무 큰 벌레들을 쫓아버린 뒤 새벽한 시 즈음에 잠이 들었다. 잃어버린 짐은 멀지 않은 곳에서 다시 찾아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났다. 그러나 그날 밤 벌레들은 정말 심하게 물어뜯어서 다시는 해가 진 뒤 언덕 위에서 여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있었던 곳은 창바이산맥 내에 위치한 한 동업조합의 본부였다. 이론상으로 이 산맥은 현 왕조의 조상에게는 성스러운 곳이며 따라서 여기를 통과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이었다. 최근 얼마 전에 『베이징 공보』는 지린의 지사가 보내온 보고를 게재했는데, 보고에 따르면 명령에 따라 사악한 사람들이 흑시나 인삼을 찾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산맥 안의 협곡들을 수색해보니 외부의 침입을 받은 적이 없는 아주 조용한 나라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황제 전용 사냥터 안에 있는 땅을 경작하게 해달라는 어느 중국인의 청원을 처리하면서 또 다른 칙령을 통해 이 대담한 자를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sup>2</sup> 그

2 강희제는 예허에서 멀지 않은 묵텐과 지린 사이의 길 오른쪽에 담장을 쌓아 모

러나 사실 중국 관리들은 산맥 안에 들어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정착지들은 빠르게 건설되고 있었다. 혹자는 땅을 경작하거나 계곡에서 금과 인삼을 찾았고, 다른 이들은 나무를 베어 송화 강이나 압록강에 띄우거나 검은 담비, 다람쥐, 호랑이, 사슴들을 사냥하면서 수렵으로 살아간다.

식민 이주자들은 단체나 동업조합을 결성하여 의장, 부의장, 협의회 등을 설치한 뒤 공동체를 위한 법을 만들고 생사에 관련된 권한들을 행사한다. 이 같은 동업조합의 존재가 지린 당국에 알려져 당국은 종종 비적들을 잡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고 나름 성공적이었다. 당국의 요청을 받을 경우 동업조합의 장은 회람을 돌리며, 사냥꾼이 우리에게 말해준 바로는 한 사람이 함정마다 사슴을 잡았을 경우라도 자신의 화승총을 메고 가야한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도 법 앞에서 평등할 뿐이다. 물론 중국 관료들이 없기 때문에 정착민들이 스스로 부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금도 없다. 법 가운데 일부는 특이하긴 하나 실용적이다. 첫 번째는 지명 수배된 악한들을 숨겨주지 말라고 경고한다. 우리는 이 같은 포고령을 보았다. 두 번째는 조선인들에게 어업을 금지한 것이다. 정착민들에 따르면 조선인들은 한가하게 놀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들판에서 일을 하길 원해서 정착민들이 이들을 농업노동자로 다수 고용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삼거래 규제에 관한 것으로 일정 시기 이전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법 위반시 처벌은 부자인 경우 동업

---

든 산악지방은 성스러우며 황제를 위해 예비된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담장과 바로 인접해 있는 구역은 여전히 황제 전용 사냥터라 불리고 있으며 중국 지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그림 1 조선인 어부

조합에 벌금을 내며 그 액수는 구룡지대에서는 사치품에 해당하는 1파운드 분량의 쌀과 돈 10냥, 각각 75파운드가 넘는 돼지 두 마리였다. 만일 범법자가 외지인이라 돈이 없어 벌금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매질을 해 사망하게 하는 형벌이 부과되었다. 이 법은 종종 더 깊은 계곡들을 찾아 헤매다가 철이 끝나기도 전에 돌아온 모험심이 부족한 사냥꾼들로 인해 시장이 매점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심마니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업조합은 꽤 유능한 조직이고 만주지방 내에서 인명과 재산이 정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비록 지리적 지형과 이를 덮고 있는 광활한 숲지대로 인해 비적들이 안전한 도피처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 사실 한 사람이 칼이나 손수건을 떨어뜨려도 다시 돌려받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정착민들의 자랑거리이다. 회원들은 오두막과 농장이 모두 눈에 덮이는 겨울에는 본부에 모

여 시간을 보내며 공동의 복지에 관한 규정들을 논의한다. 따라서 조합 회관은 널찍한 숙소를 갖추고 있으며 겨울에 얼어붙은 송화 강을 따라 썰매로 지린에서 가져올 곡물과 채소 공급품의 창고 역할도 한다. 최근 까지 이 조그만 공화국들은 위험하다고 여겨졌으며, 탕허커우 옆에 위치한 동업조합의 우두머리는 지린에서는 무법자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현명한 지사는 밀사를 파견하여 실제 상황을 조사했다. 밀사의 보고서는 매우 우호적이어서 지사는 무법자를 지린으로 초대했고 조합장은 그곳에 갔다. 그는 목이 잘릴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도리어 좋은 대접을 받았고, 선물을 받은 뒤 복귀해서 잘 처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베이징 관료 어느 누구도 이 깊은 골짜기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고 지사는 자신의 관대함 때문에 곤경에 처했을런지도 모른다. 앞서 말했듯이 성스러워야 한다는 종교적 허구가 여전히 궁정에서는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탕허커우 조합회관은 당 강과 송화 강이 교차하는 곳에 있는 언덕의 매력적인 작은 구석 속에 위치해 있다. 이 지점에서 송화 강은 약 200 야드 너비의 가는 개천이 된다. 조합회관 뒤에는 찰진 진흙언덕이 있어 바람을 막아주며 언덕 둘레에 조합장이 경작하는 작은 농장이 있다. 조합은 현재 1천 명의 회원을 헤아리며 탕 계곡을 따라 광활한 숲이 주로 조선인들의 노동으로 개간되고 있다. 재배되는 콩들은 매우 품질이 좋으며 특히 프랑스 콩은 더욱 그렇다. 그리고 몇 에이커의 땅에는 가내 소비를 위해 양귀비를 재배 중이다. 그러나 인도처럼 양귀비의 즙이 과학적으로 추출되고 있진 않다. 양귀비의 끝을 불규칙하게 절단하기 때문에 즙이 배어나와 굳기는커녕 절개 후 5분 내에 닦이기 때문이다. 조합장은 집에 없었고 부조합장은 굵은 몸에 심술궂은 얼굴로 엄 씨라 불

렸다. 그는 자신의 법이 비적들을 몰아내는 것이라 잘라 말하면서 우리를 빗속에 세워두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문이 열렸을 때, 그는 우리를 들인 다음 잘 곳을 내주었다.

이제 1만~1만 2천 피트에 달하는 설봉을 찾으러 가야할 시간이 되었다. 설봉은 알렉산더 윌리엄슨(Alexander Williamson) 목사의 『중국 북부로의 여행』이란 책에 부록으로 붙어 있는 지도로 볼 때, 그리고 라벤스틴과 다른 자료에 근거해 볼 때 틀림없이 이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연 씨는 만주에는 그런 봉우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 10~12일을 가면 라오바이 산 또는 구백산(舊白山)이라는 아주 유명한 산이 하나 있다고 말해주었다. 산 정상에서는 압록강, 두만강, 송화 강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원한다면 그는 안내해주겠다고 했으나 길 찾기가 매우 어려워 혼자 와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두 마리의 노새에 매우 가벼운 짐을 실은 뒤 단 한 명의 하인과 구덩이에서 노새를 끌어낼 소년 한 명을 대동하고 출발했다. 길을 따라 산을 넘었고, 거대한 떡갈나무·느릅나무·호두나무·플라타너스 등으로 이루어져 끝없이 이어지는 어둡고 질퍽질퍽한 삼림지를 지나, 아래에 울창한 덤불이 있는 수사슴들과 야생 수탉지들의 고향에 닿았다. 밤에는 오두막이 있고 인삼이 재배되는 조그만 개간지에 닿게 되어 거기서 하룻밤을 보냈다. 비록 두 마리의 가장 힘센 노새들을 데려오긴 했지만 노새들에겐 여행이 너무 힘들었다. 노새들은 계속 늪에 빠졌고 우리는 구해내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한 마리는 겁이 많아 자신을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더러운 곳을 올라야 하는 경우에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로 넘어져 협곡 바닥까지 통나무처럼 굴렀다. 그리고 짐을 줄여 소량을 얹어줄 때조차도 우리 모두는 노

새를 밀어 올려야 했다. 재차 송화 강을 건너야했으며 맨발이라 힘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시터우허의 급류까지 나타났다. 인도 캐쉬미어 지방의 협곡처럼 매우 거칠고 빨랐으며 돌들은 눈에 떨 정도로 날카롭게 각이 져 있었다. 급류를 건너면서 폴포드는 넘어져 충을 물 속에 빠뜨렸고 영허즈밴드는 완전히 고꾸라져 팔을 심하게 베었다. 며칠 뒤 돌아올 때 개천은 더 높아져 있어 훨씬 위험했으며, 폴포드가 때맞춰 나서지 않았더라면 노새를 이끄는 소년 한 명이 물에 휩쓸려 익사할 뻔했다.

다섯 번째 날 우리는 헤이허에 도달했고 이곳 너머의 소택지(낙엽송이 자라는 것을 처음 확인한 장소)가 짐을 실은 짐승들에게는 완전히 통과 불가능한 곳이었기에 노새들을 모두 포기해야 했다. 우리는 나중에 다른 계곡 위까지 이용할 수 있는 포장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주변에 오두막이 없어 안내원이 그 길로 데려가지 않았다. 우리는 필수품들을 가능한 줄이고 나머지는 짐꾼인 시터성의 도움을 받아 등에 졌다. 시터성은 우리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와준 매우 좋은 친구였다. 늙은 연 씨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했다. 큰 사냥감을 쫓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슴 한 마리가 길을 지나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게 되면서 가져온 라이프 한 정을 짐 속에 도로 넣었다. 그 결과 두 마리의 곰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빚어졌다. 습지에는 하얀 꽃이 예쁘게 핀 일종의 난쟁이 늪 은매화가 다량으로 자라고 있었다. 매년 지린에서 중국관리가 상당량의 늪 은매화를 모으기 위해 이곳에 오고 꽃은 다시 베이징으로 보내져 황제를 위한 향으로 사라진다. 중국 관리는 채집의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발견되는 200마일의 늪지 안으로 감히 들어오질 못한다. 우리는 매일 산개천 제방 위에 사냥꾼들이 세워놓은 조그만 오두막에서 밤을 보냈다. 오두막이 너무 좁

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구들위에 누워 자다가 한쪽 눈으로 중  
 국인의 발을 발견하면서 깨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첫 번째 오두막에는  
 매우 명량한 만주족 친구가 하나 있어 우리에게 신선한 사슴고기를 약  
 간 나누어 주었고 생선을 좋아하냐고 물어본 뒤, 몇 마리를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잡아주었다. 그는 털이 없는 대나무 낚싯대와 두꺼운 비단  
 낚싯줄 그리고 연어를 잡을 정도로 매우 크지만 사슴털 멩치를 달아놓  
 아 아주 누추하고 원시적으로 보이는 파리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조잡한  
 갈고리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반 시간 뒤, 그는 모두 1파운드 이상  
 무게가 나가는 세 마리의 일급 송어를 갖고 돌아왔다. 우리는 낚싯대를  
 만져보았으나 작은 벌레들 때문에 다시 들어왔다. 어느 날 우리는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곰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분비물들이 쌓여있는 장  
 소에 오게 되었다. 우리는 휴식을 하기 위해 멈추었고 커다란 수탉지의  
 흔적에 떨고 있던 폴포드와 안내원은 곰이 나타나면 바로 도주할 수 있  
 도록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폴포드가 소리를 지르자 영허즈밴드와  
 필지는 가장 큰 총알인 백조 사냥용 총알을 장전한 뒤 바로 일어섰다.  
 그러나 이미 곰은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안내원은 몇 냥의 값은 족  
 히 될 가지 친 사슴뿔과 수탉지의 발과 힘줄을 얻었다. 폴포드는 며칠  
 뒤 또 다른 곰과 맞닥뜨렸지만 이제는 매우 혼란의 일이 되었다. 사냥꾼  
 들은 자신들의 구덩이에서 사슴을 빼내면서 큰 손해를 입었다고 불평  
 한다. 사냥꾼들은 우리에게 한 짝의 연한 녹각을 보여주었는데 50파운  
 드의 가치가 있던 이 녹각을 곰이 3~4파운드의 가치가 될 때까지 씹고  
 말았다. 사냥꾼들은 가능하면 언제나 곰을 죽이지만 이 지역에서 호랑  
 이는 보호된다.

끊임없이 숲속을 걷는 것은 다소 피곤한 일이었으나 우리는 새로운

꽃들과 꽤 훌륭한 새들을 보게 되었다. 여기저기에 커다란 야생 딸기판이 있었고, 진홍빛의 맛있는 매발톱나무 딸기들이 4피트 높이의 관목 숲속에서 엄청난 양으로 자라고 있었다. 야생 구즈베리와 까치밥나무 열매들 또한 있었으나 쓸모는 없었다. 영국 왕립 식물원의 조사를 통해 후에 필자가 야생 대항과 혼돈했다고 판명된 식물은 사실 커다란 방패 모양의 잎들을 가진 골병풍이란 이름의 전혀 새로운 종이었다. 많은 지명들이 조선어이며, 중국인은 사실 20년 전 이 땅이 조선인 사냥꾼들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인했다. 조선인 사냥꾼들은 중국인이 강성해져 상황을 역전시켜 조선인을 자국 영토 내로 추적하기 전까지 중국인을 몰아냈었다. 칼스 씨는 최근 조선 북부<sup>3</sup> 여행을 통해 이 지역이 조선인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백산(白山), 곧 백두산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검은 담비 철을 위한 준비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영국 담비의 유일한 동양 변종인 검은 담비는 눈이 남아 있을 때 발을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해 죽은 나무들의 줄기들을 따라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벌목된 나무를 택하여 날카로운 나무뿔을 위쪽으로 몇 인치씩 띄워 두 줄로 박아 검은 담비가 지나도록 일종의 조그마한 길을 만들어놓는다. 중앙에는 평범한 4중 덧을 설치하고 그 위에 긴 묘목을 달아 동물과 부딪혀 쓰러지게 만든다. 사냥꾼들은 포획물에 대해 떠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명이 우리에게 자신과 친구 두 명이 1천 개의 검은 담비 덧과 60개의 사슴 덧을 가지고 있으며, 한 철의 포획량이 90마리의 검은 담비와 연한 녹각을 지닌 사슴 한 마리에 지

3 영국 왕립 지리학회, 1886년 5월 의사록.

나지 않는다고 말해주었다. 사슴을 잡는 잔인하지만 교묘한 방법은 다니는 길목에 무겁지만 작은 고리들을 묻어놓는 것이다. 고리는 철로 만들어져 안쪽으로는 2~3인치 길이의 못이 달려있고 사슴의 발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며 원형이다. 불쌍한 동물이 그 위를 지나다 잡히면 결코 차꼬를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 동물은 숲속으로 얼마간 텃을 끌고 가지만 곧 공포에 지쳐 무너지고 사냥꾼들은 개들과 함께 텃에 걸린 동물을 포획한다. 검은 담비들은 지린으로 가져가는 1~3냥(약 4실링 10펜스에서 14실링 6펜스)의 가격으로 판다. 사냥꾼들은 말린 사슴고기와 자신들이 밭에서 재배한 채소들을 먹으며 안락하게 살고 있으며 동물을 추적해 얻은 것만으로도 밀가루와 옷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 오두막에서 우리는 말린 사슴고기와 양배추로 만든 버섯냄새 나는 스투를 제공받는 것으로도 너무나 만족해 했다. 필자가 버섯이라 부른 것은 노란 곰팡이로 씩은 나무 위에 군집해 자라는 것으로 정말 좋다. 훈춘에서는 버섯들이 주요 수출품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행 과정 중에서 이 시기는 확실히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사냥꾼들은 친절했고 좋은 친구였으며 가식 없이 우리를 환대해주었다. 이는 통상적인 중국인뿐만 아니라 고독한 인삼 재배자들과도 매우 다른 모습이었다.

동업조합을 떠난 뒤 나흘째 되는 날, 우리는 오랫동안 고대해온 등산을 시작했다. 낮은 비탈은 자작나무와 소나무 숲으로 덮여 있지만 점차 희박해져 마침내 나무들이 드문드문 자라고 있는 매우 반가운 초원을 만나게 되었다. 마치 에텐동산으로 옮겨온 느낌이었다. 숲에는 확실히 꽃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고 회전뚜껑 모양의 멋진 백합과 난초와 블루벨들이 어둠을 밝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온갖 색깔의 화려한 꽃

들, 즉 푸른 아이리스, 커다란 보랏빛 호랑이 백합, 달콤한 향기의 노란 백합, 거대한 오렌지 빛 미나리아 제비, 진홍빛을 띠는 바곶류의 식물들이 눈을 부시게 하는 풍성하고 너른 초원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정원과 비슷한 곳이 있어 아름답게 점이 박혀있는 가문비 나무·전나무 그룹·키 작은 이끼 낀 잔디로 뒤덮인 토양·질은 청색의 커다란 용담다발·얇은 자줏빛 또는 담황색으로 뒤덮인 매발톱꽃·하얗고 빨간 난초와 다른 많은 꽃 등이 빛을 발하며 장식되어 있었다. 초원의 보석은 멀리서 보면 가시금작화 같은 작고 노란색의 꽃을 피우고 있는 아잘리아로 빛나고 있었다.

에나의 그 아름다운 평원,  
 프로세르피나가 꽃을 꺾고,  
 그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녀를 저 음울한 디스가 거두어가고,  
 케레스는 모든 고통을 감수하며 그녀를 찾아다녔던 그 곳도,  
 또한 오르테스 강가 옆에 자리 잡은,  
 카스탈리아가 불러온 그 빛나는 봄을 맞은 다프네의 아름다운 숲마저도,  
 이 에텐동산 앞에서는 비할 바가 못 되도다.

이제 처음으로 머리 위의 나무들을 지나 울퉁불퉁한 바늘처럼 생긴 백두산의 봉우리들이 보였다. 고원을 따라 지나가면서 우리는 미친 듯이 땅 밑에서 흐르고 있는 개천의 물소리를 들었고 어떤 곳에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다리를 이용하여 깊은 계곡을 건넜다. 계곡 양쪽은 꽤 가까워 뛰어서 건널 수 있었고, 결눈질을 하면서 산의 급류가 비스(Beas) 강처럼 훨씬 아래의 발원지에서 솟구치는 것을 보았다. 주의 산

만한 보행자는 숨겨진 이 수로들 중 하나에 빠져 쉽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백두산의 마지막 봉우리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풀언덕 밑에 위치한 당 산이라 불리는 오두막에 도착했다. 약간 떨어진 곳에 화려한 폭포가 있으며 서로 멀지 않다. 각각 150피트 높이로, 그중 하나는 원주민들이 송화 강의 실제 발원지라 부른다. 1~2마일 떨어진 곳에는 너비 약 10야드의 시내가 있고 그 끝은 화씨 142도(섭씨 약 61도)의 멋진 온천이다. 우리가 도착한 날 밤, 초원에서 700피트 위의 언덕에 올라 산의 장관을 보았다. 그 지점에서 두 개의 날카로운 봉우리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사이에는 안장이 있었으며 아래쪽 깎아지른 면 전체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이는 골짜기에 보이는 적은 양의 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숲을 지날 때 송화 강둑에서 커다란 덩어리로 보았던 부서진 젓은 경석(輕石) 때문이었다. 서쪽의 봉우리는 조금 더 높아 보였지만 안장처럼 생긴 지역을 내려온 뒤에 우리는 대단하고 날카로우며 울퉁불퉁한 동쪽 봉우리보다 더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너머 동쪽으로 더 가면 바위를 쪼갠 듯한 지평선 위로 독사의 이빨을 닮은 또 하나의 두드러지게 뾰족한 봉우리가 서있다. 여기에서부터 오두막이 있는 초원에 닿을 때까지 산등성이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

휴식을 취하던 첫날 비가 와서 등산을 다음으로 미루었다. 우리는 집 뒤쪽에 있는 비탈에 올랐다. 비탈은 화려하면서 작은 이끼들이 가슴까지 닿았다. 또한 참나리와 다른 멋진 꽃들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약 2~3마일 넓이로 뻗어있는 황무지를 가로질러 가면 키 작은 흰 철쭉과 아잘리아와 같은 사랑스런 분홍빛의 작은 꽃 및 그 밖의 다른 꽃

들이 가득했다. 우리는 두 봉우리 사이에 이르는 비탈을 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조차도 나석(裸石) 위에 야생의 노란 양귀비와 키 작은 범의귀류, 살갈퀴와 다른 귀중한 식물들이 떼 지어 있었다. 가파른 오르막 길이라 비가 느슨한 경석들을 굳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뭔가 베수비오 화산을 연상시키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정상에 도달했고 끝을 굽어보며 약 350피트에 달하는 높이의 분화구 절벽에 서서 함성을 질렀고 가장 깊은 곳의 색깔이 투명한 파란색인 아름다운 호수를 들여다보았다. 바람이 날카롭게 불고 있긴 했지만 호수의 표면은 레만(Leman) 호수처럼 고요했으며 산의 울퉁불퉁한 꼭대기를 장식하고 있는 환상적인 봉우리들로 이루어진 왕관을 비추고 있었다. 정말 멋진 장관이었다. 우리는 호수의 너비가 약 1마일 반이고 둘레는 6~7마일이라고 생각했다.

한동안 풍경을 즐긴 후, 폴포드와 필자는 분화구를 내려가려 했다. 그런데 사냥꾼 안내원이 너무 가파르다는 이유와 분화구 바닥에 닿은 어느 누구도 호수의 신은 돌아오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동행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는 아래쪽의 어느 지점을 가리키며 사슴이 종종 풀을 먹기 위해 다니는 길이라고 이야기해주어 우리는 호수와 낭떠러지 밑 사이에 있는 좁은 길가를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느슨한 경석과 돌들을 통과하여 바닥에서 60피트 되는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지만, 내려가던 절벽 일부가 떨어져 갑자기 우리 앞에 15~20피트의 깎아지른 듯한 바위가 나타나게 되면서 멈춰야 했다. 내리막길은 로프 없이는 너무나 위험했고, 로프를 지탱하고 있는 무른 돌과 경석은 결코 안전판이 되어주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영허즈밴드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자 눈으로 덮혀있는 갈라진 틈 속에서 온도계를 덤

힌 뒤 동쪽 봉우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매우 가파르고 위험했으며 발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미끄러졌다면 영허즈밴드는 아마 모서리를 굴러 5~6백 피트 아래 호수로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보다 더 멋지게 성공했고 가장 높은 봉우리에 닿았으며 호수 위로 제1사장(斜檣)처럼 툭 튀어나온 암벽 봉우리의 바로 끝까지 기어가서 우리에게 모자를 흔들어들었다. 아래에서 보면 독수리 외에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자리 잡은 휴식처처럼 보였다. 그는 높이를 7,525피트라고 계산했지만 후에 비등점 온도계를 읽는 데 실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500피트를 추가로 인정했다. 심지어 봉우리 사이에서도 주변지역의 경관은 매우 멋졌다. 조선 쪽으로는 멀리 백산만큼이나 높아 보이는 숲으로 덮인 봉우리들을 볼 수 있었지만, 압록강을 떠난 뒤 우리가 가로질러 온 지대를 포함한 바로 옆 지역의 모든 구릉들은 비교적 작아보였다. 그리하여 1만~1만 2천 피트 높이의 눈 덮인 봉우리라는 생각은 접어야 했다.

호수 자체는 구릉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룡왕탄이라 불리고 있었고 비의 신인 용왕에 바쳐진 것이었다. 중국인은 산꼭대기의 정상을 ‘바다의 눈’, 곧 대양의 바다로 이어지는 출구라고 부름으로써 산꼭대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대신한다. 호수의 북쪽 끝에서 에르다오장 강 또는 2의 강<sup>4</sup>의 발원지이자 송화 강의 동쪽 지류인 조그만 개천이 시작된다.

<sup>4</sup> 사냥꾼들에 따르면 에르다오장 강의 주요 지류들은 구통허, 다사허, 푸루허로 북쪽에서 흘러든다. 남쪽의 첫 번째 지류는 제1북강의 의미로 단순히 토우타페이허라 불리며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붙는다. 송화 강의 상류 지류들은 왼쪽 제방 쪽으로는 남쪽에서 시작되는 리수커우쯔 강, 에르다오후아유안 강, 토우다오후아유안 강, 나르홍 강, 몽샹 강, 성샹 강, 탕허, 시투우

우리는 이 개천과 본류가 합쳐지는 곳을 몇 주 전에 지났었다. 우리는 이 흥미로운 이웃들을 탐험하며 몇 주를 즐거이 보냈을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사냥꾼들은 압록강의 발원지가 자신들이 서있는 곳에서 불과 10마일 떨어져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판무관이 조선과의 국경을 표시하기 위해 중국에서 파견되어 강희제 51년(1712년)에 세운 경계비를 찾아 다녔지만 눈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불과 30마일 너머에 야뻥이라 불리는 두만강의 발원지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양식이 다 떨어졌고 일부 인삼농부들과 사냥꾼이 매우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약간의 밀가루를 주기도 하고 비상식량으로 통조림을 가지고 있기도 했으나 더 이상 머무를 수는 없었다. 정말이지 폴포드의 총 솜씨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거의 굶었을 것이다. 우리는 너무 배가 고파 총성이 울릴 때마다 잡은 새가 다 자란 것인지 아닌지 묻곤 했다. 왜냐하면 다 자란 새에게서는 더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새들은 번식기를 맞으면 숲으로 날아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큰 가지 속에서 구분하려면 눈이 매우 빨라야 했다. 미심쩍은 칭찬인듯 하나 폴포드는 확실히 앉아있는 새들을 쏘는 데는 명사수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못해 당허커우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우리가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조금 일찍 왔더라면 백두산을 보면서 국경을 탐험했을 뿐만 아니라 홍시허로 가는 출구를 발견했을런지도 모른다. 홍시허는 불과 70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고 훈춘으로 가기 쉬운

---

허, 헤이허, 투이파허, 후아비허, 티쯔허, 웨이사허가 있다. 오른쪽 제방에는 에르다오장 강의 지류로부터 시작되는 유시허, 웨이사허, 성상 강이 있다. 사냥꾼들은 이러한 강 목록을 폴포드에게 주었지만 그들조차도 순서가 정확하지 않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 보인다.

곳이었다. 이런 어려움 외에도 지난 겨울에 동업조합이 식량을 보내주기도 전에 일찍 얼음이 깨져 버렸다. 따라서 식량이 비정상적으로 부족했고 우리 일행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식량없이 며칠 동안 지낸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난관은 홍수가 진 두 강 사이에 붙들려 있을 경우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만일 다음 여행자가 신민 부나 통화 현에서 시작되는 승마전용 직행도로를 이용하여 한 달 분의 밀가루 식량을 가지고 3월에 묵텐에서 출발하여 라오링을 거쳐 탕허커우에 도착한 뒤 다시 다사허나 백산을 통해 홍시허에 도착한다면, 눈이 녹는 시기와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 사이에 충분히 쉽게 혼춘에 도착할 것이다.

우리는 여행에서 돌아와 중국에 대한 예수회의 설명에 채록되고 1735년 파리에서 출간된 페르 뒤 알드의 유명한 저서를 찾아보았다. 거기서 우리는 백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발견했고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여행을 통해 이 모든 설명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영어 번역 부분만을 인용한다.

쑹화 강의 발원지인 이 산은 동쪽 타타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유명한 산이다. 나머지 산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아주 먼 곳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나무로 덮여 있으며 언제나 하얗게 보이는 부드러운 자갈 속에만 있다. 따라서 중국인이 상상하듯 산을 하얗게 만드는 것은 눈이 아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름에는 눈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꼭대기에는 많은 수의 높다랗고 부서진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다섯 개의 바위가 있고 항상 끊임없는 안개와 주위에 응결된 수증기로 젖어있으며, 가운데에는 깊은 호수를 안고 있어 그곳에서 쑹

화 강을 형성하는 멋진 샘이 흘러나온다. 산을 더욱 굉장하게 만드는 것은 만주족이 호수를 바로 자신들의 위대한 강들인 두만강, 압록강, 시호우 강<sup>5</sup>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사실이다. 세 강은 조선의 국경을 따라 흐른 뒤 합쳐져 그 왕국의 바다로 흘러든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진실은 아니며 지도에서 보겠지만 조선이라는 왕국과 만주의 고대 도시를 나누는 주변산맥들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강의 발원지가 백두산이라 말할 수도 없다.

이 서술은 페르스 자르투(Péres Jartoux)와 프리텔리(Fridelli)와 함께 1709년 강희제를 위해 만주를 조사한 페르 레지(Pére Regis)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며 보고서 원본을 추적하고자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처음에 필자는 설명이 갖는 전반적인 정확성에도 불구하고 예수회가 백산 자체를 봤다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작업을 5월 8일에 만주에서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또 다른 지방인 보하이를 조사하러 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함께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르 북쪽 지방인 훈춘과 우수리 강과 같이 멀리 떨어진 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이 먼 산까지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지 믿기 어렵다. 다른 상황들을 살펴보아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예수회는 이 산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중 하나라고 부르는데 확실히 그건 아니다. 예수회는 위도와 경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가장 근접한 관찰이라 해봐야 평화청 또는 ‘조선관’에서, 홍

---

5 필자는 이 강을 찾지 못했다. 아마도 송화 강 상류의 두 번째 혹은 동부 지류인 에르다오장 강인 듯싶다.

타 호톤(Hongta Hoton) 또는 용타 호톤(Yongta Hoton)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전자는 300마일 그리고 후자는 거의 55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 더욱이 그들의 지도에는 위치도 표기되어 있지 않다. 당비유(D'Anville)가 그들의 조사를 토대로 만든 최종지도는 조선의 변경이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닌, 강들보다 훨씬 북쪽에 위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말하기를 황제는 자신들이 조선에 진입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고 다음 해에 수리기관의 관리를 대동한 특사를 파견해 동부와 내륙을 조사한 뒤 조선인이 작성한 지도를 가져갔다. 1851년에 『중국보고』라는 글에서 한 작가는 산을 보았던 예수회의 어느 누구도 내려오지 못했다고 단호하게(무슨 권위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뒤 알드는 만주와 조선 사이의 경계 전체가 기하학적으로 측정되었고 백산은 국경에 가까운 곳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따라서 예수회는 룡왕탄의 푸른 물을 내려다본 첫 번째 외국인들임에 틀림없었다. 확실히 그들은 유럽에 이 산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사람들인 것이었다.

예수회보다 30년 전에 백산을 방문한 중국인인 오문의 여행기에 관한 흥미로운 설명이 클라프로트의 저작 『아시아의 혼들에 관한 기록』<sup>6</sup>에 들어있다. 번역은 주해(註解)에 포함되어 있다.<sup>7</sup> 이 이야기는 나중에 느끼게 되겠지만 특히 알맞은 목초지와 꽃들과 관련하여 우리의 이야기와 꼭 들어맞는다. 페르 레지와 마찬가지로 오문은 5개의 봉우리들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항상 안개로 휩싸여 있는 점을 산의 특징으로 제시한다. 아마도 페르 뒤 알드의 설명은 이를 인용한 듯싶다. 그의 설명

6 파리, 1824.

7 주해 F 참조.

에는 수도원장 팔라디우스, 건륭제, 박식한 페르 아묘와 같은 매우 다른 저자들의 저술에서 발췌된 글들이 첨부될 것이다. 중국의 구비문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이 발췌문들을 통해 우리가 감히 그 고독을 깨뜨렸던 백두산이 과거 수세기 동안 거대하고 신비스런 명성을 누려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제2장의 서술은 바로 만주 왕조 창시자의 극적인 탄생장면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회의 구체적이지만 정반대되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15년이나 뒤늦게 델마 모건(Delmar Morgan) 씨는 산이 하얀 것이 만년설 때문인지 석회암의 햇빛 때문인지를 궁금해 했다. 이 점은 이제 명확하게 밝혀졌다.

산비탈들을 돌아다니며 우리는 꽃과 식물의 소장본을 만들었으나 끊임없이 내리는 비 때문에 소장본을 보존하는 것이 모든 고민과 곤란의 핵심이 되었다. 왕립 식물원 원장 큐(Kew)는 친절하게도 다음의 관찰사항들을 추가해주어 필자를 기쁘게 해주었다.

소장본은 500종을 상회하는 개화식물, 32종의 양치류, 10종의 석송, 속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베이징지역과 이웃 지방의 식물과는 달리 만주지방 식물군의 표본들은 향토적 요소가 매우 적고 새로운 식물이 6개가 채 안 된다. 북동아시아 식물군의 특징을 지니는 속(屬)에는 가시오갈피, 도라지, 더덕, 박주가리, 당개지치, 절국대, 비비추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소수의 예외들을 제외하고 이 같은 속은 북부 온대지역에 두루 퍼져있으며 많은 수가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요컨대 영국이 속하는 동일한 식물대(植物帶)의 일부이며 적어도 160종 이상 또는 표본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영국에 분포하고 있는 종들과 동일하다. 이 종들은 거의 풀이거나 매우 키가 작은 고산식물이다. 온화

한 북동아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목종과 관목종의 비율이 초목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여기에는 세 종류의 린텐, 여섯 종의 단풍나무, 한 종의 배, 한 종의 산양물푸레나무, 한 종의 벗나무, 한 종의 귀룽나무, 두 종의 산사나무, 한 종의 딱총나무무리, 한 종의 말채나무, 한 종의 양물푸레나무, 다섯 종의 구과(毬果) 식물, 세 종의 버드나무, 두 종의 포플러, 두 종의 개암나무, 한 종의 참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압도적인 종류는 국화과 65종, 장미과 30종, 백합과 28종, 미나리아재비과 27종, 콩과 20종이다. 그리고 특별 속(屬)에는 매발톱꽃, 작약, 패랭이, 양지꽃, 애스터(Aster), 향썩, 초롱꽃, 마디풀, 나리 등이 속해 있다. 주목할 만한 기타식물은 머루, 바위떡풀[순상엽(楯狀葉)을 지닌 새로운 종], 다양한 종류의 나리 등이다.

보조 소장본도 가을 몽골 초원지대와 동부 국경지대에서 제작되었고, 이전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식물지리학적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동속도가 빠르고 도중에 만나게 되는 장애물 때문에 조류학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우리는 조류피부들도 보존하고 있었다. 실제로 숲속의 높은 나무 꼭대기에 있는 새들을 발견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었고, 발견하더라도 쉽게 쓸 수가 없었다. 이동할 때에도 호위대를 이탈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종종 새로운 종들을 확보하기 위해 15~30분 정도를 뒤에 머물긴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망스러웠고 노새를 따라잡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대영 박물관의 바우들러 샤프(Bowdler Sharpe) 씨는 우리가 가진 견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찰기를 써주는 호의를 베풀었다.

다음의 것은 소장본 중 가장 흥미로운 종들이다. 흑뇌조(雷鳥), 회색 때까치, 능에, 흰머리긴꼬리박새, 중국동고비, 개똥지빠귀, 메추라기, 밤색머리멧새, 동부매부엉이, 빨간꽂지멧종다리, 검은 딱따구리 등은 스웨덴에서 발견되는 종과 동일하다.

만주지방에서 가장 흔한 새는 일반 까치로 신성한 새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유순하고 떼를 크게 지어 날아다닌다. 까치들은 래틀러를 괴롭히길 좋아했고 래틀러의 전후좌우에 내려앉아 뛰어다니면서 마치 개가 무엇을 물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래틀러를 거칠게 다루면서 크게 울고 퍼덕거린다. 조선까치라고 불리는 사랑스러운 새가 하나 있는데 머리가 까맣고 등과 꼬리가 푸른빛을 띤다. 황금피꼬리는 거주 지역에서 흔하며, 아주 길고 우아한 꼬리를 가진 아름다운 딱새들과 필자 생각에 이들은 인도의 화이다(whydah) 새와 동일하다. 딱따구리 또한 발견된다. 독수리와 매도 매우 많으며 물새들도 많다. 메추라기는 그리 흔하지 않다. 영국새를 많이 닮은 종 가운데 하나가 지린 근처에서 죽었고, 두 종류의 산메추라기와 벼를 가진 산메추라기가 꽤 많다. 우리는 멋진 꿩을 보지는 못했지만 갈가마귀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 및 흰가슴까마귀가 흔하다.

산맥을 지나면서 내내 우리는 많은 수의 아름다운 나비들을 보았다. 가장 흔한 것은 파란 외눈을 지닌 진초록의 호랑나비로, 시믈라(Simla)에서는 쉽게 볼 수 없다. 이들은 50~60마리씩 떼지어 날아다니며 협곡의 이끼가 자라는 돌에 몇 시간씩 앉아 있으면서 멋진 날개를 떨어근사한 모습을 만들어낸다. 영허즈밴드는 곤충학자라 우리에게 다양한 영국의 희귀종 나비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었는데 크고 작은 호

랑나비들, 거북껍질나비들, 희귀한 구름무늬의 황색나비들, 기타의 나비들이 있었고 대부분 수가 매우 많았다. 필자가 한꺼번에 정말 많은 변종나비들을 보았던 유일한 곳은 다질링(Darjeeling) 근처의 센출(Senchul) 산 정상이었다.



## 제9장

# 탕허커우에서 지린까지

우리는 온 길을 따라 탕허커우로 되돌아왔다. 모험은 없었지만 굳이 말하자면 뱀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버려진 조선 오두막 집에서 수행원들과 함께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벽과 침구 사이로 뱀이 머리를 내미는 것을 보았다. 침구를 들어내자 네 마리의 커다란 갈색 독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동작이 느린 짐승이었고 도망가려 하지도 않았다. 뱀들을 죽인 뒤 우리는 모든 뱀들이 턱에 독이든 이빨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만일 뱀들이 밤에 우리에게 기어올랐더라면 큰일 날 뻔 했다.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었고, 잠시 후 우리는 잠언에서 우연치 않게도 ‘너희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며 젊은 사자와 독사에게 가리라’라는 구절을 읽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예전처럼 인삼농장에 들렀다. 농장 중 하나는 백산처럼 오래된 분화구의 웅덩이에 위치해 있었지만 이 화산은 오랫동안 휴화산 상태였음에 틀림없었고 지금은 무성한 숲과 식물들로 가

득 차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인삼은 파낙스 진생(Panax Ginseng)이라는 학명을 지닌 식물의 길고 살찐 뿌리를 말하며, 만주와 조선의 산에서 야생으로 자란다. 중국인은 이를 매우 비싸게 여기기 때문에 인삼 공물 수출에서 조선의 왕은 큰 수익을 올리며 베이징의 주요 거리들 가운데 한 곳에서는 인삼만 취급하고 있다. 인삼은 높이 12~18인치 사이로 자라며 다섯 개의 긴 잎이 마로니에를 닮은 줄기 각각마다 달려있다. 봄에는 꽃자루 끝에 자줏빛 꽃송이가 달리고 여름에는 밝은 홍색 열매들로 바뀌는데 이것이 바로 뿌리를 찾는 심마니들이 발견하려는 것이다. 야생식물은 귀하지만 우리는 여행 중에 울타리를 둘러치고 조심스럽게 재배되는 한두 개를 보았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처럼 그들의 가치가 크기에 따라 기하학적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4~5인치 길이의 뿌리가 대략 10파운드에 팔리기 때문에 황제와 백만장자만이 순수 인삼을 구할 수 있지만, 인삼을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농장들은 꽤 많다. 인삼 씨는 가장 잘게 빻은 비옥한 흑토를 담은 길고 좁은 모판에 가능한 한 넓게 뿌리며 태양열을 피하기 위해 짙이나 흰 침구로 지붕을 인다. 7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수확해서는 안 된다. 7년근은 파운드당 5실링으로 야생인삼 가격의 1%에 못미친다. 그러나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두 인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우리는 각각 12~15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일행을 만났는데 이들은 인삼을 찾아 계곡과 협곡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인삼은 한두 뿌리만 캐도 한 해의 노동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인삼은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필자로서는 완전히 헛된 이야기라 확신하기 어렵다. 친절한 여관주인이 한번은 우리에게 잘게 썬 인삼 조각 하나를 주었고 우리는 그것으로 차를 만들어 위통에 큰 효과를 보았다. 야생인삼의 공

급은 종종 특사를 통해 지린에서 황제에게로 전달되며, 탁송항목들은 『베이징 공보』에 잘 실려 있다. 공보에 실린 기사에서 우리는 1884년 1월, 1,260냥을 호가하는 20뿌리의 인삼이 황제를 위해 베이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뿌리 당 14~15파운드 꼴이었다.

백두산 내부의 숲에서 나는 목재는 매우 좋으며 엄청난 크기로 자라는 코르크같은 나무껍질을 갖고 있다. 나무들 가운데 사냥꾼이 가장 값을 쳐주는 것은 껍데기로 작고 예쁜 상자와 접시를 만드는 자작나무와 인화성이 좋아 불붙은 가시가 양초처럼 타는 소나무이다.

탕허커우로 돌아온 뒤에 쑹화 강에 다시 홍수가 나서 우리는 거의 한 주 동안이나 발이 묶였다. 엄 씨는 올해 안으로 훈춘에 도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예고했다. 필자는 차라리 길을 안내해주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훈춘으로 가는 여정에서 많은 어려운 곳들을 노인의 인도 하에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급의 어려움이 컸고 우리는 기다림에 지쳐 북쪽으로 약 15일을 가야 닿을 수 있는 지린으로 향하는 게 낫다는 데 동의했다. 엄 씨는 우리를 너무 좋아하게 되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고 함께하기로 했다. 그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절이었고 고향이 지린에 가까워 여러모로 좋은 여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훌륭한 안내인이며, 매우 힘든 곳에서도 우리들을 능숙하게 데리고 다녔다. 그가 유일하게 실패한 경우는 외국인들 사냥감으로 여기는 다른 중국인의 탐욕에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 일이었다.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탕허커우를 떠나는 바로 그 날 일어났다. 우리는 동업조합에 속해있는 통나무배로 쑹화 강을 건넜고 더 낮은 곳에 두 개의 횡단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공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요구하며 사실상 배를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엄 씨는 보트가 사

공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끼어들지 않으려 했다. 가파른 산 돌출부가 강의 낭떠러지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 사이를 건너기는 불가능해서 우리는 공지에 몰렸다. 그리하여 주산맥 바로 위로는 길이 없는지 물었고, 엄 씨는 있다고 답했지만 다닐 수 없는 길이였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시도해보기로 했다. 길이 매우 나빠 어떤 곳에서는 노새가 뒤로 굴러 필자를 거의 덮칠 뻔하기도 했지만 가파른 골짜기를 안전하게 오르는 데 성공했다. 노새는 세 번의 공중제비를 돌고 짐 꾸러미와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에야 비로소 아래에 있는 개천에 닿았다. 노새는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전혀 다치지 않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계속 나아갔다. 일단 정상에 도착하자 길에 나무들이 우거져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 길을 따라 산마루의 꼭대기를 옆에 끼고 약 15마일을 걸었고 그 길의 끝에서 멀리 떨어지긴 했지만 하늘을 등지고 주위에 어떤 언덕도 없이 우뚝 솟아있는 노백산(老白山)을 보았다. 이때가 우리가 산을 마지막으로 본 때였다.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중화 강의 가장 큰 지류 중의 하나인 승장 강에 닿을 때까지 우리는 개간이 잘된 계곡들을 통과했다. 합류 지점에는 필자가 본 가운데 최고로 멋진 백로 떼가 있었다. 수천 마리의 백로들과 가마우지들이 버드나무에 둥지를 틀고 있었다. 이곳에서도 배의 주인은 터무니없는 요금을 요구했다. 우리는 그의 가족배를 30분 이용하는데 7냥(30실링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지만 짐을 속이자 그는 3냥을 더 요구하며 노새 한 마리를 붙잡아 진로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짐들을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위협했다. 다행히도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우리가 충을 갖고 있고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아채고 그를 설득해 우리는 계속 길을 갈 수 있었다. 비록 그의 처신은 아주 나빴지

만 7냥을 주었다. 15일 동안 내내 협곡을 건너고 능선을 올랐다. 질퍽 질퍽한 숲에서 두 번 야영을 해야 했고, 소나기가 많은 양의 식물 표본을 망가뜨렸으며, 노새 한 마리가 숲속에서 길을 잃어 회복하기에 너무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곳곳의 길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소택지들은 물로 가득 차 있었고 한 번에 8~10마리의 노새들이 앞뒤로 버둥거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개울가 아래에 흐르는 늪 많은 오래된 자작나무 농원이 있는 스코틀랜드의 젖은 습지대 주변을 상상해보라. 그 가운데 가장 괴기한 것이 비를 맞으며 걷는 백두산의 승마길이다. 앞쪽에서의 정지로 인해 한때 행렬이 멈춰있는 동안 필자 곁에 있는 조용하고 낡은 조랑말이 마치 무엇에 흘렸는지 발차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유를 몰라 의아해했지만 목덜미를 괴롭히는 이로 인한 것임을 필자 또한 뛰어다니게 되면서 곧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커다란 흑개미집이 나무에서 머리 위로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독성이 상당히 여 많은 곳이 말벌에 쏘인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 이주민의 오두막 숙소는 정성스럽게 제공되기는 했지만 빈약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아주 작은 방의 바닥에서 잠을 잔 반면 중국인은 통속에 포장된 청어들처럼 구들 위에 함께 누웠다. 또 다른 밤에는 좁은 계곡을 따라 길을 더듬어 나가야 했는데 그 한가운데에 유시허라는 몇 피트 깊이의 구렁지 급류가 있었다. 이 개천은 협곡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벽들 아래에서 나란히 굽이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동안 24번이나 건너야 했다. 타고 갈 여유분의 노새가 없어 개천에도 뛰어들어야 했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일주일 간의 여행 끝에 우리는 에르다오장 강 또는 동쪽 지류가 합류하는 곳에서 약간 떨어져 있으면서 송화 강변에 있는 위시허커우쯔라는 곳에 도착했다. 이곳의 송화 강은 폭 300야드의 멋진 개천으로 합

류 지점의 풍경은 장관이다. 에르다오장 강은 꼭대기에 숲이 있는 높이 깎아지른 양쪽의 벽들을 타고 좁은 협곡을 따라 급히 흐르며 800피트 높이의 고립된 덩어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바위라고 하는 편이 더 좋을 듯한 높은 낭떠러지가 마치 물과 만나는 것을 못마땅해 하듯 늘어서 있다. 에르다오장 강은 지금까지의 지도에는 주천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그 이름이 의미하듯 두 번째이다. 매우 깊기는 하지만 다른 지류보다 두 배 이상이 될 정도로 그리 넓은 것은 아니다. 이 지점을 넘어 우리는 광범위하게 사금을 채취하는 곳에 닿았다. 이곳은 중국 관원과 조합의 사법권 및 보호를 벗어나는 주인 없는 땅이다. 300명이 넘는 무법자들이 모여 사금을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총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 가까이에서 하룻밤을 보냈지만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 너머에는 넓은 소택지가 있었는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최악이었다. 다행히도 사고 없이 건너서 매우 큰 지류인 후아비허에 닿으면서 마침내 숲을 벗어났고 정규 농업지대로 들어왔다. 전방의 길은 수레도로였고 질척거리고 힘들었지만 숲을 빠져나와 더 이상 끊임없는 절단 소리, 즉 노새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한 도끼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고, 무성한 양치류와 관목들 대신에 옥수수과 기장이 물결치는 것을 보게 된 것은 큰 위안이었다. 지린의 남쪽으로 45마일 떨어진 곳에서 우리는 싱링이라는 마지막 산길을 넘었다. 이곳은 우리가 중국 관원들의 비효율적 통치 아래로 다시 한 번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인근의 대형 노변상점 하나가 질서정연하게 요새화되어 있었고, 주인은 통행로가 성도와 가깝긴 하지만 불과 1년 전에는 끔찍한 학살의 무대였다고 말했다. 아편과 녹용을 실은 수레 세 대가 문 여는 날 약탈

되었고 수레를 맡고 있던 아홉 명의 사람들이 살해당했다. 우리는 길을 오르면서 짐을 가득 실은 몇몇 수레들을 보았는데 모두 완전무장하고 있었다. 좀 더 가자 농지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헝다허라는 한 커다란 촌락에서는 연극이 상연 중이었다. 사람들 말로는 이삭이 패는 시기와 곡물이 숙성하는 시기 사이에는 농부가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 했다. 수확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극단을 빌려 여흥을 즐기는 일단의 영국 농부들을 상상해보라! 지린 도착을 하루 앞두고 우리는 엄 씨 노인에게 약속했던 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엄 씨가 어떤 난관에서도 분명히 우리를 보호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룻배에서 일어난 강탈사건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지만, 앞으로 그에게 영국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닐 구실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 쓴웃음을 지은 뒤 가버린 것으로 보아 유감스럽게도 그는 우리의 이야기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다. 탕허커우를 떠난 지 열닷새 되던 날인 다음 날 우리는 지린에 도착했다. 뜨거운 열과 빗속에서의 오랜 여행과 피로로 인해 병이 나 고생하던 폴포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했다.

지린에 도착한 것은 8월 12일이었다. 모든 여관들이 황실의 대신이 모집하는 신병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다. 결국 주인이 호의를 베풀 덕에 우리는 마부들이 통상 머무는 여관으로 들어갔다. 여관은 커다란 사각형의 한 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 커다랗고 개방된 배수로가 있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안마당은 진흙, 노새똥, 가정의 하수오물이 뒤섞인 1피트 또는 18인치 깊이 호수였다. 또 다른 하수구가 여관 바깥쪽에 있는 우리 창문 밑으



그림 1 전당포 외부

로 지나갔다. 조금 떨어진 곳에 세 번째이자 마을의 주관이 있었다. 우리는 디딤돌과 판자의 도움을 받아 마당 밖으로 나갈 수 있었으나 거리가 훨씬 더 오물투성이였고 과장하지 않더라도 진흙이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여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가로 세로 각각 16피트와 11피트의 작은 방을 하나 얻었고 세 개중 하나는 공용 베란다 쪽으로 열려있었다. 오른쪽으로는 목수가 운영하는 점포가 있었고 왼쪽으로는 제재소가 있었다. 끝에는 일상적인 구들이 있고 작은 상과 수직 등반이 달린 세 개의 목제 의자와 겨울용 석탄을 담으면서 동시에 세면대 역할을 하는 나무 상자가 있었다. 이것이 가구의 전부였다. 이 혐오스러운 감옥에서 우리는 3주하고도 하루를 더 보냈지만,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편하게 지냈다. 우리는 엿보는 눈들을 피하기 위해 방수천을 문과 창문에 걸어놓고 방을 청소했다. 시간은 독서와 편지쓰기 혹은 말린

꽃 정리하기 등으로 헛되어 흘러갔다. 관리들이 옷을 차려입고 용왕에게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드리러 갈 때까지 비는 마치 예전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처럼 쏟아졌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효력이 없었다. 잉커우의 한 가톨릭 사제는 8월 초에 머물게 되는 곳에서 월말까지 남아 있게 되리라고 경고했는데 기분 나쁘게도 꼭 들어맞는 예언이었다.

산악지대에서의 다소 피곤한 여행 이후로 우리 모두는 원기를 회복할 수 있었고 간단하게 조리한 충분한 양의 좋은 음식들을 얻을 수 있었기에 어떤 면에서는 이곳에 붙들려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지린의 소고기는 매우 적당했다(우리는 결코 양고기를 얻지 못했고 양을 거의 또는 전혀 보지 못했다). 생선은 가끔 먹었고, 싱싱한 채소와 자두, 산사나무 열매, 멜론, 말린 살구 등과 같은 입에 잘 맞는 과일은 많았다. 숲속에서 우리는 종종 야생 배와 포도를 보았다. 그러나 이것들은 먼 북쪽에서는 재배되지 않으며 길을 따라 도처에 널린 아주 훌륭한 야생 딸기와 개암나무 열매는 중국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시장에서 전혀 판매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는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다.

여관이 도시 북쪽 성벽과 가까운 것은 우리로선 감사한 일이었다. 성벽에 도달하기 전에 제방을 따라 200야드 동안 외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제방은 폭 2~3인치 정도로 역겨운 오물들로 뒤덮여있었고 미끄러웠으며, 한쪽에는 깊은 하수구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높은 나무 말뚝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에 도착했을 때 —위에 통행로가 나있는 무너진 토산—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과수원들이 있었고 그 너머에는 괴롭히는 사람들 없이도 신선한 공기를 맛볼 수 있는 언덕들이 있었다. 우리는 감사했다. 어느 언덕의 정상에는 마을 위로 우뚝 솟아있는 매우 남다르게 생긴 기념비가 하나 서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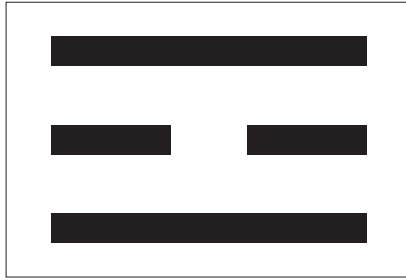


그림 2 기념비 도표

데 약 10피트 높이의 벽돌 성벽으로, 네 개의 커다란 직사각형 화강암 (주변에 평장한 채석장이 있다)이 붙어 있고 수평으로 정면에 들어가는 통로가 있었다.

기원전 2730년 또는 2850년 전, 복희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용마’라고도 불렸다. 그는 거북이의 등에 기묘하게 표시된 장치에서 따온 선과 점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도표로 우주의 수적 비율을 표시했다. 처음에는 흙, 물, 불, 다른 원소 등을 의미하는 8개의 도표가 있었는데 이후의 조합들은 그 수를 64개로 늘려놓았다. 가운데 잘린 선이 있는 두 개의 완전한 선은 불이나 혹은 불을 낳는 우주의 기운을 뜻하며 신비스러운 상징을 내보임으로써 화재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 도표는 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나침반의 남쪽 지점이 가장 상서롭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맹렬한 요소에 특별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념비에서 본 광경은 매혹적이었다. 뒤쪽으로는 대담하고 불규칙한 외형을 가진 일련의 산들이 있었고, 중간 거리에는 세찬 송화 강이 지나는 지린 시가 있었으며 앞쪽에는 이끼 낀 수많은 작은 산들과 굽이치는 땅이 조그맣고 나무 많은 골짜기들과 함께 있었고 이 곳저곳에 일단의 기묘한 사원들이 자리를 잡았다. 매년 베이징에서 공

사관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사원에 방을 얻으려 했지만 사제들은 골치 아픈 투숙객이라 생각하여 받아주지 않았다. 마을 서쪽의 언덕은 소백산(小白山)이라 불리며 백산의 길운을 반영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메도우즈 씨와 팔라디우스 선교사에 따르면 군사총독이 그곳에서 왕조의 성산인 백산을 바라보며 일 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장엄하게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 그러나 사제들은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주는 것을 잊었다.

유명한 페르 베르비스트가 1682년 강희제의 뒤를 따라 지린을 방문했는데 다음은 그의 설명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지린은 400마일 떨어진 백산에서 발원한 큰 강인 송화 강 위에 서있다. 만주의 타타르인이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았다 하여 동방에서 매우 유명한 이 산은 언제나 눈으로 덮여있다고 이야기되는데 지명 또한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지린이 황제의 시야에 들어오자 그는 말에서 내려 강둑 위에 무릎을 꿇고 예의 표시로 땅에 세 번 절을 했다. 그런 뒤 황금으로 빛나는 옥좌에 올라 도시로 입성했고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보기 위해 떼 지어 달려가 그를 보고 기뻐 눈물을 흘렸다. 백성들의 애정의 표시에 기꺼워한 황제는 답례로 몸을 낮춰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보였고 베이징에서와는 달리 호위병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막지 못하도록 했다(지금까지도 베이징에서는 제지한다).

지린은 그곳에서 건조되는 다수의 하천용 선박으로 인해 추안창 또는 '조선소'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페르 베르비스트에 따르면 종종 강을 올라오는 러시아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는 특수 바지선들이 지린에 정박해 있으면서 진주잡이 어부들을 제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사실 황제는 바로 그 시간에 불법침입자로부터 송화 강을 지키기 위해 총독의 본부를 예전 주둔지인 낭안에서 지린으로 이동시켰다. 마을상황은 흠잡을 데 없이 좋다. 구릉지대로부터 솟아있는 송화 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급히 휘돌아 흐르며 약 4마일 동안 커다란 굴곡을 만들고는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강폭은 400야드를 상회한다. 필자가 평가하기에 7만 5천에서 10만의 주민을 갖고 있는 마을은 이 굴곡을 따라 약 2마일 정도 뻗어 있고, 강을 따라 나있어 제방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는 말뚝들 위에 세워진 목재바닥으로 건축되어 곳곳이 썩고 불안정하다. 마을의 서쪽 끝 위에 솟아있는 둥글고 낮은 구릉지대는 오른쪽 뒤로 돌아 정면의 강과 뒤쪽의 솟아있는 땅과 함께 강력한 장소가 된다. 우기에 거리들은 견고한 통나무가 깔려있는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진창이 되며 장터는 주거지 전체에서 가장 메스꺼운 장소 중 하나이다. 괴어있는 긴 시궁창이 장터를 끝에서 끝으로 나누며 그 안에는 죽은 돼지들, 개들, 각종 오물들이 떠다니고 그 가장자리를 따라 푸줏간과 야채상의 좌판이 있다. 1평방피트도 되지 않는 땅이 배설물과 갖은 종류의 오물들로 악취가 나고 있다. 상점들은 매우 빈약하며 불만한 사원이나 공공건물이 거의 없다. 마을의 서쪽 부분은 늪지대 위에 세워져 있고 일 년의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어 주민들은 베니스처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트를 타고 이동한다.

다음 여정이 수레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 지린에서 대금을 지불한 뒤 노새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그런데 군 장교가 통화 현에서 노새를 구입할 때 지불했던 금액의 영수증을 거부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그는 모든 이들과 싸우려 들었고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참다못해 우리 문 앞에 있는 진흙탕 호수 속에 그를 처박아 버렸다. 별을 자초한

끝이었다. 한편 전보국 하나가 방금 지린에 문을 열었기에 제공받은 돈이 부족할 것 같아 더 보내달라는 전보를 쳤다. 그러나 비가 전보선을 씻어 내려 답신을 받지 못했다. 2주일을 기다린 끝에 하인인 장산을 잉커우로 보내 돈과 편지들을 갖고 오도록 했다. 우리는 일부 총과 불필요한 짐들을 돌려보낼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지린에서 주로 관심을 끄는 것은 송 씨라는 한 신사의 지휘로 최근 설립된 병기고이다. 그는 텐진과 상하이에 있는 병기고의 외국인 책임자 밑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는 대단히 예의바르고 친절했으며 우리에게 곳곳을 보여주었다. 외제 기계류로 가득한 대형 건조물을 구경하는 일은 정말 흥미로웠다. 기계의 일부는 독일제이거나 영국제였고 보일러·엔진·증기망치 등을 갖추고 있었으며 울위치(Wolwich)나 엘스윅(Elswick)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모든 것이 외국인의 도움 없이 중국인의 힘으로 세워져 운영 중이다. 병기고는 서방국가만이 기계와 행정 능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믿는 유럽인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든다.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닝보 출신이며 이곳에 오기 전 실무 경력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징갈총에서 연발 라이플까지 무엇이든 만들어낸다. 독일제 기계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중국인이 영국제에 대해 갖는 생각은 독일제가 더 빨리 작동하며 미세한 작업에 더 나은 반면 영국제는 더 단단하고 정밀하여 늘 신뢰감을 준다는 것이다. 송 씨는 우리에게 자신의 십장 가운데 한 명이 발명한 기관총을 보여주었다. 발명이라기보다는 서양 모델을 채택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총은 매우 가벼워서 두 사람이 들 수 있었고 삼각 받침대도 아주 쉽게 작동했다. 총에 탄약이 장착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분당 80발이 별 이상 없이 순조롭게 발사되었다. 병기고의 강 반대편 쪽으로는 에리트

(Erith) 또는 커르키(Kirkee)에서 볼 수 있는 화약 공장이 세워져 있어 공인된 과학적 원리에 의해 화약이 제조되고 있었다. 중국인이 외국인에게서 배운 기계에 대한 최초의 지식을 자신의 동포를 효과적으로 파멸시키는 데 응용한다는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병기고와 화학공장의 건설은 만주의 군사력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고려 사항인지를 보여준다. 제국의 군사 감독관이 선발한 다수의 젊은 만주 신병들도 동일한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었다. 처음 마을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출입구에 심각한 표정으로 서있는 노인 앞을 많은 신병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노인은 큰 결심을 하는 것처럼 날카롭게 부채를 펼쳤다 접었다하고 다시 그것으로 손바닥을 두드리면서 맹렬하게 부치고 있었다. 그리고 뒤이어 수천 명이 밝은 색의 수많은 깃발들을 들고 행진하며 우리 앞을 지나갔다. 그들은 원형 천으로 된 깃발에 색깔을 넣고 연대의 이름을 새겼으며, 흰 테두리를 한 긴 청색 앞치마를 입고 그 위에 조끼나 몸에 꼭 끼는 소매 없는 상의로 이루어진 다소 흐트러진 복장을 하고 있었다. 머리에는 어두운 색의 멋진 터번을 두르고 있었다. 병사들 중 한 명이 우리와 함께 있던 심부름꾼에게 물었다.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3천 명이다. 그들이 여기 오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신병들이 자원했는지 아니면 모집을 통한 것인지 묻자 황제의 명을 거스를 정도로 대답하지 못하며 따라서 소집 시 복무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사실 그들은 정규군으로 전환중인 만주 의용군의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멋지고 건강한 젊은 이들로 보였고 바로 미래의 병사들이 될 자원이었다.

송 씨는 우리 모두를 저녁식사에 초대했고 한 미국인의 표현에 따르면 화려했다. 만일 우리를 친절하게 초대해준 그가 이 글을 읽게 될 경

우, 우리가 받은 대접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호의를 저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양해를 구한다. 먼저 식탁 중간에 받침접시에 담긴 전채들이 놓여 있었다. 새우와 절인 오이, 감퇴되는 식욕을 되살리기 위해 식사 동안 간간이 찾으라고 준비된 차게 절인 털난 콩들, 소량의 차가운 닭고기, 푸른 에스픽(Aspic)에 삶은 달걀(정말 매우 좋았다. 운 좋게도 우리는 한 동안 그것이 썩은 계란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다양한 종류의 마요네즈, 얇게 썬 햄, 혀, 차가운 돼지고기 등이었다. 전채를 맛본 후 정식이 대형 중국 사발에 담겨 들어왔다. 우리는 마음껏 먹었고 중간 중간에 손님들 각자에게 별도의 사발을 나누어 주기 위해 더 작고 더 정교하게 생긴 접시들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계속 들어왔다. 첫 번째 시리즈는 구운 닭과 끓인 소고기, 끓인 양고기, 달콤한 소스에 절인 잉어, 속을 채운 가지, 양기름 경단을 곁들인 구운 양고기였다. 특히 마지막의 양고기는 둔탁한 영국 양고기와는 다르게 입속에서 날아가듯 녹았으며 굴처럼 한쪽에 경첩을 달아 양고기 조각들이 안쪽으로 들어가 전체를 샌드위치처럼 먹을 수 있었다. 더 작은 요리들은 해삼스프(해삼 자체는 사마귀와 생성물로 뒤덮여 있으며 검은색의 거대한 캐터필러처럼 생겨 바라보기에 소름끼쳤지만 정말 맛이 뛰어났다), 두부스프, 깍지콩으로 만든 크림, 송로스프, 미역 맛이 나는 상어 지느러미 스프 등이었다. 상어 지느러미 스프가 제일 맛있었다. 사탕은 없었고 대단원의 막은 밥과 양고기 국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모든 요리를 다 먹어야 하는 부담이 없었고 일찍 배가 부르지도 않았다. 일부 요리들은 정말 훌륭했다. 와인은 쌀을 증류시켜 만든 약한 술이었고 약하고 따뜻한 와인인 셰리(스페인산 백포도주)와 맛이 정말 똑같았다. 만찬은 훌륭했고 따뜻한 인사와 접대자의 쾌활함이 한층 더 기분을 좋게 했다. 다

행히도 우리는 젓가락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고 도움을 받지 못해 곤란 하지도 않았으며(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려면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긴 했지만) 송 씨는 칼과 포크를 제공해주었다. 전보국의 젊은 신사인 나 씨는 텐진에서 훈련을 받아 영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에 초대받았다. 그는 “집처럼 편하게 있으세요(make ourselves to home)” 라고 말했고 우리는 그의 잘못된 영어 전치사 사용에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했다. 어느 날 로 씨는 섬세하고 얇은 청색 새틴 재질의 소매가 달린 짙은 검은색 비단으로 만든 기하학적 형태의 긴 외투를 입고 점심을 함께 하러 우리를 찾아왔다. 그의 바지는 멋진 녹색이 감도는 밝은 회색이었고 그 아래에는 검은 벨벳으로 만든 두꺼운 하얀색 바닥이 달린 승마용 부츠를 신고 있었다. 머리에는 정면에 흰색 품석과 진주가 달린 관원의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정말 빈틈없어 보이는 인물이었다.

우리에게 정중함을 보여준 유일한 다른 중국신사는 마을의 관관이었다. 그는 지역 공사위원회의 의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더러워졌는지 물었다. 그의 답변은 마치 스코틀랜드 고지에 있는 길의 비문 같았다. “이 길들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를 보았더라면 당신들은 현 행정부에 대해 손을 맞잡고 감사했을 것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마을이 원래 소택지 위에 건설되어 최근까지도 축축한 날씨로 인해 거리들을 전혀 다닐 수 없었으며 통나무를 깎아 길이었다면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었다.

지린 방문에서 중국인이 불친절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정중한 체 하는 좋은 사례를 경험하게 되었다. 캘커타를 떠나기 직전 필자는 지린에서 왔다는 중국인 서기를 한 명 만나 그에게 지린에서 도

움이 될 만한 소개장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두 통의 편지를 기쁘게 써주면서 소개장을 받게 될 관리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린에서 수신인 관리에 대해 묻자마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개장은 휴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판관도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불친절했다.

많은 낚시 도구들을 가져온 우리는 빗줄기가 약해지지 않자 안으로 들어가 낚시를 할 수 있는 크기의 배를 한 척 구해보려 했다. 보이는 배들은 많았으나 판관은 우리가 생각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 미뤘다. 성씨의 제안으로 우리는 도시 아래쪽으로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용연산(龍淵山)에 있는 룡탄 산이라는, 송화 강 오른쪽 독 위에 있는 언덕으로 소풍을 나갔다. 불가해하다고 여겨지는 용연은 숲이 우거진 협곡의 바닥에 있는 너비가 몇 야드에 불과한 작은 연못이었다. 방문객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고독한 느릅나무 한 그루가 말뚝에 둘러싸여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나무가 성스러운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사제들이 가장 중시하는 보물은 어느 황제의, 필자 생각으로는 건륭제의 친필이었다. 불행하게도 사원들은 당시 보수 중이었고 인부로 봄벼 안락한 방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린으로 돌아왔다.

지린에는 수천 가구의 이슬람교도들이 있다. 주 사원은 벽들에 쓰인 몇몇 아라비아어 문구들과 설교단 뒤쪽에 있는 다량의 코란 구절들을 제외하고는 중국 사원과 거의 구별이 불가능하다. 이슬람 법률학자는 자신이 홍콩과 싱가포르를 거쳐 메카에 갔었다고 이야기하며 깔끔하게 쓰인 아라비아어와 페르시아어 책들을 보여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책들은 칸다하르(Candahar)에서 온 것이었다. 그는 책들을 읽을 수는 있었으나 이해하지는 못했다. 겉으로 드러난 외모로는 이슬람

교도와 중국인을 거의 구분하기 어려우며, 만일 종교적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믿음은 점차 약화될 것 같다. 중국을 떠난 직후 필자는 자메이카로 갔다. 자메이카는 다수의 인도출신 하급노동자들이 이주한 곳으로 필자는 그들로부터 신자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회교를 포기하고 현재 유대인으로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윌리엄스 박사는 『중국총론』<sup>1</sup>에서 점차 믿음을 버리고 흡수된 허난 성의 옛 유대인 식민지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1700년에 예수회 신부인 고자인(Gozain)이 카이핑에 있는 식민지를 방문했을 때, 훌륭한 회당 외에도 주거, 노동, 예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다양한 건물을 갖춘 대규모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 1866년에 한 선교사가 그들을 재방문했을 때 유대교 회당이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음을 발견했는데 1183년에 회당을 건립하고 1488년에 재건했다는 기록이 담긴 돌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모든 의식과 예배는 중단되었다.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은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반면 다른 이들은 불교 사제가 되거나 유생이 되어 이즈음에는 독립적 분파로서의 그들의 존재는 상당히 축소된 것 같았다. 내부의 동력이 부족하고 외부로부터 사회적·지적·종교적 압력을 받게 되면 회교와 유대교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

<sup>1</sup> vol. ii, pp. 271~274.

## 제10장

# 지린에서 치치하얼까지

9월 3일은 치치하얼로 출발해도 좋을 정도로 충분히 날씨가 좋았다. 지린 사람들은 치치하얼로 우리를 데려가는 일을 놓고 의견이 갈려 한 쪽은 되지도 않을 일을 시작한다고 비난했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길을 보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전보는 여전히 고장나 있었고 몇 달째 돌아오지 않는 하인을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어 안전한 쪽을 택하기로 결정한 뒤 지역에서 약간의 돈을 빌리기로 했다. 쥘이궁이라는 유명한 회사의 지점을 운영하는 한 은행원이 귀중품을 맡긴다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200냥을 빌려주기로 했다. 마침 선물용으로 시계와 반지들을 가져온 것이 있어 담보물로 내놓았다. 우리는 구릉지대에서 발견되는 금들에 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작고 예쁜 주괴에 녹여 베이징으로 운송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마침 그곳에 있는 홍콩 상하이 은행의 지점장이 필자에게 티베트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그러리라 짐작한—금 일부를 보여주었다. 필자는 교

역이 정부를 피해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부는 만주에서 왔을 것이라 확신한다. 은행원의 응접실은 깔끔하고 조용한 방이었고 갖은 종류의 그림 같은 서체로 쓴 도덕 구절들이 벽을 빙 둘러 걸려 있었다. 방문했던 다른 모든 훌륭한 장소들에서처럼 차를 제공받았다. 차는 중국식 조리로 만든 언제나 섬세한 향을 풍기는 녹차로 찻잎을 잔에 넣고 끓인 물을 부은 다음 받침접시로 잔을 덮은 뒤(밑에 있는 접시에 더해서) 찻잎에서 고아낸 물을 거른다.

우리는 네 대의 경수레를 빌렸는데 각 수레마다 세 마리의 노새가 배정되었고 하루에 세 냥씩이었다. 이 요금은 시장가격보다 비쌌는데, 청나라 군사 감독관인 무가 북쪽으로 여행을 계획 중이어서 수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중국인 비기독교도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다. 일단 출발하자 마부가 길 위에서 고의적으로 빈둥거리기 시작했고 길잡이로 선발된 사람이 일부러 진창으로 끌고 들어가 몇 시간씩 행렬을 지연시켰다. 잘못된 거래를 한 것이었다. 길잡이를 바꾸어도 달라지지 않았고 하루에 35마일씩 가야하는 속도가 25~30마일에 그쳤다. 앞으로 올 여행객들에게는 비용에 상관없이 성과급으로 계약할 것과 필요하다면 대도시마다 수레를 바꿀 것을 권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결국 훨씬 저렴하고 덜 고생스러울 것이며 여행도 더 신속하게 끝날 것이다. 물론 고의적인 지체로 초래되는 끊임없는 짜증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선두의 마부는 훌륭한 노새들을 갖고 있었으나 세 마리 모두 고집이 섰다. 사실 어느 정도는 외교집이었다. 한 마리는 발 아래의 땅이 약간 부드럽다고 느끼자 바로 소리 없이 누워버렸고 아무리 심한 매질에도 일어서려 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그 노새가 내려가자 다른 노새들도 따라가려 했다. 어떤 경우에는 뒤의 노새가 약 1.5피트의

진창과 물속에 조용히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해 주인조차 참을성을 잃을 정도였다. 그래서 마구를 풀어준 뒤 다른 두 노새를 그 노새의 수레에 묶고, 원래의 선두 노새 네 마리와 함께 주저앉은 노새 위로 의기양양하게 수레를 끌게 했다. 다행스럽게도 진흙탕 속에서 노새가 구른 탓에 진창의 표면이 바위가 구를 수 있도록 매끄러워져 나머지 노새들이 그 노새를 타고 미끄러지듯 통과할 수 있었다. 노새와 수레들이 다 지나가자 그 노새는 마치 우리를 보살피는 일을 완전히 잊었다는 듯이 멍한 태도로 일어섰고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길 위로 복귀했다.

만주의 수레용 노새들에게는 입에서 유일하게 부드러운 부분인 잇몸 위쪽에 달려있는 채찍 끈을 사용하여 재갈을 물린다. 노새들은 영악해서 바퀴 멈추개를 갖추게 되면 발길질이 심해져 이를 막기 위해 단두대와 같은 것에 네 다리를 단단하게 붙들어 매야 한다. 그러나 대체로 노새들은 유순하고 참을성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주인들은 노새들을 매우 잘 다룬다. 밤이 되면 노새주인은 마지막으로 노새의 먹이를 살펴보고, 아무리 서리가 심하더라도 밤중과 정오에 다시 살핀다. 그 결과 노새들은 어떤 고된 일도 잘 견디며 늘 그렇듯이 온도계가 화씨 40도(섭씨 약 4도) 이하로 내려가는 때인 밤에 바깥에 내놓아도 별탈이 없다. 길 위에서 지체하게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레꾼들은 매우 좋은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필요할 때 열심히 일했고, 어려운 때 끈질긴 참을성을 보여주었다. 수레꾼들은 대개 노새들을 ‘왕바 가오’라 불렀는데 이는 다소 조잡한 육설로 거북이의 알을 의미한다.

지린에서의 출발은 조짐이 좋지 않았다. 한 지방의 수도라 하는 마을의 북쪽 대문을 통해 나있는 길이 너무 포장도 안 되어 있어서 몇 시간 동안이나 수레가 가지 못했고 노새 한 마리는 호수처럼 넓은 진흙

창 속에서 나뒹굴었다. 길은 한때 화강암으로 된 거대한 블록재로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강암 조각들이 늪에서 나온 섬들처럼 불쑥 튀어나와 있어 말이나 수레 같은 운송수단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같은 모습들은 베이징의 관문들에서도 볼 수 있으며, 유럽에서도 없는 일은 아니다. 필자도 한 번은 마드리드에 있는 철도역으로 가는 도중에 진흙탕에 빠졌었다.

일단 출발하자 여행은 키가 큰 기장과 대마 사이의 길로 진행되어 매우 단조로웠지만 도로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약 24마일 동안 우리는 쑹화 강의 왼쪽 독을 따라갔고, 백두산에서 떠내려 오는 거대한 나무 뗏목이 해체되어 24마리로 된 조랑말 무리에 의해 독 위쪽으로 운반되는 자산을 지났다. 우리는 바닥이 평평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수백 년 동안 이 지역의 주요 마을이었던 우루카이라는 곳에 닿았다. 1682년 강희제와 낚시 소풍을 하기 위해 여기에 왔던 페르 베르비스트는 이곳을 만주 최초의 도시이자 과거 타타르족 황제들의 영지였다고 묘사한다. Ning'an의 총독이 지린으로 옮겨왔을 때 지방 관리들도 동시에 우루카이에서 이동했다. 도시 바깥에 이끼 낀 거대한 성벽들의 유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은 분명 한때 중요한 장소였다. 그것을 메도우 영사가 900년 혹은 1천 년 전에 게탄족에게 넘겼다. 페르 베르비스트 이후로 거의 30년이 지난 뒤에 예수회 측량사들은 그곳을 쑹화라 불렀다. 예수회 측량사들은 중국 북부를 정복한 뒤 금나라를 세웠던 12세기 만주족이 이 도시를 세웠다고 믿었다. 유적으로는 '무심하게 높이 솟아 있는 피라미드와 폐허가 된 성벽들, 만주족 가옥 몇 채'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또한 이곳을 네 번째 혹은 마지막 도시라 불렀다. '이유는 지린 정부에는 오로지 네 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중 이

곳이 가장 작았다.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진 못했지만 비옥한 평원과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한 곳에 위치해 있어 훨씬 더 적절한 곳이었다.’ 200년 전 현재의 지린 성은 거의 사막이었음이 분명하다.

12마일을 더 가서 우리는 시자쯔 강을 건넜다. 강은 폭 120야드의 멋진 개천으로 숲이 우거진 언덕에서 멀지 않으며, 꼭대기에는 주변 수마일 밖에서도 보이는 불사조를 위해 헌정된 사원이 있다. 사원은 영국에서 석탄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에 건립된 신전의 거무칙칙한 모조품인 더램의 초대 백작 기념비를 연상케 한다. 우리는 창바이산맥의 마지막 봉우리에 작별 인사를 했다. 다음 장소는 히라허로, 그곳에서 우리는 커다란 도자기를 만드는 제작소를 발견했다. 마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 나오는 모르기아나(Morgiana)가 도적들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다. 이어서 파다하먼을 통과했는데 그 문은 이제 남아빠진 목재물건에 불과했다. 이것은 몽골족을 막기 위해 세워진 방책을 지나가는 통행로를 상징한다. 방책의 흔적은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다. 길은 매우 기묘한 함몰지, 즉 송화 강의 옛 바닥으로 향하는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개천은 점차 서쪽으로 흐르면서 비옥한 소택지 바닥을 지났고, 둥글게 된 경석 조각들에서 보듯이 지금도 종종 범람한다. 우리가 다시 강이 굽어보이는 절벽에 올랐을 때, 더운 날씨의 인도 갠지스 강이나 브라마푸트라 강처럼 송화 강은 여러 수로들을 통해 평원을 구불구불 지나가며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광활한 대초원 위로 나왔다. 가을이 시작되어 잎들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지만 사랑스런 하늘색 참제비, 지춧빛 아네모네, 초롱꽃과 다른 꽃들을 발견했다. 어느 날 비적을 잡아 이송하는 부대가 우리를 지나갔는데 처형을 위해 수레에 묶여 지린으로 실려 가는 중이었다.

지린을 떠난 지 일주일 뒤에 베두나 혹은 중국어로는 싱칭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쑹화 강 주변에 위치한 이곳에는 약 3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여기부터는 강이 매우 넓고 얕아진다. 영허즈밴드와 필자는 거리 산책에 나서자마자 바로 습격당했다. 필자는 미래의 여행객들을 위해 말을 타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자메이카 표현을 쓴다면 동양의 도처에서 ‘걸어 다니는 백인’은 무시 당한다. 수레를 타면 분명 나름의 이점이 있다. 식물 표본을 수집하거나 하늘을 관측하기 위해 쉽게 뛰어 내릴 수 있다. 또한 총은 사냥감이나 강도들을 만날 때를 대비하여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인이나 짐들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추천할만한 여행 방법은 아니다.

베두나에서 새 박제사인 주수가 병에 걸렸다. 담즙에 이상이 생긴 몹쓸 병이었고 심한 두통과 고열을 동반했다. 그리하여 원주민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는 불쌍한 그의 뜨거운 이마와 뺨, 귀, 관자놀이, 뒷목 등을 안마한 뒤 살을 따고 몇 방울의 피가 새어져 나올 때까지 비늘로 단호하게 찔렀다. 이 수술이 기대한 효과를 주지 못하자 필자는 약간의 타타르 구토제와 진통 특효약을 투여했고 결과는 모든 기대 이상이었다. 베두나에는 피사(Pisa)의 캄포 사토(Campo Sato)처럼 지옥에서의 고문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프레스코화들을 소장한 사원이 있다. 여자는 옷이 찢겨 몸이 드러나 있고 남자는 잘게 잘려 기름에 삶거나, 불에 타거나,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다. 이는 중국 사원 장식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이다. 우리는 관음보살이 베푸는 자비의 기적들을 표현하는 그림들도 종종 보았다.

베두나를 넘어 우리는 쑹화 강과 닌 강이 만나는 거대한 소택지에

도달했다. 그곳은 우리가 도요새 잡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이곳의 모기들은 필자가 들었던 어느 곳의 모기보다 맹렬했다. 코르덴으로 만든 두꺼운 짧은 바지를 마치 한 짝의 스타킹처럼 뚫고 사람을 물었다고 말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우리는 많은 오리와 거위들 그리고 필자의 생각이지만 백조들을 보았고, 훌륭한 만주 학이 정말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거칠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다. 안내인은 우리를 약 12마일 직경의 소택지 위로 데려갔다. 나룻배가 마을이나 가옥에서 멀리 떨어진 송화 강의 남쪽 둑 위에 있었고 사공들은 출발에 앞서 식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는 동안 비가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했다. 사공은 땅속에 파놓았던 건조지방의 구덩이로 대피했고 우리는 참을성 있게 비를 맞으며 기다렸다. 몇 시간이 지난 뒤에도 폭풍우가 더 심해지자 사공은 출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멀리 보이는 습지 위의 집을 여관이라 단정하며 찾아가라고 추천했다. 그러나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우리가 가로질러 왔던 습지는 스펀지와 비슷하여 수레를 온 길 쪽으로 되돌리려 하자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탈출하는 데에만 아홉 마리의 노새가 동원되었고 두 시간이거나 고된 노동을 해야 했다. 폴포드는 여관을 찾아가는 길에 흐르는 냇강을 간신히 건넜는데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여관은 만원이었고 기어들어갈 구멍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공을 한편으로는 비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르고 달래면서 마침내 출발하도록 꺾어냈다. 배 위에는 아무런 오두막도 없었고 비에 젖은 옷이 바람에 날리면서 뺨속까지 한기가 스며들었다. 강의 너비는 10마일이었다. 어둠이 깔리자 세찬 송화 강의 한복판에서 극도로 축축하고 불쾌한 밤을 맞게 되었다. 운 좋게도 우리는 어부들이 오두막을 지어놓은 길이 약 20야드, 폭

10야드 규모의 작은 섬을 발견했다. 어부들에게 숙박을 요청하자 기꺼이 동의했다. 집은 공간적 여유는 없었지만 지내기에 편안했고 곧 고생을 잊었다. 다음 날 우리는 빗속에서 두세 시간 동안 번갈아 샷대질을 하며 노를 저었고 마침내 넌 강 왼쪽 둑 위에 있는 쉬시잉커우라는 여관에 닿았다. 이번 여행은 정말 비참했고 기묘하고 추악한 사고로 끝났다. 구들에 누워있던 영허즈밴드가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침구 위에 놓인 가위가 뒤집혔다. 그러면서 가위가 땅에 떨어지기 전 그의 발을 찍었다. 그는 바로 다시 앉아누웠고 붕대를 감아줬지만 2주가 지나서야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처음으로 몽골의 스텝지역에 들어왔고 만주 정부를 벗어났다. 남쪽의 방책들이 경계를 이루고 있었고, 방책 바깥쪽, 즉 후란 근처의 한 지점에서 치치하얼의 남쪽 인근 지점까지 그은 선 바깥이 몽골 땅이었다. 사람들은 “우리는 황제의 백성이지만 땅은 왕 곧 몽골인 추장의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추장들이 총 48명에 이른다고 하며 징세와 행정이 그들 수중에 있다. 넌 강에서부터 치치하얼 강까지는 땅이 매우 비옥하지 못해 소량의 경작지만을 만나볼 수 있다. 우리 앞에 끝없이 펼쳐진 물결 같은 평원은 수분이 많은 풀들로 덮여 있어 양과 조랑말떼를 위한 훌륭한 목초지를 제공해준다. 많은 영양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질러 뛰어갔고, 뒷다리 길이가 1피트나 되고 캥거루처럼 털 발달된 앞다리를 가졌으며 꼬리에 사자처럼 술이 달린 인상적인 날쥐가 초원을 계속 뛰어다니고 있었다. 조류학자가 아니고서는 옛 영국새와 구분하기 어려운 멋진 능에도 많이 있었다. 우리는 시범삼아 능에 몇 마리를 사냥했고 맛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넌 강과 송화 강이 만나는 곳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곳에 일급의 귀

족 지위를 가진, 몽골 북방 고를로스 부족의 추장이 사는 곳이 있었다. 우리는 그곳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메도우즈 씨에 따르면 부유한 중국 토지귀족들의 지방 영지는 거의 본적이 없고, 양식과 크기 또는 유지 조건 등에 있어 그에 맞설 수 있는 중국 도시의 관청은 더더욱 보지 못했다고 한다. 주거지의 주변에는 오크나무 가로수 길들과 오크나무 군이 있고 나무가 귀한 지방이어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주고 있다. 중국 북부지도에 따르면 주거지는 남쪽을 향해 줄을 지어 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으며 각각의 사이에 안뜰이 있고, 가장 남쪽 줄에 커다란 바깥뜰이 있는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지 전체의 규모는 약 5~6에이커 정도이며 훌륭한 사원이 한쪽에 홀로 서있다. 족장은 부족의 세습관관으로, 중대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재판한다.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묵토편과 베이징에 있는 상급 법원들에 회부해야 한다. 남부 고를로스족의 추장은 송화 강 왼쪽 둑으로부터 약 2마일 뒤쪽인 년 강과 송화 강의 합류점 약 50마일 위쪽에 거주한다.

치치하얼로 가는 길은 일반적으로 년 강의 왼쪽 둑과 나란히 달리지만 홍수가 중간에 모든 지역들을 호수들로 바꿔버렸고, 그 호수의 둑에는 일반 학과 두루미뿐만 아니라 길고 수그러진 깃털이 달린 몸집이 큰 검은 학떼가 있다. 이 지역은 인구 밀도가 희박하여 밤마다 몽골 농장에서 자야했다. 숙소는 매우 깨끗하고 안락하다. 한편 우리는 스텝지대 전체에서 불과 두 개의 유목공동체만을 보았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몽골인이 유목생활을 포기하고 집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쥘산먼이라는 곳에는 아름답게 장식된 불교 묘지들이 있는데, 라다크에 있는 것과 거의 흡사하지만 그리 크지는 않으며 사리탑처럼 생겨 돔 속에 구멍이 있어 이를 통해 망자의 재들이 삼입되고 아름다운 양식으로 구조된

기와들로 장식된다. 중국어로 하오딩가이라 불리는 작은 몽골 주택에는 흙으로 만든 상당한 크기의 실제 불교 사리탑이 있으며 우산으로 받쳐져 있고 멀리서도 보인다. 일반인의 집에는 검은 나무로 조각한 작고 깔끔한 사당들이 있으며 사당이 열려있을 때 카트만두(Khatmandu)나 레(Leh)에서 살 수 있을 법한 부처의 작은 청동상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사당 앞에 타고 있는 청동등불조차도 똑같은 모양과 장식을 하고 있다. 몽골인에게서 우리는 뉴장을 떠난 이래 처음으로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는 우유를 얻었다. 개나 고양이 같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음식과 썩은 계란을 먹으며 아무 것도 버리지 않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검약한 농부인 중국인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평가받는 젖소의 우유를 손대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우유가 깨끗하지 않은 생산물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그렇다. 몽골인은 스스로 나이피라 부르는 우유 표피로 만드는 응유와 치즈도 주었는데 맛이 매우 좋다. 그것은 한 사발의 크림을 찌꺼기가 약 0.5인치 두께의 케이크 모양이 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끓여 만든다. 신선하고 부드러울 때에는 데본셔(Devonshire) 크림과 거의 비슷하며, 말랐을 때에는 무한정 보존된다. 어떤 곳에서 엄청난 보물, 즉 한 항아리 가득한 잘 정제된 버터를 발견했다. 인도에서는 고관들이 버터지방을 무시하지만 몽골에서는 기꺼이 받는다. 우리는 주변에 돌아다니는 라마승을 몇몇 만났는데 적색 장삼을 걸치고 삼각 주름이 있는 모자를 쓰고 있어 라다크에서 본 모습과 똑같았다. 어느 집에는 여승도 있었는데 머리를 뺨뺨 밀고 조잡한 노란색 장삼을 입었으며 목에 매는 띠를 허리에 두르고 가톨릭의 고해자처럼 열심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라마식 불교는 훨씬 더 순수하다는 점에서 중국의 불교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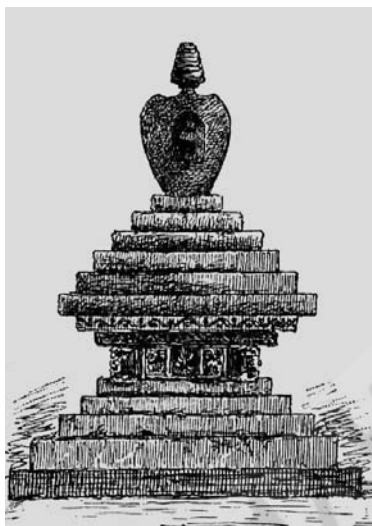


그림 1 몽골 라마승 묘

즉 공자의 철학이나 노자의 영령숭배가 섞이지 않은 것이다. 비록 기도와 감사라는 것이 숭배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티베트어 구절의 반복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행해지긴 하나 라마승들은 이들의 효용을 믿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우리는 아무런 기도문통도 보지 못했지만 시킵(Sikkim)이나 라다크에서처럼 문구들이 적힌 옥양목 조각이 두 개의 긴 장대 위 곳곳에서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을 것이다. 몽골인은 라마교 승려에 대해 커다란 믿음을 갖고 있고 그들 중 일부는 초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한두 명은 살아있는 화신 또는 부처의 환생으로 간주되어 사람들이 경의를 표한다. 길모어(Gilmour) 목사<sup>1</sup>는 몽골의 남자인구 가운데 60%가 라마승이라 평가하며 이유는 어렸을 적에 독

<sup>1</sup> Gilmour(1883), *Life amongst the Mongols*(London).



그림 2 몽골 라마승 묘 장식기와

신생활을 맹세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독신생활은 중국에는 어지러운 외설로 막을 내린다. 길모어 씨는 라마승을 매우 욕심 많고 억압적인 계층으로 묘사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그렇다—아무르 강에서 인더스 강까지 널리 보급된 라마교가 효율적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메마르고 광활한 지역의 주민들이 생존수단을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야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일부 지역의 라마교에서는 심지어 용인될 수 없는 일부다처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지린에서 아이훈으로 가는 길에는 15마일마다 역참이 있고, 각 역참에는 25명의 급사들이 말을 타고 정부의 급송 공문서들을 전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일정 수가 항상 번갈아 대기해야 하는 그들은 숙소를 무료로 제공받으며 매달 서른 냥의 작은 돈을 끼리끼리 나눈다. 역



그림 3 몽골 라마승 모 기와장식

에는 인도의 역전 방갈로처럼 생긴 집이 붙어 있는데 이곳이 중국 관리들이 출장 때마다 묵는 곳이다. 둘 또는 세 명의 급사들이 매일 우리에게 파견되어 홍수가 난 지방을 가로질러 갈 때 찾기 어려울 지도 모를 길을 안내 해주었다. 아주 매력적인 것은

청나라 군사감독관 무였는데, 그는 군대를 재편성하기 위해 치치하얼로 가는 길에 호위병들과 함께 우리 곁을 지나갔다. 그는 세단 의자에 앉아 여행을 했고—초기 만주의 영웅들이 얼마나 그를 비웃었을까!—약 200명의 군대를 동반했다. 무는 일찍 일어났고 취침 시각에 상관없이 항상 새벽 두 시면 이동을 시작해서 수행원들이 피곤하고 수심이 가득해 보였다.

치치하얼로 가는 중간에 우리는 중국 전신국이 고용한 네덜란드 신사를 만났다. 그는 북쪽 국경까지의 새로운 전보선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블라고베센스크에서 한 주를 보냈다. 넉 달 동안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열심히 질문을 했지만 고작 바바리아의 왕 루드비히(Ludwig)가 익사했다는 정보가 전부였다. 글래드스톤 씨가 제출한 아일랜드 자치법안의 운명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나 그는 우리에게 재미있는 일화를 한 가지 이야기해주었다. 남동 국경지대에 있는 훈춘을 방문했을 때, 그는 포시에트 항구에서 증기선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 그의 여권은 매우 정상적이었으나 도착 직후 제복, 군모, 칼 등 모든 것을 갖춰 입은 두 명의 러시아 장교들

이 방으로 들어와 해로를 통해 상하이로 이송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항의했고, 많은 노력을 들인 끝에 장교들은 중간에 어느 곳에서도 내리지 않는다는 일종의 가석방을 조건으로 온 길을 되돌아갈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다. 그는 러시아 장교들이 자신을 영국 첩자로 오해했다고 짐작했다. 러시아에 대한 영국인의 공포는 우스울 정도로 커서, 러시아인의 작은 영국 공포증을 발견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다.

베두나와 아이훈 사이의 길에 대한 수도원장 팔라디우스의 지도에는 계속 '고대 요새의 유적들'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처음에 우리는 그가 사각형 모양의 깊은 도랑과 언덕을 갖춘 소와 말을 위한 오래된 축사의 흔적을 옛 토루로 오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하오딩가이라는 곳 근처에서 우리는 정말 오래된 성채를 발견했고, 성벽들은 부서져 풀로 뒤덮여 있었다. 예수회 측량가들은 아이훈으로 가는 길에 그와 같은 요새들을 발견했고 몽골의 원나라가 명나라에 의해 추방되었을 때, 심지어는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간 이후에도 중국인에게 맹렬한 공격을 받아 중국에서 가장 먼 곳인 이곳으로 후퇴한 뒤에도 경계선을 두고 요새를 건축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유적들을 예수회가 본 것이었다. 그 당시 치치하얼 지방에는 만주족과 솔론족 외에 다고우리[다우리아인(Daurians)]라는 고대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던 마을들이 사그하리엔과 메르구엔이었고—양자는 그 지방의 핵심도시들이었다—사그하리엔보다 13리 정도 더 높은 곳에 아이콤(Aykom : 아이훈)이라는 옛 도시의 유적이 있었다. 아이콤은 명나라 황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인 영락제가 자신이 아무르 강 건너편으로 몰아낸 몽골족의 복귀를 막고자 세운 것이었다.

치치하얼의 첫 모습은 매우 마음에 들었다. 가장 두드러진 대상은 죽은 군사총독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철이 아주 그럴듯한 목제 패루였다. 아치들의 처마와 외부는 멋지고 기묘하게 조각된 목제 침상체로 가득했고, 침상체는 천정에 줄지어 있어 거대한 주름장식과 닮아 보였다. 옆에는 멋진 대리석 평판이 있어 패루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 패루보다 오래갈 것이다. 오른쪽에는 두 세트의 막사가 있는데 말쑥한 건물들이 사각형의 세 방향으로 펼쳐져 있으며 각각 750명의 병사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왼쪽의 나무로 가득한 구내 안에는 이슬람교 공동묘지가 있었다. 더 가면 도시 입구의 바로 바깥에 끔찍하지만 혼란 장면인 일단의 관들이 버려진 채로 땅위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이 관들은 이방인의 시체나, 친척들이 너무 가난하여 무덤을 살 수 없는 이들의 시체를 담고 있었다.

마을은 대략 3마일 떨어진 년 강과 연결된 호수에서 물을 공급받는다. 마을은 낮은 진흙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 중심부에서 서로 엇갈리는 두 개의 긴 주로와 이와 나란히 나 있는 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린보다도 더 더럽다. 많은 가옥들이 동방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평한 콘크리트 지붕을 하고 있고, 우리는 베두나에서 이미 똑같은 것을 보았다. 중국인은 천성적으로 공학에 소질이 없어 거대한 들보나 기둥으로 지붕을 받칠 수 없을 경우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박공이 있는 지붕을 짓지 않는다. 그리고 북쪽지방에서 목재는 매우 귀해 낭비할 여유가 없다. 따라서 이곳의 박공이 있는 지붕들은 기와가 아닌 짚을 이고 있으며, 높새바람에 지붕이 모두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앤드류 성인의 십자가처럼 광석으로 된 장치를 꼭대기 부분을 따라 고정시킨다. 이로 인해 외관이 그림 같아진다.

총독관저의 심부름꾼 덕택에 우리는 여관에 방을 얻었다. 유숙자 중 일부는 방해가 됐지만 사람들은 공손했다. 우리는 먼저 500~600냥의 어음을 바꾸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은행원은 관청의 보증만 있으면 현금으로 바꿔주겠다고 했으나 관리들은 우리의 돈 문제에 굳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했다. 그런데 여관주인이 잠시 생각을 해보더니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영국인 은행원이라면 이 가난한 중국인의 보증에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마을의 모든 하층민들이 우리 뒤를 따라 쏟아져 들어와 은행원의 비싼 쿠션 위에 쪼그리고 앉아 진행상황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들은 담배를 피거나 침을 뱉으며 머리를 앞으로 숙이기도 하고 흥이 나면 대화에 끼어들기도 했다. 우리는 현금으로 족히 100냥은 넘게 받을 것을 알고 있었고 받는 방법도 정확히 들었기에 하층민의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은행원에게 항의하며 사람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자 은행원은 너털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그는 단지 세 명의 외국인 악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 마을의 하층민을 성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위생시설이 없는 이 여관은 우리가 겪어본 중 최악이었다.

치치하얼은 죄수들로 이루어진 식민지였기 때문에 중국 전역에서 끌려온 수천 명의 유배자들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유배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경찰에게 신상에 관한 보고를 해야 했다. 이들이 비적 두목에게 신참들을 공급하는 신사들이다. 그러나 외관상으로 보면 치치하얼 사회는 다른 곳보다 더 악하지는 않다. 치치하얼 사람들은 한 가지 불쾌한 장난을 치는데 우리는 나중에서야 그것이 북방에서 널리 유행하는 장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홍옥수 대리석 두 개나 혹은 호두 두 개를 한 손에 쥐고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만지작거리거나 서로

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다. 노인들이 손가락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좋다는 것이 변명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을 정도로 만연해 있어 정말 짜증났다. 심지어 장이라는 악한처럼 생긴 우리 하인조차도 유행에 뒤쳐지지 않도록 빨리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었으나 필자는 바로 중단시켰다. 미국 사람들의 껌 씹기조차도 이렇게 불쾌하지는 않다.

치치하얼에는 볼 것이 거의 없다. 늘 그렇듯이 관리들은 우리를 반가워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군대는 인근지역에서 비적을 소탕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우리는 깃발과 통상적인 장비를 갖추고 행진 중이던 몇 명의 병사들을 보았다. 사격훈련은 분명 남자들의 몫이었고 대포들도 작은 청동 곡사포였다. 병사의 대부분은 만주족이었는데 우리를 평소보다 더 공손하게 대했다. 한편 이곳의 장례식은 흥미롭다. 붉은색을 칠한 엄청난 크기의 관은 거대한 들것에 실려 운반되었고 약주단과 여인들이 수레를 타고 뒤를 따랐다. 그들은 성장(盛裝)을 했고 머리는 은빛과 장식물들로 가득 치장되어 있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담배를 피웠고 분명 즐기고 있었다. 어떤 곳을 가더라도 늙은 여자들이 장례식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은 기묘한 것이다.

러시아와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첫 번째 흔적은 러시아 직물들로 가득한 한 상점에서 볼 수 있었다. 직물은 자줏빛이나 파란색과 같은 밝은 색깔로 염색된 거친 종류의 피륙이었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블라고베센스크로 계속 가고 싶은 열망을 느꼈다. 하지만 몽골은 충분히 보였다. 우리는 최상의 도요새와 오리 사냥을 기대했고 심지어 백조와 다른 공작새까지 꿈꾸었다. 그러나 송화 강 북쪽에서 크게 실망했다. 종종 몇몇의 오리들과 조우했으나 늘 충알을 피해갔다. 가슴이 하

안 까마귀들 사이에 섞인 다수의 띠까마귀도 있었지만 가끔 보게 되는 멧기물떼새, 때까치, 두루미 외에는 쓸모가 없었다. 멧기물떼새, 때까치, 두루미들은 너무 조심스러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능에 또한 마찬가지로 조심스러웠다. 그때마다 조랑말을 탄 몽골 소년들은 늘 영양들을 쫓아다니고 있어 이 동물들도 다가가기 불가능했다. 가을이 오면서 꽃들이 시들었고 더 이상 채집할 식물이 없었다. 적어도 3주가 걸리는 도로 여행인 아무르 강으로의 여행은 러시아인이 우리의 월경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었고, 흥밋거리 또한 별로 없는데다가 길 자체가 과거 며칠 동안 다소 지루하다고 생각되어 우리는 새로운 국경선을 넘어 스텝지역을 가로지르는 직행로를 통해 산상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이 지역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이미 암시한 바 있는 수도원장 팔라디우스의 여행기를 숙독해야 한다. 그가 치치하얼 북쪽 지방을 남부 지방처럼 끝없이 기복이 진 평원 또는 우체국이 띄엄띄엄 있고 퉁구스족인 솔론 만주족 또는 다후르족(Dahurs)<sup>2</sup>이 거주하는 곳으로 묘사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메르겐(Mergen)은 도시보다는 촌락에 가까우며 나무가 없고 탁 트인 황량한 지방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너머에는 년 강과 아무르 강의 분수령을 이루며 꼭대기가 뾰족한 숲으로 덮인 산맥 위로 가파른 산길에 있다. 예수회에 의해 만주어로 사그하리엔이라 불리고 중국어로 헤이룽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현재 역참에 불과하다. 그 너머에 국경지대의 중국 측 주요 전진기지인 아이훈이 있다. 70리<sup>3</sup>를 더

<sup>2</sup> Vide, p. 23, 각주 참조.

<sup>3</sup> 팔라디우스는 70리라 말했지만 여행을 해본 한 신사는 30~40리에 불과하다

가면 사할린이 나오며 그 반대쪽 아무르 강 왼쪽 둑 위에 아무르 강 상류의 러시아 측 주요 기지인 블라고베센스크가 있다.



---

고 말해주었다. 예수회는 13리라고 하는데 아마도 마일을 의미하는 듯하다.

## 제11장

# 치치하얼에서 산싱까지

9월 20일, 즉 지린을 떠난 지 17일째 되는 날에 약 360마일 떨어진 치치하얼(이 지역에서는 부쿠에이로 알려져 있다)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다시 23일에 출발하여 남동쪽 구릉지를 지나 송화 강 북쪽으로 약 200마일 떨어진 후란이라는 장소로 향했다. 최근 그 부근의 지역이 대대적으로 개간되어 대도시들이 성장하고 있으나 유럽의 지도에는 명칭들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다.

스텝지역을 건너는 데 일주일이 걸렸다. 치치하얼 근처는 습기가 매우 많아 한 곳에서 물이 1마일 정도 지나는 동안 굴대 위로 올라와 깊은 운하에서 끝이 났고, 그 운하를 지나면서 짐이 흠뻑 젖었다. 폴포드의 수레를 끄는 노새들이 눕기 시작해 잘못될 경우 그 곳에서 몇 주를 머물러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빈 수레들이 나타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실어주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 조금 더 전진하자 땅이 높아졌고 지표면의 요동으로 일정한 간격을 이루며 각각 약 4마일

길이의 일련의 산마루를 형성하고 있었다. 정상에서는 바다를 닮아 거대한 물결처럼 일렁이며 수 마일이나 펼쳐진 평원을 볼 수 있었다. 스텝 지역은 대개 키가 큰 풀들이나 향쪽으로 뻗뻗하게 덮여 있다. 향썩은 변종들도 풍부하고 가을에 베어 겨울용 땀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쌓아두기 때문에 지방 전체가 건초더미로 가득해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스텝지대가 메마르고 토양이 소다와 소금들로 가득 차있는데 소금은 레(Leh) 인근 작업장의 봉사처럼 원시적인 방법으로 추출해낸다. 빵을 만드는데 적합한 소다의 경우, 걸러진 광물을 용기의 바닥에 응고시킨 뒤 3~4인치 두께로 된 커다란 컵 모양의 덩어리로 만들어 꺼낸다. 지엔뜨라는 또 다른 종류의 소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커다란 솔 바닥에 모이는 응고물을 고리버들 세공으로 만들어진 바구니로 퍼내 물을 뺀다. 그러면 멋지고 촉촉한 갈색 물질이 나오게 되며 주형에 넣어 눌러 벽돌로 만들면 각각의 중량이 약 55캐티 또는 75파운드다. 작업장에 배달된 소다는 50캐티 또는 66파운드당 3실링을 호가한다. 또 다른 소다는 55캐티 무게의 벽돌당 1실링 6펜스에 팔린다. 15명의 인부가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들은 하루에 약 3실링을 벌었다. 그러나 연료가 부족할 경우 마른 풀로만 불이 유지되기 때문에 겨울과 마른 날씨에만 작업이 진행된다.

다른 곳의 스텝지역은 거의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며 가옥이나 여관은 20~30마일 간격으로 만나볼 수 있을 뿐이다. 눈이 깊게 쌓이는 겨울에는 여우떼가 출몰하며 우리 마부 중 한 명은 자신의 마차가 한때 몇몇 여우들에게 둘러싸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여우들은 마차를 따라왔지만 다행히도 두 마부들이 마차에 올라탈 때까지 공포를 느끼게 하는 소리를 계속 질러 쫓아버렸다. 이즈음 가을은 빠르게 다가와 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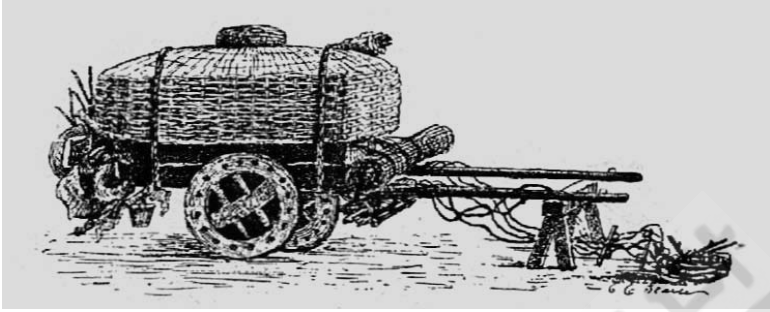


그림 1 기름 수레

맑고 햇빛이 났지만 밤은 차가웠다. 9월 25일 온도계는 아침에는 화씨 37도(섭씨 약 3도)를, 정오에는 102도(섭씨 약 39도)를 기록하여 봄의 히말라야처럼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9월 28일, 처음으로 얼음이 얼었고—온도계가 화씨 25도(섭씨 약 영하 4도)를 기록했다—스텝 지역에 띄엄띄엄 보이는 키 작은 자작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졌다. 치치하얼로 향하는 일단의 기름과 술 수레가 우리를 지나쳐갔고 기름과 술은 수레에 알맞게 만들어진 고리버들 세공으로 만든 바구니에 담겨 기름종이로 둘러쳐져 방수가 되어 있었다. 몽골족은 농업에는 매우 서툴러 몇 안 되는 경작지조차 잡초로 가득 차있으며 사치품들과 심지어 생필품까지 중국인에게 의존한다. 그들이 더 근면하다면 그렇게까지 금욕적으로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몽골족은 천성적으로 유목민 또는 유목민의 후예들이며 타고난 민족적 특성은 일순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여관으로 사용되는 한 가옥에서 우리는 슬픈 사연을 지닌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곡물과 비축물을 사기 위해 말과 수레로 후란에 갔으나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어 옥외에서 야영을 해야 했다. 게다가 달아난 말을 잡기 위해 이틀을 보내야 했다. 그러다가 그는 여관을 발견해 도

움을 받은 뒤 원래의 장소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그의 재산 모두를 신고 있던 수레가 사라져버렸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가시에 발이 찢렸고 굽아서 양쪽 다리와 발에 깊은 궤양성 종기가 생겼다. 여관사람들은 노인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틀림없는 사실이었으나 그는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우리가 들른 매우 작은 몽골 오두막집은 매우 단출하고 청결하여 중국식 가옥과 크게 대조되었다. 오두막집에는 방이 둘 뿐이었다. 하나는 부엌으로 항상 나이피가 끓고 있었다. 안쪽 방은 거실과 침실로 사용되었다. 깨끗하고 좋은 침구가 깔린 구들은 방의 삼면을 차지하고 있어 중앙에는 불과 1~2야드 넓이의 바닥공간만이 있을 뿐이었다. 방에는 반짝이는 작은 놋쇠 손잡이와 자물쇠들이 달려있는 라커철을 한 나무 궤들과 상자들이 벽을 이루며 오른쪽으로 천장을 향해 쌓여 있었다. 마음을 밝게 해주는 커다란 창이 문 쪽으로 나있었고 그 옆에는 부처상을 담고 있는 우아하게 조각된 검은 장롱이 있었으며 그 앞에는 튀어나온 선반 위에 일련의 밝은 청동 램프와 향로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거실과 부엌을 나누는 벽은 예쁘게 디자인된 격자세공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문 위에는 주인의 화승총과 화약통이 걸려 있었다. 여자 집주인은 토실토실한 미모의 중년 여인으로,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다. 그녀가 제 공한 우유와 나이피에 관해 이야기하는 동안 일부 이웃주민들이 부인과 가족을 데리고 우리를 구경하러 들어왔다. 아이들은 귀여웠으며 물건들에 정신이 팔렸고 한 작은 소녀가 엄마 곁에서 뽀뽀를 받거나 엄마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은 정겨웠다. 무뚝뚝한 중국인 사이에서 그런 애정표현은 드문 일이었다. 약 17세의 한 어린 소녀는 정말 예뻐고 커다란 갈색 눈과 올리브색의 얼굴은 무릴로(Murillo)의 마돈나를

연상케 했다. 사람들은 유머가 있었고 유쾌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머리모양은 물떼새의 계란 같았고 광대뼈가 두드러져 턱이 날카로워 보였다. 중국인은 골초였으나 몽골인은 그 이상이였다. 심지어는 어린이 들조차 파이프 담배를 즐겼다.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시골 노인이 우리를 방문했는데 여섯 살이 채 안된 소녀의 머리를 두들기며 그녀에게 불을 붙이라고 담뱃대를 넘기는 모습은 재밌었다. 그 조그만 하녀는 재빨리 불가로 달려가 담뱃대를 찢어 넣고 온전히 불이 붙을 때까지 빨아서 영감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담뱃대를 넘겨주기 전에 아쉬운 듯 마지막으로 길게 한 번 빨기도 해 그녀가 얼마나 담배를 즐기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잠시 후 집주인 여자와 옆방 수다쟁이가 구들 위에 인락하게 자리를 잡고 열심히 담배를 피우면서 비밀스런 이야기를 속삭였다. 두 사람은 일정 간격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많은 양의 가래를 뱉기도 했다.

남쪽으로 더 나아가자 스텝지역의 토양과 식물들이 좋아졌고 멋진 조랑말과 양떼들의 수가 훨씬 많아졌다. 마침내 우리는 샤오자텐이라는 곳의 경작지대로 나왔다. 평원에서 경작지로 경치가 갑자기 바뀌었고 이곳은 몽골과 만주 사이의 경계에 해당했다. 중국 농부의 경작지 경계에서부터 농지는 롬바르디만큼이나 조심스럽게 경작되었다. 우리는 이제 송화 강과 산맥 사이에 있는 폭이 100~200마일 정도로 다양한 어느 지조에 들어왔다. 농지 대부분이 과거 20년간 개간되었으며 수확물들은 처녀지와 비슷하다. 스텝지역을 떠나 20마일을 더 간 뒤 우리는 폭이 약 150야드에 달하는 흐름이 느린 후란 강에 도달했고 나룻배를 이용하여 건넜다. 같은 시간에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아이를 포대기로 감은 뒤 낮은 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은 정겨웠다. 아기 엄마

는 강을 건너다 중간에 조심스럽게 아기를 아버지에게 넘겼고 배 끝으로 가서 물 속에 약간의 현금을 떨어뜨렸다. 필자 생각에 이것은 아이를 위해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강의 신에게 바치는 제물 같았다. 젊은 부부는 필자가 아이를 보며 장난칠 때 꽤 흐뭇해했다. 모든 중국인이 외국인의 그런 행동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후란 마을은 쌍화 강과 만나는 지점에서 약 8~10마일 떨어진 곳에 있으며 나루터 너머로는 10마일 지점, 즉 강이 굽어지는 곳에 위치해 있다. 도시에는 약 3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강에서 시작되어 양쪽 끝까지 1.5마일 정도의 넓고 긴 거리가 주로(主路)인 듯하다. 상점들은 목텐을 제외하고는 만주상점들처럼 훌륭하며 라커칠을 한 가구, 거울들, 자기와 백랍 그릇들, 가죽, 의류, 관 등의 생활필수품과 사치품들이 성황리에 교역되는 징후들이 도처에 보였다. 주요공업은 수레바퀴와 엄청난 양의 도자기 제조였고 배를 통해 북만주 전역으로 수출되었다. 강에는 대형 보트와 정크선 몇 척이 정박해 있었다. 이들은 지린과 산싱 사이를 주로 오간다. 양질의 통나무 더미들은 북쪽 구릉 지대에 있는 숲들이 현재 벌목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후란은 프랑스 선교사인 페르 콘로(Père Conraux)가 유감스럽게도 중국 관원을 쏘았던 곳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 사건에 관해 계속 이야기하려 한다. 시장에는 상당량의 원숭이 고기가 공급되었다. 이 진미는 만주 북부지역에서 꽤 인기가 있어 항상 엉덩이의 꼬리가 정육점 주인의 가판대에 거꾸로 진열되어 있다. 구매자는 이 모습에서 쇠고기나 양고기가 속임수로 판매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다.

후란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미개함과 가까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몇 주 전 12명의 사람들이 황지라는 약초뿌리



그림 2 중국인 목수

를 캐기 위해 북쪽에 있는 산에 올랐다. 그들이 약초를 열심히 캐고 있는 동안 야생 솔론족 일당들의 습격을 받아 세 명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살해당했고 소지품을 전부 빼앗겼다. 세 명의 생존자들은 당시 캠프에 없었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었다. 그들은 총소리를 듣고 조심스럽게 관목 숲 뒤로 돌아가 동료들의 학살을 목격하고는 살기 위해 도망쳤다. 생존자들이 지금 막 후란에 돌아와 무사히 귀환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를 드리고 있었다. 우리는 살인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물었으나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아무것도 안합니다. 어떻게 중국 관원들이 산에 올라 야생 부족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이 사냥꾼들에게서 매년 공물로 가죽

을 받는 유목민의 최고 추장은 질서 유지와 범죄 억제만큼이나 살인자들에 대해 아무런 통제권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후란에서 북서쪽으로 방향을 바꿔 비옥한 지대를 지나 베이린프라는 신도시로 향했다. 이즈음 수확이 코앞에 있었고 하늘에는 곡물을 찾아 나선 야생 기러기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기러기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쇠기러기이고 다른 것은 좀 더 컸다. 폴포드가 한 무리를 쫓아가 한 방에 세 마리를 떨어뜨리면서 사냥을 시작했고 머리 위로 날아가는 기러기들을 제법 쏘아 대면서 상당량의 탄약을 써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곧 거리재는 법을 알게 되었고 매일 조금씩 기러기들을 모았다. 기러기는 맛이 매우 좋았고 한 시간에 약 60마일의 하늘을 날아가는 멋진 늑은 기러기를 잡는 즐거움보다 더 나은 스포츠는 없었다. 잔인한 일일지는 모르나 한 방에 새들을 떨어뜨리는 것은 유쾌한 일이었고 잡은 새는 소중한 보조식량이 되었다. 그러나 기러기들을 쫓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경계심 많은 늑은 수컷 기러기가 벧가리 위에 앉아 늑은 수컷 야생염소나 야생양처럼 주위를 날카롭게 두리번거렸다.

밤까지 베이린프에 도달하기 위해 길을 서둘러 가자 습지대의 한가운대를 통과하며 흐르는 니 강을 지나게 되었다. 아직 목적지까지는 수마일이 남아 있었다. 밤이 되자 우리는 기장 밖의 그늘에서 다섯 명의 신사들을 보았는데 마차꾼이 갑자기 비적들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길 옆에 서있었고 모두 총을 들고 있었다. 우리도 항상 총을 휴대하고 있었고 조용히 접근하면서 그들의 뒤를 기습했다. 필자는 그들이 다가올 경우 쏠 사람을 정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한 속도로 언덕 아래쪽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고 그들도 우리를 공격할 아무런 징후도 내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찰은 없었다. 그들은 젊고 강건한 친구들이

있고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어 순찰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중국인이 더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우리는 막 비적들의 근거지에 도착했던 것이다. 비적들은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변경의 삼림지대 주변을 좋아하며, 특히 삼림지역과 접해있는 북쪽 산맥은 그들에게는 안전하게 은신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인 것이다.

베이린쯔 자체는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로 해자와 진흙으로 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네 개의 주요 관문들에는 대포가 별로 없었다. 이곳이 바로 필자가 앞 장에서 담당 군관이 비적에게 팔았다고 언급한 장소이다. 금세기 초 인도의 핀다리스(Pindaris)처럼 소규모의 비적 떼들은 종종 돈이나 아편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붙잡아 손가락을 태우거나 거꾸로 매달아 고문한다. 그리고 자백할 때까지 희생자의 목 뒤를 칼로 계속해서 부드럽게 잘라 피를 뽑는다. 덜 잔인하긴 하지만 효과는 똑같다. 우리 마부 가운데 한 사람의 삼촌은 몇 년 전 베이린쯔로 이주했다가 비적들에 의해 납치되었다. 그는 요구한 몸값을 지불할 수 없었고 따라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베이린쯔는 번영하고 있으며 상점들은 변방지대임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도착한 다음 날 우리는 도시로 산책을 나갔으나 곧 일단의 사람들에게 조롱과 야유의 대상이 됐다. 그들은 우리 주위에 물려들어 뒤를 바짝 따르면서 얼굴을 들여다보았고 아주 더러운 차림의 한 친구는 뒤에서 필자의 코트를 자신의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 사이로 끼워 잡았다. 필자는 본능적으로 획 돌아보았고 바로 코에 주먹을 날렸다. 그는 뒤틀린 표정을 지으며 뒤로 나가떨어졌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한바탕 크게 웃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 일 이후로 사람들은 그리 가까이 다가오진 않았지만 자연산

증류주의 제조과정을 보기 위해 양조장으로 방향을 틀자 우리를 따라 양조장으로 밀어닥쳤다. 주인은 사람들이 양조장 주위의 모든 것을 밟기 시작하자 일단 이곳을 떠나 장소를 옮겨서 증류주에 관한 질문을 받겠다고 말했다.

베이린쯔는 ‘전도 협회’의 최북단 기지이다. 신부인 카드(Card) 선교사는 집에 없었지만 우리는 높은 널로 만든 말뚝으로 둘러싸인 구내에 위치한 기독교 건물을 방문했다. 작은 방이 교회였고 영국의 ‘비국교회 교회’처럼 아담하고 별다른 장식이 없었다. 창문은 종이가 아닌 유리로 되어 있었다. 제단은 평범하고 착색된 제재목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백랍 촛대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몇 점의 성화가 장식되어 있었다. 또 다른 쪽에는 신부의 관사가 있었으며 성물 안치소 관리인이 우리를 안내했다. 아담한 가구들의 선반에는 신학과 과학 서적 등 기본 도서들이 가득했고, 아네로이드 기압계와 망원경 등은 소유주가 문명인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벽로나 난로는 없었는데 온도계가 화씨 영하 49도(섭씨 약 영하 45도)까지 내려가는 곳에서는 낯선 장면이었다. 우리는 신부가 벽돌 난로 밑에 구들처럼 난방이 되는 일련의 연도를 돌리고 있음을 알았다. 이 연도들은 아주 적은 양의 연료로도 방을 완벽하게 덥혀준다.

우리 숙소는 여관의 공동실에 있었다. 그곳에서 매우 드문 광경인 과도한 아편 흡입의 희생자를 보았다. 그는 행상인이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편을 흡입했다. 행상인의 형상은 살아있는 해골 같았고 여위고 창백했다. 그는 거의 먹지 않았고 다만 가끔 차를 몇 잔 마실 뿐이었다. 그는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상습적인 주정꾼보다는 덜 불쾌할 따름이었다.

이 인근의 우물들은 깊이 100~112피트 정도이고 물이 표면 위에서

거품을 일으키는 늪지대 만주의 우물들과는 아주 대조된다.

베이린즈에서 우리는 남서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길을 따라 있는 농가들과 작은 부락들이 비적을 막기 위해 높은 벽과 능보로 요새화되어 있었다. 양조장은 정말 끔찍한 장소였다. 18피트 높이의 강한 벽들로 쌓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대포를 놓는 평지와 흉벽들이 모두 완비되어 이를 통해 벽을 오를 수 있었다. 출입문은 요새화되어 있었고 각 구석마다 조그마한 포들로 무장한 망루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망루 위에는 그림 같은 둥근 지붕이나 큰 천막이 있어 바깥 날씨를 견딜 수 있는 보호막을 제공한다. 문과 문틀은 얇은 철판으로 되어 있으며 거대한 징들이 박혀있고 무거운 자물쇠와 빗장으로 강화되어 있다. 안쪽에 있는 일단의 건물들은 종종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 상업이 성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높은 굴뚝은 영국 공장들을 연상케 한다. 양조장들은 이 지방의 자산과 부를 상징하며 바다로부터의 거리와 도로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 잉여 곡물을 주류 형태로 수출하기도 한다. 농지와 길가의 시골 사람들은 화승총과 칼로 무장하고 있었고 어떤 여행자들은 철고리로 서로 연결된 길이 4~5인치의 철제 볼트로 만든 도리끼와 같은 특이하게 생긴 호신장비를 지니고 다녔다. 능숙하게 휘두르면 치명타를 가할 수 있으나 가까운 곳에서는 쓸모가 없을 것 같았다. 베이징의 일부 기인들도 이 고대부터 내려오는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한 징후들을 제외하고는 마을은 전반적으로 근면하고 평화로운 공동체 같았다. 농지는 정성들여 경작되고 있었고 수확물은 훌륭했다. 농가를 돌아다니며 그릇을 파는 행상인들을 볼 수 있었고 길가의 여관이나 마을 우물가에서는 달콤한 음악을 연주하는 시각장애인 현악기 연주자나 피리부는 사람도 볼 수 있었다. 이들에게는 마치 비적들과 범

죄가 낫선 존재인 것 같았다. 수확은 절반쯤 끝났고 곡물은 재갈을 물리지 않은 소나 조랑말 또는 밀방망이에 의해 탈곡되었으며 탈곡장의 이삭들 위로 옮겨졌다. 밀방망이는 봄에 이랑에 뿌려진 곡물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가벼운 돌로 만든다. 옮겨진 곡물은 가래를 이용하여 겨를 바람에 날렸다. 이와 같은 원시적인 방식의 탈곡은 탕허커우에서도 영국과 똑같은 키질 기계를 보았던 우리에게는 다소 놀라운 것이었다.

베이린쯔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에 자오후우부라는 멋진 마을이 있는데 낮은 높이의 진흙 성벽과 젖은 도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비적소탕 임무를 맡은 지상군 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다. 총 600명의 병사들이 있었고 많은 적들(한 선교사는 지난 2년간의 수치를 무려 600명으로 잡았다)을 잡아 사형에 처하는 공을 세우기도 했다. 자오후우부를 지나면 높낮이가 전혀 없던 끝없는 평지가 기복이 심한 지역으로 바뀐다. 이곳에선 물길이나 갈래로 흘러 땅을 나누고 있었고 여기저기에 포플러숲이나 갈대숲이 있었다. 35마일을 더 가면 후란의 도시들 가운데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바옌수수에 닿게 된다. 바옌수수에는 2만 5천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진흙으로 된 장벽은 7마일 길이로 매우 약해 은행가들과 주요 상인들의 집은 모두 별도로 요새화되어 있다. 주민들은 석벽으로 도시를 둘러싸게 해 줄 황제의 칙령을 원하고 있다. 또 다른 로마 가톨릭 선교사인 페르 라귀(Père Raguit)가 이곳에 정착해있으며 반갑게도 우리는 그를 베이린쯔에서 온 카드 선교사와 함께 집에서 만날 수 있었다. 두 신사는 통상적인 프랑스 신부복을 입고 있었고 코사크 종족의 훌륭한 예를 보는 것 같았다. 특히 카드 선교사는 아주 멋진 수염을 보여주었는데 주변의 중국인과 비교해 볼 때, 자칼 사이에 있는 사자같이 보였다. 그들은 우리를 정말 진심으로 환영했다.

바엔수수의 기독교 공동체는 더 오래되었고 건물들도 베이린쯔에 있는 것들보다 더 정교하다. 교회는 기쁘게도 훨씬 더 커서 통로 하나가 더 필요하다. 라귀 선교사는 아름다운 정원을 하나 갖고 있는데 늦은 계절에도(10월 4일) 여전히 꽃들로 화려했다. 매우 훌륭한 채소들도 자라고 있었는데 우리가 떠날 때 라귀 선교사는 수레에 코벤트 가든의 채소들과 비교해 봐도 손색이 없는 배추, 홍당무, 감자, 상추 등을 잔뜩 실어주었다. 검약하고 최소한의 안락한 생활만을 위해 라귀 선교사와 그의 동료들이 취한 조치는 프랑스인의 융통성을 보여준다. 이들은 산에서 자라는 검은 까치밥나무만한 야생포도에서 훌륭한 적포도주와 브랜드도 만들어내는데 꽤 좋은 술이다. 우리 중 절반은 신부들이 유럽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갖고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그들은 과거 오랫동안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라귀 선교사는 1885년 1월의 하루툼(Khartoum) 함락에 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 광기어린 군중들의 비천한 투쟁에 관한 소식이나 아마도 1년에 한 번 받을 보급품들과 소식들을 기다리기는커녕 이 선한 선교사들은 주님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바깥의 거대한 세계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었다.

필자는 라귀 선교사의 학교를 방문했는데 열병이 돌고 있어 불과 6명의 학생들만 있었다. 한 조그마한 소년이 앞으로 나와 번개 같은 속도로 교리 문답서를 앵무새처럼 외웠다. 소년은 중국식으로 선생과 등을 맞대고 서있었는데 이 자세는 선생이 지니고 있는 책을 학생이 엿보는 것을 막아 다음 문제를 알 수 없게 만드는 반면 선생은 학생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우리는 라귀 선교사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이틀 동안 매우 즐겁게 보냈고 그들로부터 지역상황과 행정에 관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얻었

다. 다음 목적지는 샤오시허로 송화 강에서 10마일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세 번째 선교사인 페르 리파르드(Père Riffard)가 거주하고 있다. 라귀 선교사와 카드 선교사는 둘 다 전형적인 훌륭한 유럽인이었나 리파르드 선교사보다 더 강인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우리를 아주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집 근처의 숲으로 데려가 짧은 시간에 13마리의 꿩을 사냥하도록 도와 주었다. 리파르드 선교사는 점잖은 운동선수처럼 모든 사냥을 우리에게 양보했으나 본인도 훌륭한 사격수였다. 그는 피크윅(Pickwick)이라는 이름의 커다란 중국 개를 훈련시키고 있었고 그 개는 새 몇 마리를 실수 없이 물어왔다.

예상대로 우리는 선교사에게서 비적에 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다. 세 사람 모두 나름대로 경험이 있었다. 카드 선교사는 비적들이 퇴치되었던 작년에 베이린쯔에 있었다. 그는 여행 중 한때 말을 탄 비적 일당에게 포위되기도 했으나 강도에게 빼앗길 돈이 없는 성직자인 그가 마차에서 나와 수염을 보여주자 비적들은 당황하여 도망쳤다. 바옌수수에서는 관청 자체가 몇 년 전 비적들에 의해 불타기도 했다. 심지어 우리가 도착하기 불과 몇 주 전에도 리파르드 선교사는 비적들이 샤오시허의 상점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두 번이나 목격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상인이 저항 없이 바로 항복했고 엄청난 양의 돈과 아편을 빼앗겼다. 그러나 두 번째 공격 장소에서는 거주자들이 망루에서 응사하면서 방어전에 나서 비적들을 쫓아 버렸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또는 비적들을 추격하는 군대가 누구이고 가장 비겁한 자가 누구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만일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군인들은 꽤 많은 비적들을 잡은 것이나, 사실 건물 안에서 붙잡힌 도적들이 대담하게 도주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당국은 안전을 걱정하여 기마 호위대를 보내주었으나 그다지 쓸모가 없었다. 예를 들어 베이린쯔에서 출발한 뒤 호위대는 모두 뒤쳐졌으나 오히려 그들은 다음날 바옌수수에 나타나 우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했다는 증명서를 써달라고 태연하게 요구했다. 바옌수수 너머의 길은 극히 위험스럽다고 생각되어 15명의 병사들과 2명의 하급장교들이 며칠 동안 우리 뒤를 따랐다. 그들이 처음 한 일은 야생포도를 심고 가던 말 탄 노인의 수레를 약탈한 것이었다. 그들이 제공한 보호란 것도 명목상에 불과했고 언제나 한참을 뒤처지거나 앞서갔다. 그러나 당국이 우리의 안전에 가져준 관심에는 감사했다. 병사들은 돈 없는 인도왕의 수행원을 연상케 했다. 그들은 1858년에 제조된 브라운 베스(Brown Bess) 화승총과 독일제 및 미제 카빈총으로 구성된 완벽한 한 벌의 무기를 갖고 있었다. 화승총에 창검을 고정 장착한 병사는 동료와 경주를 하면서 행렬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말에서 둘 다 내렸을 때에는 병사나 짐승 어느 누구도 아무런 찢린 상처를 갖고 있지 않아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병사들 가운데 일부는 포졸처럼 행동했고 급료가 낮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괴롭혔다. 한 가지 강탈 방법은 인도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데 작은 야자 기름을 트집삼아 사건에 연관되지 않은 일단의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고 위협하는 것이었다. 관리들은 대개 부패하지만 이 변경지역에서는 특히나 더 악해 보인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리들을 비난하는 똑같은 이야기가 돌아다닌다. 가끔 벌레 같은 관리가 있어 고위 당국자들은 탄원서를 받게 된다. 황궁에 커다란 영향력을 지닌 바옌수수의 책임자가 얼마 전 해직되었으나 지방 상인들이 그에게 바친 엄청난 양의 뇌물들을 모아 베이징에 보낸 덕분에 더 높은 관리가 해직되었다.

중국인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으면서도 중국인에 대한 혐담을 늘어놓지 않는 유럽인을 단 한 사람도, 심지어는 교회의 선교사들 가운데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사실이다. 한 사제는 중국인을 아주 간단하게 거짓말쟁이, 거만한 자, 비겁한 자라 정의했고, 다른 모든 이들도 중국인이 손가락 감각이 무더질 정도로 물질적 성공에 흠뻑 빠져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법과 관례를 통해 부모의 권위에 대한 과장된 존경을 강요하지만 사실 서로 간에는 별다른 자연스런 애정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부도덕한 정도는 페르시아인이나 심지어 아프간인을 능가한다고 이야기한다. 무차별적 고발은 필연적으로 과장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필자의 많은 정보원들은 일반적 비난과는 맞지 않는 수많은 예외들을 쉽사리 지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족적 덕목보다 민족적 결점을 찾아내는 일이 훨씬 쉽다. 필자는 중국인에 대한 평판을 들은 대로 전달할 뿐이며 그 같은 평판에 필자가 주목하는 이유는 인도에서 유럽인 사이에 원주민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을 때 원주민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들보다 대체적으로 더 많았기 때문이다. 분명 중국인은 겉으로는 사랑스러운 특징들을 그리 많이 갖고 있지 않다. 적절히 말한다면 영국인은 중국인의 민족적 자부심에 동조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인은 너무나 많은 오만함과 이기심을 드러내어 불가피하게 비호감의 대상이 된다.

라귀 선교사의 뜰에는 훌륭한 수사슴이 한 마리 있었고, 리파르드 선교사는 우리가 체류를 연장할 경우 자신의 교구에 속한 솔론 타타르족의 도움을 얻어 인근에서 멋진 호랑이·곰·사슴을 사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겨울은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동쪽 국경에서의 여행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여행자들은 이 산에서 사냥을 멋지게 즐길 수 있으리라 필자는 확신한다. 리파르드 선교사에 따르면 암호랑이와 새끼 여우가 자신의 기독교 촌락 근처에서 사살되었고 길은 잃은 것으로 보이는 곰 한 마리가 집 근처에서 사살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우의 수는 매우 많아 돼지를 모는 소년들이 끊임없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라귀 선교사와 헤어질 때 필자가 받은 옛 도자기 접시는 매우 흥미로운 물건이다. 그 접시는 유적조차 사라진 계탄 시라고 짐작되는 곳에서 개종자 중 한 명이 파낸 것이다. 감정인들은 도자기 접시가 송나라 것이라고 단언한다. 달리 말하자면 정복왕 윌리엄만큼이나 오래되었다는 것이다. 그 접시는 현재 대영제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섭씨 영하 51도 심지어는 영하 65도의 추위를 계속해서 느꼈다는 드 라 브뤼니에르 선교사의 말에 라벤슈타인 씨가 정확성을 의심하고 나서자 우리는 겨울에 특히 온도가 얼마까지 내려가는지 물었다. 라귀 선교사는 네그레티 잠브라(Negretti and Zambra) 회사에서 만든 온도계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영하 38도까지 눈금이 내려갔다. 따라서 드 라 브뤼니에르 선교사가 그렇게 과장한 것 같지는 않다.

샤오시허를 떠나자 길은 송화 강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나란히 나있었고 물살이 거센 강의 모습은 매우 멋졌다. 왼쪽에는 싱안 산맥의 봉우리들이 이어져 있었고 곳곳이 송화 강가까지 내려와 있었으며, 강의 남쪽에는 일련의 산들이 있어 마이허 계곡과 후르가 강 또는 무단장 강을 나누고 있었다. 라귀 선교사에 따르면 마이 계곡의 정착민들은 현명해서 당시 지니고 있는 물건과 정체가 수상한 외부인들의 출현을 물리쳤다고 한다. 지나온 숲은 비적들의 은거지로 유명하며 얼마 전에 싸

움이 벌어졌는데 우리 호위대 중 일부가 연루되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24명의 병사들이 32명의 비적들을 패주시켰고 그 가운데 12명이 죽었다. 또 다른 비적떼가 강 근처의 저지대에 출몰하여 종종 정크선과 강의 배를 약탈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의 악한들을 보지 못했다. 이 지역 너머 산성까지는 매년마다 밀어닥치는 이민자들의 발길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 경작지로 개간된 상태가 아니었다. 대신 키가 작은 오크 관목 숲 지대가 넓게 뻗어 있어 꿩들에게 훌륭한 은신처를 제공해주었고, 농지 근처의 새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았다. 필자는 종종 수백 마리가 작은 그루터기 조각에서 날아올라 인근의 거친 곳에 내려앉은 뒤 우리가 발로 찰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우리는 실컷 그들을 잡았고 정말 멋진 사냥이었으며 포획한 새들을 두 달 혹은 세 달 동안 먹고 살았다. 꿩은 다른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었다. 수없이 많은 기러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녔고 종종 우리를 향해 똥을 썼다. 어느 날 우리는 커다란 뇌조나 산비둘기를 닮은 흑색 색깔의 두 마리 또는 세 마리의 새들이 멀리서 날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원을 그리고 있었고 일종의 엽조임을 알아챌 수 있었다. 중국인은 이들을 안개새라 불렀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새들을 잡을 수 없었고 종종 아직 자라지 못한 오크나무 위나 옥수수 더미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한 두 번 보긴 했으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 쓰지 않았다. 훈춘에 거의 닿아서야 비로소 수수께끼가 풀렸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년 같으면 더 빨리 왔을 것이다. 출발할 때 온도계가 화씨 23도(섭씨 영하 5도)를 기록했고 눈보라가 몰아쳐 하루가 지체되었다. 다행히도 여관 주인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주었다. 비적들에게 당한 적

이 있는지 묻자 그는 “종종 그랬다”고 답하며 “7년 전 납치되어 2천 냥 (500파운드)의 몸값을 지불해야 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외모나 차림새로 보아 여관 주인이 그 정도까지 가치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최대한 예를 갖추어 말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맞다고 주장했고 우리의 불신에 크게 상처받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마도 그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도 매우 자주 했던 것 같았다.

비교적 큰 촌락인 바이양무에서 우리는 지린에서 아셴허를 거쳐 산싱으로 가는 주로에 합류했다. 산싱은 오른쪽 독 위에 있었으나 지린 쪽 방향이 낭떠러지라 통행이 불가능해서 길이 강을 두 번이나 가로지르고 있었다. 높은 길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많은 다리들이 부서진 상태였고 일부 큰 개천의 수심은 수레가 가까스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마침내 10월 13일, 우리는 산싱 반대편에 닿았다. 바람은 모질었고 검은 진창인 여러 개의 호수를 건넌 끝에 주로를 가로질러 안락한 여관에 도착했다.

## 제12장

# 산싱에서 Ning안과 훈춘까지

만주 북동부의 제일의 도시인 산싱은 쑹화 강과 아무르 강이 만나는 곳에서 약 180마일 위쪽에 위치해 있으며 프리모르스크 지사의 관저가 있는 곳인 하바로프카에서는 300마일 떨어져 있다. 중국인이 이웃과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산싱과의 유일한 통신수단은 강이며, 더 북쪽으로의 식민화는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장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곡물의 교역량은 점차 많아지고 있어 정크선을 이용하여 하바로프카로 운송된다. 그리고 러시아 상인들도 종종 산싱을 찾는다. 1858년 체결된 아이훈 조약으로 적절한 정부 여권을 지닌 러시아 상인과 여행객은 누구나 쑹화 강을 항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그나티에프(Ignatief) 장군의 1860년 조약은 관련 조항을 생략하고 있으나 1881년의 페테르부르크 조약은 이를 되살려 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증기선이 쑹화 강을 거슬러 올라가 훈춘에 닿았으나 주민들이 돌을 던져 거부했고 아직 재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러시아인은 상

항을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무역이 중국 측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매년 두 지역 간의 화친조약이 개선될 듯하다.

1만 5천~2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는 번창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며 상점들은 매우 빈약하다. 삼면이 강—북쪽에 송화강, 서쪽의 후르가 강(중국인은 무단장 강 또는 베오니 강이라 부르지만 필자는 좀 더 짧은 만주 이름을 선호해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동쪽의 우궁강—으로 둘러싸여 있다. 산성의 후르가 강은 폭이 약 200야드로, 합류점 아래 1마일 정도는 맑고 푸른 물이 진흙탕인 송화강의 물과 나란히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시는 이 두 강이 만든 귀퉁이 안에 있다. 우궁 강은 가파른 언덕의 기슭에서 흘러나와 서쪽으로 거의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송화강과 합류하며 여귀에서는 그 폭이 약 100야드가 된다. 강은 종종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얇지만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는 깊이가 10피트였다. 높은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도시는 언덕들로 이루어진 원형경기장의 중심처럼 보인다. 그리고 언덕들은 도시를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추위를 막아준다. 겨울이 한창임에도 온도계는 우리가 머무는 동안 거의 화씨 95도(섭씨 35도)까지 올라갔다.

요새와 막사들은 동쪽으로 약 6~7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우리는 시중돌고 있는 파견 하사관에게 병영을 구경할 생각이라고 말하자 그는 즉시 중장(中將)에게 알리러 갔다. 그러나 중장을 만나기 전까지는 병영에 오지 말라는 전문이 돌아왔다. 못 가게 될까 염려했지만 허가 한다는 또 다른 전문을 받았다. 그래서 출발했다. 우리는 조랑말들을 수영시켜 우 강을 건넜고 송화강이 내려다보이는 가파른 언덕을 올랐다. 그 너머에는 너비 3~4마일 정도의 규모로 경작상태가 좋지 못

한 평야가 있었고 평야를 지나면 또 다른 산봉우리로의 오르막길이 있었으며 길을 지나서야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막사 여덟 개를 발견했다. 병영은 흙벽이 나있는 높이 솟은 흙벽에 둘러싸여 있었다. 1마일 너머에 요새가 있고 강둑에서는 몇 백 야드 떨어져 있다. 문은 활짝 열려있었고 노새를 타고 들어가자 보초를 서는 하급 장교가 나타났다. 그는 매우 친절했고 관람이 허용되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으며 나중에 약간의 차도 제공했다. 강 상류로 향하는 접근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요새는 최신식 장비인 크롭(Krupp) 대포로 무장하고 있었다. 중국 정부가 산싱과 같은 장소를 방어하기 위해 1급의 대포들을 유럽에서 수입하고 지린으로 가는 400마일에 달하는 가장 질 나쁜 도로를 통해 보내는데 각종 수고와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은 근대과학의 힘을 빌려 국경을 난공불락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여준다.

산싱 수비대의 병사들은 한가할 틈이 없다. 그들은 요새의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분주했고 그 밖의 시간엔 인근의 정부 소유 광산에서—적어도 우리가 들은 바로는—금을 캐다. 우리는 한 여관에서 모든 종류의 채광을 금지한다는 공고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도착하기 불과 이틀 전에 한 사람이 법규 위반으로 처형되었다. 중국 정부는 채굴 가능한 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러시아인의 물욕을 자극하는 일이 발생할까봐 취한 예방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금을 파내려는 의도이다. 무해한 땅이라는 그릇에서 금속을 파낸다는 것은 중국의 엄격한 전통적 관념에 따르면 신성모독 행위이며, 따라서 광부들은 언제나 종교법을 위반한 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 겉치레를 포기하고 있다. 정부는 베이징 근처에 독자적인 탄광을 갖고 있으며 외국 지질학자들을 고용하여 일부 지방에서 금속들을 시

굴하고 있다. 따라서 아마도 언젠가는 만주의 금광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채광을 금지하는 포고들은 대개 무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아주 운 좋게도 장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극을 발견했다. 연극은 재신(財神)을 기리는 일부 상인들이 후원하는 것이었다. 단 한 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연극은 정말 좋았다. 여위고 불쾌한 얼굴의 늙은 여인이 검은 옷을 입고 나와 영국 무대 위의 새침 떠는 나이든 입주 가정교사처럼 머리에 기름을 발라 붙이고 손가락을 쳐들며, 소녀에게 강의를 하고 있었다. 소녀는 멋지게 수를 놓은 프록코트를 입고 있었다. 소녀는 고민하는 얼굴로 손을 깎지 끼고 무릎 위로 쏟아지는 장광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긴 잿빛 수염의 아버지는 분명 딸에 공감하나 감히 대들지는 못해 우수어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반면 쾌활한 젊은 애인은 수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소심하게 구석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만일 배우들이 가성으로만 말하지 않았더라면 장면은 완벽했을 것이다.

산성은 낚시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황위 또는 철갑상어는 무게가 종종 1천 3백 파운드나 나가며 다양한 종류의 싱싱한 생선들이 풍부하다. 그러나 앞으로 더 이야기하게 될 다마하 또는 연어를 제외한 다른 생선들은 제철이 지났다. 우리는 연어 비늘로 만든 옷을 입는 비늘 타르인과 안면을 트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 송화 강 아래쪽으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살며 겨울에만 산성에 물건을 구입하러 오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산성에서 휴식을 취한 뒤 기온이 낮아지고 강이 얼어붙자 우리는 프랑스 선교사들의 충고에 따라 안쪽에 양털을 대고 소매가 손

가락 끝을 덮으면서 길이가 발끝까지 오는 긴 양가죽 코트를 구입했다. 나중에 우리는 양가죽코트가 정말 소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 산성에서 약 170마일 떨어진 Ningan에 닿을 때까지 후르가 강의 오른쪽 제방을 따라갔다. 길에는 여덟 개의 역참들이 있었고 각 역참마다 10~20명의 병사들이 있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호위대를 제공했다. 산성과 Ningan에서 파견된 부대가 역참을 지키고 있었다. 병사들은 ‘타워(Tower)’와 ‘윈저(Windsor)’라 표기된 브라운 베스 화승총, 엔필드(Enfield) 총, 윈체스터(Winchester) 연발 라이플총 등 다양한 무기를 갖고 있었다. 병사들의 의무는 요새를 함락시키고 비적을 추격하는 것이다. 여관이 없어 병사들은 우리를 자신들의 숙소로 데려갔다.

우리가 현재 택한 길은 몇 년 전에 수레의 통행용으로만 만든 것이어서 걱정이 되었는데 이 우레가 현실로 나타났다. 만일 길의 상태를 알았더라면 그 길을 따라 수레를 끌고 가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후르가 강은 산악지방을 통과하며 많은 언덕들이 강 위로 얼굴을 내밀고 있다. 길은 높이 200에서 1천 피트 높이의 끝없이 이어져있는 산마루들을 지나며, 중간에 있는 계곡들은 소택지를 형성할 뿐이다. 데본셔처럼 기사들은 경사를 완화시키거나 어려운 장소들을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수레는 다니지 못하는 오래된 마로(馬路)를 따라만 갔고, 그 결과 수레는 언덕 기슭 위로 곧장 가야 했다. 언덕 기슭은 중국 외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절대 다닐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최악의 늪 가운데 일부는 독이 있거나 여러 곳에 다리가 놓여 있었지만 오크 묘목과 이토에 불과한 다리는 대부분 무너져있었다. 둘째 날, 비가 오자 언덕 기슭은 늪의 연속일 뿐이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모여 수레를 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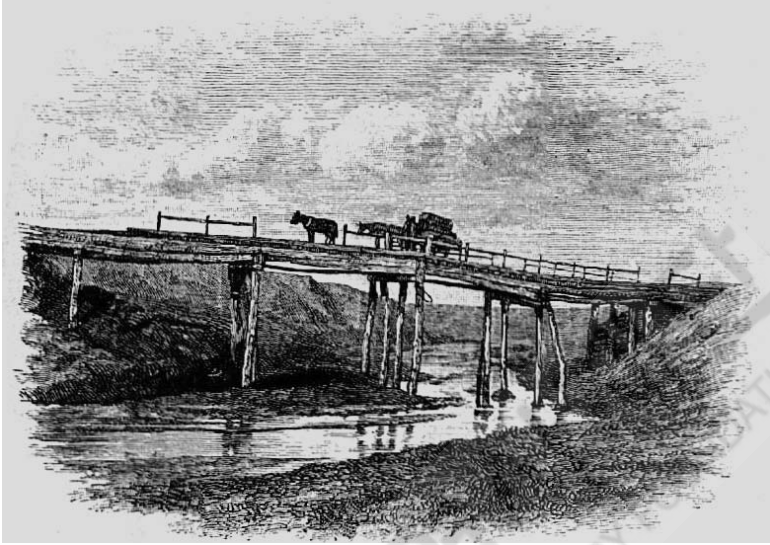


그림 1 다리

밀거나 수렁에서 들어내야 했다. 다리 하나는 차도 부분이 갈라져 있어 선두 수레는 간신히 피했으나 두 번째 수레는 추락했다. 우리는 수레를 원상으로 돌리기 전에 짐을 내려야 했다. 거의 수직으로 솟아있는 언덕 위로 수레를 견인하는 일로 그날 하루를 다 보냈고 수레들은 한 번에 고작 1~2야드를 갈 수 있었다. 셋째 날, 강으로 난 가파른 길을 내려가면서 수레 두 대가 뒤집혔고 한 대의 수레 채가 부러졌다. 수레들을 원상 복구하고 수레 채를 최대한 수선한 후에 우리는 낭떠러지와 강 사이의 강변을 따라 나있는 길로 여행을 계속했다. 그 길은 너무 좁은 곳에 있어 돌로 임시 방벽을 세워야 했고 그런 다음에야 수레들은 비로소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 1인치의 실수라도 있었다라면 수레들은 깊은 강물 위로 무너져 내렸을 것이었다. 그 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 생각했으나 병사들은 “천마루에 도달할 때까지 아직 아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곳이 가장 높고 가파른 오르막길이  
 였다. 자신을 채찍으로 상상하는 한 수레꾼은 바퀴를 꺾는 사람들 외에는  
 혼자서 해낼 수 있다고 큰 소리쳤다. 그러나 경사가 너무 가팔랐다.  
 노새 한 마리가 끝머리에서 비틀거리자 바퀴도 마찬가지로여서 수레는  
 두 번의 공중제비를 넘은 뒤 뒤집혔다. 모두가 다시 언덕기슭을 내려갔  
 다. 짐들은 삼지 사방으로 흩어졌다. 수레 지붕은 부서졌으나 주축의  
 노새는 다치지 않았고 아무런 심각한 피해도 입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  
 머지 수레들 각각을 여섯 마리의 노새들이 끌게 하고 병사들이 뒤에서  
 밀어 마침내 정상으로 돌아왔다. 다음번 여행 때는 운송용 노새로 이  
 길을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겨울의 첫 번째 서리가 시작되지 않았  
 더라면 그리고 소택지의 표면이 웬만큼만 굳었더라면 우리는 돌아가야  
 했을 것이다. 가던 길 중간에 길옆에 서있는 ‘닝안 출발 산성 도착’이라  
 고 쓰인 연락선행 전봇대가 눈에 띄었다. 병사들은 길을 따라 수레를  
 타고 배치되었는데 수레와 노새 양쪽의 사상자 수가 셀 수 없을 정도였  
 다고 말했다.

후르가 강 상류의 여름 풍경은 분명 사랑스러웠다. 강바람은 키 작  
 은 오크나무로 덮인 언덕들 사이의 깊은 계곡에서 불어오며 강의 변두  
 리까지 내려오는 한편, 동쪽으로는 꼭대기가 키 큰 소나무 숲으로 덮여  
 있는 일련의 멋진 산들이 솟아있다. 이들이 후르가 강과 우수리 강의  
 분수령을 형성한다. 인근 골짜기에서는 많은 금이 발견된다. 후르가 강  
 의 가을은 매우 천천히 온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여울을 알아채지  
 못했다. 여울의 평균 폭은 100~150야드이고 깊이는 5~10피트로 다  
 양하며 따라서 얇은 여울이 없다.

산성에서 40마일 떨어진 곳인 웨이즈허에서 우리는 멈췄다. 그곳에

서부터 노새길이 시작되는데 이 길은 용감한 비노 선교사가 1850년에 살해된 드 라 브뤼니에르 선교사를 찾기 위해 떠났던 기념비적인 여행에서 택한 곳이다.<sup>1</sup> 오늘날에는 수레조차도 우수리 강과 모리 강이 교차하는 곳까지 산맥을 가로질러 간다. 웨이쯔허까지는 경작지가 흔하지만 남쪽부터는 계곡이 좁아지며 인적이 거의 끊긴다.

각 역참 주변에는 많은 꿩들을 잡아끄는 옥수수나 기장 밭들이 조금 있어 우리는 멋진 사격을 즐겼다. 만일 좀 더 충동적이었다면 포획량은 상당했을 것이다. 잿빛 메추라기들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구렁기 슴은 노루로 가득했다. 병사들은 우리에게 사슴머리 몇 개를 주었고 그 중 하나는 현재 대영제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본 어떤 머리보다 더 멋지다. 우리는 몇 마리의 누른도요를 놓아주기도 했다. 다시 이상한 ‘안개새’를 발견했고, 썩은 다리와 씨름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100마리 이상의 ‘안개새들’이 길들인 비둘기떼와 함께 머리를 천천히 날아올랐다. 새들은 강 건너편 버드나무에 동지를 틀어 우리는 그들을 쫓을 수 없었다. 안경을 쓰고서야 수놈이 짙은 청색 혹은 흑색이며 암놈은 얼룩덜룩한 화려한 갈색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새들은 닭장의 암탉처럼 가지 위에 떼 지어 앉아있었고 도무지 정체를 짐작할 수가 없었다. 후르가 계곡에서 자고는 드물었다. 오직 한 마리만 잡았을 뿐이었다.

산성과 낭안 사이를 흐르는 후르가 강에는 네 개의 주요 지류가 있는데 두 개는 양쪽 제방에 있으며 거기서 ‘다마하’라는 연어가 수 톤씩 잡히는 것을 보았다. 이 연어는 여울목에서 노닐다가 산란기가 되면 산

<sup>1</sup> 주해 D 참조.

란을 위해 헤엄쳐 올라간다. 연어를 잡기위해 다양한 장비들이 사용된다. 약 30야드의 폭과 2.5~3피트 깊이에 달하는 개천인 우수후허를 가로질러 독이 건설되었다. 독은 바다에 두 개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건너편에는 버들가지로 만든 어살이 있다. 연어가 구멍을 통해 지나가다 어살을 넘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수면 위로 오르면 갈고리로 끌어올린다. 이런 식으로 몇 분 동안에 백 마리가 넘는 알이 꼭 찬 연어들이 갈고리가 물에 들어가는 즉시 바로 낚이고 있었다. 흔치 않는 장면이었다. 연어는 배를 갈라 햇볕에 말리면 겨울동안 귀중하고 가장 맛있는 식량이 된다. 연어는 그물로 대량으로 잡거나 컴버랜드에서 딸각고리라 알려진 것으로 낚는다. 18~20피트 길이의 개천이 모래톱의 얇은 바닥을 가로지르는 지점들에 노인과 소년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다. 장대는 개천 중간쯤의 물속에 잠겨있다. 연어는 천천히 표류하거나 제방을 향해 느린 속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일부 길 잃은 연어는 제방에 맞서 헤엄치며 뛰어오르는 대신 고리에 걸릴 때까지 장대를 따라 간다. 그때 어부는 장대를 낚아채고 물고기는 밖으로 끌어올려 진다. 어획량은 엄청나다. 한 곳에서만 수천 마리의 연어를 말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좋은 색이 어두우며 은빛 외관이 부족하다. 턱에는 두 개의 큰 이빨이 있고 양 옆에는 띄엄띄엄 분홍색 점들이 있다. 연어의 두드러진 특징 한 가지는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100마리를 잡을 수는 있지만 눈으로 다른 것보다 특히 더 작거나 큰 것을 고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드 라 브뤼니에르 선교사는 우수리 강에서 낚이는 다마하에 관해 언급한다(주해 D 참조).

산성을 떠난 지 아흐레 되는 날 계곡이 넓어졌고 낭만으로 가는 마지막 50마일 동안 우리는 번창하고 있는 수많은 마을들과 광활한 경작

지들을 지나치며 순조롭게 전진했다. Ningan 북쪽 20마일 떨어진 예허라는 곳에는 반원형으로 펼쳐진 일곱 개의 막사로 이루어진 병영이 있다. 수비대가 축소되면서 그 가운데 현재 네 개만 사용되고 있다. 이 초소는 구릉지대를 가로질러 서있는 중국의 전초기지 산자커우에 이르는 길 초입을 지킨다. 산자커우는 예허에서 약 100마일 떨어져 있으며 폴타브스카야(Poltavskaya)와 가깝고 거기서부터 남동쪽으로 약 35마일 떨어진 니콜스크(Nikolsk)라는 러시아군 주둔지로 가는 길이 나 있다.<sup>2</sup> 『교육적이고 흥미로운 서한들』이란 저서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만주족 왕자들이 추방되어 고문을 받아 사망한 곳으로 묘사된 푸르단이라는 고대 도시는 니콜스크에 가까운 것 같았다. 우리는 하루를 예허에서 머물렀고 직사각형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높은 토벽으로 둘러싸인 오두막집 구역인 막사를 방문하러 갔다. 그러나 가는 길에 지휘관에게서 전문을 한 통 받았는데 내용인즉 여행을 도우라는 명령을 받긴 했지만, 막사를 보여주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기에 들여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텐진과 잉커우에서 막사들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정중한 전문을 보냈고 무엇인가 오류가 있었으리라 짐작했다. 곧 빛나는 품석과 양눈박이 공작 깃이 달린 모자를 쓴 제복 차림의 여단장이 직접 멋진 말을 타고 나타났다. 그는 매우 공손했으나 강인했다. 폴

<sup>2</sup> 미국 여행가인 그리넬(Grinnel) 씨는 니콜스크의 낮은 요새를 높이 30 또는 35피트의 성벽과 6에이커의 땅에 달하는 성채로 묘사한다. 네 개의 출입문이 있고 성 바깥에 한 개의 해자와 두 개의 호로 방비되었다. 또한 그리넬 씨는 석상들과 공들여 조각한 기둥 조각들을 보았다. 석상과 기둥 조각들은 평텐 남부의 요새들처럼 이제는 조선인들의 것이나 아마도 기원은 발해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다.

포드는 다른 곳에서 비슷한 막사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막사를 구경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지나가는 길에 막사를 방문하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말을 마치고 우리는 여단장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들로 말을 타러 나갔다. 영허즈밴드가 타고 있던 온순하고 작은 조랑말은 잠시 후 용기병의 뒤를 갑자기 발로 차면서 곧 유명해졌다. 기병은 그 같은 뻘뻘함을 전혀 예상치 못해 완전히 거꾸로 진창에 처박혔다. 놀라고도 멋진 광경이어서 차인 용기병조차 소리쳐 웃었다. 다음 날 우리는 나룻배를 타고 후르가 강을 건넜고 7마일을 더 간 뒤, 10월 26일에 Ningan에 도착했다. 나룻배와 도시 사이에는 강이 큰 원을 그리며 돌아 흐르고 있었고 기본 방향은 북쪽과 남쪽이지만 Ningan에서는 지린의 쑹화 강처럼 동쪽과 서쪽으로 흐른다.

Ningan은 번창하는 곳이다. 뉴잡의 전직 영사였던 애드킨스 씨가 1871년에 이곳을 방문했을 때 주민의 수는 3천 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만 5천~2만 명을 상회하며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 주변 지역은 개방되어 있고 경작상태가 좋으며 부근에는 수많은 비옥한 계곡들이 있다. 지린으로 통하며 또한 훈춘으로도 가는 큰 길을 장악하고 있고 황량하고 산 많은 지역에 풍부한 보급품을 공급하는 Ningan은 상당히 중요한 곳이다. 1880년에 이닝 문제로 전쟁이 선포되었더라면 러시아인이 이곳과 산싱을 점령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이다. 이곳은 관청만이 높은 석벽으로 둘러싸여 있을 뿐 요새가 없다. Ningan은 물 중간의 깊이가 3~4피트인 깨끗한 개천인 후르가 강가에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산싱까지도 항해가 가능하지만 나룻배를 제외하고는 물 위에 단 한 척의 배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름에는 멜론과 마늘 및 다른 채소들을 구하기 위해 산싱에서 배들이 온다고 한다. 그러나 강 교통량에 대해서

는 언급할게 없다. 한편 나룻배 근처의 제방 위 옥사에는 범질서를 강  
조하기 위해 비적떼의 머리가 걸려있었다.

도착 직후 우리에게 영어로 글래드스톤이라는 유명한 이름이 쓰인  
엽서가 배달되었다. 주인에게 안내받을 때 우리는 중국인 전보배달부  
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이 호칭을 텐진에 있는 유럽인 교사에게서  
받았다고 알려주었다. 전보배달부는 멋진 실력으로 중국 현악기를 이  
용하여 우리에게 한 곡조를 들려주었고 정말 다양한 재주를 지닌 신사  
였다. 유감스럽게도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글래드스톤 씨’가 공무와 관  
련해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돈과 국가의  
돈을 구분하는 것을 잊어 목에 무거운 목재 칼을 쓰고 병사들에 의해  
강제로 소환되었다.

전보국은 막 개통되었다. 우리는 잉커우로 전보를 보냈고 지린에서  
잉커우로 보낸 하인이 10월 15일에 돌아오자마자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린에 있는 그에게 Ning'an으로 와서 훈춘에서 돌아  
오는 우리를 기다리라고 전보를 보냈다.

산성처럼 Ning'an에서도 가장 불만한 것이 연극이었다(언급하긴 했지만  
지방의 중국 연극 상연은 장터 같은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무료  
였다). 연극의 내용은 분명 신화적이었고 비슷한 종류의 인도 연극과  
많이 유사했다. 남자배우는 가면을 쓰고 커다란 도금 투구에 굉장한 곳  
수염과 거대한 턱수염을 달고 있어 마치 사원에서 나온 신과 같았고,  
그 중 한 명은 펑 꼬리털로 만든 멋진 깃털장식을 과시했다. 그들은 인  
도 무대의 쿠루스(Kurus)와 판두스(Pandus)처럼 의기양양하게 걸으면  
서 큰소리쳤고, 칼과 단검을 차고 용감하게 서있던 부하들은 복창했다.  
하지만 우리가 도착하자 관중들의 관심은 무대에서 변변찮은 우리들로

바뀌었고, 서로 밀고 당기며 우리를 조사하려해 바로 빠져나왔다.

10월 29일에 훈춘으로 출발했다. 낮이 빠른 속도로 짧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촛불 옆에 서있어야 했다. 우리는 뜨거운 죽 한 사발과 차 한 잔을 마신 뒤 새벽에 출발했다. 온도계도 또한 점점 낮아져 아침에는 이제 화씨 11도(섭씨 약 영하 12도)까지 내려갔다. 시내와 습지들이 얼어붙고 있었고 길은 말라서 굳어가고 있었다. 얼음이 너무 얇아 그 위로 걸을 수 없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얼음과 굳은 땅이 여행에 도움이 되었다. 양가죽은 마차를 타고 갈 때 정말 소중한 것. 걸을 때에는 두꺼운 영국제 방한코트, 카디건 조끼, 그 아래 입는 울로 짠 조끼로도 추위를 막는 데 충분했다. 그러나 북풍이 불 때에는 가죽이나 양가죽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다. 우리는 후르가 강을 건너 하마 강이라는 조그만 개천의 계곡을 따라 올라갔다(마란허의 비옥한 계곡을 따라 오른쪽에 더 좋은 길이 있다). 둘째 날 앞서가던 노새 중 한 마리가 얼음과 진창 속에서 주저앉았고 위로 끌어올렸을 때도 내딛기를 거부해 정말 포기해야 할 것 같았다.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때리는 와중에도 조용히 목을 늘어 얼은 목초를 입안 가득히 우적우적 먹었다. 산성에서 닝안으로 가는 길처럼 여관들을 찾을 수 없어 역참에서 숙박했다. 셋째 날 우리는 자작나무, 가문비나무, 소나무로 이루어진 숲에 닿았다. 소나무에는 먹을 수 있는 6인치 길이의 솔방울이 달려 있었고, 종자들인 아몬드가 각각의 잎 줄 바닥에 줄지어 뺨뺨하게 담겨 있었다. 바깥쪽 껍질을 부수어 벗기면 속은 먹기 좋지만 맛은 별로였다. 필자는 한 솔방울에서 146개까지 종자를 세어봤다. 넷째 날 우리는 각각 10피트와 거의 6피트가 될까 말까한 높이의 두 제방 사이에 있어 수레가 거의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협소한 매우 가파른 길을 올

랐다. 바로 그 최악의 장소에서 전보국 직원들이 베어 낸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길에 떨어졌는데 수레가 그 밑으로 지나가기에는 몇 인치가 낮았다. 우회로가 없어 손도끼를 들고 나무에 흠을 깊게 파야했고 까뮈로 아래 표면을 깎아내야 했다. 땅이 바위처럼 딱딱하고 손도끼가 매우 무더서 촘촘하고 지루한 작업이 되었고 수 시간 동안을 끈질기게 노력하고 나서야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어서 우리는 라오송링 또는 노송로(老松路)라는 해발 1천 4백 피트의 산마루 정상에 지났고 두만강 계곡으로 내려왔다.

11월 2일에 네 번째 역참이자 훈춘에서 파견된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쓰잔에 도착했다. 이곳은 개천의 제방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건너편에는 길이 약 1마일의 버드나무숲이 있었다. ‘안개새’로 가득한 이 나무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던가!<sup>3</sup> 우리는 즉시 좁고 허약한 다리를 건넜고, 새들이 큰 가지들 속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앉아있는 새들에게 총을 쏘았으나 처음에는 새들이 총소리를 듣고도 몇 야드 떨어진 옆 나무로 옮겨 앉아 다시 총 맞기를 기다릴 정도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리는 드디어 한동안 의구심을 가져왔던 새가 어떤 종류인지를 알게 되었다. 새들은 다름 아닌 순종 멧닭이었다. 검은 닭들은 평만큼 그다지 좋은 먹거리는 아니었지만 특별히 아주 멋진 새들이었다.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만주에서 검은 사냥감을 발견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헛간 속의 닭들처럼 유순하게 나무 위에 앉아

<sup>3</sup> 한 친구는 우지의 의미는 ‘안개새’가 아닌 ‘검은 새’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중국학자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있으리라고는 더더욱 생각 못했다.

그 뒤 일련의 산맥을 가로질렀고 지나치며 바라본 멋진 광경들 가운데 가야 강이 두드러졌다. 여기저기에서 약간의 농사를 짓고 있었다. 우리는 비적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비적도당은 얼마 전 전당포 주인을 납치하여 몸값을 요구했다고 한다. 석방의 대가로 요구한 것은 돈이 아닌 700온스의 아편이었다. 어느 날 우리는 전신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또 다른 유럽인을 만났고 그는 지린과 훈춘을 잇는 선을 설치하고 있던 중이었다. 소택지들로 인해 작업은 극도로 어려웠지만 그는 거의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1월 5일에 우리는 고대 호수의 바닥처럼 보이는 두만강의 주 계곡에 들어왔다. 구릉 밑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캐쉬미어(Cashmere) 계곡에서 보는 것처럼 옛 해변의 자갈로 된 유물들이었다. 우리는 매우 좁고 가파른 골짜기의 입구에 있는 강둑 위에 닿았다. 골짜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강이 만들어놓은 길이었다. 그러나 두만강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우리는 압록강과 같은 멋진 강을 기대했으나 입구와 가까운 이곳은 너비가 100야드를 넘을까 말까하고, 바위와 둥근 돌로 가득했다. 두만은 조선 단어로 중국인은 이곳을 가오리장 강 또는 조선(Corean) 강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반대편 제방에는 벽으로 둘러싸인 문성이라는 조선인 마을이 있었고 주위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고 잘 개간되어 보였다. 예수회 신부들은 두만강의 제방에 닿자마자 감상을 기록했다. ‘한 쪽에는 나무와 들짐승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반면 다른 쪽은 가장 교양 있는 왕국에서 예술과 노동이 낳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볼거리로 제공한다. 그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들을 보았고 그 가운데 북쪽으로 조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네 개 도시로 경계를 삼았다.’

좁은 골짜기 아래로 몇 마일을 가면 길은 오른쪽으로 강을 두면서 미장 강이라 불리는 지류와 동일한 명칭의 촌락을 지난다. 20마일을 더 가면 훈춘이 있다. 이곳은 길이 약 800야드와 너비 400야드의 구획 지이며 우뚝 솟은 석벽으로 둘러싸여 안쪽에는 장군 관아와 몇몇 여관들 및 상점들이 있다. 막사들은 모두 외곽에 있으며 시장의 주요부분도 그렇다. 모든 것이 매우 말끔한 상태이고 대로들은 인도 병영처럼 어린 가로수들을 주변에 심었다. 상점들이 등유램프, 시계, 글리세린 비누, 눈깔사탕, 비스킷, 사라사 무명, 영국 찻잔, 미국 과일 통조림과 다량의 소소한 상품들 등 러시아에서 수입된 외국 상품들로 가득 차 있어 우리는 이제 문명권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기쁘게도 진열된 물품의 세 부분 정도는 영국제이며 필자와 같은 컴브리아인(Cumbrian)에게 이 먼 곳에서 '에인스워드(Ainsworth)의 가장 좋은 클리터 무어(Cleator Moor) 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가장 반가운 일이었다.

비록 해초와 독버섯, 약용 초목 등을 ningan과 지린을 거쳐 중국 전역으로 운송하는 상인들이 있긴 하지만 훈춘은 본질적으로 요새도시다. 녹용 무역도 상당 수준이다. 도착 직후 우리는 태평천국의 난에서 뛰어난 공을 세운 장수인 이 장군을 방문하러 갔다. 그는 아주 귀족적으로 생긴 노인이었고 만주에서 본 방들 중에 가장 가구설비가 훌륭한 집 무실에서 매우 정중하게 우리를 맞았다. 우리는 방문했던 곳들과 크게 대조적인 이 도시와 주변 지역의 청결에 대해 언급하며 그를 칭찬했다. 장군은 이곳에 온지 6년 밖에 되지 않아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없었다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각 세대주들에게 매일 저녁마다 소유하고 있는 상점 앞의 보도와 길을 청소하도록 했다. 훈춘에 오기

전 이 장군은 북쪽 국경인 아이훈의 지휘를 맡았었다. 잠시 대화를 나눈 뒤 그는 우리에게 마데이라(madeira) 포도주를 한 잔씩 권하고는 맛이 좋은 하이직(Heidsieck) 샴페인 한 병을 개봉했다. 떠날 때, 그는 우리의 초대에 응하겠노라 약속했고 저녁식사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떠나기 직전에 우리는 불운한 실수를 했다. 우리는 다음 날 시열이 있을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관람을 요청했으나 그는 외국인들은 참관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미안하다고 답했다. 실망스러웠고, 차라리 청탁하지 않았더라면 부담 없이 떠날 수도 있었을 일이었다. 그러나 무단참관은 예의가 아닐 수도 있었다. 러시아 장교들에게는 참관규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 제13장

# 노보키예프스크

도착한 다음 날 우리는 현재 약 3천 명의 병사들이 주둔해있는 혼춘을 돌아다녔고, 마을 남동쪽 평원에 최근 건설된 두 개의 요새 가운데 하나인 새로운 기지를 방문했다. 그 기지는 크루프 대포로 무장할 예정이었다. 부대들이 사열을 마치고 우리 앞을 지나 막사로 돌아갔다. 일부는 브라운 베스 연발총으로, 나머지는 윈체스터 연발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중국군 전체가 앞으로 갖추게 될 무기가 될 것 같다. 많은 수의 창기병들과 징갈총 사수들도 있었다. 노새가 끄는 마차를 타고 온 장군 주변에는 수많은 기인(旗人)들이 있었다. 기인들은 주로 홍색과 청색으로 된 거대한 깃발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수비대 하나가 유럽의 군대 전체를 모아놓은 것보다 더 많은 깃발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쩌면 중국 국경부대가 아직도 근대 유럽이 보여주는 진보적 성과들을 다 수용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했다. 만일 중국군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이웃 국가들과 분쟁을 벌이게

된다면 아시리아인들의 운명이 되풀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름 숲의 잎들처럼 푸른  
해 질 무렵 깃발을 든 군대가 보이네.  
가을바람 일 때의 숲속 나뭇잎들처럼  
이튿날 군대는 땅에 떨어져 흩뿌려져 있네.

중국과 러시아 위원회에 의해 최근에야 비로소 새롭게 획정된 러시아 국경은 훈춘에서 고작 8~10마일 떨어져 있다. 길은 탁 트인 평원 위로 5~6마일 걸쳐있고, 중국인은 평원 위에 두 개의 요새를 건설했다. 포시에트 항구를 넘어 바다로 흘러드는 강인 수이펀 강과 두만강 사이에 낮은 산맥이 솟아 있어 분수령을 형성하고 있다. 이 산마루의 꼭대기에서 불과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청동기동이 서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 부도여사인 오대징과 훈춘의 중장인 이코탕아가 황제의 명을 받들어 국경을 순찰한 뒤 광서제 12년 네 번째 달에 기둥을 세웠다는 것이었다. 3마일을 더 간 곳에 러시아인이 200~300명의 코사크인들을 위한 전초기지를 건설해 놓았다.

우리는 러시아 영토를 여행할 생각이 없었기에 여권을 지급받지 않았지만 비축품과 식량을 구입하고 유럽의 소식을 듣기 위해 지휘 장교에게 방문허가를 내달라는 편지를 썼다. 매우 깁듯한 답장이 돌아왔고, 한 코사크인의 충심어리면서도 간소한 대접을 받았다. 편지는 몇 명의 병사들이 와서 가져갔다. 병사들은 좋은 조랑말을 타고 있었고 꼭 『삽화로 보는 런던 소식(Illustrated London News)』에서 뽑아낸 사진들처럼 갈색의 따뜻한 모직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양가죽으로 된 깃털장식

이 달린 군모를 쓴 채 끈으로 칼을 안장에 묶고 등 뒤에 라이플을 매고 있었다. 신선하고 매력적인 얼굴에 맑은 잿빛 눈을 가진 이들은 중국인 속에서 여행하느라 몇 달 동안 잊고 있었던 세계의 존재들처럼 보였다.

소콜로프스키 대령은 새로운 전초기지를 짓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중국인은 이곳을 헝다허쯔 또는 스완카(Swanka)라 부른다. 몸을 얼어 붙게 만드는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코사크인이 거처하는 곳이라 전체가 별통 같았다. 막사안의 멋진 방, 보조건물들, 마구간, 병원, 빵집, 기혼자 숙소, 장교 숙소, 커다란 러시아 욕조 등이 건설되고 있었다. 우리는 기지 전체의 조성금이 2만 루블에 불과하다고 들어 필자는 영국의 왕립 공학기사들이 들으면 코웃음 칠 액수라고 확신했다. 대령은 자칭 건축가이자 공학기사, 작업장의 서기였으며 그의 집은 소형 병기고였다. 한쪽에는 병사들의 카빈총이 정렬되어 있었고, 못, 경첩, 밧줄, 삼실, 편자, 가죽 등 병사들의 집과 말 또는 장비들에 필요한 사실상 모든 종류의 잡다한 항목들이 사무실을 중심으로 널려있었다. 대령은 우리에게 기지 전체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나서 멋진 저녁식사를 베푼 뒤 실내에서 떠들썩한 무도회를 열어주었다.

스완카는 세상의 아주 먼 구석에 있는 황량한 언덕 기슭에 자리 잡고 있어 러시아 기지로서 선호되는 곳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페림(Perim) 또는 아덴(Aden) 혹은 툴 조탈리는 비교적 즐겁고 사교적이며 세련된 곳이다. 코사크인들은 외인부대에서 4년만 복무하며, 그 후에는 예비군으로 다시 소집될 수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간다. 급료는 월 20루블, 즉 50실링이나 병사들에게 허용된 푼돈인 담배와 용돈을 제외하고는 전액이 지휘관을 통해 그들을 위해 쓰인다. 병사들은 강력하게 제작되어 고장이 잘 나지 않는 베르단(Berdan) 라이플을 스포츠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사냥감이 풍부한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슴이나 곰 한 마리 정도는 잡아서 돌아온다. 운이 좋은 코사크인은 가죽이 자그마치 150루블을 호가하는 호랑이를 사냥하기도 한다. 코사크인은 중국산 말이 작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칼 호를 가로지르는 산에서 자란 말을 탄다. 그러나 그 짐승들은 기후에 잘 적응하지 못해 다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시력을 잃고 죽었다. 대령은 이것이 아마도 여름 동안의 먼지 폭풍 때문이거나 말들에게는 맞지 않는 질퍽 질퍽한 구릉 기슭의 풀 탓이라 생각했다.

대령은 국경을 마주하고 중국의 장군과 잘 지내고 있으며 새로운 신전 헌납을 기념하여 곧 자신을 비롯한 일부 부하장교들이 중국 장군과 며칠을 함께 보낼 예정이라 말했다. 우리는 대령에게 중국의 늙은 장군이 우리가 사열을 보려는 것을 어떻게 금했는지 말해주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들은 금지령에 신경 쓰지 말아야 했다. 당신들은 늘 중국인의 예를 예로 대해야 한다. 그러나 결심이 서면 중국인의 미사여구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그들의 반대가 진짜인지 아니면 당신이 굴복하는 정도를 보기 위해 위장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대령이 동양인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필자는 대령의 말에 동의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금지령이 순수하지 않은 것인지 알지 못해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대령은 싱카이 호수로부터 아래쪽으로 개정된 경계를 확정할 때에 중국대표인 오대징과 협상했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령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오대징을 대국의 대표로서 예우를 다해 대하고 훈장을 수여한 결과, 모든 일들이 만족스럽게 술술 풀려나갔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우리는 러시아인이 훈춘 쪽으로 5마일

더 가까운 능선—사실 새로운 요새들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전초 기지를 건설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것 모두를 얻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분명 양쪽에는 득과 실이 있었다.

필자는 소콜로프스키 대령에게 러시아인은 비적을 어떻게 다루는지 물어 보았다. 그는 답하기를, 비적들을 잡아와 재판한 뒤 투옥하지만 때로는 전투나 추격전이 벌어져 코사크의 라이플들이 실수로 발사되기도 하고 비적들은 총탄에 죽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사고들은 분명 불행한 일이지만 반면 러시아 쪽 구릉지대에서 기생충 같은 비적들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필자는 유사한 경우가 인도에서도 종종 일어난다고 말해주었다.

우리는 소콜로프스키 대령의 식탁에서 한 중국인 장교를 만났는데, 그는 러시아어를 할 수 있었고 알고 보니 이 중장의 통역관이었다. 그는 대하기가 매우 편했으며 폴포드와 활기찬 대화를 나누었다. 이러한 만남은 우호적이고 호혜적으로 영국 사회에 진입하려 노력하지 않는 인도 토착 신사들의 처신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 흔히 영국의 배타성을 비난하지만 만일 원주민과 유럽인들 사이의 교제가 보다 더 나은 관계 위에 서야 한다면 잘못된 원주민들 자신에게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다른 나라에서 영국인은 주민들과 곧바로 친해지지만 인도의 경우, 상류계층의 원주민 신사에게 저녁을 접대할 수는 있어도 답례로 인도무희의 춤이나 이와 비슷한 재미없는 여흥 거리를 제공받는다면 손님의 집에 초대받아 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최상류계층의 원주민 가운데 일부는 고의적으로 냉담하다. 악일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사회적 소원함은 토착민 신사들 스스로만이 치료할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15마일 더 가서 포시에트 항구의 북쪽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인 노보키예프스크(Novo-kievsk : 중국어로는 엔지 고)로 떠났다. 길은 울퉁불퉁하고 험해 그리 좋지 않았다. 전보선은 구릉지대에 베어져있는 키 작고 굵은 오크 묘목 위에 놓여있어 비용부담은 적었으나, 중국 전보국이 늘 사용하는 끈계 뺨은 멋진 소나무와는 대조되었다. 우리는 곧 높은 지대에 도달했고 항구 위에 우뚝 솟아있는 산들에 둘러싸여 양지에 있는 금 시트처럼 타오르고 있는 포시에트 항구의 아름다운 경관을 내려다보았다. 대양의 후미보다는 길고 좁은 호수를 닮은 항구는 길이 약 12마일, 폭 3~4마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길고 좁은 입구를 통해 바다를 오간다.

여름의 노보키예프스크는 바다가 가까이 있고 높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어 멋진 장소임에 틀림없으나 겨울에는 외관이 매우 황량하다(이는 키 작은 나무에 풍성하게 자라는 개암을 모으고 목초지를 개선하기 위해 구릉지대의 마른 풀들을 겨울에 태우기 때문이다. 풀을 태운 후에 산맥은 매우 까맣게 변해 혐오감을 준다). 노보키예프스크는 소형 인도 기지와 아주 유사하다. 상점, 막사, 사무실, 그림 같은 그리스 정교 교회가 이곳저곳에 흩어져있으며 체계가 없는 인도인과 꼭 닮았다. 상점들은 인도의 일상적인 파시(Parsee)교도 건물들만큼이나 훌륭했고 우리는 원하던 모든 사치품들을 얻었다. 포시에트 자체는 30가구가 사는 거류지로, 항구의 바다 쪽에서 직선으로 약 2마일 떨어져 있지만 항구의 위쪽을 도는 도로에서는 거리가 10마일이다. 노보키예프스크는 작은 개천가에 자리 잡고 있다. 계곡 위 북쪽으로 2~3마일 떨어진 곳에 농민부락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리 잘 살고 있지 못했다. 대령은 농민들이 먹고살 충분한 식량을 재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굶지 않도록 정부가 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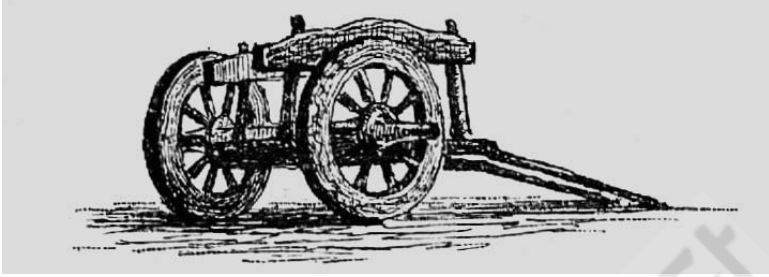


그림 1 조선 수레

루를 수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 부락들의 목적은 여러 군사 초소들 사이의 통신을 확보하는 것과 지방의 자원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꽤 많은 조선인이 인근에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인은 그들이 유순하고 근면하며 행실이 좋다고 생각한다. 최근까지도 조선인은 선호도가 꽤 높아, 한 프랑스 선교사에 따르면 많은 수가 하바로프카로 와서 송화 강 하구 반대편에 있는 아무르 강 왼쪽 제방에 자신들의 부락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금지되었다. 한편 우리는 일단의 젊은 코사크인들이 훈련 중이고 다른 코사크인들은 김나지움에서 교육받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인도에서 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병사들은 영국 병영에서 허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누추하게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 개천의 양쪽 제방 위에는 병사들의 부인들이 다수 있었고, 모두 주홍색 작은 코트를 입고 밝은 색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엄혹한 날씨에도 물에 옷을 빨고 있었다. 항구의 서쪽인 조선·중국·러시아 국경이 합쳐지는 두만강 어귀 인근에는 또 다른 러시아 전초기지가 있다.

우리는 바깥쪽이 녹색으로 칠해져 있고 지붕이 가파른 원뿔형 종탑과 돔으로 장식된 그리스 정교 교회를 살펴보았다. 교구 성직자는 다소

유약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고 길고 부드러우며 멋지게 늘어진 머리와 수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라틴어나 프랑스어를 할 줄 몰랐고 우리도 그리스어를 하지 못해 중국여관의 주인이 러시아어로 통역을 했다. 현관은 서쪽 문 옆에 있었다. 본당 회중석은 의자가 없었으며 유일한 가구라고는 구석에 있는 일종의 계산대뿐이었다. 몇 점의 그림들이 벽에 걸려있었고 천정에는 큰 원형촛대가 불을 밝히기 위해 걸려있었다. 성단소는 끼워 넣은 목재 벽에 의해 교회당 좌우 익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주님과 성모 마리아와 네 천사들을 표현하는 꽤 잘 그린 그림들이 있다. 교구 성직자는 우리를 성단소로 안내해 기적이 일어나는 그림[필자의 기억이 맞다면 성 니콜라스(St. Nicholas)를 그린 그림이다]을 보여주었고 그 반대편에는 거대한 은제 가지촛대가 있었다. 우리는 허락을 얻어 벽 뒤의 성단소로 들어갔다. 제단은 중앙에 있으며 영국 국교회처럼 벽에 붙어 있지는 않았다. 교회 슬라브어로 된 교회 사무실의 책 한 권이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깔끔하게 인쇄되어 펼쳐져 있어 필자는 읽어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제는 필자의 말을 오해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또 다른 책을 집어 들었고 아래쪽에 놓여 있는 천으로 포장된 일종의 꾸러미를 열었다. 그는 꾸러미를 풀어 안쪽에 비단 손수건과 그 안에 있는 다른 것을 찾아냈다. 몇 차례를 열고나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수놓인 짙은 금색의 비단 조각이 나왔다. 그 안에는 더러운 왁스를 닦은 검은 빵 덩어리가 있었는데 분명 성찬식에 사용되는 것이었다. 그러한 것이 흥밋거리로 전시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교구 성직자는 몇 겹으로 된 포장을 계속 풀어 마침내 알리(Ali)의 펜으로 씌어진 코란 한 쪽이나 예언자의 수염 한 오라기를 보여주는 인도의 이슬람 법률학자와 그 행동이 꼭 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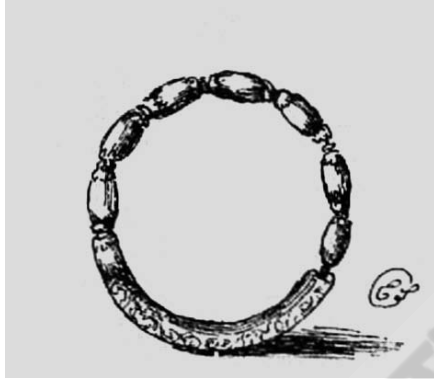


그림 2 조선 팔찌

우리는 약간의 커피와 비스킷을 비롯해 오랫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샀고 다음 날 다시 출발하여 저녁식사를 하기위해 소콜로프스키 대령 집에 들렀다. 그는 친구들을 몇 명 초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했다. 그 중 메투엔(Methuen) 선교사는 영어를 할 줄 알았고 우리에게 글래드스톤 씨의 아일랜드 자치법안이 부결되고 솔스베리(Solisbury) 경이 수상이 되었다는 중요한 소식을 알려주었다. 대화는 프랑스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로 진행되어 다소 들쭉날쭉이었으나 우리 모두는 그럭저럭 훌륭하게 이해했다. 한편 영국인이 이해하는 러시아식 저녁식사와 실제는 다소 달랐다. 식사는 사이드 테이블에서 말린 캄차트카 연어를 곁들여 보드카(한 잔 또는 그 이상)를 마시면서 시작되었다. 그 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손님들은 테이블 중앙에 놓인 큰 생선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며 매 코스마다 메뉴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구운 쇠고기는 '옛 잉글랜드'에서 볼 수 있는 여느 것과 똑같았으며 크리미아산 붉은 포도주는 최고였다. 저녁 식사 후에 우리는 훈춘까지 노새를 타고 돌아왔다.

개정된 국경선과 관련한 최근의 협약은 러시아·중국·조선의 수레만 두만강을 오를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타임스 신문의 한 통신원은 최근,<sup>1</sup> ‘러시아의 침해’에 비판을 가했다. 통신원은 두만강이 만주의 심장부까지 향해갈 수 있는 강이며, 황해 상의 먼 잉커우 항구를 제외하고는 바다로 가는 유일한 출구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바위투성이인 두만강은 길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산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비판은 별 근거가 없었다. 필자는 러시아인이나 다른 민족들이 두만강 위에서 발견할지도 모를 교역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 민심을 동요시키는 자들이 모두 같은 편은 아니라는 사실이 다행이다. 소콜로프스키 대령은 중국의 영국 함대가 작년 여름에 포시에트를 방문하자 러시아의 일부 고지식한 바보들이 대영제국이 포시에트에 남모르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중이라고 말했다. 여러분들이 낚은 진흙과 통나무로 된 몇몇 막사들, 약간의 조랑말들과 마구, 이 메마른 언덕들을 즐기기 바란다.

---

1 『Times』, 1887년 2월 19일.

## 제14장

# 훈춘에서 바자쯔까지

훈춘에서 ning안과 지린 중간에 위치한 곳인 오모소까지는 지름길이 있지만 수레가 가기에는 적합지 않다. 묵덴에서 현 지점까지 우리가 밟아온 다른 길듯이 그러했듯이(지린과 치치하얼 사이, 그리고 베이양무와 산싱 사이의 두 길을 제외하고) 이 길에 대해 결코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잠시 헤어져 필자가 홀로 이 길을 살펴보는 동안 다른 두 동료들은 ning안으로 돌아가 편지를 갖고 있는 장산을 마중한 뒤 지린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필자는 해초, 버섯, 녹용, 황지를 싣고 채비를 갖춘 뒤 지린행 짐을 운반하는 노새 호위대를 기다렸다. 노새몰이꾼은 늘 자신들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필자는 동의했으나 당시에는 필자가 떠맡은 책임이 무엇인지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출발 직전, 키가 작은 관원이 도착하여 부도통이 직접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깜짝 놀랄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바빠 직접 오기 어렵다는 공손한 전문과 함께 우리의 편지를 이미

돌려보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그를 맞을 준비를 갖추기도 전에 대인은 아주 말쑥한 차림새로 들어왔다. 그가 쓰고 있는 둥근 겨울 모자는 접혀 있었고 검은 담비가 달려 있었다. 중앙에 홍보석 품석이 붙어 있었으며 이는 황제를 제외한 가장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뒤에는 옥으로 된 관에 공작의 깃털이 달려 있었다. 그의 외투는 아름다운 검은 담비로 안감을 대고 손질이 잘되어 있었으며 그 위에 검은색 비단으로 만든 외투 혹은 남자용의 소매 없는 외투를 걸쳤고, 역시 안에는 검은 담비로 안감을 대고 소매와 가장자리는 하얀색 최상품 아스트라한(Astrakhan) 가죽으로 손질되어 있었다. 우리가 입고 있던 트위드 사냥용 외투는 하찮은 누더기에 지나지 않았고, 외관보다는 안락함에 중점을 두고 선택한 매우 편한 모자는 길고 부드러운 여우가죽으로 만들어진 했지만 이 엄청난 장중함 앞에 정말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장군의 목적은 우리를 설득하여 비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산길을 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어떠한 비적들도 장군의 지휘구역에서는 죄를 저지르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는 비적을 박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취했지만 그들의 근거지인 커다란 숲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종 비적들이 출현하여 여행자들을 죽인다고 대꾸했다. 필자는 많은 존경을 표하면서 대답으로 경고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필자의 소관이며 그 길을 따라 여행한 러시아 신사의 경험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장군은 마침내 필자를 포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장군은 마지못해 양보했고, 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버렸다.

우리는 11월 11일에 훈춘을 떠나 첫 역참인 미장까지 함께 여행한

뒤 그곳에서 헤어졌다. 실수로 일찍 일어나지 못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 노새꾼은 첫날 새벽 한 시 반에 필자를 깨웠다. 그리고 노새들과 함께 여관을 향하여 약 10마일을 전진한 뒤 해가 뜨기 전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아침을 먹고 산과 골짜기를 넘어 20마일을 계속해서 천천히 나아갔고 정확히 해질 무렵에 도착했다. 똑같은 일정이 매일 되풀이되었다. 도착하자마자 저녁을 먹었고 저녁 7시 혹은 8시쯤에 바로 잠들었다. 추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첫날 출발할 때에는 화씨 7도(섭씨 약 영하 14도)였던 것이 하루나 이틀 뒤에 0도(섭씨 약 영하 18도)로 내려갔으며, 이후 며칠 동안은 화씨 영하 6~7도(섭씨 약 영하 21도)였다. 필자는 온도계를 갖고 다니면서 하루 중 가장 추운 30분이 해뜨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새벽과 일출 사이에는 변함없이 4~5도(섭씨 약 영하 15도) 사이였고 때로는 더 많이 떨어지기도 했으며 해가 뜨고 몇 분이 지나면 수은주가 급속히 올라갔다.

조랑말을 가져오긴 했으나 필자의 발이 정말 놀랄 정도로 썩 썩 얼어 짧은 거리만 탈 수 있었기 때문에 길 대부분을 걸어갔다. 가톨릭 신부들은 영국장화는 겨울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경고하며 중국펠트로 만들어진 두꺼운 장화를 구입하라고 추천했으나, 신고 걷기에는 너무나 조악했기 때문에 대신 호비(Hoby) 장화를 선호했다. 아침을 먹기 위해 휴식하는 것을 포함하여 길 위에서 매일 15~16시간을 있었고 노새들은 무거운 짐을 싣고 매우 천천히 걸었기 때문에 다소 피곤했다. 종종 눈이 오고 바람도 불 때는 정말 비참했다. 래틀러는 작은 양기죽 외투에 싸여 필자와 동행했다. 불쌍한 래틀러! 래틀러는 추위가 영하로 떨어졌을 때 두 번이나 부서진 얼음에 걸려 물속에 빠지는 바람에 필자의 양기죽 외투를 입혀 몸을 다시 따뜻하게 해야 했다. 그 와중에 다행

히도 밝은 반달이 떠올랐고 아름다웠다. 천천히 협곡들 위를 돌아 어두  
침침한 숲을 헤치고 산꼭대기까지 오를 때에는 기분이 기묘하고 엄숙  
해졌다. 밤의 침묵은 노새의 일정한 발자국 소리나 언덕 기슭 위 사슴  
의 울부짖는 소리에 의해 깨졌고 아래 급류들은 소리쳐 흐르고 있었으  
며 나무들 사이로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별빛이 쏟아지면서 산맥들  
의 희미한 윤곽과 그 사이의 어두운 계곡들이 드러났고, 멀리에는 꼭대  
기에 눈을 이고 있는 산들이 보였다. 자연은 맹추위로 말을 잃은 듯했  
고 관원이 의미심장하게 라이플을 두드리며 가까운 골짜기를 진지하게  
가리키자 비적들이 가까이에 은거하고 있다면 아무리 조용히 움직이  
고 있다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존재를 드러내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다  
행히도 우리는 쫓기고 있지 않았다. 장군의 지시로 소규모의 호위대를  
동반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낮에 속보로 걷는 우리  
의 노력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다. 또한 필자의 침구는 너무 부피가 커  
서 안장 위에 올릴 수가 없었고, 따라서 짐 운반용 동물 한 마리는 다른  
동료들을 따라잡지 못했다. 우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공유하기 위해 40  
마리 남짓의 동물을 가진 몇몇 노새꾼 집단이 뒤쪽에 따라 붙었고 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 관원과 훌륭한 상인이 똑같은 기회를 잡았다. 필자는  
언제나 총을 가지고 다녔으며 어느 정도 총을 쏠 수 있었던 주수는 라  
이플을 받았다. 동이 틀 때의 우리 모습은 매우 우스웠다. 필자의 턱수  
염은 딱딱한 얼음덩어리였고 모자의 가죽 귀 덮개와 양털목도리도 마  
찬가지였다. 필자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나 중국인들도 이와 크게 다  
르지 않은 곤경에 처해 있었다. 노새들은 모두 흰 서리와 얼음으로 덮  
여 있었고 함부로 풀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씌워놓은 재갈에는 길이가  
1피트 또는 그 이상의 두꺼운 고드름이 두세 개나 달려있었다. 때로는

한 노새가 물살이 센 강을 건너면서 넘어지곤 했으며 이 불쌍한 동물은 베이고 피를 흘리면서도 얼음덩어리 위에서 온몸으로 전진했다. 그러나 노새들은 정말 강인한 동물들이었고 그런 노출이 노새들에 해를 입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필자가 현재 가고 있는 길은 량쉬젠쯔에서 닝안 도로와 갈라진다. 첫날 우리는 두만강과의 합류 지점에서 멀지 않은 가야허에 도착했다. 다음날에는 산마루를 건너 웨이쯔허의 계곡으로 들어간 뒤, 반대쪽으로 내려가 양쯔강과 맞닿아 있는 길고 높은 산맥을 올랐다. 양쯔강은 듣기로 웨이쯔허와 동일한 것이었다. 이 강의 제방 위에 있는 난강쯔라는 마을에는 병사들로 가득한 두 개의 병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산악지대의 안정을 목적으로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훈춘 수비대의 분견대였다. 또한 훈춘 요새들을 위한 커다란 크루프 대포들이 이곳에 놓여 있었다. 크루프 대포는 만주지방에서 운송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 작년에 이 먼 곳까지 도착했다. 그러나 해빙기가 일찍 찾아와 대포들은 소택지들과 강들이 다시 얼 때까지 이곳에 놓여 있어야 했다. 길은 양쯔강 계곡 위로 계속되었고 중간에 약 70마일 거리의 강 발원지 바로 위쪽에 있는 비적들의 출몰지로 악명 높은 곳을 지나갔다. 그리고 하라바링이라는 길에 올라 창바이산맥의 주맥을 가로질렀고 계속해서 후르가 강의 상류와 수많은 지류들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높은 평원으로 내려왔다. 이 평원은 비옥하지만 매우 질퍽질퍽한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었고 고도 1,000~1,500미터 정도의 낮은 산맥들로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남쪽은 멋진 숲들로 덮여 있고 숲 한 가운데에는 2~5백 피트 높이의 외로운 산들이 나타나 호수의 섬처럼 갑자기 솟아올라 있었다. 겨울에는 수레가 다니기 꽤 좋은 길이 되지만 여

름에는 수령으로 바뀌어 짐 운반용 노새들조차도 다닐 수 없게 된다. 메투엔 선교사는 자신이 이 길로 여행할 때 짐을 운반하는 동물들이 습지에 빠졌고 호랑이들이 밤에 내려와 이들을 먹어치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전 지역에 걸쳐 평화와 번영의 징후가 역력했다. 농가의 수가 꽤 되었으며 계곡들의 황무지도 빠르게 개간되고 있었다.

훈춘을 떠난 지 여드레째 되는 날, 우리는 등오강뜨라는 유명한 마을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20마일 더 가면 이 지방의 주요 도시이자 지방관관이 있는 아우둔 또는 통화 현이 있다. 지도들은 지금까지 이곳의 위치를 두만강 분지 안에 있는 산맥의 다른 측면에 표시했었다. 필자가 앞에서 오도리의 유적지로 짐작했었던 이곳의 위치를 예수회는 이제 정확하게 알아냈다. 후발 여행자들에게는 반드시 들려야 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에서는 벗어나 있어 혼자 갈 수는 없었다. 등오강뜨는 후르가 강과의 합류지 근처에 있는 샤희 강변에 위치해있다. 이 강은 와이 강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자주, 더 기괴하게 굽어 흐르며 강바닥은 평야의 지표면 아래까지 내려갈 정도로 깊어 부주의한 마부는 강이 가깝다는 의심을 전혀 못하고 낭떠러지 위로 올라갈지도 모른다. 필자는 마주치게 되는 강과 마을들의 위치를 다소 정확하게 찾아보고자 나침반으로 길의 주위를 살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난관들을 이겨냈다. 첫째, 필자는 장갑을 벗어 주머니 안쪽에서 나침반을 찾아야 했다. 찾은 뒤에는 엄혹한 북풍이 불어오고 손가락이 빠르게 열고 있는 와중에도 바늘이 멈출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려야 했다. 그런 뒤 연필과 공책을 꺼내 관찰한 내용을 기록해야 했고, 일이 끝났을 때쯤이면 손의 감각은 마비되어 아프기까지 했다. 대기가 불안정하지 않은 이상 추위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으

나 북풍은 잔혹했다.

훈춘에서부터 아흐레째 되는 날, 필자는 산사커우라는 곳에서 후르가 강을 건넜다. 산사커우는 샤희가 후르가 강으로 흘러드는 곳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있으며 주얼다오허와의 합류 지점에 있다. 주얼다오허의 왼쪽 둑을 따라 오모소까지 나있는 길을 걸으면 훈춘에서 거의 200마일 떨어진 커다란 촌락에 닿게 된다. 닝안은 동쪽으로 약 90마일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이 사실은 지름길이 단축한 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아름다운 숲으로 우거진 골짜기 위로 난 지린행 길을 택했고 만주에서 가장 중요한 통행로 가운데 하나이자 후르가 강과 송화 강 사이의 분수령 위에 있는 장짜이링 강의 어귀에 도착했다. 그곳의 고도는 약 4천 피트였고 뾰뾰한 숲으로 덮여 있었으며 매우 가팔랐다. 눈이나 얼음으로 뒤덮여 있을 때에는 교통이 중단된다. 폭대기에서 약간 아래쪽으로는 지린 방향으로 병영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여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분견대가 주둔해 있다. 1871년 애드킨스 영사는 통행로가 지린과 닝안 사이에서 돈이나 귀중한 생산물을 운반하려는 중국 상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라고 보고했다. 한가운데로 길이 나있는 숲은 산적들의 매복 장소로 최적이었다. 애드킨스 씨가 그곳을 지나기 며칠 전 닝안에서 오는 물건을 잔뜩 실은 수송대가 약탈당했고 애드킨스 씨는 재산을 보호하려다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다. 상황은 현재 아주 약간 나아졌을 뿐이다. 우리 일행이 지나갈 때 12명의 산적들이 나타났고, 오모소 당국은 우리에게 강력한 호위대를 보내주었음을 알게 되었다. 군인들은 산적을 찾아 분주하게 산을 뒤진 끝에 산적들이 도주한 빈 집을 발견하고 불태웠다. 길 위에서 본 풍경은 매우 멋졌고 숲이 우거진 장대한 산맥은 후르가 강 위쪽 계곡의 얼어붙은 단조로운

평야와 무의미한 산과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백두산의 모습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였다.

필자의 노새 호위대는 큰 길을 따라 장짜이링 너머까지 약 20마일을 갔고, 라파라쯔라는 흥미로운 고개 밑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어 또 다른 산맥 너머의 하이징링 길로 향했다. 보통의 수레 길은 라오예링이라는 더 남쪽에 있는 통행로 옆을 지나는데 하이징링은 약 10마일 더 길지만 훨씬 덜 깊어서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들이 지날 경우에 종종 선택의 대상이 된다. 샘들이 곳곳에 즐비하지만 겨울에는 도로가 얇은 얼음장으로 바뀌며 여름에는 수백 야드씩 수렁이 된다. 고도를 썰 수 없어 2천 피트라고 짐작했다. 오르막과 내리막 모두 소나무로 뒤덮인 계곡들 사이로 나있고 장짜이링 만큼 멋지지는 않으나 매우 아름답다. 라파라쯔 또는 나팔산(Trumpet Hill)은 주변에 비해 매우 두드러진다. 피라미드 형태로 대담하고 거친 스카이라인을 갖고 있으며, 측면이 울퉁불퉁하고 가팔라 형체가 잉커우와 묵텐 사이의 길 동쪽에 있는 첸산 또는 천봉산(千峰山)과 닮았다. 똑같은 특징의 산맥이 광둥반도 전역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사무와를 닮은 야생 양 또는 영양과 노루가 많은데 일부 종들이 사냥꾼의 오두막에 냉동보관되어 있었다. 사냥꾼은 고기 거래에 능했다. 이 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라바허쯔라는 곳에는 양질의 석탄이 묻혀있어 지린의 병기창에서 사용된다.

11월 24일, 즉 훈춘을 떠난 지 열나흘째 되는 날 필자는 화약 공장 아래 송화 강의 제방에 도착했다. 물살이 세찼던 강은 9월 초 우리가 떠난 이후로 물이 줄었고 1피트 두께가 넘는 대리석 같은 얼음이 얼어 있었다. 우리는 강을 직선으로 건너 지린에 도착했다. 이틀 뒤, 영허즈밴드와 폴포드가 합류했다. 그들은 닝안에서 단 하루를 보냈지만 많

은 것을 보았다. Ningan에 접근할 때 마란허 길을 택해 둥징청 혹은 ‘둥부 수도’라 부르는 고대 도시를 방문했다. 그곳은 한때 높은 석벽과 좋은 가옥들을 가진 대도시였으나 지금은 완전히 몰락하여 폐허가 되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조선인이 천 년 전 이곳을 점했던 이래로 버려져왔다고 믿는다. 우리가 잠시 후에 만난 보이어 감독은 이곳이 진짜 오도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1871년에 이곳까지 왔던 애드킨스 영사는 필자가 제2장에서 언급했던 발해국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통구스족 연맹의 수도라고 믿고 있다. 도시에 대한 애드킨스 씨의 생생한 설명을 전부 인용해 볼 것이다. 그는 ‘여전히 보존상태가 좋은 흙벽은 14~15마일 길이의 방벽을 이루고 있으며, 북서쪽 모퉁이에는 주변 2마일 정도의 내성이 있다. 내성에는 저택들과 정자들의 석단들이 여전히 발견되며 지붕을 떠받치는 나무 기둥의 기반이 되는 석실이 붙어 있다. 이러한 건물들의 계획은 베이징에서 보았던 높은 석실 위에 남향으로 세워진 일련의 정자들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외성의 남동쪽 모퉁이에 있는 사원 뜰에는 용암으로 조각된 매우 오래되고 흥미로운 향로가 있다. 높이가 약 25피트에 탑 모양을 하고 있으며, 바닥은 연꽃에 기대고 있다. 40년 전 세워진 현판은 이 터가 기원전 140년 한나라 우피 시대부터 사원에 의해 점유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빈약한 상점 몇몇을 보유한 동떨어진 부락이 현재 성을 형성하는 전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닝안과 지린 사이의 길 위에서 폴포드와 영허즈밴드는 깜짝 놀랄만한 ‘돌평원’을 지났다. 필자는 애드킨스의 설명에 약간만 덧붙이려 한다. 즉 아래 소택지에서 나오는 물이 바위틈으로 쿵쿵 흐르면서 분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일행은 용암막이 매우 얇다고 생각했다. 호수의 바닥이 되려고 자연이 각색한 넓은 계곡은 북서쪽에 있는 산맥

으로부터 뽑어져 나오는 용암으로 넘쳤고, 소택지나 물웅덩이 대신에 화산의 특징을 지닌 커다란 크기의 응고된 용암체가 되어 있었다. 보존이 아주 잘 되어서 마치 그것을 만들어낸 자연의 변동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약 3마일 동안 길은 북쪽 변두리를 따라 ‘돌평원’을 가로지른다. 그 부분의 땅 표면은 평탄지 않고 다소 기복이 있다. 어떤 곳에서는 용암 부스러기가 안쪽으로 떨어져 측면이 울퉁불퉁하면서도 가파른 깊은 웅덩이를 형성한다. 다른 곳에서는 간혀있던 가스들이 위로 분출되어 용암덩어리들을 원통형 더미로 쌓아 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지표면의 불규칙성은 거대한 협곡, 열하, 느슨한 용암덩어리로 인해 걷기 어려운 평원의 남쪽지대와 비교해보면 아무 것도 아니다. 토양이 풍부한 곳에서는 성장이 느린 관목들과 키가 큰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평원은 둘레가 60~70마일 정도이다. 흘러넘쳤던 용암의 분출지는 북서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산맥이라고 한다. 후르가 강은 평원의 남부 경계선을 이루며, 필단이라는 멋진 호수에서 흘러나오고 북에서 남쪽으로 최대 폭 6마일, 동에서 서로 20마일의 긴 직경을 갖고 있다. 언젠가 ‘돌평원’을 나누었던 것이 바로 변동의 중심이었음에 틀림없다. 호수에서 흘러나온 강의 지류에서 약 3마일 떨어진 곳에 강바닥이 예전처럼 나뉘어 있었고 수백 피트나 움푹 들어가 있다. 그리하여 오각형의 형태를 띠며 100피트 높이의 용암절벽으로 둘러싸인 하천으로 강은 위에서 단 번에 뛰어 내린다. 떨어지는 물은 20마일 바깥에서도 보일 정도로 물보라—일출시 밝고 고요한 아침의 유일한 구름—를 펼친다. 불행하게도 동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하지 못했고, 인근의 중국인은 폭포를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굳이 길을 벗어나면서까지 구경하려하지 않았다. 온도와 날씨 또한 관광

에 최적은 아니었다.

장산도 필자의 동료들과 함께 도착했다. 장산이 비를 맞으면서도 계속했던 지린에서 잉커우로 가는 여행은 23일이 걸렸지만 돌아오는 데에는 11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습지와 길들이 철처럼 얼어있어 그 차이가 매우 컸던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13명의 말 탄 강도들이 매복해 있다가 그를 덮쳤고 수레를 뒤졌다. 장산은 산적들에게 자신이 가진 전부인 스코틀랜드 귀리죽이나 잼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 말했다. 그리고 다소 비겁하게 뒤에 짐을 가득 실은 세 대의 마차가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산적들은 가버렸고 장산도 계속 전진하여 아침을 다 먹을 때쯤에 150냥의 은과 물품을 약탈당한 세 대의 마차들이 도착했다. 산적들은 그들이 가진 자루를 약탈했고, 각 집단에서 최상의 노새들을 골라 자루를 신게 하고는 몰고 가버렸다. 이 일은 묵텐에서 지린 사이의 황제로인 이 지방의 가장 큰 길에서 그것도 대낮에 벌어졌다. 산적들의 은신처는 황제의 사냥터 내라고 잘 알려져 있었다. 이곳은 재산뿐 아니라 생명도 그리 안전하지 않다. 필자의 동료들은 Ning'an과 Omo 소 사이에서 길가에 널려 있는 살해된 시체를 보았다. 당국은 나뭇가지로 시체를 덮고 검시를 중단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장산은 6개월 동안 받았던 첫 편지들을 가져와 처음엔 기뻐했으나 읽고 난 후에는 큰 슬픔을 느꼈다. 런던에 있는 필자의 대리인들은 출발 전 분명히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부의 신문도 우리에게 보내 오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잉커우에서의 실수에 주목하지 않아 우리는 편지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종합하여 1866년에 일어난 커다란 정치적 분쟁을 재구성해야 했다. 그러나 문명화된 부분으로 다시 돌

아가자 잃을거리가 생겼다. 뿐만 아니라 장산은 현명하게도 은을 운반하지 않고 대신 상당액의 어음을 가져왔고 지린에 도착하자마자 신발을 여관에 담보로 잡히고 어음을 현금화했다. 그의 명민한 지적처럼 장부를 결산하고 회사가 파산하기 쉬운 중국인의 설날이 다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안전하게 맡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었다.

우리는 병기고의 송 씨를 방문했고 그는 우리를 매우 기쁘게 맞아 주었다. 그는 우리의 요청에 답했고 재차 저녁식사를 함께하자고 초청했다. 이번에는 훈춘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덴마크 신사가 세 번째 외국 손님이 되었으며 세 명의 호감을 주는 중국 신사가 있었다. 요 씨는 전보국 책임자로, 런던 주재 중국 공사관의 수행원으로 3년간 머물렀던 한 신사의 형제였고, 방 씨는 지역 책임자를 수행하는 부장(副將)이었고 봉 씨가 있었다. 연회는 유쾌하고 즐거웠다. 그날 저녁에 먹은 식단을 첨부한다.

#### 전채요리

새우 마요네즈, 설탕에 절인 과일,  
살구인, 멜론 씨, 소량의 햄,  
소량의 양고기, 애스픽을 곁들인 계란,

#### 생선, 제1요리, 식사

마늘 샐러드, 상어 지느러미 크림, 롤빵  
어린 대나무 새싹 수프, 튀긴 송어  
마늘 재료를 넣어 부풀린 과자, 오이 포타주  
석쇠에 구운 뼈들, 독한 버섯 수프, 닭 카레라이스

수프를 곁들인 쇠고기 스투

디저트

배, 포도, 골풀뿌리

와인

파이 욘(Pays Jaune) 샴페인, 마요상동(Moet Chandon) 샴페인

상어지느러미와 해삼과 독버섯 수프가 맛있었던 것처럼 마늘빵도 맛있었다. 골풀뿌리도 달콤했고 사과 맛이 났다. 중국신사들은 확실히 친절하고 대접이 후했으며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일가견이 있었다.

필자는 앓고 있던 두통에 쓰라고 여관 주인이 알려준 긴요한 치료약에 관해서도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 약으로 입안을 가시자 통증이 즉각 사라졌는데 여관 주인은 삼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나중에 그 약이 바곳과 향제비꽃의 뿌리들, 붓꽃 식물의 잎들, 비보라고 부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식물들로 혼합된 매우 독성이 강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다음 방문 장소는 관청쯔로 지린에서 북서쪽으로 80마일 떨어져 있는 북만주 최대의 상업지였다. 출발하기에 앞서 우리는 각각 진이공 씨에게 담보 잡힌 물품들을 되찾았다. 그리고 안에 양털을 댄 양가죽 재질의 무릎까지 닿는 커다란 승마장화를 한 짝씩 제작하도록 했다. 토착민들의 신발을 신어보았지만 편하지 않았고 영국장화를 신고 마차에 앉으면 발이 얼었다. 새로운 승마장화는 옛 신발에 덧신을 수 있어서 걸을 때나 말을 탈 때에 발이 얼지 않았다. 우리는 11월 30일에 서쪽

출입문으로 지린을 떠나 8월 12일에 입성했을 때 이용했던 강 정면의 나무로 된 회랑을 지났다. 도시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길은 라오예의 이름을 딴 군신(軍神)이라는 낮은 통행로를 가로질러 나있었다. 이 길의 높이는 540피트에 불과하지만 지린의 상당수 사람들은 가장 어렵고 위험한 통행로라 생각하는데, 하마터면 북쪽 국경을 여행할 때 그냥 지나칠 뻔 했다. 인근의 산기슭들은 아직도 숲으로 덮여있어 지린의 출입문들이 가깝기는 했으나 여전히 노상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다. 작년 여름에는 두 명의 선교사들이 길을 지나간 뒤 반 시간이 채 되지 않아 꼭대기 근처에서 한 대상이 약탈당했다. 산꼭대기에는 만주에서 본 그 어느 곳보다도 유명한 관리들을 기리는 패루와 기념비들이 많이 있었다. 두통거리인 비적들을 단번에 모두 소탕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기념비라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분명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겨울에도 통행량이 많아 길은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0.25~0.5마일 길이의 수레 행렬들은 여덟 마리 혹은 아홉 마리의 동물들이 끌고 있었으며, 1.5톤 이상의 짐을 싣고 온갖 것들로 가득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얼어붙은 땅 위를 경쾌하게 달렸다. 남쪽으로 가면 버섯, 관, 와인, 기름, 가구, 녹용이 있는 반면 북쪽으로 여행하면 상당량의 피륙(대부분 미제이며 영국제는 매우 적다), 염색 재료, 차, 피클(중국인은 피클을 대량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클을 비웃지 못한다)이 있었다. 종종 우리는 가난이나 홍수로 인해 고향을 떠나 북쪽에서 새롭고 저렴한 토지를 구하려는 우울한 이민자 행렬을 만났다. 그들의 수레는 가구와 궤들로 가득 차있었고 임시천막으로 덮여 있었으며 안에는 부인과 아이들이 추위를 피해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젊고 건장한 사람들은 가끔 배가 고파 먹을 것을 부탁하기도 했지만, 꾀꾀하게 계속 걸었다. 이들 외에

는 가끔 급사가 편지를 든 가방을 메고 시간당 5마일이라는 상당한 속도로 일정한 보폭을 유지하며 지나쳐 갔다. 그는 걸어가면서 밥을 먹고 하루에 족히 70마일을 갔다. 이렇게 넓은 나라에서 어떻게 미국식 경전철 같은 것도 없을 수가 있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호송대는 해가 뜨기 전 아주 등골이 오싹한 공기 속에서 출발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수레를 밀고 가, 오직 정오에만 잠깐 멈출 뿐이었다. 마부들은 휘어진 줄기로 만든 긴 채찍을 휘두르는데 채찍의 갈라진 틈에서 나오는 소리는 라이플 총소리와 같았다. 먼 곳에서 보면 채찍들은 수평선 위의 돛대처럼 보였다. 화물관리인은 도적들과 맞서기 위해 커다란 징갈총, 화승총, 검, 창 등을 지니고 있었고 각 수레의 마부석 옆에는 깃발이 펄럭여 출발지와 도착지를 알려주었다.

촌락의 상점과 시장도시의 매점에는 가죽 모자, 귀마개, 가죽 스타킹, 1인치 두께의 펠트로 만든 신발 등이 걸려 있었으며 모두 겨울철에 필요한 것이었다. 곡물 거래상은 길 가장자리에 커다란 기장더미를 쌓아두어 수레의 통행을 막지 않으면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모든 여관들은 칠을 다시 하고 바깥쪽 창문들은 방풍을 위해 깨끗한 새 벽지로 바꾸었으며, 말을 먹이는 여물통도 손을 보았다. 바깥에는 유객꾼들이 여관 입구에 서있거나 길 위로 1~2마일 올라와 여관숙소의 청결과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며 마부들을 잡아끌었다. 여관 뜰에는 노새나 말들이 줄줄이 매어 있었는데 간격이 촘촘하여 그 사이에 지나갈 수 있는 틈이 거의 없었다. 동물들에게는 길가의 행상인에게서 싸게 구입한 달콤한 기장 줄기나 수수를 먹이며 행상인은 살을 에이는 바람을 피하기 위해 직접 파놓은 지하 거주지를 갖고 있었다. 노새와 말들은 여관 바로 인근에 있으며 수레에 너무 꽉 매어있어 분리와 재결합이 가능할 지



그림 1 여관 뜰 구석

의심스러웠다. 여관 안에는 흥에 겨운 마부들이 구들 위에 앉아 왕성한 식욕을 보이며 끓인 기장이나 쌀죽, 돼지고기나 양고기 스투를 몇 그릇 씹이나 먹어 치우고 마지막으로 한두 잔의 뜨거운 술을 곁들인다. 마부들이 말을 데리고 나가면, 화물관리인은 다시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기 위해 아편을 한 모금 흡입한다. 종업원들은 자부심 가득한 모습으로 빈 그릇들을 쌓고 술을 나르느라 부산하게 오간다. 또한 일부 어른들과 아이들은 아침 두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길 위에서 서서 수레가 지나가며 떨어뜨리는 말똥을 줍는다. 일정량을 모으면 흙이나 토탄과 함께 섞어 비료로 쓴다. 이때가 정말 바쁜 시기라 중국인은 한눈 팔 새가 없으며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도 하루 종일 논에서 긴 고무래를 끈다. 고무래는 수수껍질이나 탄력 있는 줄기종류로 만들며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고 줄로 연결되어 있는 긴 부채모양으로 산과 골짜기, 경

작지와 황무지에서 사용하며 말린 풀잎들, 죽은 갈대들, 떨어진 잎 등을 모은다. 모인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 연료나 퇴비로 사용한다. 길 이 굳고 평탄해지면 거대한 비석, 철봉, 목재와 같은 무게가 나가는 물건들을 쉽고 빠르게 나르기 위해 썰매들이 징발된다.

관청쯔에 도착하기 위해 벼랑을 지나야 했는데 이전의 장벽들은 완전히 사라져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 목적지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여행 중 두 번째로 압송중인 비적들을 보았다. 총 13명이었고 3명씩 수레에 실려 지린으로 가는 중이었다. 그들은 버젓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외모는 흉악범 그 자체였다. 병사들은 3개월 동안 이들을 쫓고 있었으며 다른 비적들은 도주했고 1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예수회 측량가들에 따르면 닝안과 베두나 모두 만주족이 중국을 정복한 이후에 유배자들로 재식민화되었다. 따라서 기생충 같은 도적들은 조상 전래의 폐단 때문인 것 같다.

관청쯔는 모양이 답디 계곡과 유사하고 이동허라는 중요한 하천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로들이 지나가는 매우 비옥한 평원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도랑과 낮은 진흙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입구마다 벌레 먹은 포가(砲架) 위에 녹슨 대포가 장착되어 있다. 시간이 흐르면 북쪽에 위치한 후란과 다른 도시들은 중요성이 감소할지 모르나 현재 북방에서 가장 큰 상업중심지인 관청쯔와 같은 교역중심지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관청쯔는 정말 바쁘고 번잡스러운 곳이다. 이곳의 중국인은 특유의 느리고 오만한 보속(步速)을 잊어버리고 마치 속도에 목숨을 건 사람처럼 일을 서두른다. 남북으로 나있는 주로는 도시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길이가 3마일이나 된다. 정말 멋진 도로이다. 표지판, 오벨리스크, 도금한 글자와 등불들로 장식되어 화려하기 그지없

다. 주로를 가로지르는 네 개의 길 또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처음 외출을 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왔지만 관청에서 시종을 제 공받은 뒤로는 이들이 뒤따라오는 구경꾼과 쏟아지는 질문들을 해결해 주었다. 질문 내용은 나이, 장화 재질, 옷의 방한 여부, 수레의 수, 지 불 내역, 하인들의 수 등 도무지 끝이 없었다.

라오예로 향한 동쪽 출입구에는 사원이 하나 있고 그 안에는 하늘로 격상된 인물이나 별에 헌납된 2층짜리 건물이 있다. 건물은 특이한 벽돌로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는데 벽돌에는 구석에서 돌출되어 나온 코끼리의 머리가 달려있다. 목텐과 테링 사이에 있는 사원을 제외하고는 이곳이 우리가 만주에서 관람 가치가 있다고 주목한 유일하게 근대적인 종교 건축물이었다. 도시 반대편에는 절이 있다. 입구 주랑 현관에는 사천왕이 당당하게 서있으며, 무릎과 이마에 눈이 달려 있고 서로 다른 무기를 들고 있다. 첫 번째는 방어용 칼을, 두 번째는 기도를 위한 묵주를, 세 번째는 온 세계가 들을 수 있는 현악기를, 마지막으로 는 낡은 홍색 우산을 들고 있어 펼칠 경우 인간을 공포에 질리게 할 천둥, 비, 어둠을 내릴 수 있다. 부처 자신은 오른손을 들어 올려 마치 가르침을 전수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고 왼손에는 붉은 단지를 안고 있다. 분명 그것은 『아시아의 빛(Light of Asia)』이 기록하고 있듯이 수하타(Sujata)를 설교하는 성인을 상징한다. 도시 밖의 또 다른 방향에 이슬람 사원이 있고 침탑으로 삼층탑이 있으며 지붕 끝에는 흔히 보는 동물 상들이 걸려 있다. 문에는 강희제 33년의 칙령이 붙어 있는데 신도들이 국가에 대한 모반을 꾀하지 않는 이상 이슬람교에 대한 관용을 베푼다는 내용이다. 이슬람교도는 어느 국가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부 칙령을 내걸기 좋아하는 것 같다. 벵갈의 후글리(Hughli)에 위치한 이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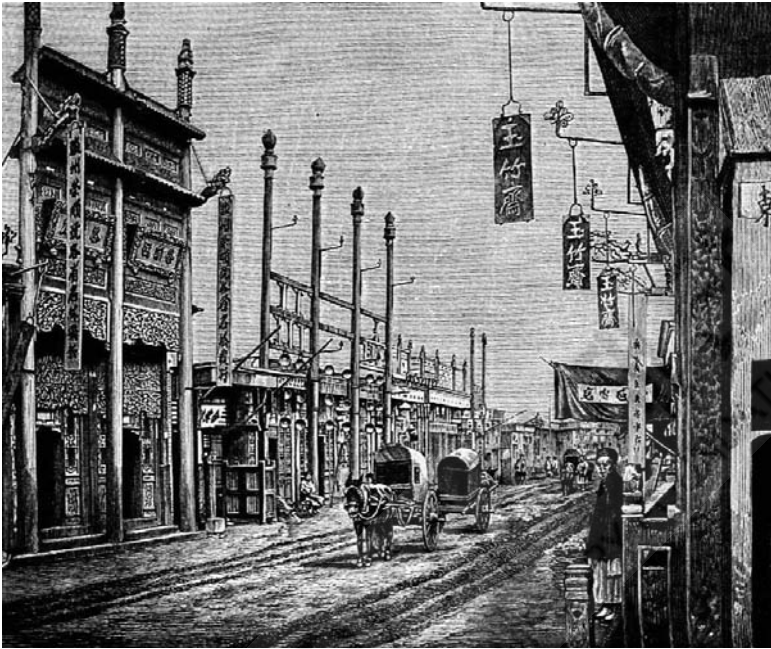


그림 2 중국 시가지

람 대사원에는 조건부로 열을 지어 행진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세한 정부 결의안이 있다. 그러나 절이나 이슬람 사원보다 더 많이 즐거웠던 곳은 아일랜드 장로교 선교단 출신의 토착민 교장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연 장소인 초라한 진흙집이었다. 필자가 발견한 한 가지는 로마 가톨릭은 학교나 경배장소를 구세주, 성처녀, 십자가, 신약성경의 장면들로 장식하는 반면 개신교 선교사들은 요셉의 역사, 사자굴의 다니엘, 아담의 짐승 이름 짓기, 노아의 방주 등과 같은 구약성경 이야기의 장면들을 아주 빈번하게 전시한다는 것이다. 이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의 주목적이 주님의 역사와 그 분이 인간을 위해 하신 일들에 관해 가르치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로마 가톨릭이 신교보다 더

합리적이다.

관청즈 국경들은 몽골 영토와 매우 근접해 있어 우리는 라마승이나 상점에서 불상들을 발견하리라 기대했으나 실망했다. 그곳은 완전한 중국 도시였다. 이제 우리는 북서쪽으로 방향을 돌려 약 20마일 떨어진 샤오바자즈로 향했다. 이곳은 로마 가톨릭 선교단이 수년간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평탄한 평원 위로 교회의 탑이 우뚝 솟아 있어 아주 먼 곳에서도 보이며 대문을 들어올 때에는 대성당이 가장 먼저 보였다. 성당은 꽤 큰 건물로 성모 마리아에게 헌정된 것이다. 그 뒤에는 2층으로 된 벽돌 건물인 사제관이 있다. 1층에는 식당이 있는데 벽에는 하얗게 회칠을 했고 가구가 드문드문 놓여 있으며, 바깥온도가 영하임에도 양탄자가 깔려 있지 않았다. 여학교는 높은 벽이 있어 다른 건물과는 분리되어 있었고 중국인 여선생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보좌주교의 감독하에 활동 중인 중국 자비 자매단(Chinese Sisters of Mercy)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다. 사제 중 두 명—페르 리토(Père Litot)와 페르 마비엘(Père Maviel)—이 밖으로 나와 우리를 맞으면서 보좌주교인 보이어 씨를 소개해 주었다. 보좌주교는 친절하고 존경스러운 신사로 만주에서 32년간 주님을 섬겼다.<sup>1</sup> 바자즈의 전 교계가 그의 감독하에 성장했고 교회는 보좌주교와 뒤바이 씨가 1868년에 세웠다. 만주에 처음 도착했을 때 보좌신부가 겪었던 비적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서술한 바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었다. 한 번은 매복한 산적들에게 옷가지까지 모든 것을 털린 적도 있고, 1천 명의 비적 떼가 인근의

---

<sup>1</sup> 이 글을 쓴 이후 필자는 1887년 3월 9일, 바옌수수에서 일어난 보이어 감독의 슬픈 사망 소식을 들었다.

관리들을 살해한 뒤 거주지까지 접근해 온 적도 있었다. 그러나 두목은 매우 공손했으며 대포나 안장 등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을 뿐, 교회에 가득 모여 기도하는 여인들을 발견하고는 자신들도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면서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라 우리 모두 아침 예배에 참석했다. 교회는 사람들로 붐볐고 한쪽에는 남자들, 다른 쪽에는 여자들이 앉았다. 성체를 나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드물었지만 예배 내내 회중이 답창과 찬가를 함께 부르며 지적이고 경건한 관심을 쏟고 있는 모습을 즐겁게 지켜보았다. 예배가 끝난 뒤 우리는 특수학교를 방문했다. 학교의 교육목표는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리 및 윤리뿐만 아니라 기독교 지식과 철학을 가르쳐서 비신자 동포들과 평등한 만남을 갖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직 배움에는 큰 진전이 없지만 학생들은 똑똑한 것 같았다.

## 제15장

# 바자쯔에서 뤼순 항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만주 전 지역을 여행하면서 가장 만주적인 특성을 지닌 장소들과 핵심 도시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아무군스코(Argunsko)의 러시아 주둔지 남서쪽에 있는 달라이 노르 호수 인근의 부이르 외곽 지역을 빠뜨렸다. 하지만 이곳은 행정적으로 치치하얼 관할이지만 지리적으로는 몽골의 일부이다. 우리는 이제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크리스마스까지 잉커우에 도달하기로 결심하고 12월 6일 샤오바자쯔를 떠났다. 출발 직후, 잠시 멈춰서 있던 곳과 가까운 여관에서 비적들이 점심을 공짜로 얻어먹은 뒤 인근을 배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마치 아일랜드 지주들처럼 총을 손에 쥐고 사방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 곧 베두나에서 목텐으로 가는 주로에 합류했고 그 길을 따라 좋은 여관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여관의 격자무늬 창 모퉁이에 촛불을 놓아 불꽃이 목조부에 옮겨 붙으면서 집이 거의 불탈 뻔 했다. 우리가 잠든 후에도 연기가 계

속 났으나 다행히도 한 여자가 발견했다. 만일 그녀가 연기를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창은 곧 화염에 휩싸였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당시 여관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지붕은 가연성 높은 기장껍질로 되어 있어 피해가 더 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길을 따라 전진하며 멋진 촌락과 도시들을 통과했다. 다바자쯔, 샤오칭쯔, 마이마이가이, 쓰빙가이, 위시칭쯔 등은 모두 번성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고 양조장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었다. 우리는 길에서 두 번이나 지린의 병기고로 운송중인 외국산 기계와 무기 탁송대를 만났다. 시시때때로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 마치 우울한 그루티기들과 버드나무로 가득한 초라한 모습의 잉글랜드 동부 소택지대와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 12월 10일에는 보수가 잘 되어있는 마네타이먼이라는 관문을 지나 벼랑지대를 다시 통과했고, 늘어선 나무들로 인해 방벽선의 흔적을 여전히 추적해볼 수 있었다. 그날 아침은 가장 추웠고 온도계는 열씨 눈금(Reamur)으로 영하 20도였으며 화씨로 약 영하 14도(섭씨 약 영하 25도)와 맞먹는 기온이었다. 날이 밝자 얼어붙은 안개가 자욱했고 대기 속은 수많은 작은 침상체들이 가득 차 흰서리처럼 떨어지고 있었다. 반면 나무들은 아주 절묘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모든 가지들에 서리가 앉아 은색 빛으로 반짝였다. 몇 마일을 더 가자 고대 도시이자 명칭이 초기 만주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유사한 가이유안에 닿았다. 도시는 주변 둘레 6마일에 높이 30피트에 달하는 장대하고 오래된, 그러나 현재는 방치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내부에는 상당량의 나대지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번성하고 있었고 많은 사원들도 있었다. 남쪽의 성벽은 이곳에서는 폭이 100야드에 달하지만 그리 깊지 않은 징 강이 남쪽 성벽과 맞닿아 있고 강을 굽어보는 모퉁이에는 약



그림 1 가이유안 소재 탑

90~100피트 높이의 고풍스런 멋진 탑이 있었다. 탑의 대좌에서 위로 30피트까지는 장식이 없으며 그 위에 마치 하나씩 큰 고리 덩어리들이 쌓인 것처럼 원환으로 나뉘는 높은 지주가 솟아 있고 꼭대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우산 모양의 불교 첨탑이 있었다. 탑과 도시의 성벽은 이제 우리가 만주의 유서 깊은 중국인 거주 지역에 도착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칭 강 위에는 수수 줄기 집단으로 만든 길고 원시적인 다리가 나무더미 위에 세워져 있었다. 이 건조물은 조야하고 영성해 보이지만 감탄스러울 정도로 다리 역할을 잘 해냈다. 기장줄기는 매우 질기며 엄청난 교통량을 견뎌낸다. 줄기들은 아주 가벼워 중량감이 거의 없으며,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닳아서 없어져도 도로 전체를 아주 적은 비용

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 긴 수레행렬이 지나가는 중이어서 길을 얼음 위로 잡아 수레들은 안전하게 건넜지만 폴포드는 불행하게도 무릎까지 오는 구멍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옷이 나무처럼 얼어붙었지만 최대한 빨리 걸어 가장 가까운 여관을 찾았다. 다행히도 폴포드의 상태는 악화되지 않았으나 수은주가 영하로 내려가는 것은 그리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다.

여관 뜰에는 관청쯔에서 만리장성에 있는 가묘로 가던 한 중국인의 관이 놓여 있었다. 관을 신고 가는 수레는 황색깃발이 달려 있어 망자가 지위가 높은 사람임을 의미하고 있었고, 공중에 떠다니는 모든 악한 기운들을 물리치기 위해 붉은 기가 덮여 있었다. 관 꼭대기에 있는 새장 속에는 흔히 볼 수 있는 토종 수탉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망자의 시체를 보낼 때는 언제나 가끔 한 마리가 동반된다. 이유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수탉이 없을 경우 영혼이 제외된 시체만이 운반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수탉 없이는 영혼이 만리장성을 통과할 수 없다고도 한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수탉에 상관없이 어떤 영혼도 만리장성을 통과할 수 없다. 건륭제가 사망했을 때 그들은 황제를 조상들과 함께 묻힐 수 있도록 묵뎀으로 보내길 원했으나 황제의 영혼조차도 만리장성을 통과할 수 없어 베이징에 묻어야 했다”고 말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관을 동반한 망자의 혼이 걱정이 커져 길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탉의 울음이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팔라디우스의 말에 따르면 또 다른 만주의 관례가 있는데 망자가 살았던 도시의 수호신에 헌정된 사원인 청황묘에서 일련의 표들을 구입하여 관문을 통과하거나 강을 건널 때마다 하나씩 태운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표를 완전히 다 태우면 그곳의 수호신이 망자의 혼을 자유롭게 지나가도록 허락

한다고 한다.

여행속도를 두 배로 높였지만 종종 거대한 돼지 떼들의 출현으로 방해 받았다. 돼지들은 중국 최대의 민족 명절인 설날에 쓰기 위해 남쪽 목텐으로 이동하고 있던 중이었다. 길으로는 살찌고 번드르르해 보였으나 가장 더러운 음식찌꺼기를 먹는 동물이라는 생각에 식용으로 쓸 생각이 달아났다.

다음 목적지는 테링이란 도시로, 탐이 있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랴오허의 지류에 인접해 있다. 강은 종종 범람하여 주변지역에 해를 입힌다. 지명의 뜻은 문자 그대로 철령(鐵嶺)이며 철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인근의 산에서 유래했다. 도시는 철을 다루는 작업으로 유명하다. 우리는 현재 강의 주기적인 범람으로 종종 잠기게 되는 낮은 계곡 안으로 꽤 들어왔다. 우리가 처음 지린에 있었을 때 전신선을 망가뜨렸던 지난 계절의 폭우로 황무지가 크게 늘어났고 손실과 비참함이 극에 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작자들의 집이 파괴되면서 얼마 되지 않는 가재도구까지 잃어버렸고 상당 규모의 옥토가 홍수로 인해 쌓인 모래들과 자갈들로 손실되었다. 우리가 북쪽을 향해 가면서 마주친 이주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이 불쌍하고 몰락한 농민들이었다. 잉커우의 영국인과 다른 외국인은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많은 기부를 했으며, 선교사인 웨스트워터(Westwater) 목사가 목숨을 잃었던 때가 바로 이 의연금을 나누고 있던 중이었다. 그는 아일랜드 기근 이후의 발진티푸스처럼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유행성 열병으로 사망했다.

우리는 이를 만에 90마일을 주파하여 12월 19일 목텐에 도착했다. 여행 후반부 동안 우리는 랴오둥에서 가장 좋은 곳을 보았다. 홍수에도 불구하고 목텐은 매우 조심스럽게 경작되고 있었고 번성하는 도시들과

손락들로 가득했다. 중국 통치의 장점 혹은 단점이 무엇이든 이 성은 이미 제3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확실히 지난 200년 동안 엄청나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주로는 그렇지 않았다. 심지어 강희제 시대조차도 지린으로 가는 황제로가 없었다. 베르비스트 신부는 이 주제에 관해 더 생생하게 쓰고 있다. ‘길이 엉망이고 물로 인해 거의 통행 불가능한 상태라 여행의 피로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다. 황제와 측근들은 쉽 없이 산과 계곡을 넘었고 급류나 홍수로 인해 다리들이 부서진 가장 위험한 강과 급류들을 지났다. 어떤 곳에서는 깊은 웅덩이와 진창길을 빠져나오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짐을 실은 동물들은 전진이 불가능했고 진흙탕에 붙어 있거나 길 위에서 기절한 채로 죽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없었고 오랜 여행 동안 식량과 필수음식물이 부족하여 모두 파멸했다.’

묵텐에서 우리는 좋은 친구들인 선교사들과 며칠을 함께 쉬었다. 일요일에 우리는 남녀 합쳐 약 70명의 회중이 있는 선교회관에서 중국식 예배를 드렸고 오후에는 중국인의 편견을 존중하여 남자들만 참석하는 도시의 예배당으로 향했다. 장로들 중 매우 지적인 얼굴을 한 중국인의 기도로 예배가 시작되었고 친숙한 오랜 찬송들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익숙한 오랜 음조에 맞춰 울려 퍼졌다. 찬송실력은 대단치 않았으나 진정성이 있었고 비문명화된 민족들 가운데 가장 사려 깊은 이 오래된 비신자들이 유일신과 그의 아들 구세주를 찬양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감동이었다.

필자는 후란에서 병사들에게 거의 죽을 뻔했던 신사인 페르 콘로를 만났다. 그는 자신이 주거지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 당국과 협상 중이라 관리들 사이에 인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콘로 씨가 홀로 숙



그림 2 친구가 된 소년들

소에 앉아 있던 어느 날 밤, 일단의 병사들이 문과 창문을 통해 침입하자 그는 무모하게도(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갖지는 않는다) 연발 권총을 그들을 향해 발사했다. 키 작은 중국인 대장이 죽었다. 콘로 씨는 즉각 붙잡혔고 수레에 온몸이 묶인 상태에서 머리만 수레의 꼬리 위로 내놓고 있었다. 총 한 발이 발사되어 다리를 관통했고, 그는 가장 야만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졌다. 막대기로 머리와 얼굴을 맞았으며 눈과 입에 쓰레기를 강제로 넣었고 빨갛게 달군 파이프로 온몸을 구타했다. 그럼에도 정말 놀라운 것은 그가 현장에서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 같은 상태에서 몇 시간 동안을 관아 병사들의 놀림감으로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났다. 텐진 주재 프랑스 영사가 1882년과 1883년 사이의 겨울에 이 문제를 조사하고 배상을 받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는 후

란과 치치하얼을 방문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자국 내에서 성직자를 모욕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프랑스 정부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직자들이 도를 넘는 지나친 선행이나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할 경우에도 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해왔다. 참된 기독교라는 관점에서 보면 필자가 지금 서술하고 있는 사건들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걱정적이고 완고한 사람들은 동양인을 대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며 종종 1870년에 텐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재난을 초래한다. 가톨릭 고아원의 사망률은 파산상태에서 수용한 엄청난 수의 기근에 찌든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높다. 사람들은 흥분했고, 사진에 필요하다고 전해지는 논의 분비액<sup>1</sup> 때문에 아이들이 살해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흥분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중국 관원들을 초빙하여 고아원을 시찰하게 하고 시설의 훌륭함을 확인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영사는 분노를 터뜨리며 말했다. “안됩니다. 그것은 모욕입니다.” 그 결과 폭도들이 고아원을 공격했고 자비 자매단이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학살당했으며 프랑스 영사 자신과 다른 유럽인들도 살해되었다.

묵덴의 장로교 선교사들은 주거지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강을 굽어보면서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매우 훌륭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터를 선택했다. 세 집이 서로 붙어 있었고 넓은 뜰이 딸려 있었으며 집과 대지에는 작은 예배당, 교실, 교회 구성원 자매들인 여학생을 위한 기숙

<sup>1</sup> 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낡은 비난이다. 1844년, 유명 목사인 키잉(Keying)이 도광제의 추도식에서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요청하는 한편으로 만일 개종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병자의 눈을 찌르거나 여인을 농락하다 잡힐 경우, 처벌을 면할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가 있었다. 필자가 방문했을 때, 16명의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나이는 각자 달랐지만 모두 총명한 눈과 장밋빛 볼을 갖고 있었다. 한 어린 소녀가 성경의 한 장을 읽은 뒤 관련 질문에 답했고 모두가 멋지게 찬송을 불렀다. 나이가 어린 소녀들은 머리 앞쪽을 밀었으나 그렇지 않은 소녀들은 머리를 길러 뒤로 뿔었다.

선교단의 거류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의료선교단의 병원과 진료소가 있다. 14명의 입원 환자는 편해보였으며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비적들의 총탄에 부상당한 병사들이었다. 필자가 본 사람은 매우 심각한 병 때문에 입원한 뒤 관을 구입하고 장례식까지 준비했으나 마지막으로 ‘외국 악마’에게 치료를 받아보자는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여 수술을 받은 뒤 생명을 구했다. 환자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은 병상에서 일어나 크리스티(Christie) 박사에게 매우 열정적으로 자신의 생명 보전이 신의 은총 덕분이라는 사실을 필자에게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여성용 병원은 부지를 구하지 못해 아직 설립되지 못했다. 타이핑커우<sup>2</sup>의 시각장애인이 처음 설교를 듣게 된 곳이 바로 이 병원이었다.

묵텐의 서쪽에는 1638년 홍타이지 황제가 몽골의 차하르족 추장인 린단에게서 빼앗은 우상을 보존하기 위해 세운 반센시 라마 사원이 있다. 팔라디우스는 이 우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우상은 믿음의 수호자인 마카할라라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산 가운데 하나인 산둥 소재 우타이 산의 사원을 위해 쿠빌라이 칸 시대에

---

<sup>2</sup> 주해 E 참조.

유명한 파크바 라마승에 의해 만들어 졌다. 그 이후로 우상은 몽골 북쪽으로 옮겨져 후투흐타 샤르바가 린단으로 가져갔다. 그리고는 만주족이 침공하여 샤르바가 패배하자 모르겐이라는 라마승이 우상을 만주 족장에게 넘겼다. 대대적인 의식과 함께 우상은 묵텐으로 옮겨졌고 그에 어울리는 건축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으며 많은 양의 금과 은이 사원장식에 아낌없이 사용되었다. 이것이 사원 기념비에 네 가지 언어로 새겨진 우상의 역사이다.

관청쯔에서 우리는 이 사원에 관해 들었으나 불행하게도 묵텐에 도착했을 때 구경을 생략했다.

묵텐의 거리들은 새해를 맞이하느라 매우 분주했고 상점들은 물건들로 꽉 차 있었다. 한 골동품 상점에서 필자는 베이징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에 오래된 도자기 몇 점을 구입했다. 그러나 하나 만이 유일하게 진품이었는데 그것은 랑야오 또는 프랑스어로는 소의 피(sang-de-boeuf)라 불리는 희귀한 색채인 진홍색을 놀라울 정도로 풍부하게 갖고 있었고 가장자리가 가늘고 흰 병(甁)이었다. 생선과 가금을 파는 상점에는 지방 전역에서 보낸 수많은 진귀한 생선들과 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가장 귀중한 품목은 진미라고 간주되는 작은 곰 발이었고, 곰의 쓸개는 약으로 쓰인다. 만주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인기를 끄는 또 다른 품목은 유럽에도 알려진 개구리 뒷다리이다. 이 양서류는 ‘하수마’라 불리며 로스 씨의 묘사에 따르면 갈색 등과 매우 긴 뒷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2개의 관절에 의해 몸이 삼등분되고 5개의 물갈퀴가 달린 가늘고 긴 발을 가지고 있다. 뒷다리는 귀한 진미이자 황제의 특이한 재산이다. 중국 상인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손톱을 과도하게 기르는



그림 3 량양호리병

이유는 자신들이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지 않는다는 일종의 신분적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한 젊은이는 양손에 새의 발톱처럼 생긴 손톱을 하고 있었으며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도의 파키르들(Fakirs)도 미적인 이유로 동일한 관습을 갖고 있으며 몇몇 벵갈 신사들은 맹세의 표시로, 그러나 대개는 허영심에 그렇게 한다.

15일에 우리는 잉커우를 향해 떠났다. 둘째 날 우리는 랴오양 탑과 맞먹을 정도로 수 마일 밖에서도 보이는 높은 탑을 가진 또 다른 로마 가톨릭 근거지인 사링에 도착했다. 우리는 지역 담당 보좌주교인 페르이나르(Père Hinard), 솔레(Choulait) 선교사, 쌍드린(Sandrin) 선교사로부터 늘 그렇듯이 진심어린 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우리에게 학교를 보여주었다. 30명의 소년들이 사제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라틴어와 신학을 배우고 있었다. 개종자 첫 세대는 어느 누구도 사제의 품위에 오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단아하고

건설했으며 스파르타처럼 사치품이 없는 분위기가 매우 독특했다. 몇 달 전에는 지역 전체가 물에 잠겨 사제관까지 몇 피트 깊이의 물이 들어오기도 했다. 석공술이 좋지 않았더라면 다 쓸려나갔을 것이다.

이어 우리는 울퉁불퉁하고 그림 같은 산맥인 첸 산 혹은 ‘천산(天山)’을 왼쪽으로 보며 주로에 다시 합류했다. 곧 탕강뜨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화씨 112도(섭씨 약 44도)의 온천이 있었고 그 위에 목욕탕이 건설되어 있었다. 내부에는 돌로 구획을 지은 깊고 둥근 구덩이로 온천물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바닥에는 증기 사이로 익숙하지 않은 사치스런 목욕을 즐기고 있는 나신의 중국인들을 희미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진저우푸 근처에도 비슷한 온천장이 있다. 그리고는 역사에서 종종 언급되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오래된 멋진 도시인 하이칭으로 갔다. 도시 중앙에서는 한때 조선인에게 점령당했다가 645년, 당나라가 회복한 남은 요새의 유적들을 볼 수 있다. 로스 씨는 그 유적들이 현재 유일하게 랴오둥에 존재하는 조선인의 유적들이라고 생각한다. 외부에는 명나라 때 건설된 거대한 성벽의 기반이 있고 양쪽으로 2마일씩 뻗어 있다. 하이칭에는 필자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세 명의 유명한 왕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상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고시의 무덤이 있다. 그는 광저우와 중국 남부의 총독이었다. 노년에 아들인 주신이 오삼계의 반란에 가담하였으나 1681년 강희제는 고시의 과거 공적을 감안하여 난을 진압한 뒤에도 그의 시체를 거둬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을 명했다. 중국에서 한 사람의 반역은 가솔들에 대한 처벌과 죽은 친족들의 무덤에 대한 모욕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례적인 일이었다. 현재 그의 무덤에는 아름다운 사원이 세워져 있고 그가 보여준 충성심과 가치를 기리는 커다란 석판이 있다. 두 명의 묘지기들이 무덤과 사

원 및 황제가 수여한 영지를 돌보고 있다. 그리고 기일에는 하이칭과 인근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모여 위대한 조상의 묘 앞에서 제를 드린다.

한편 도로를 따라 수많은 기념비들이 서있었다. 중국인은 죽은 명사들의 기억들을 기록하려 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하다. 기억의 내용은 남다른 비범한 공적들을 기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 패루를 세운다. 패루 설립에는 황제의 재가를 담고 있는 칙령이 필요하며 『베이징 공보』에 게재된다. 병든 부모를 위해 자신의 팔과 간을 잘라 고깃국을 끓여드린 효녀와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다 따라 죽은 절개 있는 과부를 기리기 위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기념비가 세워진다. 지린과 베두나 사이에서 아세히와 산싱으로 가는 주로가 갈라지는 곳인 슈쉬텐쯔에는 과부를 기리는 기념비가 서있고 효녀의 패루는 치치하얼 입구 근처에 있다. 그러나 패루는 사람 많은 만주 지역이면 어디든 볼 수 있다.

우리는 하이칭에서 매킨타이어 목사와 하루를 같이 보냈다. 매킨타이어 목사의 임무는 선교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것이었다. 12월 19일에 우리는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잉커우로 돌아왔고 출발한지 정확히 7개월 만이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까지 머무르면서 영국인 성직자는 없었지만 장로교 선교사의 집전으로 영국식 성탄미사를 드렸고 오래된 크리스마스 찬송을 불렀다. 확실히 외국을 여행할수록 기독교적 관용과 자선은 커진다. 국내에서 그토록 격렬하게 논쟁거리가 되는 예배의식과 교리들의 차이마저 조용히 사라져 버린다. 성탄절 전야에 영사인 알렌(Allen) 씨와 필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들어찬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자정미사를 드렸다. 성체를 거양할 때에는 중국인 개종자들을 반기고 헌신을 독려하는 폭죽이 큰 소리를 내며 밖에서 터졌고 ‘참 반가운 신도여’라는 찬송도 힘차게 울려 퍼졌다. 우리

는 로마 가톨릭 고아원도 방문했다. 아이들은 흥색과 청색의 화려한 성복을 입고 있었고 행복한 얼굴로 성탄절 저녁식사를 기대하고 있었다.

잉커우에서 우리 일행은 서로 작별인사를 고한 뒤 헤어졌다. 필자보다 더 긴 휴가를 얻은 영허즈밴드와 폴포드는 주수와 요리사를 대동하고 여유 있게 육로를 통해 만리장성을 통과하여 텐진으로 돌아갔다. 래틀리와 필자는 장산과 함께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했는데 필자가 급한 일로 상하이로 돌아와야 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나 때마침 잉커우의 강이 얼어붙어 라오둥 만과 황해를 나누는 반도의 끝에 있는 항구를 찾아야 했다. 항구는 이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엠허스트 경이 대사였던 시절 여왕의 배인 알세스테(Alceste) 호에 의해 ‘섭정의 칼’이라는 세례명을 받은 곳이며 현재 해군성 지도에는 광둥으로 표기되어 있다. 잉커우를 떠나자 길은 진흙창의 평지로 바뀌는데 소금이 광범위하게 제조되고 있다. 얇은 웅덩이에 긴 도랑을 통해 물을 댄 뒤 증발시켜 소금을 만든다. 25마일쯤 더 가자 성벽으로 둘러싸인 멋진 도시인 카이핑에 닿았다. 도시의 북문과 서문이 모두 잠겨있어 남문으로 돌아가야 했다. 북문은 프랑스 늑대인간과 같은 여우가 출몰하여 소녀를 납치해가기 때문에 봉쇄되었고, 남문은 전갈이 출몰하거나 여우와 전갈이 두 문으로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하여 닫혔다고 한다. 요컨대 ‘풍수’가 훼손되어 교통의 방향을 바꾸어야 했던 것이다. 현재는 일반화된 풍수가 과거에는 미신으로 인식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은 기묘하다. 불과 150년 전에야 비로소 웅정제는 강신술과 흠점에 관한 허위 이야기를 믿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법으로 규정했다.

카이핑 너머 한 언덕 위에는 철로 만든 작은 탑 모양의 아주 우아한 기념비가 서있다. 조금 더 가면 평탄한 평원이 낮은 산맥으로 바뀐다.

우리는 이얼링이라는 낮은 통행로를 지나 비리허를 따라 메마른 돌계곡에 올라 완푸장을 지났다. 또다시 산속으로 들어 왔고 사방으로 높이 1~2천 피트를 상회하는 바위산맥들이 울퉁불퉁하고 그림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싱카이링과 다라링이라는 두 개의 통행로를 지나 만주 최초의 선교 근거지인 사커우에 도착했다. 사커우는 다쥬허의 제방에 인접해 있었다.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고 흔히 볼 수 있는 높은 뾰족탑과 백색의 아름다운 대리석 제단을 갖추고 있었다. 교회 양쪽에는 두 개의 멋진 산이 솟아 있었는데 산 이름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면 '닭 벼슬'과 '영광의 산'이란 뜻이었다.

사커우를 가려했던 이유는 유명한 불교 동굴사원을 방문하고 싶어서였다. 사제인 기용(Guillon) 씨는 친절하게도 그곳까지 필자와 동행해주었다. 동굴은 '현자들의 산'이라는 산 속에 있으며 사커우에서 약 10마일 떨어져 있다. 우리는 골짜기 입구 근처에 있는 사원이 보이자 말에서 내렸다. 골짜기는 가파른 바위산으로 꼭대기는 푸른 소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거칠고 울퉁불퉁했다. 길은 골짜기를 휘감으며 나 있었고 양옆으로 명나라 시대의 기념비들이 늘어서 있었다. 골짜기는 올라갈수록 점점 더 좁아지고 가팔라졌으며 길을 돌 때마다 매번 달라지는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었다. 마침내 동굴의 어두운 입구가 주봉우리의 정상 근처에 높이 솟아 있는 가파른 비탈 위로 보였다. 돌로 만들어진 약 500피트 높이의 길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자연 그대로의 바위에 생긴 좁은 틈에 도달하게 된다. 그 너머에는 산비탈을 깎아 만든 거의 수직에 가까운 또 다른 계단이 있었다. 마침내 어둑어둑한 문에 닿자 거대한 두 상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불빛이 희미한 약 40~50개의 계단을 오르면 순례자는 후미진 곳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깊은 곳



그림 4 현산(賢山) 소재 동굴 암자

에 3~4개의 사당이 서있었다. 이곳엔 부처와 18명의 제자들이 있고 라오예, 비의 신, 열 가지 질병의 신, 루시나의 모습을 한 천녀도 있었다. 그 외에도 18개의 팔을 가진 갈리와 닳은 부처, 오리싸에서 사랑받는 여신, 이름은 알 수 없으나 광저우의 대사원에 있는 인물과 꼭 닮았으며 여행객들이 마르코 폴로와 비슷하다고 말하는 신 등이 있었다. 확실히 얼굴, 수염, 머리장식은 유럽인의 모습이었다. 사당은 두 명의 지저분하게 생긴 사제들이 항상 지키고 있었다. 사당 안에는 석탄 화로로 쓰이는 멋진 청동 대야가 있었는데 천 년이나 오래되어 보여 일설에는 조선인의 점령시대에 만들어졌다고도 한다. 동굴의 모습에는 실망스러운 측면도 있었다. 즉 인도의 동굴 사원만큼 산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잔타와 견줄 정도의 광경을 보였다. 페르 기용과 필자는 봉우리 위에 올랐다. 햇볕이 너무 따뜻하고 밝아 겨울이었지만 잠시 향기로운 슬릿더미 위에

누워 멀리 보이는 바다까지 마음껏 풍경을 즐겼다.

동굴을 떠나자마자 페르 기용은 필자에게 조그만 땅 밑에서 자라는 특이한 한 쌍의 나무들을 보여 주었다. 나무들은 암수 한 쌍이었고 부채모양의 우아한 잎들이 달려있었다. 수나무는 자두처럼 열매가 달려 있었는데 신부는 독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만주지방 전역에서 이와 같은 나무들을 볼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라고 덧붙였다. 필자 생각에 이곳은 식물의 보물창고였다. 필자는 조심스럽게 약간의 죽은 잎들, 마른 과일들, 돌들을 모아 영국으로 돌아온 뒤 자랑스럽게 왕립식물원에 가져갔다. 씨슬톤 다이어(Thieselton Dyer) 씨는 “오, 그것은 사초이거나 정고나무야. 창밖에 한 그루가 자라고 있어”라고 말해 실망스러웠다.

동굴에 이르는 골짜기 어귀에는 비단 방적소가 있었다. 이 지역은 투서(tusser) 비단으로 유명한데 ‘지방’ 또는 ‘토착’을 의미하는 중국어 단어에서 유래했다. 산기슭을 덮고 있는 키 작은 오크 나무들 위에서 누에들이 배양되고 있었고 겨울에 모든 고치들을 모아 실을 푼다. 30~40명의 청년들이 어둡고 공기가 탁한 방에 뻘뻘이 모여 앉아 실을 잣고 있었고 몇몇은 낮에도 촛불을 사용해야 했다. 악취가 심했고 청년들은 모두 창백한 얼굴에 초췌해보였다. 사용 중인 기계는 발판으로 작동되는 팔각형의 토리 방적기들이었고 열레를 돌려 그 위에서 1차 비단을 만들고 있었다. 실 하나당 열 마리의 고치가 필요했고 대부분의 경우 세 개의 토리들이 동시에 감겼다. 비단은 짙은 잿빛 색깔이었고 매우 조잡했다. 잉커우의 연간 비단 수출액은 현재 15만 냥에 달하며 가장 중요한 교역분야가 되기 위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1886년에만 약 1만 꾸러미가 수출되었는데 만일 기르던 애벌레들이 폭우로 인해 죽지만 않았더라면 1만 8천 꾸러미까지도 가능했으리라 추정된

다. 산동에서 온 많은 이주자들은 매년 양잠을 하는 지방으로 몰려들어 많은 황무지들이 성공적으로 경작되었다. 관세 감독관인 에드가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약 8년 전에 엔타이의 방적소와 관련 있는 한 외국인이 이 지역을 방문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일부 원주민들에게 실을 뽑던 기존방식 대신에 고치에서 실을 잣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이후 남부의 전문가들도 원주민에게 보다 개선된 실 잣는 방식과 누에 돌보기 및 고치의 건강한 보존방법을 시시때때로 꾸준하면서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하여 피컬<sup>3</sup>당 100냥을 받던 명주솜 원제품을 피컬당 200~300냥을 호가하는 귀중한 비단으로 바꾸어 놓았다. 간혹 전문가 외에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진품을 빼닮은 모조 명주솜들이 포장된 상품에 끼어있기 때문에 구입할 때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커우에서 필지는 다창으로 흐르는 강을 따라갔다. 다창은 해변에 위치한 아주 작은 촌락으로 엔타이와 소규모 교역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겨울에는 정크선이 18리 떨어진 다라운쯔까지만 왕래가능하다고 한다. 이곳과 해안의 다른 작은 항구 마을에는 소규모 분전대가 주둔해 있는데 나름의 역할이 있었다. 윌리엄슨 목사가 인근을 방문하기 불과 두 달 전인 1867년 빨간 수염을 한 200명의 강도들이 정크선에서 내려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모든 작은 항구를 갈취했다. 다창 같은 작은 곳에서는 2천 파운드가 넘는 8천 냥을 갈취했고, 다른 곳에서는 액수가 더 컸다. 그들은 바다로 도주했고 결코 잡히지 않았다.

만주의 이 지역에서는 언제나 나무가 뺨뺨한 묘지와는 별도로 연료

3 1피컬은 133파운드이다.

조달 목적의 조립사업이 소규모로 이루어진다. 이곳은 실용적인 중국 식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다. 인도의 농부들은 자신의 토지 어느 것이라도 나무를 재배하는 데 자발적으로 바칠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베이린쯔와 후란 사이의 넓은 평야에서 비록 숲들이 더 가까이에 위치해 있지만 똑같은 것을 목격했다.

다창 너머의 길은 진장을 거쳐 해변에 닿는다. 진장은 지금은 버려진 광산이다. 얼어붙은 소택지도 지나게 되는데 이곳에는 막대한 양의 1급 토탄이 묻혀있다. 계속해서 사허와 비리허를 건너면 작고 기이한 모습의 비쯔위 항구에 도착한다. 항구의 일부는 데본서의 어촌처럼 돌출된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상점과 여관이 늘어선 변화가가 해변까지 나왔다. 바다는 반 마일이나 얼어있고 6~8척의 정크선이 부빙에 정박해 있으면서 겨울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곳과 해안지대 전역에서는 1급의 굴을 얻을 수 있으며 토착민처럼 작지만 맛이 아주 뛰어나고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저렴하다. 상점에는 갖가지 종류의 냉동생선들이 가득했다.

비쯔위 항구 외곽에는 완벽한 모습을 갖춘 성채가 보인다. 인근에 있는 모든 고대 유적들처럼 조선국 소유인 것 같다. 성채는 약 100야드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양 모퉁이와 양 측면 중앙에 사각형의 측보가 있다. 성벽은 높이 25피트로 바닥에는 돌을 깔았고 그 위에 커다란 벽돌을 쌓았으며 중국의 만리장성과 비슷하다. 입구는 매우 강력하게 요새화되어 있다. 아직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이 요새는 아마도 해적에 맞서 비쯔위 항구를 방어하기 위해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인근의 높은 언덕마다 돌을 이용하여 피라미드 형태로 견고하게 건축된 망루가 있었다. 망루의 바닥은 40피트 사각형이고 지면에서 약 40피트



그림 5 묘비

높이에 달하는 원형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가늘어 진다. 그러나 계단이 없어 외관상으로는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묘연하다. 주변에는 약 15피트 높이의 성벽이 있다. 원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 건축물 모두가 망루와 봉화대로 사용되었으며 예전에는 북쪽으로 약 300마일 떨어진 묵텐까지 신호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랴오둥 만의 북쪽과 서쪽에 위치한 진저우푸와 하이청 사이의 길가에도 비슷한 모습을 지닌 원형 성채들이 있다. 그러나 이 성채들은 벽돌로 만들어졌고 원형포탑처럼 총안무늬의 흉벽을 갖추고 있으며 약 3마일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 로스 씨<sup>4</sup>는 이 성채는 조선의 것이라 추정되는 옛 벽돌들과는 다르며 오히려 만주족의 통치 초기에 만들었던 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한다. 그의 추측으로는 성채는 당시 모문룡의 집

<sup>4</sup> *The Manchus*, p. 64.

근을 알리고 북군을 소집하기 위한 봉화대로 사용하기 위해 만주족이 건설한 것이다. 윌리엄슨 씨의 주장에 따르면 위험이 발생하면 밤에 봉화대에 불을 올려 정보를 신속하게 오삼계와 수도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낮에는 여우의 마른 똥을 태웠는데 중국인에 따르면 그 까닭은 여우 똥이 자욱한 연기를 뿜어내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짙은 연기가 바람에 상관없이 위로 곧게 올라가면서 멀리서도 식별 가능한 어두운 색깔의 수직 기둥을 만들기 때문이었다. 건축물이 봉화대라는 점에 동의하는 수도원장 팔리디우스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준다. 그에 따르면 건축물들은 명나라 후반기에 노대(弩臺)라 불렸고, 여행자들이 몽골 비적들을 만났을 때 도망치기 위한 피신처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즉 여행자들이 노대로 도망쳐 밧줄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이다!

사커우에서 비즈워 사이에 필자가 이용한 길보다 약 20마일 더 짧은 직행로가 있다. 그러나 길이 험하고 여관 투숙이 쉽지 않아 페르 기용은 필자를 설득하여 다른 길을 택하도록 했다. 비즈워에서 필자는 방향을 바꿔 바위투성이의 불모지를 통과하며 반도를 가로질렀다. 라오자 텐이라는 곳에 있는 여관 근처의 어느 사당 안에는 매우 오래된 돌상이 하나 있는데 필자가 만주에서 보았다고 기억하는 돌상 중에는 유일한 것이다. 중국인보다는 인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인 승배자들이 점토나 나무로 만든 신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10마일 정도의 강 모래바닥을 따라 나있는 길을 걸으면 진저우팅에 도착한다. 진저우팅은 적지 않은 크기의 도시로 성벽이 잘 손질되어 있고 입구가 강력하게 요새화되어 있다. 위치도 좋아 깊은 만의 머리 부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입구 양쪽은 바위 절벽이다. 그 위 동쪽으로는 산 하나가 외로이 우뚝 솟아있고 커다랗고 험한 바위와 벼랑이

있어 ‘호랑이산’이라 불린다. 도시 남쪽에는 폭 1마일이 채 안 되는 지협이 있다. 중국 정부는 이곳에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켜 놓는 한편으로 평행호와 도랑을 건설하여 뤼순 항이 배후에서 공격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1천 명이 넘는 병사들이 검은 외투와 청색 바지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유럽식으로 훈련을 받고 있었고 익숙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편 육지의 좁은 지협에서 양쪽으로 보이는 절벽과 바다가 일품이다. 동쪽에는 1859년 영국 함대의 집결지였던 다렌완 만이 있다. 이곳은 여전히 주요 항구라는 명성을 갖고 있다.

진저우의 여우사원을 방문했을 때 필자는 서양의 전설에 나오는 여우인 레이나르드(Reynard)를 발견했다. 레이나르드는 멋진 은빛 수염에 관복을 입고 있었고 모자에 일급관리를 의미하는 홍보석 단추를 달고 있었으며 손에 활을 들고 있는 한 노신사로 표현되고 있었다. 그는 여우혼이라 불렸다. 인근 벽감에는 약의 신인 약왕(藥王)이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약병을 든 채로 신전의 영예를 반씩 나누어 갖고 있었다. 인근의 한 여관에는 풀무를 닳은 흥미로운 물건이 있었다. 직사각형 모양의 목재 상자 한쪽 끝에 피스톤이 고정되어 있고 안쪽의 밸브를 수평으로 작동시켰다. 안에는 약 1인치 정도의 공간이 있어 기장 전체를 따라 한 각도에서 나뉘어져 있고, 상자의 다른 부분들과 양쪽 끝에서 작은 구멍을 통해 소통하며 바깥에는 노즐이 달려있었다. 사실 기계는 원시적인 공기펌프였다. 피스톤이 앞뒤로 작동하면서 압축된 공기가 칸막이 안으로 밀려들어가 이를 통해 불로 전달된다. 효율적이긴 하지만 시끄러운 기구였다.

진저우 남쪽으로 약 35마일 떨어진 곳에서 필자는 여행을 끝내게 되었다. 길의 마지막 부분은 매우 험한 지방으로 향해 있는데 필자는 하

마티면 그 곳에서 눈을 맞으며 밤을 지낼 뻔 했다. 날씨는 며칠 동안 변화가 심했다. 1월 1일에 얼음이 녹았고 2일에는 화씨 13도(섭씨 약 영하 11도)였다. 3일 동틀 녘에는 화씨 0도(섭씨 약 영하 18도)였고 11시에는 화씨 58도(섭씨 약 14도)를 기록했다. 4일에는 동틀 녘에 화씨 5도(섭씨 영하 15도)였고 같은 날 정오에 음지에서 화씨 25도(섭씨 약 영하 4도) 양지에서 화씨 56도(섭씨 약 13도)였다. 4일 밤에는 수 인치에 달하는 눈이 내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매우 위험해보였다. 그러나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 내릴 때 이동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 마일을 걷자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고 길은 1피트 두께의 눈으로 덮였다. 발로 수레자국을 더듬고 여기저기를 방황하며 길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결국 멈춰서고 말았다. 아무런 가속도 보이지 않았고 이제껏 왔던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전선을 따라가면 인가에 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봇대를 찾는 중에 다행히도 이웃 농가의 수레 한 대가 다가왔다. 그는 이정표를 알고 있었고 우리를 인도하여 마침내 초라한 작은 여관까지 안전하게 닿을 수 있었다. 몸은 완전히 젖어 비참한 상태였으나 숙박할 곳을 찾았다는 데 감사했다. 그때까지 필자는 중국 하인들이 인도인보다 일을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장산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쌓인 눈 더미 속에서도 잃어버린 길을 씩씩하게 찾아다녔다. 그가 한 쪽을 맡았고 필자가 다른 쪽을 맡았다. 그리고 우리가 피난처에 들어왔을 때에도 필자에게 최상의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몇 피트 정도의 작은 사각형 오두막집에 불과한 여관에 주인의 가족들, 마부들, 부랑자들로 꽉 차있고, 부엌용 화덕도 질화로에 불과하며 기장뿌리와 옥수수 껍질이 연료의 전부였음에도 말이다.

뤼순 항은 길이 약 1.5마일, 폭 1마일 정도의 작은 타원형 모양의 항구로 사방이 산에 둘러싸여 있으며 매우 협소한 입구를 통해 외곽에 있는 직경 약 80마일의 멧진 만과 연결되어 있다. 외부에서 이 입구로 접근하는 것은 두 개의 모래톱 때문에 불가능하며 내부에는 육지의 모래톱이 대각선으로 입구를 가로질러 뻗어 있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친 물을 가로막는다. 천혜의 방어요건을 갖춘 항구이나 물 공급이 어렵고 해분의 위쪽이 얕다는 것이 단점이다. 중국 정부는 옌타이에서 70마일 이 채 안 되는 이곳을 북해함대의 사령부로 지정하여 수도 방위의 제1 방어선으로 선택했다. 바다에 면해있는 산들의 꼭대기에는 무려 13개에 이르는 요새들이 자리 잡고 있다. 독일 장교인 슈넬(Schnell)이 훈련시키고 가르친 포병들이 강력한 크루프 대포로 무장하고 주둔해 있다. 수비대는 외국식으로 훈련을 거친 7천 명의 군대로 모제(Mauser) 라이플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그 외에 야전 포대가 있다. 프랑스와의 전쟁 중 2만 5천 명이 이곳에 배치되어 뉴장 및 베이징과 전보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육지에 면해있는 산들은 아직 요새화되지 않았으나 병영과 탄약고 및 기타의 사무실들이 있고 모두 전화로 연결된다. 산들의 양끝에는 원주민들의 시장이 있다. 건독과 피난독이 건설 중이며 비용은 25만 파운드로 평가된다. 항구의 입구를 굽어볼 수 있는 고지에는 전기 수색기구가 설치되어 바다를 비추고 적이 어둠을 틈타 접근해오는 것을 막는다. 잠수함 수뢰와 어뢰를 만드는 공장들이 있고 어뢰가 창고에 비축되어 있다. 사실 뤼순 항은 최신식 근대 시설을 갖춘 근사한 교외 빌라와 비슷하다. 독일인은 지금까지 수비대 훈련과 같은 중국군 근대화 작업에 크게 기여하여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그러나 서방 각국들을 서로 번갈아 경쟁시키고, 서방 각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사용하며, 완전히 우호적이라고 확정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는, 중국인이 철저하게 이해하고 즐기는 정책에 따라 우리가 도착하기 조금 전이야 비로소 그들은 독일 공학기사들을 해고하고 프랑스인을 임명하여 선착장 건설을 끝내도록 했다. 어뢰와 지뢰부설 분야의 독일인 교관도 해고되었고 이 부서들은 이미 해군을 지휘하는 영국인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그 영국인도 언젠가는 해고될 것이고 그때에는 아마도 미국인이나 러시아인이 대신 기회를 잡을 것이다.

가난한 중국인에게서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 있는 유럽 국가들을 서로 경쟁시키는 한편으로 자신의 이익을 빈틈없이 추구하는 중국인들의 냉철함에는 찬탄을 금할 수 없다. 중국인은 철저하게 빈틈을 보이지 않으며, 정확히 자신에게 유리한 일을 하려고 하고 옳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제껏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모든 외국인 친구들과 단호하게 절연하기도 한다. 철도, 도로, 대포, 전화 등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인은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중국을 착취하도록 만들지 않을 것이다. 만일 자원개발을 위해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다면 중국 관리들은 3천만을 제시하는 독일 기업연합, 50을 더해 능가하려는 프랑스인, 200을 더 부르는 미국회사, 혹은 무제한인 영국 의회를 기꺼이 환영할 것이다. 중국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현재 영국인은 명예와 신뢰라는 측면에서 중국인보다는 확실히 우위에 있다. 영국 대표와 상인은 음모나 품위 없는 술책으로 비위를 맞추거나 굽신거리지 않는다. 또한 거문도를 중국에 넘겨주고, 아바(Ava)가 10년마다 중국에 공물을 보낸다는 데 동의한 영국의 양보조치는 영·중 양국 간의 우호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영국인은 다음의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 중국인은 거만하고 속을 알 수 없는 이기적인 민족이며 모

든 민족을 적대시할 뿐만 아니라 서방국가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의 편을 들게 되리라는 점이다. 누가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것인가?

뤼순 항의 이야기로 돌아와 북해함대의 사령부가 이곳에 있음에도 필자는 어떠한 전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항구해변에 떠있는 얼음은 크진 않으나 어뢰정의 허약한 외판을 손상시킬 수 있어 어뢰정을 엔타이 근처의 웨이하이웨이이라는 반대쪽 해안으로 옮겨 놓았다. 함대 자체는 상하이에 주둔하고 있어 이곳에서 볼 수 있는 해군이란 구조선 한 척, 소규모 포함 한두 척, 준설선들이 전부였다. 우리가 방문하기 얼마 전 순친왕이 서태후의 명을 받아 군대와 방어시설들을 검열하기 위해 파견되면서 이곳은 매우 들떠 있었다. 그는 관련자 전원의 역량을 면밀하게 검증했다. 순친왕의 조상인 누르하치는 자신이 처음 명나라를 공격할 때에 후손들이 중국을 정복하고 만주를 방기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한 만주족 왕자의 첫 고향 방문이 평텐의 가장 변방 구석에서 누르하치 자신이 듣도 보도 못한 외국 민족들이 가져온 무기와 장비들을 검열하는 일이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필자는 1월 9일 심스(Sims) 함장이 지휘하는 리유안이라는 수송선을 타고 뤼순 항을 떠났다. 그는 출중한 역량과 기지로 중국인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조국을 드높이는 데 기여한 영국인이었다. 약 7시간 후에 산둥 해안의 엔타이에 상륙했고 그곳에서 상하이로 가는 증기선으로 갈아탔다. 영허즈밴드와 폴포드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텐진에 도착했다. 이제 우리의 만주 여행은 끝났다. 중국 여행은 오랜 근무에 지친 필자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인을 상대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고압적인 태도를 교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다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별다른 스포츠를 즐기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행의 주목적이 만주지방과 주민들을 둘러보고 전설상의 설봉들에 올라보는 것이었기에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인도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최상이다.

여행에서 돌아오자 필자의 친구들은 과연 중국이 궁극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될 지 궁금해 했다. 6주간의 짧은 인도여행 경험으로도 인도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하원을 보면 조금 더 긴 중국여행을 한 필자로서는 쉽게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으나 사실 그리 자신 있는 대답을 내놓기는 어렵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면 필자의 입장은 확실히 부정적이다. 이유는 첫째, 중국인은 서로의 지방언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단합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녹슨 연발 라이플은 활 또는 화살만큼이나 쓸모없다. 달리 말하자면 중국의 전통적인 관습과 사고방식이 바뀌기까지는 수 세대가 걸릴 것이며, 그 전까지는 유럽적 방식과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규율, 투명한 행정, 자제력 등을 습득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그런 수준에 도달한다고 해도 중국인은 세계를 항쟁화시키길 원치 않을 것이다. 만일 중국인이 그런 일을 벌이려 한다면 아주 손쉽게 패퇴할 것이기 때문이다.

# 부록





## 주해 A. 인도, 중국, 네팔

최근 공격적인 구르카족이 중국과 영국을 상대로 일으킨 두 차례의 전쟁으로 인도 정부와 중국 정부가 접촉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흥미로워 간략하게나마 언급하려 한다. 우선 구르카족이 티베트를 공격하면서 대외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티베트와 네팔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네팔화폐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한 통화개혁에 티베트의 라마 승들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침공 이유는 수무르 라마의 선동 때문이었다. 수무르 라마는 베이징에서 사망한 데수 라마의 형제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팔 궁정으로 달아났던 인물이다. 네팔이 라싸 군대를 물리치자 달라이 라마는 통화개혁에 동의하고 네팔에 매년 30만 루피(3만 파운드)의 공물을 바친다는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는 조약의 이행보다는 반격할 시간을 벌 속셈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인도 총독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총독이 이를 거절했다. 구르카 왕은 이를 틈타 데수 라마의 근거지인 데수 립보를 공격하여 약탈했다.

조지 스타턴(George Staunton) 경에 따르면 이즈음에 중국의 황제인 건륭제가 나섰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티베트 불교의 고승들과 중국의 보호령에 가해지는 구르카족의 거듭된 공격에 복수를 결심하고 1791년 7만 명의 군대를 티베트 남쪽 국경에 집결시켰다. 분쟁이 발발하기 직전 네팔 왕과 중국군 사령관은 모두 영국의 협조를 구했다. 중국군 사령관은 인도총독에게 ‘황족의 꽃, 영예로운 천계의 태양, 중국 영토의 왕관과 옥좌의 빛나는 보석’인 중국 황제의 이름으로 네팔 왕을 포위하고 마땅히 응징하기 위한 군대 파견을 요청한다는 거만

한 편지를 썼다. 인도 총독은 휘하의 장교 한 명을 네팔 왕에게 파견하여 티베트와 중국을 상대로 한 갈등을 해소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우호적인 답신을 보냈다. 그리고는 달라이 라마에게도 서한을 보내 영국과 네팔 사이의 관계가 오랫동안 우호적으로 지속되어온 것처럼, 라마교를 보호하는 중국 황제와 영국의 동인도 회사 사이도 친선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 총독의 편지는 중국 지휘관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했다. 중국군은 네팔로 진격했고, 인도 총독의 대리인인 커크패트릭(Kirkpatrick) 장군이 카트만두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수도와 지근거리에 있는 나야코트까지 접근해 있었다. 후에 중국군 장군은 총독에게 예를 갖춘 서한을 보내 티베트에 있는 자신에게 특사를 보낼 필요가 없으며 총독의 편지 덕분에 네팔 왕이 중국 황제에게 항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러나 장군은 다른 한편으로 영국으로부터 즉각적인 군사 지원이나 편지를 받지 못했음을 꽤 씁시여겨 황제에게는 영국 군대가 네팔을 도왔다고 보고했다. 이유야 어떻든 장군이 영국인에 대해 반감을 가졌던 것은 분명하다. 그는 광둥 성의 총독으로 영국인을 잘 몰랐고 자극할 경우 위험한 침략적 성격을 지닌 민족으로 여겼다. 총독은 매카트니 경이 중국 주재 대사로 재직하던 시기 몽골에 있는 황제 영지인 열하의 책임자였다. 이곳의 영국 선교단은 건륭제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방해로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말았다.

중국이 네팔을 침공하여 약 25년이 지난 후에도 히말라야 산맥 남쪽에 있는 구르카족은 여전히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여서 영국은 이들을 굴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는 인도 총독이 중국에게 영국의 적들을 돕거나 교사하지 말라는 경고서한을 보냈다. 시가

체의 암반쪽은 총독의 편지를 받자 네팔 왕의 청원서와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중국에 보냈다. 중국 황제인 가경제는 매우 분노했고 곧 타타르인 장군에게 두 명의 감독관을 대동하고 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816년 군대가 국경지역에 도착했다.

세 명의 중국 장수들은 시킴(Sikkim) 왕을 통해 인도 총독에게 서한을 보내 영국의 숨은 의도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시 부탄의 텡(Deb) 왕 및 라싸의 달라이 라마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시킴 왕은 중국 장수들의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면서 중국이 서한을 보낸 이유는 과거 구르카족이 중국을 압박해 왔으며, 영국이 이를 이용하여 네팔과 중국 양쪽을 모두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총독은 답장에서 사건의 실체에 대해 설명했다. 네팔인이 쉬가체로 향하자 중국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었고 이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다. 네팔인은 영국이 카트만두에 외지 주재 사무관을 배치한 데 불만을 터뜨렸고 또 다른 중국 서한 한 통이 시킴 왕을 통해 인도 총독에게 전해졌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의 자비로 인간사의 모든 행위들과 그 내역을 통달하고 계신 황제 폐하께서는 영국 동인도회사가 보여준 신뢰와 지혜와 양국 간에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순수한 우정과 지속적인 상업관계를 되돌아볼 때 구르카 왕의 증상적인 모략은 믿을 바가 못 된다고 하셨습니다. 귀하는 바킬(Vakil)<sup>1</sup>을 설치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구르카 왕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여 상황판단이 서툴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친선관계를 고려하여 귀국의 바킬을

1 대사 또는 대리인.

철회해 준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총독은 전쟁의 원인은 바킬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네팔과의 분쟁 시 인도 총독이 자문 가능한 신뢰성 있는 중국 측 대리인이 있다면 바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영국의 외지 주재 사무관에게는 양국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네팔의 내정과 외정에 대한 개입을 삼가라는 지침이 하달될 것이었다. 중국 장수들은 답장에 크게 만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영국의 외지 주재 사무관을 중국의 보호국 궁정에 머무르게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총독의 제안은 황제에게 전달될 수 없었다. 구르카 왕은 오랫동안 중국의 조공국이었고 또 그렇게 자처해왔다. 이 문제는 거기서 끝이 났다.

1792년 전쟁 이후 네팔에서 중국으로 파견된 사절단은 1852년까지 정기적이지는 않았으나 꾸준히 이어졌다. 그 해 칙사들은 티베트와 중국에서 엄청난 비난과 모욕에 시달렸다. 사절단 중 한 사람은 투옥되었고 다른 이는 코가 잘려 나갔으며 몇몇은 고문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라싸의 옴바족에 대한 항의서들이 무시되자 마침내 1854년 궁재(宮宰) 옴 바하두르는 ‘중국에 대한 네팔의 종속은 그 시점부터 중지되었으며, 구르카족은 앞으로 중국에 공물을 바치거나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티베트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일 년의 준비 끝에 침공했다. 바하두르는 준가르를 손에 넣고 케룽과 쿠티 통행로를 장악하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손실도 컸다. 병사들의 식량이 부족하여 야크를 대신 먹어야 했다. 야크는 소와 비슷한 종류로 독실한 힌두교도는 먹지 않는 동물이었다. 전쟁의 대가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네팔의 사원들에 달려있던 봉헌물인 종들이 모두 대포를 주조하기 위해 징발되었다. 바하두르는 티베트 내부에 거점을 확보할 수

없었다. 반면 티베트인들도 지금까지 구르카족에게 잃은 지역을 회복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수차례에 걸쳐 라싸의 중국계 옴바족을 접촉한 뒤 평화조약이 맺어졌다. 네팔인은 점령했던 통행로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매년 1만 루피를 받게 되었고 네팔 물품들에 대한 수입관세는 유예되며 대신 구르카족 관리가 라싸에 상주하며 네팔 상인의 이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평화조약이 체결된 뒤 중국으로 향하는 사절단은 보류되었다. 그러나 옴바족은 사절단에 대한 환대를 약속했다. 네팔인은 1852년 아편을 중국으로 밀수했고 칙사도 일부를 선물로 받았다. 1866년에 시작된 아편수출은 쓰촨의 천두에서 14마일 떨어진 톤다푸 지역 너머로까지는 확대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중국 측이 상인들을 위한 수레를 제공하지 않으려 했고 사절단도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1869년 사절단이 귀국했고 바하두르는 다시는 사절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1877년 형제인 루노딕 싱이 궁재에 오르면서 과거 중국 정부가 바하두르에게 수여했던 지위를 다시 얻고자 사절단을 파견했다. 사절단은 1879년에 베이징에 닿았고 1880년 여름에 떠나 1882년 네팔로 돌아왔다. 1885년 11월 네팔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루노딕 싱이 살해되자 조카인 비르 슴세레가 궁재가 되었다. 그 또한 삼촌이 중국에게서 얻고자 했던 지위를 탐내어 1886년 10월 사절단을 파견했다.

부정적이긴 하나 중국에 사절단을 보내는 일이 재개되었음에도 네팔의 통치자는 잊지 않고 신임 영국총독에게도 사절단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사절단의 대표가 네팔의 최고위급 인사인 경우에도 총독부 관저에서의 영접은 그에 준하지 않는다. 네팔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영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벵갈 원주민의

폭동에서도 영국 편을 일관되게 지지했고 이후로도 신의를 지켜왔다. 반면 영국은 항상 네팔의 독립을 존중해왔다. 영국은 결코 영국 여행자들이나 상인들을 네팔 국경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고집하지 않았다. 아내의 순사(殉死)나 이와 비슷한 다른 야만적 관습들을 폐지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 이외에는 내정간섭도 삼갔다.

1854년 티베트가 침공을 받았을 때 중국군이 개입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마도 그들은 태평천국의 난으로 티베트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듯하다. 하지만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통제는 사실 개입을 처음 시작한 강희제나 또는 네팔 전쟁을 티베트 도시의 방어 기회로 삼았던 건륭제 시대부터도 명목상에 불과했다. 1886년에야 비로소 중국은 베이징에서 체결한 영국 외무장관과의 약속으로 티베트 문제에서 물러섰다. 즉 인도와 티베트 사이의 무역을 열기 위해 라싸로 향하는 영국 공사의 여행을 중국이 돕는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중국계 압반족은 영국 공사를 도울 힘이 없다고 선언한 상태였고 티베트인은 영국의 의도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무력으로라도 공사의 입국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영국은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다. 불과 4~5년 전만해도 라싸에 있는 네팔상인들의 숙소가 티베트인의 공격으로 약탈되었고 네팔은 보복을 다짐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중국 정부가 네팔상인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지시를 내리면서 문제는 우호적으로 정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했고 베이징 정부의 개입 여부는 수수께끼이다.

## 주해 B. 아편

중국과의 아편거래에 대한 책임이 영국에 있다는 근거 없는 루머들이 상당수 떠돌고 있다.

아편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 영국인이 중국에 소개한 것이 아니며 『대영백과사전』에 따르면 아마도 서력기원 이전 시기부터 오랫동안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200년 전의 어느 중국 식물지에도 아편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 있을 뿐만 아니라 1736년에 재발간된 윈난 성의 역사서에도 아편이 당시에 지금처럼 흔한 지방 특산물이었음이 언급되고 있다. 인도에서도 양귀비 재배는 동인도회사에 의해 시작되지 않았다. 아편은 무굴제국 황제의 독점물이었고, 플라시 전투에서 클라이브(Clive)가 승리를 거둔 뒤에 영국이 벵갈의 재정권과 함께 넘겨받았다. 1773년 무역과 교화 사업을 담당하던 동인도회사는 새로이 획득한 지역의 세수를 늘리기로 결심하고, 당시 포르투갈인이 장악하고 있던 중국행 아편 수출을 직접 담당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출량이 약 200상자에 불과했으나 약 20년이 지난 뒤에는 400상자로 늘었고 품질이 좋아 중국인의 취향에 맞으면서 반 세기만에 5만 상자까지 증가했다. 인도 농부들은 이득을 보았다. 동인도회사는 아편이 가져다주는 세수로 티푸 사힌(Tippoo Sahib) 같은 전제 군주나 홀카르와 같은 약탈자를 정복할 수 있었고 네팔의 침공을 격퇴할 수 있었으며, 핀다레족(Pindarees)을 패주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민간 행정을 개혁하고 인도인에게 평화·정의·번영을 안겨줄 수 있었다.

1796년이나 1797년에 청나라 가경제가 선포한 마약금지령은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형식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었다. 마치

악과 부도덕을 경계하는 영국 황실의 선언서나 도덕적 수사로 가득해  
 종이 값도 못하는 1883년의 중국 칙령처럼 공허했다. 동인도 회사의  
 공장이 위치해 있는 광저우에서 아편무역을 허용한 사람은 다름 아닌  
 관원들이었다. 가정제의 아들인 도광제 또한 아편에 반대하는 칙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도광제도 즉위 후 약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실질  
 적인 강제조치들을 취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 때조차도 중국인에게서  
 아편을 박탈할만한 힘을 갖추지는 못했다. 반면 동인도회사는 인도로  
 부터 중국 내로의 아편수입을 중단할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  
 연 도광제가 아편을 교역 금지 품목으로 고집할 경우 기독교 문명국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동인도 회사와 영국 정부는 선의가 담긴 황제의 노  
 력에 어떠한 태도를 취했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답은  
 첫째, 영국민을 위협하고 감금하면서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등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황제는 이 문제에 관해 영국 정부에 아무 것도 통  
 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 관원들에게 본인의 의중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교역이 곧 합법화되리라는 전망까지 불리일으켰  
 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인도의 영국세관은 귀중품 무역이 곧 적절한 기  
 반을 갖추리라 기대하며 물품에 대한 검색을 생략했다. 둘째, 비록 동  
 인도회사가 인도 아편의 대중국 수출을 막으려 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즉 세수는 감소했을 수도 있으나 중국인에게서 이득을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당시 펀잡과 신드 지방은 독립 상태여서 아편  
 교역이 단지 캘커타에서 쿠라치(Kurrachee)로만 향했을 수도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런 점들만 고려해보더라도 동인도회사는 수출을 막을  
 수는 없었다. 물론 벵갈 지역의 농민들에 대한 동인도회사의 환금작물  
 경작개입권이라는 더 큰 문제는 별도로 하고 말이다.

아편이 마약 흡입자에게 근본적인 해악을 초래한다는 주장에도 많은 오해가 있다.

이 주제에 관한 최근의 권위 있는 저술인 개롯(Garrod) 박사의 『본초강목(Materia Medica)』에 따르면 아편은 가장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약이며 바로 그런 가치로 인해 ‘신의 선물’로 불려 왔다고 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고통도 아편의 처방으로 호전시킬 수 있다. 아편은 자극제이자 진정제이다. 염증이 있을 때 통증과 경련을 달래줄 뿐만 아니라 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며 말라리아를 치료하기도 하는 등 모든 종류의 질병에 매우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아편의 남용은 알코올처럼 소화기관들을 손상시키며 최음제로 사용되더라도 지나치게 탐닉할 경우 무기력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나 아편은 거리에서의 난투극처럼 아내를 구타하거나 마리화나처럼 미친 듯이 행패를 부리는 정도까지 사람을 흥분시키지는 않는다. 개롯 박사는 엄청난 양의 아편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흥분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들을 인용한다.

또 다른 전문가인 무어(W. J. Moore) 박사는 일부 저작이 모든 인도 가정의 필독도서일 정도로 탁월한 동양의 외과의사이다. 그는 아편이 인도 토착민들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한 뒤 다음과 같이 말한다. “라즈푸타나 지역의 아편 흡입이 초래하는 유일한 병은 약한 변비 증세일 뿐이다. …… 아편이 아이들에게 변비증세의 악화 없이 지속적으로 투약 가능하며 성인에게도 수년 간 별다른 부작용 없이 복용 가능하다는 사실은 일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효과를 발휘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생리학적 관찰을 해보면 아편이 인체에 투입될 경우 알코올과 매우 유사한 효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자극제는 예나 지금이나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아편을 흡입하는 사람들은 대체

로 알코올에 중독되지 않는다.” 무어 박사는 계속해서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매우 대담해서 적어도 라즈푸타나에서는 아편을 사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다. 모래사막을 오가는 낙타사육자들이 아편을 흡입할 경우 빈약한 식량으로도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해주며 아무런 상해 없이 겨울밤의 극단적 추위와 사막의 타는 듯한 태양열을 견디게 해준다. 빈궁한 농부들이 사용할 경우 음식이 충분치 못하거나 필수 영양소가 결여되어 느끼는 공허감을 메워준다. 술을 비축하거나 확보하기 어려운 영양실조의 경작자들에게는 아편이 좋은 외인을 마시고 취했을 때의 들뜬 느낌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쉽게 일상의 피로를 풀어준다. 먼거리를 여행해야 하는 급사에게도 아편은 소중한 약이다.” 무어 박사는 어린 시절부터 아편 흡입을 시작하여 40세나 50세 또는 대역년이라는 63세에 이르렀어도 아편을 하지 않는 동료만큼이나 정정하고 기운찬 인도 원주민들을 여럿 알고 있다. 그는 한때 ‘어린 시절부터 계속’ 아편을 흡입했던 하인을 두었었다. “이 사람은 제 1차 아프간 전쟁 때 아편에 빠져 주인과 함께 라즈푸타나의 반(半)사막 지역들을 매년 수천 마일씩 돌아다녔다. 이 사람에게는 아편 파이프가 쓸쓸한 밤의 유일한 위안거리였지만 한 번도 일을 게을리 한 적이 없고 말을 타고 모진 사막을 통과해야 하는 긴 행군에서도 출발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이른 아침에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필수 품목들을 제자리에 정돈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무어 박사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사실 아편은 유럽인이 진을 마시는 것처럼 과도하게 흡입하거나 음식 대용품으로 활용하는 사람의 생명만을 단축할 뿐이다. 따라서 아편에 의해 단축되는 생명은 일반인이 아닌 가난하고 곤궁한 사람들이다.” 돌리틀(Doolittle)에 따르면 부유한 중국인은 평생

동안 아무런 부작용 없이 절제하며 아편을 흡입하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현재 아편은 중국의 18개 주 가운데 적어도 9~10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남부의 주들만 해도 인도의 수출량보다 두 배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세금도 인도 아편보다 낮아 중국인들은 중국산 아편이 외제 아편을 전량 대체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약 5만 5천 상자의 벵갈 아편과 4만 상자의 말와(Malwa) 아편(본토에서 재배된)이 현재 인도에서 중국으로 해마다 수출되고 있어 인도는 약 6~7천만 루피 또는 450~525만 파운드의 순수입을 올리고 있다.

주해 C. 관료 부패 관련 제국 칙령(1885년 8월 5일자 『베이징 공보』  
발췌)

정부기관 전 부서에 만연한 부패와 권력남용에 대해  
지방 고위 당국의 관심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칙령

정부조직은 군주가 운영자로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릴 수 있는 대상이다. 그리고 군주는 성공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지방의 고위당국이라는 대리인에 의존한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제국의 재정을 탄탄한 기반 위에 올려놓으며 법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일들이 모두 그대들에게 달려있다. 그러한 막중한 책임들을 어깨에 지고 있기에 그대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력적인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대들 가운데에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들도 있으나, 한편으로 피상적인 업무행태를 버리지 못하는 자들도 존재한다. 그런 부류의 총독이나 순무(巡撫)들은 황제의 시급한 명령이나 단호한 훈령들을 측근이나 부하들과 협의할 때까지 미루어 놓는다. 그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그 결과 엉뚱한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 폐해가 난무하게 된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황제로부터 특별조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은폐하거나 고의적으로 조사를 지연시킨다.

녹영군은 이미 낡고 무능해진지 오래고 병적에 편입된 비정규병들도 쓸모없는 군사에 불과하다. 급료와 식량 배급 또한 헛되이 쓰이고 있으며 실제 병적에 편입되는 수보다 더 많은 병사들이 군을 떠나고 있

다. 만일 군대에서 이러한 폐해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효율적이고 잘 훈련된 군대를 양성할 수 있겠는가?

행정의 지주이자 기둥인 조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각종 재해에 대해 허위보고를 일삼고 있으며 세금면제 조치는 일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생산성 높은 농지의 세금은 여전히 평가액보다 적게 걷히고 있다. 관세는 공공선을 위한 제도이기 보다는 개인이 치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간주되고 있다. 레킨(禮金)은 국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과하는 세금인데도 연루된 폐해들이 매우 심각하다. 즉 부하들이 막대한 규모로 치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의 제조관련 부서들도 마찬가지다. 엄청난 규모의 액수가 지출되는 분야임에도 경쟁력 없는 대리인들이 운영책임을 맡고 있고, 이윤을 허위로 보고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사기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낭비의 원천으로 꼽힐 정도이다.

법적으로 허가된 기타 지출항목들도 사정은 동일하다. 제국의 세수와 백성들의 소득을 고갈시키고 있으며 무수한 종류의 오랜 폐해들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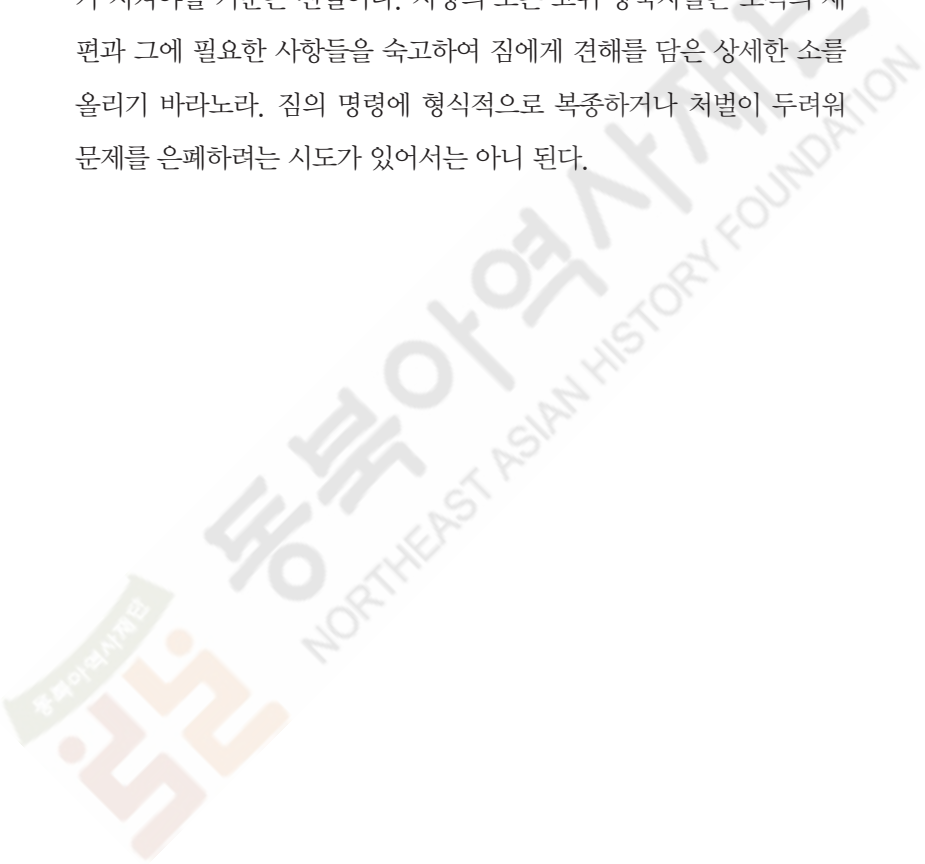
만일 지방 고위 당국자들이 국가의 이익이 곧 자신의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정직하게 처신하고 비용을 검증하며 나아가 독립적이면서도 불편부당한 입장을 견지한다면 국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백성을 살피우며 제국을 발전시키는 데 어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지방의 모든 고위 당국자들은 특별히 선발된 수령들이며 신뢰의 대상이다. 그대들 모두는 양심을 분기시켜 행동으로 옮기고 국사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맡은 바 모든 업무에 진실로 헌신토록 하라. 정실주의의 족쇄는 단호히 끊어야 하며 유능하고 똑똑한 관원들만을 선발할 것

이다. 경고는 공허한 말에 그쳐서는 안 되며 황제에게 올리는 보고 또한 할당된 업무를 형식적으로 완수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칙령을 선포하는 시점 이후로도 타락과 형식주의가 계속된다면 위반자는 즉각 파직되거나 죄가 중할 경우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해질 것이다.

적절한 인물을 기용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조정의 신하된 자가 지켜야 할 기준은 진실이다. 지방의 모든 고위 당국자들은 조직의 재편과 그에 필요한 사항들을 숙고하여 짐에게 견해를 담은 상세한 소를 올리기 바라노라. 짐의 명령에 형식적으로 복종하거나 처벌이 두려워 문제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 주해 D.<sup>1</sup> 브뤼니에르 씨와 비노 씨의 여행

1841년 직후 드 라 브뤼니에르 선교사는 아무르 강 독 위에 살고 있는 장마오쩌족의 개종을 제안했으나 선교사 인력이 충원된 1844년이 되어 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1845년 5월 브뤼니에르는 여행이 3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카이저우를 향해 떠났다. 브뤼니에르가 우수리강의 제방 위에서 외국인 선교를 위한 신학교 교장에게 보낸 다음의 편지는 그의 향후 여정을 보여준다.

만주, 우수리 강위에서, 1846년 4월 5일

하느님의 뜻을 묻기 위해 잠시 은거한 뒤 7월 15일에 필자는 여행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두 명의 수련수사들을 동반하고 몽골의 한 교구인 바자쯔를 떠났다. 수련수사들은 당시 필자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안내자였다. 우리는 동쪽으로 길을 잡은 뒤 약간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7일을 여행한 뒤 아청 시에 닿았다. 도시는 최근 건설되었고 중국계 이주민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었다. 아청 시는 지린 북쪽으로 약 120마일, 쑹화 강 서쪽으로 약 7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인구는 6만 명으로 추정되며 매일 증가하고 있다. 이곳을 통치하는 관리는 2급이다. 시내에 약간의 기독교 가정들이 있으며 지난 겨울에 비노 목사가 방문했었다. 필자는 이번에 우리 수련 수사 중 한 명의 친구인 부유한 비신자에게 들렸으면 했다. 그가 베풀어주는 따뜻한 환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sup>1</sup> *Annales de la Propagation de la Foi*, vol. xx, 1848.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이미 마음 속에 믿음을 갖고 있었고 진정으로 비기독교적인 헛된 미신들을 경멸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는 믿음에 충실했다. 하지만 그는 큰 목공소를 운영하면서 기독교인이라면 사원들을 위해 더 이상 우상들을 만들 수 없는 데도 충고를 무시하고 우상 제작을 통해 큰 수익을 얻고 있었다. 한편 그는 필자에게 사막에는 호랑이와 곰들이 가득하다며 열심히 여행을 말렸고 때로는 고향을 지르기도 해 필자의 두 안내인들이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공포에 질리기도 했다. 이미 중국식 웅변의 과장법에 약간은 익숙한 필자는 그의 우려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유럽인의 육체는 맛이 특이하여 만주의 호랑이들도 먹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물론 이 답은 동반한 수련수사들을 안심시키려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여행이 다시 시작되자 그들은 필자의 확신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다.

아침에서 약 24마일을 가자 주변이 갑자기 주거지역에서 거대한 사막으로 바뀌더니 동해까지 계속 펼쳐졌다. 이곳을 가로지르는 길은 하나이며 산심으로 이어진다. 산심은 쑹화 강의 오른쪽 독 위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아무르 강과의 합류지점에서 약 72마일 떨어져 있다. 오크나무·느릅나무·진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숲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머리까지 닿을 정도로 자란 키가 크고 굵은 풀들이 이 지역 토양의 비옥함을 역력히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은 아직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은 지역이었다. 약 30마일마다 한두 개의 오두막을 볼 수 있는데 일종의 숙박업소로 관원의 관리하에 정부의 급사를 위한 용도로 세워진 곳이며 다른 여행객들도 묵을 수 있었다. 오두막에서는 식단을 물을 필요가 없다. 식단의 단순함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곳보다 더 간결한 식단이 있을 수 없다. 물에 끓인 기장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집 주인은 필자의 귀족스런 행동거지를 보고 인근에서 얻은 야생초 한 접시를 내왔다. 이 식물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려낸 즙을 종종 의학 용 차로 쓰는 젠타인이 주성분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 지방에서 가장 훌륭한 진미는 노란 백합꽃인데 여관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 꽃은 산에 많이 피어있고 중국인의 입에 매우 잘 맞는다.

여행을 하는 동안 호랑이는 단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동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필자의 생각으로는 호랑이 못지않게 사나웠다.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모기와 각다귀, 장수말벌, 등에들에 시달려야 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철심에 고정시킨 말 꼬리로 벌레들을 쫓으려 노력했지만 허사였고 오히려 기승을 부리게 만들었다. 특히나 필자는 곤충들과 싸우느라 기진맥진하여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렸다. 손으로 얼굴을 칠 때마다 한 번에 10~12마리를 잡았다. 짐이나 사람을 신는 두 마리의 말들은 불쌍하게도 풀밭 한가운데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음식과 물을 거부했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말들은 모두 피투성이였다. 여행길에 오른 지 이미 사흘이나 되었고 산심까지는 아직도 나흘이나 더 가야 했다. 우리는 여행방식을 바꿔 밤에 이동하면서 해가 뜨기 한 시간 전에 여관에 닿았다. 낮과 밤을 바꿔 움직이면서 양대 복병들인 등에와 장수말벌을 피해 갔다. 모기는 여전했으나 견딜만했다.

이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외출할 때마다 항상 머리와 목을 덮고 두 개의 눈구멍이 달린 이중의 두꺼운 방충용 실내복을 입는다. 짐을 나르는 짐승들에게 사막을 닮은 내지 옛새 동안 계속 정오의 태양 아래 여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벌레들은 특히 습기 찬 늪 같은 곳이나 만주의 강둑 위

에 떼지어 날아다닌다. 산심을 넘어서면 특히 각다귀와 장수말벌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난다. 다른 벌레의 경우에도 겪게 되는 고통은 수에 상관없이 똑같다. 가옥들은 벌레들을 막기 위해 소나 말의 똥을 태워 연기를 피우거나 주변을 경작지로 만든다. 그러나 벌레들을 완전히 피하려면 서리가 심하게 내리는 9월 말이 되어야 한다.

여행의 또 다른 어려움은 길 사이에 놓여 있는 거대한 진흙탕을 피해 9~12마일을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마침내 8월 4일 밤 즈음에 우리는 산심의 목책과 가옥들을 발견했다. 이 도시에서 눈에 띄는 곳이란 6인치 두께의 커다란 나무 조각들을 서로 정확하게 맞물려 놓은 주로뿐이었다. 인구는 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곳을 다스리는 만주의 관리는 2급이며 우수리 강의 제방들과 아무르 강의 우측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중국 북부의 마지막 요새도시인 산심은 모든 중국인 또는 만주족 여행자들이 합법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최후의 한계지역이다. 그 너머로의 여행은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된다. 매년 100냥 남짓의 비용을 지불하여 황제의 통행허가증을 얻는 약 10명의 상인들이 송화 강을 내려가 아무르 강에 진입하여 우수리 강을 오를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 우수리 강의 숲속에서는 유명한 인삼 뿌리가 발견된다. 다른 여행자들은 별다른 법적 증거가 없는 경우 구타당하거나 심지어는 짐과 옷가지까지 빼앗긴다. 더욱이 밤낮으로 강 위에서 계속 사방을 오가는 소형 바지선 때문에 탈출은 더더욱 어렵다. 산심 당국은 포는 장착하지 않는 대신 몇 명의 기병들만을 실은 전투용 정크선을 매년 세 척씩 파견한다. 전함의 첫 번째 목적지는 아무르 강 동쪽 제방 위 북위 49도 13분에 위치한 무젼이다. 이 무젼은 도시도 아니고 촌락도 아니며 부락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업무처리를 위한 건물로 3개월 동안 바지선

의 관리들을 위한 법원 역할을 한다. 관리들의 업무는 머리를 깎지 않아 장발족이라 불리는 삼마오쩌족이 황제에게 바치는 피혁과 가죽들을 일정 수의 옷가지들과 교환하여 수령해오는 것이다. 두 번째 바지선은 옷감을 만드는 데 생선껍질을 사용한다고 하여 까칠한 피부를 가진 부족이라 불리는 유피타쩌족에게 삼마오쩌족과 동일한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세 번째 배는 빨간색 장발족이라는 의미의 엘레야오쩌족을 관찰한다. 이 부족은 우수리 강의 두세 개 소입구를 차지하고 나무껍질로 만든 텐트 안에 거주하고 있는 불쌍하고 거의 절멸직전에 있는 부족이다. 그러나 종종 배에 탄 관리들과 병사들은 공무보다 개인 일에 더 힘을 쏟는다. 흑초피에 만족하지 못해 약속한 옷을 내놓기도 전에 거액의 돈을 빼앗는다. 원주민 모두가 탄원할 수도 있지만 채찍질 당할까 두려워 어쩔 수없이 자의적인 자세에 굴복한다. 많은 가족들이 배가 다가오면 오두막을 버리고 산으로 달아난다. 그러나 별 소용이 없다. 도망가 있는 동안 모든 재산이 약탈되고 오두막 자체는 불타기 때문이다.<sup>2</sup>

며칠간 쉬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식량을 구입한 뒤 필자는 예전 여행의 안 좋은 경험으로 더 이상의 여행을 내켜하지 않는 두 명의 기독교도 중 한 사람을 랴오둥으로 돌려보냈다. 산심에 도착했을 때 마침 만주의 유피타쩌족과 삼마오쩌족이 어류, 옷, 기장, 특히 중국산 브랜드 등을 교환하러 왔다. 필자는 그들에게서 송화 강 제방 위에 있으면서 산심 아래로는 약 120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수수라는 주요 촌락 하나를 알아냈다. 그들은 중국인은 출입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위험한

<sup>2</sup> 중국인 가운데 장발족은 망군족 또는 울자족이며, '생선비늘'은 골디족, 장흥발족은 해변의 오로지족이다.

안내를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여행  
을 포기해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되지는 못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  
하고 성찬식을 행한 뒤 필자를 마법사로 오인하는 헨시족 여관 주인을  
뒤로 한 채 이른 아침에 동쪽 산맥을 향해 길을 잡았다. 다소 헤매긴 했  
으나 어느 외딴 오두막을 만나면서 우리는 길을 묻거나 짐작을 통해 그  
리 많이 우회하지 않고 수수까지 곧장 갈 수 있었다. 우리는 보이지 않  
지만 여행 중에 우리의 발길을 이끌어주는 유일한 인도자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네 번째 날, 오만하고 귀족적 분위기를 풍기는 두 명의 말 탄  
사내들을 만났다. 하급 장교를 대동한 장수였다. 그는 멈춘 뒤 말에서  
내려 매우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우리는 풀밭에 앉아 함께 파이프를  
피웠다. 그는 일반적인 중국인보다 더 남성적인 용모를 지닌 유럽인을  
보고 잠시 놀랐다. 그는 필자가 대동한 기독교인에게 말을 걸면서 엄  
격히 금지된 지역으로의 여행 목적을 알아내고자 했다. 기독교인은 미  
리 내린 지시에 따라 대답하면서 자신은 단지 평민이자 직업상 노동자  
로서 하인으로 고용되어 필자를 따라온 것일 뿐, 이곳에 온 중요 이유  
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 대답을 듣자 관리는 즉시 필자가 지역상황  
과 관리들의 행동을 조사할 임무를 띠고 파견된 중앙의 관리인지 의심  
했다. 실제로 이것은 중앙 정부가 한 도시나 지역의 관리들에 어떤 의  
심을 품었을 때 취하게 되는 일상적인 조치이다. 만주족 관원들은 일반  
적으로 문맹이며 업무에 매우 서툴다. 따라서 그는 점점 조심스럽게 필  
자에게로 관심을 바꾸더니 이내 필자의 성, 태어난 지방, 중국 남부지  
방의 산물들, 상업 등에 관한 대화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필자의  
여행목적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그는 스스로 체면이 깎이는 행동을 할  
까 두려워했고 필자의 눈 밖에 났다. 두 시간이나 이야기를 나눈 끝에

의례적인 인사를 주고받은 뒤 우리는 서로 매우 만족한 상태에서 헤어졌다. 그는 친절하게도 수수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었고 덕분에 다음 날 우리는 이른 시간에 유포타찌족의 오두막에서 쉴 수 있었다.

갑작스런 필자의 출현 때문에 이 불쌍한 부족민들이 크게 놀란 적이 있었다. 범상치 않은 얼굴, 이 지방에서는 다소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옷, 기톨릭 일과기도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은 수천 가지의 짐작을 하고도 남을 것이었다. 지역의 주요 인사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하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친밀성이 생겨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성경의 권위로 말할 수 있었다. 청중들은 종교가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새로운 교리와 교리를 전하는 새로운 설교자가 청중들을 중간에 갑자기 막았다. 어느 날—필자 생각에 도착한 지 나흘 째 되는 날—원주민 한 명과 대화를 나누면서 강독에 앉아 있었다. 바로 옆에는 그의 두 아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절망감에 긴 낚싯대를 접고 돌아가려할 때쯤 그들에게 익살맞은 톤으로 말을 걸었다.

“잘 못하는군요. 낚싯대 하나를 내게 줘 봐요.”

필자는 낚싯대를 약 10보 더 멀리 던졌고 보는 사람들은 큰 웃음을 터뜨렸다.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여 커다란 물고기가 즉시 미끼를 물었다.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웃던 사람들보다 필자가 더 놀랐다.

“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속삭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 때에 필자가 물고기를 잡은 놀라운 일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그들은 필자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다. 필자는 대답 대신에 단 하나의 질문을 하는 데 만족했다.

“지옥을 믿습니까?”

“예.” 가장 똑똑한 사람 서너 명이 대답했다. “우리는 산심의 승려들처럼 지옥을 믿습니다.”

“지옥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필자는 대답했다. “나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밀을 통해 모든 악령들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으며 천국으로 곧장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두 번째 비밀에 대한 신용을 얻었다. 역시 신의 섭리는 만물을 주재한다.

다음 날 세 명의 마을노인들이 브랜드 한 주전자와 네 개의 잔을 들고 필자의 방에 나타났다.

“당신의 비밀은”, 그들이 말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의 재촉이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 잔 하면서 시작하시죠.”

중국 브랜드에 대한 강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초대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피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즉시 원죄, 지옥,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성사를 통한 구세주의 공덕 적용 등을 설명하면서 필자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인 친근한 비교를 통해 계속 설명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질문자들은 10~12개의 술이 가득 찬 잔을 필자에게 건네면서 5~6분 만에 아무 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호의를 얻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주인이 사망하

여 비어있는 매우 넓은 방을 숙소로 내주었다. 마을의 가장 총명한 사람 중 한 명이 필자에게 만주어를 가르치는 임무를 맡았다. 이 사람들은 중국어와 만주어 모두를 말할 수 있었으나 만주어가 귀에 더 익숙했다. 만주어는 만주 본토에서는 사어가 되어버렸다. 원주민들은 조상의 언어보다 중국어를 선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프랑스 지방의 사투리가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와 유사한 것처럼 자신들의 언어가 만주어와 많이 비슷한 유평타짜족은 부족어 이외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낮에 강 위에서 날카로운 징소리가 들렸다. 모든 이들의 얼굴에 두려운 표정이 바로 떠올랐다.

“그것은” 그들이 필자에게 말했다. “두 명의 관리들과 스무 명의 병사들을 싣고 산심에서 오는 커다란 배로 지금 수수의 모든 주민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관리들의 갑작스런 출현이 초래하는 의례적인 걱정에도 더해 주민들은 필자의 존재가 자신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고 관원들의 분노를 살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필자와 상의를 거쳐 필자를 이방인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필자는 아무런 상거래도 하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주민의 저항에 직면했다가 후에 억지로 알게 된 사람이었다. 7~8명의 병사를 대동한 장교가 직접 필자가 머무는 집을 찾아왔다.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뒤 필자에게 법으로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이곳에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다.

“개인적인 일로 인해” 필자는 답했다. “수수로 가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수리 강까지 가야합니다.”

장교는 더 질문하지 않고 공손히 차를 한 잔 받아 마신 뒤 물러가면

서 필자를 배로 초청했다. 관원을 기다리며 먼저 예를 표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 신뢰의 표시로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그리하여 필자는 기독교도 일행을 대동하고 배로 가서 환대를 받았다.

같은 날 저녁 그는 필자를 재방문했다. 필자는 그에게 끈끈한 차 잎들이 나무처럼 딱딱한 물 모양을 하고 있는 세스완의 값비싼 차인 푸차를 내놓았다.

“각하.” 그는 물러나며 말했다. “당신이 이곳에 있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열흘이나 20일까지도 이곳에 머물게 해 드리겠습니다.”

배의 관리들은 수수의 가난한 14가족들에게 2백 프랑에 맞먹는 금액을 거두어갔다. 유포타찌족이 갖고 있던 액수는 고작 75프랑을 넘지 못했다. 회담을 하면서 사흘이 지났다. 필자의 존재는 확실히 징세관들을 화나게 했다. 필자는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8월 23일 이슬람교인 집에 머물렀던 산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상이라 생각했다.

수염과 눈 때문에 주인은 필자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다. 그의 짐작은 필자가 돼지고기 한 접시를 맛있게 먹어치우자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정작 그가 놀란 것은 필자가 창조의 역사, 곧 아담과 이브의 타락과 아브라함의 여행기 등을 이야기할 때였다.

산심의 이슬람교인 수는 꽤 많아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독자적인 사원을 갖고 있으며 라오쉐푸라는 일종의 초인적 능력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성직자 계급이 사원을 지키고 있다. 라오쉐푸의 의무는 매일 해가 뜰 때 터키인 도살장에서 팔리는 동물이나 소에 첫 칼질을 하는 것이다. 라오쉐푸는 코란을 배우려는 청년들을 위한 학교도 연다. 필자는 지역담당 관리의 막역한 친구인 한 상급 장교의 예

기치 않은 방문을 받았다. 그의 임무는 필자를 법적으로 심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질문들과 걸치레에 불과한 공손함으로 신뢰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오랜 대화를 나누었으나 장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물러가 바로 임무에 복귀했다. 그는 엿새 동안 세 번이나 필자를 방문했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터키인은 필자에게 앞으로 얼마나 이곳에 더 머물 것인지 공손히 물었다. 떠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

동쪽으로 길을 잡아 산심에서 약간 남쪽방향으로 가면 인삼 상인들이 매년 우수리 강으로 가기위해 이용하는 좁은 길이 있다는 유피타찌족의 말을 들은 기억이 났다. 강과 산들로 인해 길게 굽어 있는 거리는 360마일로 추정된다. 필자가 계획을 털어놓은 유일한 인물인 터키인은 작은 준비들을 기꺼이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1845년 9월 1일 언제 돌아올 지 기약도 없이 다시 한 번 산심을 떠났다.

이번 여행에는 부엌을 완벽하게 갖췄다. 작은 철제 솥, 자귀, 작은 죽 그릇, 기장, 귀리빵 덩어리들을 노새에 실었다. 산심에서 우수리 강으로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침낭과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땅이 침상이고 하늘이 이불이며 음식은 온통 주변에 널려있다. 가을비 때문에 여행은 보름이나 걸렸다. 솔직히 지금에 비하면 예전의 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무를 베어 끌어야 했고 추위와 호랑이를 막기 위해 불을 피워야 했으며 바람과 비속에서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더욱이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밤 10~12시까지 쉬지 않고 공격하는 모기떼와 등에떼를 견뎌야 했다. 여행 첫 며칠 동안은 물과 나무가 넉넉했지만 우수리 강에서 90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샘을 찾기 힘들어 새처럼 기장을 생으로 먹어야 했다. 황무지의 숲에는 엄혹한 기후로 나무가 제대로 크지 못해 오크나무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침내 9월 14일 밤 즈음에 우수리 강이 보였다. 우수리 강은 송화강 만큼 깊었으나 폭은 좁았다. 우리는 당시 싱카이 호수의 북쪽으로 12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첫 숙박지는 중국 상인이 지은 외딴 집으로 인삼무역을 위한 창고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지나 필자는 상인 중 한 사람의 초대를 받았다. 그의 배를 이용하여 72마일의 거리를 강을 타고 내려가 우수리 강과 아무르 강의 합류지점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초라한 오두막에 닿았다.

이 오두막은 산뚝의 원주민이자 중국인 소유였다. 그는 6개월간의 고용계약을 맺은 동포 10명을 데리고 있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지방 출신으로 뒤에 이야기 하게 될 유명한 주례우의 뿌리를 찾아 산과 숲을 구석구석 찾아다닐 것이었다. 첫 번째 방문에서 필자는 이곳이 야만적인 지역이 아니며 중국의 도시지역 가까이에 있다고 짐작하게 되었다. 기독교 사제로서의 필자의 자질이 그들에게 드러나면서 주님의 말씀이 증명되었다. “그 하인은 주인보다 크지 않다(요한복음 13장 16절).” 그들이 던진 많은 질문들을 이용하여 필자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자 적대감과 경멸이 분노로 이어졌다. 구원과 사랑의 말씀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은 필자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그곳에 보름을 있었는데 이상한 사고로 인해 우리 모임이 깨어졌다. 이 일은 10월 중순경에 일어났다. 나무들은 이미 벌거벗었고 키 큰 풀들은 바삭 말라 황색으로 바뀌어 동장군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그런데 정오에 지평선 숲 위로 거대한 구름이 나타나 햇빛을 완전히 가렸다. 갑자기 모두가 집에서 나와 “불이야! 불이야!”를 외쳤다. 그들은 도끼를 들고 주거지 주변의 모든 식물들을 베어 넘어뜨렸다. 풀이 태워졌고 나무들은 강으로 끌려갔다. 구름은 계속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질주를 위해 박차가 가해진 말처럼 속도가 빠르고 맹렬한 불길이 보였다. 폭풍의 충격과 유사한 정도의 힘을 가진 충격이 일어났다. 가까이 불길이 보이자마자 몇 족장 차이로 우리 앞을 쏘살같이 지나 북쪽 숲으로 사라졌다.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우리는 불길에 너무 놀라 망연자실해 했다. 이 불은 아무르 강변에서 온 사냥꾼들이 사냥감의 도주를 막기 위해 지른 것이었다.

몇 잔의 브랜드를 마신 뒤 필자는 그동안 느꼈던 두려움을 털어내고 대화의 주제를 다시 종교로 바꾸었다. 대다수 청중은 기독교 교리가 선이요 진리라는 데 동의했으나 십계명은 지지할 수 없는 의무로 여겼다. 필자가 어떤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는지를 알게 되면 이 말에 그리 놀라지 않을 것이다.

우우리 강과 지류들의 주민은 모두 합쳐 8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주민은 두 부류로 하나는 중국계로 200명에 달하고, 나머지는 약 500명의 만주 유평타짜족이다. 유평타짜족은 다시 8개의 주요 가문들과 기타의 소소한 가문들로 세분된다.

두 명의 강직한 상인들을 제외한 200명의 중국인들은 부랑자,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중죄인, 노상강도들로 범죄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 곳 사막으로 도망쳐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필자는 그들의 설명으로만 판단할 뿐이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필자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대담무쌍한 강도행위나 살상자의 수 및 갖가지 잔학무도한 행위들을 고백했다. “아닙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토록 끔찍한 유랑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비참함과 가난 때문만이 아닙니다.” 필자는 이곳의 모습 때문에 그들을 쉽게 믿게 되었다. 그리고 추방생활의 고달픔을 겪으면서 이 타락한 사

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기회만 온다면 과거처럼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이곳은 매년 두세 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최근에 68세의 노인이 76세의 노인을 빗을 바로 갇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나흘 뒤 필자는 그 살인자를 보게 되었고 그는 마치 자신은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살인현장을 담담한 태도로 이야기했다.

삼 전체가 비참한 이 사람들에게는 인삼 찾는 데 전력하는 일 이외에는 달리 삶을 영위할 수단이 없다. 인삼을 캐는 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 24파운드 이상의 무게를 지고 아무 길도 없는 거대한 숲 속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 산들을 오르내리는 이 불쌍한 심마니들을 상상해보라. 항상 독자적인 판단으로 홀로 남게 되기에 갖가지 병들에 걸리기 쉽고 언제라도 주변의 야생 짐승들에게 희생양이 될지도 모르며 가져온 한 줌의 기장과 간을 맞춘 몇몇 야생풀들로 하루하루를 버틴다. 이런 생활을 4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일 년 중 5개월간이나 계속한다.

유피타찌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자. 이 종족은 예전에는 수가 많았으나 현재는 70~80가문 정도를 헤아리며 싱카이 호수에서 멀리 아무르 강까지 교역을 한다. 유피타찌족은 가난한 중국인들의 집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가옥에 살고 있다. 겨울에는 사냥, 여름에는 어업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로 그들의 예술, 과학, 사회상황에 대한 역사가 구성된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정부나 법도 없다. 아무런 기구도 없이 흠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것을 기대한단 말인가? 그들의 종교는 중국어로 차마 또는 차모라 불리는 변조신앙이다. 랴오동의 하층민들도 선호하는 이 미신은 두려움의 대상인 악귀에 맞서 선한

영을 불러오는 것이다. 사냥을 좋아하는 부족인 유피타찌족에게는 수사슴, 여우, 족제비 등의 세 가지 영령들이 가장 순위 높은 숭배대상이다. 만일 가족 중 누군가가 병에 걸리면 악마의 대리인 탓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세 영령 중 하나에 치유를 요청하기 위해 의식을 거행한다. 필자는 이 의식을 두 번 목격했었다. 우선 다센이라는 영을 불러내는 위대한 차마를 집으로 초대한다. 1.5마일 거리에서 북소리를 내어 그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면 집주인은 즉각 같은 종류의 북을 갖고 나가 그를 맞이한다. 환영식에는 브랜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고 해가 질 때 썸이면 참석자들이 모두 만취하게 된다.

다센의 시간이 오면 위대한 차마는 성스러운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종으로 된 색 테이프와 나무껍질로 된 줄이 펠러이는 모자가 그의 머리를 덮고 있다. 암사슴가죽이나 천으로 만들어 각종 색깔을 넣은 차마의 튜닉은 무릎까지 내려온다. 직업상 필수품으로 보이는 허리띠는 세 개의 주름으로 되어 있으며 철이나 청동으로 된 세 줄의 통이 달려있고, 길이는 7~8인치이다. 그리고 복장을 다 갖춘 한 무당이 북과 막대기를 양손에 들고 앉아 있다. 엄숙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무당은 애가(哀歌)를 읊조리는데 음악은 불쾌하지 않다. 무당이 일정 간격으로 두들기는 북에는 목소리가 동반된다. 애가 또는 영령을 불러내는 노래는 많은 연으로 구성되며 각 연이 끝날 때마다 차마의 얼굴이 두려운 빛을 띤다. 북소리들이 점차 커지며 빨라진다. 차마는 입술을 오므려 두세 개의 단조로운 휘파람소리를 토한 뒤 멈춘다. 관중들은 점차 줄어드는 긴 통곡을 합창함으로써 즉각 반응하고 그 소리는 우리의 e 구개음과 같다.

기원이 끝나자 차마는 재빨리 일어나 급하게 걷기도 하고 때론 종종

뛰면서 방을 반복해 돈다. 뿐만 아니라 격앙된 사람처럼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기도 하고 몸을 계속 뒤틀면서 나팔을 불어 놀라운 소리를 낸다. 그러면 영령이 임하여 자신을 드러내나 오직 무당에게만 보일뿐 관중들은 볼 수 없다. 필자가 본 차마는 수사슴의 혼령을 불러냈다. 사냥 시즌이 시작되고 있던 때였다. 그는 행위 도중 잠시 쉬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울부짖어 이 소극(笑劇)을 처음 본 중국인들은 집을 나가 다른 곳에서 밤을 보내려 할 정도였다. 베이징이 고향인 늙은 요리는 자신이 영령을 느꼈다고 필자에게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그를 공포에 떨게 한 일은 전날 밤 기장으로 가득 채워놓았던 철 단지가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비어 있었을 때였다. 잠시 후 영령이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주연을 열어 위대한 차마와 그 패들에게 요리를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토착민들은 겨울에만 사냥을 나간다. 산과 평원에 6피트나 쌓여 있는 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냥꾼이 사용하는 방한화는 소나무에서 잘라낸 두께 4분의 1인치, 폭은 기껏해야 5인치, 길이는 6피트에 달하는 두 개의 판자로 양쪽 끝이 위로 경사가 지고 아래쪽이 사슴가죽으로 덮여 있으며 가죽 끈으로 발에 바짝 묶여 있다. 사냥꾼은 이 신발을 신고 수사슴과 암사슴의 흔적을 따라 눈 위를 가볍게 미끄러져 걸으며 해가 가장 짧은 겨울날에도 60~75마일을 간다. 중간에 산이 있을 경우에도 방한화의 도움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오를 수 있다. 신발을 덮고 있는 사슴가죽 털은 뒤로 가기 위한 용도이며 눈 속에 빠질 경우 지지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유피타짜족은 어업에 가장 능숙하다. 끝이 뾰족하게 생긴 단순한 철창을 가지고 나무껍질로 만든 소형 배에 앉아 마치 육지에서의 방한

화처럼 능숙하게 배를 다룬다. 중국인은 이 배를 ‘빠른 말’이라는 의미의 구아이마라고 부른다. 바투와 빨래 방망이<sup>3</sup>처럼 생긴 노를 몇 번 짓기만 해도 배는 물 위를 아주 빠르게 미끄러져 나간다. 중국인은 이 배를 타려고 하지 않는다. 살짝 움직이기만 해도 항해자를 흔들기 때문이다. 유피타짜족은 창으로 물고기를 찌를 때 팔만 움직일 뿐 몸은 잠시도 평형을 잃지 않는다. 우수리 강과 작은 지류에는 물고기들이 풍부하다. 물고기가 가장 많은 강은 유럽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루암유강이다. 필자는 무게가 1천 파운드가 넘는 물고기를 본 적이 있으며, 1,800~2,000파운드가 나가는 물고기도 있을 것이다. 이 물고기들은 싱카이 호수에서 온다고 전해진다. 살은 완전히 희고 아주 부드러워 필자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담수어보다 나아 보인다. 목에 있는 세 개의 작은 뼈들을 제외하고는 전체 골격이 연골로 된 이 물고기는 상어와 닮은 입술을 갖고 있으며 하체보다 상체가 더 많이 튀어나와 있다. 상어처럼 먹이를 잡거나 낚시 바늘을 물기 위해 몸을 뒤집으며 상어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그리고 서투르게 헤엄친다. 연골과 뼈는 물고기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며 산심에서는 파운드당 한 냥 반에 팔린다. 관원들은 황제의 밥상에 올리기 위해 매년 공급량을 저장한다.

겨울이 다가오는 9월 말에는 타마라라는 또 다른 종류의 물고기가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에 나타난다. 타마라는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바다에서 오며 무게는 10~15파운드이다. 생긴 모습과 특히 맛 때문에 일종의 연어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주님은 아버지의 땅에서 그에게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마음을 쓰셔서 이 지역

3 양쪽에 날이 달린 노.

의 불쌍한 주민들에게도 엄혹한 겨울에 맞설 수 있는 훌륭한 예방약으로 타마라를 주신다. 필자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한다. 종종 영하 65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많았지만 51도의 계속되는 혹한 속에서 와인이나 밀가루도 없이 극히 적은 양의 기장과 한 움큼의 말린 생선으로 버티면서도 필자는 영하 4도의 기온과 좋은 음식이 제공되었던 라오둥 남부보다는 고생을 덜했다고 생각한다. 유피타찌족에게 타마라를 낚는 일은 우리의 농촌지역과 도시들이 수확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타마라나 곡물의 부족은 양자 모두에게 기근을 초래할 것이다. 필자가 말한 두 생선은 요리보다는 주로 날로 먹는다. 필자는 별다른 큰 반감 없이 이 습관을 따랐고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야만인이 되려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신사 여러분들은 이 예외적인 섭생법이 다른 모든 것처럼 나름의 불편함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타마라가 피에 붙어넣는 열은 겨울에는 매우 소중하지만 봄과 여름에는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 병들 가운데 필자는 천연두를 상세히 설명하려 한다. 천연두의 피해는 참혹하다. 노인들도 유아나 청년들만큼이나 천연두를 두려워한다. 한 개인도 평생에 서너 번을 천연두로 고생하게 된다.

이 강들의 물고기는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는 위험하지만 껍데기로 닳지 않는 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 생선 껍데기로 만든 장화를 신고 개울을 걸어서 건널 수 있고 눈 속을 마른 땅처럼 걸을 수 있으며 추위와 습기를 피할 수도 있다.

매년 5월이 되면 먹잇감이 풍부해지고 쉽게 잡히기 때문에 백조, 황새, 거위, 오리, 물오리 등이 떼를 지어 무수히 나타난다. 새들도 휴식을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더 대담해 진다. 원주민은 야생조류를 그다지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겨울철 여행방식에 관해 짧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름이나 겨울에 이용할 수 있는 크고 유일한 길은 강이나 호수이다. 일반적인 운반수단은 썰매로 오크나무 윗가지로 만든다. 길이는 5~6피트, 높이는 1.5피트로 낮은 부분은 볼록하고 윗부분은 평평한데 매우 가볍다. 이 곳에서 개는 러시아인의 순록과 똑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모든 가족이 15~20마리의 개를 한 무리로 기른다. 주인은 물고기의 살을 먹고 개에게는 머리 부분과 뼈를 준다. 겨울에는 개에게 타마라만 먹여 타마라가 내는 열로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눈 위에서 잘 수 있을 정도다. 여덟마리의 중간 크기 개들로 구성되는 한 팀은 최상급 역마차의 속도로 사람 1명과 200파운드의 짐을 하루 종일 끌 수 있다. 겨울여행과 유피타 씨족이 즐기는 겨울 사냥은 안질환을 일으키고 노년에는 시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서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5월 13일이나 15일 즈음에는 잘될 경우 조그만 배 한 척을 사게 될 것이다. 이 배를 타고 아무르 강을 내려가 바다로 가면 장발족들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필자의 안내인 역할을 맡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혼자 갈 것이다. 필자의 동료인 랴오둥 출신의 불쌍한 기독교인은 두려움과 향수로 병을 얻어 집으로 돌아간다. 필자는 산심에서 강을 타고 내려오는 관리들의 바지선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의 힘으로 모든 장애물을 넘어 필자를 그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만일 필자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 분은 필자를 귀환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선교사

인 필자에게 부여된 유일한 의무인 듯하다. 교회가 선교사에게 명하는 기도에는 입술과 마음으로 외우게 되는 다음과 같은 찬가가 있다.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와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시편 131장).”<sup>4</sup>

신사들이여 성스러운 제단과 성스러운 예수와 마리아의 마음 앞에 필자를 기억하는 친절함을 베풀어 주기를.

드 라 브뤼니에르, 로마 교황의 선교사

드 라 브뤼니에르 선교사는 실제로 우수리 강과 아무르 강을 타고 내려왔으나 약탈자 길랴크족에게 죽임을 당했다. 두 명의 사자가 그를 찾기 위해 파견되어 산심까지 갔으나 강이 불어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만주 남부의 기독교 공동체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추가 수색은 단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만주 북쪽에 새로이 세워진 도시인 아청에서 활동하던 비노 선교사가 결국 그곳에서 아무르 강 하류로 탐험 여행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여행 목적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미스터리에 싸여있는 드 라 브뤼니에르 선교사의 운명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그는 다음의 편지가 보여주듯 완벽히 성공했다. ‘주님, 당신의 바람들을 알게 되자 필자는 곧 북쪽에 있다고 전해지는 시산왕국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필자는 1856년 1월 6일에 개종자들인 하 씨, 주 씨, 조 씨 등을 동반하여 말 세 마리가 끄는 썰매를 타고 아청을 떠

4 역자 주 - 성경에 따르면 시편 132장이다.

났다. 여행 첫 사흘 동안 우리는 길에서 몇몇 여관들을 만나기도 했으나 송화 강을 건넌 뒤에는 점점 드물어져 강의 서쪽 제방 위에 산재해 있는 정착민의 집에 숙소를 잡아야 했다. 숙박요청은 거부되지 않았다. 수많은 군사주둔지들이 송화 강 서쪽 제방 위에 배치되어 있었고 각 주둔지에는 한 명의 관원과 재판소가 있었다. 아침에서 산신까지의 거리는 약 150마일로 우리는 길에서 닳새를 보냈다. 산신은 송화 강과 무단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화 강의 동쪽 제방 위와 무단 강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드 라 브뤼니에르 선교사는 1845년에 이곳에 머물렀고 장발족에 의한 그의 암살은 여전히 화젯거리가 되고 있었다. 여행을 가능한 한 비밀로 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지나치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했다. 닳새 동안의 행군으로 모자라게 된 식량들을 서둘러 보충한 뒤 밤이 거의 다 되었지만 썰매를 타고 눈 위를 가로질러 전진했다. 조그만 여인숙에 도착한 것은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였다. 심한 추위나 저녁 식사 뒤의 과한 반주 때문인 듯 주인은 숙소를 달라는 우리의 간청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마침내 문이 열리고 구들 위에 한 곳을 내주었다. 두 사람이 번갈아 이곳에서 쉬는 동안 세 번째 사람은 길가에 놓인 말과 썰매를 감시했다.

산신과 헤이킨 지역 사이의 모든 왕래를 차단하기 위해 송화 강과 아무르 강의 합류 지점에 황제가 건설해놓은 군사 주둔지를 피하려고 우리는 우수리 강을 건넜다. 우수리 강은 모리 강과 만나는 지점 위에 있는 이마 강과 합쳐진다. 우리가 처음 머물 곳은 산신에서 30마일 떨어진 웨이찌게우였다.

웨이찌게우는 반경 18마일 내에 위치한 촌락 집단으로 구성되어있다. 약간의 농업을 하고 있으며 인구는 매우 많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

면 여관이나 경작지 또는 길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황야의 한 가운데 있는 인삼 상인의 외진 오두막을 이따금 만나게 될 뿐이다. 웨이쩌게우와 이마게우씨는 서로 300마일 떨어져 있고 산골짜기에는 소수의 외진 오두막이 있을 뿐이다. 오두막에는 노인들이 살고 있으며 여자는 이곳에서 본 적이 없다. 노인들의 일은 버섯이 자랄 때 그 발판이 되는 나무들을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베는 것이다. 산신에서는 버섯이 수익이 남는 거래 품목이다.

웨이쩌게우 너머 30마일이 채 못 미친 지점에서 눈이 부족해지면서 썰매를 포기하고 동물들의 등에 짐을 싣고 도보로 여행하기 시작했다. 오두막 숙소와 노숙을 가리지 않으며 12일 동안 계속해서 황야를 가로질렀다. 밤이 되어 쉼 곳에 도착하자 나무를 베어 기장을 요리했고 저녁을 먹은 뒤에는 거대한 원형을 이루며 타고 있는 깎부기불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잠들었다. 깎부기불은 매서운 추위와 호랑이의 이빨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었다. 신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직 여행 내내 단 한 마리의 짐승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인육의 살점이 붙어있는 뼈들과 피로 물든 비교적 최근에 찢겨진 듯 보이는 옷들이 널려있는 것으로 보아 숲속의 거주자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이마게우씨는 인삼 심마니들이 거주하는 소수의 가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집이 없는 모험가들이며 교수형에 처해야 할 악인들로 이곳에서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다. 집주인이 이들의 수괴이다. 소득과 비용은 모두가 똑같이 나눈다. 따라서 이 집은 여관이 아니라 누구라도 참여하여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노동에 참여하면 누구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공화국이다. 그러한 공동체에서 필자는 두 달을 머물러야 했다.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필자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안내인도 썰매도 없었기에 얼음이 녹아 카누를 타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했다. 이 지루하게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숙소를 찾은 인삼 심마니들과 중국인 또는 만주족 여행객들에게 주님과 성스러운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귀는 있으나 들으려 하지 않고, 눈은 있으되 보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주님, 이 거대한 지역에 불을 내려주소서. 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지력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닌 밝혀주기 위한 불을, 뿌리깊이 타락해 있는 그들의 마음을 정화할 불을 내려주소서!

마침내 해빙기가 왔다. 필자는 나무줄기로 만든 길이 약 25피트, 폭 2피트의 작은 카누를 한 척 구입했다. 비신자인 만주족을 수로 안내인으로 고용하여 그에게 한 달에 은 열 냥씩을 지불하기로 했다. 안내인에게 배의 키를 맡기고 우리 일행은 노를 맡아 세 번째 달의 19번째 날인 4월 31일(4월 30일의 오기인 듯)에 장발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향해 떠났다. 만주족 안내인은 은 열 냥을 받았으면서도 투덜거리며 마지못해 따라왔다.

필자에 관해 떠도는 어처구니없는 많은 소문들로 인해 수로 안내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웃음을 잃었다. 사람들은 필자가 곧 지방을 약탈하기 위해 침입할 러시아 대군의 지휘관이거나 생사를 좌우할 힘을 가진 마법사라 여겼다. 하이징위키앙에 도착하자 장발족들이 드 라 브뤼니에르 선교사를 살해한 잔인성에 관한 상인들의 진술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 장발족의 탐욕에 관해서도 듣게 되었다. 수로 안내인은 두려움으로 만주족 특유의 성마른 기질을 잃었고 우리는 매일 그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수로 안내인이 우리를 버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중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수로 안내인을 고용했다. 그는 중국인으로 장발족을 방문한 경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장발족의 언어도 할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둘이 되었다.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언쟁 없이 지나간 적이 없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마 같은 사람들이었다. 안내인들을 타이를 때마다 오히려 더 화를 내 마침내는 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높일 이 여행을 중단시킬 것 같았다. 그래서 필자는 평정을 유지하며 침묵하는 가운데 이 표범들의 욕설들을 견뎌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Ecce ego mitto vos sicut agnos in medio luporum).”

네 번째 달 말에 우리는 무쟁에 도착했다. 이곳은 도시도 아니고 촌락도 아닌 강가에 접한 벼랑의 안쪽 땅이다. 가운데에는 나무로 된 집이 한 채 있으며 관리의 숙소로 이용된다. 관리는 타타르족에게 비단 몇 필을 주고 가죽을 공물로 받기 위해 매년 이곳을 방문한다. 관리는 공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 관리를 비롯하여 서른 명에 달하는 무장한 부하들도 비밀리에 사적인 거래를 한다. 강을 오르내릴 때 그가 손을 얹는 원주민들에게 화 있을진저! 관리는 원주민에게 바지선을 잡아끌게 하여 완전히 지치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 무자비하게 곤봉으로 내려치기도 하고 가져온 상품을 언제나 그것도 최고가로 구입하게끔 강요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황제는 산신과 북쪽의 부족들 사이에 모든 왕래를 차단하고자 송화 강과 헤이룽 강의 합류지점에 군사초소들을 세웠다. 12~15척의 바지선 소함대가 앞서 언급한 관원의 지휘하에 강

하류로 파견되며 부하장수들과 무장병사들로 구성된 본대가 매년 무쟁으로 파견되어 고위 행정관리들과 밀수업자 사이의 부정한 결탁을 감시한다. 그러나 관원들이 서로 나눠가질 정도로 많은 뇌물을 상납하는 사람은 누구나 통행이 허가된다. 천자(天子)는 많은 비용으로 유지되는 군사초소들과 함대 및 무장병사들이 관원들의 금고를 채우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사실에 안심하고 설지도 모른다. 상당수의 바지선들은 관원에게 통행세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관원이 무쟁에 도착하기 전에 바다로 내려와 그가 돌아간 뒤 비로소 산신으로 올라간다. 필자도 바지선들을 따라했고 약 72마일을 여행한 뒤 장발족의 첫 번째 촌락인 아기에 닿았다. 이곳은 장마오쩌족 부락 중 가장 큰 것이라 하지만 불과 7~8가문이 살고 있을 뿐이다. 필자는 이곳에서 반갑게도 머리를 민 타타르족인 트완모아쩌족보다 더 남성다우며 유럽인의 골상과 거의 다를 바 없는 특징들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인 우정의 표시로 서로를 포옹하는 것을 보았다. 각 가문마다 작은 선물을 했지만 그들은 받으면서도 별로 기쁜 내색이 아니었다. 브랜디 한 병이 있었더라면 분명 더 고마워했을 것이다.

아침을 떠난 이후로 우리는 거의 동행 없이 여행을 했다. 그러나 아기란 곳부터는 같은 길을 가는 바지선들의 수가 많이 늘어 언제나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동행하는 사람들은 필자에게 바다여행을 포기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갖은 수사법을 동원하여 드 라 브뤼니에르 선교사가 겪었던 끔찍한 고문들을 묘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가 같은 운명을 겪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위협을 하기도 했다. 필자가 이곳에 온 목적 때문에 자신들의 교역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작고 우호적인 말다툼을 벌

이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각자의 배에 서로를 번갈아 초청했다. 필자는 그러한 기회들을 이용하여 영원한 진리들을 설파하고 좋은 책들을 나누어 주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장발족의 마지막 촌락인 우크두 반대쪽에 있는 불로란 곳에 왔다. 여행을 계속할수록 큰 두려움을 느끼던 필자의 만주족 안내인은 지금까지의 여정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가지 못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했다. 다른 일행은 함께 남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필자는 이미 그들도 더 이상의 항해를 원치 않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당황한 필자는 상인 중 한 사람에게 바지선에 태워 바다까지 안내해 달라고 간청했으나 허사였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필자는 불로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사산(사할린)에서 방금 돌아온 한 사람을 만났다. 7척의 바지선들이 강풍으로 만에서 침몰했고 그의 배만 탈출했다. 행운은 계속되어 필자가 머무는 동안 이 상인의 가문에 커다란 경사가 생겼다. 필자도 그들과 행복을 함께했고, 축제가 끝났을 때 환대자의 선의를 이용하여 필자가 여행에도 관심을 갖도록 했다. 그의 조카가 필자를 열 냥에 강 아래까지 안내 해주기로 했다. 필자가 갖고 있던 일부 상품을 담보로 맡기고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만주족 수로 안내인도 마음을 고쳐먹고 여행에 동참했다. 기리미족<sup>5</sup>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갔으나 15마일<sup>6</sup> 지점에서 새로운 경고 때문에 멈춰야 했다. 우리가 곧 접근하게 될 첫 번째 촌락인 후동은 브뤼니에르 선교사가 살해된 곳과 가까웠고 여덟 척의 바지선

---

<sup>5</sup> 길랴크족.

<sup>6</sup> 원전에는 약 150마일.

들이 후동보다 약간 위쪽에서 우리를 살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일행 모두는 더 이상 전진하기를 거부했다. 필자는 기리미족의 언어를 이해할 통역자를 찾기 위해 일행 중 세 명을 함께 보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브뤼니에르 선교사의 우울한 운명에 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오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몇새 동안 소식이 없었다. 남아있던 두 사람은 떠난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친 것이 틀림없다면서 필자를 포기시키려 했다. 그때 두 척의 콰이마선<sup>7</sup>이 우리 쪽으로 빠르게 노를 저어 오는 것을 눈치 챘다. 그들은 물을 툭툭 떨어뜨리며 피부까지 젖은 필자의 사자들을 돌려주었다. 자신들의 임무가 행복하게 끝났다는 기쁨에 불운한 친구들은 술에 취해 싸우고 강에서 엉망이 되었다. 그들은 드 라 브뤼니에르 선교사의 죽음에 관한 보고를 확인해주었고 증거로 살인자들이 선교사의 바지선에서 빼앗은 몇몇 물건들을 가져왔다. 필자의 심부름꾼이 후동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살인 관련자들이 달아나 버렸다. 이 한 사람은 필자가 복수하러 오지 않는다는 어느 상인의 이야기를 듣고 촌락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필자의 동행인들은 그를 발견하고 심문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드 라 브뤼니에르 선교사는 험한 폭풍우를 막아줄 피난처를 찾은 조그만 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때 진술자를 포함하여 두 사람은 특이한 선교사에게서 물건을 빼앗고자 활과 창을 들고 다가갔다. 만에 도착하여 일곱 명이 상륙했고 다른 이들은 배에 머물러 있었다. 드 라 브뤼니에르 선교사를 화살 몇 발로 쏘아 맞힌 뒤 일곱 명의 기리미족이 배에 올라 선교사를 창으로 찔

7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빠른 배.

렸다. 마지막으로 두개골을 때려 부수었고 이 타격이 치명적이었다. 비극이 벌어지는 동안 드 라 브뤼니에르 선교사는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배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사람들을 개종하는 일에 자신을 제물로 삼아 신 앞에 드렸던 것이다. 브뤼니에르 선교사는 만주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들을 구원할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 현재 중국인과 타타르족 사이의 보도에 따르면 드 라 브뤼니에르 선교사가 죽은 뒤 기리미족은 고인의 치아를 비틀어 빼고 눈을 찢은 뒤 소름끼칠 정도로 시체를 절단했다고 한다. 몸통은 물가에 버려졌으며 며칠 뒤 강물에 휩쓸려가 버렸다. 원주민들은 그 이후로 이방인이 폭행 현장을 걸어 다니는 듯한 환영에 사로잡혔고 그 귀신 때문에 더욱 두려워했다.

범죄는 완벽했고 암살자들은 약탈품을 나누었다. 그 이후로 필자는 많은 어린이들이 기적의 메달과 작은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은은 여성을 위한 귀걸이로 바뀌었다. 필자의 사자들이 본 살인자는 행동을 후회하는 듯 보였다. 그는 자발적으로 장신구와 성스러운 돌, 미사용 은컵, 온도계 잔해, 두 개의 나침반 등의 약탈품을 돌려주었다. 그 외에도 필자의 사자들은 기리미족 촌락의 세 우두머리와 협력하여 살인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액수는 크지 않아 살인자가 지불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벌금은 다섯 개의 단지와 두 개의 창, 두 개의 망 파오(중국관원들이 입는 것과 같은 갖가지 색깔들로 수놓은 드레스들), 스킨 드레스, 새틴 조각, 칼 등이었다. 창은 우리와 살인자 사이에 맺어진 평화협정의 기념물로 통역자의 손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 물건들이 필자의 사자들에게 배달되자 세 명의 추장들 앞에서 화해 결의서가 서명되었고 한 부는 기리미족에게, 다른 한부는 필자에

게 전달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광제 30년에 선교사 비노와 진도서(기독교인 중 한 사람)는 26년에 아르코공, 시오로인, 후통 마을에 속한 사람들이 저지른 브뤼니에르 선교사 살인사건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러 왔고 양자 사이에 평화가 복구되었다. 위 마을들은 앞으로 여름에 바지선을 타고 오거나 겨울에 썰매를 타고 오는 어떠한 여행자에게도 숙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브뤼니에르 사제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도광제 26년의 암살에 대해 복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말은 사라지고 망각되기에 양자는 약속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책임을 맡은 통역자를 입회시켜 문서화한다.

증인 : 진도서와 상선

통역자 : 느가오라이 촌락의 산 인 호, 아이 두 누, 기안 반 촌락의 디엔 이테누, 시 테 누, 후동 촌락의 후부, 씨 누.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분쟁이 일어났다. 필자는 기리미족이 지불한 벌금을 안내인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은 필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았고 각자 자신이 생각했던 몫을 챙기면서 서로 간에 말다툼을 벌이고 심지어는 주먹과 칼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너무나 많은 불행한 일들에 낙담하여 수련수사 두 사람은 더 이상의 여행을 거부했다. 결국 필자는 시산까지의 여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불로로 돌아와 고향으로 갈 준비를 하는 동안 관리가 소함대를 이끌고 무쟁을 떠났다.

중국인들이 우리를 타격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필자는 그 곳에 이미 한 달 동안이나 머무르고 있었다. 우리는 창고에 짐을 숨기고 두 명의 기독교도들과 함께 인근의 숲에 숨었다. 성모 봉 소승천 축일이었다. 쌀로 빚은 술이 유일한 식량이었으나 주님의 섭리로 숲 끝에서 두 여인을 만나 우리 술을 주고 그들이 갖고 있던 기장과 말린 생선을 대신 받았다. 다음 날 저녁 무렵 배가 고파 우리는 조심스럽게 작은 고개에 올랐는데 그 곳에서 숲에서 멀지 않은 강 위에 사람 한 명이 외로운 카누 한 척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필자는 그에게 허리띠를 주고 약간의 쌀을 얻어 연기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계곡에서 밥을 지었다. 식사는 그리 넉넉지 못해 곧 끝났다. 취침 전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이 은거지로 다가와 다급하게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필자는 관리들이 우리의 행방을 알고 더 가까운 관계를 맺기 원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대지를 덮고 있는 뾰뾰한 관목들에 몸을 숨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소리치고 관목을 두들기게 했다. 잠시 후 사방이 조용해지고 필자는 잠이 들었다. 다음 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식량 확보였다. 먼 거리를 걸었으나 아무런 가옥도 발견하지 못했다. 마침내 한 촌락에 닿아 그곳에서 관리들이 산신으로 돌아갔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숲속에 숨어있는 동안 두 명의 수로 안내인들과 필자가 묵었던 집에 함께 있던 사람은 필자의 도주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의심을 사 매를 맞았고 옷과 가죽들을 바치고서야 비로소 관원의 손아귀에서 풀려나왔다. 요컨대 관원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다. 필자는 이 불행한 사람들이 겪은 손실 뿐 아니라 매질까지 보상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필자가 도주하면서 물건들을 창고에 숨겼을 때 중국인 수로 안내인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 필자의 트렁크를 마음에 들어 하던 안내인은 도망가

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내용물을 들여다보기 원했다. 돌아와 보니 시계, 은컵, 나침반, 가위들이 없어졌다.

어려움이 겹치는데도 필자는 여전히 시산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동행을 거부해 여행을 포기해야 했고 아침으로 돌아와야 했다. 아홉째 달의 여섯 째 날에 도착했고 떠난 지 아홉 달만 이었다. 필자는 매우 말라 가죽과 뼈만 남은 상태였다. 여행비용을 계산해보니 240냥 이상이었다. 옷가지와 심지어 일과기도서까지 팔아야 했다.

여행 내내 필자는 러시아인이라는 오해를 받았다. 기리미족과 장발족은 러시아인과 종종 만나 꾸준히 교역을 한다. 필자는 이 부족들이 단지, 자귀, 칼, 단추, 카드놀이와 심지어 최신 은화 등 유럽적 기원을 갖는 다양한 물건들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았다. 블로에서는 1850년 4월에 러시아인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하러 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행공다의 기리미족 촌락을 떠난 지 엿새 뒤 블로로 돌아오는 길에서 7명의 러시아인을 태운 배 한 척이 그곳에 도착해 있는 것을 보았다. 러시아인들은 강을 오르는 어려움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기리미족 촌락에서 필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기리미족, 장발족, 중국인 모두 러시아인이 도시를 건설한 뒤 이 지방을 소유하게 되리라고 주장한다. 신의 섭리로 러시아인이 우리에게 일본 북방의 도서들을 개방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랄뿐이다.

이 지역의 선교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아침과 산신 사이에서는 민간인이 거의 없다. 병사들과 방랑자들뿐이며 이들은 도박, 주연, 유흥으로 인생을 탕진한다. 산신은 주변 지역과 더불어 제2의 소돔성이다.

우수리 강의 유피타찌족은 상냥하고 친절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피타찌족은 중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그들의 악덕을 배웠다. 사냥과 어업이 시작되는 때와 장기간의 잦은 산행에 나서게 될 때의 미신행위는 선교사에게는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장애물이다.

아무르 강의 유피타찌족은 몸집이 크고 더 잔인하며 술을 많이 마신다.

장발족과 기리미족은 잔인함과 약탈에 대한 욕구, 피에 대한 갈구 등에서 타 부족의 추종을 불허하며 특히 술을 마신 다음 날 더 심하다. 그들을 개종시키려는 선교사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힘은 더욱 크다. 따라서 용기와 확신이 필요하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마신 의인의 피는 그 땅에 대한 자비를 요구한다. 의인의 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을 비옥하게 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

필자는 각하들께 시산에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다. 그러나 필자는 적어도 그동안 진행했던 관련 조사들의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아무르 강을 따라 바다로 내려가는 중국 바지선들은 결코 시산을 방문하지 않는다. 시산은 대륙과 분리되어 그 사이에 건너기 어려운 좁은 해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강건한 유피타찌족은 매년 시산에 간다. 그들은 다섯 번째 달에 출발하여 섬에서 사냥이나 교역으로 겨울을 보낸 뒤 다음해 봄에 돌아온다. 유피타찌족이 가져오는 물품은 가장, 술, 비단이며 가죽과 교환한 것이다. 행롱다의 장발족 한 명은 다음해에 그곳에서 필자를 영접하겠다고 약속했고 산신의 상인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 가장 빠른 길은 볼로의 위쪽으로 약 18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자세란 곳에서 아무르 강을 떠나는 것이다. 그곳에서부터 썰매를 타고 지역을 가로지르면 바다에 닿으며 바람의 도움을 받게 될 경우 지

협을 건너는데도 하루면 충분할 것이다.

모든 정보로 판단해 볼 때 시산은 가라프두 혹은 다라가이 섬을 가리키는 것 같다. 다라가이 섬의 절반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어 중국인은 그곳을 무관심하게 시산 또는 세펜(Shepen : Japan)이라 부른다.



## 주해 E. 타이핑커우 시각장애인의 개종에 관한 제임스 웨스터 목사의 이야기

1886년 10월 7일 저녁, 필자는 원주민 출신 안내인 중 한 명인 장 씨와 필자의 선생을 동반하여 마이마이가이(상가라는 의미)에 도착했다. 마이마이가이는 사람들이 봄비는 상업도시를 일컫는 흔한 이름으로 목텐 북쪽 약 13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약 6년 전 현의 지위로 격상되어 평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필자가 듣기로는 예전에 이곳은 거칠고 무법적인 유랑민들에 시달렸으며 한때 지방 전역을 압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들은 사라졌거나 아니면 살해당했고 지금은 매우 근면한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마이마이가이는 가까운 주변 지역의 마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곳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주로를 떠나 동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촌락들 가운데 한 곳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야 했다. 초여름 언젠가—필자의 생각에는 5월이었다—목텐병원의 환자인 한 시각장애인이 월말에 세례를 받으러 찾아왔다. 그는 백련교의 한 교파인 혼원교에 속해 있었다. 이 종교는 도교의 한 지파로 신도들은 냉정한 중국인 가운데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자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 열성교도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가 늘어놓은 자신에 대한 설명과 단순한 구원의 진리들에 관해 밝힌 지식들은 모두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필자는 그에게 세례를 주기가 망설여졌다. 시각장애인의 조상에 대해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집도 매우 멀었고, 무엇보다 그가 습득한 기독교 지식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책을 몇 권 빌려주고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만나 여전히

그때에도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같다면 세례를 주겠노라 약속했다. 이 사람을 내일 방문한다.

10월 8일 토요일, 오전의 대부분을 진흙 속에서 버둥거리며 보낸 끝에 시각장애인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이웃마을에 도착했다. 촌락이 보이는 1마일 거리 내에 들어오자 더 이상은 마차가 갈 수 없어 보였다. 마부가 투덜거리면서 포기하자고 말해 필자는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 마부는 변명을 길게 늘어놓으며 돌아가자고 필자를 꺾었지만 헛된 일이었다. 필자의 신념은 ‘의지 있는 자는 자신의 길을 가야한다’였고 마차도 필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으리란 확신을 갖고 있어 계속 걸어갔다. 마차도 할 수 없이 따라왔다. 점차 그 시각장애인을 찾고자 하는 마을에 가까워지면서 필자는 사람들에게 이웃에 사는 장 씨 성을 가진 시각장애인을 아느냐고 물었다. “아, 예, 저쪽 언덕 위에 있는 타이 핑커우라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뒤 이내 실망하고 말았다. 그는 더 먼 마을에 조용히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즈음 마차는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성공적으로 소택지를 통과했다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쉬웠다. 피곤과 허기에 지치면서 필자는 사람이나 마차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에 휩싸였고 여관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침내 그 마을에 닿았을 때 사람들은 약 1마일의 좁은 길을 따라 다음 마을까지 가서(얼마나 더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그곳에서 이 씨 성을 가진 사람을 찾으라고 알려주었다. 이 씨는 시각장애인 장 씨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필자가 떠날 때 그들은 “그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필자는 이 말을 그들과 같은 ‘혼원교’ 출신이라는 의미로 알아들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의 보도 끝에 두 사람이 서있어 나이든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더니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어졌다.

필자 :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곳에 사는 이 씨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 (매우 열심히며 아는 듯하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성이 어떻게 되시죠?”

필자 : (화가 치밀어 위엄 있게) “아신다면 이 씨가 어디 사는지 제발 말해주시겠습니까?”

그 : (깊이 절하며) “제가 당신이 찾는 사람인 이 씨입니다. 목사님 드디어 도착하셔서 기쁩니다.”

그는 예를 갖추어 필자를 집으로 안내했다. 집의 구들 위에는 16명의 소년들이 있었다. 이 씨는 마을학교 교장이었다.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 씨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 설명했고 필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배고픔과 피로를 잊게 되었다. 이 씨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인 장 씨는 묵텐에서 귀향하여 예수라는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맞아주는 많은 집들과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밤마다 사람들을 버드나무의 그늘아래 모아놓고 설교를 했다는 것이다. 그 수는 때로 수백 명에 달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고, 미쳤다고 생각하여 동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가 설교를 계속하면서 변화를 경험한 실질적 증거를 제시하자 사람들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다. 일부는 찬성했고 일부는 여전히 반대했으며 일부는 축복했고 일부는 저주했다. 지역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도 장 씨는 여전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기 위해 도움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묵념에서 배운 찬송을 노래했으며 전도를 위해 어두운 길을 혼자서도 막대기로 더듬으며 신나게 다녔다. “그 결과” 이 씨가 말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가 믿는 교리에 관해 진정으로 묻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완전한 확신을 갖고 진심으로 믿으며 예수교의 일원이 되고자 열망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시각장애인은 교리에 관해 질문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을 만나러 갔고 필자는 길에서 그를 놓쳤다. 이 씨는 학교를 떠나 필자를 따라왔다.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 마차가 시각장애인이 있던 집에 도착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시각장애인도 매우 기뻐 필자를 찾아다니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우리는 만났고 필자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한동안 지팡이에 기대어 가만히 서있었다. 마침내 필자를 알아본 듯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히 밝아졌고 감정에 복받쳐 말할 때 보이지 않는 눈에서 커다란 눈물이 떨어졌다. “오, 목사님, 당신은 제게 약속하셨고 저는 늘 당신이 찾아오리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질문자의 집으로 발길을 돌려 그간 일어났던 모든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갔다. 앞서 말한 질문자인 엄 씨는 우리를 맞으며 지극한 환대를 베풀었고 가장 좋은 방을 배정해 주었다. 서양식 기준으로 썩 좋은 방은 아니었으나 진심어린 선의와 여러 차례의 사과를 받고 보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얼마 남지 않은 낮 시간동안 우리는 집안 가득히 모인 노인 및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질문에 답하면서 종종 가르침을 주기도 했다. 돌아갈 시간이 되자 집주인과 시각장애인 및 복음전도자가 말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멋진 밤이었다! 갖가지 문제들이 논의되었고 복잡한 주제

들에 관한 설명이 제시되었으며 신학 전반의 거의 모든 쟁점들이 언급되었다. 자정이 지나고 아침의 짧은 시간들이 흘러가자 마침내 필자는 공자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열띤 토론 중에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공자는 깊은 구멍이를 만난 불운한 여행자에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입구에 서서 돌아가는 것이 이로운 이유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반면, 예수는 다가와 밧줄을 던져 그를 끌어내며 말하기를 발이 바위에 닿으면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다.

10월 10일과 11일, 일요일과 월요일, 세 사람이 모두 잠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침에 일어나보니 여전히 어젯밤처럼 진지한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톤이 높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었다.

이른 아침에 폭우가 쏟아졌고 길들이 정말 진흙탕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물던 집은 하루 종일 봄볕다. 필자는 지원자 각각을 직접 만나기 위한 일정을 마련했고 주일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자발적으로 찾아온 15명에 대한 검증작업을 마쳤다. 전반적으로 자원자들이 더 만족스러웠다. 필자가 가장 기뻐던 것은 그들이 가진 지식의 양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다. 특별한 학문적 배경이나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각자는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유일한 아들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밝혔다. 단순한 표현만큼이나 신실한 믿음인 것 같았다.

월요일 오전, 문까지 사람들이 꽉 찬 집에서 필자는 그리스도의 고별담론으로 설교를 하고 세례의식에 관해 설명한 뒤, 9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보다 더 흥미로운 장면이 없었고 이보다 더 장엄하고 기쁜 성사가 없었다. 이윽고 잠언 126장을 낭독할 차례가 되었다. 성스러운 의식을 받기 위해 손으로 이끌어 줘야 하는 시각장애인 안내자에게 9

명이 인솔되어 그리스도에 귀의한다는 고백을 했다. 그들은 주를 믿고 현세와 내세에서 자신들의 전부를 믿음에 맡기며 은총을 통해 악에서 등을 돌려 살아있는 신을 섬기리라는 소망을 표했다. 모든 과정이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진정성과 따스한 느낌 속에 진행되었다.

선교단의 모든 형제들이 이 모습을 보았으면 했다. 그들은 분명 필자와 기쁨을 함께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 타이핑커우에서 필자의 설명을 읽는 어떤 이는 선교사들이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에서 사실여부를 의심할 수도 있다. 내버려 두자. 필자는 조금도 이야기를 미화하지 않았다. 아는 것만을 말하고 본 것만을 증언할 뿐이다. 믿을 수 있으면 믿고 그렇지 못하면 마음껏 의심하라. 어느 쪽이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가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다. 시각장애인인 타이핑커우의 장 씨는 신의 진리에 관해서는 별다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나 자신이 아는 진실에 관해서는 마음속까지 떨릴 정도로 진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가말리엘(Gamaliel)에게서 교육받은 6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여러 해 동안 해냈을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더 잘 해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이 중국인에 의해 복음화 될 것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앞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한 가지 또 다른 기억이 떠오른다. 촌락에서의 선교는 숙원사업이었고 이제 신의 은총으로 시작되었으므로 감사에 그치지 말고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명한 조치들을 취한다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수용하는 급성장의 모습을 반드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열성분자의 허풍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는 말자. 바로 그 장소에서 40마일 떨어진 곳에 예수회가 5천 명

이 넘는 신도들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라. 우리 개신교의 복음서가 덜 믿을만한가, 아니면 우리 개신교가 덜 성공할 것 같은가?

사람들은 도시생활이 주는 물질적 영향력에 물들지 않고 농촌 지역에 거주한다. 그들은 지금까지 종교적 가르침에 매우 개방적이며 종교적 영향에 민감한 종파에 소속되어 있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필자는 사람들 사이에 옛 종교에 대한 불만이 널리 퍼져 있다고 확신한다. 사람들은 옛 종교에 질려하고 있으며 단지 더 나은 것과 더 만족스러운 것을 찾을 수 없어 남아있을 뿐이다. 이미 이행기가 시작되었고 위에서 언급한 운동은 사전에 그림자를 드리우며 다가오는 사건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찌됐든 촌락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드물고 매우 소중한 기회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신의 축복으로 고안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주해 F. 백두산 : 1677년 중국 관원의 백두산 방문기

1677년 강희제는 황족의 친척인 오우모우네라는 특사를 파견하여 백산(白山)을 방문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서술하여 가져오도록 했다. 황제는 산이 자신의 고향이자 초대 조상들의 영광의 무대인 축복의 땅에 위치해 있으나 베이징에는 그 지방과 잘 아는 이가 없어 특사를 파견하니 기록을 서술하는 것 이외에도 조상들에 제물을 바치고 오라고 명령했다. 오우모우네는 ning안 지방에 관해서도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6월에 베이징을 떠나 묵덴을 거쳐 지린 시로 들어갔다. 그곳과 ning안 전역에서 대백산(大白山)으로 안내해줄 사람을 찾다가 에케네이엔 지방 출신의 한 노인을 발견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백산이 자신의 지방에서 멀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노인은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수사슴을 사냥하곤 했던 기억을 되살렸고 어떤 사냥꾼은 자신이 죽인 사슴을 등에 메고 에케네이엔으로 가져왔었다고 말했다.

오우모우네는 7월의 둘째 날에 지린을 떠나 힘든 여행 끝에 에케네이엔에 도착했다. 거기서부터 그는 사람들을 미리 보내 통행이 불가능한 숲에 도끼로 길을 내게 했고 백산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아오라 했다. 열흘 뒤, 그들은 30리 떨어진 작은 산에 있는 높은 나무에 올라 그리 멀리 보이지 않는 대백산을 바로 발견하고는 약 160~180리<sup>1</sup> 떨어져 있다는 보고를 전해왔다. 나중에 들은 설명에 의하면 그들은 어떤 높은 산에 올라 이전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백산을

<sup>1</sup> 50~60마일.

보았지만 구름과 안개에 덮여 있어 100리<sup>2</sup> 정도 떨어져 보였다고 한다.

보고를 받자마자 오우모우네와 수행원들은 7월 13일에 산을 향해 출발했다. 그곳에서 두 번째 보고서가 발송될 예정이었다. 이를 동안 계속 전진했다. 셋째 날 이른 아침에 두루미들이 울기 시작했고 두꺼운 안개가 인근을 덮어 오우모우네 일행은 산은 물론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조차도 볼 수 없었다. 학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일행은 곧 사슴 길을 발견했고 백산으로 가는 길이라 짐작했다. 짐작은 잘못되지 않았다.<sup>3</sup> 산 근처에서 어느 마음이 끌리는 숲으로 들어가자 한가운데에 둥근 모양의 작은 풀밭이 나타났다. 이 숲에서 0.5리 떨어진 곳에 사람이 심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 나무들로 둘러싸인 공간을 보았다. 향기가 나는 관목들이었고 노란 꽃들이 대지를 덮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오우모우네는 절반 이상의 수행원들과 함께 말에서 내려 소수의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걸어서 길을 찾아갔다. 구름과 안개로 백산을 볼 수가 없어 이곳의 수호신에게 거듭거듭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다. 기도를 시작하자 즉시 안개가 걷혔고 산은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다. 오우모우네는 정상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다. 공기는 맑고 유쾌했다. 일행은 산의 윤곽을 모두 완벽하게 볼 수 있었고 산 정상에는 약간의 가벼운 구름만이 걸려있을 따름이었다. 처음에는 등산이 그리 어렵지 않았으나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행은 100리<sup>4</sup> 이상을 계속 갔다. 점점 높이 오를수록 추워져 옷을 입어

<sup>2</sup> 30~35마일.

<sup>3</sup> 이 계산으로 오우모우네는 지린에서 14일 만에 백산에 닿았다.

<sup>4</sup> 측정상으로는 20리가 넘지 않을 듯하나 험로를 기술했다는 중국 방식 때문에 리

야 했다. 일 년 내내 녹지 않고 쌓여있는 표면에 덮인 눈을 따라 계속해서 걷기 때문이었다. 정상에 도달하자 일행은 아주 높은 5개의 봉우리들로 둘러싸인 평원<sup>5</sup>을 발견했고 봉우리들 사이에 둘레가 30~40리 되는 물이 가득한 호수가 있었다.<sup>6</sup>

호수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오우모우네는 반대편 북쪽 호수가에서 매우 작아 보이는 곰 한 마리를 발견했다. 봉우리 4개의 꼭대기는 거의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각도로 굽어 있었다. 남쪽의 다섯 번째 봉우리는 우뚝 솟아있었으나 다른 봉우리만큼 높지는 않았다. 산의 곳곳에는 온천과 폭포가 있었는데 이들은 왼쪽으로는 송화 강으로 흘렀고 오른쪽으로는 네이엔 강<sup>7</sup>으로 연결되었다.

오우모우네는 얼마간 산을 탐험한 뒤, 신선한 재물을 드리고 하산하기 시작했다. 불과 몇 야드를 내려오자 갑자기 언덕에서 사슴 떼가 그를 향해 달려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동물들이 바위 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서로 앞을 다투어 돌진하다가 부딪혀서 일곱 마리가 죽어버렸다.<sup>8</sup> 오우모우네는 이 이례적인 사건을 수호신이 자신을 특별히 총애한 표시라고 간주했다. 요컨대 이 사건은 식량이 부족한 황제의 사절단에게 수호신이 나름대로 귀중한 선물을 한 것이었다. 그는 산을 내려온

의 수치가 부풀려진 듯하다.

<sup>5</sup> 날카로운 칼날 같은 능선이다.

<sup>6</sup> 15~20리가 더 정확할 것이다.

<sup>7</sup> 압록강과 두만강인 듯하다.

<sup>8</sup> 안내인은 우리에게 사슴이 호수 주변에 피어있는 좁고 둥근 고리 모양의 풀들을 먹기 위해 호수가로 내려오는 길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 길로 내려가려 했으나 무너져 있어 통행이 불가능했다.

뒤 사의를 표하기 위해 사슴을 잡아 일부를 영령들께 제물로 바쳤다. 그가 임무를 마치고 이곳을 떠나자 산은 다시 구름과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오우모우네는 Ning'an으로 돌아와 이 지방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쓰기 시작했고 9월 21일에 베이징으로 돌아갔다. 황제는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기뻐하여 예부에 명을 내려 자신의 대리인을 환대해주었던 백산의 수호영령들에게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게 했다.<sup>9</sup>

백산의 신화적 역사는 수도원장 팔라디우스가 저술하고 왕립 지리학회 회원인 델마 모르간 씨가 번역한 논문의 다음과 같은 발췌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10</sup>

백산산맥의 신성한 중요성은 극동지역에서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다. 산맥은 처음에는 부키안 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이 이름의 기원은 중국이 아니며 마치 몽골의 겐테히산맥을 고대 사람들이 불렀던 것처럼 몽골의 부르칸을 상기시킨다. 몽골어와 만주어 사이의 유사성은 지금보다는 과거에 더 컸다. 장보산의 실제 이름은 금나라 또는 주르지 왕조 시대에 붙여진 것이다.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다이보 산 또는 단순히 보산으로 불렸고, 조선인에게는 이 이름이 오랫동안 알려졌다. 고대와 현대의 작가들은 이 산맥을 숲이 없고 대부분이 하얀색인 식물군과 하

<sup>9</sup> Memoires relatifs a l'Asie, iii, 66.

<sup>10</sup> E. Delmar Morgan (1872), Palladius' Expedition through Manchuria, 왕립 지리학회 의사록.

안색 털의 동물군을 가진 처녀지로 묘사하고 있다. 금나라 시대에 산맥은 자비로운 보이환인, 즉 팔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으로 표현되는 하얀 도포를 입은 환인의 거처로 간주되었다. 하얀색 도포를 입었다는 의미의 보이라는 단어는 이 경우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것은 환인이 평범한 신이라는 의미이며(평사제는 수사와는 대조적으로 하얀색 도포를 입은 사람으로 불렸다), 신성의 특성으로 상징적인 하얀색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금나라 시대에는 조선에 장보산맥의 영령에 헌정된 사원이 있어 사만가라는 여자 무당이 관장했다. 조선의 불교도들은 장보산을 자신들이 섬기는 기적의 신인 만주스리의 고향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만주 왕조의 이름에 관한 전설이 이 신성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름들 사이의 유사성은 만주라는 단어가 만주의 태조 시대보다 훨씬 전인 주르지족의 명명법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연임에 틀림없다. 장보산맥에 대한 모든 감성적인 서술은 주봉이나 봉우리들에 관련된 것이며, 산맥의 물리적 특징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지 못한다. 이 기록들은 신뢰하기 어렵고 유일하게 가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상당한 고도에서 산맥의 주요 봉우리 내에 삼면이 별거벗은 바위들로 둘러싸인 호수가 있으며 해발 2,500피트(760미터)까지 솟아있다는 사실이다. 호수 규모는 저자들에 따라 다르다. 일부 저자에 따르면 주위가 80리이며 다른 저자들은 40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는 25리에 불과하다고 한다. 부츠자오테후는 장보산에 관한 자작시에서 호수를 폭 5리, 길이 8리이며 돼지의 신장을 닮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기록된 내용으로 판단한다면 호수는 아마도 남쪽으로 기울어진 휴화산의 분화구일 것이다. 장보산의 순백색이 만년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산맥의 조선 쪽 지맥에서 채석되는 흰

색 석회바위 때문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장보산의 지린 지맥 이외에도 또 다른 산맥이 남서쪽으로 압록강의 서쪽을 따라 두만강과의 합류 지점까지 멀리 뻗어있다.

진룡제는 묵덴에 관한 자작사에서 다음과 같이 산을 언급하고 있다 (필자는 페르 아묘의 번역에 의존한다).

대청(大靑)을 세운 8월족(August Race)의 근원지를 오르기 위해 우리는 크기와 색깔이 왕초처럼 두드러지는 그 산까지 가야 한다. 유명한 다모운 호수는 정상에 한 부분이다. 압록강과 호운도웅 강 및 아이호우 강은 깊은 산에 둘러싸인 곳에서 흘러나오며 강물을 이용하는 논들을 비옥하게 해준다. 그리고 매혹적인 곳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안개들은 모순되지 않는 진정한 영광과 굳은 행복의 안개들이다. 이 축복받은 산에서 하늘의 딸인 천녀가 다른 과일보다 훨씬 밝은 색깔을 내는 한 과일에 끌려 맛을 보게 되었고, 자신처럼 멋진 한 소년의 어머니가 되었다. 하늘은 그에게 기오로(kioro)라는 이름을 주었고 다른 이들과 구별하기 위해 소중한 철을 지칭하는 이름을 더하여 그를 아이신 기오로 또는 황금 기오로라 부르도록 명했다.

아묘 신부에 따르면 바다와 산을 다루는 산해경(山海經)이라는 책에서는 반히엔 산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당나라에 대한 책에서는 다이보산 때로는 도우다이 산으로 불린다. 명나라 때 편찬된 요동지(遼東誌)에는 산의 남동쪽으로 60리 떨어진 곳에 후이닝이라는 옛 도시가 있었는데 이야기가 실려 있다. 만주 왕조의 관습을 다루는 책에 따르면 산의

높이는 200리(73마일)이며 주위는 1천 리(333마일)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인의 산의 높이는 산 외곽의 돌출부 바닥에서부터 정상까지 횡단해야 하는 총 거리를 의미한다.

아묘 신부는 호운도웅 강이 산 북쪽 기슭에 근원을 두고 북쪽 바다로 흘러들어 가며, 북쪽 길을 따라가면 아이호우 강이 동해로 흘러 들어간다고 말한다. 압록강의 대지류이자 사허에 가까운 지점에서 합류하는 아이허가 있고 훈 또는 훈장[渾江]이 더 높은 곳에서 압록강과 합류한다. 이 강들이 황제가 말하는 강일까? 이 강들은 싱강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 주해 G. 여행 일정

- 1886년

날 짜	장 소	거리(중국식 리=마일)	
5월 19일	잉커우 출발		
	군쯔 바오	45	
5월 20일	뉴장	45	
	장자툰	60	
5월 21일	소 산	55	
	장자타이	48	
5월 22일	장싱타이	45	
	묵텐 : 선양	50	
			348
5월 29일	싱룽텐	50	
5월 30일	푸순청	30	
	태구	40	
5월 31일	구로우 : 사르후 경유	50	
	산자허	20	
6월 1일	무지	35	
	용링	40	
			265
6월 3일	신민 부 : 싱깡 경유	40	
	바이자부	15	
6월 4일	왕징면	35	
	산고위수	20	
6월 5일	간산링	25	
	라핑르	35	
6월 6일	과이다마오쭈	35	
	통화 현	45	
			250
6월 15일	저수이허	35	
6월 16일	쓰다오장, 료주안커우 계곡	20	

날 짜	장 소	거리(중국식 리=마일)	
6월 21일	용자텐	60	
6월 22일	산다오커우	40	
6월 23일	조자오커우 행 항룽 통행로	60	
6월 24일	샤오리시커우	40	
6월 25일	압록강 둑 위의 나무 오두막	30	
6월 26일	마오얼 산	10	
			295
6월 29일	얼다오커우	35	
6월 30일	라오링 경유 단자징커우쯔	60	
7월 1일	숲 막사	70	
7월 2일	탕허커우	25	
			190
7월 4일	조선 오두막	10	
7월 5일	시터우허 경유 나이 산	60	
7월 6일	샤오 산	35	
7월 7일	헤이허	40	
7월 8일	헤이리허	20	
7월 9일	터우이비허	40	
7월 10일	시터우 강 경유 후아비허	30	
7월 11일	얼리반무리	50	
7월 12일	수이비리다이	20	
	탕 산	20	
			325
귀환, 7월 15일	오두막	60	
7월 16일	후아비허	30	
	토우이비허	30	
7월 17일	헤이리허	40	
	헤이허	20	
7월 18일	후아비허	20	
7월 19일	샤오 산	20	
7월 20일	나이 산	35	

날 짜	장 소	거리(중국식 리=마일)	
	조선 오두막	60	
7월 21일	탕허커우	10	
			325
7월 27일	쑹화 강 도강	3	
7월 28일	다덴쯔	60	
7월 29일	완리허	20	
7월 30일	다황팅쯔 막사	40	
7월 31일	창강 막사	15	
8월 1일	황수덴쯔	30	
8월 2일	위시허커우쯔 : 쑹화 강 나루터	25	
8월 4일	비조우	50	
8월 5일	진창 소재 왕 여관	40	
8월 6일	후아비허	80	
8월 7일	관가이르	3	
8월 8일	텐핑링	40	
8월 9일	사시완	30	
	헝다허쯔	8	
	마핑카라	12	
8월 10일	징링	20	
	자오양부	15	
8월 11일	산자쯔	40	
	고우진	40	
	산커우쯔	34	
8월 12일	지린 : 추안 창	6	
			611
8월 27일	룽탄 산	15	
8월 28일	지린	15	
		15	
			30
9월 3일	산다오링	25	
	산자쭈	10	
9월 4일	우루카이	40	

날 짜	장 소	거리(중국식 리=마일)
	시자쯔	40
9월 5일	시라허	10
	바이자툰	25
	파다면	30
	황산쭈이쯔	25
9월 6일	슈수이롄쯔	35
	가리허	20
	명구잔	25
	우구수	12
9월 7일	다오라이잔	45
	산자쯔	20
	우자잔	20
9월 8일	리아리툰	36
	시리수	44
9월 9일	관디	35
	베두나 또는 싱청	40
		547
9월 11일	베두나잔	25
9월 12일	나루터	35
	섬	15
9월 13일	쉬시잉커우	15
9월 15일	모싱	45
	신창	45
9월 16일	구루	45
	시리멘	10
9월 17일	바이바이롄	50
	다라하	18
9월 18일	하오팅가이	40
	보보리	15
	쥬산먼	15
9월 19일	가라관쯔	40
	완다훈	10

날 짜	장 소	거리(중국식 리=마일)	
	수루무	40	
9월 20일	다모호툰	35	
	위시툰	15	
	산자쯔	15	
	치치하얼 : 부구에이	15	
			543
9월 23일	량자텐	50	
9월 24일	다하오쯔	25	
	우타이르	40	
	코시코	50	
9월 25일	라마텐	40	
9월 26일	소르두텐	40	
	안다텐	50	
9월 27일	징건	50	
	우루무	40	
9월 28일	선자텐	50	
	신위수	30	
9월 29일	후란 강 나루터	30	
	후란	30	
			525
9월 30일	타이핑 산	60	
10월 1일	시유안칭쯔	30	
	자오잉부	15	
	쓰자위부	20	
	지바오 산	15	
	베이투안린쯔 또는 베이린쯔	35	
			175
10월 2일	바바오 산	35	
10월 3일	자오후위부	25	
	룽왕먀오	40	
	다쥬디허	30	
10월 4일	바옌수수	45	

날 짜	장 소	거리(중국식 리=마일)	
			175
10월 6일	류자옌	20	
	샤오시허	10	
10월 7일	웨이자옌	-	
	다리모허	40	
	후자우부	10	
10월 8일	베이양무	50	
	농농허	40	
10월 9일	쓰잔	30	
	딩자옌	30	
10월 11일	산잔	30	
	상순 산	50	
10월 12일	얼잔	40	
	샤오구동허	30	
10월 13일	산싱	30	
			410
10월 16일	타이핑주양 : 제1단계	45	
	니엔쯔키우	25	
10월 17일	웨이쯔허 : 제2단계	45	
10월 18일	바위수 : 제3단계	60	
10월 19일	리엔후아바오 : 제4단계	50	
10월 20일	산다오허쯔 : 예허로부터 제4단계	60	
10월 21일	산잔 : 제3단계	45	
10월 22일	얼잔 : 제2단계	35	
10월 23일	토우잔 : 제1단계	45	
10월 24일	장시라쯔	-	
	후아수린쯔	40	
	디에링허	-	
	예허	40	
10월 26일	나루터, 무단허 또는 후르가 강	40	
	닝안	20	
			550

날 짜	장 소	거리(중국식 리=마일)
10월 29일	토우잔 : 제1단계	60
10월 30일	무라후리 : 제2단계	35
10월 31일	라오승령 : 제3단계	60
11월 1일	쓰잔 : 제4단계	60
11월 2일	쓰잔 : 훈춘으로부터 제4단계	60
11월 3일	산잔 : 제3단계, 하순	60
11월 4일	여관	34
	다간 : 제2단계	1
	더등	40
11월 5일	미장	60
11월 6일	훈춘	60
		530
	훈춘에서 국경으로	30
11월 8일	국경에서 스완카로	15
11월 9일	스완카에서 노보키예프스크로	45
		90
11월 10일	노보키예프스크에서 훈춘으로	90
		90
	노새길을 따라 훈춘에서 지린으로	-
11월 11일	미장	60
11월 12일	량쉬젠쯔	30
	가야허	60
11월 13일	샤오링	10
	웨이쯔커우	20
	난강쯔	60
11월 14일	쉬완쯔	20
	준양관	-
	관도우커우	-
	라오도우커우	60
11월 15일	위시주안	-
	우고우팅쯔	40
	두먼쯔	20

날 짜	장 소	거리(중국식 리=마일)	
	마오얼커우	10	
11월 16일	왕바바오쯔	10	
	견유라쯔	7	
	량빙다이	10	
	핑미라쯔	10	
	젠짜오커우	12	
	하라바링	18	
	산호순	20	
	바이쟈쯔	5	
	량쉬젠쯔	5	
11월 17일	다시터우허	15	
	도우양쯔	10	
	싱룽주앙	10	
	사커우잔	8	
	둥오강쯔	37	
11월 18일	자이바허	25	
	산자커우	25	
	오모소	20	
			637
11월 19일	주얼다오허	30	
	이자송	10	
	위자허	8	
	장짜이링	-	
	후 여관 : 통행로 동쪽 밑	12	
11월 20일	난덴먼 : 통행로 정상	8	
	병영들	12	
	랴오 여관 : 통행로 서쪽 밑	10	
	얼다오허쯔	18	
	우커우 산	12	
	바라바	8	
11월 21일	구부얼허	25	
	라마커우	-	
	다툰	-	

날 짜	장 소	거리(중국식 리=마일)	
	하이징커우	45	
11월 22일	하이징링	45	
	로장커우	50	
	이 여관	50	
11월 23일	구자쯔	35	
	산자쯔	20	
11월 24일	송화 : 화양공장	20	
	지린	5	
			373
11월 30일	다쉬허	45	
12월 1일	다차오	45	
	시휘야오쯔	55	
12월 2일	팡농커우	35	
	관칭쯔 또는 장준	65	
			245
12월 4일	샤오바자쯔	65	
			65
12월 6일	쓰자쯔	45	
	다바자쯔 또는 후아다오 현	35	
	싱룽부	15	
12월 7일	샤오칭쯔	55	
	뉴자텐	55	
12월 8일	마이마이가이 또는 핑션 현	35	
	쓰핑가이	35	
12월 9일	쯔루수	40	
	위시칭쯔 또는 장두	60	
12월 10일	마텐타이먼	20	
	카이위안	20	
	순자아이	20	
	데링	50	
12월 11일	징쉬타이	75	
	묵텐	55	

날 짜	장 소	거리(중국식 리=마일)	
			615
12월 15일	베이두부	20	
	린상부	25	
12월 16일	사링	75	
12월 17일	소우산부	30	
	사허	18	
	탕강쯔	44	
12월 18일	하이청	45	
	왕자덴	60	
12월 19일	잉커우	50	
			367
12월 26일	얼다오허	20	
12월 27일	가이조우	50	
	양관	15	
	룽왕먀오	30	
12월 28일	이얼링	5	
	시젠핑	45	
	완푸주양	5	
	후아사랑쯔	35	
12월 29일	다라링	35	
	자커우	25	
			265
12월 31일	리자덴	30	
	다주양허	35	

— 1887년

날 짜	장 소	거리(중국식 리)	
1월 1일	사허	10	
	탕쯔야오	20	
	바라 산	20	
	강	5	
	류자샤오덴	15	

날 짜	장 소	거리(중국식 리=마일)	
	간쭈디	17	
	송자야오쯔	8	
1월 2일	비리허	5	
	진창	20	
	왕자덴	10	
	비쯔위	35	
	우자덴	35	
1월 3일	리자덴	45	
	푸자덴	35	
	루자덴	5	
1월 4일	관자덴	10	
	진조우텡	20	
			380
	난구아링	20	
	무장이	40	
1월 5일	잉칭쯔	5	
	수양타이커우	10	
	산젠부	20	
1월 6일	뤼순 향(아서 향)	25	
			120

## 저자와 역자 소개

### ■ 에번 제임스(Evan James)

에번 제임스는 인도 봄베이 총독부 소속 관리로 1846년에 태어나 1923년에 사망했다. 그에 대해서는 관리로서의 경력을 제외하고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본명은 헨리 에번 머치슨 제임스(Henry Evan Murchison James)로, 1865년부터 1900년까지 인도 행정부의 관리로 일했으며 이 기간 중에 휴가를 얻어 만주를 여행하고 「백두산 등정기」를 저술했다. 특히 1891년부터 1900년까지는 신드(Sind) 지역에서 관리 선발 업무를 담당했으며 1893년 10월 15일에는 카라치(Karachi)에서 디야람 제드말 신드 대학(Dayaram Jethmal Sind College)을 개교했다. 신드 지역 내에 위치한 타르 앤 파커(Thar and Parker) 구역의 제임스바드(Jamesbad) 시는 그의 이름을 딴 곳이다.

### ■ 조준배(趙准培)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학 러시아 동유럽 연구소(Centre for 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 in University of Birmingham)에서 소련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강사로 재직 중이다. 공저로 *Stalin's Terror Revisited*(Palgrave Macmillan, 2006)와 *Soviet State and Society under Nikita Khrushchev*(Palgrave Macmillan, 2009)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스탈린 체제의 등장과 소련 노동조합의 재편, 1928-31」(『역사학보』 201집, 2009), 「생산과 복지의 갈림길에서-스타하노프 운동과 소련 노동조합, 1935-36」(『서양사론』 100, 2009), 「동원을 넘어 동의와 지지의 기제로」(『동국사학』 46집, 2009) 등이 있다.

## 찾아보기

### ㄱ

가경제 93, 94, 417, 421, 422  
가야혀 369, 482  
가오리장 강 352  
가이유안 62, 64, 387  
강채 77  
강희제 36, 89, 90, 93, 98, 115, 119,  
123, 216, 261, 274, 276, 292, 303,  
382, 391, 397, 420, 469  
거문도 20, 118, 410  
건륭제 90~93, 98, 115, 237, 239,  
243, 278, 298, 389, 415, 416, 420,  
474  
계탄족 57, 58, 129, 303  
경중명 69  
계 왕 76, 77  
고구려 12, 56  
고두 93  
고든 장군 106, 107, 116  
고려 57, 142  
고르핀족 69  
고자인 299  
고제 86  
골딩산아린 34  
공유덕 69, 233  
공친왕 111~114  
관우 195, 202  
광서제 6, 89, 112, 115, 117, 356  
광저우 32, 95~100, 102~104,  
107~110, 120, 137, 144, 147,  
169, 185, 189, 223, 397, 422  
광중 65

구르카족(Ghurkhas) 54, 91, 415~419  
구이저우 90  
구제라트(Guzerat) 194  
구츨라프(Gutzlaff) 98  
구통허 273  
그리벨 347  
글래드스톤(Gladston) 103, 312, 349,  
363  
금나라 57, 58, 303, 472, 473  
금문 73  
기인 136~139, 143, 329, 355  
기자(箕子) 56  
길랴크족 123, 211, 448, 454  
길모어 310, 311

### ㄴ

나르홍 강 273  
나아만(Naaman) 196  
난강쯔 369, 482  
난징 76, 101, 105, 107, 139  
넌 강 34, 35, 305, 307, 308, 314, 317  
네그리에(Negrier) 117  
네르친스크 조약 123  
네스토리우스교 148  
네와르족(Newars) 143  
네이퍼어 경 95, 96  
노백산 285  
노보키예프스크 14, 17, 153, 360, 482  
노인키르헤(Neunkirche) 212  
녹영군(綠營軍) 139, 426  
누르하치 59, 61~68, 76, 82, 86,  
236~240, 242, 243, 411  
누전족 52, 53, 57, 59, 62, 65  
뉴장 32, 33, 184, 213, 227, 233, 309,

348, 409, 476  
 니간 61, 62  
 니루 135  
 니콜라이에프스크(Nikolaiefsk) 124  
 니콜스크 347  
 닝보 100, 106, 294  
 닝안 14, 35, 38, 126, 171, 233, 293,  
 303, 342, 344~350, 353, 365,  
 371, 469, 472, 481

## ㄷ

대구 109, 139  
 다동 246  
 다라링 400, 485  
 다렌완 만 407  
 다마하 341, 345, 346  
 다미앵(Damiens) 91  
 다바자즈 387, 484  
 다사허 273, 275  
 다성 180  
 다장 404  
 달라이 노르 호수 386  
 달루지에(Dalhousie) 165  
 당 왕 76  
 당나라 57, 397, 474  
 당비유 277  
 데수롬보 91  
 데칸(Deccan) 209  
 덴트(Dent) 99  
 델리코르트(Delecourt) 212  
 델마 모건(E. Delmar Morgan) 8, 278  
 도광제 46, 94, 98, 103, 104, 112, 393,  
 422, 457  
 도교 193, 224, 462

도얼군 72, 86  
 동인도 회사 95, 96, 416, 422  
 동치제 111, 112, 115  
 동태후 111, 112, 114, 115  
 두만강 11, 12, 14, 35, 232, 259, 265,  
 274, 276, 277, 351, 352, 356, 361,  
 364, 369~471, 474  
 두송 63  
 둥간족 115, 116  
 둥산성 32  
 둥오강즈 370, 483  
 둥징청 373  
 뒤 알드 275, 277  
 뒤바이(Dubail) 213, 214, 384  
 드 마이약(De Maillac) 88  
 드라르보르드(Delarborde) 212  
 디메트리우스 불저(Demetrius Boulger)  
 55

## ㄹ

라다크(Ladakh) 157, 198, 239, 308,  
 309  
 라마세라이(Lama-serai) 194  
 라망드(Lamande) 212  
 라바히즈 372  
 라벤스틴(E. G. Ravenstein) 8, 123,  
 265  
 123  
 라오바이 산 265  
 라오승링 351, 482  
 라오예 378, 382  
 라오예링 251, 372  
 라오청 61, 243  
 라즈푸트(Rajputs) 185

라파라즈 372  
 람프시니투스 228  
 랑손 116  
 래틀러 230, 231, 250, 280, 367, 399  
 랜스델(Lansdell, D. D.) 126  
 랑오둥 32, 33, 36, 42, 43, 45, 54,  
 56~59, 63~65, 119, 120, 130,  
 212, 250, 390, 397, 433, 446, 447  
 랑오양 65, 68, 210, 217, 222, 233  
 랑오자텐 406  
 랑오티산 67  
 랑오허 33~35, 66, 70, 217, 390  
 랑헤이산 213  
 레이나르드 407  
 레킨[禮金] 36, 427  
 로렌스 올리펀트(Laurence Oliphant)  
 224  
 로마 가톨릭 205, 210, 215, 217, 330,  
 383, 396, 398, 399  
 로버츠(Roberts) 104  
 로스(Ross) 7, 53, 57, 119, 133, 134,  
 164, 178, 183, 194, 196, 209, 218,  
 221~223, 253, 395, 397, 405  
 로주안커우 246, 476  
 룡탄 산 478  
 룡안 105  
 룡왕탄 273, 277  
 뤼순 14, 32, 38, 114, 139, 140, 407,  
 409, 411  
 르포르말(Leformal) 212  
 리몬(Rimmon) 196  
 리바디아(Livadia) 116, 165  
 리치(Ricci) 63  
 린단 69, 394, 395

□  
 마나쓰 116  
 마니토바(Manitoba) 34  
 마라타 63  
 마란히 350, 373  
 마르가리(Margary) 117  
 마르와르(Marwar) 185  
 마르티니 75, 77, 79, 135  
 마린스크(Mariinsk) 124  
 마림 64  
 마오얼 산 17, 252, 258, 477  
 마이마이가이 387, 462, 484  
 마이클 세이무어(Michael Seymour)  
 108  
 마카오 65, 95, 97, 103, 208, 213  
 마흐라타의 가르 252  
 만력제 76, 210  
 만리장성 6, 31, 32, 35, 59, 66,  
 69~71, 75, 110, 136, 143, 167,  
 180, 389, 399, 404  
 말갈 56  
 말레(Malais) 212  
 메나르드(Menard) 212  
 메도우즈(Meadows) 7, 53, 54, 292,  
 308  
 메드허스트(W. H. Medhurst) 98  
 메르젠 317  
 메이어(Mayer) 139  
 메테이에(Metayer) 212  
 메투엔 363, 370  
 면녕 93, 94  
 명 95, 104  
 모고 56  
 모르젠 395

모리 강 345, 449  
 모문룡 67~69, 233, 405  
 목두산 141  
 몽골 135~137, 160, 162, 279,  
 307~310, 313, 384, 386, 394,  
 395, 406, 416, 429, 472  
 몽골족 36, 50, 51, 58, 62, 69, 72, 75,  
 78, 110, 130, 157, 239, 304, 313,  
 321  
 무굴제국 88, 421  
 무단 강 35, 449  
 무라비요프(Muraviyov) 124  
 무왕 56  
 묵텐 7, 9, 33, 36, 37, 47, 49, 55, 59,  
 65, 67, 75, 121, 122, 140, 158,  
 165~167, 173, 174, 184, 208,  
 209, 213, 217, 218, 223, 224,  
 232~234, 237~242, 244~246,  
 250, 252, 308, 324, 365, 372, 375,  
 382, 386, 389~391, 393~395,  
 405, 462, 464, 465, 469, 474, 476,  
 484  
 문성 352  
 뭉상 강 273  
 미상 259  
 미얀마인 52  
 미장 366, 482  
 미장 강 353

**바**

바냐 신디(Banya-Sindhi) 163  
 바르굴 115  
 바옌수수 45, 172, 330, 331~333, 384,  
 480  
 바우들러 샤프 279  
 바이양무 337

바이히 109  
 바자쯔 14, 167, 213, 384, 429  
 바투 445  
 박닌 116  
 반디넬 228  
 발스타트(Whalstadt) 50  
 발해 56, 57  
 백두산 6, 9~12, 153, 195, 268, 270,  
 271, 274, 276, 278, 284, 286, 303,  
 372, 469  
 백산 268, 275~277, 282, 292, 469,  
 470  
 버지바인(Burgevine) 106  
 번스(Burns) 217  
 베두나 34, 35, 305, 313, 314, 381,  
 386, 398, 479  
 베롤르(Verrolles) 213  
 베르노(Berneux) 212  
 베이두안린쯔 172  
 베이린쯔 326~333, 480  
 베이양무 365, 481  
 베이징 8, 32, 33, 37, 43, 49, 57, 66,  
 69, 71~73, 75~77, 81, 86, 88, 91,  
 93, 98, 100, 105, 108~110, 120,  
 123, 125, 167, 173, 175, 181, 189,  
 210, 212, 216, 236, 237, 261, 264,  
 266, 278, 283, 284, 291, 300, 303,  
 308, 329, 333, 340, 373, 389, 395,  
 398, 409, 415, 419, 420, 426, 444,  
 469, 472  
 베이탕 109  
 베하르 190  
 벨그레이드(Belgrade) 148  
 벵갈인 54  
 보이어(Boyer) 211, 212, 214, 373, 384  
 보하이 32, 189, 276  
 북 왕 76

복룡 237  
 복희 291  
 부쉬 228  
 부여 56  
 복룡 238  
 브롤 213  
 브힐(Bhil) 203  
 블라고베셴스크(Blagoveshchensk) 8,  
 125, 233, 312, 316, 318  
 블라디보스토크 35, 125, 312  
 비노(Venault) 210, 211, 345, 429,  
 448, 457  
 비에(Biet) 212  
 비쯔워 406, 486

人

사그하리엔 313, 317  
 사르후 63~65, 68, 242  
 사키우 213, 400  
 사타타드(Satatads) 88  
 사트푸라(Satapura) 203  
 산다이쯔 213  
 산둥 70, 76, 110, 117, 142, 394, 411  
 산사키우 371  
 산시 성 76, 77, 91  
 산싱 35, 38, 43, 14, 126, 171, 233,  
 317, 324, 336~342, 345, 346,  
 348, 349, 398  
 산아린 34  
 산코린신 110  
 산하이관 38, 66, 67, 72  
 상하이 8, 14, 32, 48, 101, 106~109,  
 139, 147, 187, 240, 294, 300, 313,  
 399, 411  
 샴머니즘 130, 203

샤오바자쯔 384, 386  
 샤오시허 332, 335  
 샤오자텐 323  
 샤오칭쯔 387  
 샹허 371  
 샴인 52  
 서 왕 77  
 서발딘 242  
 선양 8, 9, 14, 33, 36, 65, 67, 233, 240  
 소백산 292  
 소콜로프스키 357, 359, 363, 364  
 손과 91, 92, 145  
 송 46, 94, 294, 295, 297, 376  
 솔레 396  
 수이펀 강 356  
 수호신 193, 202, 203, 389, 470, 471  
 숙수후 강 242, 244  
 숙순 111, 112  
 순치제 87~90, 93, 130, 245  
 순친왕 111, 112, 114, 115, 411  
 승기 121  
 승실 165  
 승장 285  
 승정제 68  
 승후 165  
 슈넬 409  
 슈발리에(Chevalier) 213  
 슈쉬텐쯔 398  
 스나이프(Snipe) 99  
 스완가 357, 482  
 스위푼 강 62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단 217  
 시라무렌 강 57  
 시라허 479  
 시몬(Simon) 212

시바지(Sivaji) 63  
 시베리아 35  
 시자쯔 강 304  
 시터성 266  
 시터우허 266  
 시호우 강 276  
 신기영(神機營) 139  
 신드(Sind) 13, 163, 422  
 신민 부 244, 275  
 신종 63, 65  
 심스 411  
 싱가포르 31, 298  
 싱강 36, 62, 63, 67, 121, 243, 244, 475  
 상안산맥 44  
 싱청 66, 68~70, 305  
 싱카이 호 32  
 싱카이링 400  
 쌍드린 396  
 쩌기아쯔 213  
 훙화 강 9, 32, 34, 35, 45, 53, 57, 62, 127, 177, 258~260, 262, 264~266, 271, 273, 275, 284~286, 291~293, 298, 303~308, 316, 319, 323, 324, 335, 338, 339, 341, 348, 361, 371, 372, 429, 430, 432, 433, 440, 449, 452, 471, 478  
 쓰빙가이 387  
 쓰촨 성 77  
 씨오도어(Theodore) 63

○

아루군스코 386  
 아무르 강 32, 35, 43, 52, 62, 90, 122~127, 172, 187, 211, 233, 311, 313, 317, 318, 338, 361, 429, 430, 432, 440~442, 445, 447~449, 460  
 아바(Ava) 117, 185, 410  
 아발로키테쉬바라(Avalokiteshvar) 195  
 아비씨니아(Abyssinia) 63  
 아세히 398  
 아우둔 370  
 아우랑제브(Aurangzebe) 63  
 아이콤폴 313  
 아이훈 조약 125, 338  
 아일랜드 장로교 선교단 217, 383  
 아편 7, 229, 234, 235, 287, 327, 328, 332, 352, 380, 419, 421, 422, 423, 424, 425  
 아프줄 칸(Afzul Khan) 63  
 알렉산더 윌리엄슨 265  
 알렉산드르프스크(Alexandrovsk) 124  
 알렌 49, 398  
 알바진(Albazin) 32, 43, 123  
 알세스테(H. M. S. Alceste) 96  
 압록강 14, 35, 42, 62, 162, 189, 227, 232, 244, 246, 251, 252, 258, 262, 265, 273, 274, 276, 277, 352, 474, 475  
 애로우(Arrow) 107  
 앤드류 35, 314  
 앰허스트 경 93, 96  
 야오자오 산 209  
 야쿠츠크(Yakutsk) 123  
 야콥 백 115  
 야펑 274  
 약사(Yaksa) 43  
 양쯔강 369  
 에드가(Edgar) 184

에드킨스(Edkins) 193  
 에딘버러 180  
 에르다오장 강 273, 286, 287  
 에르다오허 259  
 에모네(Emonet) 214  
 엘긴 경 108~111, 227  
 엘리엇(Elliott) 99  
 연해주 4, 32, 34, 125~127  
 엽명침 108, 109  
 영허즈밴드(Younghusband) 9, 12, 27,  
 31, 227, 228, 242, 256, 257, 266,  
 267, 272, 273, 280, 305, 307, 348,  
 372, 373, 399, 411  
 예수회 8, 36, 55, 63, 89, 90, 119,  
 216, 217, 233, 244, 275~278,  
 299, 303, 313, 317, 352, 370, 381,  
 467  
 예허 347  
 예허족 62, 64  
 오대징 356, 358  
 오도리 243, 370, 373  
 오모소 365, 371, 375  
 오문 277  
 오삼계 46, 72, 74~76, 85, 86, 90,  
 397, 406  
 오희츠크 헤 34, 123, 125  
 옹정제 90, 399  
 왕하오쯔 213  
 요나라 57  
 용연산 298  
 우 강 339  
 우궁 강 339  
 우루무치 116  
 우루카이 303  
 우수리 강 32, 35, 53, 122, 125, 211,  
 276, 344~346, 429, 432, 433,  
 437, 439, 441, 445, 448, 449, 460  
 우수후허 346  
 우치 56  
 워드(Ward) 106  
 원명원 110  
 원승환 66~69  
 원영태 65, 66  
 웨스트위터 390  
 웨이쯔허 344, 345, 369  
 웨이하이웨이 411  
 위구르족 148, 149  
 위나라 56  
 위시칭쯔 387  
 위시허커우쯔 286  
 위충현 72  
 위피타쯔족 53  
 윈링 243, 244  
 윌리엄 정복자(William the Conqueror)  
 46  
 윌리엄스(Williams) 95, 101, 299  
 우수심 222  
 유시칭쯔 35  
 유시허 286  
 융핑 71  
 읍루 56  
 이구성 69  
 이그나티예프 125, 338  
 이닝 115, 126, 348  
 이르쿠츠크(Irkutsk) 125  
 이리 90, 115, 116  
 이벨리나(Evelina) 213  
 이슬람교도 77, 112, 161, 236, 298,  
 382  
 이자성 72, 74~76, 82, 105  
 이저우 120

이코탕아 356  
 이홍장 106, 114, 116~118, 139  
 인도르(Indore) 190  
 인두세 178  
 임칙서 99, 100  
 잉커우 32, 35, 38, 45, 47, 48, 109,  
 120, 121, 179, 181, 189, 199, 212,  
 213, 217, 218, 290, 294

ㄷ

자오후우부 330  
 자하르 69  
 장난 성 105  
 장마오쯔족 53  
 장산 231, 294, 365, 375, 376, 399,  
 408  
 장저우 107  
 장짜이링 강 371, 372  
 자잔 303  
 저스틴 매카시(Justin McCarthy) 18, 94  
 저장 성 105, 107  
 전하이 100  
 정필 65, 66  
 제임스 웹스터(James Webster) 223  
 조선 9, 11~13, 17, 20, 31, 32, 34, 35,  
 46, 52, 56, 58, 64, 65, 67, 167,  
 212, 213, 352  
 조선인 5, 14, 17, 18, 20, 52, 56, 65,  
 127, 162, 163, 252, 253, 262, 264,  
 268, 277, 361, 373, 397  
 존 러셀(John Russel) 63, 94  
 존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199  
 주나라 56  
 주베르(Joubert) 212  
 주수 231, 305, 368, 399

주얼다오허 371  
 주피터 아몬(Jupiter Ammon) 61  
 준가르 분지 115  
 중국 자비 자매단 384  
 주산면 308  
 지린 9, 14, 17, 33, 34, 36, 37, 43,  
 45, 47, 120, 121, 126, 129, 137,  
 141, 158, 165, 167, 171, 172,  
 181, 187, 198, 233, 240, 259,  
 261, 264, 266, 269, 280, 284, 287,  
 288, 290~294, 297, 340, 348,  
 349, 352, 353, 365, 371~373,  
 375~378, 381, 387, 390, 391,  
 398, 429, 469, 474  
 지에판 65  
 진나라 56, 72  
 진이공 377  
 진저우 120, 407  
 진저우딩 38  
 진저우푸 38  
 징호 68

ㄹ

차하르 족 394  
 찰스 킹즐리(Charles Kingsley) 191  
 창바이산맥 4, 34, 35, 42, 44, 62, 172,  
 189, 201, 233, 258, 261, 304, 369  
 철령 390  
 청 53, 86  
 첸산 372  
 초르텐 91, 239  
 충하 116  
 치치하얼 14, 35, 37, 122, 165, 171,  
 180, 233, 240, 300, 307, 308, 312,  
 313, 315~317, 365, 386, 393, 398  
 칭기즈 칸 50, 57, 58, 148

**ㄱ**

카드 133, 328, 330, 332  
 카마던(Carmarthen) 129  
 카슈가르 115, 116, 148  
 카이위안 35  
 카이핑 399  
 카트만두 91, 309, 416, 417  
 칸다하르 298  
 갈목죽 75  
 갈스(Carles) 162, 268  
 감차트카 124, 125, 363  
 캐드머스(Cadmus) 163  
 켈트족 53  
 코사크 357~359, 361  
 콘스탄티노프스크(Konstantinovsk) 124  
 콜린(Colin) 212  
 관청즈 35, 38, 187, 217, 377, 381, 384, 389, 395  
 쿠빌라이 칸 58, 142, 394  
 큐 278  
 크리스티(Christie) 218, 219, 394  
 클라프로트(Klaproth) 52, 277  
 클레멘트(Clement) 191  
 키룽 117  
 키잉 393

**ㄴ**

타구르족(Thakurs) 185  
 타글리아부 212  
 타이핑커우 394, 462, 463, 467  
 타타루스(Tartarus) 51  
 타타르 50, 75, 230, 275  
 탕강즈 397

탕허 259, 260, 273  
 탕허커우 258, 264, 274, 275, 282, 284, 288, 478  
 태평천국의 난 104, 107, 108, 111, 112, 120, 124, 129, 139, 140, 353, 420  
 테니스슨(Tennyson) 196  
 테일러 메도우즈(T. Taylor Meadows) 33  
 테링 223, 382, 390  
 텐진 32, 48, 105, 110, 139, 294, 297, 349, 392, 393, 399, 411  
 토지세 178  
 토파즈(Topaze) 96  
 통구스인 5, 52, 123, 128  
 통화 현 244, 245, 259, 275, 293, 370  
 트리치노폴리(Trichinopoly) 182  
 티베트인 52, 419, 420

**ㄷ**

파레올(Farreol) 212  
 파타하먼 35  
 팔기군 16, 137, 139~141  
 팔라디우스(Palladius) 8, 142, 278, 292, 313, 389, 394, 472  
 팔머스톤(Palmerston) 94, 103  
 페루 39, 158, 237, 239, 314, 378, 398  
 팰라폭스(Palafox) 152  
 편잡 44, 422  
 평텐 32~34, 36, 37, 39, 56, 121, 137, 139, 163, 165, 167, 171, 181, 217, 347, 411  
 평황청 38, 276  
 폐낭 31  
 페르 기용 406

페르 레지 276, 277  
 페르 리토 384  
 페르 리파르드 332  
 페르 마비엘 384  
 페르 베르비스트 119, 292, 303  
 페르 아모 93, 239, 474  
 페르 이나르 396  
 페르 콘로 324, 391  
 페르탑가르(Pertab-garh) 63  
 페림 357  
 페테르부르크 조약 116, 338  
 평양성 35  
 포르퀴에(Porquie) 212  
 포시에트 312, 356, 360, 364  
 포야르크코프(Poyarkoff) 123  
 포이스티에(Poictiers) 211  
 폴타브스카야 347  
 폼페이 32  
 표트르 대제 124  
 푸르니에(Fournier) 116  
 푸르단 90, 347  
 푸저우 117, 139, 141  
 풀포드(H. Fulford) 12, 144, 228, 232,  
 240, 242, 249, 250, 251, 254, 257,  
 266, 267, 272, 274, 288, 306, 319,  
 326, 347, 359, 372, 373, 381, 389,  
 411  
 프리모르스크(Primorsk) 4, 90, 338

ㅎ

하드리아누스 35  
 하라바링 369, 483  
 하미 115  
 하바로프카 35, 125, 338, 361

하이난 142, 213  
 하이징링 372  
 하이청 397, 398, 405  
 한나라 56, 65, 373  
 한오 73  
 함풍제 103, 107, 110, 111, 120  
 항저우 106, 107  
 향야오 172, 173, 177  
 허난 76, 299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 217  
 혁(Huc) 89  
 헝다허쯔 357, 478  
 헤이룽장 9, 33, 35, 37, 53, 120, 123,  
 126, 137, 171, 172, 174, 317  
 헤이허 266, 274, 477  
 호두아라 59  
 호칸드 90  
 홍수전 104, 105  
 홍콩 14, 31, 100, 101, 240, 298, 300  
 홍타이지 68, 69, 70, 71, 81, 87, 131,  
 167, 186, 237~239, 394  
 후란 32, 38, 57, 121, 172, 307, 319,  
 321~326, 330, 381, 391, 392  
 후르가 강 14, 57, 62, 335, 339, 342,  
 344, 345, 348, 350, 369~371, 374  
 후아비허 62, 287  
 후투알라 계곡 243  
 후투흐타 샤르바 395  
 훈장 475  
 훈족 78  
 훈춘 38, 45, 14, 15, 171, 232, 233,  
 240, 241, 258, 259, 269, 274, 275,  
 276, 284, 312, 336, 338, 348~353  
 홍시허 258, 274, 275  
 히나드(Hinard) 214



동북아  
역사재단  
번역총서  
26

## 백두산 등정기 만주의 역사, 주민, 행정 그리고 종교에 관한 이야기

초판 1쇄 인쇄 2011년 4월 19일

초판 1쇄 발행 2011년 5월 1일

지 음 헨리 에번 머치슨 제임스(H. E. M. James)

옮 김 조준배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미근동 267)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7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1

ISBN 978-89-6187-225-6 93980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